E-Book

비글호 항해기

찰스 다윈 저 | 권혜련 · 김정석 · 박완신 · 이혜진 역 | 최재천 감수

진화론 연구의 발단이 된 경쾌한 문체의 여행기. 다윈이 1831년부터 1836년까지 영국 해군 측량선인 비글호를 타고 남아메리카 · 오스트레일리아 · 남아프리카 등을 탐사하며 남긴 일지를 정리한 것이다. 이 항해 중 다윈은 갈라파고스 제도를 비롯한 여러 지방의 동식물과 지질을 관찰함으로써 생물 진화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됐다. 생물학적 관찰뿐 아니라 현장감 있는 인문 · 사회학적 고찰이 풍부해 인간 다윈의 면모까지 느낄 수 있다. 최재천 국립생태원장이 감수를 맡아 번역의 완성도를 높였다.



OLJE CLASSICS

OLJE CLASSICS
74

비글호 항해기



올재의 꿈

올재는 지혜 나눔을 위해 2011년 9월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입니다. 예술과 문화 속에 담긴 지식과 교양을 널리 소개하고 향유함으로써, 격변하는 세상의 지향점을 찾고, 올바르고 창의적인 교육의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 올재의 꿈입니다. 특히 올재는 인문 고전이나 문화 예술을 접할 기회가 많지 않은 소외 계층과 저소득층 청소년들을 위해 다양한 지혜 나눔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올재의 첫 번째 지혜 나눔은 인문 고전입니다. 〈올재 클래식스〉는 최고 수준의 번역본을 부담 없는 가격에 보급합니다. 각 종당 5천 권을 발행하며 4천 권은 교보문고에서 6개월간 한정 판매합니다. 미판매된 도서와 발행 부수의 20%는 복지시설, 교정 기관, 저소득층 등에 무료 기증합니다. 출간한 번역본은 일정 기간 후 올재 인터넷 홈페이지(www.olje.or.kr)에 게시합니다.

Share the wisdom. Change the world.



올재의 벗

〈올재 클래식스〉《비글호 항해기》의 발행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 상당액은 〈올재 클래식스〉의 지혜 나눔 취지에 적극 공감한 SK의 도움으로 마련됐습니다. 국내 최대의 서점 교보문고는 〈올재 클래식스〉의 유통 지원에 도움을 주셨습니다. 표지 제호를 재능 기부해 주신 강병인 캘리그라피연구소 술통 대표 강병인 님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귀한 번역본을 올재에서 펴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권혜련, 김정석, 박완신, 이혜진 님께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올재 클래식스〉 출간이 전국 곳곳에 인문 고전 나눔으로 뜨겁게 이어지길 바랍니다. 올재의 첫 번째 지혜 나눔 〈올재 클래식스〉 출간에 많은 격려와 박수를 보내 주신 벗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전합니다.

정기 후원과 일반 후원으로 올재의 지혜 나눔에 참여하세요.
올재의 벗들이 심은 작은 홀씨가 전국 곳곳에 인문 고전의 꽃으로 피어납니다.

올재 후원함 | 예금주 사단법인 올재

국민은행 023501-04-184681
농협은행 301-0100-8607-71
신한은행 100-027-966986
우리은행 1005-401-996902
하나은행 162-910013-46904

올재 후원하러 가기

후원 문의처 | 올재 사무국

ⓣ 02)720-8278 ⓗ www.olje.or.kr ⓔ oljeclassics@olje.or.kr

@oljeclassics www.facebook.com/oljeclassics

지혜 나눔을 함께한 벗들







차례

일러두기

1. 도량형은 이해를 돕기 위해 야드 및 파운드법을 미터법으로 환산하였다.
2. 생물명은 속명, 종명까지 정확하게 일치하는 한국명이 없을 경우 가장 근접한 한국 속명으로 표기하였다.
3. 이해를 돕기 위해 추가한 각주는 '역주'로 표기하였다.

감수자의 말
《종의 기원》을 향한 여행

《비글호 항해기》는 《종의 기원》을 향한 항해기이다. 어린 시절 딱정벌레를 즐겨 채집했고 청년 시절에는 사냥을 즐겼던 다윈이었지만 비글호에 승선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면 아마 《종의 기원》은 지금 우리 곁에 없을 것이다. 윌리스 덕택에 어쩌면 자연선택론은 등장했을지 모르나 그 역시 지금처럼 확고한 학술적 지위를 얻지는 못했을 것이다. 윌리스도 독립적으로 자연선택의 메커니즘을 터득하기는 했지만 다윈만큼 평생을 바쳐 꼼꼼하게 이론적 준비를 하지는 않았다. 그랬다면 그토록 엄청난 사회적 공격을 견뎌낼 수 있었을지 의문스럽다.

기껏해야 아프리카 북서부 앞바다에 있는 카나리아 제도로의 탐험 여행을 꿈꾸던 다윈에게 세계 일주를 떠나는 비글호 승선은 그야말로 '꿈은 이루어진다' 수준의 환상적인 일이었다. 사실 카나리아 제도 역시 당시로서는 좀처럼 가보기 어려운 오지였다. 그곳은 바로 나폴레옹이 유배되었던 곳이다. 코르시카에 유배된 지 얼마 되지 않아 탈출하여 파리에 재입성한 나폴레옹을 또다시 보내놓고 파리 시민들이 두 다리 뻗고 잠들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카나리아 제도의 지형 때문이었다. 모터로 움직이는 배가 없던 당시로서는 제아무리 나폴레옹이라도 카나리아 제도에서 배를 띄우면 곧바로 아프리카로 향할 뿐 유럽으로 돌아오기는 힘들었기 때문이다.

그런 카나리아 제도를 거쳐 거의 5년에 가까운 세월 동안 지구를 한 바퀴 돌며 다윈은 참으로 많은 것을 보았다. 비글호의 출항 전부터 적기 시작한 일기와 더불어 자연에 대한 다윈의 이해 역시 차곡차곡 쌓여 갔다. 유럽과는 여러 면에서 엄청나게 다른 남미의 생물들을 접하며 다윈의 마음속에는 온갖 생각의 씨앗들이 뿌려졌다. 그러던 것이 영국을 떠난 지 거의 4년 만에 도달한 갈

라파고스 제도에서 드디어 싹이 튼 것이다. 한 달여 동안 갈라파고스의 많은 섬을 방문하며 다윈은 식물 군집 연구와 더불어 핀치 군집의 분포와 행동에 관한 연구를 수행했다. 갈라파고스 제도의 크고 작은 섬들의 환경과 식물 상에 따라 부리의 모양과 두께가 다르게 진화한 핀치의 이른바 '적응 방산adaptive radiation'을 목격하며 다윈의 마음속에는 이미 자연선택의 싹이 트고 있었으리라. 갈라파고스의 핀치는 훗날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조류학자 데이비드 랙David Lack과 현대 미국 프린스턴 대학의 교수인 피터 그랜트Peter Grant와 로즈메리 그랜트Rosemary Grant 부부의 수십 년에 걸친 연구 덕분에 진화생물학 발전에 가장 큰 기여를 한 새들이 되었다. 우리는 이제 그 새들을 '다윈의 핀치'라고 부른다.

갈라파고스 제도를 떠난 비글호는 비교적 빠른 속도로 귀향한다. 남미를 돌아 갈라파고스 제도에 이르는 데 거의 4년이 걸린 것에 비하면 남태평양과 인도양을 거쳐 아프리카 남단을 돌아 다시 남미를 딛고 영국으로 돌아오는 데 불과 1년 남짓밖에 걸리지 않았다. 덕분에 뒤늦게나마 서둘러 영국에 돌아온 다윈도 그리 오래지 않아 자연선택에 관한 그의 생각을 정리했다고 알려져 있다. 다만 워낙 소심한 성격인 데다가 '선택자selector' 즉 조물주의 간섭 없이도 자연은 스스로 적응에 성공한 자들을 선택한다는 자신의 결론이 당시 빅토리아 시대의 사회 관념에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윈은 거기서 항해를 멈추지 않았다. 비글호를 타고 난생 처음 들르는 곳마다 그의 고정관념에 도전했던 새로운 생물들을 만났던 마음으로 다윈은 그의 '위험한 아이디어들'이 불러일으킬 온갖 도전을 스스로 예상하고 그에 대해 일일이 '답변 일기'를 썼다. 이 같은 '비글호 후 항해기'를 갑자기 멈추게 한 월리스의 편

지가 아니었다면 거듭 말하지만 《종의 기원》은 영원히 탄생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이 책을 읽는 독자들에게 훗날 반드시 《종의 기원》을 함께 읽을 것을 권한다. 이 책은 다윈이 1839년에 출간한 원본을 개정하여 1845년에 다시 출간하고 《종의 기원》을 내고 난 다음 해인 1860년에 새롭게 각주를 보탠 책을 번역한 것이다. 함께 읽으면 한층 맛이 새로울 것이다. 데이비드 콰멘이 서문에서 지적한 대로 《비글호 항해기》는 다윈을 작가로 '등단'시킨 책이다. 때로는 거의 한 페이지를 넘도록 마침표를 찍지 못하는 《종의 기원》의 문장들과 달리 이 책의 글들은 경쾌하다. 새로운 곳에서 느끼는 감정들이 물씬 묻어나는, 그야말로 여행기이기 때문이리라. 미지의 세계를 탐험하는 여행자로서 또는 진화의 세계로 학문의 여정을 떠나는 지성인으로서 참으로 값진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비록 여행기이긴 하지만 다윈이 깊은 생각에 빠지는 부분에서는 함께 사색에 빠져도 좋을 것이다. 다윈은 이 책의 마지막 페이지에서 말했다.

"한 곳에서 잠시밖에 머물지 않는 여행자의 묘사는 세밀한 관찰이기보다는 단순한 스케치에 그치고 만다."

최재천

국립생태원장, 이화여대 석좌교수

역자 서문
살아 숨쉬는 다윈을 만나러 가다

우리는 '할아버지' 다윈을 알고 있다. 과학 시간에 '다윈'이라는 이름을 한 번도 듣지 않고 학교를 다닌 사람은 없을 것이다. 교과서에 등장했던 흰 수염이 덥수룩하고 눈이 깊이 들어간 엄숙한 표정의 다윈 초상화가 떠오른다. 뒤이어 갈라파고스, 핀치의 부리, 적자생존, 자연선택 등등이 이어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진화론'은 책 속에 또는 박물관의 유리 속에 박제되어 있다.

자, 이제 '청년' 다윈을 만나보자. 가슴 뛰는 열정과 억누를 수 없는 호기심을 가득 안고 미지의 세계에 첫발을 내딛는 살아있는 다윈. '진화'는 책 속에서 나와 우리와 같이 호흡하게 될 것이고 그대로 대자연 속으로 녹아들어 간다.

누구나 삶을 사는 동안 이런 저런 계기를 만나게 되며 그것이 인생의 항로를 바꾸는 전환점이 되기도 한다. 집안의 기대를 저버리지 못해 의대와 신학대를 다니면서도 자연에 대한 관심과 애정의 끈을 놓지 못했던 다윈에게 비글호 승선이라는 기회가 거의 운명처럼 다가왔고 다윈은 그 끈을 잡았다.

늘 번역에 대한 막연한 기대와 꿈을 가지고 있던 우리 역자들에게도 드디어 기회가 왔다. 나로 말하자면, 무엇보다도 줄기차게 관심을 가지고 있던 '진화'와 관련된 분야였기에 그 가슴뜀과 설렘은 난생 처음 열대 숲을 거니는 젊은 자연사학자 다윈 못지않았다. 다윈이 미지의 신세계에 빠져들어 가는 그 심정으로 나도 다윈의 항해일지 속으로 미끄러져 들어갔다.

5년간의 여행을 통해 다윈은 자연을 바라보는 관점에 커다란 변화를 맞는다. 생물종 하나하나가 독립적으로 창조된 뒤 현재의 모습으로 고정불변하는 것이 아니라, 계통적으로 어떤 관련이 있으며 시간의 흐름에 따라 환경에 적응해 변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다.

생명을 바라보는 관점, 나아가 자연을 바라보는 관점은 현재의 우리에게도 중

요한 문제다. 생명을, 자연을 개개의 것으로 분리해 단순히 우리가 이용하는 대상으로 보느냐, 아니면 전체적인 맥락에서 우리가 영원히 공존해야 할 장場으로 보느냐에 따라 자연을 대하는 자세는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 책을 통해 자연을 통합적으로 바라보고 그 속에 살고 있는 생물의 인과관계에 주목한 다윈의 깊고 넓은 통찰력에 한 발짝 다가갈 수 있으리라 믿는다.

다윈은 현지에서 보고 들은 내용을 빼곡히 기록한 18권의 노트를 정리해 이 책을 출간했으며, "내 최초의 문학 작품"이라 부를 만큼 자신의 그 어떤 저서보다도 이 책에 애정을 갖고 있었다. 다윈이 저자 서문에서 밝혔듯 이 책에는 그리 심오하고 정제된 어떤 이론이 제시되어 있지는 않다. 여행에서 보고 들은 내용을 세세히 묘사하고 이에 더해 자신의 해박한 지식과 날카로운 추리력을 바탕으로 여러 가설을 제시하고 있다. 간혹 다윈 자신도 이렇다 할 설명을 내놓지 못하는 현상에 대해서는 다른 이들의 과제로 남겨놓은 부분도 있다. 물론 이런 과정 속에는 훗날 사람들의 세계관을 뒤바꿔놓을 이론의 '씨앗'이 들어 있다.

또한 자연과학적 관찰 사실 외에도 인문사회학적 고찰 내용도 풍부해 책을 읽다 보면 '인간' 다윈의 매력에 푹 빠지게 된다. 번역을 시작하며 방향을 설정하는 데에도 젊은 자연사학자 다윈이 자연을 대하며 갖는 왕성한 호기심과 새로운 사실을 접하면서 느끼는 감동, 현지 주민과의 교감 등 정의적인 측면을 부각시키는 데 중심을 두었다. 한마디로 이 책은 순수과학서라기 보다는 '고전문학적 가치가 있는 과학여행기'라고 할 수 있다.

이 책을 접하는 독자분들도 역자들이 원서를 대하며 느꼈던 감동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기쁠 것이다. 고전 읽기를 좋아하는 독자라면

놓치지 않길 바란다. 이 책이 영국에서 발간되었을 당시 다윈은 친구들에게 이 책을 선물하기 위해 막대한 빚을 졌다는 일화가 있다. 이 책을 독자들보다 조금이라도 먼저 접한 사람으로서 다윈의 그 마음이 십분 이해가 간다. 도서관에서도, 서점에서도 오래오래 만날 수 있는 책으로 자리 잡기 바란다.

2016년 봄

역자 대표 권혜련

역자 해제

1832년 하순, 영국의 플리머스 항에 정박한 대략 27미터 길이의 비글호는 5년으로 예정된 세계일주 항해에 대비하고 있었다. 이 배의 두 번째 항해를 지휘할 함장 피츠로이는 당시 27세에 불과했지만, 영국과 아일랜드에 광대한 영지를 가지고 있는 귀족 집안 출신으로 해군사관학교 시절에는 수학과 과학에 탁월한 재능을 보였다. 그는 동반자를 구하고 있었는데, 조건은 자연사학자여야 할 것, 그래서 항해 중 비글호와 마주치는 여러 동식물을 기록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 그리고 어느 정도의 신분이 있어야 하며 세련된 대화를 나눌 수 있어야 하고 고독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 당시 찰스 다윈은 의사가 되기를 원하는 아버지를 피하는 방법으로 성직자(그 당시는 안정과 존경이 따랐다)의 길을 요구받아 케임브리지로 신학 학위를 얻기 위해 가 있었지만 그리 열심히 공부하는 신학생은 아니었고 오히려 자연사 공부에 더 몰두해 있었다. 다윈이 나중에 과학적인 실험 방법을 배우거나 위대한 학문적 업적을 이루는 데는 그전에 있었던 에든버러 의대의 동물학자인 '로버트 그랜트'와 당시 케임브리지 대학의 식물학자인 '존 스티븐스 헨슬로'가 큰 도움을 주었다. 한편, 다윈은 공부할 초기에 자신에게 맞지 않은 교육 방법과 선입관으로 인해 지질학에 큰 관심을 갖지 않았지만, 케임브리지 대학 시절 마지막 일 년차에는 지질학에도 어느 정도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피츠로이 함장의 부탁을 헨슬로 교수로부터 제안 받은 찰스 다윈은 아버지의 강한 반대에 부딪히지만 외숙부의 도움으로 드디어 비글호에 오르게 된다. 다윈은 세계 여러 지역을 항해하며 조사한 내용들을 18권의 노트에 기술하는데, 그것이 바로《비글호 항해기》이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과학적 여행기로 평가받는 이 책은 1839년 초판을 시작으로 3판까지 출판되었으며, 다윈이 쓴 많은 논문들과

저서들에 증거나 사례를 제공하는 방대한 분야의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다. 생물, 화석, 지질, 지역별 인류의 사회 문화나 생활 모습 등 여러 분야의 내용들이 다윈의 날카로운 관찰력과 과학적 통찰력을 통해 세밀하게 기록되어 있다. 사실, 다윈이 비글호에 처음 오를 때는 생물학보다 그 당시 몰두하고 있었던 지질학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항해 중에도 다윈은 그 당시 유행하던 격변설을 비판하고, 동일과정설을 주장하는 찰스 라이엘의《지질학 원리》라는 책에 더 심취해 있었고, 생물학에는 큰 비중을 두지 않았었다.《종의 기원》에 대한 생각은 항해가 끝난 뒤 영국으로 돌아온 후에 생긴 일이다. 따라서 지질학적 탐구방법이나 조사 결과는 항해기의 내용 중 많은 부분을 차지하면서 후에 그를 진화론으로 이끄는 큰 계기가 된다. 다윈이 자신의 진화론을 만드는 데에는 의사 가문이었던 그의 조부인 '에라스무스 다윈'의 영향도 컸다. 의사이자 동시에 자연사학자, 발명가, 식물학자이고 인기 있는 시인이기도 했던 에라스무스는 '자연의 신전'이란 시에서 오늘날 살아 있는 모든 동식물이 태초에 미생물로부터 진화했다고 말한 바 있다. 그렇다면 태초의 지구에 존재했던 생물들은 현재의 생물들과 다르다는 사실을 어떻게, 어떤 과정으로 서로 관련시켜 설명할 수 있을까라는 물음에 훌륭하게 답한 다윈의 진화론은, 조부의 생각을 과학적으로 해석함과 동시에 수많은 연구와 자료들에 의해 뒷받침된 획기적인 이론이었다.

드디어 비글호는 첫 기항지인 카보베르데 제도에 도착했다. 이곳에서 다윈은 라이엘의 접근 방법으로 지형이나 지질 특징을 기술하고 있다. 그는 화산암으로 된 산을 올라가 당초의 화산이 바다 속에서 폭발해 퍼지면서 산호나 조개류 등을 태워 죽였음을 보여주는 흔적을 발견했다. 용암이 바다 속을 침강과

융기과정을 반복하는 일이 최근에도 일어났음을 알 수 있는데, 왜냐하면 절벽의 바위층 일부에서 현재 섬 주변의 조개와 같은 화석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한편, 다윈은 문어의 몸색깔 변화나 복어의 생태 등과 함께 여러 동식물, 바위를 관찰하기도 했다. 1832년 2월 말에 비글호는 남아메리카에 도착했다. 비글호는 리우데자네이루에 3개월 동안 정박한 뒤 남쪽으로 향했다. 그로부터 3년간 비글호는 남아메리카의 해안을 항해했지만 다윈은 대부분 육지에서 보냈다. 브라질의 정글에 매료되어 그곳에 거처를 마련하기도 했으며, 파타고니아에서는 말을 타고 몇주씩을 돌아다니다가 배 시간에 맞춰 돌아가기도 했다. 다윈은 야외 생활에 잘 적응했으며 그 지방의 생활 방식에도 잘 적응했다. 그 후 그는 학자로서 만성적이고 허약한 은둔자였지만 젊었을 때의 다윈은 분명 보다 모험적이고 의욕적인 모습이었다. 그 당시 다윈은 반딧불이, 다윈타조 등 여러 생물들의 생태나 지형이나 지질적 특징, 노예들의 삶과 비애, 가우초 등 마주치는 모든 것들을 관찰하고 기록했다. 남부 파타고니아 평원에서 다윈타조의 발견은 한 종이 다른 종으로부터, 기후 등에 의한 환경 차이와 경쟁을 통해 진화할 수 있다는 개념을 다윈이 확립하는데 도움을 주었으리라. 한편, 아르헨티나 해안의 푼타알타 근처에서 큰 코뿔소로 짐작되는 대형 포유류의 이빨과 대퇴골을 대량 발견하여 영국으로 이 화석들을 보내기도 했다. 그 당시 다윈은 수집가에 불과한 역할을 담당했지만, 의문스러워했던 점은 멸종한 생물들의 존재를 증명한 퀴비에의 얘기와는 다르게 오늘날 현존하는 조개류와 거의 똑같은 화석들과 함께 섞여 있었다는 사실과 화석이 그리 오래되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후에 다윈은 멸종한 종과 현존하는 종간의 유연관계는 지금 이순간의 생물체의 출현과 소멸에 중요한 증거를 제시하리라고 기술

하고 있다. 1832년 12월 비글호는 티에라델푸에고 지방을 통과했는데, 피츠로이 함장에게는 항로 중에서 중요한 장소가 되었다. 선교사와 함께 영국식으로 교육한 인디오 원주민 3명을 그곳에 풀어주었기 때문이다. 선교 본부의 설립은 결국 실패했지만 이곳에 정착한 교육된 인디오들은 확신할 수 없었지만 잘 살 수 있으리라 여기며 비글호는 혼 곶을 돌아 남아메리카의 서해안으로 항로를 잡았다. 다윈은 이러한 일련의 사건을 통해 야만인과 문명인, 정신력의 우월성과 기술의 발달에 대해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비글호가 발파라이소 지방에서 남쪽 칠로에 섬으로 항해하는 동안 다윈은 오소르노 화산 정상에서 연기가 솟아오른 것을 목격했다. 1835년 1월의 어느 날 밤 오소르노가 폭발했고 큰 돌과 불꽃들이 하늘로 치솟았다. 몇 주 후인 2월 20일 비글호가 발디비아에 닻을 내렸을 때, 다윈은 해안의 한 숲에서 결코 잊을 수 없는 대지진을 실제로 경험하는데, 2분 정도 계속됐지만 훨씬 더 길게 느껴졌다고 기술하고 있다. 이러한 지진은 1초만 겪더라도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불안감을 맛보게 된다고 그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북쪽의 콘셉시온 지방에서 목격한 폐허와 참상은 매우 심각했다. 다윈은 지진과 더불어 밀려오는 엄청난 크기의 해일로 마을이 심각하게 피해를 입는 장면을 생생하게 묘사하면서, 단 한 번의 지진으로도 한 나라의 번영이 송두리째 파괴될 수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라이엘의 지질학 책 속에 이 현상에 대한 설명이 있다는데 생각이 미친 다윈은 녹은 바위의 압력으로 오소르노 화산이 폭발했을 것이고 이어 남은 힘으로 지진이 일어났다고 해석하면서, 녹은 바위의 밀어 올리는 힘 때문에 바다에서 땅이 솟아올랐고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땅이 계속 솟아올라 산맥이 생겼을 것으로 해석했다. 그 당시 다윈은 계속 코르디예라 산맥을 탐사

하면서 동물보다는 지질 조사에 더 많은 시간을 보냈다. 안데스 산 정상에 있는 인디오의 집들이 파괴된 사실과 그곳 식물상이 빈약하다는 점, 그리고 지진과 화산 폭발이 잦은 것으로 보아 안데스 지역은 지질학적 연대로서 최근에 탄생했다고 다윈은 결론을 내렸다. 같은 해 8월 다윈은 동일과정설을 주장한 라이엘의 절대 지지자임을 자처했다.
남아메리카 서해안 조사를 끝낸 비글호는 북쪽의 리마에 들른 뒤 남아메리카 대륙을 벗어나 갈라파고스 제도의 채텀 섬에 제일 먼저 기항했다. 이 제도는 다윈의 진화론이 태어난 곳으로 유명하지만 정작 다윈 자신은 이곳을 다녀 간 지 2년이 넘어서야 이곳의 중요성을 깨달았다. 후에 다윈은 갈라파고스 제도의 자연사는 매우 독특해서 마치 또 다른 하나의 세계인 것 같다고 회고한 바 있다. 등껍질 지름이 2미터가 넘는 거대한 갈라파고스 거북과 두 종류의 이구아나, 다양한 새 종류와 핀치새의 부리 등 짤막한 기록만을 남기고 각각 어느 섬에서 채집했는지를 제대로 기록하지는 않았다. 그 당시만 해도 다윈은 생물학보다는 지질학에 더 관심이 있었으며 단지 새로 만들어진 땅을 찾을 수 있으리란 기대에 가득 차 있었다. 후에 영국으로 돌아온 다윈은 새들을 분류했고, 그러고 나서야 한 생명체가 한 가지 형태에서 다른 형태로 변화하는 모습을 깨달을 수 있었다. 채집 당시에 다윈은 단지 이 새들이 남아메리카 원산으로 어느 시점부터 이 섬에서 서식하기 시작했다고 막연하게 생각했을 뿐이다. 비글호가 제도를 떠나기 직전에 다윈은 로손으로부터 각 섬의 거북은 등껍질 무늬가 다르다는 얘기를 듣게 되는데, 이는 저마다 독립된 종일 수도 있다는 의미였다. 식물도 각 섬마다 다르다는 사실을 다윈은 알았다. 후에 다윈은 생물의 분포에 있어 이렇듯 가장 두드러진 사실을 입증할 만한 충분한 자료를

얻었다는 것에 감사한다고 기술했다.

비글호는 갈라파고스 제도의 탐사를 마치고 3주 후에 타히티 섬에 정박했으며 그로부터 4주 후에는 뉴질랜드에, 2주 후에는 호주에 정박했다. 사회로부터 버림받은 부류의 사람이라는 선입관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뉴질랜드 주민들이 타히티 원주민만 못하다고 다윈은 느꼈으며 뉴질랜드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 반면에 호주의 시드니에서는 아주 좋은 인상을 받아서 대영제국의 힘을 과시하는 증거라고 생각했다. 인도양을 지나면서 비글호는 산호초 해도를 그리라는 임무를 받았다. 킬링 섬에서 산호초를 관찰한 다윈은 이것이 작은 생물들로 이루어졌음을 알았다. 다윈은 그 당시 산호초의 형성 원인에 관한 과학적 추론에 중점을 두고 있었다. 그는 환초와 보초, 거초라는 산호초 생성 과정을, 산호의 형성 과정이나 대륙의 침강, 융기 작용 등 여러 가지 관찰 사실과 이론을 바탕으로 과학적 추론에 따라 설명했다. 여기서 다윈은 라이엘의 가설이 부자연스럽다고 여기며 그의 원칙들을 이용해서 산호초 형성에 관한 보다 나은 설명과 실험 방법까지 제시했다. 다윈은 이제 더 이상 단순한 수집가나 미숙한 자연사학자가 아닌 독립된 사고를 하는 과학자였다. 실제 다윈이 자신감을 획기적으로 얻을 수 있었던 분야는 지질학이었다. 이러한 자신감은 후일 다윈이 종의 기원에 대해 보다 깊이 몰입할 수 있도록 했을 것이다. 다윈 자신의 입장에서 본다면 비글호의 항해 탐사를 통해 얻을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것은 진화의 증거를 포착했다는 사실보다는 과학자로서의 자신감을 얻게 된 점이 아닐까. 지질학자로서의 다윈은 수백만 년이란 단위로 지구를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갖게 되었고, 이를 생물이란 대상에 투영해 보면 생명이 어떻게 변화해 가는지를 깨달을 수 있었을 것이다.

비글호는 그 후 희망봉을 돌아 아조레스 제도를 거쳐 약 6개월이 지난 1836년 10월 2일, 영국의 팔머스 항으로 귀항했고 다윈은 이미 유명해져 있는 상태가 되어 있었다. 다윈의 편지에서 발췌한 내용들은 논문으로 작성되었고, 그가 제작해서 보낸 표본들은 과학적 증거로서 중요한 자료가 되어 있었다. 다윈은 몇 달 후, 항해 동안의 연구가 결실을 맺어 장래가 가장 촉망되는 과학자로 인정받았다.

비글호의 항해기를 읽다 보면 다윈이 관찰하고 해석했던 여러 사례들이나 설명들이 그를 자연선택에 의한 생물의 진화라는 큰 흐름으로 이끌고 있음을 충분히 알 수 있다. 그 당시 다윈이 수집하고 실험했던 섬세하고도 치밀했던, 실로 엄청나게 많은 양의 자료들은 신에 대한 모독이자 이단이라고 공격하는 윌버포스 주교와 오웬 교수 등의 많은 보수적 자연사학자의 분노에 찬 공격을 막아내는데 큰 역할을 했다. 물론 토마스 헉슬리의 도움이 컸다. 1870년대에 이르러 영국의 거의 모든 과학자들은 다윈과 많은 논쟁을 하면서도 그의 진화론을 조금씩 받아들이기 시작했고, 20세기가 되어서야 비로소 그 가치가 제대로 발휘되기 시작했다. 고생물학자와 지질학자들은 지구 연대기를 작성했고, 이어 자연선택과 유전의 배후에 있는 물질의 분자 수준까지 찾아 연구하기 시작했다. 그 후 진화과정을 거친 여러 진화론들은 바이러스에서 사람의 뇌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연구 대상과 각종 분야에 진화라는 개념이 적용될 수 있는지를 이해시켜 갔다. 이제는 많은 자연사학자들이 진화론의 진위보다는 진화 과정의 분자적 기작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현재 영국의 자연사박물관 앞에는 다윈의 동상이 세워져 있으며, 뉴턴의 무덤이 있는 웨스트민스터 사원에는 그의 시신이 안장되어 있다.

머리말

이 책의 초판 서문과 《비글호 항해의 동물상》이라는 책에서 이미 언급했듯이, 피츠로이 함장은 비글호 항해에 과학자들이 참여하기를 원했다. 함장은 자신의 숙소 일부를 양보하는 불편을 감수하면서 그 임무를 제의했으며, 나는 수로학자인 뷰포트 대령의 도움으로 해군성의 재가를 얻어 그 임무에 자원했다. 항해 중에 우리가 방문한 여러 나라의 자연사自然史에 대해 연구하는 즐거움을 맛볼 수 있었던 것은 순전히 피츠로이 함장 덕분이다. 이 자리를 빌려 그에게 거듭 감사의 뜻을 전하고 싶으며, 우리가 함께한 5년 동안 그로부터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따뜻한 우정과 지속적인 도움을 받았음을 덧붙인다. 기나긴 항해 동안 피츠로이 함장을 비롯한 비글호의 사관[1] 모두가 나에게 베풀어 준 친절함에 무한한 감사를 드린다.

이 책은 항해의 여정과 자연사적 · 지질학적 관찰 내용을 일지 형식으로 쓴 것으로 일반 독자들도 흥미를 느낄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이번 판은 대중이 쉽게 읽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몇몇 내용을 대폭 줄이거나 고쳤으며 어떤 부분은 덧붙이기도 했다. 그러나 보다 상세한 내용을 알고자 하는 자연사학자들은 탐험의 학문적 결과가 정리된 여러 책들을 참고해야 할 것이다. 《비글호 항해의 동물상》에서 오언 교수는 화석화된 포유류를 설명했고, 워터하우스 씨는 현존하는 포유류, 굴드 씨는 조류, 제닌스 씨는 어류, 벨 씨는 파충류에 대해 각각 설명하고 있다. 나는 각 종의 특징을 기재한 뒷부분에 덧붙여 이것들의 습성과 분포를 기술했다. 이러한 연구물들은 위에서 언급한 유명한 저자들의 뛰어난 재능과 사심 없는 열정이 있었기에 가능했으며, 또한 마제스티 재단의

1 발파라이소에서 내가 아팠을 때 친절히 보살펴 준 비글호의 외과 의사 바이누 씨에게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뜻을 전한다.

후원금이 없었다면 수행되지 못했을 것이다. 재무장관의 소개로 이 책을 발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일부인 천 달러를 기부해 주었다.

나는 관찰 결과들을《산호초의 구조와 분포》,《비글호 항해 동안 방문한 화산섬》,《남아메리카의 지질학》 등 여러 권으로 나눠서 발간했다.《지질학 보고서》 제6권에는 남아메리카의 표석과 화산현상에 대한 내 논문이 두 편 실려 있다. 워터하우스, 워커, 뉴먼, 그리고 화이트 씨 등은 곤충에 대한 우수한 논문들을 출간했으며, 향후 더 많은 논문이 나올 것이라 믿는다. 후커 박사는 〈남반구의 식물학〉이라는 방대한 논문에서 남아메리카의 식물에 대해 설명할 것이며,《린네 회보Linnean Transaction》에 게재한 또 다른 논문에서는 갈라파고스 제도의 식물상에 관해 기술하고 있다. 헨슬로 교수는 킬링 제도에서 내가 채집해 온 식물 목록을 출간했고, 버클리 신부는 내가 채집한 민꽃식물에 대해 기술했다.

이 책을 비롯해 여러 저술 작업을 하는 동안 도움을 준 여러 자연사학자들께 감사를 드린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헨슬로 교수께 가장 감사를 드려야 할 것 같다. 그분은 내가 케임브리지 대학에 다니는 동안 자연사의 재미를 알게 해 주셨고, 항해하는 동안 내가 채집해서 고국으로 보낸 것들을 잘 관리해 주셨다. 또한 돌아온 후에도 최상의 친구만이 베풀 수 있는 도움을 지속적으로 주셨다.

1845년 6월 9일

켄트 주 브롬리의 다운에서



생자고-카보베르데 제도



제1장
생자고–카보베르데 제도

포르토프라야–리베이라그란데–적충류가 섞여 있는 먼지–군소와 문어의 습성–화산 기원이 아닌 상파울 암초–기이한 껍데기–섬의 첫 서식자, 곤충들–페르난도노로냐–바이아–광택이 나는 바위–가시복의 습성–원양의 황녹조류와 적충류 바다–변색의 원인

1831년 12월 27일, 드디어 비글호는 영국 해군 피츠로이 함장의 지휘하에 10개의 포문을 갖추고 영국의 데번포트를 출발했다. 남서쪽에서 불어오는 심한 폭풍 때문에 출항 후 두 번이나 되돌아와야 했던 터였다. 이번 항해의 목적은 킹 함장이 1826년부터 1830년에 걸쳐 파타고니아와 티에라델푸에고[1]에 대해 조사한 것을 마무리하고, 칠레와 페루 연안 및 태평양의 여러 섬들을 탐사하며, 전 세계에 걸쳐 경도를 측정하기 위한 것이다. 1월 6일, 테네리페에 도착했으나 우리가 콜레라를 전염시킬까 봐 두려워한 그곳 주민들은 상륙을 허락하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그란카나리아 섬의 울퉁불퉁한 바위 너머로 떠오른 해가 테네리페 봉우리를 찬란히 비추었으며 산 아래쪽은 아직도 구름 속에 잠겨 있었다. 결코 잊을 수 없는 여정의 첫날이 시작된 것이다. 1832년 1월 16일, 우리는 카보베르데 제도[2]의 주요 섬인 생자고에 있는 포르토프라야에 정박했다.

바다 쪽에서 바라본 포르토프라야 인근의 풍경은 황량하다. 과거에 일어난 화

1 남아메리카 대륙 남쪽 끝에 있는, 마젤란 해협의 남쪽에 위치한 제도. 마젤란이 이 지역을 처음 탐사하였을 때 반나체의 원주민들이 불을 피우는 것을 보고 '불의 섬'을 의미하는 티에라델푸에고 Tierra del Fuego라고 이름을 붙였다–역주.

2 아프리카 대륙 서안, 북대서양에 위치한 제도. 세네갈의 서해안에서 약 620킬로미터 떨어진 중부 대서양에 있는 섬나라이다. 15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지금의 카보베르데 공화국에 해당한다–역주.

산 폭발과 열대 태양의 타는 듯한 열기 때문에 토양의 대부분은 식물이 자라기에 적합하지 않다. 평탄한 대지가 계단형으로 연결되어 있고 중간이 잘린 듯한 원뿔형 언덕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으며, 이보다 조금 높은 산들이 지평선을 들쭉날쭉 둘러싸고 있다. 이런 기후의 뿌연 안개 사이로 보이는 광경은 매우 흥미롭다. 이제 막 상륙해서 처음으로 야자나무 숲에 발을 들여놓은 사람이라면 행복 이외의 것은 생각할 수 없으리라. 이 섬은 대체로 매우 무미건조해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영국 풍경에만 익숙한 사람에게는 완전히 불모지인 이 땅에 나무 몇 그루 있는 것 자체가 오히려 경관을 망친다고 할 정도로 웅대함 같은 것이 느껴진다. 드넓은 용암 대지에는 푸른 나뭇잎 하나 없지만, 염소 떼와 소 몇 마리 정도는 그럭저럭 살고 있다. 비는 거의 오지 않지만, 1년 중 아주 짧은 기간에 집중적으로 내리고 때맞춰 바위틈마다 식물들이 활짝 피어오른 후 곧 시들어 버린다. 이렇게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건초 덕분에 동물들이 살 수 있는 것이다. 1년 중 지금은 비 내리는 시기가 아니다. 생자고 섬을 처음 발견했을 때만 해도 포르토프라야 인근은 나무로 덮여 있었다고 한다.[3] 그런데 세인트헬레나와 카나리아 제도의 몇몇 섬에서 그랬던 것처럼, 이곳에서도 무분별하게 벌채를 해대는 바람에 이제는 불모지나 다름없게 된 것이다. 넓고 바닥이 평평한 계곡은 비가 내리는 며칠 동안만 수로 역할을 하며, 잎이 없는 관목 덤불로 덮여 있다. 생물이 거의 살지 않는 이 계곡에서 가장 흔한 새는 물총새Dacelo iagoensis다. 이 새는 아주까리 가지 위에 맥없이 앉아 있다가 메뚜기나 도마뱀을 쏜살같이 공격한다. 깃털 색은 밝으나 유럽 종만큼 아름답지는 않고, 날아다니는 모습이나 습성 그리고 서식지의 위치 등이 유럽 물총새와 많이 다르다.

어느 날 비글호 사관 두 명과 나는 포르토프라야에서 동쪽으로 몇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리베이라그란데에 갔다. 생마르탱 계곡에 도착하기까지는 예의 그 침침한 갈색 풍경이 전개되더니만, 이곳에는 가느다란 시냇물이 흘러 나무

3 이 항해 일지의 초판을 독일어로 번역한 디펜바흐 박사에 근거한다.

들이 무성하게 자라고 있었다. 한 시간 정도 걸려 리베이라그란데에 도착했다. 거의 폐허가 되다시피 한 요새와 대성당을 보고 적잖이 놀랐다. 이 작은 마을은 포구가 메워져 없어지기 전까지는 섬의 요지였다. 지금은 침울한 분위기가 느껴지지만 그래도 그림과 같은 풍경을 자아낸다. 흑인 신부에게 안내를 맡기고 반도 전쟁에 참전했던 스페인 사람을 통역가로 고용하고 나서, 고대 교회들이 주를 이루는 건축물들을 보러 갔다. 이곳에는 섬의 총독과 군 장성이던 사람들이 묻혀 있다. 묘비 몇 개에는 16세기 날짜가 새겨져 있는 것이 보이며,[4] 우리는 저녁 식사를 하기 위해 벤다vênda로 돌아왔다. 새까만 피부의 많은 사람들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 우리를 보려고 몰려들었다. 그 사람들은 매우 명랑했고, 우리가 말을 하거나 뭔가를 할 때마다 큰 소리로 웃어 댔다. 마을을 떠나기 전에 대성당을 방문했다. 대성당은 그보다 작은 다른 교회에 비해 그리 부유해 보이지 않았으나, 기이한 불협화음을 내는 작은 오르간 한 대를 자랑거리로 여겼다. 우리는 흑인 사제에게 몇 실링을 선물했다. 통역을 맡은 스페인 사람은 사제의 머리를 살짝 건드리며, 피부색 따위는 큰 문제가 안 된다고 허심탄회하게 말했다. 그러고 나서는 조랑말을 타고 전속력으로 달려 포르토프라야로 돌아왔다.

며칠 후, 섬 한가운데 있는 산토도밍고로 말을 달렸다. 우리가 지나온 작은 평원에는 키 작은 아카시아 몇 그루가 자라고 있었는데, 계속해서 불어오는 무역풍 때문에 나무 꼭대기가 기묘하게 굽어 있었다. 심지어 줄기가 직각으로 휘어진 것도 몇 개 있었다. 휜 가지는 정확히 북북동과 남남서를 가리키고 있는데, 이것은 무역풍의 주방향을 나타내 준다. 이런 불모의 땅에 별 감흥을 느끼지 못하며 터덜터덜 달리다가 그만 길을 잃어 푸엔테스로 접어들었다. 그곳

4 카보베르데 제도는 1449년에 발견됐다. 거기에는 1571년 날짜가 새겨진 주교의 묘비가 있었으며 단검을 손에 쥔 1497년 장식도 있었다. 이 외진 곳에서 유럽을 떠올리게 하는 것이라곤 의전용 장식뿐이다. 네모난 뜰 한쪽에는 교회가 있고, 뜰 중앙에는 큰 바나나나무들이 자라고 있으며, 다른 한쪽에 세워진 병원에는 12명 정도의 불쌍한 환자들이 입원해 있었다.

에 도착하기 전까지는 그런 곳이 있는지조차 몰랐지만, 나중에는 오히려 길 잃은 것을 다행으로 여겼다. 푸엔테스는 시냇물이 흐르고 모든 것이 번성해 보이는 작고 아름다운 마을이었다. 단 한 가지, 정말 그렇게 해선 안 되는 일만 빼면 말이다. 그곳에서는 매우 비참해 보이는 흑인 아이들이 벌거벗은 채로 거의 자기들 몸집 반만큼이나 되는 땔감을 낑낑대며 나르고 있었다.

푸엔테스 부근에서 50~60마리 정도 되는 기니아 닭 떼를 봤다. 그것들은 극도의 경계심을 보여 다가갈 수가 없었다. 9월 비 오는 날의 자고새처럼, 머리를 곧추세우고 달아나다가 계속 따라가면 이내 날아올라 버린다.

산토도밍고의 풍경은 이 섬의 다른 지역에서 느껴지는 음울한 분위기에서는 전혀 예상하지 못할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다. 높고 험한 계단식 용암 벽에 둘러싸인 계곡 바닥에 마을이 있다. 검은 바위는 맑은 시냇물을 따라 자라는 밝은 녹색 식물들과 매우 대조적이다. 마침 축제일이어서 마을은 사람들로 가득했다. 돌아오는 길에, 검은 피부와 새하얀 리넨linen 옷을 화려한 터번과 커다란 숄로 치장한 20명 정도의 어린 아가씨들을 따라갔다. 우리가 가까이 가자 그녀들은 갑자기 돌아서더니 숄을 벗어 길에다 깔고는, 손바닥으로 다리를 쳐서 박자를 맞춰 가며 힘차게 노래를 불렀다. 동전을 던져 주자 깔깔대고 웃으며 집어 들더니 더욱 신나게 노래를 불렀다. 높아져 가는 노랫소리를 뒤로 하며 우리는 그곳을 떠났다.

어느 날 아침, 시야가 이상하리만치 맑고 멀리 있는 산의 윤곽이 검푸른 색의 두꺼운 구름층에 선명하게 투영돼 보였다. 이러한 현상, 그리고 영국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있었던 것을 봐서는 공기는 수증기로 포화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실제는 이와 정반대였다. 습도계를 보니 기온과 이슬점 간에 섭씨 17도나 차이가 났다. 이는 그 전날 아침에 관찰한 수치의 두 배나 되는 셈이다. 이 정도로 대기가 건조하니 계속해서 번개가 친다. 이러한 기상 상태에서 대기가 눈에 띨 정도로 투명하다는 것은 드문 경우가 아닐까?

대체로 대기는 뿌옇게 흐려 있다. 이는 아주 미세한 먼지 때문인데, 때로 이것

이 천체 관측 도구를 고장 내기도 한다. 포르토프라야에 정박하기 전인 아침 나절에, 갈색 빛이 도는 미세한 먼지 꾸러미 하나를 채집했다. 이 먼지는 바람에 묻어와 돛대 꼭대기에 있는 풍향계의 거즈에 걸러진 것 같다. 또한 라이엘 교수도 이 섬에서 북쪽으로 수백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배에 내려앉은 먼지 꾸러미 네 개를 내게 보내왔다. 에렌베르크 교수[5]는 이 먼지가 규산질 껍질을 가진 적충류와 식물의 규산질 조직이라는 것을 알아냈다. 내가 보낸 먼지 꾸러미 다섯 개에서 그는 67종이나 되는 생물체를 확인했다. 그것들은 바다에 사는 종 두 개를 제외하고는 모두 민물에서 사는 것들이다. 나는 대서양 외해外海에서 배에 먼지가 떨어지는 것을 15회나 관찰하기도 했다. 먼지가 떨어질 때마다 부는 바람의 방향과, 하르마탄[6]이 먼지 구름을 대기 중으로 높이 올려 보낸다는 기간에 늘 먼지가 내려앉은 것으로부터 우리는 그 먼지들이 모두 아프리카에서 날아온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아프리카 고유의 적충류를 많이 알고 있는 에렌베르크 교수는 내가 보낸 먼지 속에서 이러한 것들을 하나도 발견하지 못했다. 한편, 그는 그 속에서 지금까지 남아메리카에만 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던 적충류 2종을 발견했다. 엄청나게 많은 먼지는 배 위에 있는 모든 것을 더럽히고 사람들의 눈에도 손상을 주며, 시야를 뿌옇게 만들어 심지어 배가 육지로 올라갈 지경이다. 아프리카 해안으로부터 수백 킬로미터, 심지어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있는 선박이나 남북으로 2천 6백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지점에도 먼지가 내려앉곤 한다. 육지로부터 480 킬로미터 떨어진 곳의 배 위에서 채집한 먼지에 0.7제곱밀리미터보다도 큰 돌멩이가 미세한 물질과 함께 섞여 있는 것을 보고 매우 놀랐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후에는, 그 돌멩이보다 더 작고 가벼운 민꽃식물의 포자가 멀리 퍼지는 것에 더 이상 놀랄 필요가 없어졌다.

5 이 저명한 자연사학자가 내가 채집한 표본을 조사해 준 데 대해 이 기회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 나는 1845년 6월에 이 먼지에 관한 충분한 설명을 지질학회로 보냈다.

6 겨울철에 아프리카 내부에서 서쪽을 향해 부는 건조한 바람-역주.

이 섬의 자연현상 중에서 특히 지질학적 측면이 매우 흥미롭다. 항구에 들어서면, 해안 절벽에 생긴 일직선의 흰 띠가 수면으로부터 약 14미터의 높이에서 해안을 따라 수 킬로미터 이어지는 것이 보인다. 자세히 살펴보면 이 흰색 지층은 수많은 조개껍데기가 박혀 있는 석회질로 되어 있는데, 그 조개의 전부 또는 대부분은 지금도 주변 해안에서 서식하고 있는 것들이다. 이 지층의 아래쪽은 오래된 화산암층이고 위쪽은 현무암류流로 덮여 있다. 현무암류는 흰색 조개껍데기 층이 해저에 있을 때 그 위로 흘러들어 온 것이 분명하다. 부스러지기 쉬운 조개껍데기가 뜨거운 용암으로 덮이면서 열에 의해 변성된 과정을 살펴보는 것은 흥미롭다. 어떤 부분은 결정질 석회암으로 변했으며, 다른 부분은 치밀한 반점이 있는 암석으로 바뀌었다. 용암의 아랫부분에서 흐르던 화산재 조각들이 석회 성분과 달라붙어 아라고나이트를 닮은 아름다운 방사상 섬유로 변했다. 솟아 나는 용암 대지는 완만하게 경사진 평원을 형성하면서 흘러가고 그 속에 녹아 있던 암석들은 제각각 다른 경로를 거치게 된다. 내가 알기로는 역사 시대 동안 생자고 섬 어디에서도 화산 활동이 일어난 흔적이 없다. 붉은 화산재로 된 많은 언덕의 봉우리에서도 화구는 거의 발견되지 않는다. 그러나 보다 최근에 용암이 흘러간 흔적은 해안에서 뚜렷이 찾아볼 수 있다. 이것들은 수면으로부터 그리 높지 않은 높이에서, 그보다 오래된 지층을 훑고 지나가며 절벽에 띠를 만들었다. 따라서 띠의 높이로 용암이 흘렀던 시기를 대략 추정할 수 있다.

이곳에 머무는 동안 바다 동물 몇 종의 습성을 관찰했다. 커다란 군소Aplysia가 매우 흔하다. 이 동물은 길이가 약 13센티미터이며 자주색 줄이 있는 암갈색을 띤다. 발이라고도 할 수 있는 몸 아래쪽 표면에는 양쪽에 넓은 막이 있어서, 때로는 이것이 등 쪽에 있는 아가미로 물이 흘러가도록 하는 순환기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동물은 얕은 진흙물 아래 돌 사이에서 자라는 연한 해초를 먹고 살고, 새의 모래주머니처럼 위 속에 작은 자갈이 들어 있다. 살짝 건드리면 고운 적자색 액체를 뿜어내 주변 약 30센티미터까지 물을 흐린다.

이러한 방어 수단 외에도, 일명 '포르투갈 병정'인 고깔해파리가 쓰는 방법과 비슷하게 날카롭고 따끔한 감각을 일으키는 독성 분비물이 온몸을 덮고 있다.

나는 여러 번에 걸쳐 문어의 습성을 흥미롭게 관찰했다. 이 동물은 썰물 때 생겨나는 물웅덩이에 흔하지만 쉽게 잡히지 않는다. 긴 발과 빨판을 이용해 매우 좁은 틈으로 몸을 끌어당길 수 있으며, 한번 달라붙으면 떼어 내는 데 엄청난 힘이 든다. 어떤 때는 짙은 밤갈색 먹물을 내뿜으면서 몸의 뒤쪽 방향으로 쏜살같이 헤엄쳐 웅덩이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잽싸게 달아난다. 또한 카멜레온처럼 몸의 색깔을 바꾸는 비상한 능력이 있어서 쉽게 눈에 띄지 않는다. 헤엄쳐 다니는 바닥 색깔에 따라 몸 빛깔이 달라져서, 바다 깊은 곳에서는 갈색이 도는 자주색을 띠지만 땅 위나 얕은 물속에서는 노란색이 감도는 녹색으로 바뀐다. 이 녹색을 좀 더 자세히 관찰해 보면 작은 노란색 점들이 촘촘히 박힌 초록색을 띤 회색이다. 갈색이 도는 자주색은 색깔의 진한 정도가 달라지며, 노란색이 감도는 녹색은 완전히 없어졌다가 다시 나타나곤 한다. 이러한 변화는 보랏빛이 도는 붉은색에서부터 밤갈색까지[7] 다양한 색채를 띤 기운이 몸 전체를 계속 왔다 갔다 하며 일어난다. 약한 전기로 몸의 일부를 자극하면 그 부위는 거의 검정색으로 변하며, 정도는 약하지만 피부를 바늘로 긁어도 이와 비슷한 현상이 나타난다. 다양한 색깔의 액체가 들어 있는 작은 주머니들을 교대로 수축하고 팽창시켜서 이렇게 자유자재로 몸의 색깔을 바꿀 수 있다.[8]

문어는 헤엄을 칠 때나 바닥에 가만히 있을 때도 카멜레온과 같은 능력을 보인다. 내가 자신을 관찰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린 문어 한 마리가 다양한 수법을 이용해 나의 시야에서 벗어나는 것을 관찰하면서 매우 재미있었다. 이놈은 한동안 움직이지 않고 가만있다가, 이윽고 쥐를 쫓는 고양이처럼 2~5센티미터씩 살금살금 앞으로 나아간다. 때때로 몸의 색깔을 바꿔 가며, 그렇게 해서 좀 더 깊은 곳에 이르자 쏜살같이 달아나 구멍 속으로 몸을 숨겨 버리고 그

7 패트릭 사이메스의 명명법을 따랐다.

8 해부학과 생리학 백과사전에서 두족류 편을 참고하라.

뒤로 구멍을 가리는 시커먼 먹물의 흔적만을 남겨 놓는다.

바닷가 암반 위에 엎드려 동물들을 관찰하고 있을 때, 귀에 거슬리는 소리와 함께 여러 번 물을 뒤집어쓴 적이 있다. 처음에는 몰랐지만 나중에야 그것이 문어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 문어는 구멍에 몸을 숨기고 있었는데 종종 내 눈에 띄었다. 문어가 물을 뿜는 능력이 있다는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고, 나아가 몸 아래쪽에 있는 튜브, 즉 수관의 방향을 조절해서 목표를 조준할 능력도 있는 것 같다. 문어는 머리를 옮기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땅 위에 놓으면 쉽게 기지 못한다. 선실에 갖다 놓은 문어 한 마리가 어둠 속에서 희미한 형광을 내는 것을 관찰한 적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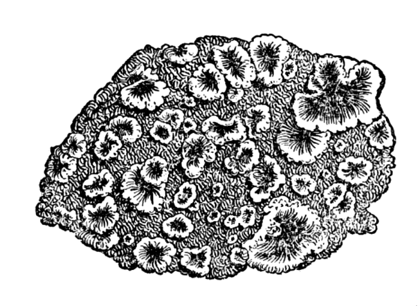
상파울의 암초 | 2월 16일 아침, 대서양을 건너다 상파울 암초 섬 근처에서 배를 멈췄다. 이 암초 섬은 북위 0도 58분, 서경 29도 15분에 위치하며, 아메리카 해안으로부터 870킬로미터, 페르난도노로냐 섬에서 560킬로미터 떨어져 있다. 섬에서 가장 높은 곳은 겨우 해발 15미터고 전체 둘레는 1.2킬로미터도 되지 않는다. 이 작은 섬이 대양 한가운데 깊숙한 곳에서 불쑥 솟아 나와 있는 것이다. 광물학적 조성은 처트chert[9]질인 곳이 있는가 하면 사문석蛇紋石[10]의 얇은 암맥이 지나는 장석질인 곳도 있어서 단순하지 않다. 대륙에서 멀리 떨어진 태평양, 인도양, 대서양 한가운데에 있는 많은 섬들이, 세이셸 제도와 이 작은 암초를 제외하고는, 산호나 화산 분출물로 이루어져 있다니 놀랍다. 대양의 섬들이 화산 활동 결과 생겨났다고 추측하는 것은 현재 활동 중인 화산 대부분이 해안 근처에 있거나 바다 한가운데에 있는 섬이라는 법칙과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으며 그 섬들이, 화학적 원인이든 기계적 원인이든 간에, 화산 활동을 일으키는 것과 동일한 원인에 의해 생겨났음을 의미한다.

상파울 암초는 멀리서 보면 밝게 빛나는 흰색으로 보이는데, 이는 수많은 바닷새의 배설물 때문이기도 하고 암초 표면에 단단하게 달라붙어 있는 진주 빛

9 매우 치밀한 석영의 작은 결정으로 이루어진 생화학적 기원 퇴적암-역주.

10 마그네슘을 함유한 함수 규산염含水硅酸鹽 광물. 장식 석재나 석면을 만드는 데에 쓴다-역주.

의 단단한 물질 때문이기도 하다. 돋보기로 자세히 관찰해 보면, 이 물질은 수없이 많은 얇은 층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전체 두께는 2.5밀리미터 정도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에는 동물성 물질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새들의 배설물에 비나 물보라가 작용해서 생겨난 것이 분명하다. 어센션 섬과 아브롤호스 섬의 구아노바닷새의 배설물이 굳어서 덩어리 진 것 아래에서, 이 암초를 덮고 있는 흰 물질이 만들어진 것과 같은 원리로 생성된 종유석처럼 가지 친 물체를 발견한 적이 있다. 이 물체의 겉모양이 산호조珊瑚藻(단단한 석회질로 된 바다식물)와 워낙 비슷해서, 최근에 급히 나의 채집품들을 뒤져 비교해 봐도 차이점을 알아내지 못했을 정도다. 가지 끝의 둥근 부분은 치아의 에나멜처럼 진주빛 광택질이지만 유리판이 긁힐 정도로 단단하다. 막대한 양의 조개껍데기 가루가 쌓이는 어센션 섬의 일부 해안에서는 바닷물에 의해 이 껍데기가 조간대潮間帶 암반 위에 쌓여, 삽화에 나타낸 것처럼, 습기 찬 벽에서 자라는 포자식물(이끼류)처럼 보인다.


기이한 껍데기

이것의 표면은 아름다운 광택이 나며 햇빛에 많이 노출된 부위는 새까맣고 암벽 아래의 그늘진 곳에 있는 것은 회색이다. 나는 이 껍데기 표본 몇몇을 지질학자에게 보여 줬는데, 세상에나 그들 모두 이것이 화산이나 화성化成에 기원하는 것으로 생각했다! 단단함과 반투명함, 감람조개에 버금가는 광택, 역한 냄새, 취관blowpipe[11] 아래에서 색깔이 없어지는 현상 등으로 봐서 이것은 살아 있는 조개껍데기와 매우 비슷하다. 더욱이 살아 있는 조개껍데기에서도, 암반의 껍데기에서처럼, 외투막으로 늘 덮여 있는 부분은 빛에 충분히 노출된 부분보다 색깔이 연하다. 인산염이나 탄산염 상태의 석회질이 살아 있는 동물의 뼈나 조개껍데기 같은 단단한

11 불어서 불을 일으키는 대통 또는 불어서 화살을 쏘는 통-역주.

부위의 성분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 보면, 신선한 조개껍데기처럼 광택과 색깔이 나는 표면으로 덮여 있으며 치아의 에나멜보다 더 단단한 물질이 무기적인 방법에 의해, 하등 식물과 비슷한 형태를 띠면서, 죽은 유기물로부터 재형성된다는 것은 흥미 있는 생리학적 사실이다.[12]

상파울 암초에서 조류는 '부비'와 '노디' 두 종류밖에 없다. 부비는 가마우지의 일종이며, 노디는 제비갈매기의 일종이다. 둘 다 순하고 둔하며 사람 무서운 줄을 몰라서 지질 조사용 망치로 얼마든지 잡을 수 있다. 부비는 맨바위에 알을 낳지만 노디는 해초로 간단하게 만든 둥지에 낳는다. 이 둥지들 대부분의 옆에는 작은 날치가 한 마리씩 있는데 아마도 수컷이 암컷을 위해 잡아다 놓은 것 같다. 우리가 어미 새들의 주의를 다른 데로 돌리자마자, 바위틈에 살고 있는 크고 동작이 빠른 게Graspus(바위게) 한 마리가 둥지 옆에 있던 물고기를 잽싸게 훔쳐 가는 것을 보고는 재미있었다. 이 섬에 상륙해서 본 몇 안 되는 사람 중 한 명인 시먼즈 경이 내게 알려 준 바에 의하면, 이 게들이 심지어 둥지에 있는 새끼 새들까지도 끌어내 먹어 치우는 것을 봤다고 했다. 이 섬에는 단 한 종의 식물도, 심지어 지의류조차도 없다. 그러나 곤충과 거미 몇 종류는 살고 있다. 내 생각으로는 다음에 열거하는 것들이 육상 동물상의 전부이지 않나 싶다. 부비의 몸에 사는 파리Olfersia, 새의 몸에 기생해서 이 섬에 온 것이 분명한 진드기, 깃털을 먹고 사는 속屬의 작은 갈색 나방, 새들의 배설물 아래에서 발견되는 왕눈이반날개Quedius와 쥐며느리, 마지막으로 앞의 작은 곤충들과 새들의 사체를 먹고 사는 청소 곤충을 잡아먹는 수많은 거미 종류다. 태

12 호너 씨와 데이비드 브루스터 경은 이 이상한 '조개껍데기를 닮은 인공 물질'을 기술했다.(《영국 왕립학회보》, 1836, 65쪽) 그 물질은 특유의 광학적 성질이 있으며 섬세하고 투명하다. 광택이 나는 갈색의 얇은 층을 이루며 배 안쪽에 있는 범포—처음에는 아교로 다음에는 석회로 처리되어 물속에서 빨리 운행하도록 만든—에 쌓인다. 그 물질은 어센션 섬에서 자연적으로 생기는 조개껍데기보다 훨씬 더 부드럽고 투명하며 또한 동물성 물질이 더 많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석회 탄산염과 동물성 물질이 조개껍데기와 같이 단단한 물질을 형성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강한 경향성을 다시 한번 보게 된다.

평양에 산호초가 생기면 위풍당당한 야자나무와 다른 고상한 열대 식물이 먼저 자라고 뒤따라 새가 살고 마지막으로 인간이 오게 된다는 것이 흔히 말하는 순서다. 그러나 그것은 옳지 않은 것 같다. 그런 줄거리에서 느껴지는 시적 감흥이 깨질까 염려되기는 하나, 새로 생긴 대양의 섬에 가장 먼저 서식하는 생물은 깃털과 더러운 것들을 먹는 기생 곤충이나 거미인 것이다.
열대 바다에 있는 아주 작은 바위 하나라도 많은 해초들과 그 속에 사는 동물들, 수많은 물고기가 서식하는 기반이 된다. 상어와 어부는 낚싯줄에 걸리는 물고기를 더 많이 차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사투를 벌인다. 외해 쪽으로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버뮤다 부근의 바다 깊숙한 곳에 있던 암초는 근처에 물고기가 있는 것이 단서가 되어 발견되었다고 한다.
2월 20일, 페르난도노로냐 | 이곳에서 머무는 몇 시간 동안 힘닿는 데까지 알아낸 바에 의하면, 이 섬은 화산 활동으로 형성된 것이지만 그 일이 최근에 일어난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가장 눈에 띄는 지형은 높이가 약 3백 미터 정도 되는 원뿔형 언덕이다. 윗부분은 경사가 매우 심하며 한쪽 면은 바닥보다 돌출해 있다. 암석은 포놀라이트이며 불규칙한 기둥으로 나뉘어 있다. 이들 떨어져 있는 기둥 중 하나를 보면, 그것이 반액체 상태로 갑자기 밀려 올라온 것처럼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나는 세인트헬레나 섬에서 이것과 거의 같은 모양과 조성을 가진 뾰족한 산봉우리 몇 개를 본 적이 있는데, 그때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이러한 구조는 열에 의해 녹은 암석이 연약한 지층을 뚫고 들어가 형성된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 연약한 지층은 이들 거대한 오벨리스크를 만드는 주형이 된 셈이다. 섬 전체가 나무로 덮여 있기는 하지만, 기후가 건조해서 무성하게 우거져 있지는 않다. 산 중턱까지는 기둥 모양의 거대한 암석 몇 개에 월계수 같은 나무의 그늘이 져 있고, 잎은 하나도 없지만 작은 분홍색 꽃이 핀 나무로 장식되어 있어 주변 경치는 좋았다.
2월 29일 브라질의 바이아, 산살바도르 | 즐거운 나날이 계속되었다. 그러나 난생처음 브라질 숲을 거닐어 보는 자연사自然史학자의 흥분을 표현하기에 '즐

거움'이라는 단어는 어딘가 미약한 생각이 든다. 우아한 초원, 진기한 기생식물, 아름다운 꽃, 반짝이는 초록 잎, 그러나 무엇보다도 무성하게 우거져 있는 숲 전체가 나를 감동의 도가니로 몰아간다. 소리와 적막이 기묘하게 어울려 어두운 숲 속에 충만해 있다. 곤충이 내는 소리는 너무 커서, 해안으로부터 수백 미터 떨어져 정박해 있는 배에서도 들릴 정도지만, 숲 속 깊숙한 곳에는 태고의 적막이 감돈다. 자연을 탐구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에게 오늘 같은 날은 더 이상 바랄 것 없이 기쁜 날이다. 몇 시간을 돌아다닌 후 상륙했던 곳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그곳에 도착하기 전, 열대 폭우를 만나 비를 피하기 위해 어떤 나무 아래로 뛰어들어 갔다. 이 나무는 워낙 울창해 영국에서 통상적으로 내리는 비라면 절대로 새어 들지 않았을 테지만 여기에서는 달랐다. 2~3분 만에 나무 둥치를 따라 작은 물줄기가 세차게 흘러내렸다. 이렇게 빽빽한 숲 속의 땅 위까지도 푸른 초목이 자랄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렇게 세차게 내리는 비 때문이다. 이곳보다 더 추운 지역에서처럼 비가 약하게 온다면, 땅에 닿기 전에 대부분은 흡수되거나 증발하고 말 것이다. 지금은 이 고귀한 숲에서 벌어지는 휘황찬란한 광경에 대해 자세히 쓰지 않으련다. 고국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곳을 다시 한 번 방문할 것이고, 그때 이에 대해 자세히 쓸 기회가 있으리라.

약 3천2백 킬로미터에 걸친 브라질 해안 전체와 내륙 쪽으로 상당히 넓은 부분에서 발견되는 단단한 암석은 모두 화강암이다. 이 화강암은 높은 압력 하에서 열에 의해 결정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넓은 지역이 이러한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정황은 많은 호기심을 불러일으킨다. 이러한 현상은 대양 저 깊은 곳에서 일어난 것인가? 또는 그 위로 지층이 광범위하게 쌓이고 나서 나중에 제거된 것인가? 무한히 짧은 시간에 걸쳐 작용한 어떤 힘에 의해 수억 제곱킬로미터나 되는 넓은 지역에서 화강암이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을 믿을 수 있겠는가?

리우데자네이루에서 멀지 않으며 작은 시내가 바다로 흘러들어 오는 어떤 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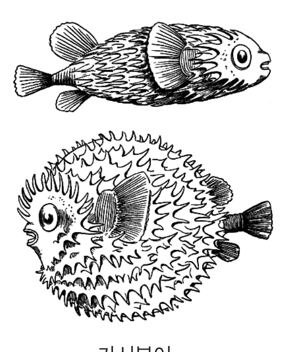
에서, 훔볼트[13]가 논의한 주제와 관련된 한 가지 현상을 관찰했다.[14] 오리노코, 나일, 콩고 같은 큰 강의 폭포에서 발견되는 섬장암은 검은 물질로 덮여 있어, 마치 흑연으로 광을 낸 것처럼 보인다. 그 물질은 극히 얇은 층이며, 베르젤리우스가 분석한 바에 의하면, 망간과 철이 산화된 것이다. 오리노코 강에서는 조수에 주기적으로 씻기는 암석이나 물이 빨리 흐르는 곳에 있는 암석에서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 이와 관련해 "물이 흰 곳에 있는 바위는 검다"라는 인디오 얘기가 있다. 이곳의 암석에 덮여 있는 물질은 검은색이 아닌 진한 갈색이며, 철분을 함유한 물질로만 되어 있는 것 같다. 손바닥만 하게 작은 표본들은 햇빛에서 반짝거리는 이 갈색 암석들에 대해 적절한 아이디어를 주지 못한다. 이것들은 조수가 일어나는 범위 내에서만 나타난다. 이곳의 시냇물은 천천히 흐르기 때문에 위에 열거한 큰 강에서 급류가 만들어 낸 광택을 이곳에서는 밀려드는 파도가 그 역할을 한 것이 틀림없다. 이런 맥락에서 밀물과 썰물은 주기적인 씻김에 대한 해답을 제공한다. 그러므로 서로 떨어져 있는 두 곳에서 겉으로는 다르게 보이지만 실제는 비슷한 상황에서 동일한 결과가 일어나는 것이다. 그러나 암석에 단단하게 붙어서 굳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금속 산화물이 어떻게 생겨난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고, 나아가 그것들의 두께가 일정한 이유도 설명이 되지 않는다.

어느 날, 바닷가에서 헤엄치고 있던 가시복Diodon antennatus을 잡아서 그것의 습성을 관찰했다. 흐느적거리는 피부를 가진 이 물고기는 몸을 거의 구형으로 넓힐 수 있는 신기한 능력을 가진 것으로 유명하다. 짧은 시간 동안 물 밖으로 나온 후 다시 물속에 잠기면서, 많은 양의 물과 공기가 입과 아가미로 흡수된다. 이 과정은 두 가지 방법으로 일어난다. 공기를 들이마신 다음 몸 안쪽의 빈 공간으로 보내고, 겉에서 보이는 것처럼 근육을 수축해 다시 나오지 못하게 한다. 그러나 물은 입을 통해 천천히 흘러들어 오는데, 이때 입은 넓게 벌

13 알렉산더 폰 훔볼트Alexander von Humboldt, 1769~1859. 독일의 자연사학자, 탐험가—역주.

14 《신변잡기》 5권 1부, 18쪽.

어진 채 움직임이 없으므로 이 과정은 흡입에 의해 일어나는 것이 틀림없다. 배 쪽 피부가 등 쪽보다 더 느슨해, 팽창이 일어나는 동안 배 쪽 표면이 등 쪽보다 더 많이 늘어난다. 그 결과 가시복은 등을 아래로 향하며 물 위에 떠 있게 된다. 퀴비에는 이러한 자세로 가시복이 헤엄을 칠 수 있는지 의심스러워했다. 그러나 가시복은 직선 방향으로 곧게 나아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양쪽 방향으로 회전도 할 수 있다. 이런 회전 운동은 전적으로 가슴지느러미 가시 때문에 가능하다. 꼬리는 접혀 있어서 사용하지 않는다. 상당히 많은 공기를 들이마셔서 몸이 물에 떠 있기 때문에 아가미가 물 바깥에 있지만, 입으로 빨아들인 물이 아가미 쪽으로 끊임없이 흐른다.


가시복어

짧은 시간 동안 이렇게 부풀린 상태로 있던 가시복은 상당한 힘을 가지고 물과 공기를 아가미와 입으로부터 내뿜는다. 자유자재로 어느 정도 물을 내뿜을 수 있는 것으로 봐서 이는 부분적으로 몸의 비중을 조절하는 작용인 것 같다. 이 물고기는 여러 가지 방어책이 있다. 강하게 물 수도 있고 어느 정도 거리까지 물을 내뿜는 동시에 턱을 움직여 이상한 소리를 내기도 한다. 몸을 부풀려 피부를 덮고 있는 짧은 돌기를 뾰족하게 세우기도 한다. 그러나 가장 신기한 것은 손으로 잡았을 때 배 쪽 피부에서 매우 아름다운 붉은색 섬유질 물질을 분비하는 것이다. 그 물질은 흰 물건과 종이를 물들이는데, 잘 빠지지 않아서 지금까지도 그 흔적이 선명하게 남아 있다. 나는 이러한 분비물의 성질과 작용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다. 포레스의 앨런 박사는 상어의 위 속에서 몸을 부풀린 채로 살아 떠 있는 가시복을 자주 발견했다고 한다. 때때로 가시복은 상어의 위벽뿐만 아니라 상어의 옆구리를 뚫고 나와서 상어가 죽는 것을 본 적도 있다고 한다. 이토록 작고 부드러운 물고기가 그렇게 크고 사나운 상어를 죽일 수 있다는 것을 그 누

가 상상이나 하겠는가?

3월 18일 | 우리는 바이아를 떠났다. 며칠 후 아브롤호스 섬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 도착했을 때, 바다에서 적갈색이 나는 형체를 발견했다. 조잡한 망원경으로 보니, 물 표면에 끝이 들쭉날쭉한 잘게 썬 건초 더미가 덮여 있는 것처럼 보였다. 이것들은 수많은 원통형 황녹조류였는데 각각 20~60개가 모인 덩어리로 되어 있었다. 버클리 씨는 이것들이 홍해에서 광범위하게 발견된 것과 같은 종Trichodesmium erythraeum이며 홍해라는 이름도 여기에서 유래했다고 알려 줬다.[15] 이것들의 수는 셀 수 없이 많으며, 배는 이것들이 모여 있는 띠 몇 개를 통과했다. 띠 한 개는 폭이 약 9미터고, 진흙 같은 물빛으로 보아 적어도 길이가 4킬로미터 정도는 되는 것 같다. 거의 모든 긴 항해기에는 이러한 조류에 대한 기록이 보고되어 있다. 이것들은 오스트레일리아 근처 바다에서 특히 흔하다. 르윈 만 근처에서 이와 연관이 있지만 더 작고 확실히 다른 종들을 발견했다. 쿡 함장은 그의 세 번째 항해기에서 선원들이 이러한 생물체에 바다톱밥이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전했다.

인도양에 있는 킬링 환초 부근에서, 수십 제곱센티미터 정도 되는 많은 황녹조류 덩어리들을 관찰했다. 그것들은 맨눈으로는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얇은 원통형의 긴 실로 이루어져 있고, 양 끝이 원추형인 보다 큰 다른 생물체들과 섞여 있다. 이것들 중 두 개를 붙여서 삽화에 그렸다. 길이는 0.1에서 0.15 심지어 0.20센티미터까지 다양하고 지름은 0.01~0.02센티미터 정도다. 대체로 원통의 한쪽 끝부분에서 녹색 벽이 관찰되는데 그 벽은 입자성 물질로 이루어져 있으며 가운데가 가장 두껍다. 이 벽은 과육성 물질로 이루어진 매우 부드럽고 무색인 주머니의 기저 부분으로, 이 주머니는 겉을 둘러싸는 경계 역할을 하고 있지만 원뿔 꼭지 안까지는 뻗어 있지 않다. 몇몇 표본에서는 작지만 완벽한 구형의 갈색 입자가 그 격벽을 채운다. 나는 그 입자들이 생겨나

15 M. 몽테뉴. 프랑스에서 1844년 7월 발행된 〈학술 발표 논문 요약〉과 같은 해 12월 발행된 《자연사 연보》.


황녹조류

는 신기한 과정을 관찰했다. 내부를 덮고 있는 과육성 물질이 갑자기 모여서 선으로 되고 그것들 중 몇 개는 중심에서 방사상으로 뻗는 형태가 되기도 한다. 그런 다음 불규칙하고 빠르게 움직여서 계속 수축하더니 몇 초 안에 전체가 완전한 작은 구형으로 뭉친다. 이것이 이제는 텅 빈 주머니의 한쪽 끝에 있는 격벽에 위치하게 된다. 이런 과립성 구형체의 형성은 우연히 손상을 입었을 때 더 빨리 진행된다. 이것들 중 두 개씩, 위의 그림에서 보듯이, 격벽이 있는 쪽의 원뿔이 나란히 붙은 채로 결합한다.

생물학적 원인 때문에 바다의 색깔이 변하는 것과 관련된 몇 가지 관찰 사항을 덧붙이겠다. 콘셉시온[16]에서 북쪽으로 수십 킬로미터 되는 곳인 칠레의 한 해안에서, 어느 날 비글호는 불어난 강물과 흡사한 진흙물로 된 거대한 띠를 통과했다. 또 발파라이소에서 남쪽으로 몇 도 내려가, 육지에서 80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도 이와 같은 현상이 광범위하게 나타났다. 유리컵에 떠놓은 물은 연한 붉은색을 띠었으며, 현미경으로 보니 수많은 극미동물들이 재빨리 움직이거나 간혹 터지는 것이 관찰됐다. 그것들은 알 모양이고 굽은 섬모의 진동에 의해 몸의 가운데를 수축한다. 그러나 그것들을 자세히 관찰하기는 대단히 힘들다. 왜냐하면 거의 순간적으로 움직임이 멈춰 버리고, 현미경 시야에서 움직여 가는 동안에 몸이 터져 버리기 때문이다. 때로는 양 끝이 한꺼번에 터지기도 하고 간혹 한쪽만 터지기도 한다. 이때 굵은 갈색 알갱이들이 뿜어져 나온다. 터지기 직전에 원래 크기의 한 배 반으로 늘어나며, 빠르게 앞으로 나가는 운동이 멈춘 뒤 약 15초 후에 터진다. 간혹 터지기 전 짧은 시간에 긴 축을 중심으로 회전 운동을 하기도 한다. 작은 물방울로 분리해 내면 약 2분 후에는 죽어 버린다. 이 동물들은 힘찬 섬모 운동이나 급출발을 이용해 뾰족한 쪽을 앞으로 해서 움직인다. 매우 작아서 맨눈으로는 보이지 않고 0.6제곱밀리미터 정도의 넓이를 갖는다. 수는 무한정이어서 아무리 작은 물방울에도

16 칠레 중남부 콘셉시온 주州의 주도州都-역주.

무수히 들어 있다. 어느 날 우리는 그것들 때문에 물빛이 변한 두 곳을 지나갔는데 그중 한 곳은 수십 제곱킬로미터에 걸쳐 변색되어 있었다. 미세한 동물들의 수는 이루 헤아릴 수가 없다. 멀리서 볼 때, 물빛은 붉은 점토 지역을 흘러내린 강물 색깔처럼 보였으나 배 옆의 그늘진 곳에서는 거의 초콜릿처럼 검은색이다. 붉은 물과 푸른 물이 만나는 곳에 형성되는 경계선은 뚜렷하다. 지난 며칠간 날씨는 평온했으며, 대양에는 생물들이 비정상적으로 많아졌다.[17]

육지에서 멀지 않은 티에라델푸에고 부근 바다에서 보리새우와 비슷해 보이는 갑각류로 인해 생긴 붉은색 띠를 본 적이 있다. 바다표범 사냥꾼들은 그것을 고래 밥이라고 부른다. 고래가 그것을 먹는지는 모르겠으나 그 해안에 사는 제비갈매기, 가마우지, 크고 뚱뚱한 바다표범 무리들은 주로 이들 헤엄치는 게를 먹고 산다. 선원들 대부분은 바닷물 색깔이 달라진 원인이 고기 알 때문이라고 하나, 내 경험상 대양 한 곳에서만 맞는 설명이다. 갈라파고스 제도에서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배는 진한 황색을 띤 진흙 같은 물로 된 띠 세 개를 지나간 적이 있다. 이 띠의 길이는 수 킬로미터지만 폭은 수 미터에 불과했으며 주변 바닷물과는 뚜렷하게 구분되었다. 이것이 내는 색깔은 지름이 약 0.5센티미터인 한천질 공 때문인데 그 공 속에는 많은 작은 알들이 들어 있다. 작은 알들은 두 종류인데, 그중 하나는 붉은색이며 형태는 다른 종류와 달랐다. 나는 이 두 종류의 동물이 무엇인지 추측조차 할 수 없었다. 콜넷 함장은 이러한 현상이 갈라파고스 제도에서는 매우 흔하며, 띠의 방향이 해류의 방향을 나타낸다고 했다. 그러나 위에서 기술한 띠는 바람에 의해 생긴 것이다. 내가 유일하게 알아낸 또 다른 현상은 물 위에 무지개 빛깔이 나는 얇

17 레송(《코퀴유호의 항해기》 1권, 255쪽)은 리마 근처에서 관찰되는 붉은 물에 대해 언급했는데, 이것도 명백히 이와 같은 원인에 의해 생긴다. 유명한 자연사학자 페론은《남쪽 지방의 여행기》에서 바닷물의 변색에 대해 언급한 항해자들에게 12개나 되는 참고 사항을 이야기하고 있다. 페론이 언급한 참고 문헌은 다음과 같다. 훔볼트의《신변잡기》4권, 804쪽 ; 플린더스의《항해기》1권, 92쪽 ;《라비야르디에르》1권, 287쪽 ; 울로아의《항해기》,《아스토롤라브호와 코퀴유호의 항해기》, 킹 함장의《오스트레일리아와 주변 조사기》가 있다.

은 기름막이 덮여 있는 것이다. 나는 브라질 해안에서 바다의 상당 부분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봤다. 선원들은 그것이 그 부근에 떠서 부패하는 고래의 사체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현상은, 위에서 언급한, 물에 흔히 흩어져 있는 작은 한천질 알갱이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물빛을 바꿀 정도로 많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위에서 언급한 설명 가운데는 두 가지 뚜렷한 상황이 존재한다. 첫째, 다양한 개체들이 가장자리가 뚜렷한 경계를 이루는 띠를 형성하며 어떻게 모여 있는가? 보리새우와 비슷한 갑각류의 경우, 그것들은 군인들처럼 동시에 움직인다. 그러나 작은 알이나 황녹조류처럼 자발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아니며, 이는 적충류에서도 마찬가지다. 둘째, 띠의 길이와 폭을 결정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 현상은 물이 흘러가며 소용돌이에 모여 있던 거품이 길게 풀려 나오는 모습과 매우 비슷한 것으로 봐서, 공기나 바닷물이 이러한 작용을 일으키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가정 아래에서, 다양한 생물들이 어떤 적합한 장소에 모였다가 바람이나 물의 작용에 의해 없어지는 것으로 믿어야 한다. 그러나 억만 개의 극미동물과 황녹조류가 최초로 생겨나는 어떤 한 지점을 상상하는 데는 매우 큰 어려움이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부모 개체들이 바람과 파도에 의해 광대한 대양으로 퍼져 버려서, 최초 출발점이 되는 생물이 어디에서 그러한 지점으로 오는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다른 어떠한 가설로도 그들의 선형 군집을 이해할 수가 없다. 원양 동물이 풍부해 바닷물이 녹색을 띠는 현상은 북극해에서도 발견된다는 스코레스비의 말을 첨가할 뿐이다.

● 심한 폭풍으로 출항 후 몇 번이나 되돌아 와야 했던 비글호는 1831년 12월 27일, 드디어 영국의 데번 포트를 출발한다. 대서양으로 나아가 처음으로 도착한 테네리페 섬에서는 영국에 전염병이 돌고 있다는 소문탓에 다윈 일행은 상륙을 거부당한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도 다윈은 미지의 세계에 도착해 처음 맞는 찬란한 일출 광경을 바라보며 앞으로 다가올 시간에 대한 벅찬 기대로 부푼다. 다음해 1월 16일, 카보베르데 제도에 도착해 생자고 섬의 주요 항구인 포르토프라야에 정박한다. 섬에서 머무는 동안 채집한 여러 개의 먼지 꾸러미와 육지에서 멀리 나와 있는 배에 떨어진 먼지를 관찰한 결과 수백에서 수천 킬로미터나 먼 곳에 있는 육지에서 날아온 것임을 확인하고는 민꽃식물의 포자가 멀리 퍼지는 현상에 대해 더 이상 놀라지 않는다. 문어의 습성을 관찰하는 다윈은 마치 어린아이가 동물원에서 신기한 동물을 보며 빠져드는 모습을 연상케 한다. 배경색에 따라 몸의 빛깔을 자유자재로 바꾸는 능력이나 자신을 보고 있는 시선을 피해 살금살금 도망쳐 몸을 숨기는 방법, 수관의 방향을 조준해 물을 뿜을 수 있는 능력 등을 생생히 묘사해 지금 우리 앞에 살아 움직이는 문어가 헤엄쳐 다니고 있는 듯한 느낌을 줄 정도다.

다음 해 2월 16일 대서양의 산파울 암초 근처를 지날 때 멀리서 암초 표면을 덮고 있는 진주 빛 물질이 다윈의 눈을 잡아 끈다. 그 물질과 인근의 어센션 섬에 수북이 쌓여있는 조개껍데기 가루를 보고 몇몇 지질학자들은 화산 활동의 결과물로 여기지만 다윈은 그와는 조금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다. 그 물질에서 조개껍데기의 특징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인산염이나 탄산염 상태의 무기석회질이 살아 있는 조개껍데기를 생성하고 섬에 쌓인 조개껍데기 가루나 새들의 배설물 같은 죽은 유기물로부터 이러한 무기물이 다시 생성된 것이라고 해석함으로써, 자연계에서 일어나는 물질의 순환을 언급하고 있다. 이 섬에는 단 한 종의 식물도 볼 수 없고 몇몇 곤충과 거미 종류가 동물상의 전부다. 또 가마우지와 제비갈매기가 산파울 암초에서 유일하게 볼 수 있는 새이다. 흔히들 태평양에 산호초가 생기면 야자나무를 비롯한 여러 열대 식물이

먼저 자라고 뒤이어 새가 들어오고 마지막으로 인간이 오게 된다는 다소 낭만적인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으나, 실제 새로 생긴 대양의 섬에 가장 먼저 터를 잡는 생물은 깃털과 배설물 등 더러운 것을 먹는 기생곤충과 거미이다.

2월 29일 브라질에 도착해 난생 처음 열대 숲을 거니는 젊은 자연사학자는 우아한 초원, 진기한 기생식물, 아름다운 꽃, 반짝이는 초록 잎, 무엇보다도 무성하게 우거져 있는 숲에 흠뻑 매료된다. 숲의 어둠 속에 충만한 적막과 이에 어우러지는 곤충들의 울음소리, 나무 둥치를 따라 흘러내리는 세찬 빗줄기를 온 몸으로 느끼며 몇 시간을 돌아다닌다. 바다에서는 생김새만으로도 눈길을 끄는 가시복이 공기를 흡수해 몸을 둥글게 부풀리는 방법, 그 상태에서 가슴지느러미를 이용해 자유자재로 헤엄을 칠 수 있는 능력 뿐 아니라 물을 내뿜는 것에 의해 몸의 비중을 조절할 수 있음도 알려 준다.

3월 18일, 바이아를 떠나 항해하는 도중 바다가 변색하는 현상을 관찰하면서 그동안 들었던 이와 관련된 현상을 정리하고 있다. 적조의 주원인 생물인 황녹조류와 다른 수많은 극미동물의 특성, 보리새우와 비슷한 갑각류로 인해 생긴 붉은 띠 등을 기술하고 있지만 이러한 미세한 동물들이 가장 자리가 뚜렷한 경계를 이루며 긴 띠를 형성하고 그 안에서 군인들처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현상의 원리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설명을 하지 못한다. 다만 그 형태가 물이 흘러가며 소용돌이에 모여 있던 거품이 길게 풀려 나오는 모습과 비슷한 것으로 보아 공기나 바닷물이 이러한 작용을 일으키는 것으로 추정할 뿐, 그 많은 동물들이 최초에 모이는 어떤 한 지점에 대해서는 훗날 다른 누군가의 설명을 기약하고 있다.



리우데자네이루



제2장
리우데자네이루

리우데자네이루–프리우Frio 곶의 북쪽 지역 답사–엄청난 증발 작용–노예 생활–보토포고Botofogo 만–육상 플라나리아–코르코바도 산의 구름–폭우–아름다운 노래를 부르는 개구리–인광燐光을 내는 곤충–튀어 오르는 힘을 가진 방아벌레–푸른 안개–나비들이 내는 소음–곤충학–개미–거미를 죽이는 장수말벌–기생 거미–에페이라속 거미의 술책–군서群棲 거미–비대칭적인 거미줄을 짓는 거미

1832년 4월 4일에서 7월 5일까지 | 리우데자네이루에 도착해 며칠이 지났을 즈음, 나는 한 영국인과 친해졌다. 이곳 수도로부터 160킬로미터 이상 떨어진 프리우 곶의 북쪽에 위치한 그의 대농장을 방문하려는 참이었는데, 나와 함께 가길 원해서 나는 이 친절한 제안을 흔쾌히 수락했다.

4월 8일 | 우리 일행은 일곱 명이었다. 여행의 첫 장면은 매우 흥미로웠다. 몹시 무더웠고, 숲 속을 지나가는 동안 보이는 것은 느릿느릿 날갯짓하는 커다란 나비를 제외하고는 모두 멈춰 있었다. 프라이아그란데 뒤쪽의 언덕을 넘으며 본 광경은 매우 아름다웠다. 색채는 강렬했고 어두운 파란색이 주를 이뤘으며, 평원 위의 하늘과 고요한 물줄기는 서로 경쟁하듯 찬란함을 과시하고 있었다. 몇몇 개간지를 지나 어떤 숲에 들어섰다. 숲 전체의 웅대함은 숲을 이루는 부분 부분의 아름다움을 압도했다. 정오 무렵 이타카이아 마을에 도착했다. 평원에 위치한 이 작은 마을에는 중심가 주위로 흑인들의 오두막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 집들은 규칙적인 모양과 위치를 하고 있었는데 이를 보고 남아프리카 호텐토트Hottentot의 주거지 모습이 생각났다. 달이 일찍 떠오르자 라고아마리카 지역에서 묵기 위해 그날 저녁에 출발하기로 했다. 어둠은 점점 깊어 가고 있었으며 우리는 거대하고 헐벗은 듯한 가파른 화강암질의 언덕 아

래를 지나가고 있었다. 이런 화강암 지대는 그 지역에서 흔히 볼 수 있는데, 도망쳐 온 노예들의 거주지로 오랫동안 악명이 높았던 곳이다. 그들은 꼭대기 부근의 작은 땅을 개간해 근근이 삶을 이어 가고 있었다. 결국 그들은 발각됐고 그곳으로 보낸 한 무리의 병사들에 의해, 늙은 여자 한 명을 제외하고 모두 붙잡혔다. 그들은 곧 다시 노예가 되었으나 그 늙은 여자는 산꼭대기에서 몸을 아래로 내던졌다. 그 여자가 만일 로마 시대의 귀족 부인이었다면 이러한 행위는 자유에 대한 고귀한 사랑이라 불렸을 것이다. 그러나 한 가난한 흑인 여성이었기에 단지 우매한 고집으로 치부될 뿐이다. 몇 시간 동안 우리는 계속해서 말을 달렸다. 거의 막바지 몇 킬로미터의 길은 몹시 뒤얽혀 있었으며, 늪과 석호가 있는 황무지 지역을 통과했다. 으스레한 달빛 아래의 광경은 몹시도 우울했다. 반딧불이 몇 마리가 우리 주위를 훨훨 날고 있었으며, 외로운 도요새는 날아오르자마자 애처로운 울음소리를 내뱉었다. 멀리서 들려오는 바다의 음울한 포효는 간간히 밤의 정적을 깨고 있었다.

4월 9일 | 우리는 해가 돋기 전에 그 누추한 잠자리를 떠났다. 바다와 석호 사이의, 폭이 좁은 모래 평지에 길이 나 있었다. 해오라기나 두루미와 같이 물고기를 잡아먹고 사는 아름다운 새들과 환상의 자태를 지니고 있는 다즙식물多汁植物들은 흥미로운 광경을 자아냈다. 몇몇 나무는 기생식물들에 의해 성장이 저해되기도 했는데, 이 기생식물 중 난초과에 속하는 일부 종의 아름다운 자태나 미묘한 향기는 칭송하기에 손색이 없었다. 태양이 떠오르자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기 시작했으며, 흰 모래에 반사된 빛과 열 때문에 우리는 몹시 괴로웠다. 만데티바에서 저녁 식사를 했는데 그늘인데도 온도계가 섭씨 31도를 가리키고 있었다. 멀리 떨어진 숲의 언덕이 넓은 석호의 고요한 수면에 반사되어 만들어 내는 아름다운 광경은 우리로 하여금 활기를 북돋아 주었다. 이곳의 벤다[1]는 아주 훌륭했으며 저녁 식사도 매우 만족스러웠기에, 실제 그랬던 기억은 별로 없지만서도, 어쨌든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그것의 형태를 설명

1 벤다는 포르투갈 말로 여인숙을 뜻한다.

하겠다. 이곳의 집들은 대개 큰 편이다. 두꺼운 기둥을 수직으로 세우고 큰 가지로 그 사이를 얽고 난 후에 회반죽으로 벽토를 쌓아 올려 만든다. 마루와 유리창은 거의 없지만 지붕 씌우기는 대체로 꽤 잘된 편이다. 대개 집 앞쪽으로 확 트인 곳에 베란다 비슷한 것이 있고 그곳에 테이블과 벤치가 놓여 있다. 침실은 쭉 붙어 있으며, 여행객들이 편안히 잠잘 수 있게끔 나무 침대가 있고 그 위에 짚 매트가 얇게 깔려 있다. 벤다는 안쪽 마당 한가운데에 있고 그 주위에서 말들에게 먹이를 먹인다. 우리는 관례대로 처음 도착해서 말의 안장을 풀고 말들에게 인디오 옥수수를 먹였다. 그다음 낮은 목례로 주인에게 음식을 달라고 요청했다. 주인은 대개 "어떤 것이라도 선택만 하세요, 손님"이라고 대답했다. 처음 잠깐이지만 우리를 이렇게 좋은 사람에게 안내해 준 신께 감사의 기도까지 올렸다. 그러나 그런 기도도 헛되이 대화가 진행됨에 따라 점점 비참해지기 시작했다. "생선 요리를 좀 주실 수 있습니까?" "오! 없는데요. 손님!" "수프라도?" "없습니다!" "그럼 빵이라도?" "그것도 없어요!" "그럼, 말린 고기라도?" "오! 없답니다! 손님!"—우리가 만일 운이 좋아 두어 시간 기다린다면 닭이나 쌀, 파링야farinha를 얻을 수 있었을 것이다. 우리가 저녁거리를 마련하기 위해 가축을 돌로 쳐서 죽이는 일이 드물지도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피로와 굶주림으로 거의 지쳐 버렸을 때, 우리는 음식을 주면 대단히 감사할 것이라는 마음을 넌지시 주인에게 암시했지만, 거만하고 불만이 가득 찬 대답만 되돌아왔다. "준비되면 드릴 테니 잠자코 있으세요." 만약 더 이상 불만을 표한다면 가던 여행이나 계속하라는 너무나도 매몰찬 말을 들어야만 했을 것이다. 주인은 매우 불친절하고 태도도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의 집과 가족들은 매우 불결하고 포크나 나이프, 스푼도 잘 갖춰져 있지 않았다. 영국의 어떤 시골집이라도 이렇듯 모든 편의 시설이 최악인 곳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나는 확신한다. 그러나 캄포스노보스에서는 사치스러울 정도로 호화로운 저녁 식사를 대접받았다. 밥과 닭, 비스킷과 와인, 더불어 기분 좋은 친절까지 선물로 받았다. 밤에는 커피가 나왔으며 아침에는 커피를 곁들인 생선

요리가 나왔다. 말들에게 좋은 음식을 준 것까지 합해 한 사람당 2실링 6페니밖에 되지 않았다. 그러나 그 숙박집 주인에게 우리 일행 중 한 명이 잃어버린 채찍에 대해 묻자 그 주인은 퉁명스럽게 “내가 어떻게 그걸 알 수 있겠어요? 내가 그것까지 챙겨야 해요?—아마 개가 벌써 먹어 버렸을 거예요”라고 대답했다.

만데티바를 떠나, 우리는 호수가 있는 복잡한 황무지를 계속 지나갔다. 어떤 호수에서는 민물에 사는 조개가 발견되고 어떤 호수에서는 짠물에 사는 조개가 나타났다. 나는 전자前者의 호수에서 물달팽이속Limnaea 1종을 많이 발견했다. 이곳 주민의 말에 의하면, 바닷물이 1년에 한 번이나 가끔은 더 자주 들어온다는 것으로 보아 물이 왜 짠지 이해할 수 있었다. 브라질 해안선의 가장자리를 따라 펼쳐진 석호에서, 짠물에 사는 생물과 민물에 사는 생물이 공존한다는 사실은 나로 하여금 많은 흥미를 불러일으켰다. 게이[2] 씨는 리우 부근에서 짠물에 서식하는 솔렌속Solen, 미틸루스속Mytilus의 이매패류二枚貝類와 함께 암풀라리아속Ampullaria의 민물 달팽이가 약간 찝찔한 민물에 함께 살고 있는 것을 봤다고 언급했다. 식물원 근처에 있는 석호는 바닷물보다는 소금기가 덜한 상태였는데, 여기서 나는 영국의 민물 하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수중 딱정벌레와 매우 유사한 물땡땡이속Hydrophilus 종을 자주 발견했다. 이놈들은 대개 바다로 통하는 큰 강어귀에서 나타나는데, 이곳 호수에서도 출현한 것이다.

얼마 후 해안선을 떠나 다시 숲으로 들어왔다. 그곳의 나무들은 키가 아주 크고 줄기가 흰색을 띠고 있어서 유럽의 나무들과는 많이 달랐다. 내 노트에는 “멋지고 아름다운 꽃이 피는 기생 생물이 이 웅장한 숲 속에서 가장 고귀하게 여겨진다”고 적혀 있다. 우리는 여행을 계속하면서 한 목초지를 지나게 되었다. 그곳은 높이가 거의 4미터인 거대한 원뿔 모양의 개미집들로 훼손돼 있었다. 그것은 훔볼트가 묘사한 조루요 지역의 진흙 화산과 거의 같은 모습이었다. 어두워진 후에야 우리는 엔겐오도 지방에 도착했는데, 가는 도중에 거의

2 《자연사 연보》(1883).

열 시간가량을 말 등에서 보내야만 했다. 여행을 하는 동안, 말이 그렇게 많은 노동량을 견뎌 내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에 놀랐다. 영국에서 사육된 말보다 이곳의 말들은 상처 회복에 걸리는 시간이 무척 빠른 것 같다. 종종 흡혈박쥐가 말 어깨 사이의 융기된 부분을 깨물어 문제를 일으키곤 했는데, 이러한 상처들은 출혈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상처가 난 후에 올려놓은 안장이 누르는 압력 때문에 생긴 일종의 염증 때문이다. 최근 영국에서는 이에 대해 의문을 품는 사람이 많았는데, 나는 운이 좋게도 말 등에 붙어 있는 흡혈박쥐Desmodus d'orbignyi를 직접 볼 수 있었다. 우리는 저녁 늦게 칠레의 코킴보[3] 근처에서 천막을 치고 있었다. 그때 말 한 마리가 날뛰어 무슨 일인지 알아보기 위해 하인 한 명을 시켜 가 보게 했다. 그는 무언가를 찾는 듯하더니 갑자기 말 어깨 사이로 손을 가져가 흡혈박쥐 한 마리를 잡아챘다. 다음 날 아침에 보니 상처 부위는 약간 부어오르고 핏빛을 띠고 있어 쉽게 구별이 되었다. 그로부터 3일 후 우리는 별문제 없이 그 말을 타고 길을 떠났다.

4월 13일 | 3일간의 여행 끝에 우리는 소세고 지방에 도착했다. 그곳은 우리 일행 중 한 명과 친척인 마누엘 피기레다의 별장이 있는 곳이다. 집은 단순했고 형태가 헛간과 유사하지만 기후에는 잘 맞는 것 같다. 거실에 있는 금박을 입힌 의자와 소파는 흰 도료를 입힌 벽과 초가지붕, 유리 없는 창과 묘한 대조를 이룬다. 집 건물은 곳간과 마구간, 그리고 각종 기술을 배우는 흑인들을 위한 작업장과 함께 사각형 형태로 배치되어 있으며 그 중앙에 많은 양의 커피를 쌓아 놓은 채 말리고 있었다. 이 건물은 개간지가 내려다보이는 작은 언덕 위에 있고 짙은 초록색을 띠는 울창한 숲으로 사면이 둘러싸여 있다. 커피는 이 고장의 주요 생산품 중 하나다. 커피나무 한 그루당 연간 평균 1킬로그램을 생산하는데, 어떤 것은 4킬로그램 넘게 생산한다. 또한 만디오카mandioca나 카사바cassaba도 많이 경작한다. 이 식물에서 쓸모없는 부분은 거의 없다. 잎

3 칠레 북부에 있는 주州. 동쪽으로 아르헨티나와 경계를 이루며 서쪽으로 태평양에 접해 있다–역주.

과 줄기는 말들의 먹이로 주고, 뿌리는 갈아 걸쭉한 펄프로 만든 후 눌러서 건조시킨 다음 구워 내 브라질 사람들의 주식 중 하나인 파링야를 만든다. 영양가 높은 이 식물의 즙이 독성이 매우 강하다는 것은 이상하다. 몇 년 전 이 농원에서 그 즙을 마신 소들이 죽은 일이 있었다. 피기레다 씨는 작년에 완두콩 페이자오 한 부대와 쌀 세 부대를 심었는데 콩은 80배, 쌀은 320배 정도의 양을 수확했다고 한다. 이 목초지는 혈통 좋은 소들이 많으며 또한 사냥하기에 좋은 숲들이 많다. 지난 3일 동안 하루에 사슴을 한 마리씩 잡았다. 먹을거리가 풍부하다는 사실이 저녁 식사에 그대로 반영되었다. 상다리가 휘어지게 차려진 식탁 앞에서 이 모든 음식을 먹어야만 하는 손님들은 신음을 냈다. 하루는 모든 음식의 맛을 볼 작정을 하고 식사를 하려는데 구운 칠면조와 돼지가 통째로 나와서 무척이나 당황스러웠다. 식사를 하는 동안에 나는 한 하인이 여러 종류의 사냥개와 흑인 아이들에게 슬금슬금 다가가는 것을 봤다. 그는 틈만 나면 식당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개와 아이들을 식당 밖으로 내모는 일을 하도록 고용된 하인이었다. 노예에 대한 생각만 배제한다면, 이렇게 단순하고도 족장 같은 삶도 매우 매력적일 것이다. 이는 세상으로부터의 완전한 은퇴와 독립을 의미한다.

손님이 도착하면 큰 종을 울리고 때로는 작은 축포도 쏘아 대는데, 그것은 소리만 요란할 뿐 그 이상의 의미는 없다. 어느 날 아침 엄숙하리만치 적막한 아침 광경을 감상하기 위해 날이 밝기 약 한 시간 전에 산책을 나갔다. 이윽고 흑인들이 모두 모여 큰 소리로 아침 찬송가를 부르면서 새벽의 고요함을 깨웠다. 흑인들은 이러한 방식으로 일과를 시작하는 것 같다. 이곳과 같은 대농장에서 노예들이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산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흑인들은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자신들을 위해 일을 한다. 풍작을 기대할 수 있는 이러한 기후 조건에서는 이틀 동안의 노동만으로도 그들 전체 가족을 일주일 동안 부양하기에 충분하다.

4월 14일 | 소세고를 떠나, 우리가 가는 방향에서 마지막 개간지인 마카이 강

유역에 있는 대농장으로 말을 달렸다. 그곳의 토지는 길이가 4킬로미터나 되는데도, 주인은 넓이가 얼마인지도 몰랐다. 아주 작은 부분만 개간해 사용하고 있었지만, 거의 전 지역이 열대 지방의 다양한 식물을 생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했다. 광대한 브라질의 면적을 생각해 볼 때, 개간한 토지는 원시림 상태로 내버려 둔 땅과 비교하면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다. 그러니 앞으로 이 거대한 땅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릴 수 있을 것인가! 이튿날 우리는 길이 막혀서 덩굴을 칼로 제거하며 전진해야 했다. 숲에는 아름다운 식물들이 많았다. 그중에서 나무고사리는 크지는 않지만 밝은 초록색 잎이 우아하게 휘어져 있어 경탄을 자아냈다. 저녁에는 엄청난 비가 내렸다. 온도계가 섭씨 27도를 가리키고 있는데도 나는 추위를 느꼈다. 비가 그치는 순간 신기하게도 숲 전역에 걸쳐 엄청난 증발이 시작되었다. 약 30미터 높이의 언덕이 짙은 흰 수증기에 묻혀 버렸다. 이 수증기는 울창한 수풀들, 특히나 계곡들에서 피어오르는 연기 기둥 같다. 나는 이런 현상을 몇 번이나 관찰한 적이 있었다. 아마도 햇볕에 의해 가열되어 있던 넓은 잎이 비를 맞아 일어나는 것 같다.

여기 대농장에 머무는 동안, 노예가 있는 나라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 잔학한 행위를 아주 가까이에서 목격했다. 다툼과 소송 때문에 농장 주인은 남자 노예로부터 그의 아내와 아이들을 떼어 내 리우의 공공 경매에서 따로따로 팔려는 순간이었다. 동정심 때문이 아니라 이해관계가 맞지 않아서 이 일은 성사되지 않았다. 진실로, 수년간 함께 살아온 서른 명의 가족들을 따로 떼어 내려는 비인간적인 마음이 그 주인에게까지 일어났다고는 믿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간성이나 착한 심성이 다른 보통 사람들보다는 훨씬 나을 것이라고 맹세하고 싶다. 이는 맹목적인 이윤 추구와 이기적 관습에는 한계가 없다는 것을 보여 준다. 그 당시 어떤 잔인한 이야기보다도 더 큰 충격을 준, 아주 작은 일화 하나를 얘기해야겠다. 보통보다 좀 더 아둔해 보이는 흑인 노예 한 명과 함께 나룻배를 타고 간 적이 있었다. 도중에 내 뜻을 전달하기 위해 큰 소리로 얘기하거나 손짓을 하다가 그만 내 손이 그의 얼굴 가까운 곳을

스쳐 지나갔다. 그런데 그는 내가 화가 나서 자신을 때리려는 것으로 생각했는지, 순간적으로 놀란 얼굴에 눈을 반쯤 감더니 손을 아래로 턱 늘어뜨리는 것이었다. 이처럼 크고 힘센 남자가 자기 얼굴에 곧바로 날아올 것으로 예상되는 주먹을 피하는 것조차 두려워하는 것을 보면서, 당시 내가 느낀 놀라움과 혐오감 그리고 부끄러움은 결코 잊을 수 없다. 그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장 무력한 동물인 노예보다도 더 낮은 퇴화 상태로 길들여진 것이다.

4월 18일 | 돌아오는 길에 우리는 이틀 동안 소세고에 머물며 숲 속의 곤충들을 채집했다. 대부분의 나무들이 키는 크지만 둘레는 1미터도 되지 않았다. 물론 그것보다 훨씬 굵은 나무들도 있다. 마누엘 씨는 길이가 33미터 정도 되고 줄기가 매우 굵은 질긴 나무를 이용해 길이가 21미터 정도 되는 카누를 만들고 있었다. 야자나무들은 주위의 가지가 많은 나무들과 비교할 때 열대 지역의 풍경을 연출하는 데 부족함이 없다. 특히 양배추야자나무Cabbage palm는 이 과科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종류로 숲을 예쁘게 장식하고 있었다. 두 손으로 충분히 감싸 잡을 수 있을 만큼 줄기가 가늘어서, 줄기 끝이 지상으로부터 12~15미터 높이에서 우아하게 흔들린다. 덩굴 식물들은 서로 어울려 감싸고 있어 줄기가 매우 굵은데 어떤 것은 둘레가 60센티미터나 되는 것도 있었다. 좀 더 늙은 나무들의 가지에는 칡덩굴이 건초 더미처럼 매달려 있어 매우 기이하게 보였다. 지면으로 눈을 돌려 보면 고사리와 미모사[4]의 우아한 자태가 매혹적이었다. 일부 지역에서는 몇 센티미터 정도 높이의 미모사 관목층이 땅 위를 덮고 있었는데, 그 지역을 걸어가면 매우 민감한 미모사의 잎자루들이 아래로 늘어지면서 숲의 음영이 바뀌어 지나간 흔적을 알 수 있게 했다. 이런 멋진 풍경 속에서 감탄을 자아내게 하는 대상들을 일일이 설명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내 마음을 가득 채우면서 격앙시키는 경이로움이나 놀라움, 강한 애착과 같은 보다 고차원적인 감정을 적절히 표현하기란 불가능하다.

4 미모사과에 속하며 열대와 아열대 지역에서 자라는 450여 종의 식물로 이루어진 속-역주.

4월 19일 | 소세고를 떠나 처음 이틀 동안은 오던 길을 되돌아갔다. 해안선에서 멀지 않은 뜨거운 모래 평원을 지나야 했기 때문에 매우 지루하고도 힘들었다. 말들이 고운 규산질 모래를 밟을 때마다 부드럽게 사각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3일째 되는 날, 다른 길로 접어들어 마드레데데오스라는 작은 마을을 지나갔다. 이 길은 브라질의 주요 도로 중 하나지만 상태가 그리 좋지 않아 우마차를 제외하고는 바퀴 달린 어떤 것도 지나갈 수가 없었다. 여행 기간을 통틀어 돌로 된 다리를 건넌 적이 없었고, 통나무 다리들도 대부분 보수를 하지 않아서 그것들을 피해 한쪽 방향으로 가야만 했다. 거리 표시도 거의 부정확하고, 종종 이정표가 있어야 할 자리에 십자가를 세워 그곳에서 사람들이 피를 흘렸음을 나타내기도 했다. 23일 저녁 무렵 리우데자네이루에 도착해서 즐거웠던 짧은 답사를 끝냈다.

리우데자네이루에서의 나머지 기간을 나는 보토포고 만에 있는 오두막집에서 지냈다. 이 광활한 지역에서 몇 주를 보내는 것보다 더 즐거운 일은 없으리라. 영국에서는 자연사학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산책을 하면서 그의 관심을 끄는 것들을 발견하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겠지만, 여기처럼 기후가 비옥하고 생명이 충만한 곳에서는 시선을 끄는 것이 너무 많아 거의 걸어 다닐 수조차 없다.

내가 관찰한 것들은 거의 대부분 무척추동물에 관한 것이다. 건조한 육상에 서식하는 플라나리아속Planaria 동물이 발견된다는 점은 매우 흥미롭다. 이 동물들은 매우 단순한 구조를 띠고 있어서, 동물의 장내에서 한 번도 발견된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퀴비에 씨조차 이들을 장내 기생충으로 분류했다. 많은 종들이 짠물과 민물에 서식한다. 그러나 내가 관찰한 것들은 숲의 비교적 건조한 곳인 썩은 통나무 아래에서 발견되었는데 아마도 그것을 먹고 사는 것 같다. 일반적 형태로 보아 플라나리아는 작은 민달팽이와 비슷하다. 그러나 훨씬 가늘고 몇몇 종은 세로로 줄무늬가 아름답게 나 있는 것도 있다. 몸의 구조는 매우 간단하다. 아래, 즉 배 쪽 피부 가운데에 옆으로 작은 구멍이 두 개

뚫려 있다. 그중 머리 쪽에 있는 구멍 하나에서 깔때기 모양의 매우 민감한 입이 튀어나온다. 짠물이나 다른 원인에 의해 몸의 나머지 부분이 죽은 지 한참 후에도 입은 여전히 살아 움직였다.

나는 남아메리카 대륙의 여러 지역에서 육상 플라나리아를 12종 이상 발견했으며,[5] 반디멘스랜드[6] 지역에서 채집한 표본 몇 마리에게 썩은 통나무를 먹여서 거의 두 달 정도 키운 적도 있었다. 그것들 중 한 마리를 가로로 정확히 반으로 잘라서 키워 보니 약 2주 후에 완전한 형체를 가진 두 마리로 자랐다. 그러나 자를 때 한쪽은 배에 있는 구멍 두 개를 포함하고 다른 쪽은 하나도 포함하지 않게 자르면 그 결과는 달랐다. 처치 후 25일 정도가 되면 좀 더 완전한 반쪽은 다른 개체와 구별이 거의 되지 않게 자라는 반면, 다른 한쪽은 개체의 크기가 커지고 몸 뒤쪽에 발달한 이상 조직에 빈 공간이 생겨 그곳에서 발생 초기에 나타나는 컵 모양의 입이 형성되었다. 그러나 아직 피부 쪽으로 구멍이 뚫리지는 않았다. 우리가 적도 지역으로 항해해 감에 따라 기온이 올라가서 모든 플라나리아들이 죽지만 않았더라면, 마지막 단계를 거쳐 완전한 형체를 이뤘을 것이다. 잘 알려진 실험이지만 극히 단순한 끝부분만 가진 개체에서 각각의 필수 기관들이 점차적으로 만들어져 가는 과정을 보는 것은 매우 흥미로웠다. 플라나리아를 보존하는 일은 매우 어렵다. 죽자마자 변화의 일반적인 법칙이 작용해 플라나리아의 몸은 내가 이제까지 본 적이 없을 정도로 빠르게 부드러워지고 흐물흐물해졌다.

내가 애초에 플라나리아를 발견했던 숲에 간 것은 한 포르투갈 노사제가 나를 사냥터에 데리고 갔기 때문이다. 사냥개 몇 마리를 풀어놓은 후 동물이 나타나면 총 쏠 준비를 하며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렸다. 우리는 이웃 농부의 아들과 동행했는데, 그는 전형적인 브라질 농촌 젊은이로 누더기처럼 오래된 셔츠와 바지를 입었고 모자는 쓰지 않았으며 구식 총과 큰 칼을 지니고 있었다.

5 이 종들을 《자연사 연보》 14권, 241쪽에 기술하고 명명했다.

6 오스트레일리아 남동부의 섬 식민지-역주.

칼은 울창한 숲을 지날 때 덩굴 식물의 굵은 줄기를 자르는 데 필수적이라 대개는 습관적으로 칼을 지니고 다닌다. 이것이 살인 사건의 일부 원인이 되기도 한다. 브라질 사람들은 칼을 잘 다루어서 먼 곳에서도 정확히, 그리고 치명적인 상처를 입힐 정도로 던질 수 있다. 나는 소년들이 이러한 기술을 놀이 삼아 하는 것을 보았고, 세워 놓은 막대기를 칼로 맞히는 것을 보며 이보다 더한 시도도 할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었다. 어제 포르투갈 노사제는 커다란 턱수염원숭이 두 마리를 잡았다. 이것들의 꼬리는 가지를 잡는 힘이 상당해서 심지어 죽은 후에도 나무에 매달린 꼬리로 몸을 지탱할 수 있을 정도다. 두 마리 중 하나는 가지에 매달려 단단히 고정된 채 죽어서 이것을 내리기 위해 그 큰 나무를 잘라야만 했다. 큰 소리를 내며 나무가 넘어지면서 원숭이가 같이 떨어져 내려왔다. 이날은 원숭이뿐만 아니라 온갖 종류의 작은 녹색앵무새와 긴부리새 몇 마리도 사냥했다. 그러나 잘 만들어진 야가란데 고양이Yagouaroundi cat[7] 박제 한 점을 노사제로부터 얻은 것이 나에게는 더 큰 수확이었다.

누구나 한번쯤은 보토포고 만 근처의 아름다운 광경에 대해 들어 본 적이 있을 것이다. 내가 묵었던 집은 유명한 코르코바도 산 바로 아래에 있었다. 급경사의 원뿔형 언덕은, 훔볼트가 편마 화강암이라고 한 지형의 특징을 잘 나타낸다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었다. 울창한 산림 위로 솟아 있는 이 거대한 둥근 암반보다 더 인상적인 것은 아마 없을 것이다.

나는 지나가는 구름들을 흥미롭게 관찰하곤 했는데, 그것들은 바다에서 감기듯 형성되어 코르코바도의 최고봉 바로 아래에서 구름층을 형성했다. 다른 산들과 마찬가지로 이 산은 구름에 의해 일부분이 베일에 싸여 있었으며 실제 높이인 690미터보다 더 높고 위풍당당해 보였다. 다니엘 씨는 때로 구름이 산의 정상에 고정된 것처럼 보이며 그 위로 바람이 계속 불어 올라간다고 기상학 논고에 썼다. 이와 똑같은 현상이 여기에서는 약간 다르게 보였다. 여기 구

7 작고 점이 없는 고양잇과 동물로 수달류와 비슷하고 헤엄을 잘 쳐 otter-cat이라는 영어명으로 알려져 있다-역주.

름은 소용돌이치며 산 정상을 빠르게 넘어갔다. 그러나 그 크기가 줄어들거나 커지는 것은 아니었다. 해는 지고 있었고, 부드러운 남풍이 암반의 남사면에 부딪히면서 상층의 찬 공기와 섞여 수증기가 응결됐다. 그러나 가벼운 동심원 모양의 이 구름층이 산마루를 지나 반대편 북사면의 따뜻한 공기의 영향권 내로 들어감에 따라 빠르게 증발됐다.

5월과 6월, 즉 초겨울에 해당하는 계절의 기후는 쾌적한 편이다. 오전, 오후 각각 9시경에 측정한 평균 온도는 섭씨 24도 정도 되었다. 종종 폭우가 쏟아졌지만 곧 건조한 남풍이 불어와 여행자의 발걸음을 즐겁게 만들었다. 하루는 아침나절 여섯 시간 동안 비가 4센티미터나 쏟아졌다. 이 비구름대가 코르코바도 산맥을 감싸고 있는 숲을 지나갈 때면, 셀 수 없이 많은 잎들에 빗방울이 후드득거리며 떨어지는 소리가 정말로 굉장했다. 그 소리는 약 4백 미터 밖에서도 들을 수 있었는데 마치 거대한 물 덩어리가 세차게 몰려오는 것 같았다. 무더운 며칠이 지난 후, 나는 정원에 조용히 앉아 저물어 가는 저녁을 즐기고 있었다. 이런 곳의 자연에는 유럽에 비해 아기자기한 소리를 내는 작은 동물이 많다. 작은 청개구리속Hyla 한 마리가 수면 위 3센티미터 정도에 있는 풀잎에 앉아 경쾌한 소리를 내고 있다. 몇 마리가 함께 있으면 서로 다른 음정이 조화를 이룬다. 이 청개구리를 잡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청개구리들은 발가락 끝에 작은 빨판이 있다. 나는 이 동물이 수직으로 세워져 있는 판유리를 기어오르는 것을 관찰한 적이 있다. 다양한 종류의 노린재류Cicidae[8]와 귀뚜라미들이 동시에 쉬지 않고 소리를 높여 대고 있었지만 먼 거리에서 들려오는 것이라 부드러워서 그런지 듣기에 나쁘지는 않았다. 매일 저녁마다 어둠이 깔리면 이런 위대한 음악회가 시작됐다. 내 앞으로 지나가는 신기한 곤충들에게 관심이 쏠리기 전까지는, 나는 종종 그곳에 앉아 이 위대한 교향악을 감상했다.

이때쯤이면 울타리 사이를 날아다니는 반딧불이들이 보인다. 어두운 밤에는

8 노린재목에 속하는 곤충의 한 과科–역주.

약 2백 걸음 떨어진 곳에서도 이 불빛을 볼 수 있다. 내가 관찰한 모든 종류의 반딧불이 유충, 반짝이는 방아벌레 그리고 다양한 해양성 생물들(예를 들자면 갑각류, 해파리류, 갯지렁이류, 빛히드라속Clytia의 산호류와 피로스마속Pyrosma)은 뚜렷한 녹색 빛을 냈다. 여기서 내가 잡았던 반딧불이들은 모두 반딧불이과Lampyridae(영국의 반딧불이 유충도 여기에 속한다)에 속한 것으로 대부분이 서양 반딧불이Lampyris occidentalis였다.[9] 이 곤충들은 자극을 받으면 매우 강렬한 빛을 낸다.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배 부분의 고리들이 흐릿하게 변한다. 빛은 두 개의 고리에서 거의 동시에 나타나는데 앞부분에서 먼저 눈에 띄게 나타난다. 발광물질은 매우 끈적거리는 액체이다. 표피가 찢긴 작은 부위에서는 약한 불빛이 계속 흘러나오나 상처가 없는 부분은 흐릿한 상태로 남아 있다. 곤충의 머리를 떼어 낸 후에도 그 고리들은 계속해서 빛을 냈지만 강도는 전보다 약했다. 바늘로 여기저기 자극을 주면 항상 빛의 세기가 커졌다. 어떤 경우 곤충이 죽고 난 뒤 거의 24시간 동안이나 고리에서 빛이 나왔다. 이러한 사실로부터 짐작컨대 이 동물은 짧은 시간 동안 빛을 숨기거나 꺼버리는 능력만 있으며, 다른 때는 스스로 조절할 수 없는 것 같다. 진흙과 축축한 자갈길에서 이 반딧불이의 유충을 다수 발견했는데 영국 반딧불이 유충의 암컷과 형태가 비슷했다. 이 유충들은 약한 빛을 내고, 성체와는 달리 가볍게 건드리면 죽은 듯이 가만히 있으며 빛을 내지 않았다. 아무리 자극을 줘도 선명한 빛을 내지 않았다. 얼마간 이놈들을 살아 있는 상태로 유지하며 관찰해 보니 그놈들의 꼬리는 매우 독특한 기관이었다. 꼬리 부분은 빨판 또는 부착 기관인 동시에 침이나 다른 액체들을 보관하는 장소로 매우 적합했다. 나는 여러 번 반복해 날고기를 먹여 봤는데, 한 가지 일정한 행동을 관찰할 수 있었다. 매번 그놈들은 꼬리 끝부분을 입 쪽으로 가져간 다음 고기 위에 액체 한 방울을 떨어뜨리고 나서 먹이를 먹는 것이었다. 꼬리를 그렇게 많이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꼬리가 곧바

9 이 곤충을 비롯해 다른 많은 곤충의 이름을 알려 주고 여러 가지로 귀중한 도움을 주신 워터하우스 씨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로 입을 향하지는 못했다. 항상 꼬리가 목에 먼저 닿는 것으로 보아 목 부위가 안내자 역할을 하는 것 같다.

바이아 지역에 머물렀을 당시에는, 방아벌레 혹은 딱정벌레의 한 종Pyrophorus luminosus, Illig.이 가장 흔한 발광성 곤충이었다. 이 곤충도 자극하면 더 밝게 빛난다. 하루는 이 곤충의 뛰어오르는 능력을 보고 매우 놀란 적이 있었는데, 과거에는 내가 본 것처럼 적절히 묘사되어 있지 않았었다.[10] 방아벌레를 뒤집어 놓았더니 뛰어오르려는 준비를 했다. 머리와 가슴을 뒤쪽으로 움직여 가슴 부위의 돌기를 늘어나게 하고 껍질 가장자리로 몸을 지탱했다. 뒤쪽으로 당겨지는 운동이 지속되면서 근육이 최대한 늘어나 가슴 돌기는 용수철처럼 휘어졌다. 이때 그 곤충은 머리와 겉날개의 끝부분만으로 몸을 지탱했다. 이런 탄성을 유지하는데, 가해지는 힘을 갑자기 빼면서 동시에 머리와 가슴 부위가 날아올랐고 그 결과 겉날개의 아랫부분이 바닥을 쳤다. 이 힘의 반동으로 방아벌레는 3~5센티미터 높이까지 획 튀어 올랐다. 튀어 오르는 동안 가슴 돌기와 껍질이 몸 전체의 균형을 잡아 줬다. 내가 지금까지 읽었던 기존 내용에는, 돌기에 탄성을 줄 만큼의 힘이 충분히 가해진다는 내용이 없다. 즉 그렇게 갑작스럽게 튀어 오를 수 있는 것은, 어떤 기계적 구조의 도움 없이 단순히 근육 수축만으로는 되지 않을 것이다.

짧지만 매우 유쾌했던 여러 차례의 답사를 통해 인근 지역을 둘러봤다. 하루는 식물원에 갔는데, 매우 유용하다고 알려진 많은 식물들이 자라고 있었다. 녹나무와 후추나무, 육계나무와 정향나무 잎들이 기분 좋은 냄새를 풍기고 있었다. 그리고 빵나무Breadfruit와 자카Jaca, 망고나무 잎들은 울창함을 뽐내며 서로 경쟁하고 있었다. 바이아 인근의 풍경은 자카와 망고나무로부터 그 특징이 나타난다. 나는 그것들을 보기 전까지는 나무들이 땅바닥에 그렇게 컴컴한 그림자를 드리울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이 두 종의 나무는 이러한 기후대에서 나타나는 상록수 식생의 주를 이루고 있으며, 이는 영국의 월계수나

10 커비의 《곤충학》 2권, 317쪽.

호랑가시나무가 보다 밝은 녹색의 낙엽수 식생을 이루는 것과 같다. 열대 지방의 집은 매우 아름다운 나무들로 둘러싸여 있는데 이곳 나무들이 아름다운 동시에 매우 유용하기 때문이다. 바나나, 야자수, 다양한 종류의 야자나무들, 오렌지 그리고 빵나무는 이런 유용함의 결정체라고나 할까?

이날 나는 훔볼트가 종종 언급한 "공기의 투명도는 변하지 않은 채, 공기의 색조를 보다 조화롭고 부드럽게 하는 엷은 수증기층"에 강한 인상을 받았다. 온대 지역에서는 결코 볼 수 없던 현상이다. 1킬로미터 내외의 짧은 공간에서 보면 공기층은 매우 맑았으나 거리가 멀어짐에 따라 모든 색들이 매우 아름다운 안개 속으로 섞여 들어가 약간 푸른빛이 도는 엷은 회색빛을 띠었다. 이러한 현상이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아침부터 정오 사이의 대기 조건은 습도를 제외하고는 거의 변화가 없었다. 아침과 정오 사이에 이슬점과 기온의 차이는 섭씨 5도에서 10도로 증가했다.

한번은 아침 일찍 그곳에서 가장 높은 산인 가비아 산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공기는 기분 좋을 정도로 차가웠고 향기로웠다. 큰 백합과 식물들은 깨끗한 물이 흐르는 실개천에 그늘을 드리우고 있었고 잎에는 아침 이슬방울이 아직도 영롱한 빛을 발하고 있었다. 화강암에 걸터앉아 다양한 곤충과 새들이 바삐 날아오르는 모습을 관찰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벌새들은 특히 그늘지고 구석진 곳을 좋아하는 것 같다.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빠른 날갯짓을 하며 꽃 주위에서 윙윙거리는 그 작은 새를 볼 때마다 그것들과 행동이나 습성이 여러 면에서 매우 비슷한 박각시나방이 생각났다.

길을 따라가다 근사한 숲으로 들어갔다. 해발 150~180미터 정도에 오르자 리우 어디에서나 흔히 볼 수 있는 멋진 풍경이 눈에 들어왔다. 이 정도 높이에서 보이는 풍경은 매우 밝은 색조를 띠고, 숲의 형태와 음영이 만들어 내는 장엄함은 너무나 완벽해서 유럽인인 내가 모국에서 봤던 모든 것들을 압도하며 그 느낌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를 정도다. 전체적인 광경은 오페라 하우스 또는 대형 극장에서 봤던 유쾌한 장면을 자주 떠오르게 했다. 이런 답사에

서 나는 결코 빈손으로 돌아오는 법이 없었다. 이날 나는 하이메노팔루스속 Hymenophallus의 흥미로운 곰팡이를 발견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영국에서 말뚝버섯속Phallus 곰팡이가 가을에 불쾌한 냄새로 공기를 더럽힌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그것이 몇몇 딱정벌레에게는 좋은 향기로 느껴진다는 것을 곤충학자들은 알고 있다. 이곳에서도 그랬다. 내 손안에 있던 곰팡이의 냄새에 이끌려 별거저리속Strongylium[11] 곤충 한 마리가 그 위에 내려앉았다. 멀리 떨어진 두 지역에서 같은 과에 속하는 식물과 곤충들 사이에 유사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어떤 지역에 새로운 종을 도입하는 매개체가 인간인 경우 이러한 관련성은 종종 깨진다. 전에 한 번 정도 언급했듯이, 영국에서는 많은 민달팽이나 모충들이 양배추나 상추를 갉아 먹고 살지만, 이곳 리우 주위의 밭에서는 입에도 대지 않는다.

브라질에 머무는 동안 나는 곤충을 많이 채집했다. 여러 목目들의 상대적 중요성에 대해 관찰한 사항들은 영국 곤충학자들의 흥미를 끌 것이다. 크고 밝은 색깔을 띠는 나비목Lepidoptera 곤충들은 다른 어떤 종류의 동물들보다 더 확실하게 자신들의 서식지를 나타낸다. 내가 나비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이유는 이 지역에 나타나는 나무의 종류로 보아 나방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했으나, 예상외로 오히려 영국의 온대 지역보다도 더 적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나는 페로니아 호랑나비Papilio feronia의 습성을 보고 크게 놀랐다. 이 나비는 희귀한 편은 아니며 오렌지 과수원에 자주 출현한다. 높게 날아오르기도 하지만 나무줄기에 붙어 있는 것이 종종 보인다. 이런 경우 그놈들의 머리는 항상 아래쪽을 향하며 날개는, 일반적으로 수직으로 접고 있는 것 대신, 수평으로 쫙 펼치고 있다. 이놈들처럼 다리를 이용해 달리는 나비는 처음 봤다. 이 사실을 몰랐던 내가 핀셋을 가지고 조심스럽게 다가가자 이 곤충은 핀셋을 피해 한쪽으로 발을 끌며 도망가더니만 이내 날아가 버렸던 일이 한두 번이 아니다. 그

11 원서에는 Strongylus로 되어 원충과의 기생충으로 해석되지만, 의미상 딱정벌레가 맞으므로 별거저리속으로 해석한다–역주.

러나 무엇보다 특이한 점은 이 나비가 소리를 낸다는 사실이다.[12] 암컷과 수컷으로 추측되는 한 쌍의 나비들이 서로 불규칙하게 쫓고 쫓기며 내 쪽으로 몇 미터 안에 들어온 적이 있었다. 그때 분명히 뭔가 짤깍거리는 소리, 톱니바퀴가 용수철 고리 아래를 지나갈 때 나는 것과 비슷한 소리를 들었다. 그 소리는 짧은 간격을 두고 계속되었는데 약 18미터 거리에서도 똑똑히 들렸다. 나는 이러한 관찰이 틀리지 않았음을 확신한다.

딱정벌레목Coleoptera의 전반적 양상은 실망스러웠다. 크기가 작고 몸 색깔이 어두운 딱정벌레는 엄청나게 많다.[13] 아직까지, 유럽의 진열대에는 열대 지방에서 가져온 좀 더 큰 종들만 자랑스럽게 내놓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장차 곤충의 분류 목록을 완성하려고 하는 곤충학자의 마음에 흥분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 딱정벌레과Carabidae에 속하는 육식성 딱정벌레는 열대 지방에서는 그 수가 극히 적다. 육식성 네발 동물이 더운 지방에서 매우 풍부한 것과 비교해 보면 이러한 사실은 더욱 두드러져 보인다. 우아하고 활동적인 형태의 많은 먼지벌레과Harpalidae 곤충들이 라플라타의 온대 평원에 다시 나타난 것을 봤을 때처럼 브라질을 방문했을 때도 위의 관찰 사실을 실감했다. 수많은 거미들과 육식성 벌목Hymenoptera이 육식성 딱정벌레를 대신한 것일까? 썩은 고기를 먹는 생물이나 브라첼리트라류Brachelytra[14]는 거의 없고, 반면에 채식성

12 더블데이 씨는 최근에(1845년 3월 3일의 곤충학회에서) 이 나비가 소리를 내는 수단으로 보이는 날개의 독특한 구조를 기술했다 : "앞날개의 아랫부분, 늑골 시맥과 반늑골 시맥 사이에 일종의 북을 가진다는 점이 특이하다. 더군다나 이 두 시맥들의 내부에는 나사 모양의 독특한 격막이나 도관들이 존재한다." 랑스도르프의 《여행기》(1803~1807년에서의 74쪽)를 보면, 브라질 해안의 산타카타리나 섬에 있는 나비Februa Hoffmanseggi가 날아갈 때면 마치 장난감 딸랑이와 같은 소리가 난다고 기술되어 있다.

13 내가 딱정벌레목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았을 때도, 한 날(6월 23일)에 대략 그 목에 속하는 곤충 68종을 채집했었다. 그중에는 딱정벌레과 2종, 브라첼리트라류 4종, 왕바구미류 15종, 잎벌레과 14종이 포함되어 있다. 거미강Arachnidae도 37종을 채집해 영국으로 가져왔는데 이것만 보아도 내가 일반적으로 선호되는 딱정벌레목에만 지나치게 관심을 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충분히 증명될 것이다.

14 딱정벌레목 반날개과 곤충 중에서 짧은 겉날개를 가진 딱정벌레류—역주.

인 왕바구미류Rhyncophora와 잎벌레과Chrysomelidae들은 놀랄 정도로 많다.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종의 수가 아니라 개체 수다. 왜냐하면 여러 지역에서 나타나는 곤충학적 특성은 개체 수에 좌우되기 때문이다. 메뚜기목Orthoptera이나 노린재목Hemiptera에 속하는 곤충들은 특히 많다. 벌목의 쏘는 곤충들도 꿀벌을 제외하고는 역시 많다. 열대 우림에 처음 들어가 본 사람이라면 개미들이 일하는 것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잘 다진 길들이 모든 방향으로 나 있으며, 그 길을 따라 패배를 모르는 한 무리의 약탈자들이 잎사귀 조각을, 때로는 자기 몸집보다 더 큰 것을 등에 지고 앞뒤로 바삐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다.

검은색의 작은 개미들은 때로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떼를 지어 이동한다. 바이아 지방에 머물 때, 하루는 많은 거미들과 바퀴벌레 그리고 다른 종류의 곤충들과 도마뱀들이 큰 동요를 일으키며 맨땅을 가로질러 급히 이동하는 것을 보았다. 그 뒤쪽의 모든 잎자루와 잎사귀들이 개미들로 새까맣게 뒤덮였다. 개미 떼들은 맨땅을 건너 둘로 갈라지더니 오래된 벽을 따라 내려갔다. 이로 인해 많은 곤충들이 꼼짝없이 포위되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 불쌍한 작은 피조물들이 죽음에서 벗어나기 위해 애쓰는 모습은 장관이었다. 개미들은 길에 도착하자 경로를 바꾸더니 가느다란 대열을 지어 다시 벽을 타고 올라왔다. 대열을 흩트려 보기 위해 조그만 돌을 하나 놓았더니 모든 개미들이 덤벼들었다가 곧 물러났다. 잠시 후 이번에는 다른 개미들이 몰려와서 다시 시도했지만 앞서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한 채 다시 실패했고, 결국에는 이 경로를 완전히 포기해 버렸다. 3센티미터만 돌아가도 돌을 피할 수 있었을 것이고, 만약 돌이 처음부터 그곳에 있었더라면 실제로 피해 갔을 것이다. 그러나 돌이 자신들을 공격하는 것으로 여긴 용맹심에 불타는 작은 용사들은 항복이라는 생각 자체를 비웃었던 것이다.

장수말벌과 비슷한 수많은 곤충들은 애벌레를 키우기 위해 작은 진흙 방을 베란다 구석에 만드는데, 이것들이 리우 부근에 굉장히 많다. 그 곤충들은 방 안

에 반쯤 죽은 마비 상태의 거미들과 모충들을 가득 채우는데, 놀랍게도 알들이 부화할 때까지 먹이가 신선한 상태를 유지하려면 독침을 어느 정도 찔러야 하는지를 알고 있는 것 같다. 깨어난 유충들은, 힘없고 반쯤 죽은 희생자들의 무시무시한 몸통들을 먹고 사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어떤 열정적인 자연사학자[15]가 신기하고도 재미있다고 묘사한 바로 그 광경이다! 장수말벌인 펩시스속Pepsis 거미와 커다란 짧은마디늑대거미속Lycosa 거미 사이에 죽음을 무릅쓴 싸움은 정말 흥미로웠다. 말벌이 먹잇감인 거미에 갑자기 덤벼들었다가 날아올랐고, 이에 거미는 도망치다 작은 언덕 아래로 굴러 상처를 입은 것이 분명해 보였다. 그러나 두터운 덤불 속으로 기어갈 정도의 힘은 아직까지 남아 있었다. 곧 돌아온 말벌은 먹잇감이 곧바로 눈에 띄지 않자 놀라는 것 같았다. 그러고는 날개와 더듬이를 빠르게 흔들며 짧은 반원형 경로를 따라 마치 사냥개가 여우를 뒤쫓는 것처럼 샅샅이 먹잇감을 찾기 시작했다. 거미는 몸을 잘 숨겼음에도 불구하고 이내 발각되었고, 아직까지는 거미의 아래턱을 두려워하는 것 같았던 말벌은 여러 작전 행동들을 취한 후 거미의 가슴 아래 부위에 두 개의 침을 내리꽂았다. 마침내 말벌은 더듬이로 거미가 움직이지 않는 것을 조심스럽게 감지한 뒤 그 몸통을 끌고 갔다. 그러나 폭군이고 먹잇감이고 간에 둘 다 나에게 붙잡혔다.[16]

이곳의 거미는, 다른 곤충에 비해, 영국보다 훨씬 많다. 아마 절지동물의 다른 부류와 비교해 봐도 훨씬 더 많을 것이다. 깡충거미Jumping spider[17]들의 종 다양성은 거의 끝이 없어 보인다. 에페이라속Epeira 아니면 과科라고 하는 것이 더

15 대영 박물관에 보관 중인 애버트 씨의 원고에 그가 조지아에서 관찰한 내용이 적혀 있다. 《자연사 연보》 7권, 472쪽에 있는 화이트 씨의 논문에도 있다. 허튼이 인도에서 비슷한 습성의 조롱박벌에 대해 관찰한 내용이 《아시아 학회지》 1권, 555쪽에 기술되어 있다.

16 돈 펠릭스 아사라(1권, 175쪽)는 아마도 이와 같은 속에 속하는 벌목 곤충이 죽은 거미를 끌고 큰 풀숲을 지나 직선거리가 약 163걸음 정도 되는 자신의 둥지로 가는 것을 봤다고 했다. 장수말벌은 길을 찾기 위해 가끔씩 "폭이 손바닥 세 개 정도 되는 반원"을 그린다고 덧붙였다.

17 거미목Araneida 깡충거미과Salticidae 동물들. 깡충거미류는 거미류치고는 예리한 시각을 가지며, 낮에 활동하고 보통 양지바른 곳에 있다—역주.

나을지도 모르는, 거미는 여러 가지 기이한 형태를 하고 있다. 어떤 종들은 날카로운 가죽질의 껍질로 덮여 있고, 어떤 것들은 앞다리의 종아리 마디가 크며 가시로 덮여 있기도 하다. 숲 속의 모든 길은, 파브리시우스과Fabricius의 에페이라 클라비페스Epeira clavipes와 같은 부류의 거미들이 쳐놓은, 노란색의 튼튼한 거미줄로 막혀 있다. 슬로안Sloane의 말에 의하면, 서인도 제도에서는 이 거미줄이 새가 걸릴 정도로 강하다고 한다. 이 거미줄마다 앞다리가 매우 긴, 작고 귀여운 거미 한 종류가 기생하고 있는데 이놈들은 아직까지 기술되지 않은 속에 속한다. 워낙 몸집이 작은지라 거대한 에페이라속 거미의 눈에 띄지 않은 채 용케 살아서, 이놈들이 먹지 않으면 그대로 썩어 없어질, 거미줄에 매달린 작은 곤충들을 먹고 사는 것 같다. 이 작은 거미들은 위협을 받으면 앞다리를 쭉 뻗어 죽은 체하거나 갑자기 거미줄에서 떨어진다. 에페이라 튜베르쿨라타Epeira tuberculata, 에페이라 코니카Epeira conica와 같은 부류에 속하는 큰 에페이라속 거미는 특히 건조한 환경에서 매우 흔하다. 이놈들은 대개 용설란의 커다란 잎 사이에 거미줄을 친다. 때로 인접한 거미줄 중심부를 지그재그 모양의 리본으로 두 겹 혹은 네 겹 정도 연결해서 거미줄을 더 튼튼하게 만든다. 메뚜기나 장수말벌과 같은 큰 곤충이 잡히면 거미는 능란하게 움직여 먹잇감을 매우 빠르게 돌리는 것과 동시에 방적 돌기로부터 실을 뽑아내 삽시간에 그 먹이들을 누에고치처럼 감싸 버린다. 그런 후 그 힘없는 희생물을 자세히 살펴본 다음 가슴 뒷부분을 물어 치명적인 독을 주입한다. 그러고는 물러나서 독이 퍼질 때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린다. 내가 약 30초 후에 거미줄 망을 벗겨 보았더니 그 큰 말벌이 거의 죽어 있었던 것으로 보아 그 독이 얼마나 강력한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에페이라속 거미는 거미줄 중심부에서 항상 머리를 아래로 향하고 있다. 거미줄이 흔들리면 이놈들은 상황에 따라 다르게 행동한다. 만약 아래쪽에 덤불이 있으면 그때는 갑자기 아래로 떨어진다. 정지 상태로 있는 동안 떨어질 것에 대비해 방적돌기에서 길게 뽑혀 나온 거미줄이 있던 것을 똑똑히 관찰했다. 아래쪽 지면에 아무것도 없으면 떨어지

지 않고 거미줄 가운데를 지나 다른 쪽으로 빠르게 움직인다. 거미줄을 계속 흔들면 이놈들은 매우 흥미로운 교란 작전을 펼친다. 거미줄 가운데에 서서, 탄력이 있는 작은 가지에 붙어 있는 거미줄을 세게 잡아당겨 거미의 형체가 희미하게 안 보일 때까지 거미줄 전체를 빠르게 진동시킨다.
대부분의 영국산 거미들은 큰 곤충이 거미줄에 걸리면 거미줄 전체가 망가지는 것을 막기 위해 거미줄 몇 가닥을 정교하게 자른 후 먹잇감을 놔둬 버린다고 알려져 있다. 그런데 한번은 영국의 슈롭셔 주에 있는 온실에서, 작은 거미가 불규칙하게 쳐놓은 거미줄에 큰 장수말벌 암컷 한 마리가 걸린 것을 본 적이 있었다. 그런데 그 거미는 거미줄을 자르는 대신 말벌의 몸통, 특히 날개가 거미줄에 얽히기를 정말로 끈질기게 기다렸다. 처음에는 말벌이 침으로 그 작은 적을 찌르려고 시도했지만 헛수고였다. 불쌍한 그 말벌이 한 시간 이상 버둥거리도록 놔둔 후, 나는 그놈을 꺼내서 죽인 뒤 다시 거미줄에 올려놓았다. 그 작은 거미는 곧 돌아왔고, 약 한 시간 후에 나는 거미의 입이 말벌의 침이 나오는 구멍에 묻혀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매우 놀랐다. 나는 두세 차례 거미를 떼어 놓아 봤지만 그 후 24시간 동안 어김없이 똑같은 부위를 빨아 먹고 있는 거미를 볼 수 있었다. 그 거미는 자기보다 몇 배나 큰 먹잇감의 체액을 빨아 먹어서인지 매우 통통해져 있었다.
산타페바하다 근방에서 봤던, 등 쪽에 붉은색 점이 있고 떼 지어 살아가는 습성이 있는, 몸집이 큰 흑거미를 간단히 언급해야겠다. 에페이라속 거미들이 거의 그렇듯 거미줄은 수직으로 쳐져 있었다. 거미줄들은 약 60센티미터의 공간을 두고 서로 떨어져 있었지만, 군집 전체에 뻗어 있는 가장 기다란, 공유된 줄들에 붙어 있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몇몇 큰 덤불숲의 윗부분은 서로 연합된 거미줄 망으로 둘러싸여 있었다. 아사라 씨[18]는 파라과이의 군서 거미 gregarious spider를 묘사한 바 있다. 왈칸니어 씨는 그놈들이 꼬마거미속Theridion 거미가 틀림없다고 했지만 내 생각으로는 에페이라속에 속하며 내가 관찰한

18 아사라, 《항해기》 1권, 213쪽.

것과 같은 종일 것이다. 그러나 아사라가 얘기했던, 그 거미들이 가을에 죽으면서 알을 낳는다고 하는, 모자만큼 큰 중심 둥지는 보지 못했다. 내가 본 거미들은 모두 그 크기가 같았으므로 틀림없이 연령도 같을 것이다. 대부분의 곤충들은 암수끼리조차 서로 공격할 정도로 피에 굶주리고 독자적으로 살아가는 데 비해, 에페이라속 거미들은 전형적으로 군서 성향이 있다는 것은 매우 특이한 사실이다.

멘도사[19] 부근에 있는 코르디예라 산맥의 높은 계곡에서 이상한 형태로 집을 짓는 거미를 발견했다. 거미가 머물러 있는 거미줄 가운데 부위에서 수직면으로 강한 거미줄들이 방사상으로 뻗어 나온다. 그러나 그중 두 개의 거미줄만 대칭적인 그물 작업으로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었다. 따라서 그물망이 보통의 거미처럼 원형이 아니라 쐐기 모양의 V자 조각을 이루었다. 그곳의 거미들은 모두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집을 지었다.

19 안데스 산맥 기슭, 해발고도 785미터에 있는 고원 도시로, 아르헨티나 멘도사 주州의 주도洲島-역주.

● 다윈은 리우데자네이루 근처에서 자신이 관찰했던 식생과 여러 동물들의 특징, 그리고 사회상, 특히 노예 제도를 거론하고 있다. 프리오 곶의 북쪽에 사는 친구의 초대를 받아 가는 12일의 여정에서 그 지방의 화강암 지질과 풍부한 식생의 생산성을 체험하며, 숲속에서 일어나는 약 30미터 높이의 엄청난 증발 현상에 감탄한다. 특히 열대지역의 풍경을 연출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양배추종려나무와 미모사 관목층이 감탄을 넘어 경이로움까지 불러일으킨다고 얘기하고 있다. 다윈은 여정 중에 머물렀던 여인숙(벤다)의 불결함과 주인의 불친절 때문에 좋지 않은 인상을 받는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목적지인 대농장에 머무는 동안 노예가 팔려가는 잔인한 행위를 목격하면서, 노예 거주지에서 벌어진 여자 노예의 자살 얘기와 함께 노예 제도에 대해 심한 슬픔과 혐오감을 느낀다. 뿐만 아니라 나룻배를 함께 탄 한 흑인 노예의 행동에서, "이처럼 크고 힘센 남자가 자기 얼굴에 곧바로 날아올 것으로 예상되는 주먹을 피하는 것조차 두려워하는 것을 보면서, 당시 내가 느낀 놀라움과 혐오감 그리고 부끄러움은 결코 잊을 수 없다. 그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장 무력한 동물인 노예보다도 더 낮은, 퇴화된 상태로 길들여진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다윈이 그 당시 느꼈던 노예에 대한 생각과 노예 제도 폐지를 주장할 만한 근거로 충분하리라 생각한다. 그리고 이 지방에서 관찰한 생물, 특히 무척추동물들의 서식지나 습성, 행동을 자세히 묘사하고 있다. 다윈은 해안선 석호에서 민물과 짠물의 속성이 함께하는 달팽이류들과 이매패류의 관찰과 함께 보토포고 만의 코르코바도 산 아래 오두막집에 머물면서 산책을 즐겼는데, 이 때 동물의 생태를 관찰할 기회를 갖는다. 썩은 통나무 아래에서 발견한 육상플라나리아의 재생능력 실험, 나무에 꼬리로 매달려 몸을 지탱하는 턱수염원숭이, 청개구리들의 조화로운 합창, 노린재와 귀뚜라미들의 교향악까지 다윈은 관찰한 현상들을 세밀하면서도 재미있게 얘기하고 있다. 특히 반딧불이가 빛을 내는 구조나 상황을 기술하면서 그놈들이 뛰어오르는 모습을 묘사하는 부분에서는 다윈이 새롭게 관찰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다윈은 하이메노팔루스속 곰

팡이와 별거저리속 곤충 간의 관계와, 멀리 떨어져 있는 영국에서도 이와 비슷한 현상이 있음을 떠올리면서 식물과 곤충들 간의 관계에서는 상호연관성, 즉 공진화되어 있음을 발견한다. 그리고 개미 군단의 이동하는 모습과 함께 날개를 수평으로 펼치고 다리를 이용해 달리는 페로니아호랑나비의 습성을 관찰하면서 나비가 짤깍거리는 소리도 낸다는 사실을 신기한 듯 얘기하고 있다. 특이한 현상을 발견하면 누구나 호기심을 가지고 주의 깊게 관찰하게 되는데, 아마 다윈도 그러했으리라. 마지막 부분에서 다윈은 펩시스속 장수말벌과 짧은마디늑대거미의 싸움에서 누가 어떻게 승리하는지를 흥미진진하게 묘사하고 있다. 더 나아가 이 지방에 서식하는 여러 거미들의 사냥법이나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행동하는 습성, 거미줄 모양 등을 아주 자세히 묘사하고 있다. 이처럼 다윈은 여러 지질학적 발견과 더불어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무척추동물들에 대한 소개를 해서 우리로 하여금 많은 흥미와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게 한다.



말도나도



제3장
말도나도

몬테비데오–폴랑코 강 답사–올가미와 볼라–자고새–나무 한 그루 없는 지역–사슴–카피바라–투코투코–몰로드루스(뻐꾸기와 비슷한 습성을 지닌 새)–산적딱새–흉내지빠귀–죽은 짐승 고기를 먹는 매–번개로 인해 생긴 유리관–벼락을 맞은 집의 모습

1832년 7월 5일 | 비글호는 항해를 시작했다. 눈부시게 아름다운 리우데자네이루 항으로부터 멀찍이 항로를 잡았다. 라플라타 강까지 항해하는 동안 이렇다 하게 눈에 띄는 것이 없다가 어느 날 돌고래 떼를 봤다. 돌고래 수백 마리가 무리를 지어 다니고 있었다. 드넓은 바다 위에 돌고래가 헤엄쳐 가는 곳마다 물결이 일렁거렸다. 그러더니 입이 딱 벌어지게 놀라운 풍경이 눈앞에 펼쳐졌다. 수백 마리의 돌고래들이 동시에 바다 위로 튀어 올라 공중으로 온몸을 드러내며 솟구쳤다가 다시 바다로 뛰어들어 물살을 가르며 나아갔다. 배가 시속 9해리[1]로 느리게 항해하는 동안, 돌고래 떼는 뱃머리를 느긋하게 이리저리 건너다니더니 쏜살같이 앞쪽으로 헤엄쳐 사라졌다. 라플라타 강어귀로 들어서자 날씨가 아주 불안정해져 예측하기 힘들었다. 어느 칠흙같이 어두운 밤에 이상한 소리를 질러 대는 바다표범과 펭귄 무리가 우리를 에워쌌다. 당직을 서던 사관은 육지 쪽에서 소의 울부짖는 소리가 들린다는 보고를 했다. 또 어느 날 밤에는 자연현상이 만들어 내는 불꽃놀이의 장관을 두 눈으로 목격했다. 돛 꼭대기와 활대의 끝부분이 '세인트 엘모의 불'[2]로 빛나고 있었다. 또 바람개비의 윤곽도 어둠 속에서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빛났다. 마치 바람개비 위에 일부러 인을 발라 놓기라도 한 것 같았다. 바다가 아주 밝게 빛이 나니

1 대략 시속 16.7킬로미터–역주.

2 벼락이 칠 때 뾰족한 물체의 앞쪽 끝에 나타나는 발광 현상–역주.

펭귄이 지나간 자리가 불빛을 받아 두드러졌다. 번개가 아주 세게 칠 때는 밤하늘의 어둠이 순간적으로 밝아졌다.

강어귀에 들어왔을 때 바닷물과 강물이 얼마나 천천히 섞이는지 관찰해 보니 흥미로웠다. 진흙이 섞여 있어 탁한 강물은 비중이 더 작기 때문에 소금물인 바닷물 위에 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신기하게 배가 지나간 자리에서도 나타났다. 배가 지나간 수면 위에서 푸른 바닷물이 주변의 물과 섞이면서 작은 소용돌이를 만들었다.

7월 26일 | 우리는 몬테비데오에 닻을 내렸다. 비글호는 앞으로 2년 동안 라플라타 강의 남쪽인 남아메리카 남단과 동부 해안을 탐사하게 된다. 앞으로 불필요한 반복을 피하기 위해 우리가 방문한 순서에 따르지 않고 같은 지역에 관련된 부분을 내 일지에서 발췌하도록 하겠다.

말도나도[3]는 라플라타 강의 북쪽 기슭에 위치하고 있는데, 강어귀에서 그리 멀지 않다. 작은 도시로 매우 조용하고 적막해 보인다. 이 지방의 여느 도시들처럼 도로가 수직으로 교차하는데, 사거리 가운데에 커다란 광장이 있다. 광장이 넓어 사람들의 발길이 더 뜸하게 느껴졌다. 교역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데, 몇 가지 짐승 가죽과 살아 있는 소에 한해서 수출이 이루어지고 있다. 주민은 주로 지주들이고, 여기에 몇몇 상인들, 그리고 대장장이와 목수 등 꼭 필요한 장인들이 함께 거주하고 있다. 이들 사이의 거래는 거의 모두 주변 80킬로미터 거리 안에서 이루어진다. 마을은 폭이 약 1.6킬로미터인 띠 모양의 낮은 모래 언덕을 가운데 두고 강과 떨어져 있다. 내륙 쪽으로는 고운 잔디가 가볍게 물결치는 널따란 초원이 마을을 둘러싸고 있다. 수많은 무리의 소와 양, 말이 광활한 초원에서 풀을 뜯어 먹고 있다. 마을 주변에도 경작되고 있는 땅이 아주 드물다. 선인장과 용설란으로 산울타리를 쳐서 밀과 옥수수를 조금 재배하고 있는 땅이 몇 군데 있을 뿐이다. 라플라타 강의 북쪽 기슭을 쭉 따라가면 풍경이 아주 흡사하다. 유일한 차이점은 이 지역에서 화강암 언덕이 다

3 우루과이 남부 라플라타 강어귀의 북쪽 기슭에 있는 주州-역주.

른 곳보다 조금 더 가파르게 형성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 지역의 풍경은 아주 지루하다. 눈길을 끌 만한 집 한 채, 울타리 쳐진 땅 한 조각, 심지어 나무 한 그루도 눈에 띄지 않는다. 그렇더라도 꽤 오랫동안 배 안에만 갇혀 지내다가 광활한 초원을 걸어 다니는 자유로운 느낌은 황홀할 정도였다. 또 시야를 좁혀 작은 것들을 들여다보면, 아름다움을 간직한 것들이 많이 널려 있다. 크기가 작은 새 가운데 화려한 색으로 치장한 것들도 있다. 또 선명한 초록빛의 풀밭을 보면, 소 떼가 뜯어 먹어 키가 작아진 잔디를 작은 꽃들이 장식해 주고 있다. 이 가운데 데이지 비슷한 꽃이 반갑게 인사한다. 마편초Verbena melindres가 아주 빽빽하게 덮여 있어 멀리서도 매우 화려한 주홍색으로 보이는 이 넓은 땅을 본 꽃가게 주인이 있다면 입을 다물지 못하리라.

나는 말도나도에서 10주 동안 머물렀다. 이 기간 동안 동물과 새, 파충류를 거의 완벽하게 수집했다. 이 지역의 동물에 대한 설명을 시작하기 전에, 폴랑코 강까지 짧은 탐사를 다녀온 이야기를 해야겠다. 폴랑코 강은 말도나도에서 북쪽으로 약 110킬로미터 거리에 있다. 이곳은 물가가 아주 싸다. 그 증거를 하나 들자면, 나는 일꾼 두 명과 승마용 말 열두 마리 정도를 겨우 2달러, 즉 8실링에 구할 수 있었다. 나와 동행한 일꾼들은 권총과 군도軍刀로 빈틈없이 무장을 하고 나섰다. 나는 이들이 조금 지나치게 조심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우리에게 들려온 첫 소식은 바로 전날 몬테비데오에서 온 여행자가 길 위에서 목이 베인 시체로 발견되었다는 것이었다. 이 사건은 과거에도 살인 사건이 일어난 기록이 있는 사거리 근처에서 발생했다.

첫날 밤 우리는 외딴 곳의 작은 시골집에서 묵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몇 가지 물건 가운데 휴대용 나침반이 이곳 사람들을 한없이 놀라게 만들었다. 집집마다 주민들이 나에게 나침반을 보여 달라고 했다. 또 나침반을 가지고 지도 위에서 여기저기 다양한 지명의 방향을 가리켜 달라고 했다. 이 지역을 생판 모르는 내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지역으로 가는 길을 알고 있다니 아주 짜릿한 기분이 들었다. 왜냐하면 이 광활한 지역에서는 도로 이름이 바로 방향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 젊은 여자가 병들어 누워 있다는 어떤 집에서는 나에게 꼭 와서 나침반을 보여 달라고 사람을 보내 애원했다. 이곳 사람들은 나를 보고 엄청나게 놀랐다. 하지만 이곳 사람들의 무지함에 내가 더 놀랐다. 수천 마리의 소 떼와 어마어마한 대농장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무지할 수 있는가! 너무 외딴 지역이라서 이방인이 거의 찾아온 적이 없는 환경이 그 유일한 이유라고 할 수 있다. 주민들은 나에게 지구가 도는가 태양이 도는 것인가, 북쪽으로 갈수록 더워지는가 추워지는가, 스페인은 어디에 있는가 등등 많은 질문을 던졌다. 주민들 대부분은 영국과 런던, 북아메리카가 같은 지역을 부르는 여러 가지 다른 지명이라고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그런데 조금 더 견문이 넓다는 사람들은 런던과 북아메리카가 아주 가까운 거리이며, 영국이 런던에 있는 큰 도시라고 알고 있을 정도였다! 나는 이로 깨물어서 불을 붙이는 특이한 성냥을 몇 개 갖고 있었다. 이로 불을 일으킨다는 사실이 너무 이상했는지 온 가족이 함께 구경하려고 몰려들었다. 성냥 하나에 1달러를 주겠다는 사람도 있었다. 내가 아침에 세수하는 것이 미나스 주민들에게 많은 궁금증을 자아냈다. 거만한 상인 한 명이 나에게 와서 그런 희한한 습관을 어떻게 가지게 되었는지 따져 묻기도 했다. 또 우리가 항해 중에 왜 턱수염을 기르는지도 캐물었다. 나와 동행한 길잡이에게 턱수염 얘기를 듣고 온 터였다. 그 상인은 나를 아주 수상쩍다는 듯 훑어보았다. 그는 아마 과거에 이슬람교의 세정식洗淨式에 대해서 들은 적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나를 이교도로 알고 있기 때문에 모든 이교도는 무조건 이슬람교도라고 판단했을 것이다. 이 지역에서는 처음 마주치는 집에서 하룻밤 재워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일반적인 풍습이다. 주민들이 내 나침반을 보고 깜짝 놀라기도 하고, 내가 다른 신기한 재주를 몇 가지 갖고 있어서 하룻밤 잠잘 자리를 얻는 데 조금 도움이 되었다. 또 나와 동행한 길잡이들이 내가 돌을 깨는 기술을 갖고 있고, 독이 있는 뱀을 구별해 낼 수 있으며, 곤충을 수집한다는 등 구구절절 자랑을 늘어놓은 것도 한몫했다. 나는 주민들의 후한 대접에 보답했다. 글을 쓰다 보

니 내가 중앙아프리카 원주민들을 만나고 온 것처럼 들릴 것 같다. 이 지역의 주민인 반다오리엔탈[4] 사람들은 중앙아프리카 원주민들과 비교되는 것에 기분이 썩 좋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 당시 내 느낌은 그랬다.

다음 날 우리는 미나스의 마을까지 말을 달렸다. 미나스는 작은 언덕들이 꽤 많은 구릉지대라는 점을 제외하면 다른 지역과 비슷했다. 팜파스[5]에 사는 주민들이 미나스에 와 보면 이곳이 진정한 산악지대라고 믿을지도 모른다. 인구가 아주 적어서 하루 종일 지나가도 주민 한 명 만나기가 힘들었다. 미나스는 말도나도보다 훨씬 더 작은 마을이다. 마을은 좁은 평지 위에 자리 잡고 있으며, 바위투성이의 낮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다. 마을은 흔히 보듯 대칭적인 구조를 이루고 있고, 중앙에 하얗게 회칠한 교회가 서 있는데 꽤 아담하고 아름다웠다. 외곽에 있는 집들은 외딴집처럼 평지 위에 솟아 있는데, 정원이나 뜰이 딸려 있지 않다. 이 지역의 집들은 대체로 이렇게 지어져 있어서 사람이 살기에 불편해 보인다. 밤에 우리 일행은 술집에 들렀다. 저녁부터 한 패거리의 가우초gaucho[6]들이 들어와 술과 담배를 즐기고 있었다. 그들의 외모가 눈길을 끌었다. 대개 키가 크고 잘생겼는데, 거만하고 방탕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흔히들 콧수염을 기르고, 길고 검은 곱슬머리가 등 뒤로 흘러내려 와 있다. 눈부신 색깔의 긴 웃옷을 입고, 뒷굽에 박차拍車[7]를 댄 신발을 신고 절거덕거리며, 허리에는 작은 칼을 단검처럼 차고 있다(실제로 자주 단검처럼 사용하기도 한다). 소박한 시골 사람이라는 뜻인 가우초라는 이름에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다. 지

4 Banda Oriental. 우루과이 강 동쪽과 라플라타 강 북쪽 지방을 한데 묶어 불렀던 식민지 명칭. 오늘날 우루과이 영토와 브라질 남부의 리우그란지두술 주 및 산타카타리나 주의 일부 지역을 일컫는다–역주.

5 남아메리카의 대초원.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를 중심으로, 그란차코Gran Chaco, 파라나 강Parana江, 안데스 산맥에 둘러싸여 있는 76만 1469제곱킬로미터의 초원지대이다–역주.

6 남아메리카 카우보이, 스페인 사람과 인디오의 혼혈아. 아르헨티나와 우루과이의 팜파스에 살며 유목 생활을 하던 목동이나 마부를 말한다–역주.

7 말을 빨리 달리게 하기 위하여 승마용 구두의 뒤축에 댄 쇠로 만든 톱니 모양의 물건–역주.

나칠 정도로 예의를 차리는데, 당신이 먼저 술잔에 입을 댈 때까지 절대 먼저 마시지 않고 기다린다. 그러나 대단히 품위 있게 머리를 숙여 인사하는 동안에도, 여차하면 언제라도 당신의 목을 벨 준비가 된 것처럼 보인다.

폴랑코 강으로 탐사를 출발한 지 셋째 날, 우리 일행은 애초 계획했던 경로에서 조금 벗어난 길로 갔다. 왜냐하면 내가 이 지역에서 대리석 지층을 몇 군데 조사하는 데 정신이 팔려 있었기 때문이다. 고운 잔디가 펼쳐진 평원 위에서 타조Struthio rhea를 많이 보았다. 20~30마리가 한꺼번에 무리를 지어 다니는 경우도 여기저기 보였다. 20~30마리의 타조들이 낮은 언덕 위에 올라가 파아란 하늘을 배경으로 서 있으니 아주 당당해 보이고 인상적이었다. 근처에서 이렇게 온순한 타조를 본 적이 없다. 이곳의 타조는 대단히 순해서 말을 타고 아주 가까이 따라잡을 수도 있다. 그러나 말이 가까이 다가가는 순간, 타조는 날개를 펴 바람을 타고 쏜살같이 달아나 버려서 말이 뒤처지고 말았다.

밤이 되어 우리는 부유한 지주인 돈 후안 푸엔테스의 집에 도착했다. 우리 일행 가운데 돈 후안과 개인적으로 친분 있는 사람은 없었다. 생판 모르는 사람 집의 문을 두드릴 때는 보통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에티켓을 지켜야 한다. 즉 말을 타고 천천히 문으로 다가가 성모송을 외운다. 그리고 집 안에서 사람이 나와서 말에서 내리라고 허락할 때까지는 말에서 내려서도 안 된다. 집주인은 보통 "신 페카도 콘세비다Sin pecado concebida", 즉 '원죄 없이 잉태하신(마리아여)'라고 의례적인 대답을 한다. 집으로 들어가서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몇 분 동안 나눈 뒤, 하룻밤 묵어도 좋다는 허락이 떨어진다. 이것이 당연히 거쳐야 하는 절차다. 그다음 손님은 그 집 가족과 함께 식사를 한다. 그리고 주인이 내준 방에서 말안장을 덮는 담요로 잠자리를 깐다. 참 신기하게도 비슷한 환경은 아주 흡사한 풍습을 만들어 낸다. 희망봉에서도 이런 방식으로 손님을 접대하며, 통상적으로 거의 똑같은 에티켓이 지켜지고 있다. 그런데 두 지역에서 스페인 사람과 네덜란드 사람의 성격 차이를 느끼게 된다. 이 지역의 스페인 사람들은 손님에게 조금이라도 예의에 어긋나는 질문은 절대 하지 않는

다. 이에 반해 남아프리카 희망봉의 네덜란드계 이주민들은 솔직한 성격대로 손님에게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직업이 뭔지, 심지어 형제자매와 자녀가 몇 명인가까지 묻는다.

우리가 돈 후안의 집에 도착한 직후, 목동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무리의 소 떼를 집 안으로 몰고 들어왔다. 이 집의 식량으로 쓰기 위해 이 가운데 소 세 마리를 골라서 도살하게 되었다. 제대로 길들지 않은 이 소들은 날쌔게 이리저리 날뛰는데, 올가미에 걸리면 죽는다는 것도 본능적으로 파악하고 있다. 말들이 오랫동안 아주 힘들게 소를 쫓아다녔다. 소와 일꾼, 말이 이렇게 많은 것만 봐도 아주 부유할 텐데, 돈 후안의 집은 이상하게 초라하기 짝이 없었다. 바닥은 딱딱한 진흙으로 되어 있고, 창문에는 유리도 없고, 거실에는 변변찮은 의자와 탁자 몇 개만 있을 뿐이었다. 손님이 몇 명 있는데도, 저녁 식사로는 겨우 두 가지 요리를 가득 담아서 차려 왔다. 하나는 구운 쇠고기이고, 또 하나는 호박을 조금 넣어 삶은 쇠고기 요리인데, 여기에 야채나 빵 한 조각도 곁들이지 않았다. 마실 것도 물밖에 없다. 저녁 식사 내내 흙으로 빚은 커다란 물주전자만 내왔다. 그렇지만 돈 후안은 수 제곱마일의 땅을 소유하고 있는 지주가 아닌가? 이 넓은 땅에서 밀을 생산할 수도 있고, 조금만 노력해도 온갖 야채를 수확할 수도 있을 것이다. 저녁에는 담배도 피우고, 기타 반주에 맞추어 즉흥곡도 조금 부르면서 지냈다. 여자들은 방 구석진 곳에 따로 모여 앉아 있고, 남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지는 않았다.

지금까지 이 지역에 관해 아주 많은 저술이 나와 있다. 따라서 올가미나 볼라bola[8]에 대해 또 한 번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올가미는 생가죽으로 된 아주 질기고 가는 줄을 잘 엮어서 만든다. 올가미의 한쪽 끝은 폭이 넓은 안장 띠에 붙어 있다. 안장 띠는 말안장에 달린 복잡한 마구馬具를 꽉 조이기 위해 말의 배에 둘러서 묶는 것이다. 올가미의 다른 쪽 끝에는 올가미 고를 만들

8 끝에 돌이나 쇳덩어리가 달린 투척용 밧줄로 남아메리카의 원주민이나 카우보이가 짐승의 발에 던져 휘감아 잡는 데 사용한다–역주.

기 위해 쇠나 놋쇠로 만든 작은 고리가 달려 있다. 가우초가 올가미를 사용할 때는, 고삐를 잡은 왼손에 올가미 밧줄을 조금 감아서 쥔다. 오른손에는 지름이 보통 2.5미터에 이르는 아주 커다란 올가미 고를 잡고 있다. 가우초는 올가미를 머리 위에서 빙글빙글 돌린다. 손목을 민첩하게 움직여 올가미 고를 동그랗게 펼쳐지게 한 다음 바로 던져서 목표물에 떨어뜨린다. 올가미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잘 말아서 말안장 뒤에 묶어 놓는다. 공의 종류에 따라 두 가지 볼라가 있다. 가장 간단한 종류의 볼라는 타조를 잡을 때 주로 쓰는데, 가늘게 엮은 약 2.5미터 길이의 가죽끈 양쪽 끝에 가죽으로 싼 둥근 돌이 하나씩 달려 있다. 다른 종류의 볼라는 세 개의 공이 달려 있다는 점에서 다르다. 동일한 중심점을 가진 세 개의 가죽끈에 각각 공이 달려 있다. 가우초는 세 개의 공 가운데 가장 작은 공을 손에 쥔다. 그리고 나머지 두 공을 머리 위에서 빙글빙글 돌린다. 그러고 나서 목표물을 겨냥해 던지면, 쇠사슬로 이은 대포알처럼 공중으로 회전하며 날아간다. 공들이 사냥감에 맞는 순간, 사냥감을 돌돌 감고 밧줄이 서로 얽히면서 단단히 낚아채는 것이다. 공은 만들어진 목적에 따라 크기와 무게가 다르다. 돌로 만든 공은 사과보다 작은 크기일지라도 힘껏 던질 때 말의 다리를 부러뜨릴 수도 있다. 나무로 만든 공을 순무 크기만큼 작게 만들어 동물을 상처 입히지 않고 사냥하기 위해 쓰는 것도 본 적이 있다. 쇠로 만든 공은 가장 멀리까지 던질 수 있다. 올가미나 볼라를 던질 때 가장 큰 어려움은 말을 능수능란하게 타는 기술에 있다. 말을 타고 전속력으로 달리다가 갑자기 방향을 바꾸면서도, 올가미나 볼라를 머리 위로 끊임없이 빙글빙글 돌리면서 목표물을 겨냥할 수 있을 정도로 말을 잘 타야 한다. 말을 타지 않고 땅에 서서 하면 누구든 금방 기술을 익힐 수 있다. 어느 날 나는 신나게 말을 타고 질주하면서 머리 위로 공들을 돌리고 있었다. 우연히 공 하나가 날아가 나뭇가지에 툭 맞았다. 그러고는 회전 운동이 멈추면서 땅 위로 뚝 떨어졌다. 공이 떨어지면서 묘하게도 내가 탄 말의 뒷다리 하나를 쳤다. 그 순간 내 손에 있던 다른 공이 홱 빠져나갔는데 말이 다치지는 않았다. 다행히 내가

타고 있는 말이 노련해서 상황을 알아차렸다. 경험 없는 말이었다면 발버둥을 치다가 쓰러졌을 수도 있다. 나를 보고 가우초들은 왁자지껄하게 웃었다. 가우초들은 볼라에 걸리는 별의별 동물은 다 봤지만, 자기 볼라에 걸리는 사람은 처음 본다며 소리쳤다.

그 후 이틀 동안, 내가 탐사하고 싶었던 지역 가운데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 도착했다. 똑같은 풍경이 계속되었다. 초록빛 고운 잔디밭이 이제는 회색빛 도로보다도 더 지루하게만 느껴졌다. 이 지역에서는 어디를 가든 수많은 자고새Nothura major를 볼 수 있다. 자고새들은 무리를 이루어 다니지 않는다. 영국종처럼 숨어 다니지도 않는데, 아주 둔해 보였다. 말을 타고 원이나 나선을 그리며 점점 가까이 다가가서 원하는 만큼 얼마든지 머리를 쳐서 잡을 수 있다. 더 흔히 쓰는 방법은 긴 막대 끝에 타조 날개 깃대로 만든 조그만 올가미로 잡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늙고 힘없는 말을 탄 어린아이라도 하루에 30~40마리는 쉽게 잡을 수 있다. 북아메리카의 북극 지방[9]에서도 인디오[10]들이 변색토끼[11]를 잡을 때 나선형으로 돌면서 점점 토끼 굴에 가까이 걸어간다. 토끼 사냥은 한낮이 가장 좋다. 이때는 해가 높이 떠서 사냥꾼의 그림자가 그리 길지 않다.

폴랑코 강까지 탐사를 마치고 말도나도로 돌아올 때는, 갈 때와는 조금 다른 경로로 왔다. 나는 팡데아수카르Pão de Açucar[12] 근처의 아주 친절한 스페인 노인 집에서 하루를 지냈다. 팡데아수카르는 라플라타 강을 거슬러 항해해 본

9 《헌의 여행기》, 383쪽-원주.
사무엘 헌Samuel Hearne, 1745~1792. 북극해까지 여행한 영국 탐험가-역주.

10 라틴 아메리카에 사는 인디오를 말한다. 광의의 개념으로 아메리카 인디오 모두를 지칭하기도 한다-역주.

11 눈덧신토끼Snowshoe hare. 북아메리카의 캐나다 및 알래스카에 서식하며, 겨울에 몸 빛깔이 하얗게 변한다.

12 영어로는 슈거로프산Sugarloaf Mountain.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주州의 구아나바라만Guanabara Bay 어귀에 있는 봉우리로 높이는 396미터이다. 슈거로프라는 이름은 정제하여 농축시킨 제빵용 설탕 덩어리처럼 생겼다 해서 붙여졌다-역주.

사람들은 다 아는 경계표지다. 아침 일찍 우리는 시에라데라스아니마스 산맥으로 올라갔다. 해가 떠오르면서 만드는 풍경은 정말 그림처럼 아름다웠다. 서쪽으로는 몬테비데오에 있는 산까지 드넓은 평원이 펼쳐져 있고, 동쪽으로는 말도나도의 평원이 뻗어 있다. 산 정상에는 작은 돌산이 몇 개 있는데, 여러 해 동안 그대로 있던 것으로 보인다. 나와 동행한 길잡이 인디오들이 옛날에 만든 솜씨일 것이라 장담했다. 이곳의 돌산은 웨일스 산악 지방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과 비슷한데, 크기만 훨씬 작았다. 이렇게 주위에서 가장 높은 지점에 특별한 표지를 남기려는 열망은 인류에게 보편적인 것 같다. 현재 문명인이든 야만인이든 이 지역에서 인디오는 단 한 명도 없다. 혹시 이전에 살던 원주민이 여기 소소한 돌무더기보다 더 오래된 영원불변의 기록을 시에라데라스아니마스 산맥의 정상에 남겨 놓았는지는 모르겠다.

이곳 반다오리엔탈 지역의 두드러진 특징을 든다면 어디를 가든 나무가 거의 한 그루도 없다는 것이다. 바위가 많은 산은 군데 군데 덤불로 덮여 있다. 폭이 더 넓어지는 강기슭, 특히 미나스 북쪽으로는 버드나무가 종종 눈에 띈다. 타페즈 강 근방에서 나는 종려나무에 대해 들었는데, 위도 35도인 팡데아수카르 근처에서 꽤 커다란 종려나무 한 그루를 보았다. 버드나무, 종려나무와 함께 스페인 사람들이 들여와서 심은 나무들은 나무가 희귀한 이 지역에서는 눈에 띄는 존재다. 외부에서 들여온 나무로는 포플러, 올리브, 복숭아, 그 외 다른 과실수 등이 있다. 복숭아나무는 이곳에서 아주 잘 자라 부에노스아이레스 시에서 필요한 장작의 대부분을 공급해 줄 정도다. 팜파스와 같이 끝없이 펼쳐진 평원에서는 나무가 자라기 힘들어 보인다. 이것은 아마 바람의 세기나 배수 문제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말도나도 주변에서는 천혜의 자연조건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준다. 바위산이 거센 바람을 막아 주고, 다양한 종류의 토양이 풍부하다. 또 거의 모든 계곡의 바닥에 물줄기가 흐르고 있으며, 점토질의 흙은 물을 적당히 함유하고 있다. 삼림지의 형성은 보통 연간 강수량에 따

라 결정된다는 추론[13]이 지금까지 많은 지지를 받아 왔다. 그러나 이러한 가설과는 다르게, 이 지역은 겨울에 엄청나게 많은 양의 비가 내리며, 또 여름에 건조하긴 하지만 그렇게 심한 정도도 아닌데,[14] 삼림지가 형성되어 있지 않다. 또 오스트레일리아는 거의 모든 지역에 우뚝 솟은 나무들이 삼림을 이루고 있는데도, 훨씬 건조한 기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강수량 이외에 삼림지의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알려지지 않은 원인을 찾아봐야 한다.

남아메리카로 범위를 한정해 보면, 나무가 아주 습윤한 기후에서 번성하게 자란다는 추론을 믿어야 할 것 같다. 왜냐하면 삼림지의 경계가 확실하게 습기 찬 바람이 부는 지역의 범위와 정확히 일치하기 때문이다. 남아메리카 남부 지역에는 태평양의 습기를 가득 담은 강풍이 서쪽에서 불어온다. 바로 이 지역인 위도 38도 지대부터 아래로 내려가 남쪽 끝 티에라델푸에고 섬에 이르기까지, 구불구불하게 이어지는 서쪽 해안선을 따라 분포된 모든 섬 지역은 아주 빽빽한 삼림으로 덮여 있다. 안데스 산맥의 동쪽으로 넘어가 같은 위도에 위치한 지역에서는 파란 하늘 아래 맑은 기상 상태를 보인다. 대기가 산맥을 넘어오는 동안 습기가 날아가 버려 건조한 상태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파타고니아의 건조한 평원에서는 식물이 살기 힘든 기후가 되는 것이다. 남아메리카 대륙의 북부 지방으로 올라가 보면, 남동쪽에서 계속 불어오는 무역풍의 영향권에 있는 동부 지역은 울창한 숲이 발달해 있다. 반면 남위 4도에서 32도 사이의 서쪽 해안은 사막이라고 부를 수 있다. 서쪽 해안에서 남위 4도 위 북쪽 지역에서는 무역풍이 불규칙해지고 주기적으로 비가 억수로 내린다. 태평양에 면한 서쪽 해안에서 페루 쪽은 극심한 사막 지역이지만 이 북쪽 지역의 서해안에 있는 과야킬[15]과 파나마는 초목이 무성하게 잘 자라고 있다. 북동부 지역에 있는 블랑코 곶 근방처럼 윤택하다. 따라서 남아메리

13 《브리태니커 백과사전》, 매클래런이 저술한 '미국' 항목.

14 아사라에 따르면, "이 지역 전체의 연 강수량이 스페인보다 많다". 1권, 36쪽.

15 에콰도르에서 가장 큰 도시이며 주요 항구로 과야스 주의 주도-역주.

카 대륙의 북부 지방과 남부 지방에서 숲과 사막은 안데스 산맥을 경계 삼아 서로 반대로 형성되어 있다. 이는 영향권에 있는 바람의 방향 때문이다. 남아메리카 대륙 중부 지방에 넓은 중간 지역이 있는데, 칠레 중부와 라플라타 지역이 여기에 속한다. 이 지역에서는 비를 담은 바람이 높이 솟은 산을 넘어갈 일이 없다. 따라서 사막도 아니고 숲이 발달하지도 않는다. 비를 담은 바람으로 인해 습윤한 기후에서 숲이 형성된다는 추론을 남아메리카에만 적용시키더라도 뚜렷한 예외가 존재하는데, 바로 포클랜드 제도이다. 이 제도는 티에라델푸에고로부터 같은 위도에서 320~480여 킬로미터 떨어져 있다. 티에라델푸에고와 같이 기후와 지질학적 조건이 좋고, 똑같이 이탄질이 많은 토양인데도 덤불을 찾기 힘들다. 반대로 티에라델푸에고에서는 빽빽한 숲이 없는 지역을 4천 제곱미터도 찾기 힘들다. 통나무배와 나무 기둥이 티에라델푸에고에서 서포클랜드 해안으로 떠서 흘러가듯이, 바람과 해류의 방향은 티에라델푸에고로부터 씨가 옮겨 오기에도 적합하다. 따라서 두 지역에 공통으로 분포하는 식물 종이 많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런데 티에라델푸에고의 나무를 옮겨 심으려는 시도는 실패하고 말았다.

말도나도에 머무는 동안 나는 많은 종류의 파충류를 채집했는데, 여기에는 몇 종류의 네발 동물, 80종의 새, 9종의 뱀이 포함되어 있다. 이 지역에 고유한 포유동물 가운데 지금 유일하게 남아 있는 종이 사슴Cervus campestris이다. 이 사슴은 라플라타 강 연안과 북부 파타고니아에 걸쳐 아주 흔하게 보이며, 작은 무리를 지어 다니기도 한다. 가까이 다가가면 사슴들은 대개 궁금해서 사람을 보려고 가까이 온다. 나는 이렇게 해서 한곳에 있던 무리에서 세 마리를 잡았다. 이렇게 온순하고 호기심 가득한 사슴도 말을 타고 가까이 가면 경계한다. 이 지방에서는 걸어 다니는 사람이 드물어, 사슴은 말을 타고 볼라를 갖고 있어야 적으로 여기고 조심한다. 북파타고니아에 최근 건설된 도시인 바이아블랑카에서, 나는 사슴이 총소리에 너무 둔한 것에 놀랐다. 어느 날 약 73미터 거리에서 사슴 한 마리에게 총을 열 번이나 쏘았다. 사슴은 총소리보다 땅

에 박히는 총알에 더 놀란 듯 했다. 화약이 다 떨어지는 바람에 나는 일어나 큰 소리를 쳐서 그 사슴을 쫓아 보냈다(날아가는 새도 맞히는 포수로서 자존심 상할 일이다).

이 사슴의 아주 신기한 특징은 수컷에게서 지독히도 역겨운 냄새가 난다는 것이다. 그 냄새는 뭐라고 표현하기 힘들 정도다. 지금은 이 수컷 사슴의 표본이 동물학 박물관에 있는데, 이 사슴 표본의 껍질을 벗길 때, 구역질이 나서 기절할 뻔했다. 게다가 그 사슴의 껍질을 비단 손수건으로 싸서 집으로 갖고 왔는데, 이 손수건은 지금까지 수도 없이 빨아 써왔지만, 1년 7개월이 지난 지금도 펴면 냄새가 난다. 놀랍게도 어떤 물질이 없어지지 않고 계속 남아 있는 것이다. 이 물질은 휘발성이면서 아주 엷게 퍼지는 성질을 갖고 있다. 사슴 무리들이 있는 곳에서 바람이 불어 가는 쪽으로 약 8백 미터 정도 떨어져 있어도 냄새를 맡을 수 있다. 이 냄새는 수사슴의 뿔이 다 자랐을 때 가장 심한데, 뿔이 없을 때는 냄새도 없다. 이렇게 냄새가 나면 고기도 먹기 힘들 것이다. 그러나 가우초들은 깨끗한 흙 속에 어느 정도 묻어 두면 냄새가 사라진다고 장담했다. 스코틀랜드 북쪽 섬사람들도 물고기를 먹는 새들의 악취 나는 사체를 이렇게 처리한다는 것을 어디에선가 읽은 적이 있다.

이곳은 쥐목Rodentia 종류도 아주 많았다. 생쥐 하나만 해도 최소 8종 이상을 채집했다.[16] 설치 동물 가운데 가장 큰 카피바라Hydrochaerus capybara도 여기에서는 흔하다. 몬테비데오에서 내가 총으로 잡은 것은 무게가 약 45킬로그램이며, 코끝에서 식물 밑동처럼 생긴 꼬리까지의 길이가 96센티미터이고, 몸통 둘레가 약 110센티미터이다. 이 큰 설치 동물은 라플라타 강 입구의 염분이 높은 물이 있는 섬에서도 가끔 보이지만, 민물 호수나 강에 아주 많다. 말도나도

16 남아메리카에서 나는 총 27종의 쥐를 수집했다. 아사라를 비롯한 다른 연구자들에 의해 13종이 더 알려져 있다. 워터하우스 씨가 동물학회에 내가 수집한 쥐를 명명하고 기술해 주었다. 이 기회를 빌려 워터하우스 씨와 학회에 소속된 분들께 항상 친절하고 아낌없는 도움을 베풀어 준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근처에서는 보통 서너 마리가 같이 산다. 낮에는 물풀 사이에 누워 있거나 풀밭에서 풀을 뜯어 먹는다.[17] 멀리서 보면 걷는 모습이나 색깔이 돼지를 닮았다. 웅크리고 앉아서 어떤 물체를 한쪽 눈으로 유심히 보는 습관은 같은 계통의 기니피그나 토끼를 닮았다. 머리 앞이나 옆에서 보면 턱이 깊어서 아주 우스꽝스럽게 보인다. 말도나도에 사는 이 동물은 성질이 아주 순하다. 늙은 카피바라 네 마리가 모여 있는곳에 약 3미터 거리까지 조심조심 다가가 본 적도 있다. 이렇게 순한 성질을 갖게 된 것은 최근 몇 년 동안 재규어가 없어져서 가우초들이 사냥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 위협을 당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가까이 다가갈수록 그렇게 시끄럽지 않으면서 갑자기 숨을 토해 내는 듯한 낮은 신음을 낸다. 내 경험으로 유일하게 비슷한 소리는 큰 개들이 내는 신음일 것이다. 팔을 뻗으면 닿을 정도로 가까운 거리에서 네 마리를 몇 분간 관찰하자, 이 동물들은 신음을 내면서 물속으로 급히 뛰어들었다. 물속에서 약간 잠수한 뒤 머리 윗부분만 물 밖으로 나왔다. 암컷이 헤엄칠 때 새끼들은 어미의 등에 올라탄다고 한다. 카피바라의 이런 습성들을 보면 손쉽게 많이 사냥하여 죽일 수 있다. 그러나 카피바라 가죽은 그렇게 비싸지도 않고 고기 맛도 별로다. 파라나 강의 섬에는 이 카피바라들이 아주 많아서 재규어의 흔한 먹이가 되고 있다.

투코투코Ctenomys Brasiliensis[18]는 두더지의 습성을 가진 신기한 작은 설치 동물이다. 여기서 이것들의 습성에 대해 간단히 기록하겠다. 투코투코는 이 지역의 몇몇 곳에는 엄청나게 많으나, 땅 밖으로 절대 나오지 않아 우리가 잡기는

17 내가 잡은 카피바라의 위와 십이지장을 열어 보니, 엷은 노란색 액체가 들어 있었다. 액체 외에 섬유질은 거의 없었다. 오언 씨의 설명에 따르면, 카피바라의 식도 일부는 까마귀 깃털보다 큰 것이 통과하지 못하는 크기라고 한다. 아마 카피바라의 큰 이빨과 강한 턱은 먹이가 된 수초를 갈아서 삼키도록 하는 모양이다.

18 파타고니아 북부 지방 네그로 강에서 같은 습성을 가진 종을 본 적이 있다. 아마 투코투코와 근접한 종으로 보인다. 이 동물은 이곳 말도나도에 있는 투코투코와 달리 두 번 더 또렷하고 큰 소리를 낸다. 멀리서 들으면 작은 나무를 도끼로 찍는 소리와 아주 비슷해서 이 동물의 소리가 나면 귀를 기울이기도 했다.

상당히 어렵다. 사냥을 위해 굴 입구에 두더지 굴처럼 흙더미를 작게 만들기도 한다. 이 지역에는 투코투코가 여기저기 굴을 뚫어 놓아 그 위를 지나가던 말의 뒷발굽이 두더지 굴에 빠지는 일이 흔하다.

나에게 투코투코를 잡아 준 사람은 한꺼번에 여섯 마리를 잡았다. 이 사람 말이, 투코투코는 보통 이렇게 여러 마리가 나온다는 것으로 보아 어느 정도 떼를 지어 사는 습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된다. 야행성으로 식물 뿌리를 주식으로 하기 때문에, 넓고 낮은 굴을 뚫는다. 투코투코는 땅속에 있을 때는 특유의 이상한 소리를 내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그 소리를 처음 듣는 사람은 깜짝 놀란다. 어디서 어떤 동물이 내는 소리인지 모르기 때문이다. 그 소리는 네 번 정도 빠르고 단조롭게 반복되는데, 짧지만 거칠지는 않은 콧소리다. '투코투코'라는 이름은 바로 그 소리를 흉내 낸 것이다. 이 동물이 많은 곳에서는 하루 종일 들리며 어떤 때는 발바닥 바로 아래 땅속에서 들리기도 한다. 실내에 가두어 두면 천천히 뭉그적거리며 기어 다닌다. 뒷다리가 바깥쪽으로 움직이기 때문인데, 대퇴골 관절강關節腔에 인대가 없어 조금도 뛰지 못한다. 그러면서도 도망가려고 기를 쓰는데, 주위에서 약을 올리거나 놀라게 하면 '투쿠―투코'라고 소리를 낸다. 우리가 잡은 것들 중 몇 마리는 첫날에 벌써 순해져서 물거나 도망가려고 하지 않았다. 몇 마리는 거친 습성을 계속 보이기도 했다.

이 두더지를 잡은 사람 말로는 흔히 눈이 먼 상태로 발견된다고 한다. 내가 알코올에 보존한 표본 한 마리도 시력을 잃은 상태이다. 리드 씨는 눈이 먼 것은 눈꺼풀 안쪽에 있는 순막에 염증이 생겼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표본이 된 이 두더지가 죽기 전에는, 내 손가락을 머리에 아주 가까이 닿게 해도 전혀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았는데, 다른 두더지들처럼 온 방 안을 헤집고 돌아다녔다. 투코투코가 항상 땅속에서 생활하는 동물임을 고려하면, 시력을 잃었다는 사실은 별문제가 아니라고 생각된다. 그렇다 하더라도 동물이 이렇게 쉽사리 손상을 입는 기관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 이상하게 보인다. 라마르크가 땅속에 살고 있는 설치류인 아스팔락스Asphalax와 물이 가득 찬 어두운 동굴 속에서

서식하는 파충류인 프로테우스Proteus가 차차 시력을 잃어 간다는 사실[19]에 관해 깊이 연구할 때, 투코투코의 이러한 습성에 대해 알았더라면 기뻐했을 것이다. 이 두 동물의 눈은 거의 미발달된 원시 상태에 가까워서 힘줄 같은 막과 피부로 덮여 있다. 보통 두더지는 눈이 굉장히 작은데, 많은 해부학자들은 두더지의 눈이 실제로 시신경에 연결되어 있는지 의심하기도 하지만, 그 눈은 완전한 형태를 갖고 있다. 두더지의 시력은 땅 밖으로 나오면 혹 쓸모 있을지 모르지만, 분명히 시력은 좋지 않을 것이다. 땅 위로 절대 나오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투코투코의 눈은 보통 두더지의 눈보다 더 크지만 쓸모가 없다. 그래도 투코투코는 크게 불편하지 않을 것이다. 라마르크가 투코투코를 보았다면, 투코투코가 현재 아스팔락스와 프로테우스의 상태로 되어 간다고 주장했을 것이다.

말도나도 주변 평원에는 수많은 종류의 새들이 있다. 우리의 찌르레기와 비슷한 형태와 습성을 가진 과의 새가 많다. 이 가운데 몰로드루스 니제르Molothrus niger의 습성이 아주 독특하다. 보통 몇 마리가 소나 말의 등에 함께 모여 앉아 있다. 이 새들은 울타리 위에 앉아 햇빛을 받으며 털을 다듬을 때 가끔 노래를 한다. 노래라기보다 '쉿' 하는 소리에 가깝다. 그때는 물속에서 공기 방울이 작은 관을 빨리 통과하는 듯한 독특하고 예리한 소리가 난다. 아사라에 의하면, 이 새는 뻐꾸기처럼 다른 새의 둥지에 알을 낳는다. 이 지역 주민들에게서 이런 습성을 가진 새에 대해 여러 차례 들은 적이 있다. 꼼꼼한 성격의 내 조수가 이곳의 참새Zonotrichia matutina 둥지에서 다른 알보다 더 크고 모양과 색깔도 다른 알 하나를 발견했다. 북아메리카에도 뻐꾸기와 비슷한 습성을 가진 몰로드루스 종인 몰로드루스 페코리스Molothrus pecoris가 있다. 북아메리카의 몰로드루스 종도 소 등에 앉아 있는 사소한 습성까지 라플라타의 몰로드루스 종과 아주 비슷하다. 북아메리카 종이 크기가 약간 작고, 깃털과 알의 색깔이 조금 다르다. 넓은 대륙의 북쪽과 남쪽 끝에 분포해 있는 대표적인 두 종의 구조와

19 《동물 철학》 1권, 동물학, 242쪽.

습성이 이렇게 흡사하다는 사실은 흔하긴 하지만, 볼 때마다 흥미롭다.

스웨인슨 씨에 따르면 몰로드루스 페코리스와 몰로드루스 니게르 외에 뻐꾸기는 사실 기생동물로 볼 수 있다.[20] '기생이란 다른 생물체에 붙어살면서 그 생물의 열로 알을 부화시키고 그 생물의 먹이를 먹으며, 아직 새끼일 때 그 생물체가 죽게 되면 함께 죽는다'는 뜻이다. 뻐꾸기나 몰로드루스 가운데 몇 종은 다른 생물체에 기생하여 번식한다는 공통된 습성을 갖고 있는데, 그 외에는 거의 반대의 습성을 갖고 있음이 관찰된다. 몰로드루스는 찌르레기처럼 많이 모여 사는데, 위장하지 않고 툭 트인 평원에 산다. 이와 달리 뻐꾸기는 알려진 대로 눈에 안 띄게 숨어 사는 습성이 있어 깊고 캄캄한 숲 속에서 나무 열매와 모충류를 먹고 산다. 몰로드루스와 뻐꾸기는 구조에서도 전혀 다르다. 뻐꾸기가 다른 새의 둥지에 알을 낳는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설이 제기되었는데, 뻐꾸기의 구조가 원인으로 지적되기도 했다. 프레보스트 씨가 뻐꾸기가 지닌 이 습성의 비밀을 잘 풀어 주었다.[21] 뻐꾸기를 관찰해 보면, 암뻐꾸기는 적어도 네 개에서 여섯 개의 알을 낳는 습성을 갖고 있는데, 알을 한두 개 낳을 때마다 꼭 교미를 한다. 그러니 뻐꾸기가 모든 알을 직접 품는다면 교미 전에 먼저 낳은 알 한두 개는 품어 주지 못하는 동안 썩어 버릴 것이다. 아니면 교미하여 알을 낳을 때마다 한두 개씩 각각 부화시켜야 한다. 그런데 뻐꾸기는 아주 짧게 머무는 철새이기 때문에 계속 알을 품고 있을 시간이 없다. 뻐꾸기는 이렇게 여러 차례 교미한 후 한두 개씩 주기적으로 알을 낳는 습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새의 둥지에 알을 낳아 양부모가 돌보게 한다는 것이다. 남아메리카의 암타조가 '서로 기생 생활을 하는 습성'과 비교해도 뻐꾸기에 대한 이 이론이 맞다고 생각된다. 암타조는 뻐꾸기처럼 다른 암타조의 둥지에 알을 낳은 후 수타조가 부화할 때까지 돌본다.

흔히 보이지만 특이한 습성을 가진 새 두 종류를 짚고 넘어가자. 사우로파구

20 《동식물학 잡지》 1권, 217쪽.

21 파리 학술원 발표, 《회보》(1834), 418쪽.

스 술푸라투스Saurophagus sulphuratus는 큰산적딱새의 대표적인 아메리카 계통 새이다. 생김새는 때까치와 아주 비슷하고, 습성은 다른 새들과 비슷하다. 이 새가 들에서 사냥할 때는 마치 매처럼 한곳을 맴돌며 날다가 다른 곳으로 날아간다. 한곳을 맴돌며 날 때는 가까이에서 보아도 육식 조류목目으로 착각하게 된다. 그런데 이 새가 먹이를 습격할 때는 매보다 훨씬 약하고 느리다. 사우로파구스는 보통 때는 물가에서 사냥하는데, 물총새처럼 공중에 머물러 날다가 물가 쪽으로 오는 작은 물고기를 잡아먹는다. 사우로파구스는 날개를 잘라 내어 새장이나 정원에 놓아기르면 금방 길들여지는데, 까치처럼 뜻밖의 영리한 행동을 보여 주어 흥미롭다. 이 새가 날아가는 모습을 보면 부리가 몸에 비해 너무 커서 위아래로 흔들린다. 저녁이 되면 사우로파구스는 길 쪽 숲 위에 앉아서 몇 음절의 소리를 반복해서 낸다. 스페인 사람들은 이 새의 소리가 '비엔 테 베오Bien te veo(난 네가 잘 보여)'와 비슷하게 들린다고 하여 이렇게 이름을 지었다.

이곳 원주민들이 칼란드리아라고 부르는 흉내지빠귀Mimus orpheus는 이 지역에서 가장 노래를 잘한다. 남아메리카에서 유일하게 노래를 부르기 위해 자리를 잡고 앉는 새이다. 이 새의 노랫소리는 사초휘파람새와 비슷하지만 더 힘이 있다. 즐겁게 지저귀는 소리와 함께 귀에 거슬리는 소리와 아주 높은 소리를 동시에 낸다. 이런 소리는 봄에만 들리고, 다른 때는 너무 거칠게 울어서 듣기가 괴롭다. 말도나도 부근의 이 새는 성질이 순하지만 겁이 없어 떼를 지어 다니며 마을에 나타나 기둥이나 벽에 걸어 놓은 고기를 뜯어 먹는다. 칼란드리아는 다른 작은 새가 나타나면 쫓아 버린다. 사람이 살지 않는 넓은 파타고니아 평원에 사는 근접한 계통의 새로 도르비니가 명명한 파타고니아꾀꼬리O. Patagonica가 있다. 이 새는 가시나무 숲이 무성한 계곡에 잘 보이는데, 야생의 습성이 더 강하고 울음소리가 조금 다르다. 처음 보았을 때는 말도나도의 종과 다른 종으로 생각되었다. 나중에 한 마리를 잡아 비교해 보니 아주 비슷해서 나는 생각을 바꾸었다. 그러나 굴드 씨는 지금도 미세한 습성의 차이로

보아 다른 종이라고 확신하고 있다. 굴드 씨는 몰랐지만, 내 결론으로는 두 새는 사소한 습관까지 특징이 비슷하다.

죽은 동물의 고기를 먹는 남아메리카 매들의 개체수와 길들이기 쉽고 혐오스러운 습성은 북유럽의 새만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충격적으로 느껴진다. 여기에는 카라카라매Polyborus, 쇠콘도르,[22] 갈리나소Gallinazo,[23] 콘도르 등 네 종이 있다. 형태로 보면 독수리류에 속하는 카라카라는 그렇게 높은 순위를 매기기는 어렵다. 습성으로 보면 남아메리카를 제외하고 전 세계에 분포하고 있는 우리에게 익숙한 까마귀, 까치, 큰까마귀에 속한다. 브라질카라카라매Polyborus Brasiliensis는 흔히 볼 수 있고, 넓게 분포되어 있다. 라플라타의 초원 지대에 아주 많이 거주하고 있고(카란차로 불린다) 파타고니아의 메마른 평원에도 많다. 네그로 강과 콜로라도 강 사이의 사막에서도 탈진해서 죽은 동물들의 사체를 먹기 위해 길가에 늘어서 있다. 이곳 건조하고 황량한 지역에도 많이 분포되어 있고, 태평양의 메마른 해안가에도 많이 서식하지만, 서파타고니아와 티에라델푸에고의 울창한 삼림에도 분포되어 있다. 카란차는 대농장과 도살장 근처에 치망고와 함께 떼 지어 다닌다. 평원에서는 동물이 죽으면 갈리나소가 먼저 덤벼들고 나면, 카라카라매가 달려들어 뼈까지 발라 먹는다. 이렇게 먹이를 함께 뜯어 먹지만 두 새는 친구가 아니다. 카란차는 나뭇가지나 땅 위에 조용히 앉아 있다가 몸이 더 큰 치망고가 오랫동안 공중을 이리저리 반원을 그리며 날아다니다가 땅 가까이 내려오면 공격을 시도한다. 카란차는 머리만 이리저리 날쌔게 움직이며 관찰한다. 카란차는 종종 떼를 지어 다니기는 하지만, 사막에서는 한 마리 또는 쌍으로 눈에 띄므로 떼를 지어 사는 습성을 지닌 것은 아닌 것 같다.

카란차는 알을 훔쳐 먹는 솜씨가 아주 좋다고 한다. 카란차는 치망고와 함께

22 turkey vulture라고도 한다. 쇠콘도르과Cathartidae에 속하며 날개와 꼬리가 긴 맹금. 정교한 후각 기관을 사용해 먹이를 찾는데, 주로 썩은 고기를 먹고 산다-역주.

23 아메리카 독수리를 총칭하며, 검은독수리, 쇠콘도르(칠면조 독수리), 왕관독수리 등이 있다-역주.

말이나 노새 등에 있는 상처의 딱지를 뜯어 먹는다. 불쌍한 말이나 노새는 귀를 숙인 채 등을 구부리고, 이 새들은 90센티미터 정도의 거리를 두고 날아다니며 살점을 뜯어 먹으려고 맴돌고 있다. 헤드 선장이 이 광경을 아주 생동감 있고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다. 독수리답지 않은 이 새들은 살아 있는 새나 동물은 거의 죽이지 못한다. 죽은 고기를 먹는 독수리와 같은 습성은 파타고니아의 황량한 평원에서 잠들어 본 적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잠에서 깨어 보면 이 새가 날카롭게 지켜보고 있는 것을 겪어 봤기 때문이다. 이 지역을 다녀온 사람에겐 아주 익숙한 풍경이다. 말과 개를 데리고 사냥을 나가면 낮에는 이 새 몇 마리가 항상 따라다닌다. 카란차는 먹이를 먹고 나면 모이주머니가 밖으로 튀어나오는데, 이 모습을 보면 정말 게으르고 힘이 없는 겁쟁이 새일 뿐이다. 하늘을 날 때도 영국의 떼까마귀처럼 둔하고 느리다. 하늘 높이 날아오르는 일은 아주 드문데, 부드럽게 미끄러지듯 높이 날아가는 것을 본 적이 두 번 있다. 카란차도 달릴 수는 있지만, 다른 새들이 깡충깡충 뛰어다니는 것과는 다르며, 빠르지도 않다. 카란차도 가끔 시끄럽게 울 때가 있다. 울음소리가 크고 거칠며 특이하다. 스페인어의 후두음 '후' 발음을 한 뒤 '르'를 거칠게 두 번 발음하는 것과 비슷하게 들린다. 이때 카란차는 고개를 높이 쳐들고 정수리가 등 아래쪽에 거의 닿을 정도로 부리를 크게 벌린다. 이런 사실을 나도 믿기 어려웠지만, 머리가 완전히 뒤집히는 것을 직접 몇 번 목격했다. 내가 관찰한 이런 습성 말고도 아사라에 의하면, 카란차는 벌레, 조개, 민달팽이, 메뚜기, 개구리 등을 잡아먹으며, 탯줄을 찢어서 새끼 양을 죽이기도 한다. 또 갈리나소를 쫓아다니다가 잔뜩 삼킨 고기를 토해 낼 때까지 기다린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아사라는 카란차 대여섯 마리가 모여 왜가리처럼 더 큰 새를 습격하기도 한다고 적고 있다. 모든 사실을 통해 볼 때 카란차는 아주 다양한 습성과 많은 재주를 갖고 있는 새로 보인다.

치망고카라카라매Polyborus Chimango는 카란차보다 아주 작은 새인데, 잡식성

으로 빵까지 먹어 치운다. 칠로에 섬[24]에서는 감자밭을 뒤집어 놓아 감자 농사를 망쳐 버릴 정도다. 역시 죽은 고기를 먹는 습성을 갖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마지막에 사체를 파먹는다. 죽은 소나 말의 갈비뼈 속에서 고기를 파먹고 있는 모습은 마치 새장 속의 새처럼 보인다. 그 외 뉴질랜드카라카라매 Olyborus Novae Zelandiae가 있는데, 포클랜드 제도에서 아주 흔하다. 이 새는 카란차와 비슷한 습성을 지니고 있는데, 죽은 동물의 고기와 해산물을 먹는다. 라미레스 암초에 사는 이 새는 해산물만 먹고 산다. 이 새들은 성질이 아주 순하고 겁이 없어서 생선 내장 같은 것을 구하려고 마을까지 내려오기도 한다. 사냥꾼이 동물 한 마리를 죽이면, 이 새들이 여러 마리 모여들어 먹이를 기다리고 있다. 먹이를 먹고 나면 모이주머니가 튀어나와 이상해 보인다. 뉴질랜드카라카라매는 다친 새들을 거침없이 공격해 잡는다. 상처 난 가마우지가 해안으로 옮겨졌는데, 바로 공격당해 죽고 말았다. 비글호는 포클랜드 제도에 여름에만 머물렀는데, 겨울에 이곳에 정박했던 어드벤처호 사관들 얘기로는 이 새가 아주 겁이 없고 게걸스럽다고 한다. 사냥꾼 바로 옆에서 잠든 개를 습격한 적도 있다고 들었다. 상처 난 거위가 이 새의 먹이가 되지 않게 하느라 고생했다고 한다. 또 카란차처럼 토끼 굴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토끼를 덮쳐서 잡기도 한다. 배가 항구에 정박해 있는 동안 이 새는 배 위를 계속 뱅뱅 돌았다. 그래서 배에 달린 가죽끈이나, 고물에 걸린 고기를 이 새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잘 지켜야 한다. 또 뉴질랜드카라카라매는 아주 호기심이 강하다. 바닥에 있는 물건도 잘 집어 가는데, 반짝이는 검정색 모자를 물고 거의 1.6킬로미터나 도망가기도 했고, 소를 잡는 데 쓰는 무거운 공도 두 개나 물고 가 버렸다. 어스본 씨는 탐사 여행 중에 빨간 모로코 가죽 케이스에 넣어 둔 작은 케이터 나침반을 잃어버렸다고 한다. 또 이 새들은 성미가 급하고 잘 싸운다. 화가 날 때는 풀을 물어뜯는다. 떼 지어 살지는 않으며, 높이 날아오르지 않는데, 날 때도 둔하고 위태로워 보인다. 땅에서는 꿩처럼 아주 빨리 달릴 수 있

24 칠레 남부의 로고스라고스 주 칠로에 군에서 가장 큰 섬-역주.

다. 크게 소리를 지르면 영국의 땅까마귀 소리와 비슷하다. 그래서 바다표범을 잡으러 다니는 사람들은 이 새를 떼까마귀라고 부른다. 또 카란차처럼 소리 지를 때 머리를 위로 쳐들고 등 뒤로 젖힌다. 바닷가 절벽 위에 집을 짓기도 하는데, 두 개의 본토 섬이 아니라 근처의 작은 섬에만 짓는다. 이 조심스러운 습성은 겁이 없는 이 새에게는 신기할 정도다. 바다표범을 잡는 사람들의 얘기에 따르면, 이 새의 고기를 익히면 흰 살코기가 아주 맛있다고 한다. 이 새 고기를 먹을 정도라면 참 용감한 사람일 것 같긴 하다.

이제 쇠콘도르Vultur aura와 갈리나소에 대해 이야기해 보자. 쇠콘도르는 혼Horn 곶[25]에서 북아메리카에 걸쳐 비교적 습한 지역에 서식하고 있다. 브라질 카라카라매나 치망고와 달리 포클랜드 제도 위를 날아다닌다. 쇠콘도르는 보통 혼자서 날아다니며, 쌍을 지어 다니는 정도다. 이 새는 멀리서 높이 날아올라 우아한 비행을 보여 준다. 죽은 고기만 먹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파타고니아 서해안의 숲이 울창한 섬이나 황폐한 땅에서는 파도에 떠밀려 온 것과 죽은 바다표범 고기를 먹는다. 바다표범이 서식하는 바위 근처에는 쇠콘도르가 보인다. 갈리나소Cathartes atratus는 쇠콘도르와 달리 위도 41도 남쪽에서는 보이지 않는다. 아사라에 의하면, 갈리나소는 남아메리카 대륙 발견 당시에 몬테비데오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는데, 북쪽 지방에서 주민들을 따라왔다고 한다. 현재 갈리나소는 몬테비데오에서 정남쪽으로 약 480킬로미터 거리인 콜로라도강 계곡에 많이 서식하고 있다. 아사라가 관찰한 시기 이후에 이쪽으로 옮겨갔을 것으로 추측된다. 갈리나소는 보통 습한 기후를 좋아한다. 민물 가에서 많이 보인다. 그래서 브라질과 라플라타 강 유역에 아주 많이 서식하고 있다. 반면에 물이 있는 지역 몇 군데 외에는, 북파타고니아의 사막과 건조한 평원 지역에서는 한 마리도 찾을 수 없다. 코르디예라 산맥 기슭에 이르기까지 팜파스 지방 전역에서 고루 발견되지만, 칠레에는 전혀 없다. 페루에서 갈리나소는 썩은 고기를 깨끗이 먹어 치우는 청소 동물로 보호받고 있다. 이 새는 떼

25 혼 곶. 칠레 남부 마가야네스 주 티에라델푸에고 제도의 오르노스 섬의 가파른 바위 갑岬-역주.

를 지어 흔한 먹이에도 아주 잘 모여든다. 맑은 날씨에는 갈리나소 한 무리가 하늘 높이 떠서 우아한 비행을 잘 보여주는데, 이런 비행은 놀이 같기도 하고, 짝짓기와 관련된 동작으로도 보인다.

지금까지 죽은 고기를 먹는 새 종류를 쭉 살펴보았는데, 이외에 콘도르도 있다. 콘도르는 여기보다 더 적합한 서식 지역에서 소개하기로 하자.

말도나도에서 수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라플라타 강 연안에서 라구나델포트레로 사이에는 넓은 모래 언덕 지역이 있다. 나는 이곳의 모래에서 유리로 된 규산질의 관들을 발견했다. 부석부석한 모래 속으로 번개가 들이쳐서 형성된 것이다. 이 규질관은《지질학 회보》에 소개되어 있는, 컴벌랜드의 드릭에서 발견된 것과 닮아 있다.[26] 그런데 말도나도 근처 모래 언덕은 식물이 분포되어 있지 않아 끊임없이 그 형태가 변하고 있다. 따라서 관이 모래 밖으로 나와 있고, 주변에 조각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아 오래전에는 더 깊은 곳에 묻혀 있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네 개의 관이 모래 속에 수직으로 형성되어 있다. 그중 하나를 손으로 파서 보니, 땅속 60센티미터 깊이까지 묻혀 있었다. 한 개의 관에 속할 것 같은 조각들을 모두 연결하자 총 길이가 160센티미터가 되었다. 관의 지름은 거의 일정한 것으로 보아 원래는 훨씬 더 깊은 곳까지 뻗쳐 있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곳은 그래도 깊이가 낮은 편이다. 드릭에서는 적어도 9미터 깊이에서 발견된다.

관 안쪽은 완전한 유리질로 매끈하고 반짝인다. 현미경으로 관 조각을 들여다보면 수증기 방울로 짐작되는 작은 기포가 많이 있다. 유리 취관으로 불기 전에 녹아 있는 물질처럼 보인다. 모래는 거의 규산질이지만 검은 점이 몇 개 보이고, 표면이 번쩍거려 금속의 느낌이 난다. 관의 벽은 두께가 1.3에서 2.5밀리미터인데, 더러 2.5밀리미터인 것도 있다. 바깥의 모래 입자는 둥글게 닳아

26 《지질학 학술지》(2권, 528쪽), 《자연사 학술지》(1790년, 294쪽)에서 프리스틀리Priestly 박사는 사람이 벼락을 맞아 죽은 자리의 나무 아래 땅을 파다가 규질로 되어 있는 관 몇 개와 녹아 있는 석영 한 개를 발견했다고 기술했다.

있고, 윤이 난다. 결정 작용에 대한 증거는 발견되지 않는다. 《지질학 회보》에 소개된 것처럼, 이곳의 관도 압축되어 있는데, 느릅나무와 코르크나무 껍질처럼 세로로 깊은 홈이 파여 있다. 둘레 길이는 약 5센티미터인데, 홈이 없는 원통 모양의 관 몇 개는 10.2센티미터가 된다. 뜨거운 열로 관이 아직 부드러울 때 주변의 푸석한 모래에서 압축이 일어나 이렇게 주름이나 홈이 생겼을 것이다. 압축되지 않은 부분으로 추측해 보면, 번개의 크기나 지름(이런 용어를 쓸 수 있다면)이 3.2센티미터 정도가 된다. 파리에서 아세트와 보당이 유리 가루에 전기 충격을 가해 이러한 섬전암[27]과 비슷한 성질을 가진 관을 실험을 통해 만들어 냈다. 염류를 가해 용해도를 높이면 관의 크기와 지름이 더 커졌다. 유리 가루가 아닌 장석이나 석영 가루로는 실험에 실패했다. 실험으로 만들어진 유리관은 길이가 거의 2.49센티미터, 내부 지름이 0.05센티미터이다. 파리에서 가장 파괴력이 강한 대포를 이용하면 유리처럼 쉽게 녹는 물질에서 이렇게 작은 관을 만들어 낼 수 있다고 들었다. 그런데 모래에 떨어진 번개와 같은 전기 충격이라면, 석영처럼 잘 녹지 않는 물질로 적어도 9.1미터 길이에, 압축이 안 된 상태로 지름 3.8센티미터인 원통 관을 만들 수 있다니 번개의 강력한 힘에 놀랄 따름이다.

관은 거의 수직으로 모래 속으로 들어간다. 직각에서 가장 기울어진 관이 수직에서 33도 정도 눠어 있다. 이 관으로부터 두 개의 작은 관이 약 30센티미터 거리를 두고 갈라져 하나는 위로, 하나는 아래로 뻗어 간다. 여기서 위로 갈라진 관이 특이한 현상인데, 전기를 띤 유동체는 26도 예각에서 원래 지점으로 되돌아가려는 성질이 있기 때문이다. 내가 직접 모래 속까지 파본 결과 수직으로 묻힌 관 네 개 외에 몇 개의 조각들이 있었지만, 위치는 거의 비슷했을 것이다. 모든 관이 122미터에서 152미터 정도 높이의 사구로부터 805미터 떨어져 있는 높은 사구 사이에 있는 평평하게 흐르는 모래 지역 55×18미터에서 발견된다. 이곳과 드릭에서 발견된 관이나, 독일에서 리벤트로프가 발표한

27 《화학 및 물리학 연보》 37권, 319쪽.

것을 모두 살펴보면, 이렇게 좁은 지역에서 발견되는 관의 숫자가 놀랍다. 드릭에서는 14미터 지역에서 세 개가 발견되었고, 독일에서도 세 개가 나왔다. 이곳 55×18미터 모래 지역에서 내가 찾은 것만도 네 개 이상이었다. 관은 연속적인 전기 충격에 의해 생길 것 같지는 않다. 따라서 번개는 땅에 내리쳐서 땅속으로 들어가기 바로 전에 갈라진다고 생각된다.

라플라타 강 주변 지역은 특히 전기적 현상이 많이 일어난다. 역사상 가장 파괴적인 뇌우는 1793년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발생했다.[28] 도시의 37개 지역에 벼락이 떨어져, 열아홉 명이 사망했다. 다른 여행기를 읽어 보면, 큰 뇌우는 큰 강 입구에서 흔히 일어난다. 많은 양의 강물과 바닷물이 만나 섞일 때 그곳의 전기적인 균형 상태가 깨질 수도 있으리라. 우리가 남아메리카의 이곳을 여행하는 기간에도 배 한 척, 교회 두 곳, 집 한 채가 벼락에 맞았다는 소식을 들었다. 벼락에 맞았다는 교회와 집을 직접 가봤다. 집은 몬테비데오의 총영사인 후드 씨 집이었다. 벼락을 맞은 집이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했다. 초인종을 연결하는 전선 주위 30.5센티 정도의 종이가 검게 타 있었다. 금속 물질이 녹아 4.6미터 높이의 방 아래로 떨어져 가구에 구멍이 뚫려 있었다. 한쪽 벽은 화약을 맞은 것처럼 파괴되어 있고, 깨진 조각들은 벽 속에 박혀 있었다. 거울의 테두리도 검게 탔는데, 벽난로 위에 놓인 방향제 병의 표면이 에나멜을 칠한 듯 밝은 금속 입자로 덮인 것으로 보아 도금 물질이 휘발된 것 같다.

28 아사라, 《항해기》 1권 36쪽.

● 리우데자네이루에서 휴식을 취한 다윈은 1832년 7월 5일 부에노스아이레스로 다시 항해를 시작한다. 그리고 비글호는 2년 동안 라플라타 강 남쪽에 위치한 남아메리카의 남쪽 끝 해안과 동쪽 해안을 탐사한다. 다윈은 이 지역에 대한 탐사기록을 비글호의 항해 순서에 따르지 않고, 지역별로 발췌해서 적고 있다. 3장부터 11장까지가 그 기록이다. 우선 이 장에서는 라플라타 강 북쪽 기슭의 작은 도시 말도나도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다윈은 말도나도에서 10주간 머무르며, 사냥을 하고 표본을 만들면서 바쁘게 지내는데, 이때 관찰한 지질과 생물에 대해 세밀하게 기록하고 있다.

말도나도는 인적이 뜸하고 조용한 도시로 초원에 둘러싸인 평원 지역이다. 그곳에 도착한 다윈은 작고 예쁜 새와 들꽃에서 대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끼며 초원을걷는 행복을 만끽한다그리고 새와 파충류의 다양한 자료를 수집한다.

다윈은 말도나도에서 북쪽으로 약 110킬로미터 떨어진 플랑코 강으로 육로 답사를 다녀온다. 일꾼 두 명을 고용해 말을 타고 떠난 짧은 여행에서 다윈은 현지 주민들로부터 후한 대접을 받는다. 외지인을 거의 만나 본 적이 없는 원주민들은 다윈 일행을 보고 아주 신기해한다. 다윈은 이 지역 반다오리엔탈 사람들을 만났을 때, 주민들의 무지함에 너무 놀란 나머지 중앙아프리카 원주민들을 만난 듯한 느낌이 든다고 적고 있다. 술집에서 마주친 가우초들에 대한 인상도 적고 있는데, 다윈은 거만해 보이는 가우초들에게 끝까지 경계심을 풀지 않는다. 이 지역에서 다윈은 대리암층을 조사하는데 몰두하는 한편. 주민들에게서 말을 타고 달리며 올가미나 볼라를 던져 사냥하는 방법을 배운다. 또 부근에 아주 흔한 자고새를 상대로 올가미 사냥의 재미까지 맛본다.

이 지역에는 나무가 거의 없다. 숲의 형성은 연간 강수량의 영향을 받는다는 통설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고 있었다. 이에 대해 다윈은 강수량 외에 또 다른 원인도 검토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조심스레 내놓고 있다. 말도나도 부근은 건조하지 않은데도 숲이 거의 없는 반면, 오스트레일리아는 그보다 건조한데도 숲이 울창하기 때문이다. 남아메리카만 보면 습도가 높은 지역에서만 나

무가 잘 자란다는 통설이 맞아떨어지는 것 같다. 그러나 여기에도 예외가 관찰된다. 티에라델푸에고와 비슷한 기후조건을 가진 포클랜드 제도에는 숲이 거의 없다.

다윈은 말도나도에서 많은 종류의 파충류를 채집한다. 그 밖에 몇 종류의 네 발 동물과 80종의 새, 9종의 뱀도 채집 목록에 포함되어 있다. 이 지역에 고유한 포유동물 가운데 몸집이 큰 사슴Cervus campestris은 라플라타 강 연안과 북부 파타고니아에 많이 분포하고 있다. 쥐목目 종류도 발견되는데, 생쥐도 최소 8종 이상을 채집했다. 지상에서 가장 큰 설치 동물인 카피바라도 아주 흔하다. 다윈은 두더지의 습성을 지닌 설치류인 투코투코의 특징에 대해서도 자세히 기록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주변의 평원에서 많은 종류의 새들을 관찰하여, 그것들의 종류와 습성에 대해 적고 있다 여기에서 몰로드루스 니제르와 뻐꾸기의 습성을 비교해서 들려준다. 또 특이한 습성을 가진 새 종류로 큰산적딱새의 아메리카 계통인 사우로파구스 술푸라투스, 칼란드리아라고 불리는 흉내지빠귀를 들고 있다. 마지막으로, 죽은 고기를 먹는 남아메리카의 매 종류로 카라카라매, 쇠콘도르, 갈리나소, 콘도르 등 네 종에 대해 꼼꼼하게 기록하고 있다.



네그로 강에서 바이아블랑카로



제4장
네그로 강에서 바이아블랑카로

네그로 강–인디오의 습격을 받은 대농장–염수호–홍학–네그로 강에서 콜로라도 강으로–성스러운 나무–파타고니아 토끼–인디오 가족들–로사스 장군–바이아블랑카로 전진–모래 언덕砂丘–흑인 대위–바이아블랑카–염류 껍질–푼타알타–조리요

1833년 7월 24일 | 말도나도[1]에서 출항한 비글호는 8월 3일 네그로 강어귀에 도착했다. 이 강은 마젤란 해협과 (아르헨티나 중부의) 라플라타 강 사이의 해안선에 닿아 있는 주요 하천이다. 이 강은 라플라타 강어귀로부터 약 480킬로미터 정도 남쪽 지점에서 바다로 흘러든다. 여기에는 지금으로부터 약 50년 전, 이곳을 지배하던 구舊스페인 정부에 의해 작은 거주지가 만들어졌으며,[2] 아직까지도 아메리카 대륙의 동해안에서 가장 남쪽(위도 41도)에 있는 문명인 거주지역이다.

강어귀 주변은 심할 정도로 황폐하다. 남쪽 편에 깎아지른 듯한 모양의 길게 늘어선 절벽이 시작되는데, 바로 여기서 이 지역의 지질학적 근원이 드러난다. 이곳 지층은 사암층인데, 그중 단 한 층만 경석 자갈들로 굳게 다져진 역암층이라는 점이 시선을 끈다. 그 자갈들은 안데스 산맥에서부터 640킬로미터 이상 이동해 온 것들이 틀림없다. 지표면은 온통 두터운 자갈층으로 덮여 있으며, 이 지층은 저 멀리 드넓은 평원까지 이어진다. 물은 거의 찾아볼 수 없고, 어쩌다 찾아내더라도 하나같이 염분이 있어 먹지 못한다. 식물도 거의 자라지 않는다. 여러 종류의 덤불들이 있지만 죄다 무시무시한 가시를 지닌 것들뿐이다. 마치 낯선 이방인에게 이 험한 지역에는 발도 들여놓지 말라고

1 우루과이 남부 라플라타 강어귀의 북쪽 기슭에 있는 주州–역주.

2 우루과이는 1830년 스페인으로부터 독립했다–역주.

경고하는 듯하다.

강을 따라 30킬로미터쯤 올라가면 거주지가 나온다. 네그로 강이 흐르는 거대한 계곡의 북쪽 경계선에 형성된 비스듬한 절벽 아래를 따라 길이 나 있다. 그리로 가는 도중에 우리는 몇 해 전에 인디오들이 부숴 버렸다는 웅장한 '대농장estancia'의 폐허 몇 군데를 지나쳤다. 그 대농장들은 수차례의 공격을 견뎌냈다. 동행했던 남자 하나가 거기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아주 생생하게 얘기해 주었다. 그곳의 거주민들은 모든 가축과 말들을 집 근처의 '코랄corral'[3], 즉 대목장 안에 몰아넣고 작은 대포들을 장전하고 있으라는 사전 명령을 받았다. 쳐들어온다는 인디오들은 칠레 남부에서 올라온 아라우칸족이었다. 그 수는 수백에 달했고, 모두 고도로 훈련된 전사들이었다. 두 무리로 나뉘어 인근 언덕에 모습을 드러낸 그들은 말에서 내려 모피 망토를 벗고는 알몸으로 목표를 향해 돌진했다. 인디오들의 유일한 무기는 추조chuzo라고 부르는 아주 긴 대나무 창이다. 이 창은 타조 깃털로 장식되어 있으며 날카로운 창촉이 붙어 있다. 이야기를 해 주던 사람은 가까이 다가오던 그 진동하는 창끝과 그 당시의 극심한 두려움을 기억하고 있는 듯했다. 목표물에 바싹 다가온 인디오 추장 '핀체이라'는 포위된 사람들에게 무기를 버리지 않으면 전부 목을 따버리겠다고 고함쳤다. 인디오들이 들어오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든 결과는 몰살이라고 생각한 대농장 사람들은 소총 부대의 일제 사격으로 응답했다. 인디오들은 엄청난 끈기를 가지고 목장 울타리 바로 바깥쪽까지 다가왔지만, 말뚝이 모두 가죽끈 대신 쇠못으로 박혀 있어 기겁하고 말았다. 칼로 잘라 보려 했지만 허사였다. 이렇게 해서 기독교도들은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다. 인디오들은 수많은 부상자들을 후송했고, 마침내 부족장 중 한 명이 부상당하자 퇴각을 알리는 나팔을 울렸다. 그들은 말이 있는 곳까지 후퇴해서 작전 회의를 하는 것 같았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스페인 사람들에게 끔찍하기 짝이 없는 시

3 코랄은 키가 크고 튼튼한 말뚝으로 둘러싼 지역이다. 모든 대농장에는 그에 딸린 코랄, 즉 대목장이 있었다.

간이었다. 탄창 몇 개 말고는 모든 총기들을 소진한 상태였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인디오들은 눈 깜짝할 새에 다시 말에 올라 시야에서 사라졌다. 이후 공격이 한 차례 더 있었지만 기독교도들은 신속하게 물리쳤다. 한 침착한 프랑스 사람의 총기 부대 지휘에 따라, 인디오들이 가까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일제히 연발 사격하여 인디오 39명을 쓰러뜨렸다. 물론 이러한 강공에 전 인디오 부대는 즉각 쫓겨 갔다.

이곳 거주지는 엘 카르멘El Carmen이라고도 하고 파타고네스Patagones라고도 한다. 마을은 바로 앞에 강을 둔 절벽 전면에 형성되어 있는 사암층을 파서 지은 집들로 이루어져 있다. 강은 폭이 180~280미터 정도이며 깊고 물살이 빠르다. 넓고 푸른 계곡의 북쪽 경계선 위로 버드나무가 우거진 여러 섬들과 평평한 곶이 앞뒤로 보이는 모습에 밝은 햇살이 비치면 마치 그림과도 같은 풍경이 펼쳐진다. 이 스페인 거주지에 살고 있는 사람의 수는 기껏해야 몇백이며, 우리 영국 식민지처럼 자체적으로 발전해 나가기 위한 요소를 지니고 있지는 않다. 이곳에는 순수한 혈통의 인디오들이 꽤 많이 살고 있다. 마을 변두리에는 루카니 추장의 부족이 오랫동안 톨도스toldos[4]를 이루고 살아왔다. 지방정부는 그들에게 늙고 힘 빠진 말들을 주는 식으로 부분적인 식량 지원을 하고 있으며, 그들은 말 덮개나 그 외의 승마 도구를 만들어 조금씩 수입을 올리곤 한다. 이 인디오들은 문명화되었다고들 하는데, 좀 덜 사나워졌을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변화한 정도만큼 전반적으로 문란한 생활을 했다. 그래도 젊은이들 중 몇몇은 나아지고 있었다. 그들은 일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고, 최근에는 그들 중 한 무리가 물개 잡이를 가기도 했으며, 행동거지도 발랐다. 이제 그들은 무척 화사하고 깨끗한 옷을 입고 여유 있게 늘어져서 노동의 결실을 누린다. 그들의 옷에서는 훌륭한 취향이 엿보이는데, 이 젊은 인디오들 중 하나를 모델로 청동 조각상을 만든다면 그 주름진 옷은 더없이 우아했을 것이다.

4 인디오들이 짓는 누옥陋屋 혹은 오두막집을 이렇게 부른다.

하루는 말을 타고 마을에서 24킬로미터 떨어진 거대한 살리나Salina, 즉 소금 호수에 갔다. 겨울이면 이곳은 얕은 소금 호수가 되고, 여름에는 눈처럼 새하얀 소금 벌판으로 바뀐다. 소금층의 두께는 호수 가장자리에서 10~13센티미터 정도이며 호수 가운데로 갈수록 두꺼워진다. 이 호수는 길이가 4킬로미터, 폭은 1.6킬로미터이다. 이 근방에 있는 다른 호수들은 이보다 몇 배는 더 크며 그 바닥에는 60~90센티미터 두께의 소금층이 있는데, 이는 심지어 겨울철의 수면 아래에서도 남아 있다. 갈색의 황량한 벌판 한가운데 펼쳐진 눈부시게 하얗고 평탄한 넓은 공간은 흔치 않은 볼거리가 된다. 이 살리나에서 해마다 막대한 양의 소금을 채취하며, 주변에는 무게가 수백 톤이나 되는 거대한 소금 더미들이 수출되기를 기다리며 쌓여 있었다. 사람들이 살리나에서 일하는 기간은 이 지역에서 볼 때는 일종의 추수기이다. 파타고네스 지역의 번영은 이 기간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이 동안에는 거의 모든 주민들이 강둑에서 야영하며 소가 끄는 짐수레로 소금을 실어 내는 일에 종사한다. 이곳 소금은 결정 모양이 커다란 정육면체이며 아주 순수하다. 트렌햄 리크스Trenham Reeks 씨가 친절하게도 나를 위해 분석해 준 결과를 보면 이곳 소금에는 석고 성분 0.26퍼센트, 토양 성분은 0.22퍼센트밖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한다. 특이하게도 고기를 절이는 데에는 이곳 소금이 카보베르데 섬에서 들여온 바닷소금만큼 좋지 않아,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온 상인은 이곳 소금을 반쪽짜리 값어치로 여긴다고 한다. 따라서 카보베르데의 소금이 계속 수입되어 이곳 살리나의 소금과 섞이고 있다. 이곳 소금이 어딘가 뒤떨어지는 점은 파타고네스 소금이 순수하다는 것, 그러니까 바닷물에서 추출한 소금에서 발견되는 몇몇 다른 염류들이 여기에는 들어있지 않다는 것뿐이다. 이런 변론은 내 생각에는 다른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을 것이지만, 최근 이곳 소금이 조해성 염화물deliquescent chlorides[5]의 대다수를 함유하는 치즈를 저장하는 데에는 최고라는

5 조해성이란 '어떤 물질이 공기 중의 수분을 흡수해서 녹는 성질'을 말한다—역주.

것이 사실로 확인되었다는 것은 이에 대한 증거가 된다.[6]

이 호수의 가장자리는 진흙밭인데, 때론 길이가 7~8센티미터를 넘는 거대한 석고 결정체들이 셀 수 없이 묻혀 있다. 반면 진흙 표면에는 황산소다 결정체들이 흩어져 있다. 가우초들은 이 석고 결정체들을 '파드레 델 살Padre del Sal(소금의 아버지)', 황산소다 결정체들을 '마드레 델 살Madre del Sal(소금의 어머니)'이라고 부른다. 그들의 말에 따르면 이렇게 점점 커지는 염류들은 살리나 주변에서 수분이 증발하기 시작할 때 생겨난다고 한다. 진흙은 검고 악취를 풍긴다. 바람 때문에 호숫가로 밀려온 거품이 녹색을 띠는 이유는 조류藻類의 일종인 황녹조류 때문이라는 것을 얼마 지나지 않아 알게 되었다. 나는 이 녹색 물질을 조금 집으로 가져와 보려고 시도했지만 잘못해서 망치고 말았다. 호수의 어떤 부분은 가까이에서 보면 불그스름했는데, 아마도 적충류 극미동물들 때문인 듯했다. 그 진흙밭 곳곳에는 몇 종류의 벌레들, 즉 환형동물 수십 마리가 흙을 헤집고 기어 나와 있었다. 그런 소금물에서도 생존할 수 있는 생물체가 있어서, 황산소다와 석회 결정 사이에서도 기어 다니며 살고 있다니 얼마나 놀라운가! 더구나 긴긴 여름날 이 진흙층 표면이 굳어 단단한 소금층이 되면 이 벌레들은 과연 어떻게 될까? 이 호수에 서식하고 있는 수많은 홍학들은 이곳 파타고니아, 칠레 북부, 그리고 갈라파고스 제도 도처에서 새끼를 친다. 소금 호수가 있는 곳이면 어디든 이 새들을 볼 수 있다. 나는 이곳에서 홍학들이 먹잇감—아마도 진흙 속에 파고들어 있는 벌레들일 것이다—을 찾아 물가를 돌아다니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그 벌레들은 아마도 적충류나 황녹조류를 먹고 살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 내륙 소금 호수에는 이곳의 환경에 순응한 작은 생태계가 존재하는 셈이다. 리밍턴의 염전에는 아주 작은 갑각류Cancer salilnus가[7] 무수히 서식하고 있다고 한다. 물론 그 생물들은 수분의 증발로 인해 적절한 염도, 즉 0.5리터의 물에 소금이 약 1백 그램 정도 들어간 비율로 염분이 유지되는 부분에서만 서식한다고 하다. 사실 세계 어디라도 생물이 살 만한

6 1845년 《농업 소식Agricultural Gazette》 93쪽에 실린 〈농화학협회 보고서〉.

곳이라고 할 수 있다! 소금 호수, 화산대 아래 숨어 있는 지하 소금 호수, 따뜻한 미네랄 온천, 넓게 펼쳐진 깊은 대양, 대기의 상층부, 심지어 만년설 표면에서조차 유기 생물체는 생존한다.

네그로 강의 북쪽에서부터 부에노스아이레스 부근의 사람이 살지 않는 지대 사이에 스페인 사람들이 지은 정착촌으로는 최근 바이아블랑카에 지은 것이 유일하다. 거기서부터 부에노스아이레스까지의 직선거리는 영국식 마일로 거의 5백 마일, 즉 8백 킬로미터에 이른다. 언제나 이 나라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유랑해 온 인디오 기마 부족들은 최근까지도 외따로 떨어져 있는 대농장을 쉴 새 없이 습격해 왔다. 얼마 후 부에노스아이레스 지방 정부는 그들을 근절시키기 위해 로사스 장군[8] 지휘하에 몇 차례에 걸쳐 군부대를 파견했다. 당시 부대는 콜로라도 강변에 진지를 구축했다. 콜로라도 강은 네그로 강에서 북쪽으로 약 130킬로미터가량 떨어져 있었는데, 로사스 장군은 부에노스아이레스를 떠나 개척되지 않은 평원을 가로질러 곧장 진격했다. 그리고 인디오들을 제압한 뒤, 계속 진격해 나가면서 수도와의 의사소통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일군의 군사들과 말들을 띄엄띄엄 포스타posta, 즉 초소로 남겨 놓았다. 비글호가 바이아블랑카에 방문할 예정이었으므로, 나는 그곳까지 육로로 이동하기로 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나는 부에노스아이레스까지의 전체 여정을 그 초소

7 《린네 회보》 11권, 205쪽. 시베리아와 파타고니아의 소금 호수를 둘러싼 환경이 얼마나 비슷한가 하는 점은 주목할 만한 일이다. 시베리아는 파타고니아와 마찬가지로 바닷물 위로 최근에 융기한 것으로 보인다. 두 지역 모두 평원의 얕은 침강 지역에 소금 호수가 생성되어 있는데 호수 가장자리의 진흙은 검고 악취가 난다. 염류 껍질 아래에는 황산소다와 황산마그네슘이 있으며 불완전한 결정을 이루고 있다. 그리고 두 곳 모두 진흙투성이 모래에는 렌즈콩 모양의 석고가 섞여 있다. 시베리아의 소금 호수들에는 작은 갑각류들이 살고 있으며 홍학(《에든버러 신박물학 학술지》, 1830년 1월) 역시 자주 찾아온다. 겉보기에는 사소해 보이는 이런 현상들이 멀리 떨어진 두 대륙에서 똑같이 일어나는 것은, 공통된 원인에 의한 필연적인 결과일지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팔라스의 여행기Pallas's Travels》 의 1793년에서 1794년까지, 129~134쪽 참조)

8 후안 마누엘 데 로사스Juan Manuel de Rosas, 1793~1877. 아르헨티나의 군사, 정치 지도자.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총독에 올랐다—역주.

들을 거쳐 가는 것으로 늘렸다.

8월 11일 | 파타고네스에 살고 있는 영국인 가이드 해리스 씨, 그리고 사업상의 일로 군대로 향하던 다섯 명의 가우초들과 동행하게 되었다. 콜로라도 강까지는 앞에서 말했듯이 거의 130킬로미터에 이르는 거리였다. 우리는 천천히 이동했기 때문에 이틀하고도 반을 길에서 보냈다. 사방으로 보이는 지역은 사막이라 해도 모자람이 없을 정도였다. 물이 있는 샘은 단 두 곳이었다. 민물이라고는 했지만, 1년 중 지금 같은 우기도 소금기가 상당했다. 이 길은 지금도 충분히 황량한 것으로 미루어 여름에는 정말 끔찍한 곳이 될 것이 분명하다. 네그로 강의 계곡들은 넓긴 하지만, 마을이 있는 강둑 바로 위에 몇몇 작은 계곡과 약간의 저지대가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평지가 펼쳐지는 것으로 보아, 사암질 평원이 길게 파인 부분에 불과하다. 어느 곳을 보아도 똑같이 황량한 풍경이었다. 메마른 자갈투성이 토양에는 갈색으로 시든 풀 더미와 낮게 깔린 가시투성이 덤불뿐이었다.

첫 번째 샘을 지나자 곧 유명한 나무 한 그루가 우리 시야에 들어왔다. 인디오들이 '왈리추의 제단altar of Walleechu'이라 부르며 신성하게 모시는 나무였다. 벌판의 높은 부분에 자리 잡은 그 나무는 아주 멀리서도 볼 수 있는 이정표가 된다. 인디오들은 그 나무가 시야에 들어오면 얼마나 그 나무를 숭배하는지를 소리 높여 외친다. 나무 자체는 키가 작고 가지가 많으며 가시가 나 있다. 뿌리 바로 위의 줄기는 지름이 약 90센티미터이다. 주변에 다른 나무라고는 없으며, 이것이 정말 우리가 처음 발견한 나무였다. 이후 같은 종의 나무를 몇 그루 더 발견했는데, 흔히 볼 수 있는 것들은 아니었다. 겨울이라 잎들은 다 떨어졌으나 대신 무수히 많은 가시들이 있었다. 가시에는 담배, 빵 쪼가리, 고기 조각, 천 조각 등 사람들이 바친 갖가지 물건들이 걸려 있었다. 더 좋은 물건이라고는 가진 것 없는 가난한 인디오들은 자기 판초[9]에서 뽑은 실 한 가닥이라도 나무에 묶는다. 좀 더 잘사는 인디오들은 나무 구멍에 독한 제주祭

9 중남미 원주민이 착용하던 망토 모양의 걸치는 외투–역주.

酒와 마테 차를 붓고 연기를 피워 올리는 것으로 왈리추에 대한 경배를 표한다고 여긴다. 이러한 의식은 제물 삼아 도살한 말의 백골로 나무를 에워싸는 것으로 마무리한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든 인디오들이 각자의 제물을 바치면서 그들의 말이 지치지 않기를, 그리고 그들이 부유해지기를 기원한다. 함께 있던 가우초는 평화롭던 시절에 이 광경을 지켜본 적이 있었는데, 왈리추에게 바친 제물을 훔치려고 동료들과 함께 인디오들이 물러가길 기다리곤 했다고 했다.

가우초들은 인디오들이 그 나무를 신 그 자체로 여긴다고 생각하지만, 그보다는 신에 대한 제단으로 여기고 있을 가능성이 더 커 보인다. 내가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그 나무가 이 험난한 길에서 이정표가 되기 때문이다. 멀리 시에라데라벤타나Sierra de la Ventana가 보이자 가우초 하나가 얘기를 시작했다. 예전에 인디오 한 명과 함께 콜로라도 강 북쪽으로 몇 킬로미터쯤 달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인디오가 이마에 손을 얹고 멀리서 그 나무를 발견했을 때 지르는 소리를 내기 시작하면서 시에라 쪽을 가리켰다고 했다. 그가 이유를 묻자 그 인디오는 더듬거리는 스페인어로 "시에라, 처음, 보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우리는 호기심을 끄는 이 나무를 지나 약 10킬로미터[10]쯤 간 곳에서 밤을 보내기로 했다. 바로 그때 가엾은 암소 한 마리가 가우초들의 매서운 눈에 걸려들었다. 그들은 전부 쫓아가서는 몇 분 만에 올가미[11]로 암소를 묶어 끌고 와서는 도살했다. 우리는 여기서 '야영' 생활의 네 가지 필수 요소를 다 얻었다. 말을 먹일 목초, 물(비록 진흙 웅덩이의 물이긴 해도), 고기와 땔감이 바로 그것이었다. 가우초들은 이 모든 호사를 누리게 되어 기분이 잔뜩 고조되어 있었다. 우리는 곧 불쌍한 암소를 처리했다. 이것이 내가 마구馬具를 침대 삼아 야외에서 보낸 첫째 날 밤이었다. 가우초 생활이 지니는 독립성 속에는 언제든 말을 멈추고 "이곳에서 오늘 밤을 보내자"라고 말할 수 있는 크나큰 즐거움이 있다.

10 원문에는 2리그로 되어 있는데, 1리그는 약 3마일이므로 2리그는 6마일에 해당한다–역주.

11 가우초들이 짐승을 사로잡는 데 쓰는 올가미를 라조lazo라고 한다–역주.

평원의 쥐 죽은 듯한 고요함, 보초를 세워 둔 개들, 집시처럼 모닥불을 에워싸고 잠자리에 든 가우초들, 첫째 날 밤의 이러한 광경은 내 머릿속에 깊이 각인되었고, 앞으로도 영원히 잊지 못할 것이다.

다음 날 펼쳐진 광경은 앞서 얘기한 것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 종류를 막론하고 새들과 동물들이 거의 살고 있지 않았다. 가끔씩 사슴이나 과나코Guanaco(야생 야마)[12]가 나타났다. 그렇지만 가장 자주 보는 네발짐승은 아구티Agouti, Cavia patagonica[13]였다. 이곳에서 이 동물은 우리가 아는 산토끼라고 보면 된다. 하지만 여러 가지 본질적인 면, 예를 들어 뒷발가락이 세 개라는 점 등을 보면 다른 속에 해당한다. 게다가 크기는 집토끼의 거의 두 배이고 무게는 9~11킬로그램이다. 아구티는 진정한 사막의 벗이다. 이 황량한 벌판을 가로질러 아구티 두세 마리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깡충거리며 뛰어가는 것은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이다. 그것들은 들판이 갑자기 더 푸르러지고 보다 습해지는 시에라타팔겐(위도 37도 30분) 같은 북쪽 지역에서도 볼 수 있으며, 남방 한계선은 지역의 특성에 변화가 없는 데지레 항과 산훌리안 항 사이이다. 지금은 산훌리안 같은 남쪽 지역에서는 아구티가 발견되지 않고 있지만, 우드 함장은 1670년의 항해 기록에서 그곳에 많은 아구티가 서식하고 있다고 전하니 희한하다. 사람이 살지 않고 찾는 이도 없는 이 넓은 땅에서 과연 어떻게 해서 이런 동물의 서식 범위가 바뀌었을까? 데지레 항구에서 우드 함장이 하루 동안 쏘아 잡았다는 아구티의 수로 보아 지금보다는 훨씬 더 많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아구티는 비스카차Biscacha[14]가 서식하면서 만들어 놓은 땅굴에서 살지만 비스카차가 살지 않는 바이아블랑카 같은 곳에서는 스스로 땅굴을 판

12 몸의 길이는 1~2미터, 어깨의 높이는 90~100센티이터인 낙타과의 동물로 남아메리카의 서부와 남부 산악지대에 분포한다. 몸은 어두운 누런 갈색, 배는 흰색, 머리는 회색 혹은 검은색이며, 목과 다리가 길고 가늘다. 한 마리의 수컷과 4~10마리의 암컷으로 구성되는 무리를 이룬다-역주.

13 남아메리카 대륙에 고유하게 서식하는 들쥐의 일종-역주.

14 토끼와 비슷한 친칠라과 포유류의 일종-역주.

다. 이 점에서는 팜파스에 살며 흔히 땅굴 앞에서 보초 서는 듯한 모습으로 묘사되는 굴파기올빼미Athena cunicularia들도 비슷하다. 반다오리엔탈에는 비스카차가 살지 않기 때문에 이것들도 스스로 굴을 파야 하기 때문이다.

다음 날 아침, 콜로라도 강에 가까워지면서 주변 풍경도 바뀌어 갔다. 머지않아 꽃과 키 큰 클로버, 그리고 굴파기올빼미들 때문에 팜파스와 비슷하게 보이는 잔디로 뒤덮인 평원이 우리 앞에 나타났다. 우리는 상당히 넓은 진흙 늪도 지났는데, 그 늪은 여름이면 말라서 각양각색의 소금 결정으로 뒤덮이곤 해서 '살리트랄Salitral'이라고 불린다. 이 늪은 바닷가에서 자라는 것과 똑같은 종류의 키 작은 다즙식물로 뒤덮여 있다. 우리는 강폭이 약 55미터 되는 지점에서 콜로라도 강을 건넜는데, 평균 폭은 그 두 배는 될 것이 분명하다. 강의 유로는 매우 구불구불하지만 주변에 버드나무와 갈대밭이 있어 알아볼 수 있다. 강어귀까지의 직선거리는 44킬로미터이지만, 물길로는 120킬로미터라고 했다. 카누로 강을 건너는데, 마침 평원 안쪽에 있는 무리를 따라가려고 강을 건너는 엄청난 수의 암말 떼가 지나가기를 기다리느라 시간이 많이 걸렸다. 수천 개의 말 머리가 한 방향으로 늘어서서 귀를 쫑긋 세우고 콧구멍을 넓히고 물 위에 겨우 고개만 내민 채 마치 양서류 떼처럼 지나가는 장면은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우스꽝스러운 장면이었다. 암말 고기는 군사들이 원정을 나가서 먹는 유일한 고기다. 또한, 평원에서 말들은 놀라운 거리를 주파하기 때문에 엄청난 기동성을 제공한다. 짐을 싣지 않고서라면 하루에 160킬로미터 정도씩은 며칠이고 계속 여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로사스 장군의 야영지는 강에서 가까웠다. 이곳은 마차, 포병대, 그리고 짚으로 만든 막사 등이 있는 사각형의 진지방진였다. 군사들은 대부분 기병이었는데, 그토록 악랄하고 도적 떼 같은 군대가 모집된 전례는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남자들 대부분은 흑인, 인디오 그리고 스페인 사람 간의 혼혈이었

다.[15] 이유는 모르겠지만 이런 혈통을 가진 사람들 중에는 인상 좋은 사람이 드물다. 나는 여권을 보여 주기 위해 서기관을 찾았다. 그는 최대한 위엄 있고 어딘가 미심쩍어하는 태도로 내게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다. 다행히 나는 부에노스아이레스 주 정부에서 파타고네스의 사령관에게 보내는 추천서[16]를 갖고 있었다. 추천서를 받아 본 로사스 장군은 아주 공손한 메시지를 보내왔고, 서기관은 미소와 싹싹함이 가득한 태도로 돌아왔다. 우리는 '란초rancho'라고 부르는 오두막에 머물게 되었는데, 그곳은 나폴레옹의 러시아 정벌 참전 군인이었던 호기심 많고 늙은 한 스페인 사람이 살던 곳이었다.

우리는 콜로라도 강가에 이틀간 머물렀다. 주변이 온통 늪인 데다 코르디예라 산맥의 눈이 녹는 여름(12월)에는 강이 범람하기 때문에 나로서는 할 일이 별로 없었다. 우리가 머무는 란초로 잡동사니들을 사러 오는 인디오 가족들을 구경하는 것이 가장 즐거운 일이었다. 로사스 장군은 약 6백 명의 인디오들과 동맹을 맺고 있는 것 같았다. 인디오 남자들은 키가 컸고 혈통이 우수했으나, 추위와 식량 부족, 그리고 문명의 부재 탓에 흉측했다. 이들의 인상과 똑같은 표정을 훗날 티에라델푸에고 섬의 미개인들에게서 발견할 수 있었다. 몇몇 저자들은 인류의 원시 부족들을 정의하면서 이러한 인디오들을 두 부류로 나누었으나, 이는 명백한 오류였다. 젊은 여인들을 치나스chinas라고 부르는데, 그중에는 아름답다고 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다. 머릿결은 거칠었지만 눈부시게 까맸으며 양 갈래로 땋아 허리까지 늘이고 있었다. 그들은 혈색이 좋았고 눈은 찬란하게 반짝이고 있었으며, 다리, 발, 팔은 작고 우아했다. 발목과 허리에는 파란 구슬로 된 넓은 띠를 둘렀다. 무엇보다 관심이 갔던 것은 몇몇 가족이었다. 한 엄마가 한두 명의 딸과 언제나 같은 말을 타고 우리 란초를 방문하곤

15 남아메리카에서는 흑인과 백인의 혼혈을 물라토mulato, 인디오와 백인의 혼혈은 메스티조 mestizo, 흑인과 인디오의 혼혈을 삼보sambo라고 한다–역주.

16 비글호의 자연사학자인 나에게 이 나라의 어느 곳이든 갈 수 있는 통행증을 정중하게 제공해 준 부에노스아이레스 주 정부에 대한 나의 누를 길 없는 감사의 마음을 이 자리를 빌려 전하고자 한다.

했다. 말을 타는 것은 마치 남자 같았지만 바지 무릎은 훨씬 더 높이 걷어 올리고 있었다. 이러한 습관은 아마도 짐 실은 말을 타고 이동하는 데 익숙해지면서 생긴 것 같다. 말에 짐을 싣고 내리는 것, 밤을 보낼 천막을 치는 것은 여자들의 임무다. 간단히 말해 그녀들도 여느 야만족 여인들처럼 일종의 '유용한 노예'인 셈이다. 남자들은 싸우고 사냥하고 말들을 돌보며, 마구를 제작한다. 그들이 실내에서 하는 주된 일은 돌 두 개를 서로 부딪쳐 둥글게 만들어서 볼라를 만드는 것이다. 인디오들은 이 중요한 사냥 도구로 목표물을 잡거나 벌판을 배회하는 자기 말을 잡아들인다. 전투에서 인디오는 첫 번째로 볼라를 던져 상대편의 말을 쓰러뜨리며, 이어 볼라에 휘감겨 쓰러진 상대를 추조로 죽인다. 만일 볼라가 사냥감의 목이나 몸에 감기면 종종 동물들이 그것들을 감은 채로 도망가는 바람에 잃어버리기도 한다. 돌을 둥글게 만드는 데에는 이틀이나 걸리므로 볼라를 만들 돌덩어리를 만드는 것은 아주 일상적인 일감이 된다. 몇몇 남녀들은 얼굴을 붉게 칠하고 있었는데, 티에라델푸에고 섬의 야만족에게서 흔히 보이는 가로 줄무늬는 볼 수 없었다. 그들이 가장 자랑으로 여기는 것은 갖고 있는 것들을 죄다 은으로 만드는 것이다. 박차와 등자鐙子,[17] 칼 손잡이, 그리고 안장까지 은으로 만든 추장을 본 적이 있는데, 철끈으로 된 마구의 굴레 끈과 고삐는 채찍보다도 가늘었다. 그렇게 가벼운 사슬로 내리는 지시에 따라 사나운 군마가 방향을 바꾸어 달리는 것을 보고 있으면 말 탄 사람에게 왠지 모를 우아함이 깃든 것처럼 보였다.

로사스 장군이 나를 만나고 싶다며 넌지시 전갈을 보내왔다. 나중에 생각해보니 나로서는 반가운 상황이었다. 그는 매우 기상천외한 인물로, 이 부근에서 가장 막대한 영향력을 지니고 있다. 그는 그 영향력을 지역의 번영과 발전을 위해 쓰는 것 같았다.[18] 그는 또한 1천7백 제곱킬로미터에 이르는 땅의 주인이며 30만 두의 소 떼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의 소유지는

17 말을 탔을 때 두 발을 디디는 제구. 안장에 달아 말의 양쪽 옆구리로 늘어뜨리게 되어 있다–역주.

18 이러한 추측은 결국 어이없을 정도로 완전히 헛짚은 것이었다.

감탄할 만큼 잘 관리되고 있어서 다른 땅에 비해 밀 수확량이 훨씬 많았다. 그가 처음으로 유명해진 것은 자기 소유의 대농장을 관리하기 위해 자신만의 법령을 만들고 수백 명의 사람들을 훈련시켜 인디오의 침입에 성공적으로 대처하면서였다. 그가 법령을 얼마나 엄격하게 시행하는지 떠도는 이야기들도 많았다. 법령 중에는 누구도 일요일에는 칼을 지니고 있으면 안 되며, 이를 어길 시에는 족쇄를 차는 벌을 받게 된다는 것도 있었다. 도박하고 술 마시는 것이 다반사인 일요일에는 싸움도 여러 건 벌어지곤 했는데, 여느 때처럼 칼을 가지고 결투하는 바람에 사람들이 치명상을 입곤 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던 중 어느 일요일, 총독이 위풍당당하게 대농장을 방문했다. 로사스 장군은 평소와 다름없이 허리에 칼을 찬 채 서둘러 그를 맞이하러 나왔다. 집사가 장군의 팔을 건드리며 법령을 상기시키자, 총독을 향해 돌아선 장군은 대단히 죄송하지만 자신은 족쇄를 차야 하며, 족쇄에서 풀려나기 전까지는 자기 집 안에서조차 어떤 권력도 행사할 수 없다고 말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장군은 집사를 구슬러 족쇄를 풀어주게 했는데, 그러자마자 그는 집사에게 "자, 이제 당신이 법을 어겼으니 나 대신 족쇄를 차야겠네"라고 말했다고 한다. 이러한 행동들은 자신의 평등함과 위엄에 대해 높은 긍지를 지니고 있는 가우초들을 기분 좋게 해 주었다.

로사스 장군은 기마술 또한 완벽하다. 이는 모병 부대가 자기들만의 방법으로 자기들을 지휘할 장군을 직접 뽑는 나라에서는 결코 사소하지 않은 기술이다. 길들이지 않은 한 무리의 말을 축사에 가두어 놓았다가 문 하나를 통해 달려나오게 하는데, 그 문 위에는 가로 막대가 하나 걸려 있다. 이 막대에 매달려 있다가 야생마들이 뛰쳐나올 때 안장이나 굴레도 없이 말에 뛰어올라 탈 뿐만 아니라 축사 문까지 갔다 오는 사람이 그들의 장군이 되는 것이었다. 그렇게 하여 성공하는 사람은 장군으로 선출되었고, 그는 의심할 바 없이 이러한 군대에 딱 맞는 장군이었다. 로사스 장군 역시 이런 유별난 곡예를 해냈다.

이렇듯 완벽한 기마술을 지닌 데다가 가우초들의 옷차림과 관습을 따랐기 때

문에 그는 이 지역에서 끝 간 데 없는 인기를 얻었으며, 결과적으로 전제적인 권력도 얻었다. 어느 영국인 상인이 얘기하기로는 분명, 한 살인자를 체포해서 그 동기를 심문하자 "그가 로사스 장군을 모욕하기에 죽였소"라고 대답했다고 한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나자 그 살인자는 풀려났다. 이는 두말할 것도 없이 장군 일당이 저지른 짓이었으며, 장군 자신이 한 일은 아니었다.

대화를 나눠 보면 그는 정열적이고 지각 있으며 위엄이 가득했다. 그의 위엄은 그 기개가 대단했는데, 나는 그의 정신 나간 듯한 어릿광대(그는 늙은 남작처럼 두 명의 어릿광대를 데리고 있었다) 한 사람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일화를 들었다. "나는 어떤 음악의 한 구절을 무척이나 듣고 싶어서 두세 번이나 장군에게 부탁하러 갔었지요. 그러자 그가 내게 말하길, '나는 바쁘니까 네 일이나 알아서 해라' 했지요. 내가 두 번째로 가자 그는 '한 번만 더 오면 혼을 내겠다' 했는데 세 번째로 갔더니 장군이 웃더라고요. 나는 천막에서 도망 나왔지만 이미 너무 늦었지요. 장군은 군사 두 명을 불러 나를 잡아 말뚝에 붙들어 매게 했죠. 나는 천상의 모든 성자들에게 그가 나를 봐주게 해달라고 빌었는데, 씨도 안 먹힐 소리지. 장군이 웃을 때는 미친 사람이든 멀쩡한 사람이든 봐주는 법이 없으니까요." 그 불쌍하면서도 정신 나간 듯한 남자는 말뚝에 묶였던 기억만으로도 아주 고통스러운 모양이었다. 매우 가혹한 형벌이긴 하다. 땅에 네 개의 말뚝을 박고 사람의 사지를 수평으로 벌려서 몇 시간이고 메달아 놓는데, 이건 분명 가죽을 말리는 모습에서 따왔을 것이다. 그는 미소 한번 짓지 않고 나와의 면담을 마쳤고, 나는 여권이자 정부 초소의 말을 쓸 수 있는 명령서를 얻었다. 그리고 그는 더할 나위 없이 예의 바르게 기꺼이 도우려는 자세로 그것을 내게 건넸다.

아침이 되어 길을 떠난 우리는 이틀 만에 바이아블랑카에 도착했다. 정규 막사를 떠난 우리는 인디오들의 톨도스를 지나쳐 갔다. 톨도스는 화덕처럼 둥글고 가죽으로 덮여 있으며, 각각의 입구 앞 땅에는 끝이 뾰족한 추조가 꽂혀 있다. 톨도스는 서로 다른 추장의 부족에 속하는 별도의 집단으로 나뉘어 있는

데, 그 집단은 다시 주인들 간의 관계에 따라 더 작은 집단으로 나뉘어 있었다. 우리는 콜로라도 강 계곡을 따라 몇 마일 더 나아갔다. 옆으로 펼쳐진 충적토 평원은 기름져서 곡물이 자라기에 딱 알맞아 보였다. 강에서부터 북쪽으로 접어들자 곧바로 강 남쪽의 평원과는 다른 땅이 펼쳐졌다. 땅은 여전히 메마르고 황량했지만 수많은 종류의 식물이 자라고 있었고, 비록 갈색으로 시들긴 했지만 풀도 더 많아지는 한편 가시덤불은 줄어들었다. 얼마 가지 않아 가시덤불은 아예 자취를 감추어, 맨땅을 덮어 줄 덤불이라곤 하나도 없었다. 이러한 식물상의 변화는 거대한 석회 점토질의 퇴적층이 시작된다는 것을 뜻한다. 이 지층이 광대한 팜파스 지역을 이루고, 반다오리엔탈의 화강암 지대를 덮고 있다. 마젤란 해협에서 콜로라도 강에 이르는 약 1천3백 킬로미터에 이르는 거리는 지면이 온통 자갈밭이다. 그 자갈들은 주로 반암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아마도 코르디예라의 바위에서 떨어져 나온 것으로 보인다. 콜로라도 강의 북부에 이르면 이 지층은 얇아지다 사라지며, 자갈들은 매우 작아진다. 그리고 그 지점에서 파타고니아 식물상의 특징 또한 사라진다.

40킬로미터쯤 달리자 거대한 사구沙丘 지대가 나왔다. 사구들은 동서 방향으로 시선이 허락하는 한 멀리 뻗어 있었다. 점토질 위의 낮은 언덕에는 작은 샘이 있어 이 메마른 지역에 무엇보다도 값진 담수원이 되고 있다. 사람들은 땅이 침강하고 융기하면서 생기는 엄청난 이점을 종종 깨닫지 못하곤 한다. 네그로 강과 콜로라도 강 사이의 기나긴 여로에 있는 보잘것없는 샘 두 곳은 이 평원의 높낮이에 약간 차이가 있어 생긴 것인데, 이 샘들이 없었다면 물은 한 방울도 찾을 수 없었을 것이다. 사구 지대는 약 13킬로미터에 걸쳐 펼쳐지는데, 이 지역은 과거에 아마 지금의 콜로라도 강이 흐르는 거대한 하천의 강어귀 언저리였을 것이다. 지반이 최근에 융기했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발견되는 이런 지역에서라면 누구든 자연적인 지형만 봐도 이 정도는 추측할 수 있을 것이다. 넓은 모래 지대를 지난 우리는 저녁 무렵 한 초소 사택에 도착했다. 저 멀리서 기운 넘치는 말들이 풀을 뜯고 있기에 우리는 그곳에서 밤을 보내

기로 했다.
집은 높이가 30~60미터쯤 되는 능선 기슭에 자리 잡고 있었다. 이 능선은 부근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지형이다. 초소는 아프리카 출신의 흑인 대위가 지휘하고 있었는데, 콜로라도 강과 부에노스아이레스 사이에 자신이 다스리는 곳만큼 깔끔하고 질서 정연한 곳은 없다는 것이 그의 자랑거리였다. 이곳에는 방문객들이 머물 작은 방과 말들이 쉴 작은 축사도 있었다. 모두 나뭇가지와 갈대로 지은 것이었다. 그는 공격당할 경우에 대비해 집 둘레에 참호도 파 놓았는데, 실제로 인디오들이 쳐들어온다면 거의 소용없을 것 같았다. 하지만 그는 자기 목숨을 비싸게 여기는 것을 최고의 위안으로 삼는 듯했다. 바로 얼마 전 밤에 한 무리의 인디오들이 지나갔다는데, 만일 그들이 이 초소를 발견하기라도 했다면 우리의 친애하는 흑인 친구와 네 명의 병사들은 분명 참살되었을 것이다. 나는 이 흑인만큼 호의적이고 정중한 사람을 본 적이 없다. 그래서인지 그가 우리와 함께 앉아서 식사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 매우 마음 아팠다.
아침이 되자 우리는 아주 일찌감치 말을 달려 떠났고, 다시금 신나는 질주가 시작되었다. 도중에 카베사델부에이Cabeza del Buey를 지났는데, 그 이름은 바이아블랑카에서부터 뻗어 나온 거대한 습지대의 수원에 붙였던 옛 이름에서 딴 것이다. 우리는 거기서 말을 바꿔 타고 늪지와 염수 습지를 몇 킬로미터 헤치고 지나갔다. 마지막으로 말을 바꿔 탄 뒤, 다시 진흙밭을 힘겹게 헤쳐 나가기 시작했다. 말이 넘어지는 바람에 나는 검은 진창에 푹 빠졌다. 갈아입을 옷이 없을 때는 이것만큼 곤란한 사고가 없다. 요새로부터 수 킬로미터쯤 와서 만난 한 남자가 큰 대포가 발사되었다고 얘기해 주었다. 이는 인디오들이 가까이 있다는 신호라고 했다. 우리는 즉시 도로를 벗어나 습지 가장자리를 따라갔는데, 그렇게 해야 추격당할 때 가장 도망가기 좋다. 성벽 안에 도착해 안도하고 나서야, 우리는 그 모든 경고 포격이 헛소동이었다는 것을 알았다. 아까의 인디오들은 로사스 장군에게 합류하려는 우호적인 이들이었다는 것이 밝

혀졌기 때문이었다.

바이아블랑카는 마을이라고 하기에는 턱없이 모자란 곳이다. 집 몇 채와 부대가 머무는 막사들이 깊은 참호와 요새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다. 거주지가 구축된 지는 얼마 되지 않았으며(1828년 일이다), 이곳의 확장은 곧 고난의 확장이었다. 부에노스아이레스 주 정부는 인디오들로부터 네그로 강가의 오래된 주거지 부근 지역을 사들였던 스페인 총독들의 현명한 판단을 따르는 대신 이곳을 무력으로 점거했다. 따라서 이곳은 요새화될 수밖에 없었고, 요새 방벽이 없는 곳에는 집도 경작지도 거의 없었다. 방벽의 평원 경계선 밖에서는 소 떼조차 인디오의 습격으로부터 안전하지 못했다.

비글호가 정박하려는 항구는 40킬로미터 정도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나는 사령관에게 안내인과 말을 빌려 비글호가 정박했는지 알아보려고 했다. 작은 시내를 따라 푸른 초지가 펼쳐진 평원을 떠난 우리는 곧 모래밭이나 짠물 습지 아니면 헐벗은 진흙땅으로 이루어진 넓고 평탄한 황무지에 들어섰다. 어느 지대에는 낮은 덤불이 깔려 있고, 어떤 곳에는 염분이 많은 곳에서만 번성하는 다육·다즙식물들이 자라고 있었다. 그토록 척박한 환경인데도 타조, 사슴, 아구티, 그리고 아르마딜로[19] 등이 많이 살고 있었다. 안내인은 두 달 전에 죽을 뻔한 고비를 넘겼다고 했다. 그는 다른 사람 둘과 함께 여기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으로 사냥을 나갔다가 갑자기 마주친 한 떼의 인디오들에게 추격당했는데, 곧 따라잡혀서 친구 둘은 죽었다고 했다. 그의 말도 인디오들의 볼라에 다리가 감겼으나 그가 뛰어내려 칼로 볼라를 잘라 냈다. 그러는 동안 그는 말 주위를 돌며 공격을 피해야 했는데, 결국 인디오들의 추조에 두 군데 치명상을 입었다. 다시 안장에 뛰어오른 그는 사력을 다해 가까스로 추적자들의 창끝을 피할 수 있었는데, 그들은 요새에서 내다보이는 곳까지 쫓아왔다고 한

19 포유류 빈치목 아르마딜로과의 총칭. 주로 남아메리카에 분포하며, 개미핥기 및 나무늘보류와 유연관계이다. 열대 지방이나 아열대 지방에 서식하고 있는데 주로 남아메리카에 분포한다. 대부분의 종은 개활지에 살지만 숲에 사는 종도 있다—역주.

다. 그 사건 이후 누구도 거주지에서 멀리 떨어져 돌아다니면 안 된다는 명령이 내려졌다. 나도 출발했을 때는 이런 얘기를 몰랐지만, 안내인이 멀리서 보기에도 겁먹은 듯한 사슴 한 마리를 어찌나 유심히 살펴보는지를 보고는 놀랐다.

비글호가 아직 도착하지 않았기에 우리는 결국 되돌아와야 했다. 하지만 말들이 곧 지쳐 평원에서 야영할 수밖에 없었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껍질째 구우면 아주 훌륭한 요리가 되는 아르마딜로 한 마리를 잡았지만 굶주린 남자 두 명의 아침과 저녁 식사 거리로는 그리 충분하지 않았다. 우리가 밤새 머문 땅은 황산소다층으로 덮여 있어 물이 없었다. 하지만 이러한 환경에서도 작은 설치류들이 여러 종 살아가고 있으며, 지난밤 내내 내 베개 밑에서는 투코투코Tucotuco[20]가 작고 이상한 소리로 그르렁댔다. 말들이 아주 형편없는 것들이었는지, 아침이 되어 마실 것이 없자 이내 기운이 빠져 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걸어야만 했다. 정오 무렵에는 개들이 잡아 온 새끼 양을 구워 먹었다. 조금 먹었는데도 참을 수 없이 목이 말랐다. 얼마 전에 비가 내려 길가 작은 웅덩이에 맑은 물이 고여 있는데도 그걸 한 방울도 먹을 수 없다는 사실에 더더욱 미칠 지경이었다. 20시간 가까이 물 한 모금 못 마신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뙤약볕에 있던 시간은 일부였는데도 갈증으로 인해 매우 쇠약해진 것 같았다. 어떻게 사람이 이런 환경에서 2, 3일간 생존할 수 있을지 상상조차 하기 힘들다. 그러나 안내인은 전혀 고통스러워하지 않았는데, 고작 하루 시달린 것으로 내가 이렇게 힘들어한다는 것에 놀라워했다는 것을 고백해야만 하겠다.

앞에서 땅의 표면이 염류 껍질로 덮여 있다고 여러 차례 말했다. 이러한 현상은 살리나 소금 호수에서 일어나는 것과는 확연히 다르며, 훨씬 더 특이하다. 이처럼 염류 껍질들이 생기는 현상은 남아메리카의 곳곳, 기후가 적당히 건조

20 쥐목 투코투코과Ctenomyidae 투코투코속에 속하는 남아메리카산 설치류로, 이름은 이것들이 내는 소리에서 유래했다. 다윈의 기록에는 '투쿠투코tucutuco'라고 표기했으나 지금은 '투코투코'로 불린다—역주.

한 지역이라면 어디에서든 일어난다. 하지만 바이아블랑카만큼 이런 것들이 많은 곳은 본 적이 없다. 이곳과 파타고니아 일부 지역에서 나는 소금은 대부분 황산소다로 이루어져 있으며 보통 소금이 약간 섞여 있다. 이러한 살리트랄(스페인 사람들은 이 물질을 초석硝石으로 알고 이름을 잘못 불렀다) 지대에 습기가 있는 동안에는, 검은 진흙 위에 다육 · 다즙식물들이 드문드문 자라고 있는 광활한 평원 말고는 보이는 것이 없다. 더운 날씨가 일주일쯤 계속된 뒤에 이런 지역을 거쳐 돌아오게 되면 어느새 수 제곱킬로미터나 되는 평원이 마치 눈이라도 엷게 내린 듯 하얗게 되고 바람 때문에 여기저기 눈 같은 것이 쌓인 모습에 놀란다. 이 언덕 같은 것은 주로 수분이 천천히 증발되면서 염분이 물웅덩이 바닥에서 결정을 이루지 않고 죽은 잔디의 둥그런 풀잎이나 나무 그루터기, 그리고 부서진 흙덩어리 위까지 올라오기 때문에 생긴다. 살리트랄은 해수면에서 단 몇십 센티미터 내지 몇 미터 높은 평탄한 지역이나 혹은 강가에 인접한 충적토에서 나타난다. 파차페Parchappe 씨[21]는 바다로부터 몇 킬로미터 떨어진 평원의 염분 껍질들은 주로 황산소다로 이루어져 있고 일반적인 소금의 비율은 7퍼센트밖에 되지 않는 반면, 바닷가에 가까워질수록 일반 소금의 비율이 37퍼센트에 이르도록 증가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사실은 최근 이 건조한 대지가 서서히 융기하는 동안 표면에 남게 된 토양 속 염화물에서 황산소다가 생겨났을 것이라는 추측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 모든 현상은 자연사학자가 관심을 갖기에 손색이 없다. 다량의 소다를 함유하고 있으며 염분을 좋아한다고 알려진 다육 · 다즙식물들은 염화물을 분해할 수 있는 것인가? 이 유기물이 풍부하고 냄새나는 검은 진흙에서 유황이 나오고, 결국에는 황산까지 만들어 내는 걸까?

이틀 후 나는 말을 타고 다시 항구로 갔다. 전에 함께 갔던 안내인이 동행했는데, 목적지에 거의 다 와서 말을 타고 사냥하는 사람들 셋을 발견했다. 그는 즉시 말에서 내려 그들을 뚫어져라 관찰하더니 "저들은 신교도들처럼 말을 타

21 《남아메리카 항해기Voyage dans L'Amerique Merid》(M. A. 도르비니) 자연사학 부분 1권, 664쪽.

지 않는군요. 우리 중 누구도 요새를 떠나선 안 됩니다"라고 말했다. 그 세 사냥꾼들은 한데 모이더니 마찬가지로 말에서 내렸다. 마침내 한 명이 다시 말에 오르더니 언덕 너머로 말을 달려 사라졌다. 안내인은 "지금 말에 올라야 합니다. 총도 장전하시죠"라고 하더니 자신의 칼을 살폈다. 내가 "저 사람들이 인디오인가?" 하고 물었으나 안내원은 "누가 압니까. 만일 저 세 명이 전부라면 별문제 아닙니다"라고 할 뿐이었다. 나는 아까 그 한 명이 나머지 종족들을 불러오기 위해 언덕을 넘어간 게 아니었을까 싶어 정신이 번쩍 들었다. 그래서 얘기를 해 보았지만 내가 들을 수 있는 대답은 "누가 압니까"뿐이었다. 그는 한시도 쉬지 않고 머리와 눈을 돌려 먼 지평선을 찬찬히 훑어보았다. 나는 여느 때와는 다른 그의 침착함이 농담이 아닌 것 같아 왜 집으로 돌아가지 않냐고 물었다가, 그의 대답을 듣고는 깜짝 놀랐다. "돌아갑니다. 그렇지만 여차하면 늪지 속으로 최대한 빨리 말을 달릴 수 있도록 늪 가까이 지나갈 것입니다. 그러고 나면 우리의 두 다리를 믿어야죠. 그래야 위험하지 않아요." 이 점에 대해 나는 그다지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속도를 좀 더 높이려고 했지만 그는 "그들이 속도를 높이기 전에는 안 됩니다"라고 했다. 우리는 울퉁불퉁한 땅 위에서는 말을 달리다가 눈에 띌 것 같으면 내려서 걷는 것을 계속했다. 마침내 계곡에 도착한 우리는 왼쪽으로 방향을 틀어 언덕 아래로 질주했다. 그는 내게 그의 말고삐를 잡게 하고 개들을 엎드리게 한 후 손발로 기어서 주변을 정찰했다. 그는 잠시 그 자세로 멈춰 있다가 별안간 웃음을 터뜨리며 외쳤다. "무헤레스!(여자들이군!)" 그는 그들이 타조 알을 채집하려고 나온 소령 아들의 부인과 처제들이라는 것을 알아보았다. 그로서는 정말 그들이 인디오인 줄 알고 취한 행동이었기 때문에 그의 행동을 옮겨 적어 보았다. 민망한 실수였음이 드러나자 그는 곧 그들이 인디오가 아닐 수도 있었던 근거들을 구구절절 말했다. 물론 난 듣자마자 죄다 잊어버렸지만 말이다. 우리는 다시금 평화롭고 조용하게 푼타알타라고 불리는 낮은 지대로 말을 몰았다. 그곳에선 바이아블랑카 대항만의 전경을 볼 수 있었다.

드넓은 수면은 셀 수 없이 많고 거대한 진흙 둑으로 메워져 있는데, 그 진흙 둑에 사는 수많은 작은 게들 때문에 주변 사람들은 이곳을 '캉그레할레스Cangrejales', 즉 '게밭'이라고 부른다. 진흙이 너무 부드러워 그 위에서는 한 걸음도 걸을 수가 없다. 둑의 표면에는 긴 골풀이 무성하고 밀물 때는 물 위로 그 끄트머리만 보인다. 한번은 보트를 타고 있다가 이 얕은 여울에서 오도 가도 못한 채 길을 잃은 적도 있었다. 평평한 진흙밭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날씨는 우중충하고 빛의 굴절이 심했다. 즉 선원들이 흔히 말하듯 "모든 것이 몹시 몽롱하게 다가왔다". 울렁거리는 시야에 유일하게 보이는 것이라곤 수평선이었다. 골풀은 마치 공중에 떠 있는 덤불 같았고, 어디가 물이고 어디가 진흙 둑인지 분간할 수가 없었다.

그날 밤은 푼타알타에서 보냈다. 이 지역은 멸종된 괴상한 동물들의 납골당이라 할 만한 곳이었기 때문에 나는 화석 뼈들을 찾는 데 열중했다. 그날 저녁은 더할 나위 없이 고요하고 맑았다. 진흙 둑과 갈매기, 모래 언덕과 고독한 독수리들뿐인 이 광경 한가운데서 극심한 단조로움이 도리어 흥미를 불러일으켰다. 말을 타고 돌아오던 아침에 우리는 지나간 지 얼마 되지 않은 퓨마의 흔적을 발견했지만 찾아내지는 못했다. 이 근방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냄새가 지독한 동물인 조리요Zorillo, 즉 스컹크 몇 마리도 보았다. 조리요의 생김새는 긴털족제비와 비슷하지만, 그보다 훨씬 크고 뚱뚱하다. 자기의 위력을 아는지, 그 동물은 사람이든 개든 겁내지 않고 평원을 활보한다. 개가 공격이라도 할라치면 즉각 악취가 나는 기름 몇 방울로 응수한다. 이 기름 냄새를 맡으면 구토가 나고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콧물이 흐른다. 뭐든 일단 이 기름이 묻으면 못 쓰게 되고 만다. 아사라의 얘기에 의하면 이 냄새는 5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도 맡을 수 있다고 한다. 몬테비데오 항구에서 비글호에 타고 있을 때도 가끔 앞바다를 향해 부는 바람에 그 냄새가 실려 오곤 했다. 어떤 동물도 조리요의 앞길을 막을 수는 없을 것이 분명하다!

● 말도나도를 떠난 비글호는 같은 해 8월 3일 네그로 강어귀에 도착했다. 엘 카르멘 혹은 파타고네스라고 부르는 그곳은 바로 파타고니아 평원이 시작되는 지점으로, 부근은 척박한 벌판이었다. 다윈 일행을 처음으로 맞아준 것은 이방인에게 거만하게 경고를 던지는 듯한 거친 가시투성이 덤불뿐이었다.

엘 카르멘, 즉 파타고네스에는 아직 순수 혈통의 인디오들이 많이 살고 있다. 예전에는 대농장을 습격하던 악명 높은 존재였지만 다윈이 도착했을 때는 식민 정부에서 식량을 지원받으며 수공예품을 만들어 파는 등 서유럽 문명에 무기력하게 동화되어 가고 있었다. 다윈은 '야성'을 억제한 대신 그만큼 난잡한 생활에 빠져 있는 인디오들의 모습을 빠짐없이 관찰한다.

그 지역에서는 주민들이 '살리나'라고 부르는 '소금 호수'들을 많이 볼 수 있었는데, 거기서 나오는 소금은 지역의 주요 수입원이었다. 다윈에게는 그 지역의 지질학적 특성과 주변 사회의 삶의 모습도 관찰과 경험의 대상이 되었지만, 무엇보다 그에게 강렬하게 다가왔던 것은, 소금 호수 같은 척박한 환경에서도 살아가는 생물체가 있어, 그것들이 독자적인 작은 생태계를 이루고 있다는 점이었다.

엘 카르멘과 부에노스아이레스 사이에 있는 유일한 정착촌은 바이아블랑카였다. 비글호의 다음 여정은 바닷길로 바이아블랑카를 방문하는 것이었는데, 다윈은 육로를 이용해 그곳까지 가기로 결심한다. 척박한 땅을 지나야 했지만, 그 여정은 파타고니아의 자연환경을 눈앞에서 관찰할 수 있는 기회였다. 게다가 처음으로 가우초들과 함께 야외에서 밤을 보내는 것은 '영원히 잊지 못할' 경험이었다. 일행은 도중에 로사스 장군의 야영지에서 이틀을 묵었다.

바이아블랑카는 사람이 살 만한 곳이라기보다는 요새로서의 역할에 더 충실한 곳이었다. "성벽 밖에서는 소 떼들조차 안전하지 못한" 곳이라고 할 정도로 인디오들의 습격에서 자유롭지 못한 지역이었지만, 다윈은 안내인 하나만 대동한 채 비글호가 도착했는지 알아보기 위해 1박 2일간의 답사를 다녀온다. 아르마딜로를 잡아먹고, 투코투코가 그르렁대는 소리에 잠을 설치고, 땅에는 염

분이 가득해 물도 제대로 못 마시고……. 그런 힘든 여정에서도 다윈은 지표면에 염류 껍질이 나타나는 현상을 보고 관심의 끈을 늦추지 않았다. 염류 껍질이 가득한 습지의 검은 진흙 위에 선인장 같은 다즙식물이 자라는 이 지역은 '살리트랄'이라고 부르는데, 해수면에서 단 몇십 센티미터 높은 평탄한 지역이나 강가 충적토에서 나타난다. 다윈은 바다로부터 멀리 떨어진 평원의 염분 껍질들이 주로 황산소다로 이루어져 있고 일반 소금의 비율은 7퍼센트밖에 되지 않는 반면, 바닷가에 가까워질수록 일반 소금의 비율이 37퍼센트까지 증가한다는 파차페 씨의 의견을 제시한다. 그러면서 최근 이 건조한 대지가 서서히 융기하는 동안 표면에 남은 토양 속 염화물에서 황산소다가 생겨났을 것이라는 추측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기록하고 있다. 다윈의 말마따나 그야말로 자연사학자가 관심을 가지기에 손색없는 사실이 아니었을까?

다윈의 기록에는 인디오들을 경계하는 모습이 몇 번 보인다. 바이아블랑카에 들어설 무렵에는 포격 소리에 인디오가 나타난 줄 알고 놀랐으며, 안내인이나 주민들은 심심찮게 경계의 모습을 보인다. 비글호의 도착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두 번째로 항구에 갈 때도 안내인이 경계 태세에 들어가는 우여곡절을 한 차례 겪은 끝에 푼타알타라고 불리는 저지대로 들어설 수 있었다.

작은 게들이 살고 있는 진흙 둑, 어디가 물이고 어디가 땅인지 모를 푼타알타에서 다윈은 하룻밤을 보낸다. 지금은 찾을 수 없는 멸종된 거대 동물의 화석을 찾는 것 외에는 더없이 고요한 단조로움이 도리어 흥미로울 정도로 이국적인 곳이었다.



바이아블랑카



제5장
바이아블랑카

바이아블랑카–지질 분석–수많은 거대한 네발짐승들–최근 지질 시대에 있었던 멸종–종의 수명–커다란 동물이라고 울창한 숲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남아프리카–시베리아의 화석–두 종의 타조–오븐 새의 습성–아르마딜로–독사, 두꺼비, 도마뱀–동물의 겨울잠–바다조름의 성질–인디오와의 전쟁 및 대학살–골동 화살촉

8월 24일 | 이곳 바이아블랑카에 도착한 비글호는 그로부터 일주일 후 라플라타로 출발했다. 나는 부에노스아이레스까지 육로로 이동하려고 피츠로이 함장의 허락을 얻어 이곳에 남았다. 비글호가 항구를 둘러보는 동안, 이번에는 이전의 방문 기간 동안 관찰했던 것과 더불어 몇 가지를 더 기록하려고 한다.

해안에서 몇 킬로미터 거리를 두고 펼쳐져 있는 평원은 거대한 팜파스의 일부이다. 이 평원의 일부는 붉은 진흙으로, 또 다른 일부는 심하게 석회화된 이회암으로 이루어져 있다. 해안에 보다 가까운 쪽은 고지대 쪽 평원에서 떨어져 나온 물질들, 육지가 서서히 융기할 때 바다로부터 쓸려와 퇴적된 진흙, 자갈, 모래로 이루어져 있다. 지금 살고 있는 조개의 껍데기가 들어 있는 채 융기된 지층과 주변에 온통 널려 있는 둥글둥글한 부석浮石 자갈이 이 융기 현상의 증거이다. 푼타알타에서는 이렇게 후기에 형성된 작은 평원들의 단면을 볼 수 있는데, 그 속에는 기이한 특성을 지닌 거대한 네발 동물 화석이 다수 묻혀 있어 몹시 흥미롭다. 이에 관해서는 오언 교수가 저술한 《비글호 항해 동물지The Zoology of the Voyage of the Beagle》에 자세히 적혀 있으며, 화석들은 외과 대학에 기탁되어 있다. 여기서는 그 동물들의 특징에 대해 아주 간단한 사항만 언급하도록 하겠다.

첫 번째로, 메가테리움Megatherium은 세 개의 두개골 일부분과 다른 뼈들로부

터 그 이름이 의미하듯 거대한 몸의 크기를 짐작할 수 있다. 두 번째로, 메가테리움과 같은 계통의 거대 동물인 메갈로닉스Megalonyx가 있다. 세 번째는 역시 거대 동물인 스켈리도테리움Scelidotherium인데, 이 동물의 뼈대 견본은 거의 완벽하게 찾아냈다.[1] 그것의 크기는 코뿔소 정도였던 것이 분명하다. 오언 교수의 말에 의하면, 이것의 두개골 구조는 케이프개미핥기Cape Anteater와 비슷하지만 몇몇 다른 점을 봐서는 아르마딜로에 가깝다고 한다. 네 번째 종인 다윈밀로돈Mylodon darwini은 앞의 것들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지만 크기는 약간 작은 속에 해당한다. 다섯 번째로 거대한 빈치류貧齒類[2]의 일종인 네발 동물이 1종 있다. 여섯 번째는 아르마딜로처럼 따로따로 나뉘는 갑골 외피를 가진 거대한 동물이다. 일곱 번째는 지금은 멸종된 말 1종인데, 이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얘기할 것이다. 여덟 번째는 낙타처럼 목이 긴 거대한 맹수—아마도 마크라우케니아Macrauchenia로 보이는—인 후피동물[3]의 이빨인데, 이에 대해서도 나중에 다시 얘기하겠다. 마지막으로 톡소돈Toxodon[4]은 지금까지 발견된 것 중 가장 기묘한 동물 중 하나일 것이다. 크기로 치면 코끼리나 메가테리움과 맞먹지만, 오언 교수의 말대로라면 이빨 구조는 두말할 것 없이 설치류, 즉 현세에서는 가장 작은 포유류의 대부분을 거느린 쥐목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이 동물은 후피동물과도 같은 부류에 속한다. 눈, 귀, 콧구멍의 위치로 보면 이는 분명 듀공Dugong이나 매너티Manatee[5] 같은 수중 동물

1 이 세 가지 거대 동물은 각각 신생대에 활동하다가 멸종한 자이언트 땅늘보의 한 속이며, 그중 메가테리움은 '거대한 갈고리 발톱', 스켈리도테리움은 '뒷다리를 쓰는 짐승'이라는 의미이다-역주.

2 척추동물아문 포유강의 한 목. 이빨이 빈약하여 빈치류라고 한다. 발가락이 나뭇가지에 매달리기 알맞게 발달했다. 개미핥기과, 나무늘보과, 아르마딜로과 등이 여기 속한다-역주.

3 후피厚皮란 가죽이 두껍다는 뜻이며, 돼지, 말, 코끼리, 코뿔소, 하마 등이 대표적이다. 발굽이 있으며 새김질하지 않는 포유류로서 가죽이 두꺼운 동물을 통틀어 일컫는다-역주.

4 선신세鮮新世(홍적세 이전의 시기로 약 250만 년 전에 끝남) 후기 및 홍적세 동안 남아프리카에 살았던 포유류의 멸종한 속屬-역주.

5 일명 '바다소海牛'라고 불리는 바다소목 동물로 현생하는 것은 크게 듀공과와 매너티과로 나뉜다-역주.

과도 닮아 있다. 지금은 명확히 다른 목(쥐목과 바다소목)으로 갈라져 있는 특성들이 이 톡소돈에서는 신체 구조상 각각 서로 다른 위치에서 어찌나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는지 놀라울 따름이다.

위에 열거한 거대한 포유류 9종의 화석과 더불어 제자리를 찾지 못한 수많은 뼈들이 모두 167제곱미터 정도 넓이의 해변 지층에서 발견되었다. 이처럼 여러 종류의 화석이 한꺼번에 발견된다는 것은 눈여겨볼 만한 일이며, 이 땅에 여러 종류의 고생물들이 있었음을을 증명한다. 푼타알타에서 약 48킬로미터 정도 떨어져 있는 적토 절벽에서 몇 개의 뼈를 주웠는데, 그중 몇 개는 꽤 컸다. 게다가 카피바라capybara[6]의 이빨과 크기나 모양이 거의 같은 설치류의 이빨도 있었다. 이미 알려진 카피바라의 습성을 고려해 볼 때, 이 이빨의 주인 역시 수중 동물이었을지 모른다. 이외에 투코투코속[7]의 두개골 조각도 있었는데, 이 종족은 투코투코와는 다른 종이지만 외양만은 상당히 닮았다. 에렌베르크 교수에 의하면, 팜파스의 적토 지대처럼 이런 화석들이 묻힌 곳은 담수와 해수의 적충류 극미동물 비율이 8 : 1인 곳, 즉 아마도 강어귀의 충적지였을 것이라고 한다.

푼타알타 지역의 화석들은 지금의 바다가 얕은 곳으로 밀어 올리기라도 한 듯 층을 이루는 역암층과 붉은 진흙층에서 발견된다. 이 화석들은 23종의 조개 화석과 같이 발견되는데, 그중 13종은 현생종이고, 4종은 현생종에 매우 가깝다.[8] 무릎 뼈를 비롯한 스켈리도테리움의 뼈들이 원래 몸의 모양대로 제 위치에 묻혀 있었던 점이나, 거대한 아르마딜로 같은 동물의 갑골이 다리뼈 한 짝

6 쥐목 카피바라과에 속하는 포유류. 현존하는 설치류 중 가장 크고, 꼬리는 없으며 앞다리가 뒷다리보다 짧다. 물갈퀴가 있어서 능숙하게 헤엄칠 수 있다–역주.

7 설치목 투코투코과의 유일한 속. 여러 종의 투코투코가 여기에 포함된다–역주.

8 내가 이 글을 쓴 후 알시드 도르비니 씨가 이 조개껍데기들을 조사하여 모두 현생종이라고 발표했다–원주.
장순근 박사의 1993년판 완역본에는 나머지 6종은 “채집된 조개가 적어서, 현재 멸종이 되었는지 아니면 살고 있는데 모르는지 불분명”하다고 되어 있다–역주.

과 함께 아주 잘 보존되어 있었다는 점에서, 이 화석들은 조개껍데기들과 자갈 속에 묻힐 당시 죽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인대로 잘 연결되어 있었던 것이 분명하다.[9] 이러한 점은 우리가 위에 열거한 거대한 포유류들이 유럽에서 가장 오래된 (신생대) 제3기의 포유류들보다도 현세의 동물들과 많이 다르며, 당시 바다에는 현세의 수중 생물 대부분이 살고 있었다는 충분한 근거가 된다. 이로부터 라이엘이 그토록 강력히 제기해 온 "포유류의 수명은 일반적으로 껍데기가 있는 생물Testacea(유각목)보다 짧다"는 주장에 대해 확실한 근거를 얻을 수 있다.[10]

메가테리움, 메갈로닉스, 스켈리도테리움, 밀로돈 등 메가테로이드[11] 계통에 속하는 동물들의 거대한 뼈대는 정말 경이롭다. 이런 동물들의 생활 습성에 대한 궁금함은 오언 교수[12]가 그 비상한 재능으로 해결하기 전까지는 자연사학자들에게 있어 전적으로 수수께끼였다. 이빨의 구조가 단순한 것으로 보아 이 메가테로이드 계통의 동물들은 나뭇잎이나 작은 나뭇가지 따위를 먹고 사는 초식 동물들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들의 육중한 몸집과 커다랗고 크게 휜 발톱은 이동하기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몇몇 저명한 자연사학자들은 실제로 이 동물들이 자신들과 비슷한 계통에 속하는 나무늘보처럼 나무에 거꾸로 매달려 살면서 나뭇잎을 먹고 살았다고 믿어 왔다. 코끼리만한 크기의 동물을 지탱할 만큼 굵은 가지를 지닌 태고의 나무를 상상한다는 것은 터무니없을 뿐만 아니라 용감무쌍한 견해이다. 오언 교수는 이 동물들이 나무를 타고 오른

9 브라바드 씨는 스페인어로 된 저작 《지질학 관찰기Observaciones Geologicas》(1857)에서 이 지역에 대해 기술했다. 그는 멸종된 포유류의 뼈들이 아래쪽의 팜파스 퇴적토 위로 떠밀려 올라와서, 결과적으로 현존하는 조개껍데기와 같은 층에 묻혔을 것이라고 하지만, 나는 그의 의견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는다. 브라바드 씨는 거대한 팜파스 퇴적층 전체가 마치 사구砂丘처럼 지표면의 퇴적물이라고 믿지만, 지지하기 힘든 학설이다.

10 《지질학 원리Principles of Geology》 4권, 40쪽.

11 자이언트 땅늘보과 동물을 총칭하는 말—역주.

12 이 이론은 《비글호 항해 동물지》에서 처음으로 제기되었으며, 후에 오언 교수도 밀로돈 로부스투스Mylodon robustus에 관한 논문에서 설명했다.

것이 아니라 나뭇가지들을 아래로 끌어당겨 작은 나무들을 뿌리째 뽑아 그 나뭇잎을 먹고 살았을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믿는다. 직접 보지 않고서는 상상하기도 힘들지만, 이렇게 상상해 보면 그들의 몸 뒤쪽에서 4분의 1 정도 차지하는 부분의 어마어마한 크기와 육중함은 방해물이라기보다는 도리어 분명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왜 그 겉모습이 어딘가 균형이 맞지 않고 어색한지 이해가 간다. 거대한 꼬리와 큼직한 뒤꿈치를 마치 삼각대처럼 땅 위에 버티고 일어서면 그들은 강력한 앞발과 거대한 발톱을 자유자재로 쓸 수 있었다. 혹시라도 그런 힘을 견뎌 낼 수 있는 나무가 있었다면, 정말 튼튼하게 뿌리내려야 했을 것이다! 더구나 자연이 부여한 아름다운 하사품인 긴 목을 이용해 나뭇잎을 먹을 수 있는 기린처럼, 밀로돈에게는 쭉 내밀 수 있는 긴 혀가 있었다. 브루스에 의하면 아비시니아의 코끼리는 코가 나뭇가지에 닿을 수 없으면 엄니로 나무 밑동을 깊게 그어서 그 나무가 쓰러질 지경이 되도록 아래위, 사방으로 긁어낸다고 한다.

앞서 말한 화석들이 발견된 지층은 만조선滿潮線[13]으로부터 겨우 4.5~6미터 정도 위에 있다. 따라서 그 거대한 네발 동물들이 이곳 평원을 거닐던 이후로 육지는 약간 융기했다(증거는 없지만, 그사이 육지가 침강한 시기가 없었다면 말이다). 그리고 당시 주변 지역의 외형적인 모습은 지금의 것과 거의 똑같을 것이다. 따라서 당시의 식물상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하는 의문이 자연스럽게 떠오른다. 지금처럼 형편없이 척박할까? 처음에는 화석들과 같이 묻혀 있는 조개 화석들이 지금 이곳에 살고 있는 것과 똑같다는 점 때문에, 고대의 식물상도 아마 지금과 비슷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런 유추는 잘못된 생각이었다. 그 조개 중 몇 가지는 숲이 울창한 브라질의 해안에서도 서식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해양 생물의 특징들은 육상 생물들의 특징을 판단하는 기준으로는 거의 쓸모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사항들을 고려할 때, 여러 종류의 거대한 네발 동물들이 바이아블랑카의 평원에서 살았다는 것만

13 만조 때 해수면과 육지의 경계선-역주.

으로 이 지역이 예전에 풍성한 초목으로 가득했다고 확실히 말할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여기서 약간 더 남쪽인 네그로 강 부근의 척박한 가시나무투성이 지역에도 커다란 포유류들이 많이 살았으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덩치가 큰 동물들에게는 울창한 초목이 필요하다는 것은 여러 연구를 거쳐 이어져 오던 일반적인 가설이었다. 그러나 나는 그 가설이 전적으로 틀렸으며, 그것이 지구의 고대사에서 몇 가지 지대한 관심사에 대한 지질학자들의 추론을 헛되이 만들었다고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얘기할 수 있다. 이러한 편견은 아마도 우리 머릿속에 코끼리 떼와 성스러운 숲, 뚫고 지나갈 수 없는 정글을 연상시키는 인도와 그 주변 섬들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남부 아프리카 여행기들을 보면 우리는 거의 모든 지면에서 사막 지역의 특성 아니면 그곳에 사는 거대한 동물들이 얼마나 되는지에 관한 얘기를 찾을 수 있다. 내륙 지방 여행기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비글호가 케이프타운에 있을 때 내륙 지방으로 며칠간 탐사를 간 적이 있었는데, 그것만으로도 내가 읽은 내용에 대해 좀 더 확신을 가질 수 있었다.

최근 탐험대를 이끌고 남회귀선을 통과하는 데 성공한 앤드류 스미스 박사는 남부 아프리카가 온통 척박한 땅이라는 것에 추호도 의심이 없다고 내게 알려왔다. 남부 및 남동부 해안에는 어쩌다 조금 있는 울창한 숲을 제외하면, 며칠 동안 가도 가도 볼 수 있는 것이라고는 식물이라고는 거의 없거나 듬성듬성하고 광활한 평원뿐이라고 했다. 상대적인 비옥함에 대해 정확한 개념을 제시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어느 한 시점에서 영국 전체 초목의 양이 같은 넓이에 해당하는 남아프리카 내륙 지방에 있는 초목 양[14]의 열 배는 된다고 해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소가 끄는 짐수레가 해안 가까운 곳을 빼고는 어느 방향으로 달리든 숲 때문에 막혀서 30분 이상 늦은 적이 없다는 사실은 삼림이 적다는 사실을 더 명확하게 보여 준다. 이 드넓은 평원에 서식하고 있는 동물들을

14 이는 일정 기간 동안 계속해서 자라나고 써서 없어지는 전체 삼림의 양을 포함한 것을 이른다.

살펴보면, 그것들이 덩치도 큰 데다 그 수도 매우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코끼리, 코뿔소 세 종류—스미스 박사에 의하면, 두 종류가 더 있다—, 하마, 기린, 다 큰 수소만큼 큰 아프리카물소, 그보다 좀 더 작은 엘란드영양, 얼룩말 두 종류, 콰가얼룩말, 영양과에 속하는 누gnu 두 종류, 그리고 누보다는 큰 영양 몇 종류 등을 이곳에서 찾을 수 있다. 비록 종은 이렇듯 다양하지만, 각 종의 개체 수는 적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스미스 박사 덕에 실상은 이와 상당히 다르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 그는 위도 24도 지역에서 수레로 하루 동안 양쪽으로 그리 넓게 움직이지 않고도 100~150마리에 이르는 3종의 코뿔소를 봤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그는 같은 날 거의 1백 마리에 이르는 기린 떼를 보았으며, 코끼리는 한 마리도 보지 못했지만 그 지역에 서식하고 있다고 했다. 그의 일행은 전날 야영했던 곳에서 한 시간 남짓 떨어진 곳에서 하마 무리를 보았으며 그중 여덟 마리를 잡았다. 강에는 악어 역시 많았다. 이렇게 여러 종의 커다란 동물들이 함께 모여 있는 것은 매우 예외적인 경우가 분명하지만, 그것들의 수가 많았다는 것은 확실하게 입증된다. 스미스 박사는 "풀과 높이가 1.2미터 정도 되는 덤불이 드문드문 땅을 덮고 있었으며, 아주 드물게는 미모사도 있었다"라고 그날 지나간 지역에 대해 묘사하고 있다. 수레가 곧장 달리지 못할 까닭이 없었다.

이렇게 거대한 동물들 외에, 희망봉 부근의 자연사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라도 철새 떼에 종종 비유되는 영양 무리에 대해 읽어 본 적은 있을 것이다. 이 지역에 서식하는 사자, 표범, 하이에나, 그리고 수많은 맹금류의 실제 숫자는 보다 작은 네발 동물들이 아주 많다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 준다. 어느 날 저녁, 스미스 박사의 캠프 주변에서 먹이를 찾아 돌아다니는 사자 일곱 마리가 발견되었다. 이에 대해 이 유능한 자연사학자는 남아프리카에서는 매일 죽어 가는 동물의 수도 엄청나다는 것을 빼놓지 않고 언급했다. 솔직히 말하자면, 그렇게 먹이가 적은 땅에서 그만큼 많은 동물들이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내게는 정말 놀랍다. 덩치 큰 네발 동물들은 그 적은 먹이를 찾아 넓

은 지역을 배회할 것이 분명하고, 그들의 주된 먹이는 분량은 적지만 영양분이 충분한 덤불이다. 스미스 박사는 내게 그 식물들이 매우 빨리 자란다는 것도 알려 주었다. 동물들이 덤불을 어느 정도 먹어 치우면, 그 빈자리가 곧 새로 난 덤불로 채워지는 것이다. 의심할 것도 없이, 거대한 네발 동물들에게 필요하리라 여겼던 먹이의 양이 지나치게 과장되었던 것이다. 결코 덩치가 작다고 할 수 없는 낙타가 예로부터 사막의 상징으로 여겨졌던 것을 진작 떠올렸더라면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거대한 네발 동물이 있는 곳에서는 초목도 울창해야 한다는 생각은 그 명제의 역이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더욱 두드러진다. 버첼 씨는 브라질에 갔을 때 무엇보다도 남아메리카의 삼림이 남아프리카에 비해 두드러지게 울창한데도 네발 동물이 없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고 내게 말해 주었다. 그의 여행기에서[15] 그는 각 지역에서 가장 거대한 초식 동물을 동일한 개체 수만큼 놓고 각각의 무게를 (충분한 데이터를 가지고) 비교한다면 무척 흥미로울 것이라고 했다. 한쪽 편에는 코끼리,[16] 하마, 기린, 아프리카물소, 엘란드영양 3종, 그리고 5종쯤 되는 코뿔소가 있다. 다른 한편, 즉 남아메리카 쪽에는 맥貘, Tapir 2종, 과나코, 사슴 3종, 야생 야마의 일종인 비쿠냐Vicuna, 페카리Peccari,[17] 카피바라(이다

15 《남아프리카 내륙 여행기Travels in the Interior of South Africa》 2권, 207쪽.

16 엑서터 거래소에서 도살된 코끼리의 무게는 약 5.5톤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일부만 무게를 달았음에도 불구하고). 서커스에서 재주 부리는 암코끼리는 그보다 1톤 적다고 한다. 그래서 다 자란 코끼리 다섯 마리의 평균 몸무게는 5톤 정도라고 할 수 있다. 서리 동물원Surry Gardens에서 토막을 내 영국으로 보낸 하마의 무게가 약 3.5톤이라고 했으니, 일단 3톤이라 치자. 이러한 전제들로부터 다섯 마리의 코뿔소 각각의 무게는 약 3.5톤, 기린은 1톤, 그리고 엘란드 영양과 더불어 아프리카들소는 약 0.5톤이라고 할 수 있다(커다란 황소의 무게는 550~680킬로그램 정도 나간다). 따라서 남아프리카에 사는 거대한 초식 동물 열 마리의 각각의 무게는 평균 2.7톤이라고 할 수 있다. 남아메리카의 경우를 보면, 맥 두 마리에 550킬로그램, 과나코와 비쿠냐가 250킬로그램, 사슴 세 마리가 230킬로그램, 그리고 카피바라, 페카리, 원숭이가 136킬로그램이며, 평균 몸무게는 약 113킬로그램이라는 주목할 만한 결과가 나온다. 즉, 두 대륙의 대표적인 거대 동물 열 마리의 몸무게 비율은 약 2700 : 113, 즉 약 24 : 1이 된다.

17 멧돼지와 유사한 아메리카 대륙의 동물-역주.

음부터는 수를 채우려면 원숭이들을 끼워 넣어야 한다) 등이 있다. 그리고 이 두 그룹을 나란히 세워 놓는다고 치자. 크기 면에서 이렇게 균형이 맞지 않게 배열하는 것은 상상하기도 쉽지 않을 것이다. 앞서 얘기했던 가능성과는 반대로, 위의 사실로부터 우리는 포유동물의 몸 크기와 그 서식지에 자라는 초목의 양 사이에 밀접한 상관관계가 전혀 없다고 결론 내리지 않을 수 없다.[18]

거대한 네발 동물의 수로 치자면 지구 상에서는 남아프리카에 필적할 곳이 없다. 지금까지의 여러 가지 설명들에 따르면, 그 지역이 극단적인 사막 기후의 특성을 보인다는 것에는 논쟁의 여지가 없다. 유럽식의 지구 분할법에 따르면, 희망봉 지역에 현존하는 포유류들과 유사한 종들이 존재할 수 있는 생활 조건들을 알아내려면 제3기를 되돌아봐야 한다. 수 세기에 걸쳐 축적된 화석들이 특정 지역에서 발견되는 제3기에는 거대한 동물들이 엄청나게 많았으리라고 여기기 쉬운데, 그렇다고 거대한 네발 동물들이 지금 남아프리카 지역에 있는 것보다 더 많이 살았으리라고는 장담할 수 없다. 당시의 식물상에 대해 고찰하려면 결국은 현존하는 상태로부터 유추하여 설명하는 길밖에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초목이 울창했을 것이라고 역설할 필요는 없다. 지금의 희망봉에서는 전혀 다른 경우를 볼 수 있으니 말이다.

우리는 지면 아래로 수십 센티미터에서 수 미터까지는 언제나 얼어 있는 한계 지역에서 위도상으로 한참 더 올라간 북아메리카 북단 지역이 굵고 큰 나무들의 숲으로 덮여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19] 마찬가지로 평균 기온이 영하이며 땅은 동물의 사체가 묻혀도 완벽하게 보존될 정도로 꽁꽁 얼어 있는 위도 64도

18 현존한다고 알려졌으나 종이 하나도 없는 그린랜드 고래의 골격을 화석 상태로 발견하지 않았다면, 과연 어떤 자연사학자가 감히 사체만 가지고 그토록 거대한 존재가 북극 얼음 바다에 사는 극히 작은 갑각류와 연체동물을 먹고 살 가능성을 추측해서 발표할 수 있었겠는가?

19 리처드슨 박사가 백 함장의 탐사에 관해 저술한 《동물학 관찰기Zoological Remarks》를 참조하라. 그는 "위도 56도 이상 북쪽 지역의 하층토는 영구적인 동토凍土이며, 해안가의 해빙도 3피트 이상 퍼져나가지 못한다. 위도 64도에 위치한 베어 호湖에서는 20인치도 되지 않는다. 해안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지표에도 숲이 무성한 것으로 보아, 얼어붙은 하부 지층 자체가 식생을 파괴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했다.

의 시베리아 지역에서도 자작나무, 전나무, 포플러, 낙엽송 등이 자란다.[20] 이러한 사실들과 더불어, 우리는—초목의 '양'만을 고려하는 한— 북유럽과 아시아 대부분 지역에서 제3기 후기의 거대한 네발 동물들은 지금 그 화석들이 발견되는 지점에서만 살았을 수 있다는 것도 인정해야 한다. 여기서 나는 그 동물들이 먹고 사는 데 필요했던 초목의 종류에 대해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자연환경이 변했다는 증거들이 있고, 동물들이 멸종하듯 식물의 종류도 마찬가지로 변했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얘기들은 얼음 속에 보존된 시베리아 동물들의 경우에도 직접적으로 해당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토록 거대한 동물들이 먹고 살려면 열대 우림 같은 무성한 식물상이 필수적이라는 것과 그런 환경은 영구적인 얼음 땅 근방에서는 있을 수 없다는 것에 대한 강한 신념은 이러한 큰 동물들이 화석이 된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창안된 급작스러운 기후 변동 및 지각 대변동설이 나오게 된 주원인이었다. 얼음 속에 묻혀 있는 그 동물들이 살던 시기 이래 기후가 전혀 변하지 않았다곤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지금 내가 밝히고 싶은 것은, 먹이의 '양'만 문제가 되는 것이었다면 고대의 코뿔소는 현존하는 코뿔소와 코끼리들이 지금 남아프리카의 '카루 고원'[21]을 돌아다니듯이 지금과 같은 상태의 중앙 시베리아 '스텝 지역'[22](아마도 그중 북쪽 부분은 물에 잠겨 있었을 것이다)을 배회했을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이제 북부 파타고니아 평원의 들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몇몇 새들의 재미있는 습성에 대해 이야기하겠다. 그 첫 번째는 가장 큰 새, 바로 남아메리카 타조이다. 타조의 일반적인 습성은 누구나 잘 알고 있다. 타조는 뿌리나 풀잎 같은 식물을 먹고 사는데, 바이아블랑카에서는 타조 서너 마리가 널따랗고 마른

20 훔볼트의 저서 《아시아에 관한 단상들Fragments Asiatiques》 386쪽, 바턴의 저서 《식물 지리학Geography of Plants》, 그리고 말테 브룅의 연구를 참조하라. 후자의 경우에는 시베리아에서 수목의 북방 한계선이 위도 70도 선 아래일 것이라고 한다.

21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있는 고원-역주.

22 중앙 시베리아의 대초원 지대를 부르는 말-역주.

진흙 둑이 있는 낮은 물가까지 내려오는 것을 몇 번 본 적이 있었다. 가우초들 말로는 작은 물고기를 잡아먹기 위해서라고 했다. 타조는 습성상 낯을 많이 가리고 경계심이 많은 데다 혼자 다니길 좋아하며 걸음이 매우 빠름에도 불구하고 볼라를 쓰는 인디오나 가우초에게 쉽게 잡힌다. 말 탄 사람 몇몇이 둘러싸면 타조는 곧바로 혼란에 빠져 어디로 달아나야 할지 모른다. 타조는 대개 바람을 거슬러 뛰기를 좋아하는데, 달리기 시작할 때면 마치 배가 돛을 펴듯 양 날개를 펼친다. 어느 맑고 더운 날, 나는 타조 몇 마리가 키 큰 골풀 숲에 쪼그려 앉아 숨어 있는 것을 아주 가까이 다가가 지켜보았다. 타조들은 일반적으로 물가에 잘 가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킹 씨는 산블라스 만과 파타고니아의 발데스 항구에서 타조들이 섬에서 섬으로 헤엄쳐 다니는 것을 본 적이 있다고 했다. 타조들은 낮은 지점으로 쫓길 때뿐 아니라 놀라지 않았을 때도 스스로 물에 뛰어들곤 한다. 타조들이 건널 수 있는 거리는 약 180미터에 달한다. 헤엄칠 때면 몸은 거의 물 밖에 나오지 않고 목은 약간 앞쪽으로 뻗으며, 이동 속도는 느리다. 나는 타조 몇 마리가 산타크루스 강에서 폭이 360미터 정도 되고 물살이 매우 빠른 곳에서 강을 건너는 것을 두 번 보았다. 스터트 함장[23]은 오스트레일리아에서 머럼비지 강을 따라 내려오다가 에뮤[24] 두 마리가 헤엄치는 것을 보았다고 한다.

이 지역에 서식하는 새들은 멀리서도 암수가 구별된다. 수컷은 더 크고 색이 짙으며,[25] 머리가 더 크다. 내 생각에 수컷 타조는 독특하고 깊은 음조의 쉭쉭거리는 소리를 낸다. 야트막한 사구 사이에서 처음 그 소리를 들었을 때는 웬 야생동물이 내는 소리인가 싶었다. 대체 어디로부터, 그리고 얼마나 멀리서부터 들려오는지 판단할 수 없는 소리였다. 바이아블랑카에서 보낸 9월에서 10월까지, 곳곳에서 엄청나게 많은 타조 알을 발견했다. 알들은 하나씩 외따로

23 《스터트 함장 여행기》 2권, 74쪽.

24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서식하는 날지 못하는 새. 현존하는 조류 중 두 번째로 크다-역주.

25 가우초 한 명이 순백색의 알비노 변종을 본 적이 있었는데, 그 어떤 새보다 아름다웠다고 한다.

흩어져 있기도 한데, 이런 경우는 절대로 부화되지 않으며, 스페인 사람들은 이것들을 우아초huacho라고 부른다. 그런 경우가 아니면, 알들은 낮게 파인 굴 모양의 둥지에 모여 있다. 내가 본 네 곳의 둥지 중 세 곳에는 각각 22개의 알이 있었고, 네 번째 둥지에는 27개가 있었다. 하루는 말을 타고 64개의 알을 찾았는데, 그중 44개는 두 곳의 둥지에서 찾았고, 나머지 20개는 흩어져 있던 우아초였다. 수컷 타조가 혼자서 알을 부화시키며, 그 후로도 한동안 아기 타조들을 데리고 다닌다며 가우초들이 입을 모아 단언하는 것을 보니, 그 말을 믿지 않을 이유도 없다. 둥지에 (알을 품고) 있는 수컷 타조는 매우 바싹 엎드려 있다. 한번은 내가 말을 탄 채 그냥 넘어갈 뻔했을 정도이다. 하지만 그럴 때면 수컷 타조는 종종 매우 사납고 위험해지며, 말 위에 있는 사람을 발로 차며 뛰어올라 공격한 적도 있다고 한다. 그 얘기를 하던 사람이 타조에게 쫓겨 겁에 질렸던 한 노인을 가리켰다. 버첼의 남아프리카 여행기에서 "수컷 타조를 죽였는데, 그 날개는 매우 지저분했다. 호텐토트족의 말로는 그것이 둥지를 지키는 새였다고 했다"라는 얘기를 읽은 적이 있다. 동물원에 있는 수컷 에뮤가 둥지를 지키는 모습을 보면, 이는 이 과에 속하는 동물의 공통적인 습성인 것 같다.

가우초들은 또한 암컷 타조는 몇 마리가 한 둥지에 알을 낳는다고 이구동성으로 단언한다. 네댓 마리의 암타조가 대낮에 차례차례 같은 둥지로 가는 것을 보았다는 얘기를 분명히 들었다. 아프리카에서도 둘 혹은 그 이상의 암컷이 한 둥지에 알을 낳는다고도 믿고 있다.[26] 이런 습성은 처음에는 매우 이상해 보이지만, 내 생각으로 그 원인은 아주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다. 둥지 하나당 알은 20개에서 40개, 혹은 50개에 이르는데, 아사라의 말에 의하면 간혹 70~80개에 이르는 경우도 있다. 한 지역에서 발견되는 알의 개수가 그것을 낳은 부모 새들의 수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많다는 점, 그리고 어미 새의 난소 상태로 미루어 보건대, 암컷 타조가 산란기 동안 많은 알을 낳는다는

26 《버첼 여행기》 1권, 280쪽.

것이 확실하긴 하지만, 그 과정에는 매우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 틀림없다. 아사라는 집에서 키우는 암타조가 각각 3일 간격으로 모두 17개의 알을 낳았다고 했다.[27] 그런데 만일 그 암컷이 자기 알을 직접 부화해야 한다면, 마지막 알을 낳기도 전에 첫 번째 알은 썩어 버릴 것이다. 하지만 각각의 암타조가 연속적인 간격을 두고 몇 개씩의 알을 서로 다른 둥지에 낳고, 몇 마리의 암컷이 지금 말한 방식대로 함께 알을 낳는다면, 한 둥지에 모인 알들은 낳은 시간이 거의 같을 것이다. 내 생각에 이러한 둥지에 낳은 알의 평균 개수가 한 마리의 암타조가 산란기 동안 낳는 알의 개수보다 많지 않다면, 둥지는 암타조 수만큼 있어야 하며 각각의 수타조는 알을 부화시키는 작업을 공평하게 하게 된다. 그 기간 동안 암타조는 산란을 끝내지 못했을 것이므로 알을 품지 못한다.[28]

나는 앞서 수많은 우아초, 즉 버려진 타조 알 얘기를 하면서 어느 날은 그런 알 20개를 주운 적도 있다고 얘기했다. 그렇게 많은 알이 버려진다는 것은 분명 이상한 일이다. 이런 현상은 혹시 암타조들이 서로 모이질 못하거나 둥지를 맡아 알을 부화시킬 수타조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닐까? 우선 적어도 두 마리 이상의 암타조가 어느 정도 서로 돕고 있는 것은 분명했다. 그렇지 않다면 알들은 수컷이 한 둥지에 모을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넓은 벌판에 흩어져 있었을 테니 말이다. 어떤 학자들은 새끼 타조들에게 먹이기 위해 알을 방치해 두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한다. 하지만 우아초들은 때때로 썩어서 고약한 냄새를 풍기며 발견되기는 해도 대개는 멀쩡하기 때문에 아메리카 대륙에서는 그럴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한다.

북부 파타고니아의 네그로 강에 있을 때, 가우초들이 아베스트루즈 페티제

27 아사라의 저서, 4권, 173쪽.

28 그러나 리히텐슈타인은 자신의 여행기 2권, 25쪽에서 암타조들이 일단 알을 품으면 10~12개의 알을 낳으며, 계속해서 알을 낳는다고 주장했다. 추측하건대, 다른 둥지에서 낳는다는 말인 것 같다. 내게는 있을 수 없는 일로 보인다. 그는 네댓 마리의 암타조들이 알을 부화시키기 위해 밤에만 알을 품는 수컷 한 마리와 무리를 짓는다고 단언한다.

Avestruz petise라는 아주 희귀한 새에 대해 얘기하는 것을 여러 번 들었다. 그들의 말에 따르면, 그 새는 보통 타조(그 근방에서 흔히 보는)보다 작으면서 전체적으로는 타조와 매우 닮았다고 한다. 색깔은 어둡고 얼룩덜룩하며 다리는 보통 타조보다 짧지만 보다 아래쪽까지 깃털로 덮여 있다고 했다. 볼라를 쓰면 타조보다 훨씬 더 쉽게 잡힌다. 두 가지 종류의 새를 다 본 적이 있는 몇몇 사람들의 말로는 둘은 멀리서도 구분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작은 종의 알이 일반적으로 더 알려졌으며, 그 알들은 놀랍게도 레아Rhea, 즉 아메리카 타조의 알보다 아주 약간 작으면서 다만 모양이 미세하게 다르고 옅고 창백한 푸른색이 감돈다고 했다. 이 종은 네그로 강에 인접한 평원에서는 매우 드물게 보이지만, 남쪽으로 위도 1.5도 내려간 지점에서는 상당히 많이 발견된다. 파타고니아의 데지레 항구(위도 48도)에 있을 때 마르텐스 씨가 타조 한 마리를 쏘아 잡은 적이 있었는데, 나는 그것을 보는 순간 어찌 된 일인지 페티제에 대해서는 까맣게 잊고 덜 자란 보통 타조라고만 생각했다. 내가 페티제를 기억해 냈을 때는 이미 그 새를 요리해 먹어 치운 후였다. 다행히도 머리, 목, 다리, 날개, 큰 깃털 대부분과 상당한 부위의 가죽이 남아 있어 그것들을 모아 거의 완전한 표본을 만들 수 있었다. 그 표본은 지금 동물학회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다. 굴드 씨는 이 새로운 종을 내 이름을 따서 명명하는 영예를 내게 선사했다.[29]

마젤란 해협의 파타고니아 인디오 중에 몇 년간은 부족과 함께 살아왔지만 북부 지방 태생인 혼혈 인디오가 하나 있었다. 나는 그에게 아베스트루즈 페티제라는 새에 대해 들어 본 적이 있냐고 물었다. 그는 "이 남쪽 지방엔들 그 새가 없겠냐"며 반문했다. 그는 페티제의 둥지에 있는 알의 개수는 다른 새들보다 상당히 적어서 평균 15개를 넘지 않지만, 두 마리 이상의 암컷이 그 알들을 낳는 것은 분명하다고 단언했다. 우리는 산타크루스에서 페티제 몇 마리를 볼 수 있었다. 그것들은 무척이나 경계심이 강했다. 내 생각에 그 새들은 다가오

29 이 새는 Struthio darwinii, 즉 '다윈 타조'로 명명되었다–역주.

는 사람이 그것들을 알아보기도 전에 그 사람을 먼저 알아보는 것 같았다. 강을 따라 올라갈 때는 그 새들이 거의 보이지 않았지만, 조용하고 신속하게 강을 따라 내려올 때면 짝을 지어 있거나 네댓 마리가 함께 있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었다. 이 새가 전속력을 내어 출발할 때는 북부 지역의 새들과 달리 날개를 펴지 않는다고 했다. 내가 관찰한 바에 따르면, 결론적으로 아메리카 타조는 위도 41도인 네그로 강보다 좀 더 남쪽 지역까지 펼쳐진 라플라타 지역에 서식하며, 다윈 타조Struthio darwinii는 남부 파타고니아 지역에 서식한다. 네그로 강 주변은 일종의 중립 지역이다. 도비니 씨[30]는 네그로 강에서 이 새(다윈 타조)를 잡으려고 무척 애를 썼지만 한 번도 성공하지 못했다. 도브리즈호퍼 씨[31]는 이러한 두 종류의 타조가 존재한다는 것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으며, "더욱이 에뮤는 지역에 따라 크기와 습성이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부에노스아이레스와 투쿠만 평원에 서식하는 것들이 상대적으로 더 크고 깃털은 검은색, 흰색, 회색이다. 마젤란 해협 근처에 서식하는 것들은 크기가 보다 작으며 흰 깃털의 끄트머리는 검고, 검은 깃털의 끄트머리는 흰색이어서 더 예쁘다"고 말한다.

이곳에서는 티노초루스 루미시보루스Tinochorus rumicivorus라는 매우 특이한 작은 새가 흔하다. 그 습성이나 전체적인 모습은 메추라기 혹은 도요새와 똑같지는 않아도 거의 동일한 특징을 띠고 있다. 티노초루스는 척박한 평원 아니면 탁 트이고 건조한 목초지가 있는 남아메리카 전역에서 발견된다. 이 새는 짝을 짓거나 혹은 작은 떼로 모여 다른 생물체는 살기 힘든 아주 척박한 곳에서도 산다. 가까이서 보면 이 새들은 바싹 쪼그려 앉아 있어서 땅바닥과도 잘 구별되지 않는다. 먹이를 먹을 때는 다리를 넓게 벌리고 비교적 천천히 움

30 네그로 강 부근에서는 이 자연사학자의 지치지 않는 노고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었다. 도비니 씨는 1825년에서 1833년까지 남아메리카 대륙의 상당 부분을 횡단하면서 표본을 수집했고, 그 결과물을 대대적인 규모로 발표하고 있다. 이로써 그는 곧바로 훔볼트에 버금가는 아메리카 대륙 탐험가로 자리매김했다.

31 《아비폰 강 이야기Account of the Abipones》(1749), 1권, 영문 번역판, 314쪽.

직인다. 이 새들은 길바닥이나 모래밭에서 먼지를 뒤집어쓰고, 특정한 장소에 계속해서 매일같이 출몰하며 자고새처럼 떼를 지어 날아다닌다. 이런 모든 점, 즉 식물성 먹이를 먹는 데 적합한 근육질의 모래주머니, 구부러진 부리와 살집, 좁은 콧구멍, 짧은 다리와 발의 형태 등을 볼 때, 티노초루스는 메추라기와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새가 날면 전체적인 모습이 바뀐다. 가금류와는 전혀 달리 길게 뻗은 날개, 불규칙한 비행 방식, 비상하는 순간 뱉어 내는 구슬픈 울음 등은 바로 도요새를 떠올리게 한다. 비글호의 탐험 대원들은 이구동성으로 그것을 짧은부리도요새라고 불렀다. 새의 뼈대를 보니 정말로 도요새 혹은 섭금류涉禽類[32]와 관계가 있는 것 같다.

티노초루스는 남아메리카의 몇몇 다른 새들과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아타지스속Attagis에 해당하는 새가 2종 있는데 거의 모든 습성 면에서 뇌조라고 볼 수 있다. 한 종은 티에라델푸에고 지역의 삼림 한계선 위쪽에 살고, 다른 한 종은 칠레 중부 안데스 대산맥의 설선[33] 바로 아래쪽에 산다. 밀접한 관련이 있는 또 한 종은 남극 지역에 서식하는 흰남극비둘기Chionis alba이다. 이 새는 조간대潮間帶의 암석들 틈에서 해초나 조개를 먹고 산다. 우리가 모르는 어떤 습관이라도 있는지, 이 새는 물갈퀴가 없는데도 먼 바다에서 자주 보인다. 이 새들이 속한 작은 과는 지금으로서는 계통자연사학자들에게 해석하기 어려운 문제가 되고 있지만, 다른 과에 속한 새들과의 다양한 관계를 볼 때, 현재부터 과거까지 수많은 세월에 걸쳐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유기 생명체 생성의 웅대한 계획을 밝히는 데 궁극적으로 도움이 될지 모른다.

푸르나리우스속Furnarius에 해당하는 몇몇 종은 모두 크기가 작고 땅 위에서 생활하며 넓게 트인 건조한 지역에서 서식한다. 구조적인 면에서 그 새들은 유

32 조류鳥類를 생활 형태상으로 분류한 한 갈래로, 다리와 목 · 부리가 가늘고 길며 날개는 크고 강하다. 주로 얕은 물가에서 걸어 다니며 물고기나 곤충 따위를 잡아먹고, 두루미, 백로, 황새 따위가 이에 속한다–역주.

33 높은 산이나 극지에서 1년 내내 눈이 녹지 않고 남는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의 경계–역주.

럽의 어떤 새들과도 비교할 수 없다. 조류학자들은 모든 습성이 정반대일지라도 이 새들을 나무발바리과[34]에 포함시킨다. 그중 가장 많이 알려진 종은 라플라타에서 흔히 보이는 카사라Casara, 즉 스페인어로 '집 짓는 목수'라는 뜻의 오븐 새[35]이다. 그 이름은 이 새들이 둥지를 기둥 꼭대기나 맨 바위, 혹은 선인장 위처럼 가장 잘 드러나는 곳에 짓는 것에서 따왔다. 둥지는 진흙과 약간의 밀짚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벽은 튼튼하고 두껍다. 그 모양은 딱 오븐같이 생겼으며, 벌집을 눌러 놓은 것 같기도 하다. 입구는 넓고 아치형이며, 바로 둥지 안쪽 앞으로는 거의 지붕에 닿을 만한 높이의 칸막이가 있어서 진짜 둥지로 들어가는 길목 또는 대기실이 된다.

푸르나리우스속에 해당하는 더 작은 종Furnarius cunicularius은 전체적으로 붉은빛 깃털, 특유의 반복적이고 날카로운 울음소리, 그리고 출발할 때 이상하게 뛰는 방식이 오븐 새와 닮았다. 이러한 유사성 때문에 스페인 사람들은 이 새를 카사리타Casarita(집 짓는 작은 목수)라고 부르지만, 집짓기 방식은 상당히 다르다. 카사리타는 좁은 원통형 구멍의 밑바닥에 집을 짓는데, 이 구멍은 지하로 1.8미터 가까이 (지면과) 수평으로 뻗어 있다고 한다. 그 지역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어렸을 때 그 둥지를 파내려고 해봤지만 통로 끝까지 파내는 데 성공한 적이 거의 없었다고 한다. 카사리타는 길이나 개울 옆면의 단단한 모래 둑을 찾아 집을 짓는다. 이곳 바이아블랑카에서는 진흙을 굳혀서 집 둘레에 벽을 쌓는데, 내가 묵던 집 안마당을 둘러싼 벽은 수십 개의 둥근 구멍투성이였다. 주인에게 물어보니 그놈의 작은 카사리타 때문이라고 투덜거렸다. 나중에는 카사리타 몇 마리가 굴을 파고 있는 것을 실제로 보기도 했다. 벽을 둥지 짓기에 적격인 모래 둑이라고 여겼는지 계속 낮은 담 위를 날아다니며 구멍을 뚫으려고 헛수고하는 것을 보니, 이 새들이 이토록 두께를 인식하는 능력이 없나 싶어 호기심이 일었다. 새들이 굴을 뚫고 햇살 찬란한 반대편으로 나올 때

34 과명은 Certhiidae. 딱딱한 꽁지깃을 이용하여 나무에 기어오르는 새를 이른다-역주.

35 휘파람새의 일종-역주.

마다 예기치 못한 현실에 얼마나 기겁했을지 상상이 간다.
이 지역에서 흔히 보게 되는 포유동물에 대해서는 이미 거의 다 얘기했다. 아르마딜로에는 '피치'라고 불리는 다시푸스 미누투스Dasypus minutus, '펠루도'라고 불리는 다시푸스 빌로수스Dasypus villosus, 그리고 '아파르'라는 세 종류가 있다. 다시푸스 미누투스는 다른 종들보다 10도 정도 남쪽 지역까지 서식한다. 또 다른 종으로 '물리타'라는 것도 있는데, 이것은 바이아블랑카처럼 남쪽 지방에는 살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모두 4종의 아르마딜로는 거의 비슷비슷한 습성을 지니고 있다. '펠루도'는 야행성이지만, 다른 것들은 대낮에 평원을 활보하며 딱정벌레, 애벌레, 나무뿌리, 그리고 작은 뱀 등을 먹고 산다. '아파르'는 흔히 '마타코'라고도 불리는데, 세 개의 골관절만 움직이며 격자 모양의 껍질로 덮인 나머지 부분은 거의 움직이지 못한지만, 영국의 쥐며느리처럼 몸을 완전히 공 모양으로 돌돌 말 수 있다. 이런 상태가 되면 개들이 달려들어도 안전하다. 한입에 전부 물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한쪽을 물려고 하면 입에서 미끄러져 나가기 때문이다. '마타코'의 매끄럽고 단단한 껍질은 고슴도치의 날카로운 가시보다도 더 효과적인 방어 수단이 된다. '피치'는 아주 건조한 땅을 좋아한다. 몇 달이고 물 한 모금 입에 안 대고 지낼 수 있는 해안의 사구 같은 곳이 '피치'가 특히 좋아하는 곳이다. 때로 땅에 납작하게 엎드리면 눈에 띄지 않기도 한다. 바이아블랑카 주변을 돌아다니면 하루에도 몇 마리씩 볼 수 있다. '피치'를 잡으려면 그것을 발견하는 순간 거의 말에서 뛰어내리다시피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말에서 내리기도 전에 부드러운 땅을 파고들어 사라지기 때문이다. 가우초가 "손 탄 만소스(이것들은 아주 조용합니다)"라고 하면서 그 동물의 등에 칼을 들이대는 것을 볼 때면, 그렇게 작고 예쁜 동물을 죽이는 게 마음 아프다.
파충류는 여러 종 있었다. 트리고노세팔루스Trigonocephalus 혹은 코피아스Cophias[36]라고 하는 뱀은 송곳니의 독선의 크기로 보아 매우 치명적인 독사다.

36 비브롱 씨는 이를 T. crepitans라고 불렀다.

퀴비에는 몇몇 다른 자연사학자들과 달리 이 종류를 방울뱀과 살무사의 중간에 해당하는 방울뱀의 아속亞屬이라고 보았다. 이 견해를 지지하는 증거로서, 나는 모든 특징이 어느 정도는 구조로부터 독립적일지라도 매우 점진적으로 변화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밝혀 주는 매우 신기하고도 유익한 사실 하나를 관찰했다. 이 뱀의 꼬리 끝부분은 뾰족하고 아주 약간 부풀어 있다. 그리고 미끄러지며 지나갈 때면 계속해서 끄트머리를 떤다. 이 부분이 마른풀이나 덤불을 치고 지나가면 1.8미터 밖에서도 뚜렷이 들리는 덜걱거리는 소리를 낸다. 놀라거나 화가 나면 더욱 격렬하게 꼬리를 흔든다. 자극에 의한 흥분이 몸에 남아 있는 한 이러한 습관적인 진동은 계속된다. 트리고노세팔루스는 몇 가지 면에서 살무사의 구조적인 특징과 방울뱀의 습성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움직이면서 내는 소리는 생각보다 간단한 기관으로 낸다. 이 뱀의 얼굴은 끔찍하고 사납게 생겼다. 눈은 얼룩덜룩한 구릿빛 홍채에 세로로 쭉 찢어진 동공이 있으며, 턱은 넓게 벌어졌고, 코는 세모꼴로 튀어나와 있다. 이보다 더 못생긴 모습은 아마도 흡혈박쥐 말고는 본 적이 없는 것 같다. 내 생각에 이렇게 역겨운 겉모습은 그 눈, 코, 입 등이 각각 어느 정도 사람의 얼굴 구조에 비례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며, 그것이 혐오감의 원인인 듯싶다.

꼬리가 없는 양서류로는 색깔이 무척 괴상한 작은 두꺼비Phryniscus nigricans 한 가지만 겨우 찾았다. 두꺼비를 까만 잉크에 푹 담갔다가 잘 말린 다음 밝은 주홍빛으로 갓 칠한 판자 위를 기어가게 해서 발바닥과 뱃가죽에 물감을 묻혔다면, 딱 그 모습일 것이다. 생긴 모습을 봐서는 하와의 귓가에 간사한 말이나 속삭이기에 딱 알맞은 두꺼비이기 때문에 만일 이름이 없었다면 '디아볼리쿠스(악마)'라고 불려야 했을 것이다. 이 두꺼비는 다른 두꺼비들처럼 야행성이면서 습기 많은 어둠침침한 구석에 살지 않고, 물 한 방울 없는 건조한 모래 언덕이나 메마른 평원에서 한낮의 더위에 나와 기어 다니곤 한다. 수분 섭취는 이슬로 해결하는 것이 틀림없다. 이 양서류는 피부 흡수력이 아주 뛰어나다는데, 수분도 피부로 섭취하는 것 같았다. 바이아블랑카만큼 건조한 말도나도에

서 이 두꺼비를 봤을 때 좋은 일 하는 셈 치고 물웅덩이에 넣어 준 적이 있었는데, 알고 보니 그 동물은 수영을 하지 못해서 꺼내 주지 않았으면 빠져 죽을 뻔했다. 도마뱀 종류는 여러 가지였는데, 그중 한 가지Proctotretus multimaculatus만이 독특한 습성을 지녔다. 이 도마뱀은 해안 부근의 맨모래땅에 사는데, 갈색을 띤 비늘에 흰색과 황색을 띤 빨간색, 그리고 우중충한 파란색 반점이 있는 등 얼룩덜룩한 색상 때문에 주변의 지표면과 거의 구분되지 않는다. 이 도마뱀은 놀라게 하면 다리를 뻗고 몸은 쭈그리고 눈을 감고는 죽은 척한다. 더 못살게 굴면 놀랄 만큼 재빠르게 모래 속으로 파고 들어간다. 몸은 납작하고 다리는 짧아서 빨리 달리지는 못한다.
이제 이 남아메리카 지역에 서식하는 동물들의 겨울잠에 대해 몇 마디 더 하고자 한다. 1832년 9월 7일 처음으로 바이아블랑카에 도착했을 때, 우리는 이토록 건조한 모래땅에는 생물이 거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땅을 파면 반쯤 겨울잠을 자는 상태의 곤충 몇 가지와 커다란 거미들, 그리고 도마뱀 등이 나왔다. 9월 15일에는 몇 마리의 동물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추분에서 3일 지난 18일이 되니 모든 면에서 봄이 완연했다. 평원이 분홍빛 애기괭이밥, 야생 완두콩, 달맞이꽃, 제라늄으로 뒤덮였고, 새들은 알을 낳기 시작했다. 딱정벌레목의 곤충들과 마디가 깊이 파인 절지 곤충들이 슬금슬금 기어다녔다. 모래땅의 토착민 격인 도마뱀류도 어딜 가나 보였다. 대자연이 잠들어 있던 첫 11일 동안 비글호 갑판에서 두 시간마다 한 번씩 측정한 평균 기온은 섭씨 10.6도였으며, 한낮의 기온도 좀처럼 12.8도를 넘어가지 않았다. 모든 생물이 활동을 시작한 다음 11일 동안은 평균 기온이 14.4도였으며, 이레째의 한낮 기온은 15.6도에서 21.1도 사이였다. 평균 기온은 5.6도 올라갔을 뿐이지만, 최고 기온은 생명체들의 활동을 일깨우는 데 충분했다. 우리가 떠나온 몬테비데오는 7월 26일에서 8월 19일까지의 23일 동안 276번 측정한 평균 기온이 14.7도였으며, 가장 더운 날의 평균 기온은 18.6도, 가장 추운 날의 평균 기온은 7.8도였다. 수은주가 가장 많이 떨어졌을 때는 5.3도였으며, 한낮의 최

고 기온은 때때로 20~21도까지 올라갔다. 하지만 이렇게 높은 기온에도 불구하고 거의 모든 종의 딱정벌레, 거미 몇 종, 달팽이, 민물조개, 두꺼비, 그리고 도마뱀들은 모두 돌덩이 아래에서 겨울잠을 자고 있었다. 그런데 남쪽으로 4도 아래에 있어 기후가 아주 조금 더 서늘한 바이아블랑카에서는 최고 기온만 약간 낮을 뿐이고 나머지는 같은 기온 환경에서 모든 종의 생명체들이 깨어나 활동했다. 이 사실은 겨울잠을 자는 동물이 깨어나는 것은 절대적인 기온이 아니라 그 지역의 평상시 기후에 의해 정밀하게 좌우된다는 것을 보여 준다. 열대기후에서 동물들의 겨울잠, 좀 더 적절하게 말하자면 '여름잠'이 기온이 아닌 가뭄 기간에 따라 좌우된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나는 리우데자네이루 부근의 몇몇 작은 웅덩이들에 물이 차고 나서 며칠 후, 분명 겨울잠을 자고 있었으리라고 생각했던 다 자란 크기의 (민물)조개와 딱정벌레들이 수없이 들어찬 것을 처음 보고 깜짝 놀랐다. 훔볼트는 새끼 악어가 겨울잠을 자고 있던 굳은 진흙땅 위에 지은 오두막집에서 일어난 희한한 사고에 대해 얘기한 적이 있다. 그는 "인디오들은 종종 겨울잠을 자는 거대한 보아구렁이를 찾아내곤 합니다. 그들은 그걸 우지uji 또는 물뱀이라고 부르는데, 그걸 깨우려면 못살게 굴거나 물을 끼얹어야 합니다"라고 설명을 덧붙인다.

이제 바다조름속의 식충류[37](나는 이것이 비르굴라리아 파타고니카Virgularia patagonica라고 생각한다) 한 가지에 대해서만 더 얘기하도록 하겠다. 양쪽으로 교차하며 튀어나온 돌기가 있는 이 동물은 탄력 있고 돌처럼 단단한 축을 둘러싼 얇고 곧은 과육질 줄기로 이루어져 있으며, 줄기의 길이는 20센티미터에서 60센티미터 정도이다. 줄기의 한쪽 끝은 절단되어 있으며, 다른 한끝에는 길쭉한 벌레 모양의 육질로 된 부속 기관이 달려 있다. 줄기를 지탱해 주는 돌처럼 단단한 축은 줄기를 따라 과립 모양의 물질로 채워져 있는 기관까지 이어진다. 썰물 때면 이 식충 동물 수백 개가 진흙 모래밭 위로 절단면을 위로 한 채 그루터기처럼 튀어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것들을 만지거나 당기면 갑자기

37 말미잘, 불가사리, 산호, 해면 등-역주.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거세게 쑥 들어가 버린다. 이렇게 할 때면 고도로 탄력 있는 축이 원래 약간 굽어 있던 줄기 아래쪽 끝에서 더 굽는 것이 분명하다. 내 생각에 이 식충 동물이 진흙 속에서 꼿꼿한 모양을 유지할 수 있는 것도 이러한 탄력성 때문인 것 같다. 각각의 돌기는 서로 가까이 붙어 있기는 하지만 입, 몸체, 그리고 촉수가 뚜렷이 구분된다. 대형 표본인 경우에는 수천 개에 이르는 이러한 돌기는 움직일 때마다 일사불란하게 한 가지 모양으로 움직인다. 이 돌기들에는 보이지 않는 순환 작용으로 이어진 하나의 중심축이 있으며, 알은 개별적인 개체들과 다른 별도의 기관에서 만들어진다.[38] 자, 누군가 여기서 말하는 개체라는 것이 뭐냐고 물을 수도 있겠지? 옛 선원들의 기묘한 이야기들의 근거를 찾아내는 일은 언제나 즐겁기 마련인데, 이 비르굴라리아라는 놈의 습성에 대해 알아낸 것 역시 그런 경우임이 분명하다. 랭커스터 선장은 1601년의 항해[39]에서 동인도 제도의 솜브레로 섬 바닷가 모래밭에서 있었던 일을 다음과 같이 얘기하고 있다.

"어린나무처럼 자라나 있는 작은 나뭇가지들을 발견했는데, 잡아 뽑으려고 했더니 땅속으로 움츠러들었고, 꽉 잡지 않으면 아래로 사라져 버렸다. 뽑아내어 보니 뿌리 부분은 거대한 벌레였으며, 나무 부분이 자라나면 벌레는 작아진다. 그리고 벌레가 완전히 나무로 자라면 그 나무는 땅에 뿌리를 내리고 커

38 끄트머리의 육질로 된 격실에서부터 시작되는 공동空洞은 노란색의 과육질로 채워져 있었다. 이것을 현미경으로 관찰해 보니 아주 기묘한 모양이었다. 그 물질은 둥글고 반투명한 불규칙적인 알갱이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여러 개가 모여 다양한 크기의 덩어리를 이루고 있었다. 그 덩어리들과 각각의 알갱이들은 매우 빨리 움직이고 있었는데, 각기 다른 축을 중심으로 회전하고 있었으나 간혹 앞으로 나아가는 것도 있었다. 하지만 그 힘은 매우 약해서 제일 고배율로 보아도 그 원인을 알아차릴 수 없었다. 이 운동은 중심축의 가느다란 끝부분이 들어가 있는 탄력 있는 주머니 속의 유체가 순환하는 것과는 아주 다르다. 작은 해양 동물을 현미경에 놓고 해부했던 경우에, 그와 같은 과육질의 다소 큰 덩어리가 나오자마자 회전하는 것을 본 적이 있다. 얼마나 맞는 생각인지는 모르지만 나는 이러한 입상의 과육질이 알이 되어 간다고 상상했다. 이런 상상이 이 식충류에서는 사실인 것 같다.

39 커Kerr의 《항해기 모음집Collection of Voyages》 8권, 119쪽.

진다. 이러한 변이 과정은 내가 여행하면서 본 것들 중에 가장 기묘한 일이었다. 이 나무가 어릴 때 뽑아서 잎과 껍질을 떼어 내고 말리면 마치 흰 산호같이 생긴 단단한 돌만 남는다. 따라서 이 벌레는 두 번 다른 물질로 변한다. 우리는 이것들을 많이 모아 집으로 가져왔다."

비글호를 기다리면서 바이아블랑카에 머무는 동안, 그 지역은 로사스 장군과 토착 인디오 간의 전쟁과 승리 소식 등으로 인해 연이어 흥분의 도가니였다. 하루는 부에노스아이레스로 가는 길에 있는 한 초소의 작은 부대 전원이 몰살되었다는 이야기가 들려왔다. 그다음 날에는 미란다 사령관의 지휘하에 콜로라도로부터 3백 명의 부대가 도착했다. 이들 대부분은 인디오('만소스'라고 부르는 귀화 인디오를 말한다)로, 베르난티오 추장의 부족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여기서 밤을 보냈는데, 그들의 야영하는 모습만큼 거칠고 야만적인 것은 없었다. 몇몇은 만취할 때까지 술을 마셨고, 몇몇은 저녁거리로 도살한 소의 피를 김이 나는 채로 마시기도 했다. 야영장은 숙취 때문에 다시 게워 낸 오물과 피로 온통 뒤범벅이었다.

Nam simul expletus dapibus,
vinoque sepultus Cervicem inflexam posuit,
jacuitque per antrum Immensus,
saniem eructans, ac frusta cruenta Persomnum commixta mero.
음식 배불리 먹고
술에 잔뜩 취해 머리를 떨어뜨린 채
커다란 술 속에 드러누워
피를 토해 내며 뒤엉켜 잠드네

아침이 되자 그들은 인디오들의 '라스트로', 즉 발자취를 쫓아 칠레까지라도 추적하라는 명령을 받고 살육의 행군을 시작했다. 후에, 토착 인디오들은 팜

파스(대평원)로 도망갔으며 몇 가지 이유로 인해 발자취를 놓쳤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발자취를 보면 모든 것을 알 수 있다. 그들이 말 수천 마리의 뒤를 쫓는다면 그들은 몇 마리의 말이 천천히 달렸는지를 보고 말에 탄 사람 숫자를 짐작해 낼 것이다. 다른 발자국의 깊이를 보고는 짐 실은 말이 있는지를 알아내고, 불규칙적인 발자국을 보게 되면 말이 지친 정도를 알아낼 수 있다. 음식을 요리한 방법을 살펴보면 도망자들이 얼마나 급하게 움직였는지를 알아낼 수 있고, 전체적인 모습을 보면 지나간 지 얼마나 경과했는지를 짐작할 수 있다. 그들은 10일 혹은 2주 정도 된 흔적은 따라잡기 충분한 아주 최근의 흔적으로 친다. 미란다 사령관이 시에라데라벤타나 산맥의 서쪽 끝으로부터 네그로 강을 따라 340킬로미터 위에 있는 초레첼Cholechel 섬 쪽으로 직격해 갔다는 얘기도 들었다. 이는 완전히 미개척지인 지역을 거의 320~480킬로미터나 지나는 길이다. 세상에 어떤 군대가 이처럼 독자적이겠는가? 태양을 길잡이 삼아, 암말의 고기를 먹고 안장깔개를 침대 삼아, 물만 조금 있으면 그들은 지구 끝까지라도 뚫고 들어갈 것이다.

그로부터 며칠 후 이 도적 떼 같은 군부대의 또 다른 무리가 작은 소금 호수들 방향으로 한 인디오 부족을 뒤쫓기 시작하는 것을 보았다. 포로로 잡힌 그 부족의 추장이 자기 부족을 배신한 것이었다. 이 추격 명령을 전달한 스페인 사람은 매우 총명한 사람이었는데, 그가 내게 가장 최근에 참여했던 전투 이야기를 해 주었다. 포로로 잡힌 인디오 몇 명이 콜로라도 북쪽에 살고 있는 부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2백 명의 군사들이 급파되었다. 그들은 말발굽에 이는 먼지 구름 덕에 우연히 지나가던 인디오들을 발견했다. 그곳은 산악 지역이었고 지형이 거칠었으며 코르디예라 산맥이 보이는 것으로 보아 상당히 내륙 지방인 것이 분명했다. 인디오들은 남자, 여자, 그리고 아이들까지 해서 110명에 이르렀다. 군인들이 남자란 남자는 전부 칼로 베어 버렸기 때문에 인디오들은 모두 잡히거나 사살되었다. 그들은 너무 겁에 질린 나머지 뭉쳐서 저항하지는 못했지만 이따금 부인이나 자식을 내버려 두고 도망가는 이들도 있었다. 하지

만 군인에게 잡히면 상대가 몇 명이 되건 야생동물처럼 마지막 순간까지 저항했다. 죽어 가던 인디오 하나는 눈알이 튀어나올 정도로 적의 엄지를 물어뜯었다고 한다. 부상당한 어떤 자는 죽은 척하고 있다가 단검으로 최후의 치명타를 날리려 하기도 했다. 이 스페인 사람도 인디오 하나를 쫓아갔는데, 그는 살려 달라고 애걸하면서도 동시에 허리춤에서 슬며시 볼라를 풀어 머리 위로 돌려서 스페인 사람을 맞히려 했다고 한다. 그는 이어서 "그렇지만 내가 그를 칼로 찔러 쓰러뜨리고는 말에서 뛰어내려 단도로 놈의 목을 땄지요"라고 말했다. 이런 얘기들은 음울하기 짝이 없지만, 20세가 넘은 여자들도 모두 냉혹하게 학살되었다는 돌이킬 수 없는 사실보다 충격적인 것도 없을 것이다. 너무 잔인하다고 내가 소리치자 그가 대답했다. "그럼 어쩌겠습니까? 그들이 또 아이들을 낳을 텐데!"

이곳 사람들은 그것이 야만인들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정당한 전쟁이라고 확신하고 있었다. 누가 요즘 같은 세상에 이렇게 잔인무도한 일이 문명화된 기독교 국가에서 자행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겠는가? 살아남은 인디오 아이들은 시종으로 보내거나 팔릴 것이며, 심지어는 주인이 그 아이들로 하여금 스스로 노예라고 믿도록 만들 때까지 노예로 일하게 되겠지만, 그런 처우에 대해서도 감지덕지해야 할 것이다.

그 전투에서 남자 네 명이 함께 도망쳤는데, 추격당해서 한 명은 사살되고 나머지 세 명은 생포되었다. 그들은 공동 방어를 위해 코르디예라 산맥 근처에서 연합한 더 큰 인디오 부족으로부터 온 연락책과 특사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그들을 파견했던 부족은 대회의를 막 하려고 연회를 위한 암말 고기를 마련하고 춤출 준비를 하던 참이었고, 아침이면 특사는 코르디예라로 돌아가야 했다. 그들은 모두 30세가 안 되었고 키가 180센티미터가 넘으며 잘생기고 눈에 띄게 건장한 남자들이었다. 살아남은 세 명은 물론 중요한 정보를 알고 있었으며, 그것을 자백하게 하려고 모두 일렬로 세웠다. 그중 두 명에게 먼저 질문이 시작되었으나 "모른다"라는 대답이 돌아왔으며 차례차례 총살되었다. 세

번째 인디오도 역시 “모른다”라고 하고는 “쏴라, 나는 사나이니까, 죽을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그들 지역의 연합에 피해를 줄 말은 한마디도 내뱉지 않은 것이다! 앞서 말한 부족을 배신한 추장의 행동은 사뭇 달랐다. 그는 교전 계획과 안데스 산맥에서 연합하는 지점을 누설하는 대신 자기 목숨을 건졌다. 그곳에는 이미 6백~7백 명의 인디오들이 모여 있으며, 여름이면 그 수는 두 배가 될 것이라고 예상되었다. 앞서 말한 특사들은 바이아블랑카 부근의 작은 소금 호수들로 보냈던 것인데 이 추장이 그들을 배신했던 것이다. 그러니 인디오들의 연락망은 코르디예라 산맥에서부터 대서양 해안까지 뻗어 있는 셈이다.

로사스 장군은 모든 낙오자들을 죽이려 했으며, 잔당들은 여름에 칠레인들의 지원을 받아 한 덩어리가 되어 공격하기 위해 한 지점으로 몰아가고자 했다. 이러한 과정은 향후 3년 동안 반복적으로 진행될 예정이었다. 내 생각에는 여름에 주 공격이 있을 것 같다. 왜냐하면 여름이 되면 평원에는 물이 없으므로 인디오들도 특정한 곳으로만 여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인디오들이 네그로 강의 남쪽으로 도망간다면 그곳의 광대한 미개척지에서 안전하게 머물 수 있지만, 그것은 테우엘체스족과의 협정에 의해 막히게 되었다. 테우엘체스족이 강의 남쪽으로 가려는 모든 인디오를 죽인다면 로사스 장군이 많은 대가를 주지만, 그러지 못할 때는 그들 자신이 몰살당할 것이라는 식의 협정이다. 전쟁은 주로 코르디예라 산맥 부근의 인디오들을 상대로 진행되는데, 이는 동부 지역에 있는 여러 부족들이 로사스 장군과 같은 편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로사스 장군은 체스터필드 경과 마찬가지로 자기의 인디오 동지들이 앞으로 언젠가는 적으로 돌변할지 모른다고 생각하여 그들의 수가 줄어들 수 있도록 항상 전선의 맨 앞줄에 배치했다. 남아메리카를 떠나고 나서, 우리는 이 학살 전쟁이 완전히 실패로 끝났다는 소식을 들었다.

이 교전에서 포로가 된 소녀들 중에는 어릴 때 인디오에게 납치되었던 매우 예쁜 스페인 여자 아이 두 명도 있었는데, 인디오 말만 할 줄 알았다. 얘기를

들어 보면 그 애들은 직선거리로 1천6백 킬로미터도 넘게 떨어져 있는 살타로부터 온 것이 분명했다. 이로써 인디오들이 활보하던 지역이 얼마나 거대한지 감을 잡을 수 있다. 하지만 그 영역이 아무리 거대했다 해도 앞으로 반세기면 네그로 강 북쪽에서는 야성을 지닌 인디오가 사라질 것이다. 기독교인들은 인디오란 인디오는 다 죽이고 인디오들 역시 기독교인들에게 똑같이 대응하는 식의 이런 교전은 오래 지속하기에는 너무 처참하다. 인디오들이 스페인 침략자들 앞에 어떻게 무릎 꿇었는지를 되돌아보는 것은 우울한 일이다. 시르델[40]에 의하면, 1535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세워졌을 때는 인원이 2천~3천 명 정도 되는 원주민 마을이 몇 개 있었다. 포크너가 통치하던 시절(1750년)에도 인디오들은 룩산, 아레코, 아레시페까지 쳐들어왔으나, 지금 그들은 살라도 강 너머까지 밀려나 있다. 거의 대부분의 종족이 몰살되었을 뿐만 아니라 남아 있는 인디오들은 더욱 야만스러워져서, 큰 마을에 살며 낚시를 하거나 사냥에 끼어들기보다는 집이나 안정적인 직업 없이 평원을 방황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앞서 말한 전투보다 몇 주 앞서 촐레첼 섬에서 일어난 교전 이야기도 들었다. 그곳은 말이 지나가는 매우 중요한 지점이므로 한동안 사단 본부가 있던 곳이었다. 처음 도착한 군인들은 인디오 부족을 찾아 20~30명을 죽였다. 그 부족의 추장은 모든 사람들을 경악하게 한 방법으로 달아났다. 인디오 추장이라면 만일의 급한 상황에 대비해 엄선한 말 한두 마리는 가지고 있기 마련이었다. 추장은 그중 늙은 백마에 어린 아들을 데리고 올라탔다. 말에는 안장도 고삐도 없었다. 총격을 피하기 위해 추장은 소위 그 부족 특유의 방식으로, 즉 한 팔을 말의 목에 두르고 말 등에 한쪽 다리만 올린 채 말을 달렸다. 그는 그렇게 한쪽 면에 매달린 채 말의 머리를 가볍게 두드려 말을 걸면서 도망갔다. 추격자들은 온 힘을 다해 뒤쫓았다. 사령관도 세 번이나 말을 바꿔 타면서까지 추격했지만 모두 허사였다. 나이 든 인디오 부자는 무사히 탈출했다. 청동상

40 푸르차스의 《항해기 모음집》. 내 생각에 실제 연도는 1537년이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같은 모습의 벌거벗은 아버지와 그 아들이 그들을 추격하는 무리를 뒤로 따돌린 채 백마를 타고 마제파[41]처럼 달리는 모습을 상상해 보라. 얼마나 멋진 모습인가!

어느 날 한 군인이 부싯돌 조각으로 불을 붙이는 것을 보고 나는 그것이 화살촉의 일부라는 것을 바로 알아보았다. 군인 말로는 촐레첼 섬 근처에서 주웠다는데, 거기서는 그런 것을 흔히 주울 수 있다고 했다. 화살촉의 길이는 5~8센티미터 정도로 요즘 티에라델푸에고에서 쓰는 것보다 두 배 정도 컸다. 불투명한 크림색의 부싯돌로 만들어졌지만 끄트머리와 미늘 부분은 누군가 일부러 깨뜨린 모양이었다. 팜파스의 인디오들은 이제 활과 화살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다. 내 생각에는 반다오리엔탈 계통의 작은 부족은 예외이다. 하지만 그들은 팜파스 인디오들로부터는 멀찍이 떨어져 있고, 숲에 거주하는 종족들과 가까이 살고 있으며 주로 걸어서 다닌다. 따라서 이런 화살촉들은 남아메리카에 말이 들어오면서 생활 습성에 큰 변화가 있기 전에 살던 인디오들의 골동품[42] 유물인 것으로 보인다.

41 마제파Ivan Stepanovich Mazepa, 1687~1709. 우크라이나 카자흐족의 수장. 바이런의 서사시 및 리스트의 교향시 등의 소재가 되었다-역주.

42 아사라는 팜파스 인디오들이 활을 사용하긴 했는지에 대해서도 의심하고 있다.

● 비글호는 바이아블랑카에 들렀다가 부에노스아이레스로 출발했지만 다윈은 이번에도 육로로 이동하려고 바이아블랑카에 남았다. '멸종된 거대 동물들의 납골당'이라 할 만한 푼타알타에서 다윈은 대표적인 멸종 동물들을 언급한다. 신생대에 활동하던 자이언트 땅늘보의 일종인 메가테리움, 메갈로닉스, 스켈리도테리움, 다윈밀로돈, 그리고 지금의 아르마딜로나 말 따위와 비슷한 종들, 마크라우체니아나 톡소돈처럼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동물들의 화석을 찾아내면서 다윈은 지금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동물들과의 연관성을 집요하게 파고든다. 코끼리만 한 크기에 쥐 같은 치아 구조, 그리고 후피 동물이나 바다소목에 해당되는 특징들이 절묘하게 균형을 이루는 톡소돈 같은 고대 동물이 존재했다는 것은 분명 지금의 우리에게도 신기한 일이지 않을까?

다윈은 화석을 발견한 것에 만족하지 않고 그 동물들의 생활 습성에 대한 기존의 학설들과 새로운 학설(오언 교수)을 과감하게 대비시키고, 더 나아가 덩치가 큰 동물들이 먹고살려면 울창한 초목이 필요하다는 가설을 전면으로 반박했다. 그는 대부분이 초원이거나 사막인 남아프리카를 방문한 사람들의 여행기, 앤드류 스미스 박사의 탐험대가 알려온 소식 등을 근거로 거대한 네발 동물들에게 필요한 초목의 양이 과장되었다고 지적한다. 그리고 역으로 초목이 울창한 브라질의 삼림이라고 해서 거대한 네발 동물이 많지 않다는 것을 제시하여 포유동물의 몸크기와 서식지에 자라는 초목의 양 사이에는 상관관계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다. 이어 다윈의 관심을 사로잡은 것들은 타조, 뒷날 '다윈타조'로 명명된 아베스트루즈 페티제라는 타조 비슷한 새, 짧은부리도요새, 카사라(집 짓는 목수)와 카사리타(집 짓는 작은 목수)라는 이름의 오븐새 등 북부 파타고니아 평원에서 흔히 보이는 새들이었다. 다윈은 암타조들이 어떤 방식으로 많은 둥지에 여러 마리가 함께 알을 낳고 부화시키는지, 또 사람들이 사는 집 벽을 온통 구멍투성이로 만들어 놓은 카사리타의 어이없는 집짓기 방식등을 기술한다. 이 외에도 다윈은 작고 예쁜 3종의 아르마딜로, 살모사와 방울뱀의 중간쯤 되는 끔찍하게 생긴 뱀, '악마'라는 이름이 어울릴법하고 묘한 색깔인

데다 어이없게도 수영을 못 하는 두꺼비, 놀라게 하면 죽은 척하는 도마뱀 등 그 지역의 동물을 자세히 설명한다. 그러면서도 그 동물들이 동면에서 깨어나는 시기와 그때의 온도 등을 기록해 비슷한 기온에 속하는 몬테비데오에서는 대부분의 동물이 동면하고 있던 시기에 바이아블랑카에서는 만물이 활동하고 있었다는 점을 짚어내는 면밀함을 보여준다. 즉, 동물이 동면에서 깨어나는 것은 절대적인 기온이 아니라 평상시 기후에 대한 상대적인 변화에 따른 것이라는 점을 확인한 것이었다.

마지막으로 한쪽은 길쭉한 벌레 모양이고 한쪽은 절단된 줄기 같은 신기한 식충류 한 가지에 대해 설명한 다윈은 바이아블랑카에도 전해져 오는 로사스 장군과 인디오들의 교전 소식에도 무심할 수 없었다. 귀화한 인디오들로 이루어진 부대가 바이아블랑카에 진을 치고 야영을 했는데, 다윈의 눈에 비친 그들의 모습은 폭음을 하고 소의 피를 그대로 마시는 등 야만적이고 거칠기 짝이 없었다. 그 군대의 행로는 말 그대로 '살육의 행진'이었으며 점점 식민지배 세력에게 굴복하여 배신하는 인디오들이 늘어남에 따라 도망치는 인디오들의 퇴로는 점점 좁혀지고 있었다. 다윈은 다소 담담하게 자신이 들은 이야기를 기록하기도 하지만, 아이를 낳을 우려가 있는 스무 살 넘은 여자들도 모두 학살되었다는 사실만큼 충격적이고 잔인한 것도 없을 것이라고 덧붙인다. 그리고 그곳 사람들은 야만인과의 싸움이란 무엇보다도 정당한 전쟁이라고 전적으로 확신하고 있지만, "누가 요즘 같은 세상에 이렇게 잔인무도한 일이 문명화된 기독교 국가에서 자행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겠는가?"하며 탄식한다.

인디오들의 연락망은 그 때까지만 해도 코르디예라 산맥에서 대서양까지 뻗어 있을 정도였지만, 전쟁이 그 상태로 계속된다면 결과는 불보듯 뻔했다. 다윈은 처참한 전쟁을 한발짝 떨어져 지켜보며 그 거대하던 인디오들의 활동영역은 쪼그라들고, 야성을 지닌 인디오들 역시 역사에서 사라져갈 것임을 씁쓸하게 예견하고 있다. 우연히 발견한 인디오들의 화살촉 조각처럼, 한 문화가 이제 곧 '골동품'이 되어 버릴 운명에 처한 시절이었다.



바이아블랑카에서 부에노스아이레스로

제6장
바이아블랑카에서 부에노스아이레스로

부에노스아이레스로 출발–사우세 강–시에라데벤타나 산맥–세 번째 초소–말을 타고 질주–볼라–자고새와 여우–현지 풍경–장다리물떼새–테루테로새–쏟아지는 우박–시에라타팔겐 산맥에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울타리–퓨마 고기–육류 식단–가르디아델몬테 마을–소가 식물 분포에 미친 영향–카르둔–부에노스아이레스–소가 도살되는 우리

9월 8일 | 나는 부에노스아이레스까지 함께 갈 가우초 한 명을 구했는데, 이 사람을 찾기까지 꽤 힘들었다. 한번은 어떤 가우초의 아버지가 걱정스러운 마음에 허락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 또 어떤 가우초는 함께 가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겁쟁이라는 소문이 들려 데려가기가 불안했다. 이 사람은 멀리서 타조만 보여도 인디오인 줄 알고 바람같이 달아난다는 얘기가 들렸기 때문이다. 여기서 부에노스아이레스까지는 대략 640킬로미터를 가야 한다. 거의 모든 길이 사람이 살지 않는 지역으로 나 있다. 우리 일행은 아침 일찍 출발했다. 바이아블랑카는 초록빛 풀밭이 펼쳐진 분지 위에 있다. 이곳에서 대략 1백 미터를 올라가니, 황량하고 삭막한 평원이 드넓게 펼쳐졌다. 평원은 부스러지는 석회질 점토로 된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다. 기후가 건조하기 때문에 시들어 가는 풀만 드문드문 보일 뿐이다. 이 무미건조한 풍경을 깨뜨릴 만한 수풀이나 나무 한 그루 보이지 않는다. 맑은 날씨인데도 이상하게 안개가 낀 것처럼 공기가 흐릿해서 나는 폭풍이 다가올 징조일까 생각했다. 그런데 가우초들 얘기로는, 멀리 내륙 쪽 평원에서 피운 불 때문에 공기가 뿌옇게 보일 뿐이라고 한다. 말을 두 번이나 갈아타며 전속력으로 한참을 달려 사우세 강에 도착했다. 사우세 강은 폭이 겨우 7.6미터 정도 되는 작은 하천으로 물이 깊고 물살이 급하게 흐르고 있다. 부에노스아이레스까지 가는 길에 세워진 제2초소가

이 강둑에 있다. 초소 조금 위쪽으로는 강물이 말의 배 높이보다 얕아서 말이 충분히 건널 수 있다. 그러나 거기서 바다로 이어지는 방향은 강물이 깊어 도저히 건너갈 수 없다. 때문에 강물이 인디오의 침입을 막는 아주 훌륭한 방벽의 구실을 하고 있다.

사우세 강은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정확한 정보를 갖고 있는 예수회 선교사 포크너는 안데스 산맥의 기슭이 발원지인 상당히 큰 강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 강의 발원지에 대해서는 가우초들이 나에게 들려준 얘기와도 맞아떨어지므로 확실하다고 생각된다. 가우초들이 나에게 장담한 바로는 리오사우세 강은 건조한 한여름에도 콜로라도 강과 동시에 주기적으로 홍수가 나는데, 이 홍수는 안데스 산맥에서 녹은 눈에 의해서만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이다. 사우세 강처럼 작은 하천이 넓은 대륙 전체를 가로질러 흐르는 것은 사실 불가능하다. 게다가 큰 강의 지류라면 다른 사례들에서 확인되듯 강물에 염분이 있었을 것이다. 따라서 겨울 동안에 이 강의 맑고 깨끗한 물의 수원지는 분명 시에라데라벤타나 산맥 근처일 것이다. 내 추측으로는 오스트레일리아의 평원처럼 파타고니아 평원에도 어느 시기에만 물이 흐르고 말라 버리는 물길이 많이 나 있을 것이다. 아마 데지레 항의 포구로 흘러드는 물도 이런 물길에서 시작되었을 것이다. 또 추팟 강도 마찬가지다. 측량에 참가했던 사관들이 추팟 강의 기슭에서 기공이 많이 뚫려 있는 스코리아[1]를 대량 발견하기도 했다.

도착하니 오후 이른 시간이었다. 우리는 기운이 넘치는 말로 바꿔 타고 군인 한 사람을 안내인 삼아 시에라데라벤타나 산맥을 향해 출발했다. 이 산은 바이아블랑카에 비글호가 정박해 있는 곳에서도 보인다. 피츠로이 함장은 이 산의 높이가 어림잡아 해발 1킬로미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남아메리카 대륙의 이곳 동쪽 지역에서는 보기 드물게 높은 산이다. 내가 이곳에 오기 전, 이 산을 올라간 외지인이 있었는지는 모르겠다. 게다가 바이아블랑카에 있는 군인들도 이 산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다. 때문에 석탄층과 금은 광맥,

1 많은 기공氣孔을 가진, 무겁고 어두운 색을 띤 유리질의 화산쇄설성 화성암火成巖–역주.

동굴, 숲 등에 대한 얘기를 듣고 호기심에 불타올랐던 우리는 실망하고 말았다. 초소까지는 지금까지와 똑같은 풍경의 평탄한 평원을 지나 약 29킬로미터 정도 떨어져 있다. 그래도 말을 타고 갈 때 산이 참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해 재미있었다. 우리가 주 봉우리 기슭에 도착했을 때는 물을 찾기가 너무 어려워서 물 한 방울 없이 밤을 보내야 할 것만 같았다. 산속으로 깊이 들어가서 찾아본 끝에 드디어 물을 조금 발견했다. 왜냐하면 3백 미터 근방에서는 작은 개울물까지도 버슬버슬한 석회질 암석과 푸석푸석한 암설巖屑에 파묻혀 없어져 버렸기 때문이다. 대자연이 이보다 더 외롭고 황량한 바위산을 만든 적이 있을까. 격리되어 있다는 뜻의 '우르타도'라는 이름이 붙여질 만하다. 이 산은 경사가 가파를 뿐 아니라 바위가 많고 황폐하다. 나무 한 그루, 수풀 하나도 없어서 엉겅퀴 줄기[2]로 불을 피웠는데, 고기를 불에 굽기 위해 끼울 꼬챙이 하나 만들 수가 없었다. 이 산의 색다른 모습은 바다같이 평탄한 평원과 대조를 이룬다. 이 산은 가파른 산허리를 끼고 있으며 평행한 산맥을 갈라놓고 있다. 전체적으로 단조로운 색깔의 풍경은 아주 적막해 보인다. 석영질 암석은 희끄무레한 회색빛을 띠고 있으며 평원의 시든 풀은 연갈색을 드러내고 있는데, 이 풍경 속에서는 선명한 밝은 색깔은 전혀 눈에 띄지 않는다. 보통 높고 가파른 산 부근에서는 거대한 파편들로 뒤덮여 울퉁불퉁한 지대가 발견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데 여기에서 자연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바에 따르면, 해저海底가 육지로 변하는 마지막 단계가 고요한 활동일 수도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자갈이 모암으로부터 얼마나 먼 곳에서 발견될 수 있는지 궁금했다. 바이아블랑카 해안과 거주지 근처에서 석영질 자갈을 볼 수 있는데, 분명히 이 산의 모암에서 온 것으로 보인다. 산까지의 거리는 대략 72킬로미터이다.

어젯밤 우리가 덮고 잠들었던 안장깔개에 젖어 있던 이슬이 아침에 보니 얼어버렸다. 평평해 보이는 평지이지만 해발 240미터에서 270미터 높이까지 눈

2 이 식물에 대한 더 정확한 이름이 없어서 엉겅퀴 줄기라 부른다. 내 생각에는 에린지움의 일종이다.

에 띄지 않을 정도로 경사져 있다. 9월 9일 아침, 안내인이 가장 가까운 능선을 타자고 했다. 가이드는 이 능선을 타면 정상을 이루는 네 봉우리에 오를 수 있다고 생각했다. 이렇게 험한 바위산을 오르는 것은 무척 힘들다. 산허리가 톱니 모양으로 들쭉날쭉하기 때문에 힘들게 올라간 길이 헛수고일 때가 많다. 드디어 산마루에 섰을 때 나는 완전히 실망하고 말았다. 깎아지른 듯한 골짜기가 평지까지 깊이 패어 있어서 산맥을 가로로 둘로 갈라놓고 있었다. 이 골짜기가 정상을 이루는 네 봉우리와 나를 가로막고 있었다. 이 골짜기는 폭이 아주 좁지만 바닥이 평평하다. 또 산맥의 북쪽 평원과 남쪽 평원을 연결해 주므로 인디오들에게는 말을 타고 가는 좋은 통로가 되고 있다. 산마루에서 내려와 골짜기를 건너는데 말 두 마리가 풀을 뜯고 있었다. 나는 곧바로 키가 큰 풀 사이에 몸을 숨기고 주위를 샅샅이 살피기 시작했다. 그런데 인디오의 흔적이 아무것도 없어 조심스럽게 다시 다른 봉우리로 올라가기 시작했다. 시간은 한낮이 지나고 있었다. 여기도 역시 산은 가파르고 험했다. 오후 2시쯤 두 번째 산봉우리 정상에 겨우겨우 힘들게 도착했다. 대략 18미터 정도 걸을 때마다 양쪽 허벅지 위쪽에 근육 경련이 일어나서 나는 산을 내려갈 수 있을지 걱정이 되었다. 말안장 모양으로 생긴 산등성이를 타고 내려가는 것은 불가능했기 때문에 다른 길로 돌아가야 했다. 그래서 더 높은 봉우리 두 개를 오르는 것은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사실 이 두 봉우리는 높이는 조금 더 높았지만, 지질학적인 조사 목적은 이미 다 이루었기 때문에 힘들게 오를 필요가 없었다. 내 생각에 산을 오를 때 근육 경련이 일어난 것은 말을 심하게 타다가 훨씬 더 격렬한 등산을 하면서 근육의 움직임이 크게 변화한 데 원인이 있는 것 같다. 심각한 곤란을 줄 수도 있는 상황이므로 기억해 둘 만한 경험이었다.

앞서 이야기했듯 이 산은 하얀 석영질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조금 반질반질한 점판암[3]이 석영질과 섞여 있다. 평원에서 약 1백 미터 가까이 올라가면, 역암 파편들이 암반에 붙어 있는 것이 여러 곳 발견된다. 이 암석들은 단

3 장력 강도와 내구력이 큰 얇은 판으로, 쉽게 쪼개지는 세립의 점토질 변성암-역주.

단한 정도나 모이는 성질을 볼 때, 바닷가에서 날마다 끊임없는 퇴적 작용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자갈과 비슷하다. 바닷가의 자갈들은 주변의 바다 밑에 거대한 석회암 지층이 퇴적되고 있는 시간 동안에 비슷한 방식으로 만들어져서 모이는 것이 분명하다. 단단한 석영의 들쭉날쭉하게 마모된 모양은 넓은 대양에서 치는 파도의 영향을 보여 주는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나에게 이번 등산은 전반적으로 실망스러웠다. 경치마저 시시했다. 평원은 바다처럼 넓었지만 멋진 색조나 뚜렷한 능선도 없었다. 그렇긴 해도 색다른 등반이었다. 등반에서 겪었던 약간의 위험은 고기에 소금을 치듯 여행의 맛을 더해 주었다. 사실 별로 위험스럽지 않았다. 왜냐하면 함께 갔던 두 사람이 마음 놓고 불을 피웠기 때문이다. 이곳 사람들은 인디오가 근처에 있는지 의심스러울 때는 절대 그곳에서는 불을 피우지 않는다. 해 질 무렵 우리가 야영할 장소에 도착했다. 나는 마테 차를 많이 마시고 담배 몇 개비를 피웠다. 그리고 바로 잠자리를 준비했다. 찬바람이 아주 세게 몰아쳤지만, 나는 더없이 편안하게 잠을 잤다.
9월 10일 | 아침에 출발해 강풍을 받으며 달려 한낮에 사우세 초소에 도착했다. 오는 길에 사슴을 많이 봤다. 산 근처에서는 과나코도 한 마리 보았다. 시에라 산맥에 접해 있는 평원 위로 신기한 협곡 몇 개가 가로질러 흐르고 있다. 그 가운데 협곡 하나는 폭이 약 6미터에 깊이가 적어도 9미터는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건너갈 곳을 찾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멀리 돌아가야 했다. 우리 일행은 초소에서 밤을 보냈다. 화제는 당연히 인디오에 대한 것이었다. 예전에는 시에라데라벤타나 산맥에 사람이 많이 붐볐다고 한다. 그런데 3, 4년 전에 이곳에서 큰 전투가 벌어졌다. 내 안내인도 거기에 있었는데, 인디오들이 많이 죽었다고 한다. 여자들은 산마루 위로 도망가서 큰 돌을 가지고 필사적으로 싸워 많은 수가 목숨을 건졌다고 한다.
9월 11일 | 제3초소를 지휘하고 있는 대위와 함께 제3초소로 향했다. 거리는 대략 72킬로미터라고 하는데 어림짐작일 뿐이고 허풍이 더해진 것이다. 마른

풀로 덮인 평지에 나 있는 길은 지루했다. 우리가 달리는 길 왼편으로 쭉 멀리까지 낮은 산들이 있었다. 계속 이어져 있는 낮은 산을 넘어 초소 가까이 갔다. 초소에 도착하기 전에 군인 열다섯 명이 몰고 오는 큰 무리의 말과 소를 마주쳤다. 그런데 군인들 얘기로는, 오다가 말과 소를 많이 잃어버렸다고 한다. 동물들을 몰고 평원을 건너가기는 아주 힘들다. 왜냐하면 밤에 퓨마나 여우라도 다가오면 말들이 사방으로 뿔뿔이 흩어지는데 막을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폭풍이 불 때도 마찬가지다. 얼마 전 사관 한 사람이 말 5백 마리를 몰고 부에노스아이레스를 떠났는데, 초소에 도착했을 때는 말이 20마리도 채 남지 않았다.

조금 뒤 먼지가 구름처럼 일어나는 것을 보고 말 탄 사람들 한 무리가 우리 쪽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을 알아챘다. 나와 동행한 사람들은 긴 머리가 등 뒤에 치렁치렁 늘어져 있는 것을 보고 멀리서도 그들이 인디오라고 알아봤다. 인디오들은 보통 머리 둘레를 가느다란 끈을 매고 다른 장식은 하지 않는다. 가무잡잡한 얼굴 위에 검은 머리가 휘날리면 인디오들은 정말 야만적이고 거칠어 보인다. 이들은 베르난티오와 친한 부족 사람들로서 소금을 구하러 함수호[4]로 가고 있는 길이라고 한다. 인디오들은 소금을 많이 먹는 습성이 있는데, 어린아이들은 소금을 설탕 먹듯이 빨아 먹는다. 이러한 습성은 스페인 계통의 가우초와는 아주 다른 것이다. 가우초는 인디오와 똑같은 방식의 생활을 하고 있지만, 소금을 거의 먹지 않는다. 멍고 파크[5]에 따르면, 소금을 끊임없이 먹으려는 욕구는 채식을 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습성이라고 한다. 인디오들은 우리에게 상냥하게 고개를 끄덕여 인사하며 말을 타고 전속력으로 지나갔다. 그 뒤에는 여윈 개들이 뒤따랐다.

9월 12일, 13일 | 나는 로사스 장군이 친절을 베풀어 군인들을 보내 주겠다고

4 침전된 후 건조되어 반짝거리는 고농도 상태의 소금이 있는 건조한 사막의 호수–역주.

5 《아프리카 여행기》, 233쪽–원주.
멍고 파크Mungo Park, 1771~1806. 스코틀랜드의 탐험가–역주.

해서, 군인들을 기다리며 초소에서 이틀간 머물렀다. 이 군인들은 부에노스아이레스까지 짧게 이동하는데, 로사스 장군은 나에게 군대의 호위를 받도록 권했다. 아침에 우리는 주변을 구경하고 지질 조사도 할 겸 근처에 있는 낮은 산에 올라갔다. 저녁을 먹은 뒤 군인들은 두 편으로 나눠 볼라 기술을 겨뤘다. 창 두 개를 대략 23미터 간격으로 땅에 꽂아 놓고 시합을 벌였는데, 네댓 번 시도해서 겨우 한 번 정도 볼라가 창을 맞히고 감겼다. 볼라에 달린 공은 45미터에서 55미터 정도 날아갈 수 있는데, 정확도가 아주 낮다. 하지만 말을 타고 던질 때는 사정이 다르다. 볼라를 던지는 팔 힘에 말의 속도가 더해져서 73미터 거리까지 핑핑 날아갈 수 있다. 볼라의 위력을 보여 주는 이야기가 있다. 포클랜드 제도에서 있었던 일이다. 스페인 사람들이 그 지역 사람 몇 명과 영국인 전부를 몰살할 때, 마음 약한 스페인 젊은이 한 명이 달아나고 있었다. 루치아노라는 키가 아주 큰 남자가 쏜살같이 쫓아가서 할 얘기가 있으니 멈추라고 소리쳤다. 스페인 젊은이가 배에 닿으려는 순간, 루치아노가 볼라를 던졌다. 볼라는 젊은이의 다리를 확 휘감았고, 젊은이는 쓰러져서 잠깐 기절하고 말았다. 루치아노가 잠깐 젊은이와 얘기를 나누고는 도망가도록 해 주었다. 루치아노가 우리에게 들려준 얘기로는, 그 젊은이의 양쪽 다리에 볼라 가죽끈이 감긴 자리에 큰 채찍 자국이 뚜렷이 나서 채찍질을 당한 사람 같았다고 한다. 장군에게 보낼 소포를 가지고 다음 초소에서 온 군인 두 명이 한낮에 도착했다. 이 두 남자 외에 오늘 저녁 우리 일행은 내 안내인과 나, 대위와 그의 부하 네 명이다. 대위의 부하 네 명은 낯선 사람들이었다. 첫 번째 사람은 건강한 젊은 흑인이고, 두 번째 사람은 인디오와 흑인 혼혈이다. 나머지 두 사람은 정확히 설명하기 힘든데, 한 사람은 칠레 출신의 늙은 광부로 적갈색 피부를 갖고 있다. 다른 한 사람은 흑백 혼혈로 보인다. 그런데 이 두 사람처럼 혐오스러운 표정을 드러내는 혼혈을 나는 본 적이 없다. 밤이 되자 군인들은 불 주위에 둘러앉아 카드놀이를 했는데, 물러앉아서 보니 그 풍경이 마치 로

사[6]의 그림과도 같았다. 사람들은 낮은 절벽 아래쪽에 앉아 있어 내려다볼 수 있었다. 그들이 둘러앉은 주변에는 개들이 누워 있고, 무기가 놓여 있다. 또 사슴과 타조 고기가 널려 있고, 긴 창이 풀밭 위에 꽂혀 있다. 멀리 어두운 뒤쪽으로는 갑작스러운 위험에 대비해 말들을 묶어 놓았다. 만약 개 짖는 소리가 황량한 평원의 적막을 깨뜨릴 때면 군인 한 명이 불 옆에서 일어나 땅에 머리를 바짝 대고 지평선 쪽을 천천히 살펴본다. 시끄러운 테루테로새의 소리만 들려도 모두 대화를 잠시 멈추고 잠깐 동안 머리를 숙인다.
우리가 보기에 이 군인들의 생활은 얼마나 비참한가! 이들은 사우세 초소로부터 적어도 48킬로미터는 떨어져 있다. 사우세 초소에서 인디오들의 만행이 일어난 이후에는 그다음 초소로부터 96킬로미터 거리에 있다. 인디오들은 한밤중에 공격했던 것으로 추측된다. 왜냐하면 만행을 저지른 뒤 아주 이른 아침에 이 초소 쪽으로 다가오는 것이 다행히 목격되었기 때문이다. 여기 있는 군인들은 그 당시 함께 말을 몰아 도망쳤다. 그리고 있는 힘을 다해 할 수 있는 한 많은 동물들을 몰고 달아났다.
군인들이 잠을 잔 오두막집은 엉겅퀴 줄기로 지은 것인데, 비도 바람도 막아주지 못했다. 오두막집 지붕 위에 비가 내리면 오히려 더 굵은 빗줄기가 되어 떨어졌다. 이들은 타조나 사슴, 아르마딜로 등 직접 잡아서 먹는 것 외에는 먹을 게 아무것도 없었다. 유일한 땔감은 용설란과 조금 비슷한 작은 식물의 마른 줄기뿐이었다. 이들이 즐기는 사치품이라면 작은 종이 담배와 마테 차뿐이다. 이 황량한 평원에서는 죽은 짐승의 고기를 먹는 독수리들이 사람을 계속 따라다닌다. 근처 작은 절벽 위에 앉아 끈기 있게 지켜보고 있는 독수리들은 마치 "아! 인디오들이 몰려오면 우리가 잔칫날처럼 배불리 먹을 수 있을 텐데"라고 말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아침에 우리 모두는 사냥을 나섰다. 많이 잡지는 못했지만 생생한 추격전이

6 살바토르 로사Salvator Rosa, 1615~1673. 이탈리아 바로크 시대 화가. 거칠고 낭만적이거나 장엄한 풍경화로 유명하다–역주.

몇 번 있었다. 출발하자마자 우리 일행은 여러 방향으로 갈라졌다. 그러고는 정해진 시간에 (기술을 충분히 발휘할 것이라고 가정할 때) 각각 다른 방향으로부터 원을 그리며 둘러싼 다음 야생동물들을 함께 몰아가기로 했다. 예전에 나는 바이아블랑카에서 사냥을 나간 적이 있었다. 거기서 사람들은 초승달 모양으로 대열을 이루어 말을 몰고 전진했는데, 서로 4백 미터 정도 거리를 두고 나아갔다. 맨 앞에 달리던 사람들이 큼직한 수컷 타조 한 마리를 몰고 있었는데, 이 타조가 옆으로 달아나려고 했다. 가우초들은 멋진 솜씨로 말을 몰면서 머리 위로 볼라를 빙빙 돌리며, 엄청난 속도로 타조를 추격했다. 드디어 맨 앞에 가던 가우초들이 볼라를 던졌다. 볼라는 공중을 빙빙 돌며 날아갔다. 눈 깜짝할 사이에 타조가 데굴데굴 굴렀다. 타조의 다리가 볼라의 가죽끈에 친친 감겨 버렸다. 이 평원에는 세 종류의 자고새[7]가 많이 살고 있는데, 그 가운데 두 종류는 암꿩만큼 크다. 자고새를 잡아먹는 작고 예쁜 여우 또한 아주 많아서 하루에 적어도 40~50마리는 눈에 띈다. 보통 여우 굴 근처에 있는데, 개들이 여우 한 마리를 잡아 죽였다. 우리가 초소로 돌아왔을 때 일행 가운데 두 명이 사냥을 마치고 돌아와 있었다. 이들은 퓨마 한 마리를 잡았다. 또 타조 알이 27개나 들어 있는 타조 둥지를 찾아냈다. 타조 알 하나가 달걀 열한 개의 무게와 같다고 한다. 그러니 우리는 둥지 하나에서 무려 297개의 달걀을 얻은 셈이 되었다.

9월 14일 | 다음 초소 소속의 군인들이 돌아갈 채비를 하자, 우리 일행은 다섯 명이 완전 무장을 하고 뭉쳐야 했다. 나는 장군이 보내 주기로 한 군인들을 더 이상 기다리지 않기로 했다. 나를 맞아 주던 제3초소를 관할하는 대위가 더 머무를 것을 청했다. 대위는 나에게 먹을 것을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개인 소유의 말들도 빌려주는 등 많은 친절을 베풀어 주어, 나는 조금이라도 보답하고 싶었다. 내 안내인에게 보상해도 될지 물어보자, 절대 안 된다고 했다. 보상을

7 도요타 조류 2종과 도르비니의 꼬마물떼새Eudromia elegans가 살고 있는데, 습성으로 보아 자고새로 분류할 수 있다.

하려 하면 "우리나라에는 개에게 줄 고기도 충분합니다. 그러니 기독교도에게 주는 것은 아까울 것이 없어요"라는 대답만 듣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 나라 군대에서 대위라는 계급이 보상액을 조금 받는 것을 거절할 정도는 분명 아닐 것이다. 이 지역을 여행하는 여행자는 어느 곳에서나 베풀어 주는 친절과 환대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 말을 몰고 10여 킬로미터 질주하자 낮은 늪지대를 만났다. 이 늪지대는 시에라타팔겐 산맥까지 북쪽으로 거의 130킬로미터에 걸쳐 뻗어 있다. 늪지대는 풀로 덮여 있고 습기가 있는 널따란 평원도 있고, 부드럽고 검은 이탄질 토양도 있다. 또 넓고 얕은 호수도 많고, 넓은 갈대밭도 있다. 이 지역은 전체적으로 케임브리지셔 지방의 소택지와 많이 닮았다. 밤이 되어 우리는 야영하기 위해 늪지대에서 건조한 땅을 찾느라 꽤 고생했다.

9월 15일 | 아주 이른 아침에 일어났다. 곧바로 인디오들이 군인 다섯 명을 살해했다는 초소를 지나게 되었다. 한 군인의 시체에는 인디오의 창에 찔린 곳이 열여덟 군데나 되었다. 전속력으로 말을 달린 덕분에 한낮이 되어 제5초소에 도착했다. 그런데 말을 구하기가 힘들어 그날 밤을 묵게 되었다. 이 지점은 전체 경로를 통틀어 가장 많이 위험에 노출된 곳이기 때문에 스물한 명의 군인이 배치되어 있다. 군인들은 해 질 무렵 사냥을 마치고 돌아왔는데, 사슴 일곱 마리, 타조 세 마리, 그리고 아르마딜로와 자고새를 많이 잡아왔다. 이 지역에서는 말을 타고 다닐 때 평원에 불을 피우는 습관이 있어, 밤이 되면 지평선은 여기저기서 피운 밝은 불빛으로 환해졌다. 불을 피우는 것은 갑자기 나타나는 인디오를 궁지에 몰려는 목적도 있지만, 목초지의 토질을 향상시키려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반추동물이 없는 초원에서는 남아 있는 풀을 불로 태워서 다음 해에 풀이 잘 자라도록 해줄 필요가 있다.

이곳의 오두막은 지붕도 없고, 바람을 막기 위해 엉겅퀴 줄기로 둘러쳤을 뿐이다. 오두막은 넓고 얕은 호숫가에 지어져 있다. 이 호수에는 엽조류가 떼를 지어 살고 있는데, 그 가운데에도 검은목고니가 눈에 띄었다. 물떼새의 한 종

류인데, 죽마竹馬[8]를 타는 모양을 하고 있는 장다리물떼새Himantopus nigricollis가 여기에는 엄청나게 많이 떼 지어 살고 있다. 우아하지 않은 새로 잘못 알려져 있지만, 이 새가 얕은 물을 건너가는 것을 보면 멋진 걸음걸이를 볼 수 있다. 이 새들이 떼로 모여 내는 소리는 마치 작은 개의 무리가 몰려가며 내는 소리와 똑같다. 나는 밤에 걸어 다니다가 몇 번이나 멀리서 들리는 새소리에 놀랐다. 밤의 정적을 깨는 새가 또 있는데 바로 테루테로새Vanellus cayanus이다. 생김새나 습성은 많은 점에서 영국의 댕기물떼새를 닮았다. 그런데 보통 수탉의 다리에 있는 것과 비슷한 날카로운 며느리발톱이 날개에 달려 있다. 댕기물떼새의 새 이름도 울음소리에서 지어졌는데, 테루테로새도 그렇다. 말을 타고 초원을 달릴 때면 테루테로새가 계속 쫓아온다. 한결같이 날카롭고 귀에 거슬리는 울음소리를 쉬지 않고 내며 따라오는 것을 보면, 이 새는 사람을 싫어하는 것 같다. 사냥감이 될 새나 동물에게 사냥꾼이 다가오는 것을 알아채게 하므로, 사냥꾼에게 테루테로새는 아주 성가신 존재이다. 반대로 몰리나가 말하듯, 이 지역을 지나는 여행자에게는 한밤중의 강도를 알려 주므로 도움이 되는 새이다. 테루테로새는 댕기물떼새처럼 부화기가 되면 다친 것처럼 위장해 개나 다른 천적을 둥지에서 유인해 끌어낸다. 테루테로새의 알은 아주 맛있다고 한다.

9월 16일 | 시에라타팔겐 산맥 기슭에 있는 제7초소로 갔다. 이 지역은 풀이 거칠게 나 있고, 부드러운 이탄질 토양으로 되어 있으며, 꽤 평평하다. 초소로 쓰이는 오두막은 아주 솜씨 좋게 만들어져 있다. 기둥과 서까래는 여남은 개의 마른 엉겅퀴 줄기를 가죽끈으로 묶어 만든 것이다. 이렇게 만든 이오니아식 기둥이 갈대로 엮은 지붕과 벽을 받치고 있다. 여기에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증거가 조금이라도 없었다면 믿어지지 않았을 이야기를 들었다. 바로 전날 밤 작은 사과 크기의 우박이 심하게 떨어져서 많은 야생동물들이 죽었다

8 2개의 긴 대나무 막대기에 나지막하게 발판을 각각 붙여 발을 올려놓고 위쪽을 붙들고 걸어다닐 수 있게 만든 것-역주.

는 것이다. 한 사람은 죽어 있는 사슴을 열세 마리나 주워 왔는데, 나도 갓 벗겨 낸 사슴 가죽을 볼 수 있었다. 우리가 도착한 지 몇 분 지나자 또 다른 팀이 일곱 마리를 더 주워 왔다. 내가 알기로, 개가 없이 혼자서는 일주일에 사슴 일곱 마리도 잡기가 힘들다. 여기 사람들은 죽어 있는 타조를 열다섯 마리 정도 보았다고 한다. 그중 한 마리는 저녁으로 먹었다. 얘기를 들어보니 한쪽 눈이 멀어서 뛰어다니는 타조도 몇 마리 있었다고 한다. 오리, 매, 자고새 등 작은 새들도 많이 죽었다. 나는 도로에 까는 돌로 맞은 것처럼 등에 검은 자국이 있는 자고새 한 마리를 보았다. 오두막을 둘러싼 엉겅퀴 줄기 담장이 거의 다 망가져 버렸다. 나에게 그 이야기를 들려준 사람도 우박이 내릴 때 무슨 일인가 밖으로 머리를 내밀었다가 심하게 맞아서 지금은 붕대를 감고 있다. 폭풍우는 제한된 지역에만 쏟아졌다고 한다. 우리는 어젯밤 야영지에서 이쪽 방향의 짙은 구름과 번개를 분명히 보았다. 사슴같이 튼튼한 동물이 우박을 맞아 죽었다니 이상한 일이긴 하다. 그래도 눈앞의 증거들을 보면 조금도 허풍이 아니다. 또 예수회 선교사인 도브리즈호펜[9]이 들려준 이야기를 들으면 믿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도브리즈호펜에 따르면, 여기에서 북쪽으로 한참 올라간 지역에서 어마어마하게 큰 우박이 떨어져 소들이 아주 많이 죽었다는 것이다. 여기서 유래하여 인디오들은 그 지역을 '작고 하얀 것'이라는 뜻을 가진 '랄레그라이카발카'라고 부른다. 말콤슨 박사도 1831년 인도에서 우박이 쏟아져 큰 새들이 많이 죽고 소들도 심하게 다친 것을 보았다고 말해 주었다. 이때 쏟아진 우박은 모양이 납작했는데, 둘레가 25센티미터가 되는 것도 있고, 무게가 57그램까지 나가는 것도 있었다고 한다. 우박은 총탄이 쏟아지듯 자갈길을 파헤쳐 놓았다. 우박이 꿰뚫고 간 유리창은 깨지지는 않으면서 동그란 구멍이 뚫렸다.

우박에 맞아 죽은 짐승의 고기로 저녁을 먹은 다음, 우리는 시에라타팔겐 산맥을 넘어갔다. 이 산맥은 높이가 대략 1백 미터 정도인 낮은 산들로 이어져

9 《아비포네스 강의 역사》 2권, 6쪽.

있으며 코리엔테스 곶에서 시작된다.[10] 이곳의 암석은 순수한 석영인데, 동쪽으로 더 가면 화강암 암석일 것으로 추측된다. 낮은 산들은 형태가 특이하게도 대지처럼 평평한 땅으로 이루어져 있다. 또 퇴적암을 보면 새로운 지층이 오래된 지층에 둘러싸여 있는 것처럼, 낮은 절벽으로 둘러싸여 있다. 내가 올라간 산은 지름이 약 180미터를 넘지 않는 작은 산인데, 더 큰 산들도 주위에 있다. '울타리'라는 이름을 가진 이 산은 지름이 3, 4킬로미터가 넘고, 들어오는 길 외에는 높이가 9미터에서 12미터 되는 절벽으로 둘러싸여 있다. 포크너에 의하면, 인디오들이 야생말들을 이 안에 몰아넣고 보호했다고 한다. 이곳 말고는 석영질로 된 대지 형태의 지형에 대해 들어 본 적이 없다. 이곳에서는 벽개면劈開面이나 층리가 발견되지 않았다. '울타리'를 이루는 절벽의 암석은 하얀색이며, 부딪치면 불이 일어난다고 한다.

어두워져서야 타팔겐 강에 있는 초소에 도착했다. 저녁 식사 때, 누군가 나에게 지금 먹고 있는 요리가 송아지로 태어나기 훨씬 전의 태아로 만든 이 고장의 인기 요리라고 말해서 소름이 끼쳤다. 그런데 요리의 재료는 사실 퓨마였다. 하얀 살코기가 송아지 고기와 맛이 비슷했다. 쇼 박사는 "퓨마 고기는 색깔과 맛, 풍미에서 송아지 고기와 아주 달라서 인기가 좋다"라고 말해서 조롱거리가 되었다. 사실 퓨마 고기는 송아지 고기와 아주 비슷하다. 재규어 고기의 맛에 대해서는 가우초들의 의견이 엇갈렸으나, 퓨마 고기가 뛰어나게 맛있다는 데에는 만장일치다.

9월 17일 | 타팔겐 강을 따라가다가 아주 비옥한 지역을 지나자 아홉 번째 초소가 나타났다. 타팔겐 지역은 인디오들의 솥 모양으로 지은 오두막인 톨도스가 끝없이 흩어져 있는 평원이다. 로사스 편에서 싸우는 호의적인 인디오 가족이 여기에 살고 있다. 인디오 처녀 두세 명이 말 한 마리에 타고 가는 모습이 많이 보인다. 그들은 남자 인디오 젊은이처럼 눈에 띄게 예뻤다. 혈색 좋은 얼굴은 건강하다는 표시다. 인디오 주거지를 벗어나면 집이 세 채가 있다. 하

10 포크너, 《파타고니아》, 70쪽.

나는 사령관이 살고, 나머지에는 작은 가게를 하는 스페인 사람이 살고 있다. 이 가게에서 비스킷을 살 수 있었다. 며칠 동안 고기만 먹던 참이다. 이런 식생활을 싫어한 것은 아니지만 힘들게 익숙해졌다. 영국에서는 환자에게 육류만 먹으면 병이 낫는다고 해도 견뎌 낼 사람이 드물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그러나 팜파스의 가우초들은 몇 달 동안 쇠고기만 먹고 지낸다. 그렇지만 이들은 동물성이 적은 지방을 많이 먹고, 아구티[11]의 마른 고기 같은 것은 특히 싫어한다. 리처드슨 박사에 의하면,[12] "기름기 없는 고기만 장기간 섭취하면, 지방에 대한 섭취 욕구가 엄청나게 커져서 순수한 기름 덩어리도 메스꺼워하지 않고 먹게 된다"고 한다. 이는 아주 흥미 있는 생리학적 사실이다. 가우초들이 다른 육식동물처럼 음식을 먹지 않고도 오래 견딜 수 있는 것은 육류를 주식으로 하는 식단 때문인 듯싶다. 탄딜[13]에서 인디오를 추적한 군인들이 사흘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가게에는 인디오 여자들이 짠 말 옷, 허리띠, 발목을 묶는 띠 등이 있다. 화려한 색깔에 아주 예쁜 물건들이었다. 이곳에서 만든 발목 띠를 보고,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영국 상인은 영국에서 만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동물의 힘줄을 찢어 술 장식을 고정했다는 사실이 밝혀져서, 이곳 인디오의 작품임이 드러났다.

9월 18일 | 말을 타고 먼 길을 갔다. 살라도 강에서 34킬로미터 남쪽에 위치한 열두 번째 초소에 도착했다. 이곳에 있는 대농장에서 소와 백인 여성을 처음으로 보았다. 그 후 말의 무릎 높이까지 물이 찬 홍수 지역을 한참 동안 말을 타고 가야 했다. 말의 등 위에 가로로 걸터 앉아 무릎을 굽히니 그렇게 젖지는 않았다. 캄캄해져서야 살라도 강에 도착했다. 폭이 37미터 정도 되는 깊은 강이다. 그러나 여름에는 강물이 거의 마르는데, 그때는 조금 남은 강물이 바닷

11 쥐목 아구티과 아구티속을 이루는 약 6종의 열대 아메리카산 동물-역주.

12 《북아메리카 북극 지방의 동물》 1권, 35쪽.

13 라플라타 강 남쪽-역주.

물처럼 짠맛이 난다. 로사스 장군 소유의 대농장 가운데 한 곳에서 잠을 잤다. 캄캄해서 그런지 농장은 마치 요새 같았다. 다음 날 아침, 어마어마하게 많은 소를 보았다. 로사스 장군은 이 지역에 1천7백 제곱킬로미터의 땅을 소유하고 있다. 예전에는 이 농장에서 3백 명 정도의 남자들이 일을 하며 인디오들을 막았다.

9월 19일 | 구아르디아델몬테를 지나갔다. 이곳은 복숭아나무와 모과나무가 많이 심어진 정원이 아름다운 작은 마을이다. 평원은 부에노스아이레스 주변처럼 연둣빛 잔디가 짧게 자라고 토끼풀, 엉겅퀴가 나 있으며 비스카차 토끼 굴이 있다. 살라도 강을 건너자 주위 풍경이 확 변해서 무척 놀랐다. 거칠고 넓은 목초지에서 순간 초록빛 융단과 같은 지대로 넘어온 것이다. 처음에는 토질의 변화로만 알았다. 그러나 이곳 주민들의 얘기에 따르면, 이 지역뿐만 아니라 반다오리엔탈에서도 몬테비데오 주변과 콜로니아[14]의 인적이 드문 대초원 지역 사이의 지질이 크게 다르다. 모두 소가 풀을 뜯어 먹는 것과 분뇨를 내놓는 것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은 북아메리카의 대초원에서도 관찰된다.[15] 키가 150~180센티미터인 거친 풀밭을 소가 뜯어 먹기 시작하면 보통 풀밭으로 변한다. 나는 식물학자가 아니므로, 이러한 변화가 새 품종이 들어온 것인지, 동일한 품종의 키가 변한 것인지, 둘 사이의 비율이 달라진 것인지 알 수가 없다. 아사라 역시 이 변화를 관찰했다. 아사라는 새로 지은 집으로 가는 길가 부근에 새로운 식물이 출현하는 것에 아주 당황했다. 아사라에 의하면,[16] "이 야생동물들은 길을 좋아해서 길가에 배설물을 쏟아 놓는다. 이런 곳에 배설물이 엄청나게 쌓여 있다"고 한다. 설명이 조금 되었으리라. 그렇게 해서 거름이 잘 된 땅이 두 지역을 오가는 통로가 되었다.

구아르디아 부근에 지금은 흔한 유럽 식물 두 종의 남쪽 한계선이 있다. 회향

14 우루과이 남서부에 있는 주-역주.

15 실리만, 《북아메리카 학술지》 1권, 117쪽. 애트워터가 기술한 대초원 이야기를 참조.

16 아사라, 《항해기》 1권, 373쪽.

풀[17]은 부에노스아이레스, 몬테비데오 등의 강둑에 번성하고 있다. 그런데 엉겅퀴의 일종인 카르둔Cynara cardunculus[18]은 그 서식 범위가 훨씬 넓어 코르디예라 산맥 양쪽의 동일 위도상에 분포하고 있다. 나는 칠레, 엔트레리오스,[19] 반다오리엔탈 등지의 인적이 드문 곳에서 이 식물을 관찰할 수 있었다. 반다오리엔탈에서는 이 가시 돋은 식물이 1천 제곱킬로미터 넘게 넓은 일대를 덮고 있어서 인간이나 동물이 지나갈 수 없다. 이 식물이 덮어 버린 평원은 아무것도 살 수 없다. 카르둔이 들어오기 전에는 이곳도 다른 평원처럼 여러 종류의 식물로 덮여 있었을 것이다. 식물 한 종이 원래의 식물상을 이렇게 완전히 공격해 버린 예가 있는지 궁금하다. 살라도 강 남쪽에서는 카르둔이 발견된 적이 없다. 사람이 거주하면 카르둔의 서식 범위가 넓어질 수 있다. 팜파스의 얼룩덜룩한 잎의 큰 엉겅퀴는 약간 다른데, 사우세 강의 계곡에서 발견되기 때문이다. 라이엘의 이론에 의하면, 1535년 라플라타에 처음으로 이주한 사람들이 말 72마리를 데리고 들어온 이후 이 지역은 완전히 변했다. 많은 말, 소, 양이 식물상 전체를 변화시켰고, 과나코, 사슴, 타조 대부분을 몰아냈다. 야생 돼지가 페카리(남아메리카산 멧돼지)를 몰아낸 곳도 있다. 개울가 숲이 우거진 언덕에서는 사람이 드물고 들개가 우글댄다. 낮은 바위산에는 몸집이 크고 사나운 동물로 변한 고양이가 살고 있다. 도르비니가 지적한 것처럼 가축이 들어온 후에 썩은 고기를 먹는 독수리가 엄청나게 늘어났고, 서식 범위가 남쪽으로 확장되었다. 카르둔이나 회향풀 외에도 많은 식물들이 이곳 풍토에 적응했고, 파라나 강어귀에 있는 섬에는 강물에 떠내려온 씨가 싹 틔운 복숭아나무

17 산형과에 속하는 방향성의 다년생 또는 두해살이풀-역주.

18 도르비니에 의하면, 카르둔과 양엉겅퀴가 야생으로 자란다고 한다.(1권, 474쪽) 후커 박사는 이 지역에서 발견한 변종을 '이네르미스inermis'라고 명명했다.(《식물학 학술지》 4권, 2862쪽) 후커 박사에 의하면, 카르둔과 양엉겅퀴가 한 식물의 변종이라는 것이 요즈음 식물학자들의 통설이다. 나도 양엉겅퀴가 흔한 카르둔으로 변하는 것을 보았다고 주장하는 농부를 만났다. 헤드가 기술한 팜파스의 엉겅퀴도 카르둔이라고 후커 박사는 믿고 있는데, 내 생각은 다르다. 헤드가 기술한 것은 내가 대형 엉겅퀴라고 기록한 식물에 속한다. 이것은 카르둔과 많이 다르다. 엉겅퀴에 더 가깝다.

19 아르헨티나 동부에 있는 주-역주.

와 귤나무가 무성하다.
구아르디아에서 말을 바꿔 타는 동안, 군대에 관해 묻는 사람들을 만났다. 나는 로사스와 '야만인에 대한 전쟁'의 승리에 이렇게 열광적인 모습을 처음 본다. 최근에도 인디오들이 사람이나 말을 공격한 적이 있으니 '야만인에 대한 전쟁'이라 표현할 만하다. 여러 동물 무리와 상록 활엽 교목인 옴부가 있는 풍요로운 초록빛 평원을 지나 멀리까지 갔다. 저녁에 비가 많이 내렸다. 우편 역사에 도착하자, 도둑 때문에 정식 여행증명서가 없으면 묵을 수 없다고 한다. 내가 '자연사학자 돈 카를로스'로 시작되는 내 여행증명서를 보여 주자, 역사 사람은 우리에게 한없는 존경과 환영을 보였다. 이곳 사람들은 자연사학자가 무엇인지도 몰랐을 테지만 내 신분의 가치는 높이 쳐주었다.
9월 20일 | 한낮에 부에노스아이레스에 도착했다. 이곳 교외는 용설란과 올리브, 복숭아, 버드나무가 아름답게 자라 있었다. 나는 영국 상인 럼브 씨 집으로 말을 타고 가서 그동안의 친절에 감사를 표했다.
부에노스아이레스는 규모가 큰 도시로,[20] 세계에서 가장 정돈된 도시 중 하나일 것이다. 모든 도로는 수직으로 만나고, 집은 '콰드라'라 부르는 정사각형 안쪽에 모여 있다. 집 역시 하나하나 정사각형 모양으로, 가운데 예쁘고 작은 뜰을 주위로 방들이 모여 있다. 집은 보통 1층 건물로 평평한 지붕이 있다. 의자가 놓여 있어 여름에는 사람들이 많이 나와 앉아 있다. 시 중심부에는 광장이 있고 관청, 성채, 대성당 등이 모여 있다. 이곳에는 혁명 이전의 총독부 자리가 있다. 건물의 전체적인 조화가 아주 아름답다.
육식을 하는 이곳 주민들의 식량을 조달하기 위해 동물을 가둔 거대한 가축우리가 있는데 볼만하다. 황소에 비해 말은 힘이 훨씬 더 세다. 말 위에 탄 사람이 황소 뿔에 올가미를 걸어 이리저리 끌고 다닐 정도다. 황소는 다리를 뻗대고 말의 힘에 저항하다가 거의 한쪽 방향으로 돌진한다. 이때 갑자기 몸을 돌

20 인구는 6만 명으로 알려져 있다. 라플라타 강 지역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인 몬테비데오의 인구는 1만 5천 명이다.

리고 꿈쩍도 안 하면, 그 반동으로 황소가 바닥에 내동댕이쳐진다. 목이 안 부러지는 것이 놀랍다. 그러나 이 싸움은 공정한 힘 대결이 아니다. 말의 배댓끈이 황소의 내림 목을 걸고 있기 때문이다. 또 말을 잡으려면 말의 귀 뒤쪽으로 가서 올가미를 걸면 말은 꼼짝 못한다. 황소가 도살장으로 끌려가면, 뒷다리 관절 뒤의 힘줄을 조심스럽게 자른다. 이때 황소는 죽기 직전의 비명 소리를 내는데 너무 고통스럽게 들린다. 멀리서 들어도 도살이 어느 정도 진행되는지 짐작할 수 있다. 소가 도살되는 장면은 정말 소름 끼치고 끔찍하다. 땅바닥에는 소뼈가 굴러다니고, 주위에 있는 말과 사람들에게 핏덩어리가 쏟아진다.

● 비글호는 바이아블랑카에 머문 뒤 라플라타 강을 향해 출항한다. 다윈은 비글호에 타지 않고 바이아블랑카에서 가우초 한 명을 안내인으로 고용해 말을 타고 부에노스아이레스까지 장장 640킬로미터 육로 여행을 떠난다. 이 장은 1833년 9월 8일에 출발해서 9월 20일 부에노스아이레스에 도착하기까지 약 2주에 걸친 답사 기록이다. 열정에 가득 찬 다윈은 영하의 추위에 군대 초소나 들판에서 잠을 청하며 대륙 탐험을 감행한다. 메마르고 황량한 평원을 달리는 가운데 잠자리와 끼니를 걱정하면서도 자연사학자로서의 호기심을 놓치지 않는다. 부에노스아이레스까지 가는 동안 기후와 지질뿐만 아니라, 현지 풍경과 동식물군도 관찰하여 기록하고 있다.
부에노스아이레스까지는 사람이 거의 살지 않는 지역을 지나게 된다. 사우세 강을 지나 시에라데라벤타나 산맥으로 향한 다윈은 산에 올라서 암석을 관찰한 결과를 적고 있다. 다윈은 군인들과 함께 초소에서 밤을 보내기도 하고 함께 사냥을 나서기도 한다. 이렇게 사냥한 퓨마와 타조 알로 끼니를 때우기도 한다. 다윈이 보기에 이곳 군인들의 생활은 비참하다. 군인들은 비가 새는 오두막에서 잠을 자고, 타조나 사슴 등을 직접 사냥해서 식량을 해결한다. 이렇게 고생하면서도 항상 인디오들의 공격에 긴장하고 있어야 한다. 군인들이 인디오에 의해 살해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도 근처를 돌아다니며 이 지역의 동식물 분포와 지질에 대한 자료를 성실하게 기록하고 있다.
다윈은 호수에서 장다리물떼새 떼를 발견하다. 이 새는 멋진 걸음걸이로 얕은 물을 건너간다. 또 말을 타고 초원을 달리면 테루테로새가 날카로운 울음소리를 내며 쫓아온다. 이 새는 모양이나 습성에서 영국의 댕기물떼새를 닮았다. 다윈은 시에라타팔겐 산맥을 넘어가며 암석과 토양을 관찰한다. 살라도 강을 건너자 주변 풍경이 크게 달라지며, 거친 목초지에서 초록빛 평원으로 들어서게 된다. 다윈은 구아르디아 부근에서 회향풀과 카르둔의 남쪽 한계선을 발견한다. 회향풀은 부에노스아이레스, 몬테비데오 지역의 강둑에 번성하고 엉겅퀴의 일종인 카르둔은 훨씬 더 넓은 지역에 분포하고 있다. 코르디예라 산맥

양쪽의 같은 위도상에서 관찰된다. 살라도 강 남쪽에서는 카르둔이 보이지 않는다.
다윈 일행은 계속 말을 달려 부에노스아이레스에 도착한다. 용설란과 복숭아, 올리브, 버드나무가 어우러진 아름다운 풍경이 다윈을 반겨 준다. 부에노스아이레스는 도로가 잘 정돈되어 있고, 광장과 건물들이 조화를 이루고 있다. 다윈은 영국 상인의 집으로 가서 머무는 동안 잠시 편안한 휴식을 취한다. 이제 다윈의 앞에는 또 다른 대륙 횡단의 힘든 여정이 기다리고 있다.



부에노스아이레스와 산타페

제7장
부에노스아이레스와 산타페

산타페 답사–엉겅퀴밭–비스카차의 습성–작은 올빼미–소금기가 있는 강–고른 평야 지대–마스토돈–산타페–경관의 변화–지질–멸종된 말의 이빨–남북아메리카의 화석과 현존 네발 동물의 관련성–극심한 가뭄의 영향–파라나 강–재규어의 습성–가위부리–물총새, 앵무새 그리고 가위꼬리–혁명–부에노스아이레스 정부의 상태

9월 27일 | 저녁 무렵, 산타페를 답사하기 위해 떠났다. 그곳은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거의 480킬로미터 떨어진 파라나 강변에 위치하고 있다. 우기雨期 뒤라 그런지 부에노스아이레스 인근 도로 상태는 매우 나빴다. 황소가 끄는 수레를 타고 이 길을 지나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 내가 잘못이다. 아니나 다를까, 수레는 시속 2킬로미터의 속도도 내지 못했고, 일행 중 한 명은 길 상태를 점검하기 위해 줄곧 수레보다 앞서 가야 했다. 소들은 많이 지쳐 있다. 길 상태가 나아지면 여행 속도가 점점 빨라질 줄 알았는데 잘못된 생각이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소들의 고통도 점점 심해져 갔다. 멘도사로 향하는 수레 행렬과 가축 무리가 우리 옆을 지나갔다. 멘도사까지 거리는 930킬로미터 정도이며 통상적으로 걸리는 시간은 약 50일 정도 된다. 이 수레들은 매우 길고 폭이 좁으며 갈대 짚으로 지붕이 덮여 있다. 바퀴는 두 개뿐인데 지름이 3미터나 되는 것도 있다. 소 여섯 마리가 수레 한 개를 끌고 가는데 적어도 6미터 정도 되는 긴 막대기로 소들을 몬다. 막대기는 지붕 안쪽으로부터 나와 공중에 매달려 있다. 바퀴 쪽의 말들은 보다 작은 것으로 몰고, 중간에 있는 황소들은 긴 막대의 중앙에서 직각으로 뻗어 나온 것들로 몬다. 이 모든 장치들은 마치 전쟁 도구처럼 보인다.

9월 28일 | 우리는 룩산이라는 작은 마을을 지났다. 이 지역에서는 보기 드문

편의 시설인 나무다리가 강 위에 놓여 있었다. 이어 아레코 마을도 지났다. 평야는 보기에는 편평한 것 같았지만, 지평선까지의 거리가 들쭉날쭉하기 때문인 것으로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 쓴맛이 나는 토끼풀이나 커다란 엉겅퀴로 덮여 있는 이곳의 대지는 그리 좋은 목초지라고는 볼 수 없기 때문에 대농장들이 드문드문 떨어져 있다. 헤드 경이 실감나게 묘사해 잘 알려진 큰 엉겅퀴는 1년 중 이맘때에 3분의 2가량 자라는데, 어떤 곳에는 말 잔등 높이만큼 자란 엉겅퀴가 있는 반면 다른 곳은 아직 싹도 나지 않았다. 땅은 마치 유료 고속도로처럼 메마르고 먼지만 풀풀 날린다. 밝은 초록색의 엉겅퀴 덤불은 여기저기 떨어져 있는 숲을 아기자기하게 축소해 놓은 것처럼 보인다. 엉겅퀴가 다 자라면, 거대한 초지는 미로같이 얽힌 길 몇 개를 제외하고는 사람이 거의 지나갈 수 없게 된다. 도둑들은 그 길을 잘 알고 있어서, 이때쯤이면 수풀에 죽치고 숨어 있다가 밤이 되면 튀어나와 지나가는 사람의 물건을 아무 거리낌 없이 훔치고 목숨까지 빼앗는다. 마을의 한 집에 머물 때, 이곳에 도둑이 많은지를 물었더니 "엉겅퀴가 다 자라려면 아직도 멀었어요" 하는 것이었다.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잘 몰랐다. 이곳에는 비스카차와 그 친구인 작은 올빼미를 제외하면 동물이나 새가 거의 살고 있지 않아서, 지나는 동안 별 흥미를 느끼지 못했다.[1]

비스카차[2]는 팜파스 동물계에서 눈에 띄는 존재로 잘 알려져 있다. 이놈들은 남쪽으로 위도 41도의 네그로 강에서도 발견되지만 그 아래로는 살지 않는다. 아구티와 마찬가지로, 파타고니아 평원 같은 자갈이 많은 사막에서는 살지 못하는 반면 다양하고 풍부한 식물들이 자라는 점토나 사토질의 토양을 좋아한다. 코르디예라 산맥 기슭의 멘도사 인근에서는, 같은 부류인 고산 토끼의 서

1 다윈이 관찰한 올빼미는 굴파기올빼미로 영국에서 서식하는 금눈쇠올빼미little owl와 유연관계가 가깝다—역주.

2 비스카차Lagostomus trichodactylus는 큰 집토끼와 어느 정도 닮았으나 그것에 비해 갉는 이빨이 더 크고 꼬리가 더 길다. 그러나 뒤 발톱이 세 개만 있는 것은 아구티를 닮았다. 최근 3, 4년 동안 비스카차의 가죽을 모피로 만들기 위해 영국으로 수출하고 있다.

식지 근처에서 함께 나타난다. 우루과이 강 동쪽의 반다오리엔탈 지역에는 비스카차의 습성에 아주 적합한 평원이 있는데도, 이것들이 전혀 발견되지 않는다는 것은 지리적 분포상 매우 흥미로운 사실이다. 장벽으로 작용하는 우루과이 강은 넘지 못하는 데 비해 이 강보다 서쪽에 있는 폭이 더 넓은 파라나 강은 건널 수 있어서, 이 두 강 사이에 있는 엔트레리오스 주州에서는 비스카차가 아주 흔하다. 이놈들은 부에노스아이레스 근처에 엄청나게 많이 살고 있다. 가장 좋아하는 서식지는 1년 중 절반이 큰 엉겅퀴로 뒤덮이는 지역인 듯싶다. 가우초들은 이놈들이 엉겅퀴 뿌리를 먹고 산다고 확신하는데, 갉는 이빨의 힘이 아주 강하다는 것과 자주 출현하는 장소로 보아 그럴듯해 보인다. 저녁이 되면 비스카차들은 무리를 지어 밖으로 나와 굴 입구 쪽에 조용히 웅크리고 앉아 있다. 그런 때 이놈들은 매우 유순해서 말을 타고 지나가는 사람을 물끄러미 응시할 뿐이다. 달리는 모습은 매우 어설퍼 보이는데, 위험으로부터 도망칠 때면 위로 치켜 올린 꼬리와 짧은 앞발 때문에 큰 쥐와 비슷해 보인다. 이놈들을 요리하면 고기는 매우 희고 맛도 좋지만 거의 먹지 않는 편이다.

비스카차는 한 가지 매우 기이한 습성이 있다. 단단한 물건은 무엇이든 끌고 와서 굴 입구에 모아 둔다. 굴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 주위에는 가축의 뼈, 돌멩이, 엉겅퀴 줄기, 단단한 흙덩어리, 마른 똥 등이 불규칙하게 쌓여 있는데 종종 손수레에 가득 찰 만큼 그 양이 많다. 어떤 신사가 어두운 밤에 말을 타고 가다 시계를 떨어뜨려, 다음 날 아침 길을 따라 되돌아가며 비스카차의 굴 입구를 샅샅이 살펴봤더니 예상대로 시계를 찾았다는 얘기가 있는데 상당히 그럴듯하다. 서식지 주변의 땅에 떨어져 있는 것이면 무엇이든 집어 가는 습성은 틀림없이 굉장한 노동력을 요할 것이다. 무엇 때문에 이런 고생을 하는지 나로서는 전혀 알 수 없다. 방어용은 아닌 것 같다. 왜냐하면 온갖 잡동사니들을 굴 입구에 주로 쌓아 놓는데, 그곳에서부터 굴 내부까지는 거의 경사가 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분명 뭔가 그럴듯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 지역 주민들은 이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다. 이와 비슷한 현상으로 내가 아

는 유일한 예는 오스트레일리아에 서식하는 점박이바우어새Calodera maculata라는 특이한 새의 습성에 관한 것이다. 이놈들은 잔가지로 우아한 아치 모양의 통로를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놀며, 그 근처에다 육지나 바다의 조개껍데기, 새들의 뼈와 깃털, 특히 밝은 색의 깃털을 모아 놓는다. 이러한 사실을 기록한 굴드 씨에게 들은 얘기인데, 그 지방의 원주민들은 뭔가 단단한 물건을 잃어버리면 그 통로 주변을 찾아본다고 한다. 한번은 잃어버렸던 담배 파이프를 그곳에서 찾은 적도 있다고 한다.

자주 언급했던 작은 올빼미인 굴파기올빼미Athene cunicularia는 부에노스아이레스 평원에서는 오로지 비스카차의 굴에만 서식하는 데 비해, 반다오리엔탈 지역에서는 자신들이 직접 만든 굴에서 산다. 한가한 날, 특히 밤에 굴파기올빼미들이 굴 근처 언덕 위에서 짝을 지어 서 있는 것을 사방에서 종종 볼 수 있다. 이놈들을 귀찮게 하면 굴로 들어가 버리거나, 날카롭고 거친 울음소리를 내면서 오르락내리락하며 가까운 곳으로 날아간다. 그런 다음 뒤돌아서서 자기를 따라오는 물체를 계속 응시한다. 가끔 저녁에 부엉부엉 하는 소리를 들었던 것 같다. 이놈들을 해부해 봤더니 두 마리의 위에서 쥐 찌꺼기를 발견했다. 하루는 작은 뱀을 죽여 운반해 가는 것도 봤는데, 낮 동안에 뱀은 흔한 먹잇감이라고 한다. 초노스 제도에 서식하는 어떤 올빼미의 위를 열어보니 큰 게들로 가득 차 있었다는 것만 봐도 올빼미들이 얼마나 다양한 종류의 먹이를 먹고 사는지 알 수 있다. 인도에도 물고기를 잡아먹는 올빼미들이 있는데, 이것들도 마찬가지로 게를 잡아먹는다.[3]

저녁에 우리는 원목을 묶어 만든 간단한 뗏목을 타고 아레시페 강을 건너 맞은편에 있는 역사에서 묵었다. 이날 말을 빌리는 값으로 150킬로미터에 해당하는 돈을 지불했다. 태양 빛은 강렬하고 더웠지만 그렇게 피곤하지는 않았다. 헤드 함장이 말을 타고 하루에 240킬로미터를 달린다고 얘기할 때, 그 거리가 영국식으로 240킬로미터와 같은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어쨌든

3 《아시아학회 저널》 5권, 363쪽.

우리가 비용을 지불한 150킬로미터라는 거리는 직선으로는 122킬로미터 정도밖에 되지 않고 평지에서 우회하는 것을 감안해 6킬로미터를 더한다 해도 그 정도 비용이면 충분히 준 것이라 생각한다.

9월 29일~30일 | 우리는 비슷비슷한 평원들을 여럿 지났다. 산니콜라스에서 처음으로 파라나 강의 도도한 물줄기를 봤다. 마을이 있는 절벽 아래의 기슭에 큰 배 몇 척이 정박해 있는 것이 보였다. 로사리오에 도착하기 전에 살라디요 강을 건넜다. 그 강물은 아주 맑고 깨끗했지만 소금기가 너무 많아 마실 수는 없다. 로사리오는 파라나 강에서 18킬로미터 정도 위쪽에 있는 절벽 위의 평지에 세워진 큰 마을이다. 이곳에서 파라나 강의 폭이 넓어지며, 강에는 나무로 덮여 있는 나지막한 섬들이 많고 건너편 강기슭도 이와 비슷하다. 한 줄로 늘어서 있는 섬들이 없다면, 흐르는 강물이 아니라 거대한 호수처럼 보일 것 같다. 절벽은 정말 그림같이 아름답다. 완전한 수직에 붉은 색조를 띠는 곳도 있고 선인장이나 미모사로 뒤덮인 울퉁불퉁한 땅덩어리가 나타나기도 했다. 그러나 이 거대한 강이 인접한 나라 간에 교류와 무역의 수단으로 얼마나 중요한지, 또한 얼마나 먼 거리를 흘러가는지, 우리 옆을 지나는 신선한 물을 얼마나 넓은 곳에 공급해 줄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 이 강이 갖는 진정한 위대함은 바로 이런 데서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산니콜라스와 로사리오 지역에서 남북으로 수십 킬로미터 정도까지의 지역은 정말로 편평하다. 여행자들이 그 편평함의 정도가 극에 이른다고 서술한 것은 조금도 과장된 것이 아니다. 그러나 천천히 둘러보면 모든 곳에서 방향에 따라 사물과의 거리가 달라 보인다. 이는 그 평원이 완전한 수평이 아니라는 명백한 증거가 된다. 바다에서, 수면으로부터 약 1.8킬로미터 위에서 수평선을 바라보면 수평선이 4.5킬로미터 정도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평원이 편평하면 할수록 지평선은 좁은 거리에 있는 것처럼 점점 가까워진다. 이러한 현상은 누구나 광활한 평원에서 생각할 수 있는 장엄함의 환상을 송두리째 깨뜨려 버린다.

10월 1일 | 우리는 달 뜬 밤에 출발해 태양이 뜰 무렵에야 테르세로 강에 도착했다. 이 강물은 소금기가 있어 살라디요 강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나는 오늘 대부분을 이곳에서 화석 뼈를 찾으며 보냈다. 톡소돈의 완벽한 이빨 하나와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뼈들 외에, 파라나 강의 가파른 절벽에서 서로 비슷한 커다란 골격 두 개가 돌출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것들은 완전히 부식되어 큰 어금니 조각 몇 개만 모을 수 있었지만 그것만으로도 그 골격들이 옛날 페루 북부의 코르디예라 산맥에 무수히 많이 서식했던 마스토돈[4]이나 혹은 이와 유사한 동물의 뼈라는 것을 보여 주기에 충분하다. 나를 카누에 태워 줬던 사람들은 자기들도 그 뼈에 대해 오래전부터 잘 알고는 있었지만 어떻게 거기에 있는지에 대해 종종 의아했다고 한다. 그래서 뭔가 그럴듯한 이론이 필요했음인지, 마스토돈이 전에는 비스카차처럼 절벽에 굴을 파고 사는 동물이었을 것이라는 그들 나름대로의 그럴듯한 결론을 내렸다는 것이 아닌가! 저녁에 우리는 다른 장소로 가면서 몽지 강을 건넜다. 그 강물도 소금기가 있었고 팜파스 지역에서 씻겨 내려온 온갖 부유물들이 떠 있었다.

10월 2일 | 우리는 코룬다 지역을 지났다. 그곳은 잘 가꾼 과수원들 때문에 내가 본 가장 예쁜 마을 중 하나였다. 이곳에서 산타페까지 가는 길은 그렇게 안전하지 못하다. 파라나 강 북쪽 줄기의 서편에는 사람들이 살지 않는데, 가끔 인디오들이 멀리 이곳까지 내려와 매복해 있다가 여행자들을 급습한다. 그곳은 풀이 있는 평원이 아니라 가시투성이의 작은 미모사들로 덮인 넓은 삼림 지대여서 약탈 행위에는 유리하게 작용한다. 약탈당해 버려진 집들을 지나면서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되었다. 안내인들은 매우 흡족해하며 보는 듯했는데, 거기에는 바짝 마른 피부로 덮여 있는 인디오 해골이 나뭇가지에 매달려 있었다.

아침에 우리는 산타페에 도착했다.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위도로 3도밖에 떨

4 중신세中新世 초기에 출현해 홍적세(1만~25만 년 전)까지 생존했던, 코끼리와 유사하게 생긴 멸종 포유동물-역주.

어지지 않은 이곳의 기후가 그곳과 심하게 차이 나는 것을 보고 놀랐다. 이러한 차이는 사람들의 옷차림이나 안색을 보면 확실히 드러난다. 또한 상록 활엽 교목의 크기가 커지는 것, 새로운 선인장과 여러 종류의 식물 수가 증가하는 것, 특히 새들이 등장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한 시간여 동안 나는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전혀 볼 수 없었던 새들을 여섯 마리나 봤다. 이 두 지역 간에 자연적 장벽이 없고 지역적 특성이 거의 비슷하다는 점을 고려해 보면, 그 차이는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컸다.

10월 3일~4일 | 나는 두통 때문에 꼬박 이틀 동안 누워 있었다. 마음씨 좋은 할머니가 간호를 해 주며 여러 가지 이상한 민간요법을 써보라고 했다. 그중 흔한 처방은 오렌지 잎이나 검은 고약 조각을 양쪽 관자놀이 부근에 붙이는 것이다. 이보다 더 많이 쓰는 방법은 콩을 반으로 자른 다음 물에 불려 양 관자놀이에 붙이는 것인데 대체로 잘 달라붙는다. 콩이나 고약을 일부러 떼어내면 안 되고 저절로 떨어지게 해야 한다. 머리에 고약을 붙이고 있는 사람에게 어디가 불편하냐고 물어본다면 "그저께부터 두통이 있었어요"라고 대답할 것이다. 이 마을 사람들이 사용하는 많은 치료 방법은 실소를 자아낼 정도로 이상한 것도 있지만, 너무 구역질나서 언급하기 싫은 것도 있다. 가장 덜 불쾌한 것 중 하나는 강아지 두 마리를 죽여 배를 갈라 부러진 팔다리에 동여매는 것이다. 그리고 털 없는 작은 개들을 환자 발치에 강제로 재우게 한다.

산타페는 조용하고 작은 도시로, 깨끗하고 질서가 잘 잡혀 있다. 이곳의 통치자인 로페스는 혁명 당시에는 평범한 군인이었지만 그 후로 지금까지 17년 동안 권좌에 있다. 그는 전제 정치를 했는데, 이 나라와 같은 상황에서는 이러한 그의 통치 스타일이 공화주의보다 더 적합한 것처럼 보인다. 이 나라의 정부가 안정된 것은 다분히 로페스의 전제주의 정치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이 통치자가 즐겨 하는 일은 인디오 사냥이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는 48명의 인디오를 살육했으며 그들의 아이들을 1인당 3~4파운드에 팔았다.

10월 5일 | 우리는 파라나 강을 건너 반대편 기슭에 있는 산타페바하다라는 마

을로 갔다. 파라나 강은 작은 물줄기들이 미로처럼 얽혀 있고 작은 나무로 덮인 섬들이 군데군데 있어서 건너가는 데 몇 시간이나 걸렸다. 카탈루냐 출신의 한 스페인 사람에게 보내는 소개장을 가지고 갔는데, 그는 매우 친절하게 맞아 주었다. 바하다는 엔트레리오스 주州의 수도다. 1825년 바하다에 거주한 사람은 3천 명이었고 주州에는 약 3만 명이 거주하고 있었다. 그러나 주민 수가 그리 많지 않은 것에 비해, 이 주는 다른 어떤 주보다도 처절한 유혈 혁명으로 엄청난 고통을 겪었다. 그들은 지금도 의원들이나 장교들, 상비군, 관료들을 자랑거리로 여기고 있으니, 혁명이 여러 번 일어났다는 것을 의심할 필요는 없겠다. 그리고 앞으로 이곳은 틀림없이 라플라타 유역에서 가장 잘사는 지역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토질이 다양하고 식물이 잘 자라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거의 섬과 같은 지형을 하고 있어 파라나 강과 우루과이 강의 두 거대한 물줄기가 이곳에 교통수단을 제공하고 있다.

닷새 동안 머물면서 이곳 주변 지역의 지질을 조사하는 데 전력을 쏟았다. 나는 이곳 절벽의 아랫부분에서 상어 이빨과 멸종된 바닷조개 껍데기가 묻혀 있는 퇴적층을 발견했다. 이 지층의 위는 단단한 이회토층으로 되어 있고 그 위로 팜파스의 붉은 점토질 토양이 있는데 거기에는 석회질 응고물과 함께 육상 네발 동물의 뼈가 묻혀 있다. 이러한 수직 단면은 이곳이 옛날에는 바닷물이 있던 큰 만이었다가 점차 침식되어 마침내 하구의 진흙층으로 변하면서 물에 떠다니던 동물들의 사체가 휩쓸려 들어와 형성된 것임을 말해 준다. 나는 반다오리엔탈의 푼타고르다 지역에서, 팜파스의 하구 퇴적층과 석회암이 교대로 나타나는 것을 봤는데 그 석회암층에는 이곳에서 발견된 것과 같은 종류의 멸종된 해양성 조개껍데기가 묻혀 있었다. 이것은 과거에 해수의 흐름이 바뀌었거나, 또는 좀 더 신빙성 있는 것으로, 과거 하구 지역의 하단 지층의 높이가 주기적으로 변동했음을 보여 준다. 나는 최근까지도 팜파스는 하구 퇴적층에 의해 형성되었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 이유는 팜파스에서 볼 수 있는 전체적인 양상이 그렇고, 현재 거대한 라플라타 강의 어귀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육상 네발 동물의 뼈가 많이 발견된다는 점 때문이다. 하지만 에렌베르크 교수가, 친절하게도 나를 위해, 마스토돈의 뼈가 발견된 곳에 근접한 퇴적층의 하단부에서 채취한 붉은 토양을 조사한 결과 이곳에서 많은 적충류를 발견했다. 그것들 중 일부는 해양성이고 일부는 담수성이었는데, 담수성이 훨씬 많았다. 따라서 에렌베르크 교수의 생각대로, 그 당시의 물에는 소금기가 포함되어 있던 것이 확실하다. 도르비니 씨는 파라나 강변의 높이 30미터 둑에서, 지금은 바다 쪽으로 1백 킬로미터 정도 더 아래로 내려가 서식하고 있는 하구성 조개껍데기가 묻혀 있는 지층을 발견했다. 나도 이와 비슷한 조개껍데기를 우루과이 강가의 조금 더 낮은 곳에서 발견했는데, 이 사실은 팜파스 지역이 천천히 융기해 건조한 땅이 되기 바로 전에는 소금기가 있는 물이 그곳을 덮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 준다. 부에노스아이레스 아래 지역에서도 현존하는 해양성 조개껍데기가 포함된 지층을 볼 수 있는데, 이 역시 팜파스가 최근에 융기했음을 보여 주는 증거가 된다.

바하다의 팜파스 퇴적층에서 거대한 아르마딜로와 유사한 동물의 골갑骨甲을 발견했다. 흙을 털어 내니 그 골갑의 내부는 커다란 솥과 비슷하다. 또한 톡소돈과 마스토돈의 이빨 여러 개와 말의 이빨 하나도 같이 발견했는데, 변색한 정도와 부패한 정도가 비슷했다. 특히 말의 이빨은 많은 흥미를 끌었는데,[5] 그것이 다른 이빨들과 동시대에 매몰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면밀히 조사했다. 그 당시에는 바이아블랑카 지역에서 나온 화석 중에 말의 이빨이 지층의 모암 속에 숨겨져 있었다는 것을 알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북아메리카에서 말의 화석이 흔하게 발견된다는 것을 확실히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이엘 씨가 최근에 미국에서 독특하게 약간 휘어진 말 이빨 한 개를 가져왔는데, 오언 교수는 이곳에서 내가 발견한 화석과 비교해 본 후에, 그것이 화석종이나 현생종에는 없는 아직 발견된 적이 없는 새로운 종이라는 것을 알아냈다. 그

5 콜럼버스 시대에 아메리카에 말이 살았다는 것을 부정하는 명확한 증거가 있음을 여기에서 언급할 필요성을 거의 느끼지 않는다.

러고는 이 아메리카 말을 에쿠스 쿨비덴스Equus curbidens라고 명명했다. 남아메리카에 예전부터 토종말이 살다가 멸종되었다는 것과 그 후 오랜 세월 뒤에 스페인 식민지 개척자들이 들여온 몇 마리 안 되는 말들이 번식해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의 많은 무리가 되었다는 것은 확실히 포유류의 역사에서 놀라운 일이리라! 룬드와 클라우센 씨가 브라질의 동굴에서 발견한 말의 화석, 마스토돈과 아마도 코끼리로 추정되는 동물,[6] 빈 뿔을 갖는 반추동물 등이 남아메리카에 존재했다는 것은 동물의 지리적 분포 면에서 보면 매우 흥미 있는 사실이다. 현시점에서 만일 아메리카를 파나마 지협이 아닌 위도 20도 부근의 멕시코 남부 지역[7]을 기준으로 둘로 나눠 보면, 그곳에 있는 거대한 고원 지대가 기후에 영향을 미치고, 몇몇 계곡이나 해안가의 저지대 가장자리를 제외하고는, 넓은 장벽이 되어 동물들의 이동에 장애물로 작용한다. 그러면 남북아메리카는 극히 대조적인 두 개의 동물 분포 양상을 보인다. 몇 종만이 그 장벽을 넘을 수 있는데 그것들은 마치 남쪽에서 온 방랑자처럼 보이기도 한다. 퓨마나 주머니쥐, 킨카주,[8] 페카리[9]가 이에 해당한다. 남아메리카에 분포하는 특징적인 동물로는 독특한 설치류, 원숭이 한 과科, 야마, 페카리, 맥, 오포섬, 특히 나무늘보나 개미핥기, 아르마딜로가 포함된 빈치목Edentata의 몇몇 속屬 등이다. 반면에 북아메리카에는 (방랑자라 불리는 몇몇 종들을 제외시킨다면) 독특한 설

6 퀴비에, 《뼈의 화석》 1권, 158쪽.

7 이것이 리히텐슈타인과 스웨인슨, 에릭슨 그리고 리처드슨에 의한 지리적 분리다. 훔볼트가 《신스페인 왕국의 정치학 논술집》에서 언급한 베라크루스에서 아카풀코에 이르는 단면은 멕시코 고원 지형이 얼마나 거대한 장벽인지를 보여 준다. 리처드슨 박사는 1836년 영국 학술원에서 발표한 북아메리카의 동물들에 대한 훌륭한 보고서 157쪽에서, 자신이 멕시코에서 발견한 동물을 시네테레스 프레헨실리스Synetheres prehensilis라고 동정同定, identification했다고 말하며 "우리는 남북아메리카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이 설치 동물에 대해 우리가 말한 것이 얼마만큼 타당한지 알 수 없지만, 만일 그것이 맞는다면 그럴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확고한 예가 될 수 없다고 한다면, 적어도 이에 아주 근접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라고 했다.

8 미국 너구리류의 작은 야행성 동물-역주.

9 열대 아메리카산 멧돼지류-역주.

치류와 반추동물인 소, 양, 염소, 영양의 네 가지 속屬이 특징적으로 분포한다. 특히 빈 뿔을 갖는 반추동물은 분류 범위가 매우 넓음에도 불구하고 남아메리카에서는 단 한 종도 알려지지 않았다. 현존하는 조개의 대부분이 살았던 그리 오래되지 않은 시기에, 북아메리카에는 빈 뿔의 반추동물뿐만 아니라 코끼리, 마스토돈, 말, 그리고 빈치목의 세 종류 속인 메가테리움, 메갈로닉스, 밀로돈Mylodon이 같이 살았었다. 이와 거의 같은 시대에 (바이아블랑카의 조개껍데기 화석에서 증명되었듯이) 남아메리카에서도 위에 열거한 마스토돈, 말, 빈 뿔의 반추동물, 빈치목의 세 종류 속(몇몇 다른 속도 있지만)의 동물들이 존재했었다. 따라서 비교적 최근이라 할 수 있는 지질 시대에 몇몇 속의 동물들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남북아메리카는 육상 동물의 특징이 지금보다 훨씬 더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었음이 틀림없다. 이러한 예를 되새겨 보면 볼수록 흥미는 점점 더 커진다. 위와 같은 예 이외에, 하나의 거대한 지역을 뚜렷한 특징이 있는 두 개의 동물군으로 나누는 지질학적 시대나 방법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예를 나는 아직 알지 못한다. 비교적 근래에 일어난 광범위한 진동이 지각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에 깊은 인상을 받은 지질학자는 현재 남북아메리카의 동물 분포 양상이 달라진 것에 대해 최근에 일어난 멕시코 고원의 융기나, 좀 더 가능성 있는 서인도 제도의 침강을 그 원인으로 생각하는 데 주저하지 않는다. 서인도 제도의 포유류들이[10] 남아메리카에서 볼 수 있는 특징을 갖고 있는 것은 옛날에 서인도 제도가 남아메리카 대륙에 붙어 있다가 그 후에 침강되었다는 것을 보여 준다.

아메리카 특히 북아메리카에 코끼리, 마스토돈, 말, 빈 뿔의 반추동물들이 살던 시기에, 아메리카의 동물 분포 양상은 현재의 것보다는 유럽이나 아시아의

10 리처드슨의 보고서 157쪽과 1837년에 간행된 잡지명 〈연구소〉의 253쪽을 보라. 퀴비에는 킨카주를 큰 안틸레스 제도에서 발견했다고 하지만 의심스러운 부분이다. 제르배Gervais 씨는 디델피스 크란크리보라Didelphis crancrivora를 그곳에서 발견한 바 있다. 서인도 제도에는 그곳 특유의 포유동물들이 살고 있음이 확실하다. 바하마에서 가져온 마스토돈의 이빨 하나에 대한 내용이 《에든버러 신자연사학회지》(1826, 395쪽)에 서술되어 있다.

온대 지역에서 나타나는 동물상과 더 밀접하게 관련된다. 위와 같은 속의 동물 화석이 베링 해협의 양편[11]과 시베리아 평원에서 발견되는 것으로 볼 때, 과거에 북아메리카의 서북 지역이 구대륙과 이른바 신대륙을 잇는 가교 역할을 했다는 생각에 이르게 된다. 현존하든지 멸종되었든지 간에 이들과 같은 속에 속한 많은 종들이 구대륙에 살았거나 현재 살고 있다. 따라서 북아메리카에 살았던 코끼리나 마스토돈, 말 그리고 빈 뿔의 반추동물들은 지금은 침강해서 없어진 베링 해협의 육지를 통해 시베리아에서 북아메리카로 이동해 와서 살게 되었고, 그 후에 이 동물들이 다시 침강한 서인도 제도의 육지를 통해 남아메리카로 내려와 한동안 남아메리카 대륙의 특징적인 종들과 섞이다가 멸종되었을 가능성이 가장 높아 보인다.

이 지역을 여행하면서, 최근에 일어난 심한 가뭄이 미친 영향에 대한 실감 나는 이야기를 들었다. 이런 이야기로부터 온갖 종류의 동물 다수가 한 장소에 함께 매몰되어 있던 현상을 이해할 수 있는 실마리를 얻을 수도 있을 것 같다. 1827년에서 1830년 사이 '대한발'이라 불리는 큰 가뭄이 있었다. 이 기간에는 비가 거의 내리지 않아 모든 식물, 심지어는 엉겅퀴까지도 말라 죽었다. 작은 실개천도 말라 버렸으며 그 지역 전체가 마른 먼지로 뒤덮인 고속도로 같았다. 특히 부에노스아이레스 북부와 산타페 남부 지역이 심했다. 엄청난 수의 새와 야생동물 그리고 소와 말이 물과 먹이가 부족해 죽어 갔다. 가족들의 식수를 얻기 위해 안뜰에 파놓은 우물물을 사슴들[12]이 내려와 먹곤 했다는 이의

11 버클랜드 박사가 저술한 《비치의 항해기》에 있는 훌륭한 부록을 보라. 그리고 《코체부의 항해기》에 있는 샤미소의 글도 보라.

12 오언 함장의 《탐사 항해기》에는(2권, 274쪽) 아프리카 서부 해안의 벵겔라 지역에서 가뭄이 코끼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흥미로운 설명이 실려 있다. "이 지역에서 물을 한 모금도 먹을 수 없었던 수많은 코끼리가 한꺼번에 마을로 들어와 우물을 차지해 버렸다. 마을 주민들이 모여서 필사적으로 몰아냈으며, 결국 마을 주민 한 명이 죽고 몇 사람이 부상을 당한 끝에 침입자들이 도망가는 것으로 막을 내렸다." 그 당시 이 마을에는 주민이 약 3천여 명에 이르렀다고 한다! 말콤슨 박사에 의하면, 인도에서 큰 가뭄이 있었을 때, 많은 야생동물이 엘로르에 주둔하는 군대 막사 안으로 들어오고, 야생 토끼 한 마리는 연대 부관이 들고 있던 그릇의 물까지 마셔 버렸다고 한다.

말도 들었다. 또한 자고새들은 뒤를 쫓아도 날아서 도망갈 힘도 거의 없었다고 한다.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만도 최소한 약 1백만 마리의 소들이 죽어 갔다. 산페드로의 주민 하나는 소 2만 마리를 키우고 있었는데, 가뭄이 있고 나서 한 마리도 남지 않았다고 한다. 산페드로는 가장 좋은 환경의 한가운데에 위치해 있다. 지금은 동물들이 다시 많아졌지만, 대한발 막바지에는 주민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배를 이용해 살아 있는 소들을 외부에서 실어와야만 했다. 농장에서 빠져나온 동물들이 헤매다 멀리 남쪽까지 내려와 많은 수가 함께 섞여 버리는 일이 발생하면, 소유주들 사이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정부 관리들이 파견되기도 했다. 우드바인 패리시 경은 나에게 매우 호기심을 자아내는 또 하나의 분쟁에 대해 얘기해 줬다. 얘기인즉, 오랜 가뭄으로 인해 땅 위에 엄청난 먼지가 일어나 그 넓은 평원의 경계선들이 점점 지워져서 사람들이 자기 땅의 경계선을 알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다.

굶주림에 지친 수천 마리의 소 떼가 파라나 강으로 뛰어들어 간 뒤 진흙 둑을 기어 올라오지 못해 결국 물에 빠져 죽는 것을 직접 봤다는 사람이 있다. 한 선장의 말에 의하면, 산페드로를 지나는 강의 지류가 부패한 동물의 사체로 메워져 악취 때문에 지나갈 수 없을 정도였다고 한다. 수십만 마리의 동물들이 그 강에서 죽었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부패한 동물의 사체들이 강 하류로 떠내려갔을 것이고, 거의 틀림없이 라플라타 강 하구 밑바닥에 가라앉았을 것이다. 모든 작은 강들은 염분의 농도가 점점 높아져 갔고, 짠물을 먹은 동물들은 회복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한 지점에서 엄청난 수의 동물이 죽는 사건이 일어났을 것이다. 아사라는 위와 비슷한 경우로 야생말의 광포한 행동에 대해 묘사했다.[13] 늪지로 뛰어든 말들은 그 뒤를 따라 들어온 말들에 의해 짓밟히고 눌려서 죽어 갔는데, 수천 마리의 말들이 쌓여서 죽어 있는 광경을 여러 번 목격했다고 덧붙였다. 팜파스의 작은 강바닥을 덮고 있는 뼈로 된 자갈은 어느 한 시기에 갑작스러운 죽음 때문에 생겨난 것이 아니라 시간의 흐

13 《여행기》 1권, 374쪽.

름에 따라 점차적으로 축적되어 생겼을 가능성이 더 크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1827~1832년의 가뭄에 뒤이어, 장마철이 도래해 강물이 범람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그러므로 수천 마리의 동물 뼈들이 그 이듬해 흙 속에 퇴적되었을 것이 거의 확실하다. 두꺼운 흙더미 하나에 온갖 종류의, 다양한 연령대의 동물들이 함께 매몰되어 거대한 뼈의 무덤을 이루고 있는 광경을 본 지질학자는 이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 일상적으로 내리는 비 정도가 아니라 지면 위에 있는 모든 것을 싹 휩쓸어 갈 정도의 큰 홍수를 그 원인으로 생각하지 않겠는가?[14]

10월 12일 | 나는 여행을 강행하고 싶었지만 몸이 좋지 않아 부에노스아이레스로 향하는 1백 톤급 화물선인 발란드라Balandra를 타고 되돌아올 수밖에 없었다. 날씨가 좋지 않아서 일찌감치 어떤 섬의 나무에다가 배를 묶고 정박했다. 사실 파라나 강은 섬들로 꽉 차 있는데, 이 섬들은 사라졌다가 새로 만들어지는 과정을 끊임없이 되풀이하고 있다. 선장의 기억에도 큰 섬들 몇 개가 사라지고 다른 몇 개가 새로 만들어져 나무로 뒤덮였다고 한다. 섬들은 진흙질 모래로 되어 있고 아주 작은 조약돌 하나조차 없다. 지면은 물 위에서 약 1미터 정도까지 올라와 있는데도 주기적으로 홍수가 일어날 때면 물에 잠긴다. 이 섬들의 공통적인 특징 하나는 수많은 버드나무와 여러 종류의 나무들이 굉장히 다양한 여러 덩굴 식물들에 둘러싸여 울창한 정글을 이루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울창함이 바로 카피바라나 재규어에게 훌륭한 은신처를 제공해 준다. 재규어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숲을 거니는 즐거움이 모두 사라져 버렸다. 이날 저녁에 나는 90미터도 채 가지 못해서 방금 표범이 지나간 확실한 흔적을 발견하고는 되돌아올 수밖에 없었다. 모든 섬들에는 그러한 흔적이 남아 있다. 저번 여행에서 '인디오의 흔적'이 대화의 주제였다면 이번에는 '표범의 흔적'이 관심 사항이다. 큰 강가의 수풀로 무성한 둑은 재규어가 좋아하

14 이 가뭄들은 거의 주기적으로 일어나는 것처럼 보인다. 몇몇 다른 가뭄이 일어난 날짜를 들었는데, 그 간격이 약 15년 정도 된다.

는 장소인 것 같다. 하지만 라플라타 강 남부에서는 호숫가의 갈대밭에 자주 나타난다고 들었다. 장소가 어디든, 이놈들은 물을 얻기 위해 그곳에 나타나는 것 같다. 재규어는 주로 카피바라를 먹고 산다. 그래서 카피바라가 많은 곳은 재규어에 대한 위험이 덜하다고 흔히 말한다. 포크너에 의하면, 라플라타 강 입구의 남쪽 면에는 재규어가 많은데 그것들은 주로 물고기를 먹고 산다고 한다. 이런 얘기는 전에도 여러 번 들은 적이 있다. 파라나 강 주위에서 재규어들은 나무꾼들을 죽이기도 하고 밤이 되면 심지어 배 위로 올라오기도 한다. 지금은 바하다에 살고 있는 어떤 사람은 어두운 밤에 배 위로 올라오다가 갑판에서 재규어에게 붙잡힌 뒤 간신히 도망치기는 했지만 한쪽 팔을 못 쓰게 되었다고 한다. 홍수 때 강물이 범람해 이놈들이 섬에서 내몰리게 되면 아주 위험한 상황이 된다. 몇 년 전에 굉장히 큰 재규어 한 마리가 산타페에 있는 한 성당에 숨어들어 안으로 들어오는 신부 두 명을 차례로 죽였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보기 위해 들어온 세 번째 신부는 간신히 도망쳐 나왔다고 한다. 이놈은 후에 지붕이 없는 건물의 한 모퉁이에서 사살되었다. 이러한 시기에는 소나 말들에게도 큰 해를 입히는데, 주로 먹잇감의 목뼈를 부러뜨려 죽인다고 한다. 먹잇감으로부터 내쫓기면 좀처럼 다시 되돌아오는 법이 없다. 재규어들이 밤에 어슬렁거릴 때면 여우들이 울어 대며 뒤를 따라다녀 재규어를 괴롭힌다고 한다. 이는 인도 동부의 호랑이들을 따라다니며 쓸데없이 끼어들어 괴롭히는 자칼의 예와 신기하게도 일치한다. 재규어는 시끄러운 동물이다. 밤에 많이 포효하는데, 특히 날씨가 나빠지기 전에 그 정도가 더욱 심하다.

어느 날 우루과이 강둑에서 사냥을 하고 있을 때, 재규어들이 발톱을 날카롭게 갈기 위해 자주 나타난다는 나무들을 봤다. 잘 알려진 세 그루의 나무를 보니, 앞면은 마치 동물의 가슴에 의한 것처럼 나무껍질이 닳아 있었고, 양옆은 홈에 가까울 정도로 깊게 긁힌 자국이 사선 방향으로 약 1미터 정도 패어 있었다. 그러한 상처들은 한 번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여러 번에 걸쳐 생긴 것이

다. 대개 이런 나무를 조사해 보면 가까운 곳에 재규어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재규어의 이러한 습성은 고양이가 다리를 뻗어 발톱을 드러내고 의자 다리를 긁는 습성과 정말 비슷하다는 생각이 든다. 영국의 한 과수원에서 고양이가 어린나무들에 많은 상처를 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다. 이런 긁는 습성은 또한 퓨마에게서도 흔히 볼 수 있다. 파타고니아의 척박하고 단단한 토양 위에서 깊이 파인 자국들을 자주 볼 수 있었는데, 이런 자국은 퓨마가 아닌 다른 동물들은 만들어 낼 수 없다. 이렇게 뭔가를 긁어 대는 행동은 발톱 끝의 닳은 부분을 떼어 내려고 그러는 것이지, 가우초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발톱을 날카롭게 만들려는 목적은 아닌 것 같다. 재규어는 별 어려움 없이 죽일 수 있다. 사냥개들이 짖어 대며 재규어를 나무 위쪽으로 몰게 한 다음 소총으로 재빨리 해치우면 된다.

날씨가 나빠서 우리는 정박한 곳에 이틀 동안 더 머물러야 했다. 낙이라고는 저녁 식사 거리를 장만하기 위해 낚시를 하는 것뿐이었다. 물고기 몇 종류가 있는데 모두 맛이 좋다. 특히 '아르마도'(메기의 일종)라 불리는 물고기가 눈에 띈다. 이 물고기는 낚싯바늘이나 줄에 걸리면 거칠고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는데, 물 아래에서 소리를 내도 똑똑히 들린다. 이놈은 또한 가슴과 배지느러미에 있는 강한 가시로 어떤 물체, 예를 들자면 낚싯줄이나 배를 젓는 노의 가장자리 부분을 단단히 붙잡을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저녁이 되자 온도가 섭씨 28도를 가리키면서 거의 열대야를 방불케 한다. 수많은 반딧불이가 날아다니고 모기들은 큰 골칫거리다. 내 손을 약 5분 정도 밖으로 내놨더니 순식간에 모기들로 검게 덮여 버렸는데, 최소한 50마리는 될 것 같은 모기들이 모두들 열심히 피를 빨아 먹고 있었다.

10월 15일 | 우리는 다시 출발해 푼타고르다 지역을 지났다. 그곳에는 미시오네스 지방 출신의 온순한 인디오 마을이 있다. 물살을 따라 빠르게 아래로 내려오다가 날씨가 나빠질 수도 있다는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강의 지류에 정박했다. 나는 보트를 타고 멀리까지 올라가 봤다. 샛강은 매우 좁고 구불구불했

으며 깊었다. 강 양쪽에는, 덩굴 식물로 얽혀 있는 나무들이 9~12미터 정도의 벽을 형성하고 있어 특유의 음침한 분위기를 만들어 내고 있었다. 여기서 '가위부리scissor-beak'라 불리는 희한한 새인 검은집게제비갈매기Rhynchops nigra[15]를 보았다. 이놈들은 다리가 짧고 물갈퀴가 있으며 날개는 끝이 뾰족하고 길다. 몸체의 크기는 제비갈매기와 비슷하며 부리는 옆으로, 즉 노랑부리저어새나 오리의 부리에 직각을 이루는 면으로 넓적하다. 부리는 상아로 된 종이 자르는 칼처럼 평평하고 탄력이 있으며, 다른 새들과는 달리 아래턱이 위턱보다 4센티미터 정도 더 길다. 말도나도 근처에 있는 호수의 물이 거의 말라 잔고기들만 들끓을 때, 작은 무리를 지어 수면 위로 이리저리 빠르게 날고 있는 가위부리를 봤다. 그놈들은 부리를 크게 벌리고 아래턱을 반 정도 물에 담근 채 수면 위를 스쳐 가면서 물길을 가른다. 거울처럼 잔잔한 수면 위에 좁은 자취를 남기며 날아오르는 새 떼들의 모습은 정말 눈을 뗄 수 없을 정도로 멋진 광경을 연출한다. 이놈들은 날 때 매우 빠른 속도로 몸을 비틀어 구부리면서 아래턱을 내밀어 능숙하게 작은 물고기를 잡아 올린 후 가위 모양 부리의 나머지 반쪽인 짧은 위턱을 이용해 도망치지 못하게 한다. 바로 내 앞에서 제비처럼 앞뒤로 계속해 날아다닐 때 이런 모습을 몇 번이고 봤다. 이놈들은 가끔 과격하고 불규칙적으로 빠르게 수면 위로 날아오른 다음 크고 거친 울음소리를 낸다. 날개 중에 제일 긴 깃털은 날개가 물에 젖지 않도록 하는데, 이러한 이점은 이 새들이 물고기를 잡을 때 뚜렷이 관찰할 수 있다. 이 깃털을 사용할 때의 모습은 화가들이 상징적으로 그리는 바닷새의 모습과 비슷하다. 꼬리를 이용해 불규칙한 비행경로를 조종한다.

이 새들은 파라나 강 유역을 따라 내륙 쪽으로 멀리 들어가면 흔히 볼 수 있다. 이놈들은 1년 내내 그곳에 머물며 습지에서 번식한다고 한다. 낮에는 강물에서 조금 떨어진 풀밭에서 무리를 지어 휴식을 취한다. 앞서 얘기한 파라나

15 Rynchops nigra로 표기하기도 한다. 도요목Charadriiformes 집게제비갈매기과Rynchopidae에 속하는 물갈매기로, 그 부류에서 가장 크다-역주.

강의 섬들 사이에 있는 한 깊은 샛강에 정박하고 있을 때였다. 날이 저물어 갈 무렵, 가위부리 한 마리가 갑자기 모습을 나타냈다. 수면은 아주 고요했고 작은 물고기들이 떼를 지어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었다. 그 새가 좁은 수로를 따라 불규칙하게 오르내리면서 오랫동안 수면 위를 스쳐 지나가는 동안 밤이 깊어 가고 강물 주변의 나무는 그림자를 길게 드리우고 있었다. 몬테비데오에서는 이 새들의 무리가 낮 동안 항구 입구의 진흙 둑 위에, 파라나 강 유역의 초원에서 본 것과 같은 모습으로 앉아 있다가 저녁때가 되면 바다 쪽으로 날아가곤 하는 것을 봤다. 이런 사실로 미루어 검은집게제비갈매기는 물속 깊은 곳에 사는 많은 물고기들이 수면 위로 올라오는 밤에 주로 사냥을 하는 것 같다. 레송 씨는 칠레 연안에서 검은집게제비갈매기가 모래 둑에 묻혀 있는 개량조개의 껍데기를 까고 있는 것을 본 적이 있다고 했다. 부리가 약하고 아래턱은 아주 많이 돌출되어 있으며 짧은 다리에 긴 날개를 가진 모습으로 봐서 조개껍데기를 까는 습성이 일반적이라고 보기는 매우 어렵다.

파라나 강을 따라 내려가는 동안 단지 세 종류의 새들을 더 관찰할 수 있었는데, 그놈들의 습성은 언급할 만하다. 그중 한 종류는 작은 물총새Ceryle Americana(아메리카호반새)이다. 이놈은 유럽 종보다 꼬리가 길기 때문에 꼿꼿하게 곧은 모습으로 앉지 못한다. 뿐만 아니라 빠르게 직선으로 날지 못하고, 부드러운 부리를 가진 새들이 그렇듯, 화살이 지나가는 것처럼 약하게 기복을 두고 난다. 울음소리는 작은 돌 두 개가 살짝 부딪쳐 나는 소리와 같이 낮은 음색을 보인다. 또 다른 종인 작은녹색앵무새Conurus murinus는 가슴이 회색을 띠고 있으며, 섬에 있는 키가 큰 나무에 둥지를 튼다. 그곳에는 수많은 둥지들이 매우 가깝게 모여 있기 때문에 마치 큰 나뭇더미를 이루고 있는 듯하다. 이 앵무새는 항상 무리를 지어 살며, 밀밭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손해를 입히는 바람에 콜로니아 인근에서는 1년 동안 약 2천5백 마리를 잡아 죽였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마지막 종류의 새Tyrannus savana[16]는 포크 모양으로 갈라

16 이 종은 두갈래꼬리딱새Fork-tailed Flycatcher이다—역주.

진 꼬리를 가지며 끝부분이 긴 깃털 두 개로 되어 있어 스페인 사람들은 이를 '가위꼬리scissor-tail'라 부른다. 이 새들은 부에노스아이레스 근처에서 흔히 볼 수 있는데, 주로 인가 근처에 있는 상록 활엽수의 나뭇가지에 앉아 있다가 곤충을 잡기 위해 짧게 날아오른 다음, 다시 처음에 앉아 있던 지점으로 되돌아오는 버릇이 있다. 이놈들이 날 때의 모습은 흔히 볼 수 있는 제비들을 풍자적으로 그린 모습과 비슷하다. 이 새는 공중에서 매우 짧게 회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이때 꼬리를 마치 한 쌍의 가위처럼, 때로는 수평 방향으로 때로는 수직 방향으로 폈다 접었다 한다.

10월 16일 | 로사리오 아래로 수십 킬로미터에 걸쳐 펼쳐진 파라나 강 서쪽 해안의 깎아지른 듯한 절벽은 멀리 산니콜라스 아래까지 길게 뻗어 있다. 그래서인지 그곳은 민물이 흐르는 강기슭이라기보다는 해안의 모습을 더 많이 닮았다. 강둑의 흙이 부드러워 잘 흘러내려서 흙탕물이 되는 것이 파라나 강의 경관에서는 커다란 흠이다. 화강암 지역을 흐르는 우루과이 강은 깨끗한 편이다. 이 두 강이 합류하는 라플라타 강어귀에서는 먼 거리에서도 두 강의 색깔이 각각 검고 붉은 색으로 쉽게 구별된다. 저녁 무렵에 바람이 그리 좋지 않아서 여느 때처럼 곧바로 배를 정박했다. 다음 날, 바람은 선선해지고 물살도 항해하기에 좋은 편이었지만 선장이 너무 게을러 출발할 생각을 하지 않았다. 바하다에서 그 사람은 '늘 불안한 사람', 즉 같이 일하기에는 늘 괴로운 사람으로 낙인찍혀 있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그는 일이 지연되는 것을 경탄할 만한 체념으로 견딘다는 것이다. 그는 나이 많은 스페인 사람인데 이 지역에서 수년간 살고 있다. 그는 영국을 매우 좋아한다고 큰소리치지만, 한편으로 트라팔가르 전투는 전적으로 매수당한 스페인 함장들 때문에 영국이 이긴 것이며, 양쪽 군대 중에서 오로지 스페인 제독만이 진실로 용감하게 행동했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이 사람이 자기 나라 사람들을 미숙하거나 비겁한 것에서 더 나아가 최악의 배반자로 생각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이 나에게는 인격적인 면에서 더 큰 충격이었다.

10월 18일~19일 | 우리는 계속해서 그 멋진 강줄기를 따라 천천히 내려갔다. 물살은 항해에 그리 도움이 되지 못했다. 내려가는 동안 우리는 다른 배와 거의 마주치지 않았다. 자연이 준 최고의 선물인 이 광대한 수로는 교통수단으로 이용될 수도 있을 텐데, 여기서는 마치 누가 고의로 내팽개쳐 버린 것처럼 보인다. 많은 선박들이 온대 지역에서 엄청나게 많은 생산품들을 싣고 이 강을 따라, 세상 어느 곳과도 비견될 수 없을 정도로 비옥한 토양을 가진, 다른 열대 지역으로 항해해 가는 것을 상상해 보라! 만일 영국인들이 처음으로 라플라타 강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행운을 누렸다면 지금 강의 모습은 얼마나 달라졌을까! 주위에는 얼마나 멋진 마을이 들어서 있을까! 파라과이의 독재자인 프란시아가 죽을 때까지는, 아마도 이 두 지역은 마치 지구의 반대편에 있는 것처럼 뚜렷이 다른 상태로 남아 있으리라. 이 나이 많고 잔인한 폭군이 마침내 긴 생을 마감하면, 파라과이는 이전의 평온함이 부자연스러웠던 만큼이나 격렬한 혁명이 일어나 나라가 갈기갈기 찢길지도 모른다. 이 나라는, 남아메리카의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대다수 국민의 마음속에 정의와 명예의 원리가 깊이 내면화되기 전까지는 공화 정치가 결코 뿌리내릴 수 없다는 것을 배워야만 할 것이다.

10월 20일 | 파라나 강 입구에 도착했을 때, 나는 부에노스아이레스로 가고 싶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다. 그곳까지 말을 타고 갈 생각으로 라스콘차스에 있는 해안으로 갔다. 육지에 내리자마자 그곳에서 내가 어느 정도 포로 상태라는 것을 알고 무척 놀랐다. 무력 혁명이 일어나 모든 항구의 출입항이 금지된 상태였다. 나는 배로 돌아갈 수도 없었고 그렇다고 부에노스아이레스로 가는 것도 불가능했다. 그곳의 지휘관과 오랫동안 이야기한 후에야 비로소 이쪽 편에 주둔한 반군의 지휘관인 롤로르Rolor 장군을 다음 날 만나게 해 준다는 허락을 받았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말을 타고 그 장군이 있는 진영으로 갔다. 장군과 장교들 그리고 일반 병사들은 모두 나쁜 악한들로 보였고 실제 그랬다. 그 장군은 부에노스아이레스를 떠나기 바로 전날 저녁에, 자발적으로 총독에

게 나아가 가슴에 손을 얹고 자신만은 마지막까지 남아서 충성을 다할 것이라고 명예롭게 맹세한 사람이다. 장군 말에 의하면, 지금 부에노스아이레스는 완전히 봉쇄된 상태며, 자신이 해줄 수 있는 것은 킬메스에 있는 반군의 총책임 사령관에게까지 갈 수 있는 여행 허가증을 줄 수 있는 것뿐이라고 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도시를 멀리 돌아서 갈 수밖에 없었으며, 말을 구하는 데도 어려움이 많았다. 반군 진영에서는, 우리를 매우 정중하게 대해 주었지만 도시 안으로는 들어가지 못한다고 했다. 비글호가 실제보다 일찍 라플라타 강을 출항할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들어 매우 불안했다. 내가 콜로라도에 머물고 있을 당시 로사스 장군이 나에게 베풀어 준 친절을 얘기하자마자, 상황은 마술처럼 급반전됐다. 여행 허가증을 내줄 수는 없지만 안내자와 말들을 여기에 남겨두고 떠난다면 초소를 통과하게 해줄 수 있다는 것이다. 나는 너무 기뻐서 기꺼이 그 제안을 수락했다. 한 장교가 와서는 다리에서 멈추지 말고 계속 가야 한다고 지시했다. 5킬로미터 정도 되는 그 길은 몹시 황량했다. 한 분대의 병사들과 마주쳤는데 나의 낡은 여행 허가증을 보고 근엄한 표정으로 만족을 표시했다. 마침내 부에노스아이레스란 도시 안으로 내가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아주 기뻤다.

이 혁명은 어떤 명분 있는 불만 때문에 일어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아홉 달 동안(1820년 2월에서 10월까지) 정부가 15번이나 교체된 상황—총독은 헌법에 의해 3년 임기로 선출되지만—에서 그 어떤 구실을 묻는다는 것 자체가 이치에 맞지 않는다. 이번 혁명에서는 발카르세 총독에게 염증을 느낀 로사스 장군 측 사람들 70여 명이 도시를 떠나자, 전국에서 로사스를 외치며 무장 궐기한 것이다. 그 후 도시는 봉쇄되었고 식량이나 소, 말의 반입이 금지되었다. 그밖에 작은 충돌이 약간 있었고 매일 몇 명씩 사람들이 죽어 갔다. 시외에 있는 사람들은 시내로 들어가는 고기의 공급을 저지하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으리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로사스 장군은 이러한 봉기에 대해 알지 못했을 수도 있었겠지만, 그쪽의 계획과 반란 일정이 잘 들어맞는 것처럼 보인다. 몇 년

전에 로사스 장군은 총독으로 선출된 적이 있었지만, 그는 대법원이 자신에게 특별한 권력을 함께 주지 않는다면 거절하겠다고 했다. 그의 제안은 거절되었고, 그 후 그를 따르는 무리들은 다른 사람 어느 누구도 총독을 하지 못하게 했다. 양쪽 진영의 전투는 로사스로부터 어떠한 말이 나오기 전까지는 장기전으로 갈 공산이 크다. 내가 부에노스아이레스를 떠난 지 며칠 후 짧은 전문이 도착했는데, 내용이 로사스 장군은 평화가 깨지는 것을 인정할 수 없으며 시의 외곽 진영이 정당하다고 생각한다는 것이었다. 이 문건의 내용이 드러나는 순간 총독과 장관 그리고 군인들 일부를 포함해 수백 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도시에서 도망쳤다. 반란군은 도시로 입성해 새로운 총독을 선출했고 5천5백여 명에 이르는 사람들의 노고를 보상해 줬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 의해 궁극적으로 로사스 장군이 절대 권력자가 될 것이라는 것은 명백하다. 그가 왕에 해당하는 지위까지 간다면 이 나라 국민들은, 다른 나라 국민들과 마찬가지로, 왕을 특히 싫어하리라. 우리가 남아메리카를 떠난 이후, 로사스는 공화국의 헌법에 위배되는 권력을 한동안 부여받는 조건으로 총독에 선출되었다는 얘기를 들었다.

● 다윈은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산타페 근처 북부지역까지 답사하면서 관찰했던 출현 생물종, 특히 화석 생물과 기원 등을 지질학적 형성 과정과 관련시켜 자신의 추론을 과학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다윈은 호주의 점박이바우어새처럼 아무 물건이나 끌고 와서 굴 입구에 모아두는 습성을 지닌 비스카차가 살기에는 우루과이 강 동쪽의 반다오리엔탈 평원이 아주 적합한데도 불구하고 왜 전혀 발견되지 않을까라는 점에 큰 흥미를 느낀 것 같다. 또한 굴파기올빼미를 언급하면서 서식지와 먹이의 차이는 그 생물이 사는 지역적 환경 차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얘기한다. 후에 다윈은 우루과이 강이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으리라 추론하지만, 어떻든 간에 생물이 그 지역에 적응한 결과로, 일종의 적자생존이란 그의 진화론적 사고가 잠깐 나타나는 대목이 아닐까 싶다.
다윈은 산타페의 기후가 위도로 3도밖에 떨어지지 않은 부에노스아이레스와 심한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보고 매우 놀란다. 이는 사람들의 옷차림이나 안색, 거대한 상록 활엽 교목, 새로운 선인장과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전혀 볼 수 없었던 새들의 등장과도 관계가 있다. 다윈은 그중에서 네 종류의 새인 '가위부리'라 불리는 검은집게제비갈매기, 아메리카호반새, 녹색앵무새, 가위 꼬리 모양의 두갈래꼬리딱새의 모습이나 습성을 기술하고 있는데, 특히 '가위부리'가 날면서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는 모습, 공중에서 방향 회전을 하면서 꼬리를 가위처럼 폈다 접었다하는 '가위 꼬리'의 비행 모습을 회화적으로 잘 묘사하고 있다.
그 밖에도 살라디요 강 부근과 바하다 지방의 팜파스 퇴적층에서 지질학과 화석학 연구에 전력을 쏟는데 그 내용이 기존의 학설을 근거로 하여 과학적 추론에 따라 기술되어 있다. 다윈은 그곳에서 멸종된 포유동물인 톡소돈이나 마스토돈 등의 화석, 아르마딜로와 유사한 골갑, 말의 이빨 등을 발견한다. 그중 아메리카 말은 오언 교수에 의해 북아메리카에서 발견된 말의 이빨과 같이, 그 당시의 화석으로나 현존하는 종이 아닌 새로운 종으로 밝혀지고 '에쿠스 쿠

르비덴스'라 명명된다. 다윈은 이러한 남북아메리카 육상 동물의 유사한 분포 특징과 멸종을 지질학적 지각 변동으로 설명한다. 즉, 위에서 언급된 동물들이 지금은 침강해서 없어진 베링 해협을 따라 시베리아에서 북아메리카로 이동해서 살게 되었으며, 북아메리카의 서북지역과 그 당시에는 침강되지 않았던 서인도 제도가 가교 역할을 하여 남아메리카로 이주했고 한동안 남아메리카 대륙의 특정 종들과 섞여 살다가 멸종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를 위해 여러 가지 지질학적 사실과 근거를 들고 있는데, 다윈이 알고 있는 지식적 방대함이나 추론 방법이 가히 놀랄 만하다. 뿐만 아니라 다윈은 화석이 형성되는 한 방법을 제안하고 있는데, '대한발'과 '홍수'를 예로 들면서 그 당시의 기후 변화가 큰 역할을 했을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사회 · 문화 면에서, 다윈은 자신이 두통으로 고생하는 동안 알게 된 산타페 지방의 기묘한 민간 치료법들을 소개하고 있으며, 마지막 부분에서는 다윈이 파라나 강 입구에서 부에노스아이레스의 비글호로 돌아가는 도중에 로사스 장군이 이끄는 반군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되어 매우 힘들었다는 부분이 기술되어 있다. 다윈은 파라과이의 상태를 예로 들면서 "대다수 국민의 마음속에 정의와 명예의 원리가 고취되기 전까지는 공화 정치가 결코 뿌리내릴 수 없다"라고 언급한 바 있는데, 즉 이러한 싸움들이 계속되리라 조심스럽게 예측하며 안타까운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반다오리엔탈과 파타고니아



제8장
반다오리엔탈과 파타고니아

콜로니아델사크라멘토 답사—대농장의 가격—가축을 세는 방법—기이한 황소 품종—구멍 뚫린 자갈—양치기 개—말 길들이기와 가우초의 말 타기—원주민의 특성—라플라타 강—나비 떼—비행사 거미—바다의 인광—데지레 항—과나코—산훌리안 항—파타고니아의 지질—거대한 동물 화석—생물체 불변의 양상—아메리카 동물상의 변화—멸종의 원인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거의 2주일이나 지연된 후 몬테비데오로 가는 정기선을 타고 그곳을 겨우 빠져나왔다. 봉쇄된 도시에 머무는 것은 언제나 불쾌하다. 더군다나 이번에는 도시 내부의 강도들로부터 위협을 당해 더 마음을 졸였다. 다른 누구보다도 보초들이 가장 나빴는데, 그들은 자신의 지위와 무기를 이용해 다른 사람은 흉내도 낼 수 없는 권력을 휘두르며 강도 행각을 벌이고 있었다.

항해는 매우 길고 지루했다. 라플라타 강은 지도상에서는 근사한 강어귀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초라하기 짝이 없다. 드넓은 진흙물은 장대하지도 아름답지도 않다. 하루 중 단 한 번 낮은 강기슭 두 개가 갑판 위에서 간신히 구별되었다. 몬테비데오에 도착해 보니 비글호는 당분간 항해하지 않을 것이라고 해서, 반다오리엔탈 지역을 답사할 채비를 했다. 말도나도에 대해 말했던 것들은 몬테비데오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 그러나 '몬테비데오'[1]라는 이름을 따온 135미터 높이의 초록색 언덕을 제외하면, 이곳 지면이 훨씬 편평하다. 기복이 있는 초원은 거의 아무것으로도 둘러싸여 있지 않으나 마을 근처에는 용설란, 선인장, 회향풀로 뒤덮인 울타리 언덕이 약간 있다.

11월 14일 | 오후에 몬테비데오를 떠났다. 부에노스아이레스 맞은편, 라플라

1 몬테비데오는 포르투갈어로 '산이 보인다'는 뜻이다—역주.

타 강 북쪽 기슭에 위치한 콜로니아델사크라멘토로 간 다음 우루과이 강을 따라 올라가 네그로 강(남아메리카에는 이런 이름을 가진 강이 여러 개 있다)변에 있는 메르세데스 마을까지 갔다가 몬테비데오로 곧바로 돌아올 계획을 세웠다. 우리는 카넬로네스에 있는 안내인의 집에 묵었다. 다음 날 아침, 상당히 먼 거리를 여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안고 일찍 일어났으나 강들이 모두 범람하는 바람에 그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다. 우리는 보트를 타고 카넬로네스, 산타루시아, 산호세 강을 건너느라 많은 시간을 허비했다. 이전 답사에서 산타루시아 강어귀 부근을 말을 타고 건넌 적이 있는데, 그때 헤엄을 잘 치지 못하는 말이 적어도 폭이 540미터는 될 듯한 강을 어찌나 쉽게 건너는지 놀란 적이 있다. 몬테비데오로 돌아와 이 얘기를 하자, 예전에 떠돌이 약장수와 말을 실은 배가 라플라타 강에서 좌초됐는데 그때 어떤 말 한 마리는 11킬로미터를 헤엄쳐 강을 건너왔다고 누군가 말했다. 그날, 가우초 하나가 물에 들어가기 싫어하는 말을 다뤄 강을 건너게 하는 것을 보고 놀랐다. 그는 일단 옷을 벗고 말 잔등에 올라타서 말의 발이 땅에 닿지 않는 깊은 곳까지 말을 몰고 간다. 그런 다음 엉덩이 쪽으로 살짝 미끄러져 내려와 말의 꼬리를 꽉 붙잡고는 말이 고개를 돌릴 때마다 뒤쪽에서 말의 얼굴에 물을 끼얹어 말을 놀라게 한다. 말의 발이 반대쪽 기슭 바닥에 닿자마자 재빨리 말에 올라타 말이 강둑에 도달하기 전에 고삐를 잡고 단단히 앉는다. 벌거벗은 사람과 벌거벗은 말이 빚어내는 장관이란! 이보다 더 잘 어울리는 한 쌍은 없으리라. 말 꼬리는 매우 유용한 기관이다. 나는 네 사람과 함께 보트를 타고 강을 건넜는데, 그 보트도 앞에서 가우초가 한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강을 건너갔다. 사람과 말이 넓은 강을 건널 때 가장 좋은 방법은 말안장 앞머리나 말갈기를 한 손으로 붙잡고 다른 손으로 몸의 균형을 잡는 것이다.

우리는 쿠프레 우체국에서 이틀 동안 묵었다. 저녁 무렵 우편배달부가 도착했다. 로사리오 강이 범람해서 하루 늦게 도착한 것이지만 수확은 별 볼 일 없다. 반다오리엔탈의 주요 마을들을 거쳐 오면서 우편 행낭에는 편지 두 개만

달랑 있었다. 우체국에서 내다보이는 경관은 울퉁불퉁한 녹색 평원을 배경으로 멀리 라플라타 강이 어렴풋하게 펼쳐진 기분 좋은 경치다. 처음 도착했을 때와는 다른 시각에서 마을을 보게 되었다. 그때는 이 마을이 완전한 평지라고 생각했으나 팜파스를 달려 본 지금은 무슨 이유로 그렇게 생각했는지 놀라울 따름이다. 지역 전체가 울퉁불퉁한 언덕으로 쭉 연결되어 있는데, 그것들은 절대 큰 산은 아니라 하더라도, 산타페 평원과 비교해 볼 때 진정한 산에 가깝다. 이러한 지표면의 기복 때문에 작은 시냇물이 많고 지표면에는 초록색 풀이 무성하다.

11월 17일 | 수심이 매우 깊고 물살이 빠른 로사리오 강을 건너 정오 무렵 콜로니아델사크라멘토에 도착했다. 풀은 무성히 자라고 있지만 소나 사람은 거의 살지 않는 평야를 지나 96킬로미터 정도 갔다. 한 신사 분의 초대로 콜로니아에서 하룻밤 묵고 다음 날 그와 함께 석회암이 있는 그의 대농장을 방문했다. 그 마을은 몬테비데오와 같은 방식으로, 바위로 된 갑岬 비슷한 곳에 형성되어 있으며 매우 견고하게 요새화되었으나 요새와 마을 모두 브라질 전쟁 동안 많이 파괴됐다. 전체적으로 고풍스러운 분위기에, 불규칙하게 흩어져 있는 거리와 마을을 둘러싼 오래된 오렌지나무와 복숭아나무 과수원들이 아름다운 풍경을 이루고 있다. 폐허가 다 된 교회가 호기심을 불러일으킨다. 한때는 탄약고로 사용되었으나 라플라타 강에 천둥을 동반한 폭풍우가 몰아칠 때 벼락을 맞았다. 건물의 3분의 2는 뿌리째 날아가 버렸고 나머지 부분은 벼락과 화약이 합쳐 일으킨 폭발의 위력을 드러낸 채 기이한 유적으로 남아 있다. 저녁 무렵, 마을 중심부에 있는 반쯤 파괴된 벽들을 둘러봤다. 이곳이 바로 브라질 전쟁의 중심지였다. 그 전쟁은 이 나라에 많은 상처를 줬는데, 그 상처라는 것이 전쟁 직후에 나타나는 직접적인 피해라기보다는 군 장군들과 여러 계급의 장교를 수없이 양산하는 근원이 되었다는 것이다. 라플라타 지방 연합에 소속된 (보수를 받지는 않지만) 장교 숫자만 봐도 영국보다 많다. 이 신사들은 권력의 달콤함을 배웠고 작은 충돌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는다. 때문에 많은 사람이 교

란을 일으키고 정부를 전복시키기 위해 항상 경계 상태에 있어 이제까지 정부는 안정된 기반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나는, 이곳과 다른 여러 곳에서, 대통령 선거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됐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이 작은 나라가 번영하는 데 좋은 징후처럼 보인다. 주민들은 교육을 많이 받은 지도자를 원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몇몇 사람이 콜로니아를 대표하는 지도자의 장점에 대해 토론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다. "어떤 일에 대한 실무자가 아니더라도 중요 정책에 대해 결정하고 서명할 수는 있어." 이것을 볼 때 그들은 합리적 판단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지도자로서 충분한 자격을 갖췄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11월 18일 | 그 신사와 함께 아로요데산후안에 있는 그의 대농장으로 말을 타고 갔다. 저녁 무렵, 우리는 말을 타고 대농장 주위를 둘러봤다. 대농장은 린콘Rincon이라는 곳에 있으며, 대략 그 넓이가 3천6백 제곱킬로미터 정도 된다. 한쪽 면은 라플라타 강이 흐르고 다른 두 면은 건널 수 없는 개울로 막혀 있다. 작은 배가 정박할 수 있는 훌륭한 항구가 갖춰져 있고, 부에노스아이레스에 땔감으로 제공하는 작은 나무가 많다. 이렇게 완벽한 입지 조건을 갖춘 대농장의 가격이 궁금해졌다. 현재 3천 마리 정도 되는 소를 키우고 있으나 그것의 3, 4배는 더 수용할 수 있다. 암말 8백 마리, 잘 길들여진 수말 150마리, 양 6백 마리를 키우고 있으며 물과 화강암이 풍부하고 변변찮은 집과 잘 지어진 가축우리, 복숭아 과수원이 있다. 이 모든 것에 대해 2천 파운드를 내겠다고 한 사람이 있었는데 농장 주인은 거기에다가 단지 5백 파운드만 더 달라고 했으며, 아마도 그보다 더 싼 가격에라도 팔 것 같았다. 대농장의 가장 골칫거리는 일주일에 한 번씩 소를 길들이고 수를 세기 위해 농장 중앙으로 몰고 가는 일이다. 1만에서 1만 5천 마리나 되는 소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수를 세기가 매우 어렵다. 이 작업은 소들 스스로 40마리 내지 1백 마리씩 작은 무리로 나뉘는 것을 이용해 간신히 진행된다. 독특하게 표시한 몇몇 동물들을 보고 각각의 무리를 구별해 숫자를 센다. 만약 1만 마리 중 한 마리가 없어져도 그것

은 무리 하나가 없어진 것을 보고 알게 된다. 폭풍우 치는 밤에는 모든 소들이 한데 모여 있지만 다음 날 아침이 되면 전처럼 무리로 나뉜다. 아마도 소들은 1만 마리 중에서 같은 무리에 속하는 동료들을 아는 것 같다.

이 마을에 머무는 동안 나타Nata 또는 니아타Niata라고 부르는 매우 기이한 황소 품종을 두 번이나 봤다. 불도그나 퍼그 품종이 다른 개들과 연관된 것과 마찬가지로 이것들도 겉으로 봐서는 다른 소들과 연관되는 것 같다. 이마는 매우 짧고 넓으며 코끝은 위로 휘어져 올라갔고 윗입술은 뒤로 많이 젖혀져 있다. 아래턱이 위턱 위로 돌출해 굽어 있어서 이빨이 항상 드러나 보인다. 콧구멍은 위로 올라가 있고 매우 넓으며 눈은 돌출해 있다. 걸을 때는 짧은 목 때문에 머리를 낮추고 움직인다. 일반 소에 비해 뒷다리가 앞다리보다 더 길다. 이 황소들은 드러난 이빨, 짧은 이마, 위로 휘어진 콧구멍 때문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우스꽝스럽지만 자신만만하며 도발적인 분위기를 풍긴다.

돌아온 후에, 친구인 설리번 함장 덕분에 그 황소의 두개골을 얻어 지금은 왕립 의과 대학에서 소장하고 있다.[2] 룩산의 돈 F. 무니스 씨가 나를 위해 모아 준 자료에 의하면, 그 황소들은 약 80~90년 전에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는 매우 드물고 신기한 품종이었다. 그 품종은 라플라타 강 남쪽의 인디오 부족에서 기원했으며 그 부족들과 함께 매우 흔했던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그런 까닭에 심지어 오늘날까지도, 라플라타 강 인근 마을에서 사육하는 황소들에게는 이런 덜 문명화한 인디오 부족에서 기원한 습성이 남아 있다. 일반 소에 비해 더 사납고, 갓 태어난 송아지를 사람들이 자주 들여다보거나 귀찮게 하면 새끼를 쉽게 버려 버린다. 니아타의 비정상적인 모습에 거의 유사한 구조가,[3] 포크너 박사가 알려 준 대로, 인도의 멸종 반추동물인 시바테리움의 특징을 나타낸다는 것은 기이한 사실이다. 이 품종의 혈통은 매우 순수하다. 니

2 워터하우스 씨가 이 두개골에 대해 자세히 기술했고 조만간 학술지에 발표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3 유전성인지 알 수 없으나, 이와 유사한 비정상 구조들을 갠지스 강에 사는 잉어와 악어에서도 관찰했다. 조프루아 생틸레르, 《비정상 이야기》 1권, 244쪽.

아타 암소와 수소를 교배하면 항상 니아타 송아지가 태어난다. 니아타 수소와 일반 암소를 교배하거나 일반 수소와 니아타 암소를 교배하면 중간 특징을 가진, 그러나 니아타의 특징을 더 많이 가진 송아지들이 태어난다. 무니스 씨에 의하면, 이러한 교배에서 농학자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현상이 니아타에게 나타난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다. 니아타 암소와 일반 수소 사이에서 태어난 송아지는 그 반대 경우보다 모계의 특성을 더 강하게 물려받는다. 목초가 어느 정도 자라 있을 때, 니아타는 혀와 입천장으로 일반 가축들처럼 풀을 뜯어 먹을 수 있다. 그러나 가뭄이 오래 지속돼 많은 동물들이 굶어 죽게 되면 니아타는 상당히 불리한 처지에 놓이게 돼, 누군가가 보살피지 않으면 몰살할 것이다. 말 같은 일반 가축들은 나무나 갈대 가지를 입술로 훑어 연한 새싹을 먹으면서 살아남을 수 있지만, 니아타는 입술이 다물어지지 않아 이것이 불가능하다. 그리하여 다른 가축들 앞에서 굶어 죽는 니아타들이 생긴다. 이는 어떤 생물의 평상시 습성보다는 오래 간격을 두고 발생하는 특정 상황이 종의 감소와 멸종을 결정한다는 것을 알게 해 주는 좋은 예가 된다.

11월 19일 | 라스바카스 계곡을 지나, 아로요데라스비보라스 강에 있는 석회 가마에서 일하는 북아메리카 사람의 집에 묵었다. 아침에, 그 강변에 있는 푼타고르다라는 방어용 곶으로 갔다. 가는 길에 재규어를 찾아봤다. 선명한 발자국이 많았고, 재규어가 발톱을 간다고 들었던 나무에도 가 봤으나 재규어를 발견하지는 못했다. 이곳에서부터 우루과이 강의 수량이 많아진다. 물이 맑고 빨리 흘러 부근의 파라나 강보다 훨씬 웅장해 보인다. 건너편 기슭에서, 파라나 강으로부터 나오는 지류 몇 개가 우루과이 강과 합류한다. 햇빛이 비치면 두 물줄기의 색깔을 뚜렷이 구분할 수 있다.

그날 오후에, 네그로 강변에 있는 메르세데스로 갔다. 밤에 우연히 도착하게 된 대농장에서 하룻밤 묵기를 청했다. 그곳은 2천3백 제곱킬로미터 정도 되는 매우 넓은 사유지로, 주인은 이 지역에서 매우 유력한 지주였다. 조카가 농장을 관리하고 있으며 얼마 전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도망쳐 나온 육군 대위

가 한 명 있었다. 그들의 지위를 고려해 볼 때, 그들과 나눈 대화 내용은 놀라운 것이었다. 보통 사람들이 그러하듯이, 그들은 지구가 둥글다는 사실에 무한한 놀라움을 나타냈고 만약 구멍을 충분히 깊이 파면 지구의 반대편이 나올 것이라는 얘기를 거의 믿지 않았다. 그러나 여섯 달 동안 낮이 지속되고 여섯 달 동안 밤이 계속되는 나라가 있다는 것,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키가 크고 매우 말랐다는 것 등에 대해서는 들은 적이 있는 것 같다. 그들은 영국에서 사육하는 소와 말의 가격과 상태에 대해 궁금해했다. 우리는 소와 말을 잡을 때 올가미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자, "오! 그러면 볼라만 쓰는군요"라고 소리쳤다. 바다로 둘러싸인 나라란 그들에게는 매우 낯선 것이었다. 대위는 마지막으로 나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겠으니 솔직히 대답해 주면 고맙겠다고 했다. 나는 학문적으로 얼마나 어려운 질문을 할까 은근히 걱정됐다. 그런데 질문이란 게 이런 것이었다. "이 세상에서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아가씨들이 가장 매력적이라고 생각합니까?" 나는 마치 배교背敎한 사람처럼 대답했다. "매력적이고말고요!" 그는 덧붙였다. "물어볼 게 하나 더 있는데요, 다른 나라의 아가씨들도 그렇게 큰 빗을 꽂고 있나요?" 나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단호히 말해 줬다. 그들은 엄청나게 좋아하며 큰 소리로 말했다. "보라구! 전 세계의 반을 다녀본 신사 분이 그렇다고 하잖아. 우리가 항상 그럴 것이라고 생각해 왔던 것이 이제는 사실이란 것을 알게 된 거야!" 빗과 아름다움에 대한 나의 훌륭한 판단으로 인해 매우 호의적인 대접을 받았다. 장교는 나를 기어이 자기 침대에서 자게 하고 자신은 야전 침대에서 잤다.

11월 21일 | 아침 일찍 출발해서 하루 종일 천천히 말을 달렸다. 이 부근은 그 지방의 다른 곳과 지리적 특성이 다르고 팜파스와 매우 유사하다. 엉겅퀴와 솜엉겅퀴의 광대한 덤불숲이 펼쳐져 있으며 실제 이 지역 전체가 이 식물로 뒤덮여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두 종의 식물은 서로 떨어져 자라고 같은 종끼리만 교배한다. 솜엉겅퀴는 말 잔등만큼 키가 크지만 초지 엉겅퀴는 말 탄 사람 머리보다 더 큰 것도 있다. 길 양쪽은 일부분 또는 전체가 이 식물들로

막혀 있어 길에서 약 1미터 정도도 벗어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물론 목초지는 없다. 만약 소와 말이 일단 그 덤불숲으로 들어가면 한동안은 길을 전혀 찾지 못한다. 그러므로 이 시기에 가축을 이동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왜냐하면 엉겅퀴 가까이로 소를 몰아가면 소들이 엉겅퀴 사이로 돌진해 들어가 더 이상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이 지역에는 대농장이 거의 없고 그나마 몇 안 되는 것들은 물이 있는 계곡 근처에 있다. 다행히 그곳에는 이렇게 큰 식물들이 자랄 수 없다. 하루 여정이 끝나기도 전에 어두워져, 극빈층 사람들이 살고 있는 작고 초라한 오두막집에서 잤다. 그들의 생활 수준을 감안할 때 주인 내외가 다소 형식적이긴 하지만 극진한 호의를 베풀어 줘서 무척 고마웠다.

11월 22일 | 나의 친구인 럼브 씨가 소개해 준, 버켈로 강변에 있는 대농장에 도착해 3일 동안 머물렀다. 어느 날 아침, 친절한 영국인 농장 주인과 함께 네그로 강 상류 쪽으로 약 30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시에라델페드로플라코에 갔다. 그 지역은 말의 배까지 올라오는 큰 풀로 덮여 있다. 조악하지만 그래도 잘 자란 풀밭에는 수십 제곱킬로미터 내에 단 한 마리의 소도 보이지 않는다. 반다오리엔탈 지방은 잘만 키운다면 막대한 수의 동물을 수용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몬테비데오의 연간 소가죽 수출량은 30만 개에 달한다. 버려지는 것을 포함해 자체 수요도 상당하다. 종종 먼 거리에 있는 염장 시설로 거대한 소떼를 몰고 가는 도중에 지친 소들은 그 자리에서 죽여 가죽을 벗긴다. 이렇게 해서 고기가 생겨도 '농장주'는 가우초들이 그 고기를 먹도록 설득하지 못한다. 대신, 매일 저녁 식사를 장만하기 위해 새로 싱싱한 소를 도살한다니! 시에라에서 본 네그로 강 풍경은 이 지방의 그 어느 것보다 아름답다. 넓고 깊고 빠르게 흐르는 그 강은 깎아지른 듯한 암벽 아랫부분을 휘감아 돈다. 물길을 따라 나무가 자라고 멀리 기복이 있는 풀밭에서 지평선이 끝난다.

이 부근에 있을 때, 북쪽으로 수 킬로미터 떨어진 시에라데라스켄타스에 대해 여러 번 들은 적이 있다. 그 이름은 구슬의 언덕을 의미한다. 그곳에는 작은 원통형 구멍이 나 있는 다양한 색의 작은 구슬들이 무척 많다고 한다. 예전에

인디오들은 목걸이나 팔찌를 만들기 위해 그것들을 모으곤 했다. 아마도 내가 관찰한 바에 의하면, 이러한 취미는 문명사회나 원시 부족 모두에 공통된 것 같다. 나는 이 돌들이 이해되지 않았다. 그러다 희망봉에서 앤드류 스미스 박사에게 그것을 언급하자, 그는 산존스 강 동쪽으로 160킬로미터가량 떨어진 아프리카 남동 해안에서 석영 결정을 본 적이 있다고 했다. 그 결정은 마모되어 가장자리가 무뎌진 채 바닷가의 자갈들과 섞여 있었다. 각 결정은 지름이 약 1센티미터 정도, 길이는 3~4센티미터 정도 됐다. 많은 결정에는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까지 뻗어 있는 작은 원통형 관이 뚫려 있었고, 관의 크기는 가는 실이나 가죽 줄이 쉽게 통과할 수 있을 정도였다. 색은 빨갛거나 우중충한 흰색이다. 원주민들은 결정 속에 있는 이런 구조에 대해 익히 알고 있다. 내가 이러한 정황을 언급하는 이유는, 지금은 비록 결정체 속의 이 구조에 대해 잘 알지 못하더라도, 훗날 다른 여행자가 이 돌멩이의 정체를 알아낼 수 있는 길을 열어 놓고자 함이다.

농장에 머무는 동안 그 지방의 양치기 개에 대해 놀라운 사실을 보고 들었다.[4] 말을 타고 가다 보면, 집이나 사람으로부터 수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개 한두 마리가 큰 양 떼를 지키고 있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다. 나는 개와 양 사이에 어떻게 그처럼 확고한 믿음이 형성될 수 있는가 의아해하곤 했다. 이 개들은 어렸을 때부터 어미 개와 떨어져서 미래의 동료인 양들과 친해지도록 훈련받는다. 일주일에 3~4회 정도 양젖을 빨게 하고, 양 우리 안에 있는 양모로 만든 둥지에서 자란다. 다른 개나 한 배 새끼들과 접촉하는 것은 완전히 차단된다. 더군다나 그 강아지들 대부분은 거세하기 때문에 커서도 같은 종 개들에게 일어나는 감정이 거의 없다. 이렇게 훈련받은 개는 양 무리를 떠날 생각을 하지 않게 되고, 다른 개들이 그의 주인인 사람을 보호하는 것처럼 이 개들은 양을 지킨다. 누군가 양 무리에 접근하면, 개들이 짖어 대며 재빨리 앞으로 튀어나오고 양들은 가장 나이 많은 숫양 주위에 모이듯이 개 뒤쪽에 모여드는

4 도르비니 씨도 이러한 개에 대해 자세히 언급했다. 1권, 175쪽.

것을 보고 놀랐다. 저녁때 일정한 시간이 되면 개들이 양 떼를 집으로 몰고 오게 하는 것도 쉽게 훈련할 수 있다. 가장 큰 골칫거리는, 개들이 어릴 때 서로 달려들며 노는 습성이 있어서, 양 떼를 향해 무지막지하게 질주해 들어가는 놀이를 즐긴다는 것이다.

양치기 개는 고기를 먹으러 매일 민가로 오는데, 고기를 받으면 부끄러운 듯 슬금슬금 꽁무니를 뺀다. 이럴 때면 집에서 키우는 개는 매우 포악해져서 양치기 개를 공격하며 뒤쫓아 간다. 그러나 쫓기던 양치기 개는 양 무리에 도달하는 순간 휙 돌아서서 짖기 시작한다. 그러면 집개들은 재빨리 도망쳐 온다.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아무리 굶주린 들개 무리라 해도 충직한 양치기 개가 단 한 마리만 있어도 쉽사리 그 양 떼를 공격하지 못한다(이제까지 들어 본 적이 없다). 앞에서 나열한 사례들은 개들이 서로에게 갖는 우호적 감정에 유연성이 있음을 보여 준다. 그러나 야생의 개든 훈련된 것이든 간에, 동료들과 유대관계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존경과 두려움의 감정을 갖는 것 같다. 왜냐하면 양치기 개가 단 한 마리만 있어도 들개가 쫓겨 가는 현상을 이해하는 방법은, 들개가 양 떼와 함께 있는 양치기 개를 마치 동종의 개들과 연합해 힘을 얻고 있는 것으로 착각한다는 것 외에는 없기 때문이다. 퀴비에가 관찰한 바에 의하면, 쉽게 길들여지는 동물들은 인간을 자기들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간주해 유대 관계를 이루려는 본능을 충족시킨다고 한다. 위의 사례에서 양치기 개는 양들을 동료로 생각하고 자신감을 갖는 것이며, 들개는 개개의 양들이 개가 아니라 먹잇감이라는 것을 익히 알고 있으면서도, 양치기 개를 앞세운 양의 무리를 보면 자신들의 판단을 반신반의하는 것 같다.

어느 날 오후, 망아지를 길들이기 위해 '도미도르domidor'(말을 조련하는 사람)가 왔다. 다른 여행자들이 이에 대해 언급한 적이 없는 것 같아 지금부터 그 과정을 기술하려고 한다. 일단 야생의 망아지 무리를 가축우리나 말뚝으로 둘러친 큰 우리 안에 몰아넣는다. 이제까지 고삐나 안장을 매어 본 적이 전혀 없는 말을 사람이 잡아 올라타야 한다고 가정해 보자. 내가 보기에, 가우초 말고 그

런 묘기를 부릴 수 있는 사람은 없는 듯싶다. 가우초는 다 자란 망아지 하나를 고른 다음, 우리 안에서 미친 듯이 뛰어다니는 그 야생마에게 올가미를 던져 앞다리 두 개를 붙잡는다. 말은 곧바로 큰 충격을 받으며 나뒹굴어 땅바닥에서 안간힘을 쓰고, 그동안 가우초는 올가미를 단단히 잡고 고리를 만들어 말굽 뒤쪽 털 바로 아랫부분에 걸어서 뒷다리 하나를 잡는다. 그런 다음 올가미를 잡아당겨 앞다리 두 개와 뒷다리 하나를 한데 묶는다. 곧이어 말의 목에 앉아 재갈은 하지 않은 채 아래턱에 강한 고삐를 고정한다. 이 과정은 가느다란 가죽끈을 고삐 끝에 있는 작은 구멍에 꿰어 턱과 혀를 여러 번 돌려 매는 것이다. 이제 앞다리 두 개를 강한 가죽끈으로 묶고, 당기면 쉽게 풀릴 수 있는 매듭으로 고정한다. 그런 후 앞다리 두 개와 뒷다리 한 개를 묶었던 올가미를 풀어 주면 말은 힘겹게 일어난다. 그러면 가우초는 아래턱에 단단히 고정되어 있는 고삐를 잡고 우리 밖으로 말을 몰고 나온다. 만약 다른 가우초가 대기 중이라면(그러지 않으면 더 힘들어진다), 그가 말 머리를 붙잡고 있는 동안 처음 가우초는 말 옷과 안장을 얹고 뱃대끈으로 묶는다. 이러는 동안 허리를 묶인 말은 두렵고 놀란 나머지 계속 땅바닥에 쓰러져 채찍으로 맞기 전까지는 일어나려고 하지 않는다. 마침내 안장 얹기가 끝나면 그 가엾은 동물은 두려움에 거의 숨도 못 쉴 정도가 되고 땀과 거품으로 하얗게 뒤범벅이 되어 있다. 이제 말이 균형을 잃지 않도록 등자쇠를 세게 누르면서 말에 올라탈 준비를 한다. 가우초가 말 등에 발을 올려놓자마자 앞다리를 묶고 있던 매듭을 잡아 당겨 풀어 주면 말은 자유롭게 된다. 어떤 '도미도르'들은 말이 땅바닥에 누워 있을 때 매듭을 풀어 주고 안장에 앉은 다음 말이 사람 아래에서 일어서게 한다. 공포에 질린—아직은 야생인—말은 이리 뛰고 저리 뛰며 심하게 저항을 한다. 그런 다음 미친 듯이 달린다. 말이 녹초가 되면, 가우초는 인내심을 가지고 우리 안으로 다시 몰아넣는다. 뜨거운 입김을 내뿜으며 기진맥진한 말은 그곳에서 비로소 자유를 얻게 된다. 고집스럽게 땅바닥에 누워 달리려 하지 않는 말이 가장 골칫거리다. 이런 과정은 매우 가혹하지만 두세 번 만에 길들일 수 있다.

그러나 말에게 쇠로 된 재갈과 금속성 고리를 부착하기까지는 여러 주일이 걸린다. 왜냐하면 가장 강력한 고삐를 매달기 전에, 말이 고삐의 당김으로 말 타는 사람의 뜻을 알 수 있게 훈련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지방에는 동물이 워낙 흔해서 자비심과 이기심이 공존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나는 이곳에서 자비심을 거의 찾아볼 수 없음에 두려움을 느낀다. 어느 날, 인품이 매우 훌륭한 어떤 '농장주'와 팜파스를 달릴 때였다. 내가 탄 말이 지쳐서 따라가지 못하자 농장주는 박차를 가하라고 소리쳤다. 말이 너무 지쳐 있어서 그것은 무리라고 이의를 제기하자, 그는 "도대체 왜 안 하는 거요? 염려 마시오. 그건 내 말이란 말이오"라고 소리쳤다. 내가 박차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가 농장주를 위해서가 아니라 말의 안전을 위해서라는 것을 그에게 이해시키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일이었다. 그는 무척 놀란 표정으로 "오, 돈 카를로스, 이게 무슨 일이람!" 하고 소리쳤다. 자비심이 그의 머릿속에 들어가기란 불가능한 것이 확실하다.
가우초는 말을 완벽하게 잘 타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다. 말이 어떻게 하든, 그들은 말에서 떨어진다는 것은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 그들 기준에 의하면, 말을 잘 타는 사람이란 길들이지 않은 망아지를 다룰 수 있는 사람, 말이 넘어져도 그 자신은 뛰어내릴 수 있는 사람 또는 그에 상응하는 다른 재주가 있는 사람이다. 자기 말을 20번 넘어뜨리고 그중 19번은 떨어지지 않는 것에 돈을 걸었다는 가우초도 있다. 매우 고집이 세서 세 번이나 연속해서 뒤로 넘어질 만큼 높이 뛰어오르며 저항하는 말을 타는 가우초를 본 적도 있다. 그 사람은 뛰어내려야 할 적절한 순간을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냉정하게 판단했고, 말이 일어나자마자 말 등에 올라타 마침내 전속력으로 달리기 시작했다. 가우초는 말을 다루는 데 어떤 완력을 사용하는 것 같지는 않다. 어느 날 가우초 한 명이 말에 올라탄 것을 봤다. 그때 우리는 말을 타고 전속력으로 달리고 있었는데, 나는 속으로 '저 사람, 말 위에 너무 부주의하게 앉아 있어서 말이 달리기 시작하면 분명히 떨어질 것 같은데'라고 생각했다. 그 순간 말의 코 바로 밑에 있던

둥지에서 수타조 한 마리가 튀어나왔다. 어린 망아지는 수사슴처럼 한쪽으로 튀어 올랐으나, 가우초는 능숙한 솜씨로 놀란 말을 진정시킬 따름이었다.

칠레와 페루에서는 라플라타보다 말 입에 더 큰 고통이 가해진다. 이는 분명히 그 나라가 가진 보다 복잡한 특성에 기인한다. 칠레에서는 말이 전속력으로 달리다가 어떤 지점, 예를 들어 땅 위에 던져진 망토 같은 것 앞에 딱 멈춰 설 수 있을 때까지 또는 벽을 향해 질주하다 멈춰 서서 발톱으로 벽을 긁어 대기 전까지는 완전히 길들인 것으로 보지 않는다. 원기 충천해서 튀어 오르던 말이 엄지와 검지만으로 고삐를 살짝 당겨 주는 것만으로도 전속력으로 안마당을 가로지른 다음 베란다 기둥 주위를 빙빙 도는 것을 본 적이 있다. 기둥으로부터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도는 동안 말 탄 사람은 한쪽 팔을 뻗어 손가락 한 개로 기둥을 문지르고 다른 팔도 이와 같이 뻗어 공중에 반원을 그리며 돈 다음 놀랄 만한 힘으로 반대 방향으로 돈다. 그런 말은 잘 길들인 것이다. 처음에는 이런 것들이 쓸모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전혀 그렇지 않다. 일상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숙달시키는 것뿐이다. 황소 한 마리를 골라 올가미로 잡으면 그것은 우리 안을 전속력으로 몇 바퀴씩 도는데, 이때 세게 잡아당기는 힘에 놀란 말이 만약 잘 길들이지 않은 것이라면, 바퀴가 돌듯 자연스럽게 돌려고 하지 않는다.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죽는다. 가죽끈이 한번 사람 몸에 감기면 말과 소가 반대로 당기는 힘 때문에 사람 몸은 순식간에 두 동강이 난다. 이와 같은 원리로 말 경주도 진행된다. 2~3백 미터 정도 되는 코스를 최대한 빨리 달리면 이기는 것이다. 경주마는 말발굽으로 선을 밟고 서 있다가, 첫 도약 시 뒷다리와 볼기가 최대한 힘을 발휘할 수 있게 네 다리를 함께 모으도록 훈련을 받는다. 잘 길들인 말이 쓸모 있음을 보여 주는 좋은 예를 칠레에서 들은 적이 있다. 어느 날 어떤 점잖은 사람이 말을 타고 가다가 두 사람을 만났다. 그들 중 한 명은 말을 타고 있었는데 그 말은 그 신사에게서 훔쳐 간 것이었다. 신사가 따지자 그들은 칼을 빼들고 공격해 왔다. 신사는 잘 길들인 빠른 말 덕분에, 그들보다 앞서 달리다 갑자기 두꺼운 덤불 속으로 획 들어간

다음 빙 돌아와 길목에서 정확하게 말을 멈췄다. 추격자들은 어쩔 수 없이 가던 방향으로 지나쳐 갈 수밖에 없었다. 그는 곧바로 뒤를 따라가며 그들 중 한 명의 등에 칼을 꽂고 다른 사람에게는 부상을 입혔다. 그러곤 도난당한 자기 말을 되찾아 집으로 돌아갔다. 이런 묘기에 가까운 승마술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 한 가지는 중세 노예 기병들이 사용했음직한 강력한 재갈이다. 이것은 거의 사용하지 않지만 말은 그것의 위력을 익히 알고 있다. 다른 하나는 큰 돗바늘 박차로, 그것은 말의 피부를 단순히 건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극심한 고통을 주기도 한다. 말의 피부를 살짝 건드리기만 하는 영국 박차로는 남아메리카 방식으로 말을 길들이는 일이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든다.

라스바카스 근방에 있는 대농장에서는 매주 가죽을 얻기 위해 굉장히 많은 수의 암말을 도축한다. 가죽 한 매당 약 5달러나 반 크라운 정도밖에 받지 못하는데도 암말을 죽이는 것이 처음에는 이상하게 생각되었다. 그러나 이 나라에서는 암말을 길들이거나 타는 것을 무척 우스꽝스럽게 여기기 때문에 암말은 번식 이외의 용도로는 가치가 없다. 암말이 이용되는 것을 본 것이라곤 밀 이삭을 밟아 낟알을 털어 내는 일뿐이다. 이를 위해 밀 다발을 둥근 우리에 뿌려 놓고 암말을 돌게 한다. 암말을 도축하는 사람은 올가미를 능숙하게 다뤄 찬사를 받곤 한다. 그는 말 우리 입구로부터 약 11미터 떨어진 곳에 서서 그 앞을 전속력으로 지나가는 말의 다리를 한 마리도 놓치지 않고 붙잡을 수 있다는 것에 내기를 걸었다. 어떤 사람은 우리로 걸어 들어가 말을 잡고 재빨리 말의 앞발을 단단히 묶은 다음 우리 밖으로 끌고 나와 땅바닥에 쓰러뜨려 가죽을 벗겨 말뚝에 널어 말릴 것이라고 말했다(가죽을 말리는 것은 지루한 작업이다). 그는 위의 모든 과정을 거쳐 하루에 22마리를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 또는 동시에 50마리를 죽여 가죽을 벗기겠다고 호언장담했다. 대개 15~16마리만 처리해도 잘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는 실로 놀라운 작업량이다.

11월 26일 | 몬테비데오로 향하는 직선 경로를 따라 떠났다. 네그로 강으로 흘

러들어 가는 작은 지류인 사란디스 인근 농가에 굉장히 큰 동물 뼈가 있다는 소문을 듣고 집주인과 함께 가서 톡소돈 두개골을 18펜스에 샀다.[5] 발견될 당시, 그것은 거의 완벽히 보존된 상태였으나 그 후 동네 꼬마들이 돌멩이로 이빨을 부러뜨리고 던지기 놀이를 할 때 표적으로 이용했다. 다행히도 두개골 구멍에 딱 들어맞는 거의 완벽한 이빨 하나가 이곳으로부터 약 280킬로미터 떨어진 테르세로 강 제방에 묻혀 있는 것을 발견했다. 이 비상한 동물 화석들이 다른 두 곳에서 더 발견되는 것으로 봐서 예전에는 아주 흔했음이 틀림없다. 또한 이곳에서 아르마딜로와 비슷한 동물의 커다란 골판 조각과 밀로돈의 두개골 일부를 발견했다. 이 머리뼈는 묻힌 지 오래되지 않아, 리크스 씨의 분석에 의하면, 동물성 물질이 7퍼센트나 포함되어 있고 알코올램프에 넣으면 작은 불꽃을 내며 탄다. 팜파스를 이루며 반다오리엔탈의 화강암 지대를 덮고 있는 거대한 하구 퇴적층에는 엄청나게 많은 동물 화석이 묻혀 있는 것이 확실하다. 팜파스에서 어느 방향으로 선을 긋든 틀림없이 뼈들과 부딪칠 것이다. 짧은 답사에서 내가 발견한 것 외에도 많은 이야기들을 들었다. '동물의 강', '자이언트의 언덕'과 같이 발견된 곳의 이름만 들어도 대번에 알 수 있다. 초자연적인 힘을 지닌 강에 대해서 들은 적이 있는데, 그 강은 작은 뼈들을 큰 것으로 변하게 하거나, 어떤 이가 주장하듯, 뼈 자체가 저절로 커지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 이곳에서 발견되는 거대 동물들은, 이전 사람들이 추정한 대로, 현재의 늪지나 진흙 강바닥에서 죽었다기보다는 원래 묻혔던 물속 퇴적층이 흐르는 물에 의해 침식되어 드러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적절할 듯싶다. 팜파스 전 지역은 멸종된 거대 포유류의 장대한 무덤이라고 결론지어도 될 것이다.

이틀 반을 걸려 28일 정오경에 몬테비데오에 도착했다. 가는 동안 지나친 지역들은 비슷비슷했다. 몇몇 곳은 라플라타 강 근처보다 바위가 많고 언덕이

5 베르켈로의 케안 씨와 부에노스아이레스의 럼브 씨에게 깊이 감사드린다. 이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이 귀중한 화석들을 영국까지 가져오지 못했을 것이다.

좀 있었다. 몬테비데오에서 멀지 않은 라스피에트라스를 지났다. 마을의 이름은 커다란 둥근 섬장암에서 따온 것이다. 그곳 풍경은 비교적 아름다웠는데, 지면에서 30미터 정도 높은 곳에 무화과나무로 둘러싸인 집들은 그림같이 아름답다는 소리를 들을 만했다.

지난 6개월 동안 이곳에 머물면서 이 지방 주민들의 특성을 어느 정도 알게 됐다. 가우초, 즉 시골 사람들이 도시 사람들보다 더 낫다. 그들은 매우 친절하고 정중하며 호의적이다. 이제까지 무례하거나 적대적인 경우를 한 번도 보지 못했다. 그들은 겸손하고 자기 자신뿐 아니라 나라를 존중하며 동시에 용감하고 대담한 친구들이다. 반면에 강도질과 유혈 충돌이 잦은데, 일상적으로 칼을 휴대하는 습관이 유혈 충돌의 주원인이다. 사소한 말다툼으로 얼마나 많은 목숨이 없어지는지 안타까울 따름이다. 싸움을 하는 당사자들은 적의 코나 귀에 사선을 긋는다. 이렇게 해서 종종 얼굴에 깊고 무시무시한 상처를 남긴다. 나라 전체에 만연해 있는 도박, 음주, 지독한 게으름은 자연히 도둑질로 연결된다. 메르세데스에서 나는 어떤 두 사람에게 왜 일을 하지 않냐고 물었다. 한 사람은 정색을 하며 하루가 너무 길어서라고 대답했고, 다른 사람은 너무 가난해서라고 답했다. 말馬이 많고 식량이 풍부한 것이 모든 공업의 몰락을 초래했다. 더군다나 축제가 매우 많고, 보름달이 될 때까지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이런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한 달의 절반이 날아가 버리는 것이다.

이곳에서는 경찰력과 사법권이 매우 비효율적이다. 가난한 사람이 살인을 하고 붙잡히면 그는 감옥에 갇히고 아마도 총살될 것이다. 하지만 그가 부자이고 경찰이나 법조계에 친분이 있다면, 그것 때문에 그리 심한 벌을 받지는 않을 것이다. 이 지역에서 가장 존경받는 주민들 대부분이 살인자의 탈출을 도와주는 것이 나로서는 이상하다. 그들에게 위법적인 행위란 사람에게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정부에 죄를 짓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여행자들은 자체적으로 무기를 소지하는 것 외에는 다른 보호책이 없고, 총을 늘 휴대하고 다니는 것만이 빈번한 강도질에 대한 방책이 된다. 도시 사람들 중 지위가 높

고 교육을 많이 받은 계급들은 가우초들이 갖는 훌륭한 품성을 어느 정도, 그들보다는 수준이 낮으나, 갖고 있다. 그러나 내가 우려하는 것은 그들이 자유분방함에서 오는 온갖 부도덕함에 물들어 있다는 것이다. 음란함, 종교에 대한 조롱 그리고 가장 극심한 타락이 일상화되어 있다. 거의 모든 관리들을 매수할 수 있다. 우체국장은 위조된 정부 발행 무료 송달증을 팔아먹는다. 총독과 총리가 결탁해 공공연하게 주州 재산을 노략질한다. 돈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사법부는 거의 기대할 것이 없다. 내가 아는 한 영국 사람이 재판장에게 갔다(그때는 재판정이 돌아가는 원리를 잘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재판정을 들어서면서 전전긍긍했다고 한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정해진 기간 내에 나에게 사기 친 남자를 체포해 주면 2백 달러(영국 돈으로 약 5파운드)를 당신에게 드리겠습니다. 이 방법이 법에 저촉되는 것이라는 것을 알지만 내 변호사(그의 이름을 대며)가 이 방법을 추천했습니다." 재판장은 웃음으로 이를 묵인하며 고맙다고 했다. 밤이 되기 전에 사기를 친 남자는 감옥에 갇혔다. 이렇듯 지도층에서부터 원칙이 무시되고 병폐로 물든 타락한 관리들이 넘쳐 나는 나라에서 국민들은 여전히 민주주의가 꽃피기를 기대하고 있다니!

이 나라의 사회상에서 우선 눈에 띄는 점은 모든 계층에 만연해 있는 예의 바르고 장엄한 태도, 부인들의 옷차림에서 드러나는 뛰어난 감각, 모든 계층의 평등함 등이다. 콜로라도 강변에서 매우 보잘것없는 상점을 운영하는 사람들도 로사스 장군과 함께 저녁을 먹곤 했고, 바이아블랑카에서는 육군 소령의 아들이 종이 시가를 만들어 생계를 꾸려 나간다. 그는 안내인이나 짐꾼을 하며 나와 함께 부에노스아이레스까지 가고 싶어 했으나, 그의 아버지는 신분상 이유보다 단지 위험하다는 이유만으로 반대했다. 많은 장교들이 읽거나 쓰지 못하지만 사람들 앞에서는 동등하게 만난다. 엔트레리오스 법정은 여섯 명의 대표로 구성되는데, 그들 중 한 명이 일개 상점을 운영한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그의 품위가 떨어지는 것은 결코 아니다. 이 모든 것들은 신생 국가에서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신사를 직업으로 하는 사람이 없

다는 것이 영국인인 나에게는 낯설게 느껴진다.

이 나라에 대해 얘기할 때면, 그들의 혈연 조상은 아니지만 스페인 사람들이 이 나라에 미친 영향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 전체적으로 봐서, 잘못된 것에 대한 비난보다는 그들이 이룬 것에 좀 더 많은 신뢰를 부여해야 할 것 같다. 이 나라에 풍미하는 극단적 자유주의 전통이 궁극적으로는 좋은 결과를 낼 것이라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외국 종교에 대한 관용적인 분위기, 교육에 기울이는 관심, 언론의 자유, 특히 덧붙이고 싶은 것은 아직 초보 수준인 학문을 가르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과 모든 외국인에게 제공되는 편의 시설 등등은 스페인 계통의 남아메리카를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억되어야 한다.

12월 6일 | 라플라타 강에서 벗어난 비글호는 다시는 그 진흙물로 들어가지 않았다. 우리 항로는 파타고니아 해안에 있는 데지레 항을 향하고 있다. 이쯤에서 그동안 바다에서 관찰한 것들을 모아 정리해야겠다.

배가 라플라타 강어귀에서 몇 킬로미터 떨어져 있을 때와 파타고니아 북쪽 해안 밖에 있을 때, 곤충들에게 여러 번 둘러싸인 적이 있다. 어느 날 저녁, 산블라스 만으로부터 16킬로미터 정도 거리에 있을 때 셀 수 없이 많은 나비들이 띠를 이루거나 떼를 지어 나타났다. 망원경으로 봐도 그 끝을 알 수 없었다. "나비 눈이 내리고 있어"라고 한 선원이 소리쳤는데 실제 보이는 광경도 그랬다. 여러 종이 섞여 있었는데, 대부분 영국에서 흔한 에두사노랑나비Colias edusa와 매우 비슷하지만 똑같지는 않았다. 나방과 벌들도 섞여 있었고 명주딱정벌레속Calosoma 한 마리도 갑판 위에 날아왔다. 이 딱정벌레가 외해 멀리에서도 잡혔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다. 딱정벌레과에 속하는 것들 대부분은 날개가 거의 또는 아주 없기 때문에 이는 매우 놀랄 만한 일이다. 그날 날씨는 맑고 바다는 고요했다. 그 전날도 미풍이 불면서 비슷했다. 그러므로 곤충들이 육지로부터 바람에 실려 왔다기보다는 자발적으로 날아왔다고 결론지을 수밖에 없다. 처음에는 거대한 노랑나비 띠가 출현한 것이 멋쟁이나비Vanessa

cardui 같은 다른 나비들의 이동과 같은 경우처럼 보였다.[6] 그러나 이들과 함께 나타난 다른 곤충들로 인해 이와는 별개의 경우가 됐고, 심지어 더 이해할 수 없게 됐다. 일몰 전에 북쪽으로부터 일어난 강한 바람에 의해 수백만 마리의 나비 떼와 다른 곤충들은 사라졌다.

또 다른 경우, 코리엔테스 만으로부터 27킬로미터 떨어져 있을 때 심해 동물을 잡기 위해 배 밖으로 던져 놓은 그물을 끌어올리는 순간 놀랍게도 그 안에 딱정벌레가 상당히 많았다. 외해外海인데도 딱정벌레는 짠 바닷물에 큰 해를 입은 것 같지 않았다. 그때 채집한 표본 중 일부는 잃어버렸으나 지금 보관하고 있는 것들은 등줄물방개속Colymbetes, 알물방개속Hydroporus, 점물땡땡이속Hydrobius(2종), 노타푸스속Notaphus, 시누쿠스속Cynucus, 아디모니아속Adimonia, 쇠똥구리속Scarabaeus 등이다. 처음에는 이 곤충들이 해변에서 바람에 날려 온 것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8종 중에서 4종은 수산 종이고 다른 2종도 부분적으로 물에 사는 것이라는 점을 면밀히 검토해 보면, 그것들은 코리엔테스 만 근처의 한 호수에서 흘러나오는 작은 물줄기를 따라 바다로 떠내려온 것이라는 추측이 가장 그럴듯하다. 어떤 가정이든 간에, 육지로부터 27킬로미터나 떨어져 있는 외해에 살아 있는 곤충이 떠다니고 있다는 점이 흥미롭다. 파타고니아 해변으로부터 바람에 날려 간 곤충 이야기는 몇 가지 더 있다. 쿡 함장도 그것을 관찰했고, 보다 최근에는 어드벤처호의 킹 함장도 관찰했다. 나무나 언덕 같은 은신처가 없기 때문에 날개가 있는 곤충은 바다로 불어 나오는 산들바람에 실려 바다로 쉽게 날려 올 수 있었을 것이다. 육지에서 멀리 떨어진 바다에서 곤충이 잡힌 가장 극적인 예는 비글호 갑판에 날아온 커다란 메뚜기Acrydium다. 그때 비글호는 바람이 버드 군도 만으로 불어오는 쪽에 있었고, 가장 가까운 육지는 그곳에서 6백 킬로미터 떨어진 아프리카 해안의 블랑코 곶이었다. 이곳은 비글호가 있는 위치에서 볼 때 무역풍이 불어오는 방향과 반

6 라이엘, 《지질학의 원리》 3권, 63쪽.

대편에 있는 곳이다.[7]

라플라타 강어귀에 있을 때 배의 삭구[8]가 고서머Gossamer 거미[9]의 거미줄로 여러 번 뒤덮인 적이 있었다. 어느 날(1832년 11월 1일) 이것을 자세히 관찰해 봤다. 날씨는 화창했고 아침에는 영국의 가을날처럼 솜털 같은 거미줄들이 공중에 가득했다. 배는 육지로부터 1백 킬로미터 떨어져서 잔잔하게 불어오는 미풍을 받으며 항해하고 있었다. 거미줄에는 길이가 0.3센티미터 정도 되는 짙은 붉은색을 띤 작은 거미들이 수없이 붙어 있었다. 아마도 수천 마리는 되는 것 같다. 거미들은 삭구에 처음 달라붙을 때 솜털 같은 거미줄에 앉지 않고 거미줄 한 가닥에 앉는다. 솜털 같은 거미줄은 가닥가닥의 거미줄들이 얽혀 만들어지는 것 같다. 거미들은 모두 한 종이고 그 속에는 암수와 어린 새끼들도 함께 있다. 새끼들은 크기가 작고 색이 더 짙어서 구별된다. 이 거미들에 대해 자세히 기술하지는 않겠지만, 이것들이 라트레유가 명명한 속屬에 속하는 것 같지는 않다. 갑판에 날아와 앉자마자 이것들은 매우 활기차게 이리저리 뛰어다니기도 하고 저절로 아래로 떨어졌다가 다시 똑같은 거미줄로 올라가곤 했다. 때때로 로프 사이 구석에 작고 매우 불규칙한 거미줄을 치며 물 표면으로도 쉽게 달린다. 이것들을 살살 건드리면 앞발을 들어 올려 경계 태세를 취한다. 처음 갑판에 도착했을 때는 목이 말랐는지 돌출된 작은 턱으로 물방울을 정신없이 마셔 댔다. 이런 현상은 스트랙도 관찰한 바 있는데, 아마도 이 작은 거미들이 건조하고 희박한 대기층을 지나왔기 때문이 아닐까? 몸속에 저장되어 있는 거미줄은 무진장인 것 같다. 거미줄 하나에 매달려 있는 거미를 보고 있는 동안, 바람이 약간만 불어도 그것들이 수평으로 날아가 시야에서 사라지는

7 항구에서 항구로 이동할 때 며칠 동안이나 배를 따라다니던 파리들이 배를 떠나 날아다니다가 길을 잃고 모두 사라져 버렸다.

8 돛, 돛대, 로프 등의 총칭-역주.

9 열적熱的 원인에 의한 상승 기류를 타고 거미가 긴 거미줄을 바람에 날리면서 이동하는 현상. gossamer는 goose summer(거위-여름)의 준말인데 11월 초의 따뜻한 날에는 거위를 먹는 습관이 있으며, 마침 그 무렵에 거미가 하얀 거미줄을 날리며 이동해 가서 이런 이름이 붙었다-역주.

것을 여러 번 관찰했다.

이와 상황이 비슷한 어떤 날(25일)에 같은 종류의 작은 거미를 여러 번 관찰했다. 그것들은 높은 곳으로 올라가거나 기어갈 때면 배를 들어 올려 실 한 가닥을 앞으로 쏜 다음 매우 빠른 속도로 수평으로 날아간다. 내가 보기에 거미는 실을 쏘기 전에 가장 섬세한 실과 자기 다리를 연결하는 것 같다. 그러나 이러한 관찰이 정확한지는 자신이 없다.

어느 날 산타페에서 이와 비슷한 현상을 관찰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었다. 몸길이가 3센티미터 정도 되고 시티그레이드Citigrade를 닮은(따라서 위에서 언급한 고서머와는 상당히 다르다) 거미가 기둥 꼭대기에 앉아 네댓 가닥의 거미줄을 뽑아내고 있었다. 이것들은 햇빛에 반짝거려 마치 빛이 분산되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거미줄은 직선으로 뻗지 않고 바람에 날리는 명주실처럼 물결치고 있었다. 길이는 1미터 이상이었고 배의 구멍으로부터 위쪽 방향으로 뻗어 나왔다. 그런 다음 거미는 갑자기 기둥을 떠나 순식간에 시야에서 사라졌다. 그날은 더웠고 바람 한 점 없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대기가 거미줄처럼 민감한 바람개비에 영향을 주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잔잔할 리는 없다. 따뜻한 날 제방에 비치는 물체의 그림자를 바라보거나 경계표가 뚜렷한 바다의 먼 지점을 굽어보면, 뜨거워진 공기가 상승하는 것을 뚜렷이 볼 수 있다. 그러한 상승 기류는, 이미 얘기했듯이, 실내에서는 일어나지 않고 바깥에서만 일어나는 비눗방울의 상승으로 더 뚜렷하게 보인다. 그러므로 거미의 방적기에서 뻗어 나온 실이 위로 올라가고 그 뒤로 거미가 따라 올라가는 것을 이해하기란 그리 어렵지 않다. 거미줄이 여러 가닥으로 분산되는 것은 그것들이 갖는 전기적 조건이 비슷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 머레이 씨의 말이 맞는 것 같다. 똑같은 종의 거미들이 암수와 새끼들이 섞여 육지에서 수 킬로미터 떨어진 지점에서 거미줄에 다닥다닥 붙은 채 발견되는 정황으로 보아 대기층을 항해하는 습성은 이 거미류에만 해당하는 특성인 듯싶다. 이는 잠수하는 습성이 물거미Argyroneta의 특성인 것과 같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듯이, 다른 속의 거미 새끼

들도 공중을 항해하는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고서머 거미의 기원이 다른 여러 속의 새끼들과 무관하다는 라트레유의 가정을 받아들이지 못할 것 같다.[10]

라플라타 강 남쪽을 지날 때, 천으로 만든 그물을 배 고물에 매달아 끌고 가면서 신기한 동물을 많이 잡았다. 기록되지 않은 속屬을 포함해 신기한 갑각류들이 많았다. 여러 가지 면에서 노토포드Notopods(즉 바위 아래쪽에 부착하기 위해 뒷다리가 거의 등 쪽에 붙어 있는 게)와 닮은 어떤 게는 뒷다리 한 쌍의 구조가 매우 특이했다. 몸 끝에서 두 번째 마디는 단순한 집게발로 끝나지 않고 길이가 다른—가장 긴 것이 전체 다리 길이와 같다—세 개의 강모剛毛 같은 부속지附屬肢로 끝난다. 이 집게발은 매우 가느다랗고, 가장자리에 뒤쪽으로 향하는 미세한 톱니가 있다. 굽은 네 다리는 평평하고 이 부분에 매우 작은 컵 같은 것이 다섯 개 있는데, 이것은 오징어의 빨판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 같다. 이 동물들이 외해에 살면서 쉴 장소가 필요할 때, 이 아름답고 매우 파격적인 구조물을 이용해 둥둥 떠다니는 몸을 한곳에 부착하는 것 같다.

육지에서 멀리 떨어진 깊은 바다에는 생물체 수가 극히 적다. 위도 35도의 남쪽에서는 빗해파리와 작은 절갑류Entomostraca 같은 갑각류 몇 종을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 해안에서 몇 킬로미터 떨어진 보다 얕은 물에서는 많은 종류의 갑각류와 몇몇 다른 동물이 밤 동안에만 발견됐다. 혼 곶 남쪽인 위도 56도와 57도 사이에서 그물을 여러 번 던졌으나, 매우 작은 절갑류 2종 외에는 아무것도 잡히지 않았다. 그러나 고래, 바다표범, 바다제비, 알바트로스는 꽤 많다. 해안에서 멀리 떨어진 이곳에서 알바트로스가 뭘 먹고 살아가는지가 나에게는 항상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였다. 아마도 콘도르처럼 오랫동안 먹지 않고 버틸 수 있어서, 썩은 고래의 사체 위에서 벌인 진수성찬으로 오랫동안 살 수 있는 것 같다. 대서양 중앙과 열대 해역에는 프테로포다Pteropoda, 갑각류Crustacea, 라디아타Radiata가 떼를 지어 있고 그것들을 잡아먹는 날치, 날치를 잡아먹는 가다랑어와 날개다랑어가 있다. 수많은 하등 해양

10 블랙월 씨는 《동물학 연구》에서 거미의 습성에 관한 탁월한 관찰 기록을 많이 싣고 있다.

동물은 적충류를 먹고 사는데 이것들은 에렌베르크 연구에 의하면 외해에 풍부하다. 그렇다면 이 맑고 푸른 바다에서 적충류들은 무엇을 먹고 사는 것일까?

어느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라플라타 강 남쪽을 항해하는 동안 바다에서 일어나는 황홀하고 아름다운 광경을 봤다. 산들바람이 불고 있었고 낮에는 거품처럼 보였던 물 표면이 밤에는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다. 배 앞쪽에서는 인燐이 섞인 물결이 두 갈래로 나뉘며 배가 지나가는 길에 우윳빛 흔적을 남겼다. 멀리 보이는 파도의 윗부분은 밝게 빛나고, 수면 바로 위의 하늘은 이 검푸른 인광이 반사되어 저 높은 곳만큼 그렇게 어둡지는 않았다.

더 남쪽으로 나아가자 바다는 인광을 내지 않았다. 혼 곶에서도 한 번 이상 본 적이 없고 그나마 그렇게 빛나지도 않았다. 이러한 현상은 그쪽 바다에 생물체가 적은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 같다. 에렌베르크가 바다의 인광에 대해 심혈을 기울여 연구한 보고서[11] 외에 더 관찰할 사항이 있는 것 같지는 않다. 그러나 에렌베르크가 기록한 것과 동일한 찢긴 한천질 조각들이 북반구뿐 아니라 남반구에서도 인광을 일으키는 공통 원인이라는 것을 덧붙이고자 한다. 그 알갱이는 고운 거즈를 쉽게 통과할 정도로 작지만 거의 대부분 맨눈으로 뚜렷이 구분된다. 물을 큰 회전 통에 넣고 흔들어 주면 섬광을 내지만, 시계에 묻은 적은 양의 물은 거의 형광을 내지 않는다. 이 알갱이들은 어느 정도 자극 반응성이 있다고 에렌베르크는 기술했다. 내가 물을 떠서 곧바로 관찰해 보니 이와는 다른 결과가 나왔다. 또 한 번 사용한 그물을 약간 말렸다가 12시간 후에 다시 사용한 적이 있는데, 이때도 그물 표면 전체가 처음 물에서 끌어냈을 때만큼 밝게 빛났다. 이 경우 그 입자들이 그렇게 오래 반응성을 유지할 수 있는 것 같지는 않다. 디아나Dianaea 해파리를 죽을 때까지 물속에 뒀더니 그 물이 형광을 냈다. 파도가 밝은 초록색 섬광을 발할 때 그것은 작은 갑각류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많은 다른 해양 동물들도 살아 있을 때 인광을 낸다는

11 《동물학과 식물학 학술지》 4호에 이에 관한 요약이 있다.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상당히 깊은 바다에서 빛이 나는 것을 두 번 관찰한 적이 있다. 라플라타 강어귀 근처에서 지름이 2~3미터 정도 되고 윤곽이 뚜렷한 둥근 알 모양 덩어리들이 옅은 빛을 내고 있었다. 반면에 주변의 물은 약한 빛을 낼 뿐이었다. 이러한 현상은 달, 즉 어떤 형광체의 반사와 유사하다. 왜냐하면 물결 때문에 윤곽이 꾸불꾸불하기 때문이다. 4미터나 물에 잠기는 우리 배는 이 덩어리를 흩뜨리지 않고 지나갔다. 그러므로 배 밑바닥보다 더 깊은 곳에 동물들이 둥글게 모여 있다고 추정할 수밖에 없다.

페르난도노로냐 부근 바다에서도 섬광이 일어났다. 그 현상은 빛을 내는 물속을 커다란 물고기가 빠른 속도로 헤엄칠 때 나타나는 것과 비슷했다. 선원들은 이것을 원인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나는 섬광의 빈도와 속도에 의구심이 일었다. 이러한 현상은 추운 지역보다 따뜻한 곳에서 더 일반적이라는 것을 이미 말했었다. 대기의 전기 상태가 교란되면 그런 현상이 잘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곤 했다. 날씨가 평상시보다 더 고요한 날이 며칠 지속되면 다양한 동물들이 떼를 이루고 그 후에 빛이 더 많이 나는 것 같다. 물이 한천질 알갱이로 차게 되면 매우 불순한 상태가 되고 거의 모든 경우 발광 현상은 바람에 의해 물결이 일 때 일어난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인광은 유기물이 축적된 결과이며 그런 과정(일종의 호흡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에 의해 대양이 정화되는 것이다.

12월 23일 | 위도 47도에 있는 파타고니아 해안의 데지레 항에 도착했다. 폭이 불규칙한 만이 내륙으로 32킬로미터가량 펼쳐져 있다. 비글호는 입구에서 안쪽으로 몇 킬로미터 더 들어가 옛 스페인 정착촌의 폐허 앞에 정박했다.

저녁 무렵 배에서 내려 해안으로 갔다. 어떤 새로운 지역에 처음으로 발을 내딛는 것은 사람을 매우 흥분하게 한다. 특히 이번처럼 보이는 모든 것이 각기 뚜렷한 특징을 드러내는 경우는 더 그렇다. 반암斑岩 덩어리 위로 60~90미터 높이에 파타고니아에서만 볼 수 있는 드넓은 평지가 펼쳐져 있다. 평원의 표

면은 매우 평평하고, 희끄무레한 흙이 섞인 둥근 자갈로 덮여 있다. 갈색이 도는 억센 풀숲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고 드물지만 작은 가시덤불도 몇 무더기 보인다. 날씨는 건조하고 상쾌하며 새파란 하늘에는 구름이 거의 없다. 이런 황량한 평원 한가운데 서서 내륙 쪽을 굽어보면, 이곳보다 높지만 마찬가지로 편평하고 황량한 또 다른 평지가 절벽처럼 서 있어 시야를 막는다. 사방으로 펼쳐진 지평선은 뜨거운 지표면에서 하늘거리며 올라가는 신기루 때문에 희미하게 보인다.

이 지역에 있던 스페인 정착촌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다. 건조한 기후가 거의 1년 내내 계속되고, 뜨내기 인디오들이 주기적으로 무시무시한 공격을 하는 통에 식민지 개척자들은 짓다 만 건물들을 버릴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그들의 건물 양식에서 고대 스페인의 웅장하고 자유로운 분위기가 느껴진다. 위도 41도 이남을 개척해 식민지로 만들려는 시도들은 모두 비참하게 끝났다. 패민항은 그 이름에서 수백 명 사람들이 오랫동안 처했던 비참한 상황을 그대로 보여 주고 있다. 그들 중 단 한 명만 살아남아 당시 상황을 증언하고 있다. 파타고니아 해안에 있는 산호세프 만에 작은 정착촌이 세워졌었다. 그러나 어느 일요일, 인디오들이 공격해 와서 정착민들을 학살했다. 정착민들 중 두 명은 몇 년 동안 포로로 잡혀 있었다. 네그로 강가에서, 이제는 나이가 많이 든 그 중 한 사람과 얘기를 나눈 적이 있다.

파타고니아의 동물상은 식물상만큼이나 빈약하다.[12] 건조한 평원에서 검은 딱정벌레Heteromera 몇 마리가 천천히 기어 다니는 것과 간혹 도마뱀이 쏜살같이 내달리는 것을 볼 수 있다. 새 종류로는 썩은 고기를 뜯어 먹는 매와 계곡에 사는 핀치새, 곤충을 잡아먹는 새 몇 종이 전부다. 따오기Theristicus melanops,

12 이곳에서 헨슬로 교수가 오푼티아 다위니Opuntia Darwinii라고 명명한 선인장을 발견했다.(《동식물 학회지》 1권, 466쪽) 작은 막대기나 손가락을 꽃 속에 집어넣으면 수술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화피 조각들도 수술보다는 느리지만 암술 위에서 닫힌다. 일반적으로 열대성인 것으로 생각하는 이 과科 식물들을 이곳과 같은 위도인 북아메리카 47도 지역에서도 볼 수 있다.(《루이스와 클라크의 여행기》, 227쪽)

중앙아프리카에서도 발견했다고 들리는 아주 황량한 지대에서 흔한 종이다. 따오기의 위 속에는 메뚜기, 매미, 작은 도마뱀에 전갈[13]까지 들어 있다. 이 새들은 1년 중 한 시기에만 무리를 이루고 다른 때는 짝을 지어 사는데, 울음소리가 매우 크고 기이해서 꼭 과나코 소리 같다.

과나코, 즉 야생 야마는 파타고니아 평원에서만 볼 수 있는 네발 달린 동물로, 동양의 낙타에 해당하는 남아메리카 동물이다. 야생 상태로 자라며 길고 가느다란 목과 미끈한 다리를 가진 우아한 동물이다. 남쪽으로 혼 곶 근처에 있는 섬까지 온대기후 전역에 걸쳐 매우 흔하다. 대개 6~30마리씩 작은 무리를 이루나, 산타크루스 제방에서 적어도 5백 마리는 될 것 같은 큰 무리를 본 적도 있다.

과나코는 대체로 길들여지지 않은 상태이며 매우 조심성이 있다. 스토크스 씨는 어느 날, 맨눈으로는 잘 보이지도 않는 먼 거리에서, 자기를 보고 놀라서 전속력으로 도망치는 과나코 무리를 망원경으로 관찰한 적이 있다고 한다. 사냥꾼들은 멀리서 과나코 특유의 날카로운 울음소리만 들려도 그 동물의 존재를 알아차린다. 그때 자세히 둘러보면 멀리 떨어진 언덕 한편에 한 줄로 서 있는 과나코 무리를 볼 수 있을 것이다. 가까이 가면 꺅꺅거리는 비명을 더 지르고, 겉으로 보면 천천히 그러나 실제는 매우 빠른 걸음으로 밟아 다진 좁은 길을 따라 옆 언덕으로 도망치기 시작한다. 그러나 우연히 과나코 한 마리나 서너 마리가 사람과 마주치게 되면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서서 사람을 뚫어지게 쳐다본다. 그런 다음 몇 미터를 움직인 후 다시 뒤돌아서 쳐다본다. 과나코가 이처럼 상황에 따라 인간을 두려워하는 정도가 다른 이유는 무엇일까? 과나코는 멀리 있는 사람을 천적인 퓨마로 착각하는 것일까? 아니면, 호기심이 두려움을 누른 것인가? 과나코가 호기심이 강하다는 것은 확실하다. 어떤 사람이 땅에 누워 발을 공중으로 들어 올리는 것과 같은 이상한 행동을 하면 과나코

13 이 곤충들은 돌 밑에 흔하다. 나는 육식성 전갈이 다른 전갈을 조용히 잡아먹는 것을 본 적이 있다.

는 그 사람을 자세히 볼 수 있는 거리까지 가까이 온다. 이는 사냥꾼들이 매번 되풀이해서 과나코를 잡는 데 성공하는 수법이다. 게다가 이런 행동의 한 부분으로 총 몇 발을 쏠 수 있는 이점도 있다. 티에라델푸에고 산맥에서도 과나코를 몇 번 봤는데, 가까이 가자 깩깩거리며 울부짖고 아주 우스꽝스러운 몸짓으로 껑충껑충 뛰며 도발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 동물들은 쉽게 길들일 수 있어서, 파타고니아 북쪽의 어떤 민가에서 본 과나코는 갇혀 있지 않아도 도망가지 않고 집 근처에서만 돌아다녔다. 이런 상태에 있을 때 과나코들은 대담해져 뒤에서 사람을 양 무릎으로 쳐서 공격한다. 이런 공격적 행동을 하는 동기는 암컷에 대한 질투 때문이라는 말도 있다. 그러나 길들이지 않은 과나코는 방어할 줄을 모른다. 심지어 개 혼자서도 사냥꾼이 올 때까지 이 큰 동물을 지킬 수 있다. 여러 습성으로 봐서 과나코는 무리를 이루는 양과 비슷하다. 그러므로 사방에서 말을 타고 오는 사람들을 보면 이내 당황해 도망갈 곳을 모른 채 우왕좌왕한다. 이런 습성을 이용해 인디오들은 과나코를 가운데로 몰고 빙 둘러싸서 쉽게 사냥한다.

과나코는 물에 쉽게 적응한다. 발데스 항에서 섬 사이를 헤엄쳐 다니는 과나코를 여러 번 봤다. 바이런은 항해 중에 과나코가 짠물을 마시는 것도 봤다고 한다. 또한 우리 배의 사관들도 블랑코 곶 부근에 있는 염전에서 흘러나오는 짠물을 먹는 과나코 무리를 본 적이 있다. 그런 지역에서는 짠물이라도 마시지 않으면 마실 물이 아예 없을 것이다. 한낮에 과나코는 움푹 파인 구덩이 속의 먼지에서 뒹군다. 수컷들은 서로 싸운다. 어느 날 깩깩거리며 서로 물어뜯으려고 덤비는 수컷 두 마리가 바로 내 옆을 지나갔다. 사냥을 해 보면 몇 마리는 가죽에 깊은 상처가 남아 있다. 때로 과나코 무리들은 다른 무리를 찾아 이동하는 것 같다. 해안에서 내륙으로 50킬로미터 들어가 있는 바이아블랑카에서는 과나코를 거의 발견할 수 없는데, 어느 날 30~40마리 정도 되는 과나코 발자국이 짠물이 흐르는 냇가를 향해 직선으로 나 있는 것을 발견했다. 기병대처럼 규칙적으로 돈 다음 올 때와 똑같이 직선으로 되돌아간 발자국으로

봐서, 과나코들은 틀림없이 자신들이 바다를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챈 것 같다.

과나코는 뭐라 설명하기 어려운 독특한 습관이 하나 있다. 즉 일정한 장소에 계속 배설해서 더미를 만드는 것이다. 내가 본 한 더미는 지름이 거의 2미터는 될 정도로 많은 양이 쌓여 있었다. 도르비니 씨에 의하면, 이런 습성은 그 속屬의 모든 종에 일반적이라고 한다. 이런 더미는 과나코 배설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페루 인디오에게는 그것을 모으는 수고를 덜어 주므로 매우 유용하다.

과나코는 죽을 때가 되면 특정한 곳을 찾아가는 것 같다. 산타크루스 강변에 있는, 대개 관목이 우거지고 강 가까이 있는 어떤 곳은 과나코 뼈로 덮여 하얗다. 어떤 곳에서는 두개골을 10~20개까지 센 적도 있다. 그 뼈들을 자세히 관찰한 결과, 내가 이제까지 봤던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뼈들처럼 짐승이 먹이를 끌고 와 물어 끊거나 부순 것 같아 보이지는 않았다. 대개 과나코들은 죽기 전에 덤불 사이나 그 아래로 기어 오는 것 같다. 바이누 씨는 이전에 항해할 때 가예고스 강변에서 똑같은 상황을 본 적이 있다고 알려 줬다. 나는 이에 대한 이유를 전혀 모르겠다. 그러나 산타크루스에서 상처 입은 과나코들이 하나같이 강을 향해 걸어가는 것을 본 적이 있다. 카보베르데 제도의 생자고 섬에서도 골짜기 후미진 곳에 염소 뼈들이 쌓여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이곳이 섬에 있는 모든 염소들의 무덤이라고 탄성을 질렀던 생각이 난다. 내가 이런 상황을 시시콜콜 언급하는 이유는 손상되지 않은 많은 뼈들이 동굴이나 충적층에서 발견되는 까닭 또는 어떤 동물이 다른 동물에 비해 퇴적층에 더 자주 묻히는 원인을 다른 누군가가 설명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어느 날, 작은 범선에 3일분 식량을 싣고 채퍼스 씨의 지휘 아래 항구 위쪽을 조사하기 위해 떠났다. 아침나절에, 옛 스페인 해도海圖에 나와 있는 물이 흐르는 곳을 추적했다. 작은 시내 하나를 발견했는데 초입에서 짠물이 졸졸 흘러나오고 있었다(우리가 본 것으로는 최초다). 이곳에서 조수 때문에 몇 시간을 기다려야 했다. 그동안 나는 내륙으로 몇 킬로미터 걸어가 봤다. 평원은 보통 그

렇듯이, 백악[14]과 비슷해 보이지만 성질은 전혀 다른 흙이 섞인 자갈로 되어 있다. 이렇듯 토질이 물러서 씻겨 나가 많은 골짜기가 생겨났다. 나무도 없고 언덕 위에서 망을 보는 과나코를 제외하면 그 어떤 동물이나 새도 없다. 모든 것이 적막하고 황량하다. 그러나 이러한 광경을 지나쳐 가며, 근처에 눈에 띄는 대상 하나 없는데도, 알 수 없는 강렬한 기쁨이 솟구쳐 오른다. 이 평원은 얼마나 오래됐으며 또 앞으로 얼마나 지속될 것인가?

"아무도 답해 줄 수 없네. — 지금 모든 것은 영원처럼 보이지. 황무지는 신비한 혀를 가지고 있어. 우리에게 지독한 의문을 가르치네."[15]

저녁에 몇 킬로미터 더 위쪽으로 나아간 다음, 그날 밤을 지내기 위해 텐트를 쳤다. 다음 날 정오쯤, 우리가 탄 돛단배 바닥이 땅에 닿을 정도로 물이 얕아져 더는 나아갈 수 없었다. 그 물은 약간 민물이었다. 채퍼스 씨가 작은 배를 타고 3, 4킬로미터 더 나아갔으나 역시 뭍에 걸렸다. 그러나 그곳은 완전히 민물이었다. 물에는 진흙이 섞여 있었고 하천이 작은 편이지만, 코르디예라 산맥의 눈이 녹아내린 것이라는 것 외에는 그 물의 기원을 설명하기 어렵다. 우리가 야영한 지점은 가파른 절벽과 깎아지른 듯한 반암 봉우리로 둘러싸여 있다. 드넓은 평원에서 바위로 둘러싸인 이 좁은 틈은 그 어느 곳보다 더 외부 세계와 단절된 것처럼 보인다.

배가 정박해 있는 곳으로 돌아온 지 이틀째 되던 날, 나는 비글호의 사관 몇 명과 근처 산꼭대기에서 발견한 오래된 인디오 무덤을 조사하러 갔다. 약 5킬로미터 높이의 암붕岩棚[16] 앞에 무게가 각각 12톤 정도 되는 커다란 바위 두 개가 놓여 있었다. 단단한 바위 위에 있는 무덤 바닥에는 저 아래쪽 평지에서 옮겨 왔을 것 같은 흙이 30센티미터 깊이로 깔려 있다. 그 위에 납작한 돌을 깔고 거기에다가 여러 것들을 쌓아서 암반과 큰 바위 사이의 공간을 메웠다. 무

14 회백색의 연토질 석회암–역주.

15 셸리Percy Shelley, 1792~1822, 〈몽블랑Mont Blanc〉의 시구.

16 암벽의 측면–역주.

덤을 완성하기 위해 인디오들은 암붕에서 거대한 조각들을 떼어 내 쌓아 올린 더미를 덮어 거대한 바위 두 개 위에 놓이게 했다. 양쪽에서 무덤 아래쪽을 파 보았으나 뼛조각은 물론 작은 유물 하나도 발견하지 못했다. 다른 곳에 있는 그보다 작은 무덤에서 인간의 것으로 보이는 뼈 부스러기를 발견한 적이 있으므로, 이 무덤의 뼈는 아마도 오랜 세월에 삭아 없어져 버린 것 같다(이것으로 보아 이 무덤은 굉장히 오래된 것이다). 포크너에 의하면, 인디오들은 죽은 자리에다 일단 매장한 다음 나중에 뼈들을 조심스럽게 추려 아무리 멀어도 해안 근처로 가지고 와서 그곳에 다시 묻는다고 한다. 말을 운송 수단으로 이용하기 전에 이 인디오들은 오늘날 티에라델푸에고 원주민들과 비슷하게 생활해서 대개 바닷가 근처에 거주했을 것이라는 점을 생각해 보면 이러한 풍습이 어느 정도 이해가 간다. 조상을 매장한 곳에 묻히고 싶어 하는 공통된 의식 때문에 지금도 떠돌이 인디오들은 주검에서 비교적 덜 썩는 부분, 즉 뼈를 바닷가 근처에 있는 오래된 매장지로 가지고 온다.

1834년 1월 9일 | 날이 어두워지기 전에 비글호는 데지레 항에서 남쪽으로 약 180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넓고 탁 트인 항구인 산훌리안 항에 정박했다. 우리는 이곳에서 8일간 머물렀다. 이 지역은 데지레 항과 거의 비슷하지만 좀 더 황량하다. 어느 날 피츠로이 함장을 포함한 일행이 항구의 초입을 둘러보기 위해 멀리 걸어갔다. 거의 열한 시간 동안 물 한 방울 마시지 못해 탐험 대원 몇 명은 매우 지쳐 있었다. 어떤 언덕의 꼭대기(목마른 언덕이라고 이름을 그럴듯하게 붙인)에서 멋진 호수가 발견됐다. 탐험 대원 둘이 민물인지 알아본 후 신호를 보내기로 하고 올라가 봤으나, 실망스럽게도 그것은 커다란 결정체로 된 눈처럼 하얀 소금 지대였다. 건조한 대기 때문에 갈증이 더했다. 원인이야 어찌 됐든, 저녁 늦게 배로 돌아와 목을 축일 수 있어 몹시 기뻤다. 우리는 어디에서도 단 한 방울의 민물을 찾지 못했지만 분명 어느 정도 민물이 있을 것이다. 그 이유는 만의 입구 근처에 있는 짠물 표면에서 완전히 죽지 않은 등줄물방개Colymbetes 한 마리를 우연히 발견했는데 그것은 분명히 그리 멀지 않은

물에서 살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다른 곤충 3종과(나나니벌과 비슷한 신신델라Cincindela, 먼지벌레류Cymindis, 머리먼지벌레류Harpalus, 이것들 모두 바닷물이 주기적으로 범람하는 진흙밭에 산다), 평원에서 죽은 채로 눈에 띈 한 종이 이 지역 곤충의 전부다. 상당히 큰 파리Tabanus, 등에속가 굉장히 많은데, 아프게 물어 대서 몹시 괴로웠다. 영국의 그늘진 좁은 길에서 사람을 괴롭히는 말파리도 이와 같은 속에 속한다. 이쯤에서 한 가지 의문이 든다. 그렇게 많은 모기는 어떤 동물의 피를 빨아 먹고 사는 것인가? 과나코가 거의 유일한 온혈 포유류인데 무수히 많은 모기에 비해 그 수가 너무 적기 때문이다.

파타고니아의 지질은 흥미롭다. 제3기 지층이 유럽에서는 만灣에 축적된 데 비해 이곳에서는 해안을 따라 수백 킬로미터에 걸쳐 나타난다. 이 거대한 퇴적층에는 전부 멸종된 것으로 보이는 제3기 조개껍데기가 포함되어 있는데, 지름이 30센티미터 정도 되는 거대한 굴 껍데기가 가장 흔하다. 이 지층은 특이한 부드러운 흰색 돌로 덮여 있다. 그 돌은 석고를 많이 포함하며, 부드러운 석회질 같지만 실제로는 단단한 경석硬石질이다. 지층의 최소 10분의 1이 적충류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 매우 놀랍다. 에렌베르크 교수는 이미 그 속에서 바다에서 사는 적충류 30종을 동정同定했다. 이 지층은 해안을 따라 8백 킬로미터 정도, 아마 그보다 더 멀리 펼쳐져 있다. 산훌리안 항에서는 그 두께가 240킬로미터 이상 될 정도다. 전 지역에서 이 흰색 지층은 막대한 자갈 더미로 덮여 전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사력층을 이룬다. 자갈층은 콜로라도 강 근처에서 남쪽으로 1100~1300킬로미터까지 뻗어 있다. 산타크루스 강(산훌리안에서 약간 남쪽에 있는 강)가에서 그 지층은 코르디예라 산맥 기슭에 닿고, 강을 반쯤 올라가면 두께가 60미터 이상 된다. 아마도 자갈층은 모든 곳에서 이 거대한 산맥까지 뻗어 있고, 그곳에서 둥글둥글한 반암 자갈이 생겨난다. 지층은 평균 320킬로미터까지 펴져있고, 평균 두께는 15미터 정도 될 것으로 보인다. 이 거대한 자갈층을, 그것들이 마모해 생겨나는 진흙을 포함하지 않더라도, 무더기로 쌓으면 거대한 산맥 하나는 너끈히 될 것이다! 사막에 있는 모래

만큼이나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이 자갈들은 이전의 바닷가와 강둑에서 바윗덩어리들이 천천히 떨어져 내린 조각들이 더 작은 돌멩이로 부서지고, 천천히 구르고 마모하며 멀리까지 이동해 온 것이라는 점을 생각해 보면,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억겁의 시간이 흘러갔음에 정신이 아득해진다. 그러나 이 모든 자갈이 이동하고 마모하는 과정은 제3기 조개껍데기가 바닥에 퇴적되고 난 후 흰 지층이 쌓이고, 그보다 훨씬 후에 일어났다.

남아메리카 대륙에서는 모든 일이 대규모로 일어난다. 라플라타 강에서 티에라델푸에고까지 약 1천9백 킬로미터 정도 되는 육지는 현생 바닷조개가 살던 기간에 일시에 융기했다(파타고니아에서는 90~120킬로미터까지 올라갔다). 융기한 평원 위에 오래도록 남아 있어 풍화한 조개껍데기들은 아직까지 부분적으로 원래 색깔이 남아 있다. 융기 운동 중간 중간에 긴 휴지기가 적어도 여덟 번은 있었다. 휴지기에 바다는 육지 내부로 깊숙이 침식해 들어와 연속된 높이에 긴 해안 절벽을 형성했다. 해안 절벽은 계단처럼 차례차례 올라가면서 평원들을 분리시킨다. 상승 운동과 바다에 의한 침식은 긴 해안에 걸쳐 균일하게 작용한 것 같다. 매우 멀리 떨어져 있는 계단형 평원들이 거의 같은 높이에 형성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깜짝 놀랐다. 가장 낮은 평원의 높이가 27미터고, 해안 근처에서 내가 올라가 본 가장 높은 것이 290미터다. 이것들은 자갈로 덮인 평탄한 언덕 형태로 그 흔적이 남아 있다. 산타크루스 강 위쪽 평원은 코르디예라 산맥 기슭에서 9백 미터까지 경사가 져 있다. 현생 조개가 살던 기간에 파타고니아는 90~120미터 정도 융기했다고 말한 적이 있다. 여기에 덧붙여, 빙하가 산타크루스 위쪽 평원으로 자갈을 운반한 기간에 적어도 450미터는 융기했다. 또한 파타고니아는 융기만 일어난 것이 아니다. 산훌리안 항과 산타크루스에서 발견한 멸종된 제3기 조개껍데기는, 포브스 교수에 따르면, 12~75미터보다 더 깊은 물속에서는 살 수 없다고 한다. 그러나 그것들이 현재 두께가 240~300미터 되는 해저 퇴적층으로 덮여 있다. 그러므로 이 조개들이 살던 바다의 지층이 수십에서 수백 미터 아래로 하강한 후 그 위에 지층

이 쌓이게 된 것이다. 간단하게 보이는 파타고니아 해안이 이 얼마나 변화무쌍한 지질학적 역사를 포함하고 있는가!

산훌리안 항에서 27미터 높이에 있는 평원의 자갈을 덮고 있는 붉은 진흙층에서, 거의 낙타만 한 크기의 특이한 네발 달린 동물인 마크라우체니아 파타고니카Macrauchenica Patachonica의 반쯤 남은 골격을 발견했다. 그것은 코뿔소, 맥, 팔레오테리움과 함께 후피동물Pachydermata 부류에 속한다. 그러나 목뼈가 긴 것으로 보아 낙타 또는 과나코나 야마와 더 연관이 있는 것 같다. 마크라우체니아가 묻힌 진흙층이 쌓이기 전에 만들어져 융기한 것이 확실한 좀 더 높은 계단형 평원 두 곳에서 현생 바닷조개 껍데기가 발견된 것으로 봐서, 이 신기한 네발 달린 동물은 현생 조개들이 바다에 살고 난 훨씬 후에도 살았을 것이 분명하다. 처음에 나는 이 커다란 네발 달린 동물이 위도 49도 5분인 이 메마른 자갈 평원에서 어떻게 그토록 오래 생존할 수 있었는지 매우 놀랐다. 그러나 지금 현재 가장 메마른 땅에 서식하는 과나코가 마크라우체니아와 관련이 있다는 것에서 이런 어려움이 어느 정도 풀린다.

마크라우체니아와 과나코, 톡소돈과 카피바라, 많은 멸종 빈치류와 현생 남아메리카 동물상에서 가장 특징적인 나무늘보, 개미핥기, 아르마딜로 사이에 아주 가깝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연관이 있다는 점과 투코투코속Ctenomys과 카피바라속Hydrochoerus의 화석과 현생종 사이에도 더 긴밀한 연관이 있다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사실이다. 이러한 연관성은 최근에 룬드 씨와 클라우센 씨가 브라질 동굴에서 유럽으로 가져온 채집물에서 극명하게 나타나는데, 이는 오스트레일리아에서 발견된 화석과 멸종 유대류 사이의 연관성만큼이나 강하다. 이 채집물에는 32속의 멸종 동물이 들어 있는데 그중 4속을 제외한 나머지는 동굴이 있는 지역에 현재까지 서식하는 것들이다. 개미핥기, 아르마딜로, 맥, 페카리, 과나코, 오포섬과 수많은 남아메리카 설치류와 원숭이들 기타 다른 동물들의 화석이 있다. 같은 대륙에서 죽은 것과 살아 있는 것 사이에 존재하는 이 놀라운 관련성이, 그 어떤 다른 사실보다도, 지구 상에서 생명체가

출현하고 멸종해 가는 현상을 밝혀 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남아메리카 대륙이 변화한 상태를 생각하면 깊은 경탄을 금할 수 없다. 초기에 그 대륙에는 거대한 몬스터들이 떼를 지어 살았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그들 조상과 비교할 때, 서로 연관은 되지만 몸 크기가 매우 작은 종들이 눈에 띈다. 만약 뷔퐁이, 거대한 나무늘보와 아르마딜로 같은 동물 그리고 이미 사라진 후피동물에 대해 알았다면, 이 남아메리카 대륙이 처음부터 엄청난 생명력을 가지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러한 창조력이 그 힘을 잃어버린 것이라는 보다 진실에 가까운 말을 했을 것이다. 멸종된 네발 달린 동물 중 전부는 아니지만 많은 종들이 최근까지 살았고 현생 조개들과 동시대에 있었다. 그들이 생존한 이후 커다란 지질 변화는 일어나지 않았다. 그렇다면 그렇게 많은 종과 속 전체를 멸종시킨 원인은 무엇인가? 언뜻 생각하기에, 어떤 거대한 재앙이 일어났을 것이라는 생각을 억누를 수가 없다. 그러나 남부 파타고니아, 브라질, 페루의 코르디예라 산맥, 북아메리카에서 베링 해협에 이르기까지 크건 작건 모든 동물들을 멸종시킬 정도가 되려면, 지구 전체 골격을 뒤흔들 정도의 힘이 있어야 한다. 더군다나 라플라타와 파타고니아의 지질을 자세히 조사해 보면 지형에서 보이는 특징은 느리고 점진적으로 일어난 변화 때문이라는 믿음에 도달한다. 유럽, 아시아, 오스트레일리아, 남북아메리카에서 발견한 화석의 특징을 볼 때, 몸집이 큰 네발 달린 동물에 적합한 환경이 최근까지 여러 대륙에 걸쳐 공존했던 것 같다. 그러나 그런 조건이 어떤 것인지는 아무도 짐작하지 못한다. 지구 양편에서 열대, 온대, 극 지방에 걸쳐 서식한 동물들을 거의 동시에 멸종시킨 원인은 기온의 변화는 아닌 것 같다. 라이엘 씨의 연구에 의하면, 북아메리카의 네발 달린 동물들은 지금은 빙하가 도달하지 못하는 지점까지 표석[17]이 운반된 기간 이후에 살았다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다. 결정적이지만 간접적인 원인에 의해 남반구에서도 마크라우체니아가 빙하에 의해 표석이 이동한 시기 이후에 오랫동안 생존했다는 확신이 든

17 빙하를 따라 이동하다가 빙하가 녹은 뒤 그 자리에 남은 바윗돌-역주.

다. 남아메리카에 처음으로 발을 들여놓은 인간이 거대한 메가테리움과 다른 빈치 동물을 죽였다는 주장이 있는데 사실인가? 바이아블랑카에서 작은 투코투코가 멸종한 것, 브라질에서 많은 화석쥐와 다른 작은 네발 달린 동물이 멸종한 것에 대해서는 적어도 뭔가 다른 원인을 생각해 봐야 한다. 라플라타에서 멸종의 원인이 되었던 가뭄보다 더 심한 것이라도 남부 파타고니아에서 베링 해협에 걸쳐 모든 동물을 멸종시킬 수 있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 말이 멸종한 것은 어떻게 볼 것인가? 그 평원에 목초가 없어서인가? 그 이후로 스페인 사람들이 들여온 수십만 마리의 말들이 들끓고 있다. 나중에 들어온 종들이 몸집이 큰 그들 조상의 먹이를 차지한 것인가? 카피바라가 톡소돈의 먹이를 먹고 과나코가 마크라우체니아의 먹이를, 현존하는 작은 빈치 동물이 그들의 거대한 조상 동물들의 먹이를 먹는다는 것을 상상할 수 있는가? 확실히 이 지구 상의 오랜 역사에서 어떤 곳에 서식하던 동물들이 넓은 범위에 걸쳐 반복적으로 멸종된 것보다 더 놀라운 사실은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다른 관점에서 보면 덜 혼란스러울 수 있다. 우리는 각 동물에게 적합한 환경 조건이 무엇인지에 대해 너무나 모른다는 것을 늘 염두에 두지 않는다. 또는 자연 상태에 있는 모든 유기체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을 막는 어떤 억제 기작이 항상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지 못한다. 평균적으로 먹이는 일정하게 공급된다. 그러나 모든 동물은 기하급수적으로 번식하여 증가한다. 최근 몇 세기 동안 미국으로 이주해 야생으로 자라난 유럽 동물들의 사례에서 이러한 놀라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자연 상태에 있는 모든 동물은 규칙적으로 번식한다. 그러나 생존한 지 오래된 어떤 종의 수가 무한정 늘어나는 것은 분명 불가능하며, 어떤 수단에 제어되는 것이 틀림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한 종에 대한 제어 기작이 그 종의 일생 중 어떤 기간에만 작동하는지 또는 1년 중 어떤 기간에 또는 장기간일 때만 작동하는지, 즉 그 제어 기작의 본성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확실히 얘기할 수 없다. 그러므로 서식지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두 종이 같은 지구역에서 한 종

은 드물고 다른 한 종은 풍부한 것은 그리 놀랄 만한 일이 아니며, 또는 한 종이 어떤 지구역에서 풍부하고 자연의 경제 원리상 그와 똑같은 서식지를 차지할 수 있는 다른 한 종은 환경 조건이 거의 다르지 않은 인접한 지구역에서 풍부할 것이다. 만약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냐고 묻는다면 기후, 먹이 또는 천적의 수가 약간 차이 나는 것에 의해 결정된다고 답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그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제어 기작의 정확한 원인과 행동 양식은 거의 지적할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거의 감지할 수 없는 원인에 의해 어떤 한 종이 풍부해질 것인지 줄어들 것인지가 결정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전 지역이나 어떤 제한된 지역에서 인간에 의해 어떤 종이 멸종되는 경로를 추적해 보면 수가 점점 줄어들다가 나중에 멸종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인간에 의한 것과 천적의 증가에 의한 멸종 사이의 차이점[18]을 정확히 지적하기는 어렵다. 멸종되기 전에 수가 줄어드는 것에 대한 증거는, 몇몇 유력한 관찰자들이 지적했듯이, 제3기의 연속된 지층에서 뚜렷이 볼 수 있다. 제3기 지층에서 매우 흔한 조개껍데기는 지금은 거의 드물고 오래전에 멸종된 것으로 생각된다. 만약 이와 같이 처음에 수가 줄어들다가 멸종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면 모든 종 심지어 가장 잘 적응한 종조차도, 언제 어떻게 일어났는지 말할 수 없지만, 급격히 증가되는 것이 지속적으로 제어된다면, 또는 비록 정확한 원인을 말할 수 없다 하더라도 같은 지역에서 한 종은 수가 많은데 그와 밀접히 연관된 다른 종은 드물다는 것을 별 놀라움 없이 알고 있다면, 멸종되기 한 단계 전에 수가 줄어드는 현상에 대해 왜 그렇게 놀라야 하는가? 우리 주변에서 진행되고는 있지만 거의 인지할 수 없는 어떤 행동은 우리의 주목을 받지 않아도 틀림없이 진행되어 갈 것이다. 메갈로닉스가 메가테리움에 비해 과거에 드물었다든가 화석원숭이 중의 한 종이 현존하는 원숭이의 한 종보다 더 적었다는 것을 들을 때 누가 크게 놀라겠는가? 그러나 이렇게 상대적으로 드

18 라이엘 씨의 《지질학의 원리》에서 이 주제에 대한 탁월한 설명을 참고하라.

문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한 종이 존재하는 데 덜 적합한 환경에 대한 분명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 생물이 멸종되기 전에 대체로 그 수가 줄어든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즉 한 종이 다른 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드물다는 것에 그렇게 놀라움을 느끼지 않다가 한 종이 멸종하면 무언가 특별한 동인을 찾고 깜짝 놀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 앓고 있는 병이 죽음의 예후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병에 그렇게 놀라지 않다가 병든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이 갑자기 죽은 것이라고 믿는 것과 같다.

● 무력 혁명으로 도시 전체가 봉쇄된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간신히 빠져 나와 몬테비데오에 도착한 다윈은 비글호가 당분간 항해하지 않을 것이라는 소식에 반다오리엔탈 지역을 답사하기로 한다. 이 지역은 언뜻 보기에 완전한 평지처럼 보이지만 이전의 산타페 평원과 비교해 볼 때 울퉁불퉁한 언덕이 쭉 연결된, 산지에 가까운 지형이다. 말을 타고 콜로니아델사크라멘토를 둘러보며 브라질 전쟁이 남기고 간 상흔을 본다. 전쟁을 겪는 동안 군 장교들이 많이 양산되었고, 그들은 이미 권력의 달콤함을 맛본지라 늘 사회 불안의 불씨가 되고 있어 정부는 안정된 기반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데 반해 일반 국민은 정치에 대해 나름대로의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 작은 나라가 장차 번영할 수 있을 것이라는 예감을 갖는다.

이 지역에는 '나타' 또는 '니아타'라고 부르는 매우 특이한 황소 품종이 있다. 드러난 이빨, 짧은 이마, 위로 휘어진 콧구멍 때문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우스꽝스럽고 자신만만하며 도발적인 분위기를 풍긴다. 이 동물은 평소에는 보통 가축들처럼 혀와 입천장으로 풀을 뜯어먹을 수 있다. 가뭄이 오래 지속되면 일반 가축들은 나무나 갈대 가지를 입술로 훑어 연한 새싹을 먹으면서 살아남을 수 있지만 니아타는 입술이 다물어지지 않아 이것이 불가능하다. 다윈은 이를 보며 어떤 생물의 평상시 습성보다는 오래 간격을 두고 발생하는 특정 상황이 종의 감소와 멸종을 결정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그 외에 말 잔등 높이만큼이나 무성하게 길 양쪽을 덮고 있는 솜엉겅퀴, 작은 원통형 구멍이 나 있는 구슬이 쌓여있는 '구슬의 언덕', '동물의 강'이라는 불리는 거대한 동물화석의 퇴적층 등 반다오리엔탈 지방의 광활한 평원에서만 볼 수 있는 독특한 풍경을 보게 된다.

1833년 12월 6일, 파타고니아 해안의 데지레 항을 향하며 그동안 바다에서 관찰한 여러 사항을 정리하고 있다. 멀리 육지에서 바람에 실려 바다로 날아온 나비 떼와 딱정벌레류, 배에 다닥다닥 붙은 거미들, 배가 지나가는 길에 우유빛 흔적을 남기는 바다의 인광 현상에 대해 나름대로의 해석을 덧붙이고 있으

며, 적절하게 해석하지 못하는 경우는 훗날 누군가가 이에 대해 언급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고 있다.

파타고니아 평원에서 단연 눈길을 끄는 동물은 과나코 즉 야생 라마다. 인간에 대해 갖는 두려움과 호기심의 이중적 감정으로 인해 갈등하는 과나코의 행동, 짠물을 먹는 것에 적응한 습성, 한 곳에 집중적으로 내놓는 독특한 배설 습관, 죽을 때가 되면 일정한 곳으로 모이는 습성 등이 다윈의 관심을 끈다. 파타고니아의 지층 속에 묻힌 다양한 종류의 엄청난 화석들을 보며 이 지층이 포함하고 있는 변화무쌍한 지질역사를 가늠해본다. '한때는 그렇게 번성했을 많은 종과 속 전체를 멸종시킨 원인이 무엇일까?' 이 문제가 다윈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다. 이 시점에서 다윈은 자연선택설의 주요 뼈대가 되는 내용을 언급하게 된다. 즉 자연 상태에 있는 모든 동물은 규칙적으로 번식하지만 생존한 지 오래된 어떤 종의 수가 무한정 늘어나는 것은 분명 불가능하며, 어떤 수단에 의해 제어되는 것이 틀림없다고 본다. 그러나 어떤 한 종에 대한 제어 기작이 그 종의 일생 중 어떤 기간에 또는 1년 중 어떤 기간에 또는 장기간일 때만 작동하는지, 즉 그 제어 기작의 본성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확실히 알지 못함을 솔직하게 털어 놓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감지할 수 없는 원인에 의해 어떤 한 종이 풍부해질 것인지 줄어들 것인지가 결정된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한 종이 다른 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드물다는 것에 그렇게 놀라움을 느끼지 않다가 한 종이 멸종하면 무언가 특별한 동인을 찾고 깜짝 놀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 앓고 있는 병이 죽음의 예후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병에 그렇게 놀라지 않다가 병든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이 갑자기 죽은 것이라고 믿는 것과 같을 것이라는 아주 적절한 비유를 덧붙인다.



산타크루스, 파타고니아, 그리고 포클랜드 제도

제9장
산타크루스, 파타고니아, 그리고 포클랜드 제도

산타크루스—강을 따라 올라가는 탐험—인디오들—거대한 현무암질 용암류—강으로 운반되지 않은 용암 조각들—계곡의 굴착—코르디예라 산맥의 거주민, 콘도르—거대한 표석들—인디오의 유물—배로 돌아가다—포클랜드 제도—야생마, 소 떼, 토끼들—늑대같이 생긴 여우—뼈로 피운 불—야생 소 사냥법—지질학—암석류—거친 장면—펭귄—거위—도리스의 알—군체 동물

1834년 4월 13일 | 비글호가 산타크루스 강어귀에 정박했다. 이 강은 산훌리안 항구로부터 약 96킬로미터쯤 남쪽에 있다. 최근의 마지막 항해에서 스토크스 함장은 상류로 48킬로미터 올라갔으나 식량이 다 떨어져서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 그때 발견한 것들 외에 이 거대한 강에 대해 알려진 것이라고는 거의 아무것도 없다. 피츠로이 함장은 이번에는 시간이 허락하는 한 멀리까지 강을 따라 올라가기로 결정했다. 18일에 세 척의 고래잡이 보트가 3주 치 식량을 싣고 출발했다. 인디오 무리를 만나도 충분히 대적할 수 있도록 25명의 인원을 배정했다. 거센 밀물과 맑은 날씨 덕에 순항한 우리는 곧 담수 지역에 이르렀고, 밤이 되어 이른 곳은 조수의 영향이 거의 없는 곳이었다.

이 강은 마지막으로 우리가 도착한 가장 상류인 지점에서도 그 크기와 모습이 거의 줄어들지 않았다. 폭은 대략 280~370미터 사이였고, 강 한가운데의 깊이는 5미터 정도였다. 물살의 속도는 강 전체로 보아 시간당 4~6노트[1] 정도인데, 이것은 아마도 이 강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사항인 것 같다. 물빛은 선명한 푸른빛이었으나 우윳빛이 조금 감돌아 기대했던 것만큼 투명하지는 않았다. 강물은 해안과 주변 평야에 있는 것과 같은 종류의 자갈로 된 강바닥 위를 흐른다. 강은 서쪽으로 곧바로 뻗어 나가는 계곡을 따라 구불구불하게 흐

1 조류潮流, 항공기, 선박, 바람 등의 속력 단위. 1시간에 1해리(1852미터)의 속력을 의미한다—역주.

른다. 이 계곡의 폭은 8~16킬로미터이며 계단 모양의 단구段丘로 둘러싸여 있다. 단구의 대부분은 위를 향해 차례차례 솟아서 그 높이가 150미터에 이르며, 강 양편에서 기이할 정도로 대칭을 이룬다.

4월 19일 | 강한 물살을 거슬러 노를 젓거나 돛으로 항해하기란 당연히 힘든 일이다. 결국 보트 세 척의 선두와 고물을 단단히 한데 묶고 보트마다 두 명씩만 남긴 채 나머지는 모두 뭍에서 밧줄로 배를 끌기 시작했다. 피츠로이 함장은 모두 함께 쉽게 일하면서 각자 자기 몫을 할 수 있도록 전체 작업 과정을 배치하여 짜놓았다. 작업 과정을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았다. 모든 사람들이 2교대로 나뉘어 길을 따라 1시간 30분씩 번갈아 배를 끌었다. 각 배의 장교들은 선원들과 함께 지내고, 같은 음식을 먹었으며, 같은 천막 속에서 잤다. 따라서 생활은 보트마다 독자적으로 이루어졌다. 해가 지면 맨 처음 눈에 띈 식물이 자라는 곳을 그날 밤의 야영지로 삼았으며, 선원들이 돌아가면서 요리사 역할을 했다. 보트를 즉각 멈추고 요리 담당이 불을 피우면, 다른 선원 둘은 천막을 세우고 키잡이는 보트에서 짐을 내렸다. 나머지 사람들은 천막으로 짐들을 나르고 땔감을 모았다. 이런 식으로 30분 정도면 밤을 보낼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다. 불침번으로 선원 둘과 장교 한 명을 두었는데, 이들의 임무는 배를 지키고 불을 계속 피우며 인디오가 오는지 보초를 서는 것이었다. 일행 모두가 매일 밤 한 시간씩 보초를 섰다.

오늘은 하루 종일 배를 끌었지만, 가시덤불로 덮인 작은 섬들이 수두룩한 데다가 그 사이의 수로가 얕아서 조금밖에 나아가지 못했다.

4월 20일 | 우리는 섬들을 통과하자 본격적으로 작업에 착수했다. 힘들기는 했지만 하루 정도 행군하니 직선거리로 평균 16킬로미터, 총 이동 거리로 24~32킬로미터 정도 나아간 셈이 되었다. 어젯밤의 야영지를 벗어나면, 이 지역은 완전한 '테라 인코그니타(미개척지)'이다. 이는 바로 이 부근에서 스토크스 함장이 되돌아갔기 때문이다. 멀리서 거대한 연기구름이 보이고 말의 해골이 발견된 것으로 보아, 근처에 인디오들이 있는 것 같았다.

다음 날 아침(4월 21일), 땅 위에서 한 떼의 말 발자국과 추조, 즉 긴 창들을 끌고 간 자국들을 발견했다. 밤새 인디오들이 우리를 정찰했으리라는 것이 대다수의 의견이었다. 그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는 한 지점에서 지나간 지 얼마 되지 않은 어른 남자들과 아이들, 그리고 말들의 발자국을 발견했는데, 그들 무리가 강을 건넜다는 것이 확실했다.

4월 22일 | 주변 지역은 달라지는 것 하나 없이 극도로 황량했다. 파타고니아를 통틀어 빈틈없이 변함없는 주변 자연이야말로 이 지역의 가장 인상 깊은 특징 중 하나이다. 건조한 자갈밭으로 이루어졌고 기복 없는 평원에는 여전히 왜소한 식물들만 자라고 있으며, 계곡에도 역시 똑같은 가시덤불이 자란다. 어디서든 보이는 것이라곤 늘 보던 새들에 늘 보던 곤충들이다. 심지어 강, 그리고 그 강으로 흘러드는 개울의 둑을 봐도 밝은 초록빛으로 생기를 띠는 곳은 찾기 어렵다. 이 땅에는 불모의 저주가 내려져 있으며, 자갈층 위로 흐르는 물 또한 그 저주에 한몫 거든다. 그래서인지 물새도 거의 눈에 띄지 않는다. 이런 불모의 강줄기에는 먹고 살 것이라곤 없으니 당연하다.

파타고니아는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황폐하지만, 작은 설치류[2]에서만큼은 아마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방대한 보유량을 자랑한다. 쥐 몇몇 종의 겉모습을 살펴보면 귀가 크고 얇으며 모피가 매우 섬세하다. 이 작은 동물들은 이슬 말고는 몇 달이고 물 한 방울 마실 수 없는 계곡의 덤불 사이에서 떼를 지어 산다. 쥐덫을 놓자 한 마리가 걸리기 무섭게 다른 놈들한테 잡아먹힌 것으로 보아, 그것들은 동족을 잡아먹는 족속인 듯싶다. 작고 우아하게 생긴 여우도 마찬가지로 꽤 흔히 보이는데, 이것들은 아마도 이 작은 동물들을 주식으로 삼는 것 같다. 이곳이 적합한 서식지인 과나코 역시 50마리에서 1백 마리씩 무리를 지어 사는데, 우리는 앞서 말했듯이 적어도 5백 마리는 될 것이 틀림없는

2 볼네(그의 책 1권, 351쪽)에 의하면 시리아의 사막은 나무 덤불과 더불어 쥐, 영양, 산토끼가 많은 것이 특징이다. 파타고니아의 경우에는 영양 대신 과나코, 산토끼 대신 아구티들이 많다고 보면 된다.

엄청난 무리를 본 적도 있다. 콘도르[3]와 썩은 고기를 먹는 매들을 몰고 다니는 퓨마가 이 동물들(과나코)을 따라다니며 잡아먹는다. 강둑에는 온통 퓨마의 발자국이 널려 있고, 그 부근에서 같이 발견되는 과나코의 잔해는 목이 뒤틀리고 뼈가 부러져서 그것들이 어떻게 죽음을 맞이했는지를 생생하게 보여 준다.

4월 24일 | 우리는 고대 항해사들이 미지의 대륙에 다가서던 그때처럼 아주 미세한 변화의 징후까지 조사하고 관찰했다. 떠내려온 나무 둥치나 고대의 것으로 보이는 표석[4]을 보면 우리는 마치 코르디예라 대산맥 기슭에 자리 잡은 숲이라도 발견한 것처럼 기쁨에 겨워 소리를 질러 댔다. 그러나 내내 한자리에 머물러 있는 산꼭대기의 두터운 구름층이야말로 무엇보다 다가올 일을 알려주는 신호였으며, 그것은 결국 불길한 징조임이 드러났다. 처음에 우리는 그 구름들이 차가운 산꼭대기에서 응결된 수증기 덩어리가 아니라 산맥 자체인 줄로 착각했다.

4월 26일 | 오늘은 이 평원에 뚜렷하게 나타나 있는 지질학적 구조의 변화를 관찰했다. 출발하면서부터 나는 강의 자갈을 주의 깊게 조사했는데, 최근 이틀 새 다공질(아주 작은 구멍이 많이 있는) 현무암 자갈 몇 개를 발견했다. 이것들은 개수나 크기에서 점차 늘었지만 사람 머리통 크기를 넘어서지 않았다. 오늘 아침에는 좀 더 밀도 높은 현무암 자갈들이 갑자기 눈에 많이 띄기 시작했고, 30분간 8~16킬로미터쯤 나아가던 도중 거대한 현무암 암반의 각진 모서리를 발견했다. 암반의 기반부에 오자 움푹 팬 바윗덩어리 사이로 물보라를 일으키며 흐르는 개울이 보였다. 이 강줄기는 여기서부터 약 45킬로미터에 걸쳐 현무암 덩어리들로 가득했다. 그 구역을 넘어가자 주변의 표석층에서 떨어져 나온 무수한 고대 암석 덩어리들이 마찬가지로 많았다. 근원암에서 강을 따라 5, 6킬로미터 이상 쓸려 내려온 암석들 중에는 웬만큼 크다 싶은 것을 찾기 힘들었다. 산타크루스 강의 거대한 물줄기가 유별나게 빠르다는 점과 물이

3 매목 콘도르과의 새. 여기서는 그중 남아메리카 큰독수리 일종인 안데스콘도르를 말한다-역주.

4 빙하를 따라 이동하다가 빙하가 녹은 뒤 그 자리에 남은 바윗돌-역주.

잔잔하게 흐르는 곳이라곤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는 강이 중간 크기의 암석 덩어리를 운반하는 데 있어서조차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점을 무엇보다 뚜렷하게 보여 주는 예시이다.

현무암은 해저에서 솟아난 화산암에 불과하지만, 그 해저 분출의 규모는 무척 컸던 것이 분명하다. 우리가 이 지질 구조를 처음 발견한 지점에서 지층의 두께는 36미터에 달했다. 강을 따라 올라가면서 그 표면은 알아볼 수 없게 높아지고 현무암 지층도 점점 두꺼워져서, 첫 지점에서 64킬로미터 올라간 곳에서 잰 두께는 97.5미터였다. 코르디예라 산맥 가까이에서는 그 두께가 얼마나 될지 알 수 없지만, 그 부근 지대의 높이는 해수면으로부터 약 9백 미터에 달한다. 따라서 이 현무암 지층의 근원을 알아내기 위해서는 그 거대한 산맥[5]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그리고 160킬로미터에 걸쳐 완만하게 기울어진 경사면을 따라 바다로부터 흘러들어 온 하천들도 그런 근원에 걸맞다. 계곡 양쪽의 현무암 절벽들은 언뜻 보기에도 한때 하나의 지층으로 이어져 있던 것이 분명해 보인다. 평균 두께가 거의 90미터이고 폭은 3.2~6.4킬로미터 이내를 오가는 아주 단단한 암석 덩어리를 이 계곡 전 지역을 따라 들어낸 힘은 대체 무엇이었을까? 강의 힘은 자그마한 암석 쪼가리조차 운반하지 못할 정도이지만, 수 세기의 세월 동안 점진적인 침식작용을 일으킨다면 우리가 쉽게 짐작하기 힘들 정도의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강 같은 매개체 작용이 무의미하고 말고를 떠나, 이 계곡이 전에는 바다의 일부인 만灣이었다고 믿을 만한 증거는 충분하다. 계곡 양쪽에 있는 계단형 단구의 형태와 특징, 안데스 산맥 근처의 계곡 바닥이 모래 언덕이 있는 강어귀 형태의 거대한 평원까지 이어지는 모습, 그리고 강바닥에서 발견되는 몇몇 바닷조개의 껍데기로부터 이러한 결론에 이를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세세한 논거를 이 책에서 열거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지면이 허락한다면 먼 옛날에는 남아메리카 대륙이 이 지점에서 마젤란 해협처럼 대서양과 태평양을 잇는 해협에 의해 둘로 나뉘

5 코르디예라 산맥을 일컫는 말-역주.

어 있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을 텐데 말이다. 하지만 그 단단한 현무암 덩어리가 어떻게 이동했을까 하는 의문은 여전히 남는다. 이전의 지질학자들이라면 거대하고 불가항력적인 붕괴에 따른 격렬한 작용을 끌어들여 설명했겠지만, 여기서는 그런 가정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왜냐하면, 표면에서는 현존하는 바닷조개의 껍데기가 발견되는 똑같은 계단 모양의 평원이 파타고니아의 긴 해안선과 마주하면서 산타크루스 계곡의 양편으로 각각 뻗어 나가기 때문이다. 계곡 내에서건 탁 트인 해안을 따라서건, 강의 범람 작용으로는 이러한 지형이 생겨날 수 없다. 그리고 이러한 계단 모양의 평원 혹은 단구가 형성되면서 계곡 자체는 움푹 파이게 되었다. 마젤란 해협에서는 조류의 속도가 시속 8노트에 이른다는 것을 알지만, 거센 파도 없이 조류만으로 그토록 광활하고 두꺼운 단단한 현무암 지대를 침식시키는 데 들었을 수 세기를 넘는 시간을 생각하면 머리가 어지러울 정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지층이 고대에 이 해협의 바닷물에 의해 침식되어 거대한 덩어리들로 부서져서 해안에 흩어졌으며, 이어 더 작은 덩어리들로 부서지고, 그러고는 자갈이 되고, 마지막으로는 미세한 진흙이 되어 마침내는 조류에 의해 동쪽 또는 서쪽 대양으로 떠내려갔으리라고 믿어야 한다.

이 평원의 지질학적 구조 변화와 마찬가지로 지형적인 특징도 더불어 변화했다. 좁고 바위투성이인 협곡을 산책하던 나는 생자고 섬의 황폐한 계곡으로 다시 돌아간 것 같은 착각에 빠졌다. 현무암 절벽들 사이에서 나는 어디서도 보지 못하던 식물 몇 가지를 발견했지만, 다른 식물들은 티에라델푸에고 섬에서부터 날려 온 것들임을 알아볼 수 있었다. 이러한 다공질 암석들은 부족한 빗물을 저장해 주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계속해서 화성암과 퇴적암 지층이 결합하는 부분에 몇몇 작은 샘물들(파타고니아 지역에서는 무엇보다 드문 일이다)이 솟아났다. 샘물들 주변에는 밝은 초록색 풀들이 자라 있어 멀리서도 알아볼 수 있었다.

4월 27일 | 강바닥이 점점 좁아짐에 따라 물의 흐름은 더욱 빨라졌다. 이 부근

의 물살은 시속 6노트로 흐른다. 물살이 빠를 뿐만 아니라 각진 거대한 암석 덩어리들이 많아서 보트로 항해하는 것이 위험하면서도 힘들었다.
오늘은 콘도르 한 마리를 쏘아 잡았다. 양 날개 끝에서 끝까지는 2.5미터, 부리에서 꽁지까지는 1.2미터였다. 이 새는 지리학적으로 광범위하게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남아메리카 서쪽 해안에서 발견되는가 하면 마젤란 해협에서부터 코르디예라 산맥을 따라 적도에서 북쪽으로 위도로 8도나 떨어진 곳에서까지 발견된다. 네그로 강어귀의 가파른 절벽은 파타고니아 해안을 따라 이 새가 서식하는 북방 한계선이며, 그곳의 콘도르들은 안데스 산맥의 주요 서식지 중심선에서부터 약 644킬로미터나 되는 거리를 날아온 것이 된다. 더 남쪽으로 가면 데지레 항구 끄트머리의 가파른 절벽에서도 콘도르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그러나 해안에서는 낙오된 콘도르 몇 마리가 종종 보일 뿐이다. 산타크루스 강어귀 부근에 늘어선 절벽에서도 콘도르들을 자주 볼 수 있으며, 거기서 강을 따라 약 129킬로미터 올라가 계곡 양쪽이 가파른 현무암 절벽으로 이루어진 곳에 이르면 콘도르를 다시 만날 수 있다. 이러한 사실들로 미루어, 콘도르들은 수직 절벽에서 살아야 하는 것 같다. 칠레에서 콘도르는 연중 대부분의 시기에 태평양 연안의 저지대에서 발견되며, 밤이면 몇 마리가 나무 한 그루에 모여 앉아 있곤 한다. 하지만 초여름이 되면 보다 안전하게 새끼를 부화하기 위해 사람들이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코르디예라 산맥 안쪽으로 이동한다.
칠레의 지역 주민들에게 듣기로, 콘도르는 번식할 때 둥지를 짓지 않으며 11월과 12월 사이에 맨바위 암반에 희고 큰 알을 두 개 낳는다고 했다. 새끼 콘도르는 1년 동안은 날지 못하는데, 날 수 있게 된 후로도 한동안은 밤이면 나뭇가지에 앉고 낮에는 어미와 함께 사냥을 다닌다고 한다. 나이 든 콘도르는 대개 짝을 지어 사는데, 나는 산타크루스 강 내륙의 현무암 절벽 가운데에서 수십 마리가 출몰하는 지점을 찾아냈다. 절벽 끝까지 왔을 때, 갑자기 20마리 내지 30마리의 거대한 새 떼가 쉬고 있던 자리에서 날아올라 웅대한 원을 그리

며 날아가는 모습은 엄청난 장관이었다. 바위 위에 있던 배설물의 양으로 보아, 이곳에 오랫동안 머물러 쉬면서 새끼를 깐 것이 분명했다. 저 아래 평원에서 썩은 고기로 포식한 콘도르들은 소화될 때까지 자기들이 좋아하는 절벽의 암붕에 가 있곤 한다. 이러한 사실들로 볼 때, 콘도르는 갈리나소처럼 어느 정도 떼를 지어 사는 새로 보인다. 콘도르는 이 지역에서 자연사했거나 대개는 퓨마에게 잡아먹힌 과나코를 먹으며 함께 산다. 파타고니아에서 직접 관찰한 바로는, 이 새들이 평소 일상적으로 움직이는 거리는 정해진 잠자리에서 크게 멀리 벗어나지 않는 것 같다.

종종 콘도르가 아주 높은 곳에서 한 지점 위를 우아하기 이를 데 없는 원을 그리며 활공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내가 보기엔 그저 재미로 하는 것이 분명한 때도 있지만, 칠레 농부들 말에 의하면 죽은 동물이나 먹이를 먹어 치우는 퓨마를 주시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콘도르들이 같이 활강하다가 갑자기 위로 솟아오르면, 그건 필시 먹이 사체를 지켜보고 있던 퓨마가 튀어나와 콘도르들을 쫓은 것이라고 했다. 콘도르들은 썩은 고기만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새끼 양이나 염소들도 자주 공격한다. 그래서 양치기 개들은 콘도르가 지나가기만 하면 달려 나와 힘껏 짖도록 훈련받는다. 칠레 사람들은 콘도르를 대량으로 잡아 죽인다. 그럴 때는 대개 두 가지 방법을 쓰는데, 하나는 입구가 한 개인 나뭇가지로 된 우리를 평탄한 곳에 두고 그 안에 동물의 사체를 놓은 후 콘도르가 그걸 먹어 치우러 들어가면 말을 타고 달려가 입구를 닫아 버리는 것이다. 달릴 공간을 좁힘으로써 지면에서 날아오르기에 충분한 추진력을 얻을 수 없게 하는 것이다. 두 번째 방법은 콘도르 대여섯 마리가 앉아 쉬는 나무를 표시해 두었다가 밤이 되면 그 나무를 타고 올라가 올가미로 잡는 것이다. 내가 관찰한 바에 따르면, 콘도르들은 깊이 잠들기 때문에 그리 어려운 방법이 아닌 것 같다. 발파라이소에서는 살아 있는 콘도르가 6펜스에 팔리는 것을 본 적이 있는데, 대개는 8~10실링 정도에 팔린다. 밧줄로 묶여 있는 데다가 심하게 상처까지 난 콘도르 한 마리를 본 적이 있는데, 부리를 묶었던 밧줄을 잘라 주자

사람들에 둘러싸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썩은 고기 조각을 게걸스럽게 뜯어 먹기 시작했다. 그곳 마당에는 콘도르 20~30마리 정도가 산 채로 잡혀 있었다. 그것들은 일주일에 한 번밖에 먹이를 먹지 못했지만 상당히 건강해 보였다.[6] 칠레 사람들은 말하기를, 콘도르는 5~6주 정도 먹지 않고도 기운을 잃지 않고 살 수 있다고 했다. 이 말이 진짜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그 말대로 한다면 참 잔인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 부근에서 동물이 죽으면, 콘도르들은 썩은 고기를 먹는 다른 맹금류처럼 이내 그것을 알아차리고 귀신같이 모여든다. 콘도르들이 먹잇감을 발견하면, 대개의 경우 살점들이 더 이상 썩기 전에 뼈를 깨끗이 발라낸다. 오뒤봉 씨가 썩은 고기를 먹는 매의 미약한 후각에 대해 한 실험을 떠올린 나는 앞서 말한 집 마당에서 다음과 같은 실험을 했다. 우선, 밧줄로 각각 묶인 콘도르들을 담장 아래 일렬로 길게 세웠다. 그리고 흰 종이에 고기 한 조각을 싸 들고 담장에서 약 3미터 떨어진 곳에서 앞뒤로 왔다 갔다 했지만 콘도르들은 아무것도 알아채지 못했다. 그래서 나는 늙은 수컷 한 마리 앞에서 약 90센티미터 되는 곳에 고깃덩이를 던졌다. 그놈은 주의 깊게 한번 쳐다보더니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다. 나무 막대로 좀 더 가까이 밀어 놓자 마침내 부리로 건드렸다. 곧이어 종이가 요란하게 찢겨 나가자 줄지어 있던 콘도르들이 모두 몸부림치며 날개를 퍼덕이기 시작했다. 같은 상황에서라면 개를 속이기는 절대 불가능했을 것이다. 썩은 고기를 먹는 독수리의 날카로운 후각을 인정하는 증거와 부정하는 증거는 이상하게도 막상막하이다. 오언 교수는 쇠콘도르Cathartes aura의 후각 신경은 고도로 발달되었다고 주장했다. 동물학회에서 그의 논문이 발표되던 어느 날 저녁, 한 신사가 서인도 제도에서 시체를 매장하지 않아 악취가 났을 때 썩은 고기를 먹는 매들이 지붕에 모이는 것을 두 차례 보았다고 얘기했다. 그 새들이 시체가 있다는 것을 눈으로 보고 알았을 리는 없었을 것이

6 콘도르가 죽기 몇 시간 전이면 그것에 들끓던 이들이 모두 깃털 밖으로 기어 나온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런 현상에는 예외가 없다고 확신한다.

다. 반면, 오뒤봉 씨와 나 외에도 미국의 바크먼 씨가 쇠콘도르(오언 씨가 해부한 것과 같은 종)와 갈리나소 중 어떤 것도 냄새로 먹이를 찾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다양한 실험을 시도했다. 심하게 부패한 고깃덩어리를 얇은 캔버스 천으로 덮고, 그 위에 고기 조각들을 뿌려 놓았더니, 썩은 고기를 먹는 매들은 이 고기 조각들을 먹어 치우고 나서는 썩은 고기와 부리의 거리가 3밀리미터밖에 되지 않는데도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멍하니 있었다. 그러나 캔버스 천에 흠집이 나자 곧바로 알아차렸다. 캔버스 천을 새것으로 갈고 다시 고기 조각을 그 위에 놓자 새들은 곧 다시 먹어 치웠지만, 여전히 자기들이 무얼 발로 밟고 있는지는 알아차리지 못했다. 바크먼 씨와 그 외 여섯 명의 신사들이 이러한 실험이 사실이었음을 증명하는 서명을 했다.[7]

간혹 탁 트인 평원에 누워 쉬다가 위를 올려다보면, 썩은 고기를 먹는 새들이 드높은 하늘을 가르며 나는 것이 보이곤 한다. 평탄한 지역에 있는 사람이라면 그가 걷든, 말을 타든, 수평선 위로 15도 이상 되는 부분의 하늘은 대개 주의 깊게 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만일 이게 사실이고, 썩은 고기를 먹는 매가 9백~1천2백 미터쯤 되는 상공을 날고 있다면, 그 새가 시야에 들어오기 직전 새와 관찰자 눈의 직선거리는 아마도 32킬로미터[8] 이상이 될 것이다. 그러다 보니 새를 쉽게 못 알아보는 게 아닐까? 한적한 계곡에서 사냥꾼이 짐승 한 마리를 잡는 순간, 그 위에서는 한 마리 새가 날카로운 시각으로 그를 지켜보고 있지는 않을까? 그리고 그 새가 날아 내려오는 모습이 곧 그 구역에 있는 썩은 고기를 먹는 종족 모두에게 '먹이가 근처에 있다!' 하고 선포하는 것은 아닐까?

콘도르 무리가 특정 지점을 선회하는 모습은 아름다울 정도다. 땅에서 날아오를 때를 빼고 이 새들이 날개를 퍼덕이는 모습을 본 적이 없다. 언젠가 리마(페

7 《런던 자연사학》 7권.

8 원문에는 '2영국마일'이라고 표기되어 있다. '영국마일'은 야드-파운드계系의 길이 단위인 '마일'을 이르는 말이다. 기호는 mi 또는 mil이며, 1mi은 1760yd, 1.609344km에 해당한다(5280ft)-역주.

루의 수도) 근처에서 거의 30분 동안 눈 한 번 떼지 않고 콘도르들을 바라본 적이 있다. 그것들은 커다란 곡선을 따라 원을 그리며 나는 동안 단 한 번의 날갯짓도 없이 상승하거나 하강했다. 콘도르들이 내 머리 위로 가까이 활강할 때를 이용해 나는 비스듬한 위치에서 각 날개 끝부분의 거대한 깃털 낱낱의 윤곽선을 자세히 관찰했다. 날개가 조금이라도 흔들리는 기색이 있었다면 각개의 깃털들은 서로 뒤섞여 보였을 것이다. 하지만 파란 하늘을 배경으로 그 깃털들은 뚜렷하게 구분되어 보였다. 겉으로 보기에 머리와 목은 빈번히 힘차게 움직였지만, 쭉 펼친 날개는 목, 몸통, 그리고 꼬리의 움직임을 지지하는 지렛대 역할을 하는 것처럼 보였다. 내려가려고 할 때가 되면 날개는 잠시 접힌다. 그리고 몸의 기울기를 바꾸며 날개를 다시 펼치면, 새는 급강하로 생긴 추진력 때문에 마치 종이 연처럼 평탄하고도 꾸준하게 치솟는 것 같다. 어떠한 새라도 위로 솟아오를 때는 대기에 미치는 몸통 경사면의 작용이 새에 대한 중력과 균형을 이룰 수 있을 정도로 동작이 빨라야 한다. 마찰이 거의 없는 대기 중의 수평면에서 운동하는 물체가 추진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결코 크지 않은 힘, 딱 그 정도의 힘만 있으면 된다. 콘도르의 목과 몸통이 하는 운동 정도면 이 힘을 내는 데 충분하다고 본다. 이런 것들은 다 놔두고라도, 이토록 커다란 새가 몇 시간이고 산과 강 위를 선회하며 미끄러지듯 나는 모습은 그야말로 경이롭고 아름답기 그지없다.

4월 29일 | 고지대에서 코르디예라 산맥의 흰 산봉우리를 본 우리들은 기쁨의 환호성을 질렀다. 늘 거무스름한 구름에 덮인 채 가끔씩만 엿볼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후로 이어진 며칠 동안, 우리는 강줄기가 매우 꼬불꼬불한 데다 가끔씩 만나는 여러 가지 거대한 고대 석판암이며 화강암 덩어리들 때문에 천천히 전진했다. 계곡을 둘러싼 평원의 높이는 강 수면으로부터 약 335미터였으며, 그 토질도 상당히 달라져 있었다. 둥글게 닳은 반암 자갈이 거대하고 각진 현무암 및 원생 암석 덩어리들과 섞여 있었다. 처음 발견한 이런 표석들은 가장 가까운 산으로부터도 108킬로미터 떨어져 있었다. 또 다른 표석은 넓이

가 4.2제곱미터에 자갈 위로 1.5미터가량 튀어나와 있었다. 끄트머리가 무척이나 각지고 대단히 커서, 처음에는 '제자리에 있는' 기반암으로 착각하고 그 암석의 벽개면[9]을 측정하기 위해 컴퍼스를 꺼내 들었다. 근처 평원은 해안가만큼 평탄하지는 않았지만, 급격한 변동의 징후는 없었다. 이러한 환경에서 이렇게 거대한 암석 덩어리가 근원암으로부터 어떻게 수백 킬로미터나 이동했는지는 유빙(떠다니는 빙산) 이동설 말고는 어떤 것으로도 설명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지난 이틀 동안 우리는 말의 흔적과 망토 조가리, 타조 깃털 묶음 등 인디오의 것으로 보이는 자잘한 물건들을 발견했다. 하지만 그들이 그곳에서 머물다 간 지는 오래되어 보였다. 인디오들이 최근에 강을 건넌 지점과 이 근방 사이의 지역은 비록 수 킬로미터 떨어져 있긴 하지만, 사람들이 거의 오지 않는 것 같다. 과나코가 많이 있는데도 인적이 드물다는 사실에 처음에는 놀랐지만, 이 근방 평원은 돌이 많아서 편자를 박지 않은 말을 사냥에 쓰면 곧 다친다는 것을 알고 나니 이해가 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중심 지역에서 우연히 생겨났다고는 생각할 수 없는 작은 돌무덤들을 두 곳에서 발견했다. 그것들은 화산암 절벽 꼭대기의 튀어나온 가장자리에 만들어져 있었으며, 크기는 작았지만 데지레 항구에 있는 돌무덤과 닮았다.

5월 4일 | 피츠로이 함장은 보트를 더 이상 상류로 끌고 가지 않기로 결정했다. 강줄기가 꼬불꼬불해지고 물살이 급해진 데다 지형을 보면 더 끌고 가고 싶은 마음이 달아났다. 가는 곳마다 똑같은 주변 환경, 똑같이 황량한 풍경이었다. 우리가 있는 곳은 대서양으로부터 225킬로미터, 가장 가까운 태평양의 만으로부터는 97킬로미터 떨어져 있었다. 위쪽 계곡은 넓은 분지로 펼쳐지면서 남쪽과 북쪽은 현무암 암반에 접해 있으며 눈 덮인 긴 코르디예라 산맥을 마주하고 있다. 소망하던 대로 산맥 꼭대기에 오르지 못한 채 그 자연과 산물을 상상할 도리밖에 없던 우리는 그저 아쉬움의 눈길을 보낼 따름이었다. 강

9 광물, 암석 등이 쪼개져서 갈라진 면-역주.

을 따라 상류로 더 올라가려면 시간도 쓸데없이 더 걸리는 데다가, 우리는 이미 며칠 전부터 빵을 평소의 반씩 먹고 있는 중이었다. 보통 사람에게라면 충분한 양이지만, 꼬박 하루 동안 고된 행군을 하고 난 사람들에게는 턱없이 적은 양이다. 가벼운 식사와 원활한 소화라는 것이 말은 좋아도 실제로 해 보면 정말 괴로운 일이 아닐 수 없다.

5월 5일 | 날이 새기 전에 강을 내려가기 시작했다. 우리는 시속 10노트라는 대단한 속도로 강을 타고 내리달았다. 상류로 오를 때 5일 반 걸렸던 거리를 오늘 하루 동안에 주파했다.

5월 8일 | 우리는 21일 동안의 탐사를 마치고 비글호로 돌아왔다. 나를 뺀 모든 사람들은 불만스러운 것 같았지만, 나로서는 파타고니아의 거대한 제3기 지층의 가장 흥미로운 단면을 보게 된 탐사였다.

1833년 3월 1일, 그리고 1834년 3월 16일 | 비글호는 동포클랜드 섬의 버클리 협만에 정박했다. 이 제도는 마젤란 해협의 입구와 거의 같은 위도상에 위치해 있다. 면적은 가로 193킬로미터, 세로 97킬로미터로, 아일랜드 면적의 반을 조금 넘는다. 프랑스, 스페인, 그리고 영국이 이 비참한 섬들의 소유권을 놓고 싸운 뒤에는 무인도로 방치되었다. 이후 부에노스아이레스 주 정부는 이 섬들을 어느 재산가에게 팔고 나서도 예전 스페인 사람들이 그랬듯 유형지로 계속 사용했다. 영국이 다시 자기 권리를 주장하며 그 섬들을 강탈했지만, 소유권을 지키려고 주둔한 영국인들은 결국 살해당했다. 다음으로는 아무 병력도 거느리지 않은 영국인 관리가 파견되었다. 우리가 도착했던 당시 그가 맡은 사람들은 태반이 탈주한 반역자이거나 살인범들이었다. 그 섬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그럴싸하게 어울리는 섬이었다. 우툴두툴하게 기복이 심한 대지는 형편없이 황량했으며, 어디를 가나 땅은 단조롭고 억센 갈색 풀과 토탄질의 토양으로 덮여 있었다. 부드러운 지표면 여기저기에는 회색 석영 암석 덩어리의 뾰족한 부분이나 모서리가 솟아 나와 있었다. 모두들 이 지역의 날씨에 대해서 들은 적이 있었다. 아마도 북웨일스 지방의 고도 3백~6백 미터 되는 지

역에서나 겪을 수 있는 날씨라고 보면 될 것이다. 물론 햇빛이나 숲이 적고 바람과 비는 훨씬 많지만 말이다.[10]

5월 16일 | 이제 이 섬의 일부를 둘러본 짧은 답사에 대해 얘기하겠다. 아침에 나는 여섯 마리의 말을 끌고 두 명의 가우초와 함께 길을 떠났다. 이 가우초들은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데 익숙해진 사람들이어서 답사에는 적격이었다. 심한 우박 폭풍 때문에 날씨는 매섭게 추웠다. 그러나 우리는 꽤나 잘 나아갔는데, 지질 조사는 둘째 치더라도, 말을 타고 가는 것이 무엇보다 재미있었다. 대지는 한결같이 기복이 심한 황무지였다. 지표면은 시들시들한 밝은 갈색 풀들과 드문드문 나 있는 아주 작은 관목들로 덮여 있었으며, 모두 탄력 있는 토탄질 토양 위에 자라고 있었다. 계곡의 여기저기에서 작은 야생 거위 떼를 볼 수 있었으며, 땅은 어디나 부드러워 도요새도 먹고살 수 있을 정도였다. 이 두 종류 새들 외에 다른 새는 거의 없었다. 높이가 거의 610미터이고 석영 바위로 된 중심 산맥도 하나 있었는데, 그 산등성이는 거친 불모지여서 지나기가 상당히 힘들었다. 남쪽 면에는 야생 소들이 살기 좋은 땅이 있었지만 최근 들어 사람들이 심하게 괴롭혀서 그런지 많이 볼 수 없었다.

저녁때는 작은 소 떼를 만났다. 우리 일행 중의 '생자고'라는 사람이 곧 살찐 암소 한 마리를 무리로부터 떼어 놓고 볼라를 던져 다리를 맞혔지만 감기지는 않았다. 그러자 그는 볼라가 떨어진 곳에 모자를 벗어 던지고는 전력으로 달리면서 올가미를 풀었다. 맹렬히 추격한 끝에 그는 다시 그 암소에 다가가는 데 성공해 뿔에 올가미를 걸었다. 다른 가우초 한 명이 말들을 몰고 앞서 가고 있어서 '생자고' 혼자 성난 짐승을 잡는 게 쉽지는 않았다. 그는 암소가 그에게 돌진하는 것을 이용해 가까스로 암소를 평지로 끌고 갔다. 암소가 움직이지

10 이후 출간된 우리의 여행기와 조사에 참여했던 R. N. 설리번 함장의 몇 가지 흥미로운 편지로 미루어, 우리는 이 섬들의 악천후에 대해 다소 과장된 견해를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지역이 토탄土炭에 덮여 있는 것이나, 이 지역에서는 밀이 거의 여물지 못한다는 사실로부터 이곳의 여름 기후가 최근에 보고되는 것처럼 좋고 건조하다고는 믿지 못하겠다.

않으려 하자 잘 훈련받은 내 말이 달려가서 가슴으로 세차게 부딪쳤다. 하지만 한 사람이 공포에 질려 날뛰는 짐승 한 마리를 죽이는 것은 평지에서도 쉽지 않아 보였다. 내 말이 주인 없이 혼자인 상태에서도 자기의 안전을 위해 소의 올가미를 단단히 조여서 소가 앞으로 움직이면 자기도 똑같이 빨리 앞으로 움직이고, 그렇지 않으면 한쪽으로 기운 채 꼼짝 않고 서 있어야 한다는 것을 빨리 깨닫지 못했다면 정말 힘들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 말은 어린 말이어서 가만히 서 있지 못하고, 암소가 용을 쓰자 그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었다. 생자고가 마침내 암소 뒷다리 중심 힘줄에 치명타를 입힐 때까지 그 짐승 뒤에서 이리저리 몸을 피하면서 보여 준 민첩성은 정말 볼만했다. 곧이어 그가 힘들이지 않고 척수 윗부분까지 칼을 밀어 넣자 암소는 벼락이라도 맞은 듯 쓰러졌다. 그는 뼈를 발라내고 가죽은 그냥 붙여 둔 채로 우리의 탐사에 필요한 만큼 고기 조각을 잘라 냈다. 그리고 우리는 야영지로 가서 '카르네 콘 쿠에로', 즉 '가죽이 붙어 있는 채로 구운 고기'로 저녁 식사를 했다. 사슴 고기가 양고기보다 훨씬 나은 것처럼, 이 또한 보통 쇠고기보다 훌륭했다. 등에서 둥글게 잘라 낸 고깃덩어리를 육즙이 떨어지지 않도록 가죽이 아래로 오게 접시 모양으로 해서 잿불에 구웠다. 만일 어떤 덕망 높은 고위 관리가 우리와 저녁 식사를 같이했더라면, '카르네 콘 쿠에로'는 분명 빠른 시일 내에 런던에서 소문이 자자해졌을 것이다.

밤새 비가 내렸고, 다음 날인 17일에는 우박과 눈이 뒤섞인 폭풍이 불었다. 우리는 섬을 가로질러 린콘델토로(남서쪽 종단의 큰 반도)와 섬의 나머지 부분을 연결하는 목 부분까지 왔다. 암소들이 많이 도살되어서 상대적으로 황소들이 많았다. 이 황소들은 외따로 다니거나 두세 마리가 함께 돌아다녔는데 아주 사나웠다. 이토록 장대한 짐승들을 본 적이 없었다. 거대한 두상과 목의 굵기는 그리스의 대리석 조각에 견주어도 손색이 없었다. 설리번 함장의 말에 의하면, 보통 크기의 황소 가죽은 무게가 21킬로그램 정도 나가며, 이 정도 무게가 나가는 가죽은 완전히 건조된 것이 아니어도 몬테비데오에서 꽤 무거운 것으

로 친다고 한다. 어린 황소들은 대개 짧은 거리라도 뛰어 돌아다니지만, 나이 든 황소들은 사람이나 말을 공격할 때가 아니면 좀처럼 움직이지 않는다. 소의 공격을 받아 죽은 말들도 많다. 늙은 황소 한 마리가 늪지로 이루어진 강을 두고 우리 맞은편에 서 있기에 쫓아 버리려 했으나 별 소용이 없었다. 때문에 우리는 빙 둘러 가야 했다. 가우초들은 분풀이로 훗날 위협이 되지 않도록 그 황소를 거세해야겠다고 결정했다. 기술이 힘을 어떻게 제압하는지를 보는 것도 무척 재미있었다. 황소가 말에게 달려들 때 올가미를 뿔 위에 하나, 그리고 두 뒷다리에 하나 던지자, 황소는 순식간에 땅 위로 무기력하게 뻗어 버렸다. 성난 짐승의 뿔 둘레에 걸린 올가미가 일단 한번 조여지고 나면, 올가미를 풀기란 일단 그놈을 죽이지 않고는 쉽지 않아 보인다. 사람이 한 명이라면 더 그럴 것 같았다. 그러나 또 다른 사람이 두 뒷다리를 잡으려고 올가미를 던지면 일은 쉽게 끝난다. 뒷다리들을 계속 바깥으로 당기는 이상 황소는 매우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으며, 그러면 첫 번째 사람은 그 뿔에 걸린 올가미를 손으로 풀고 조용히 말을 탈 수 있다. 두 번째 사람이 조금이라도 물러서서 긴장을 늦추는 순간, 올가미는 몸부림치는 황소의 뒷다리에서 빠져나온다. 황소는 풀린 몸을 일으켜 몸을 부르르 떨고는 적을 향해 달려들지만 이미 헛일이다.

말을 타고 가는 내내 야생마 무리는 딱 한 번 보았다. 말은 소와 마찬가지로 1764년 프랑스인들에 의해 들어왔는데, 그 후로 소와 말의 수는 급속히 증가했다. 이쪽 지역이 다른 곳에 비해 더 매력적인 것도 아니고 이동을 막을 만한 자연적인 장애물이 있는 것도 아닌데 말들이 이 섬의 동쪽 끝을 떠나지 않는다는 것은 신기한 일이다. 내 질문을 받은 가우초는 그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말들은 익숙한 지역에 강한 애착을 보인다는 것 말고는 달리 설명하지 못했다. 이 섬에 말이 전체적으로 분포되어 있지도 않은 것 같고 맹수도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나는 왜 말들이 급속하게 늘어나지 못했는지 유독 궁금했다. 섬이라는 한정된 곳에서는 어떤 장애든 곧 생겨날 수밖에 없었겠지만, 왜 말의 번식이 소 떼의 번식보다 앞서 억제된 것일까? 설리번 함장은 나의 의문을 해

결해 주느라 한참을 고심했다. 그곳에서 일하는 가우초들은 그 이유가 끊임없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망아지들이야 따라올 수 있건 없건 암말들에게 자기를 따라다니도록 강요하는 종마 때문이라고 했다. 가우초 한 사람이 설리번 함장에게 말하길 암말 한 마리를 한 시간 동안이나 물어뜯고 걷어차서 자기 새끼를 죽게 내버려 둔 종마 한 마리를 본 적이 있다고 한다. 설리번 함장은 자신도 죽은 송아지는 한 번도 보지 못한 반면 죽은 망아지는 몇 번 봤기에 흥미로운 이야기에 대해 확증해 줄 수 있다고 했다. 더구나 마치 말이 질병이나 사고에 더 쉽게 노출되기라도 한 듯, 다 자란 말의 사체가 다 큰 소의 사체보다 훨씬 자주 발견된다. 이곳 땅은 부드러워서 말굽이 종종 불규칙하고 길게 자라기 때문에 말들은 다리를 절뚝이게 된다. 밤색에 회색이 섞인 것과 철회색 말이 전적으로 많았다. 길들인 것이든 야생이든 이곳에서 태어난 모든 말들은 일반적으로 건강 상태는 좋지만 체구는 다소 작다. 힘도 약해서 올가미로 야생 소를 잡을 때 쓰기에도 적합하지 않다. 결과적으로, 이 지역에서는 라플라타 지역의 건장한 말들을 비싼 값에 수입해야만 한다. 앞으로 언젠가는, 북반구에는 셰틀랜드 종種이 있듯이 남반구에는 포클랜드 조랑말 품종이 있게 될 것이다.

앞서 말했듯이, 이곳의 소는 말처럼 퇴화하지 않은 대신 체구가 커졌다. 그리고 말에 비하면 수도 훨씬 많다. 설리번 함장은 소들의 일반적인 체형과 뿔의 형태가 영국의 소에 비해 훨씬 덜 변화했다고 내게 알려 줬다. 그 소들은 색깔도 많이 달랐다. 그리고 이 작은 섬의 각 지역에서 서로 다른 색상이 우세하다는 것은 주목할 만한 상황이다. 해발 300~450미터 정도 높이의 어즈번 산 둘레에 서식하는 소 떼의 경우, 반 정도는 쥐색이거나 납 색깔이며 이는 이 섬의 다른 지역에선 흔히 볼 수 없는 색깔이다. 플레장트 항구 근처에서는 암갈색 소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슈아쥘 협만(이 섬이 두 부분으로 나뉘다시피 하는 곳)의 남쪽에서는 몸은 희고 머리와 발은 검은 것들이 주로 보인다. 모든 지역에서는 검거나 점박이 소들을 볼 수 있다. 설리번 함장 말로는 소 떼의 색깔 차이

가 너무나도 분명해서, 플레장트 항구 근처의 소들은 멀리서 보면 검은 점처럼 보이고 슈아죌 협만 남쪽에서는 소들이 산 중턱에 있는 흰 점들처럼 보인다고 한다. 그는 이 소 떼들이 서로 섞이지 않는 것 같다고 했다.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쥐색의 소가 고지대에 사는데도 불구하고 저지대에 사는 다른 색깔의 소들보다 한 달 먼저 새끼를 낳는다는 것이다. 만일 이 세 가지 색깔로 구성된 길들여진 소 떼들을 앞으로 몇 세기 동안 간섭하지 않고 내버려 둔다면, 십중팔구 그중 한 가지 색깔이 결과적으로 다른 색깔 소들보다 우세해질 테니, 무척 흥미롭다.

토끼 또한 외지에서 들여온 동물 중 하나인데, 이곳에 성공적으로 적응해서 이 섬 대부분에 걸쳐 많이 살고 있다. 하지만 토끼의 서식 영역이 중앙 산맥을 넘어가지도 못했고, 가우초들 말대로 산맥 기슭에 몇 무리를 가져다 놓지 않았더라면 그곳까지 전파되지도 못했으리라는 점을 보면, 토끼도 말처럼 특정 영역 내에서만 살고 있다. 사실 나는 원산지가 북아프리카인 이 동물들이 이처럼 습하고 햇볕도 적어서 밀 같은 작물도 어쩌다 한 번 여물까 말까 한 기후에 적응할 수 있으리라고는 생각도 못 했다. 누가 봐도 여기보다는 기후가 좋은 스웨덴에서도 토끼를 야외에서 키우지 않는다고 한다. 더구나, 이곳에 처음 온 몇 쌍의 토끼는 여우나 큰 매 같은 토착 천적들에 시달려야 했을 것이다. 프랑스 자연사학자들은 검은색 변종 토끼를 희귀종으로 여겼으며 마젤란 토끼Lepus magellanicus[11]라고 불렀다. 그들은 마젤란이 마젤란 해협에 서식하는 '코네호Conejo'라는 동물에 대해 얘기할 때 바로 이 종에 대해 얘기하는 것으로 추측했던 것이다. 그러나 사실 마젤란은 작은 기니피그를 말했던 것이었고, 스페인 사람들은 지금까지도 그것들을 '코네호'라고 부른다. 가우초들은 검은

11 레송의 《코퀴유호 항해기 동물지》 1권, 168쪽. 모든 초창기의 항해자들, 특히 부갱빌 같은 사람은 그 늑대처럼 생긴 여우가 이 섬에서 유일한 토착 동물이라고 분명하게 언급했다. 토끼를 하나의 종으로 구분하는 것은 그 털의 특색과 머리의 생김새, 그리고 짧은 귀에서 연유한 것이다. 아일랜드 토끼와 영국 토끼의 차이 역시 여기서 거의 벗어나지 않는 특징들이며, 좀 더 뚜렷하게 구분될 뿐이다.

토끼가 회색 토끼와 다른 종이라는 생각을 비웃으면서, 여하튼 검은 토끼들은 회색 토끼들보다 멀리까지 퍼져 나가지 못했으며 두 종이 전혀 별개의 지역에 살지도 않는다고 했다. 그 두 종은 쉽사리 섞여 얼룩덜룩한 새끼도 낳는다고 했다. 나도 얼룩덜룩한 토끼 표본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그 머리 부분을 보면 프랑스 자연사학자가 기술한 세부 내용과 다르다. 이러한 사실은 자연사학자들이 얼마나 주의 깊게 종들을 명명해야 하는지를 보여 준다. 심지어 퀴비에도 이 토끼들 중 하나의 두개골을 보고는 별개의 종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으니 말이다.

이 섬의 유일한 토착 동물[12]은 큰 늑대같이 생긴 여우Canis antarcticus(포클랜드늑대)[13]로, 동포클랜드와 서포클랜드 모두에서 흔히 볼 수 있다. 이것은 의심의 여지없이 포클랜드 제도에서만 발견되는 고유의 종이다. 이 제도를 찾은 많은 바다표범잡이들과 가우초, 그리고 인디오들의 말로는 남아메리카의 어디에서도 이런 동물을 본 적이 없다고 한다.

몰리나는 행동의 유사성으로 볼 때 이 동물이 그가 말한 '쿨페우Culpeu'[14]와 같은 종이라고 했는데, 두 종을 모두 본 적이 있는 내 생각에는 분명히 별개의 종이다. 이 늑대들은 시인 바이런이 온순하지만 호기심 많은 동물로 소개하면서 널리 알려졌는데, 이 호기심을 공격성으로 오해한 선원들이 도망쳐서 물로 뛰어든 적도 있다. 늑대들의 이러한 습성은 아직 그대로여서, 실제로 텐트에 들어와 잠자는 선원 머리 밑에서 고깃덩어리를 꺼내 가는 것을 본 사람도

12 물론, 들쥐가 있으리라고 생각하지 않은 이유도 있다. 유럽의 보통 생쥐들은 정착민들의 생활 구역에서 멀리까지 돌아다닌다. 어떤 작은 섬에서는 흔히 보는 돼지들이 야생 돼지—모두 검은색—가 된 예가 있다. 수퇘지의 경우에는 매우 사나워지고 엄니가 커진다.

13 1833년 다윈이 이곳을 방문했을 때만 해도 흔했던 포클랜드늑대(현재의 학명은 Dusicyon australis이다)를 말한다. '와라Warrah' 또는 '남극늑대'라고 불리기도 했다. 포클랜드 제도의 유일한 육상 토착 포유류였으나, 1800년대를 거치는 동안 급격하게 감소하기 시작해 1876년 이후 멸종되었다–역주.

14 '쿨페우(쿨페오여우)'는 킹 함장이 마젤란 해협에서 집으로 데려온 '마젤란여우Canis magellanicus'(현재 학명은 Culpaeus magellanicus)이다. 이 종은 칠레에서 매우 흔하다.

있다고 한다. 가우초들 또한 저녁이면 한 손에는 고기 조각을, 다른 한 손에는 칼을 든 채 잠복해 있다가 늑대들을 여러 마리 잡아 왔다. 내가 아는 한, 대륙에서 멀리 떨어진 조그만 땅덩어리에 고유의 네발 동물이 있는 경우는 이 세상 어느 곳에서도 볼 수 없다. 늑대 수는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산살바도르만과 버클리 협만 사이 좁은 목의 동쪽 편에 해당하는 이 섬의 반쪽에서는 이미 이 늑대들을 볼 수 없다. 이 제도에 정식으로 사람이 살게 되면 몇 년 안에 이것들은 도도새처럼 지구 상에서 사라진 동물 중 하나가 되고 말 것이다.

5월 17일 | 우리는 (동포클랜드 섬의) 남서쪽 반도를 이루는 슈아죌 협만 끄트머리의 좁은 땅에서 야영했다. 그 계곡은 찬바람을 막기에는 안성맞춤이었지만 땔감이 무척 귀했다. 그러나 가우초들은 놀랍게도 석탄만큼이나 뜨거운 불을 피울 수 있는 대체품을 찾아냈다. 그것은 바로 죽은 지 얼마 안 되어 썩은 고기를 먹는 매에게 살점을 다 뜯긴 어린 수소의 해골이었다. 겨울에는 종종 짐승을 죽여 칼로 뼈를 발라낸 다음, 바로 그 뼈를 가지고 저녁으로 먹을 고기를 굽곤 한다고 했다.

5월 18일 | 거의 하루 종일 비가 내렸다. 그래도 밤에는 안장깔개 덕분에 젖지 않고 따뜻하게 지낼 수 있었다. 하지만 우리가 자는 곳마다 땅은 습지나 마찬가지였고, 하루 종일 달려도 마른 땅이 보이지 않았다. 나는 이 여행기의 다른 부분에서, 티에라델푸에고는 울창한 삼림으로 덮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섬들에서는 나무라곤 한 그루도 찾아보기 어렵다는 것이 얼마나 신기한지 적은 바 있다. 이 섬에서 가장 큰 덤불(국화과에 속하는)이라고 해봤자 고작 영국에 있는 가시금작화 덤불 수준이다. 땔감으로 가장 좋은 것은 보통 히스[15] 덤불 크기의 작은 초록 덤불인데, 이것들은 채 시들지 않아 초록색일 때도 잘 탄다. 비가 와서 모든 것들이 젖었을 때도 가우초들이 부싯돌과 헝겊 심지만으로 순식간에 불을 피우는 모습은 놀라웠다. 그들은 잔디와 덤불 아래에서 마른 나뭇가지 몇 개를 찾아내어 비벼서 잘게 만들었다. 그러고는 좀 더 굵은 나뭇가지

15 진달래과 에리카속Erica에 속하는 키 작은 상록 관목—역주.

로 새 둥지처럼 둘러싼 후 불이 붙은 헝겊 쪼가리를 가운데 놓고 덮는다. 이 나무 둥지가 바람을 막아 주면 점차 연기가 피어오르고, 마침내는 불꽃으로 휩싸인다. 다른 방법으로는 그토록 눅눅한 재료들을 가지고 절대 불을 피울 수 없을 것이다.

5월 19일 | 한동안 말을 타지 않아 그런지, 아침마다 몸이 무척 뻣뻣했다. 어린 시절을 거의 말 위에서 보낸 가우초들조차 그런 경우에는 몸이 고생한다는 얘기를 듣고 놀랐다. 생자고가 예전에 아파서 3개월 정도 말을 못 타다가 야생 소 사냥을 나간 적이 있는데, 허벅지가 너무 아픈 나머지 그 후로 이틀 동안을 누워 있어야만 했다고 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가우초들이 겉보기에는 특별히 힘을 들이지 않는 것 같지만, 말 타는 데에는 정말로 많은 근육 운동이 요구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습지라 오가기도 힘든 땅에서 야생 소 사냥을 하는 것은 무척이나 힘든 일임에 틀림없다. 빠른 속도를 내면 얇은 얼음 위에서도 스케이트를 타고 지나갈 수 있듯이, 가우초들은 종종 느린 속도로는 도저히 지나갈 수 없는 늪지를 전속력으로 질주해서 통과한다고 얘기한다. 사냥할 때면 일행은 소 떼에 가능한 한 가까이 다가가려고 애쓴다. 사냥꾼은 각자 네댓 개의 볼라를 가지고 다니는데, 이것들을 차례차례 그 수만큼의 소들을 향해 던진다. 볼라가 한 번 감기면 소들이 배고픔과 몸부림에 지칠 때까지 며칠 동안 내버려 둔다. 그러고는 풀어 주면서 일부러 그 자리에 이미 몰고 온 길들인 소 떼 쪽으로 몰아간다. 볼라 때문에 혼쭐이 나서 겁을 먹고 무리를 떠나지 못하는 소들은 그나마 힘이 남아 있는 한 순순히 마을까지 따라간다.

심하게 궂은 날씨가 계속되어 우리는 갈 길을 재촉하여 밤이 되기 전에 비글호에 도착하도록 노력해 보기로 했다. 비 때문에 땅이 온통 질척거렸다. 내 말은 열두 번도 넘게 넘어진 것 같고, 때로는 말 여섯 마리 모두가 함께 진흙탕에서 허우적대기도 했다. 작은 개울가의 부드러운 토탄질 토양 때문에 말들이 넘어지지 않고 물을 뛰어넘기가 무척 어려웠다. 무엇보다 힘들었던 건 말 등이 잠길 만한 깊이의 만을 건너야 하는 점이었다. 거센 바람으로 인해 작은 파

도들이 우리에게 부딪쳐 와서 흠뻑 젖은 데다 춥기까지 했다. 강철 같은 체격의 가우초들조차 탐사를 마치고 정착촌에 도착해선 기쁘다고 고백할 정도였다.

이 제도의 지질학적 구조는 대부분의 면에서 간단하다. 저지대는 점판암과 사암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여기서 발견되는 화석들은 유럽의 실루리아기 지층에서 나오는 것들과 아주 똑같지는 않아도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언덕들은 흰색의 과립형 석영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다. 언덕의 지층들은 완전한 대칭 구조의 아치 형태인데, 그 결과 몇몇 암석 덩어리에서 나타나는 모습이 매우 특이하다. 페르네티[16]는 자신의 글에서 몇 페이지에 걸쳐 이 '폐허의 언덕Hill of Ruins'에 대해 그 연속적인 지층을 원형 극장의 좌석에 비유해 기술했다. 이렇게 조각으로 흩어지지 않고 두드러지게 습곡될 당시의 석영은 무척이나 부드러운 상태였을 것이다. 석영이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서서히 사암으로 변해 가는 과정에서, 사암이 찐득찐득하게 녹을 정도로 가열되었다가 냉각될 때 석영이 결정화한 것으로 보인다. 열 때문에 부드러워진 상태에서 석영층이 위를 덮고 있던 지층을 밀어 올린 것이 분명하다.

이 섬 곳곳의 계곡 바닥은 크고 성글며 각이 진 석영 바위로 뒤덮인 '암석 하천'을 이루고 있다. 페르네티 이후 모든 방문객들이 이에 대해 놀라워했다. 암석 덩어리들은 물에 닳지 않았으며, 모서리는 아주 약간 무뎌졌을 뿐이다. 크기는 지름 30~60센티미터에서 그 10배, 심지어는 20배에 이르는 것까지 다양하다. 암석들은 아무렇게나 쌓여 있는 것이 아니고, 평탄하게 거대한 강줄기처럼 펼쳐져 있다. 그 두께는 확인할 수 없지만, 지표면에서 수십 센티미터 아래쪽 돌 틈으로 작은 개울이 졸졸 흘러가는 소리가 들린다. 아래쪽 암석 틈은 오래전에 모래로 채워졌을 테니 실제 깊이는 아마도 엄청날 것이다. 이 암석 하천의 폭은 몇 미터에서 1.6킬로미터에 이른다. 하지만 토탄질의 토양이

16 페르네티, 《말루앵 제도 항해기Voyage aux isles Malouines》, 526쪽. 말루앵 제도는 포클랜드 제도의 프랑스식 옛 이름이다–역주.

양쪽 가장자리에서 매일 조금씩 밀려 들어오고 있으며, 이 토양 조각들이 가까이 모여 작은 섬 모양을 이루기도 한다. 일행 중 몇 명이 '거대한 암석 계곡'이라고 불렀던 버클리 협만 남쪽의 계곡에서는 삐죽삐죽한 한 암석에서 다른 암석으로 건너뛰면서 약 8백 미터 넘게 끊임없이 이어지는 지역을 지나가야 했다. 암석들이 너무 커서, 언젠가 소나기를 만났을 때는 바로 그 아래에서 비를 피하기도 했다.

이러한 '암석 하천'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경사가 거의 없다는 것이다. 산허리에서 측정해 보니 수평선에서부터 약 10도 정도의 경사를 이루고 있지만 평탄하고 바닥이 넓은 계곡에서는 가까스로 알아볼 정도이다. 그렇게 울퉁불퉁한 지표면에서 바닥의 경사를 잴 방도는 없다. 대신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영국 우편 마차가 속도를 늦출 정도의 경사도 안 된다고 할 수 있다. 어떤 곳에서는 이러한 암석 하천이 계곡을 따라 계속되어 언덕 꼭대기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 그런 산마루에는 부피로 치면 조그마한 건물을 능가하는 커다란 암석 덩어리들이 곧장 곤두박질칠 듯한 태세로 멈춰 서 있다. 또한 그곳의 양편으로는 아치형으로 굽은 지층이 고대의 거대한 성당 유적처럼 쌓여 있다. 이렇게 격동적인 장면을 묘사하려면 아무래도 여러 가지 직설적인 비유를 하고 싶을 것이다. 우리가 상상하기에는 백색 용암 하천이 산맥의 여러 부분에서 낮은 지역으로 흘러들다가 굳었으며, 뭔가 어마어마한 격동 때문에 그것들이 무수한 암석 조각으로 부서진 것 같다. 누구나 어떤 모습인지 쉽게 상상이 갈 '암석 하천'이라는 이름도 같은 생각을 떠올리게 한다. 이 광경을 현장에서 보면 주변 언덕들의 낮고 둥글둥글한 모습과 대비되어 더욱 인상적이다.

나는 한 산맥의 가장 높은 지점(해발 약 210미터)에서 볼록한 면을 땅에 대고 누운, 즉 굽은 부분을 아래로 한 거대한 아치형 암석을 발견하고는 흥미를 느꼈다. 과연 이 암석이 위로 솟았다가 뒤집힌 걸까? 아니면 좀 더 가능성 있는 쪽으로 생각해, 이전에 산맥의 일부분이 자연 격동으로 인해 생겨난 거대한 암석이 현재 위치해 있는 곳보다 높이 융기한 것이 아닐까? 계곡에 있는 암석들

이 마모되지도 않았고 틈새가 모래로 채워지지도 않은 것으로 보아, 격변이 일어난 시기는 그 지역이 해수면 위로 융기하고 나서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 계곡들의 횡단면을 보면, 바닥은 거의 평탄하거나 아니면 계곡 양쪽으로 아주 약간 올라가 있다. 따라서 암석들은 계곡 꼭대기에서부터 내려온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가까운 산등성이에서 굴러 내려왔을 가능성이 더 크다. 그 이후 암석 조각들은 거대한 자연력의 진동 운동[17]에 따라 연속적인 하나의 평면으로 깔린 것이다. 1835년 칠레의 콘셉시온을 강타했던 것 같은 지진[18] 때 작은 물체들이 땅 위로 몇 인치 뛰어오른 것이 대단하게 생각된다면, 무게가 몇 톤 나가는 암석 덩어리들이 진동하는 판 위에서 튀는 모래알들처럼 뛰어올라 고르게 내려앉도록 만든 힘은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 나는 안데스 대산맥의 코르디예라 산맥에서 거대한 산들이 마치 얇은 빵 껍질처럼 조각났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와 수직 단면으로 서 있는 지층을 발견했다. 하지만 그 어떤 모습도 이 '암석 하천'처럼 강하게 지각 격변을 시사해 주지는 못했다. 비록 역사적인 기록 중에서는 이에 해당하는 어떤 것도 찾을 수 없지만 말이다. 하지만 지식이 진보하면 언젠가 이 현상에 대해 명쾌하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유럽 평원에 흩어져 있던 표석들이 어떻게 이동했는지 설명할 수 없었다가 오랜 고찰 끝에 이제야 답을 찾았듯이 말이다.

이 제도의 동물상에 대해서는 언급할 것이 거의 없다. 앞서 썩은 고기를 먹는 폴리보루스 독수리에 대해 묘사했다. 이외에도 다른 매, 올빼미 그리고 몇몇 작은 육상 조류들이 있다. 물새가 특히 많은데, 옛 선원들의 얘기에 따르면 예전에는 훨씬 더 많았다고 한다. 어느 날 나는 잡은 물고기 한 마리를 갖고 노는 가마우지 한 마리를 보게 되었는데, 그것은 물고기를 놓아주었다가는 물

17 "우리는 무수한 거암들이 한 층 위에 또 한층, 하는 식으로 협곡을 메울 듯이 아무렇게나 쌓여 있는 것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자연의 경이로움에 탄복하지 않을 수 없다."(페르네티의 책, 526쪽)

18 사리 분별에 밝았던 멘도사의 한 주민은 내게 자신이 그 제도에서 살았던 몇 년 동안 아무리 약한 지진도 겪어 본 적이 없었다고 확신하며 말했다.

이 꽤 깊었는데도 불구하고 좇아 뛰어들어 가서 다시 잡아 오는 짓을 여덟 번이나 연달아 했다. 동물원에서는 마치 고양이가 쥐를 놀리듯이 똑같은 방법으로 물고기를 갖고 노는 수달을 본 적이 있다. 자연의 여신이 이보다 더 일부러 잔인하게 구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을까. 또 언젠가는 펭귄 한 마리와 바다 사이에서 그들의 습관을 관찰하며 즐거워한 적도 있다. 그 펭귄은 무척이나 용감했다. 바다에 이를 때까지 나를 계속해서 뒤로 밀쳐 냈다. 세게 주먹을 날리지 않고서는 막을 도리가 없었다. 조금씩 전진할 때마다 그는 내 코앞에 결연하고도 꼿꼿하게 서서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막아설 때마다 그것은 계속해서 고개를 이쪽저쪽으로 굴렸다. 마치 양 눈의 전방 아래쪽으로만 뚜렷한 시각이 있는 것처럼 말이다. 이 새는 흔히 자커스펭귄Aptenodytes demersa[19]이라고 부르는데, 해변에서 머리를 뒤로 젖히고 나귀가 우는 것같이 크고 이상한 소리를 내는 습성 때문이다. 하지만 아무 방해도 받지 않고 바다에 있을 때 내는 소리는 매우 깊고 장중하며, 밤이면 종종 우리가 있는 곳까지 들려온다. 작은 앞발은 잠수할 때는 지느러미처럼 사용하지만 육상에서는 앞다리가 된다. 풀숲이나 풀이 무성한 경사면을 네발로 기어 다닐 때면 무척 동작이 빨라서 곧잘 네발 동물로 오인된다.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을 때는 수면으로 올라와 물을 뿜어내며 숨을 쉬고는 곧바로 다시 잠수해 들어가기 때문에, 처음 보는 사람은 그것이 운동하느라 뛰어오른 물고기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본다.

포클랜드에는 거위가 두 종류 있다. 고지대에 사는 종인 마젤란거위Anas magellanica는 이 섬 전체에서 짝을 지어 또는 작은 무리를 지어 자주 나타난다. 그것들은 철에 따라 이동하지 않으며 작고 외딴 섬에 둥지를 짓는다. 여우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 같은데, 아마도 그 때문인지 이 새들은 낮 동안에는 매우 온순하지만 어둠이 깔리기 시작하면 매우 낯을 가리며 난폭해진다. 이들은 식물을 주식으로 한다.

19 지금 통용되는 학명은 Spheniscus demersa이며, 케이프펭귄 또는 아프리카펭귄이라고도 한다–역주.

바닷가에서만 살아서 바위거위라고 불리는 종Anas antarctica은 이곳과 칠레를 북방 한계선으로 (남)아메리카 서해안에서 흔히 볼 수 있다. 티에라델푸에고의 깊고 외딴 해협에는 눈처럼 하얀 수기러기가 변함없이 자기보다 어두운 색의 짝을 동반하고 먼 바위 끝에 앉아 있는 광경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이 제도에는 때로 22파운드까지 나가는 큰 로거헤드오리(또는 거위Anas brachyptera)가 매우 흔하다. 이 새들은 예전에는 물 위에서 특이한 방식으로 뒤뚱거리면서 물장구치는 모습 때문에 '경주마'라고도 불렸다. 하지만 요즘은 그보다 적절한 '증기선'이라는 이름으로 불린다.[20] 날개가 너무 작고 약해서 날지는 못하지만 그 덕분에 물 위에서 반은 헤엄치고 반은 퍼덕이면서 매우 신속하게 움직일 수 있다. 그 방식은 보통 집오리가 개에게 쫓길 때의 모습과 비슷하다. 하지만 나는 그 새들이 다른 새들처럼 양 날개를 함께 움직이는 대신 교대로 움직인다는 것을 거의 확신한다. 이 서투른 거위는 하도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물을 튀겨 대단히 호기심을 끈다.

남아메리카에는 비행 이외의 목적에 날개를 사용하는 조류가 3종 있다. 펭귄은 날개를 지느러미로, 증기선오리는 일종의 노로, 그리고 타조는 돛으로 사용한다. 그리고 뉴질랜드 키위Apteryx의 날개는 이미 멸종한 그것의 거대한 원형인 모아새Moa, Deinornis[21]와 마찬가지로 상징적인 흔적밖에 없다. 증기선오리는 매우 짧은 거리만 잠수할 수 있다. 이 종은 켈프[22]나 조수가 밀려드는 곳에 있는 바위에 붙은 조개만 먹고 산다. 따라서 그 부리와 머리는 조개껍데기를 깰 수 있을 만큼 무겁고 강하다. 머리는 특히 단단해 나의 지질 탐사용 해머로도 깨기 힘들 정도여서, 우리 사냥꾼들은 이 새들의 생명력이 얼마나 강한지

20 현재의 조류 중 포클랜드증기선오리Tachyeres brachypterus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역주.

21 모아목Dinornithiformes에 속하는 타조형의 멸종된 무익조류無翼鳥類의 속명. 종의 수는 아직 논란이 많으나 13~25종으로 추정된다. 몸의 크기는 칠면조 크기에서부터 타조보다 더 큰 것에 이르기까지 다양한데, 어떤 종은 서 있을 때의 높이가 약 3미터 정도에 달한다. 마오리 인들의 전통에 의하면, 모아는 빠르게 달리며, 구석에 몰리면 발길질을 하여 자신을 방어했다고 한다—역주.

22 다시마 등의 대형 갈조류—역주.

깨달았다. 저녁이 되어 무리 지어 깃털을 다듬을 때면 이 새들은 열대 지방의 식용 개구리들이 내는 것 같은 이상한 소리를 낸다.

포클랜드 제도에서와 마찬가지로 티에라델푸에고에서도 하등 해양 동물을 많이 관찰했지만,[23] 대개는 관심 갈 만한 것이 없으므로 기관이 보다 고도로 발달된 식충류문門과 관련된 사실만 언급할까 한다. 몇 가지 속(플루스트라Flustra, 에스차라Eschara, 셀라리아Cellaria, 크리시아Cricia 등)은 유럽의 바다에서 발견되는 플루스트라 아비쿨라리아Flustra avicularia처럼 세포에 부착된 독특한 운동기관이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수많은 사례를 볼 때 그 기관의 모양은 콘도르의 머리와 닮았지만 아래턱 부분은 실제 새의 부리보다는 훨씬 크게 열 수 있다. 머리 부분 자체는 짧은 목에서 나오는 힘이 상당하다. 어떤 식충류는 머리 자체는 고정되어 있으나 아래턱이 자유롭다. 다른 종에는 머리 대신 아래턱과 분명하게 맞물리도록 절묘하게 들어맞는 뚜껑 문이 달린 삼각형 덮개가 대신 있는 경우도 있다. 대다수의 종에서 각각의 세포에는 하나의 머리가 있는데, 경우에 따라 머리가 두 개 있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산호충 가지 끝에 있는 어린 세포들에는 매우 미숙한 돌기가 있는데, 작기는 하지만 모든 면에서 완벽한 콘도르 모양의 머리가 붙어 있다. 바늘로 그 돌기들을 세포에서 떼어 내어도 이 기관들은 아무 영향을 받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콘도르 모양의 머리를 세포에서 잘라 내어도 그 아래턱 부분은 여닫는 힘을 유지한다. 아마도 그 구조에서 가장 특이한 점은 한 가지에 두 줄

23 나는 커다랗고 하얀 도리스(이 바다괄태충-해삼류-은 길이가 8.9센티미터에 이른다)의 알을 세면서 그 수가 어찌나 유별나게 많은지에 놀랐다. 2~5개의 알(한 개의 지름은 0.07밀리미터)은 구형의 작은 껍데기 안에 담겨 있다. 이것들은 리본 형태를 이루면서 2열로 가로로 배열되어 있었다. 그 리본은 달걀 모양의 나선형을 이루면서 끄트머리는 바위에 붙어 있다. 내가 찾아낸 것은 길이가 거의 51센티미터, 폭은 1.3센티미터에 이르렀다. 한 줄의 1인치당 몇 개의 알이 들어 있는지, 그리고 일정 길이의 리본에 몇 열이나 있는지를 세어 보니, 알의 개수는 줄잡아도 60만 개는 되었다. 하지만 내가 돌 아래까지 찾아보았어도 겨우 일곱 마리밖에 찾지 못한 걸로 보아, 이 도리스가 그다지 흔한 것은 아닌 게 분명하다. 자연사학자들에게 있어 개별 개체들의 숫자가 그 종의 전파력에 달려 있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오류는 없다.

이상의 세포가 있으면 중앙 세포에는 바깥쪽 줄기의 독수리 머리 크기의 4분의 1 크기밖에 안 되는 부속 기관(독수리 머리)들이 달라붙어 있다는 점이다. 이들의 운동은 종에 따라 다른데, 아래턱 부분은 대개 활짝 열리고 매회 5초 정도의 주기로 앞뒤로 진동하는 것도 있고, 처음부터 빨리 움직이는 것도 있는 반면, 어떤 경우에는 전혀 움직이지 않는 것들도 있었다. 바늘을 갖다 대면 대개의 경우 가지 전체가 흔들릴 정도로 부리가 그 끝을 꽉 문다.

이 기관들은 성장하는 가지 끝의 세포에 나타나는 어린 돌기보다 먼저 생성되므로 알이나 소아체小芽體를 만들어 내는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또한 이것들은 돌기들과는 상관없이 움직이고 어떤 면에서도 그것들과 관련 있다고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안쪽과 바깥쪽 세포 열에서 그 크기도 다르기 때문에 나는 이 부속 기관들이 기능 면에서 세포의 돌기들보다는 오히려 줄기의 단단한 축과 연관되어 있다고 거의 확신한다. 바다조름속 식물들의 하단 끝에 있는 육질로 된 부속 기관(5장 '바이아블랑카'의 끝부분 참조) 또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 식충류의 일부를 이루고 있는데, 이는 나무의 뿌리가 나뭇잎이나 꽃봉오리가 아닌 나무 전체 중 일부를 이루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또 다른 우아하고 작은 산호충인 크리시아에는 각각의 세포에 빨리 움직이는 힘을 지닌 기다란 이빨 모양의 강모가 있다. 각각의 강모와 콘도르 모양의 머리 하나하나는 대개 다른 것들과 상관없이 움직이지만 때로는 가지 양쪽에서, 때로는 한쪽에서 동시에 움직이기도 하며 규칙적으로 차례차례 움직일 때도 있다. 이러한 운동에서 우리는 식충류가 비록 수천 개의 개별적인 돌기로 이루어져 있기는 하지만 다른 단세포 동물체처럼 완벽한 의사 전달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사실 이 사례는 손을 대면 모래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바이아블랑카 해안의 바다조름속과 별다를 게 없다. 빛히드라속과 본질적으로는 매우 다르지만 밀접한 종류에 속하며 아주 간단한 구조를 지닌 식충류가 일정한 운동을 보이는 예를 하나 더 들겠다. 나는 소금물을 담은 수조에 이 식충류 한 뭉치를 넣고 날이 어두워진 다음 식충류의 가지를 문지르면 전

체가 강렬한 초록색 인광을 낸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토록 아름다운 것은 처음이었다. 하지만 특히 주목할 것은, 그 불빛은 항상 밑에서부터 끝을 향해 가지를 타고 올라간다는 점이었다.

나는 이런 군체 동물을 조사하는 것이 언제나 무척 흥미롭다. 식물같이 생긴 몸체가, 헤엄쳐 다닐 줄도 알고 자기가 정착하기에 알맞은 자리를 고를 줄 아는 알을 낳아, 거기서 가지들이 자라나고 그 가지마다 복잡한 조직체인 수많은 별개의 개체들이 생겨난다는 것보다 더 놀랄 만한 일이 어디 있겠는가? 더구나 방금 얘기했듯이, 그 가지들에는 종종 스스로 운동할 수 있으면서 돌기와는 무관한 기관들이 있다. 이렇게 별개의 개체들이 군체로 모여 있는 결합체는 언제나 경이롭게 보이지만, 나무눈들 역시 각각 개별적인 개체로 쳐야 하기 때문에 모든 나무들도 이런 점에서는 똑같다. 그러나 입과 소화관, 그리고 다른 기관들이 달려 있는 돌기를 개별적인 개체로 여기는 것은 당연해 보이는 반면, 잎눈의 개별성은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따라서 공동의 줄기에 모여 있는 개별 개체들의 군체는 나무보다 산호충에서 더 눈에 띈다. 각각의 개별성이 완성되지 않은 군체 동물에 대한 우리의 개념은 개체 하나를 칼로 자르거나 혹은 그 개체가 자발적으로 양분되어 두 개의 개별적인 개체가 되는 과정을 곰곰 생각해 보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식충류의 돌기나 나무의 눈은 개체의 분리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사례로 볼 수 있다. 산호충의 경우에서 유추해 보건대, 나무의 경우에는 나무눈을 통해 전파되는 개체들이 알이나 씨로 전파되는 개체보다 그 모체와 더 밀접하게 관련된 것이 확실해 보인다. 나무눈으로 번식하는 식물이 일관된 수명을 보인다는 것은 이제 확실하게 입증되었으며, 씨의 전파로는 아예 나타나지 않거나 어쩌다 한번 나타나는 여러 가지 독특한 특성들이 나무눈, 휘묻이, 접목을 통한 번식에서 확실하게 전달된다는 것은 이제 누구나 잘 아는 사실이다.

● 1834년 4월 13일부터 약 20일간, 비글호 일행은 산타크루스 강을 따라 올라가는 탐사를 진행한다. 가장 최근에 그 지역을 탐사한 것은 비글호의 1차 남아메리카 탐사를 지휘했던 스토크스 함장이었다. 약 50킬로미터만 올라갔다 되돌아왔기 때문에 그 거대한 강 유역은 미개척지나 다름없었다.
보트로 물살이 세찬 강을 거슬러 오르는 것은 큰 배로 대양을 항해할 때와는 또 다른 경험이었다. 일종의 육체노동 격인 선상 생활과 엄격한 야영 생활로 이어지는 행군이 계속된다. 주변의 식생과 동물들은 변함없이 황량한 파타고니아 평원의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다윈은 '불모의 저주'가 내려진 땅이라며 혀를 차지만, 작은 설치류에서만큼은 그곳만 한 땅이 없다는 것을 인정한다. 여러 종의 쥐들과 과나코, 그리고 그것들을 잡아먹는 콘도르와 퓨마가 그 척박한 땅의 주민이었다.
다윈의 시선을 제일 먼저 잡아끈 것은 강을 따라 펼쳐지는 지형이었다. 대서양에서 서쪽으로 뻗은 계곡을 따라 흐르는 강 주위는 양편에서 대칭을 이루는 높은 계단형 단구로 되어 있었다. 다윈은 강의 초입에서 30여 미터이던 현무암 지층의 두께가 강을 따라 올라가면서 1백여 미터에 이르는 것을 발견한다. 현무암 자갈들 역시 그 수나 크기에 있어 모두 늘어나는 것을 보고 다윈은 현무암 지층의 근원은 저 멀리 코르디예라 산맥(원래 여러 겹의 산맥과 그에 딸린 저지대까지 통틀어 일컫는 말이나, 여기서는 남아메리카의 안데스 산맥을 가리킨다)이며, 수두룩한 현무암 덩어리들 역시 거기서부터 떨어져 나왔을 것이라고 직감한다.
강 상류로 올라가면서 콘도르를 보는 일이 잦아졌다. 다윈은 썩은 고기를 먹고 사는 콘도르의 후각에 대한 과학계 내의 이견을 간략하게 소개하면서 그것들이 이상하게도 막상막하라며 의문을 제기하지만, 정작 그를 사로잡은 것은 아름다운 곡선을 그리며 활강하는 콘도르의 모습이었다.
5월 4일, 피츠로이 함장은 탐사 종료를 선언한다. 비글호 일행은 아쉽게도 강을 거슬러 코르디예라 산맥까지 이르고자 했던 계획을 접고 강을 따라 내려와 동포클랜드 섬에 정박한다. 섬을 짤막하게 답사하기는 했지만, 별 특징 없는

지형과 동물들보다는 말을 타고 가우초들과 지내는 것이 더 즐거웠던 듯싶다. 가우초들은 다윈에게 볼라와 올가미로 소 잡는 모습과 함께 멋진 쇠고기 구이까지 선사한다. 말을 타고 다니면서 소, 말, 토끼 등 그곳의 여러 동물들이 어떻게 외지에서 유입되고 번식했는지 관찰하던 다윈은 포클랜드 제도의 유일한 육상 토착 동물인 포클랜드늑대를 발견한다. 함께 있던 가우초들이 늑대를 여러 마리 잡는 모습을 보며 다윈은 그 동물의 앞날이 순탄치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의 예상대로, 포클랜드늑대는 그 후로 급격히 감소하여 1876년 이후로 멸종하는 슬픈 운명을 맞았다.

별다른 특징 없는 포클랜드 제도의 지질 구조 중에서 유일하게 눈에 띄는 것은 '암석 하천'이었다. 경사가 거의 없는 계곡 바닥이 커다랗고 삐죽삐죽한 석영 바위들로 거대한 강줄기처럼 고르게 메워진 모습은 기존의 추측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것이었다. 다윈은 이 암석 조각들이 뭔가 거대한 자연력의 진동에 의해 고르게 펼쳐진 것이라고 상상하지만, 그 증거까지는 미처 찾지 못하고 앞으로 지식이 진보하면 언젠가 명쾌한 설명이 가능하리라고 여지를 남긴다. 이 장에서 다윈은 가마우지, 펭귄, 마젤란거위, 증기선오리 등 조류에 대해서는 간단히만 언급하고, 식충류에 대해 더 큰 관심을 보인다. 산호충 등 식충류의 독특한 운동기관을 앞서 바이아블랑카의 바다조름과 비교해 가면서 설명한다. 다윈은 식물같이 생겼으면서도 스스로의 의지를 지닌 듯하고 거기서 또 수많은 별개의 개체들이 자라나는 결합체인 군체 동물이란 무척 경이로운 존재이며, 그것들을 조사하는 것은 언제나 흥미롭다고 적고 있다.



티에라델푸에고 섬



제10장
티에라델푸에고 섬

티에라델푸에고에 첫 도착–굿석세스 만–배에 탔던 티에라델푸에고 원주민 이야기–야만인들과의 대화–숲의 풍경–혼 곶–위그왬 소만小灣–미개인들의 비참한 생활–굶주림–식인종–모친 살해–종교적 감정–대폭풍–비글 해협–폰손비 협만–푸에고 원주민을 위그왬에 정착시키다–비글 해협의 분기–빙하–귀항–정착지를 배로 두 번째 방문하다–원주민들의 비슷한 생활

1832년 12월 17일 | 이제 파타고니아와 포클랜드 제도를 일단락 짓고, 티에라델푸에고 섬[1]에 처음 도착한 이야기를 시작해 보자. 정오가 조금 지나 우리는 산디에고 곶을 돌아, 유명한 르메르 해협으로 들어섰다. 티에라델푸에고 섬 해안 가까운 바다에서 항해했는데, 황폐한 바위투성이의 스태튼랜드[2]의 윤곽이 구름 속에서 희미하게 보였다. 오후에 굿석세스 만에 닻을 내렸다. 들어갈 때 우리는 이 미개한 땅의 주민이 되는 것과 비슷한 환영을 받았다. 티에라델푸에고 원주민 한 무리가 나무로 뒤엉킨 숲 속에 몸을 조금 숨긴 채, 바다 쪽으로 뻗어 나온 땅끝에 모여 있었다. 우리가 지나갈 때 원주민들은 뛰어오르며 낡은 망토를 흔들고 큰 소리를 질러 댔다. 이들은 우리 배를 뒤따라 왔다. 어두워지기 직전에 우리는 이들이 피운 불을 보았고, 거친 고함도 다시 들었다. 항구에 접한 바다를 점토판암으로 된 낮고 둥근 산이 반쯤 감싸고 있다. 바닷물이 닿는 산 아래쪽까지 어두운 밀림으로 덮여 있다. 이곳의 풍경은 슬쩍 보아도 우리가 지금까지 여행해 왔던 곳과는 전혀 다르다. 밤이 되자 사나운 바람이 불어왔고, 산에서 불어오는 강력한 스콜이 휩쓸고 지나갔다. 이런 날씨에 만약 항해 중이었다면 정말 힘들었을 것이다. 그러니 우리도 이곳을

1 남아메리카 대륙 남쪽 끝에 있는 제도–역주.

2 지금의 뉴질랜드–역주.

당연히 굿석세스 만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으리라.
아침이 되자 함장은 티에라델푸에고 사람들과 의사소통을 해 보기 위해 우리 편 사람들을 보냈다. 우리가 가까이 다가가자 나와 있던 네 명 가운데 한 명이 우리에게 상륙할 곳을 큰 소리로 가르쳐 주었다. 경계하는 듯했으나 손짓 발짓을 해 가며 열심히 설명해 주었다. 정말 신기하고 재미있는 풍경이었다. 야만인과 문명인 사이의 격차는 어마어마했다. 인간에게는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그 격차는 야생동물과 가축 사이 같았다. 야만인의 우두머리는 나이가 많고 가장家長으로 보였다. 나머지 세 명은 키가 183센티미터 정도 되는 힘센 젊은이였다. 여자들과 어린아이들은 멀찍이 떨어져 있었다. 티에라델푸에고 원주민들은 서쪽의 왜소하고 비참한 미개인들과는 다른 종족 같다. 오히려 마젤란 해협의 잘 알려진 파타고니아 원주민과 관련 있어 보인다. 이들은 과나코 가죽으로 만든 소매 없는 망토를 어깨 위로 걸쳤다. 어깨에 걸치고만 있으니 벗은 몸이 다 보인다. 피부색은 탁한 구릿빛 붉은색이다.
우두머리로 보이는 노인은 흰 깃이 달린 끈을 머리에 두르고 있었는데, 머리끈이 거칠고 뒤엉킨 머리카락을 묶어 두고 있는 모습이었다. 얼굴 위에는 넓은 줄 두 개가 그어져 있다. 하나는 윗입술을 지나 귀에서 귀로 빨간색으로 그었고, 또 하나는 그 위쪽으로 평행하게 눈꺼풀까지 흰색으로 그려 놓았다. 그 외 두 사람의 얼굴에는 숯가루 줄이 까맣게 그려져 있다. 이들의 모습은 〈마탄의 사수Der Freischütz〉 오페라에 나오는 악마와 닮았다.
원주민들은 의심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으며 무척 놀란 모습이었다. 우리가 붉은 천을 건네주자, 목에 두르고 우리를 친구로 받아들였다. 노인이 우리의 가슴을 툭툭 두드리면서 구구구 소리 내는 것을 보고 우리는 친구로 받아들여진 것을 짐작할 수 있었다. 나는 노인과 함께 걸으며 이런 행동을 몇 번 반복했다. 노인이 내 가슴과 등을 동시에 세 번 세게 때리는 것으로 친구가 되는 의식은 끝났다. 그리고 노인은 답인사로 나에게 자신의 맨가슴을 때리게 하고는 아주 기뻐했다. 원주민의 말소리는 음절로 된 언어라기보다, 쿡 함장 말대로,

양치질하는 소리 같았다. 그렇지만 어떤 유럽인도 양치질할 때 목 안에서 그렇게 거친 소리는 안 날 것이다.

원주민들은 흉내를 잘 냈다. 우리가 기침이나 하품을 하고 어떤 이상한 행동을 하면 곧바로 흉내를 냈다. 우리 일행 몇 명이 실눈을 뜨고 째려보자, 눈 주변을 희게 칠하고 얼굴 전체를 검게 칠한 젊은이 한 명이 얼굴을 더 심하게 찡그리며 흉내를 냈다. 이들은 우리의 말을 잘 흉내 내서 따라 하고 기억하기도 했다. 외국어의 음을 구별해 내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세 단어 이상의 문장으로 된 북아메리카 인디오 말을 누가 쉽게 따라 할 수 있겠는가. 그런데 이들 원주민은 흉내를 내는 능력이 남다른 것 같다. 카프리 원주민에게도 이런 재미있는 습성이 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다. 오스트레일리아 원주민들은 다른 사람의 걸음걸이를 흉내 내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원시 상태에 있는 이들이 문명인보다 더 지각 능력과 감각이 뛰어난 것일까?

우리가 노래를 부르자 원주민들은 무척 놀랐다. 춤추는 것을 보고도 놀랐다. 티에라델푸에고 젊은이 한 명은 왈츠를 따라 하기도 했다. 원주민들은 유럽인을 낯설어했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총에 대해 알고 있었고 무서워서 만지지도 못했다. 칼을 보자 스페인 말로 '쿠치야'라고 부르며 달라고 했다. 원주민들은 원하는 바를 행동을 통해 보여 주었다. 입에 고깃덩어리를 물고 그것을 찢는 대신에 칼로 자르는 시늉을 하며 표현했다.

지금 우리 배에 태우고 있는 티에라델푸에고 원주민 얘기를 해볼까 한다. 어드벤처호와 비글호가 1826년부터 1830년까지 탐사 여행을 할 때, 피츠로이 함장은 보트 도난 사건에 대한 인질로 원주민 몇 명을 붙잡았다. 피츠로이 함장은 진주 단추를 주고 산 어린아이 한 명과 이 인질들을 영국으로 데려가 자비를 들여 교육을 시켰다. 원주민들을 이곳에 정착시키는 것이 피츠로이 함장이 이번 항해를 하게 된 동기이기도 했다. 피츠로이 함장은 해군에서 이 항해를 지원해 주지 않으면, 자비로 배를 빌려 이들을 돌려보낼 생각까지 했다. 선교사 매슈스가 원주민들과 동행했다. 그 후 피츠로이 함장은 선교사 매슈스와

원주민들에 관한 이야기를 빼어난 문장으로 발표했다. 남자 아이 한 명, 여자 아이 한 명, 남자 두 명을 데려갔는데, 남자 한 명은 영국에서 천연두로 죽었다. 살아남은 세 명이 바로 지금 우리 배에 타고 있는 '요크 민스터', '제미 버튼(단추를 주고 산 아이)', '푸에기아 바스켓'이다. 요크 민스터는 키가 작고 통통하며 힘센 청년인데, 말이 없고 뚱한 성격인데 흥분하면 거칠어진다. 선원들 몇 명과 친하게 지냈고 똑똑했다. 제미 버튼은 선원들에게 인기가 많았는데, 역시 성질이 급하다. 제미 버튼은 얼굴 표정만 봐도 성격이 좋아 보인다. 쾌활하게 잘 웃으며,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특히 친절했다. 파도가 심해 내가 뱃멀미를 할 때면 곁에 와서 불쌍한 친구라고 위로의 말을 건네기도 했다. 섬에서 자란 제미 버튼에게는 멀미하는 것이 아주 재미있어 보였나 보다. 한쪽으로 고개를 돌려 웃음을 감추면서 "가엾어라, 가엾어라"라고 하는 것이다. 제미 버튼은 자신의 부족과 고향을 사랑하고 자랑스러워했다. 자신의 고향에는 나무가 많다고 자랑스러워했고, 다른 종족 이야기가 나오면 욕을 했다. 자신의 고향에는 귀신이 없다고 장담하기도 했다. 제미는 키가 작고 통통하게 살이 쪘지만, 자신의 외모를 자랑스러워했다. 항상 머리를 깔끔하게 빗고 장갑을 끼고 다니며, 잘 닦인 구두가 더러워지면 투덜댔다. 제미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에 우쭐댔다. 우리는 네그로 강에서 명랑한 인디오 남자 아이를 몇 달 동안 태웠는데, 이 아이가 제미의 이런 모습을 보고 놀리곤 했다. 제미는 우리가 이 인디오 소년에게 관심을 보이면 시샘해서 기분 나쁜 표정으로 머리를 가로저으며 '야단법석이 났군!'이라고 말했다. 우리가 이곳에서 만난 미개한 티에라델푸에고 원주민들과 제미가 같은 종족이라는 것이 때로는 낯설기도 하다. 마지막으로, 푸에기아 바스켓은 예쁘고 얌전한 처녀로 명랑하지만 때로 시무룩해 보였는데, 언어를 포함해 무엇이든 아주 빨리 배웠다. 리우데자네이루와 몬테비데오에 잠깐 상륙했을 때, 벌써 포르투갈 말과 스페인 말을 몇 마디 배우고 영어도 역시 잘 배웠다. 요크 민스터는 푸에기아 바스켓에게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지면 질투를 심하게 했다. 요크 민스터는 해안에 정착하면 푸에기아

바스켓과 결혼하기로 결심한 것이 확실해 보였다.

이 세 사람은 영어를 꽤 했지만 원주민 종족의 풍습에 대해 많이 들을 수는 없었다. 그 이유는 이들이 아주 단순한 양자택일의 질문에 답하는 것도 어려워했기 때문이다. 어린아이들에게 어떤 것이 흑이냐 백이냐 물으면 아이들은 머릿속에서 흑과 백의 개념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대답을 못 하는 것과 비슷하다. 티에라델푸에고 원주민들은 이런 어린아이들처럼 질문에 대한 확실한 대답을 들려주지 못했다. 한편 티에라델푸에고 원주민의 시력은 아주 예리하다. 선원은 원래 오랜 경험을 통해 멀리 있는 물체를 뭍사람보다도 더 잘 알아본다. 그러나 요크와 제미가 선원들보다 훨씬 뛰어났다. 요크와 제미가 멀리 물체가 보인다고 얘기할 때 우리는 모두 의심했지만, 망원경으로 보면 두 사람의 얘기가 맞았다. 이들은 자신들의 시력이 뛰어난 것을 스스로 잘 알고 있었다. 망을 보는 사관과 제미가 의견이 달라 다툼이 생기면, 제미는 "나는 배가 보여, 더 이상 말하지 않겠어"라고 말했다.

배가 정박했을 때, 원주민들이 제미 버튼을 대하는 행동이 재미있었다. 원주민들은 제미 버튼이 우리와는 다르다는 것을 곧바로 알아차리고 그에 관해 이것저것 알아보려는 시도를 했다. 노인은 제미에게 한참 동안 뭔가를 열심히 얘기했는데, 아마 제미에게 자신들과 함께 머물라고 하는 것 같았다. 그러나 제미는 자기 종족의 언어를 알아듣지 못하고 더구나 고향 사람들을 수치스러워했다. 요크 민스터가 해안으로 왔다. 원주민들은 그도 제미처럼 자신의 부족임을 알아채고, 그에게 수염을 깎으라고까지 했다. 우리 일행 모두는 턱수염을 덥수룩하게 기르고 있는 데 비해 요크는 짧은 수염 몇 가닥이 듬성듬성 났을 뿐인데 말이다. 또 원주민들은 요크와 우리의 피부색을 비교했다. 우리의 하얀 맨팔을 보고 놀라서 감탄하는 모습은 동물원의 오랑우탄 같았다. 이들은 키가 작은 금발의 선원 두세 명을 턱수염이 있음에도 여자로 착각한 것 같다. 티에라델푸에고 원주민 가운데 키가 가장 큰 사람이 우리 선원 가운데 가장 큰 사람과 등을 대고 키를 재보기도 했는데, 높은 곳에 서서 발뒤꿈치를

들려고 애쓰며 자신의 키가 큰 것에 만족했다. 이 키 큰 원주민은 우리에게 입을 벌려 이를 보여 주고, 고개를 돌려 옆모습을 보여 주었다. 으스대며 얼굴을 돌리는 동작을 보아 아마 자신이 티에라델푸에고에서 제일 잘생긴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원주민을 처음 만나서 느꼈던 무시무시한 놀라움이 가라앉자, 원주민들이 매 순간 보여 주는 놀라는 표정과 흉내 내는 몸짓이 정말 우스꽝스러웠다.

다음 날에 섬 깊이 들어가 봤다. 티에라델푸에고는 일부가 바닷물에 잠긴 산악 지형이다. 그래서 골짜기가 있어야 할 지역에 크고 작은 만이 발달해 있다. 서쪽 해안을 제외하고, 산 사면은 바다에 면한 부분부터 위로 쭉 숲으로 덮여 있다. 고도 3백 미터에서 450미터 사이까지 나무가 자라고, 그 위쪽은 작은 고산성 식물로 덮인 이탄[3]층이 띠처럼 연결된다. 그 위로 만년설이 이어지는데, 킹 함장에 따르면, 마젤란 해협에서는 만년설이 9백 미터에서 1천2백 미터까지 내려와 있다고 한다. 평지는 거의 없다. 내가 기억하는 한 평지는 패민항 근처에 있던 좁은 땅과 고어리 로드 근처의 조금 넓은 땅이 전부다. 두 곳뿐 아니라 다른 모든 지역이 질퍽한 두꺼운 이탄층으로 덮여있다. 숲 내부도 천천히 썩는 식물로 덮여 있어 땅이 물을 많이 머금어 발이 움푹움푹 빠진다.

숲을 통과해 가려던 것을 포기하고 골짜기를 따라 올라가기로 했다. 처음에는 쏟아지는 물줄기와 죽은 나무들 때문에 기어가기도 힘들었다. 그래도 홍수 덕분에 골짜기 가장자리가 깎여 넓어진 상태였다. 바위투성이 둑을 한 시간 정도 지나자 보기 드문 풍경이 나타났다. 어둡고 깊은 골짜기는, 이 섬의 거칠고 강렬한 인상과 잘 어울렸다. 사방을 둘러보아도 울퉁불퉁한 바위와 뿌리채 뽑힌 나무가 널려 있었다. 서 있는 나무도 속까지 썩어서 금방 쓰러질 것 같았다. 덤불이 엉켜 있는 모습이 열대 지방의 숲 속과 비슷했다. 그러나 열대 지방과 달리, 이곳은 너무 고요해서 생명보다는 죽음의 기운이 느껴졌다. 산비

3 주로 온난다습한 환경의 배수가 불량한 조건하에서 식물 유해의 축적 및 부분 분해에 의해 형성되는 가볍고 푸석푸석한 물질로 구성된 유기 연료-역주.

탈 아래로 툭 트인 직선 길이 나오는 지점까지 골짜기를 따라 올라갔다. 이 길을 따라 꽤 높은 곳까지 올라가니 주변의 숲이 더 잘 보였다. 나무는 모두 너도밤나무 한 종으로 보인다. 또 다른 너도밤나무[4] 한 종과 윈터스 바크는 아주 드물다. 이곳의 너도밤나무에는 1년 내내 잎이 나 있는데, 잎은 노르스름하면서 특이하게 갈색을 띤 초록빛이다. 때문에 전체적인 풍경이 음침하고 우중충해 보인다. 햇빛이 비쳐도 그렇게 생생해 보이지 않는다.

12월 20일 | 포구 한쪽에 높이 약 450미터 되는 산이 있다. 여기에서 뱅크스 경의 대원 둘이 죽었고, 솔란더 박사도 죽을 뻔했다. 이들의 불운한 탐험을 기리는 의미에서 피츠로이 함장은 이 산을 뱅크스 경의 이름을 따서 부르기로 했다. 이 비극적 탐험은 1월 중순의 눈폭풍 때문이었다. 우리의 7월에 해당하며, 영국 북동부의 더럼에 해당하는 위도에서 일어났다. 나는 고산 식물을 채집하기 위해 이 산의 정상에 가 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다. 낮은 지역에는 꽃이 드물었기 때문이다. 전날과 같이 골짜기를 따라 계속 가다 보니 길이 사라져 나무를 헤치고 기어갔다. 이곳의 나무들은 고도가 높고 바람이 심해서, 키가 작고 가지가 두꺼우며 구부러져 있다. 멀리서 보면 초록색 풀밭으로 보이던 곳이, 실제는 높이 120센티미터에서 150센티미터의 작은 너도밤나무가 빽빽이 들어차 있는 숲이어서 분통했다. 나무들이 정원의 경계목처럼 두꺼워서 조금 흔들리지만 평평한 나무 위로 기어갔다. 좀 더 나아가니 이탄이 나왔다. 다음엔 점판암으로 된 지역에 도착했다.

산등성이를 따라 또 다른 산으로 이어진다. 수 킬로미터 떨어져 있고 약간 더 높은 산 위에는 눈이 쌓여 있다. 아직 시간이 많아 걸어가면서 식물을 채집하기로 했다. 과나코가 다니는 길이 잘 다져 있어서 도움이 되었다. 과나코는 양처럼 항상 같은 길로만 다닌다. 정상에 올라보니 이 근방에서 가장 높았다. 물은 바다로 흘러내려 가고 있었다. 북쪽으로는 늪지대인 황무지가 펼쳐져 있고, 남쪽으로는 티에라델푸에고에 잘 어울리는 원시적인 풍경이 웅장하게 펼

4 참나무과 너도밤나무속에 속하는 10여 종의 식물-역주.

쳐져 있다. 첩첩산중의 깊은 골짜기는 컴컴한 숲으로 덮여 있어 신비로웠다. 거센 바람과 비, 우박, 진눈깨비가 계속되어 다른 곳보다 훨씬 컴컴했다. 패민 항에서 정남쪽으로 보이는 마젤란 해협에서, 산 사이로 멀리 이어지는 물길이 이곳의 어둠에서 벗어나도록 이끌어 줄 것 같다.

12월 21일 | 다음 날 가볍게 불어오는 동풍을 타고 비글호는 출발해 바른벨츠 가까이 왔다. 바위산이 보이는 디시트 곶을 지났다. 3시쯤에는 비바람 속에 혼 곶을 회항했다. 저녁이 되니 날씨가 맑아져 주변의 작은 섬들이 시야에 들어왔다. 그러나 혼 곶의 명성에 걸맞게 밤이 되기 전에 정면에서 강풍이 불었다. 우리는 바다를 향해 나아갔고, 이튿날 다시 혼 곶을 발견했다. 악천후 속에서 이 악명 높은 혼 곶의 진정한 면모를 보았다. 거센 비바람과 안개 속에서 희미하게 그 모습을 드러냈다. 먹구름이 끼어 있는 가운데 소나기에 진눈깨비까지 내리고 있었다. 함장은 위그왬 소만으로 항로를 정했다. 이곳은 혼 곶에서 멀지 않은 아담한 포구로 크리스마스이브에 정박했다. 산에서 가끔 불어오는 바람 때문에 정박해 있는 배가 흔들릴 때마다 폭풍의 기운을 느낄 수 있었다.

12월 25일 | 위그왬 소만 근처에 케이터 봉이라는 높이 520미터 정도의 산이 있다. 주위의 섬들은 녹색 암석으로 되어 있고, 모두 원뿔 형태를 띠고 있다. 그 가운데에는 열변질된 점토암으로 되어 있거나, 원뿔 형태를 벗어나 불규칙한 형태의 섬들도 가끔 보인다. 티에라델푸에고 섬의 이 지역은 바다에 잠겨 있는 산맥의 끝자락에 있다. '위그왬'[5] 소만이라는 이름은 이곳 원주민의 거주지에서 유래한 이름이다. 주위의 거의 모든 만에 원주민이 거주하고 있어, 주위의 만들을 그렇게 불러야 맞는지도 모르겠다. 조개를 주로 먹고 사는 원주민들은 끊임없이 주거지를 옮겨 다닌다. 몇 톤에 이르는 조개 무덤을 보면 원주민들이 주기적으로 일정한 주거지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 조개 무덤 위에 초록색 식물들이 자라고 있어 멀리서도 눈에 띈다. 이 식물 중에

5 아메리카 인디오의 집. 여러 그루의 키 큰 묘목을 휘어지게 만든 뒤 꼭대기 가까이에서 함께 묶어 지었다-역주.

는 야생 셀러리와 겨잣과 식물이 있는데, 원주민들은 이 유용한 식물의 쓰임새를 모르고 있었다.

티에라델푸에고 원주민이 사는 위그왬은 크기나 모양이 원추형의 건초 더미와 비슷했다. 나뭇가지 몇 개를 꺾어 땅에 고정시키고, 옆면에 풀이나 덤불을 대충 엮어 덮어 놓았다. 만드는 데 한 시간도 걸리지 않는데, 며칠간만 머물 뿐이다. 고어리 로드에서 원주민 한 사람이 자고 간 거처를 보았는데, 너무 좁고 허술해서 산토끼 정도를 위한 곳 같았다. 이 원주민은 혼자 살았을 것이다. 요크 민스터는 이 사람이 '아주 나쁜 사람'으로 도둑질을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달리 서쪽 해안에 있는 위그왬은 바다표범 가죽으로 덮어 놓아 나았다. 날씨가 나빠서 이곳에 며칠 묵었다. 이제 하지는 지났는데도, 매일 산에는 눈이 오고 골짜기엔 진눈깨비가 섞인 비가 내렸다. 기온은 보통 섭씨 7도 정도인데, 밤에는 섭씨 3도에서 4도까지 내려갔다. 햇빛 한 줄기 없는 축축한 대기 상태로 인해 실제보다 기후가 더 나쁘게 느껴졌다.

어느 날 울러스턴 섬 해변 가까이 항해하고 있을 때, 티에라델푸에고 원주민 여섯 명이 탄 카누 옆으로 지나갔다. 이들은 비참한 모습이었다. 동쪽 해안의 원주민들은 과나코로 만든 망토를 입더니, 서쪽 해안의 원주민들은 바다표범 가죽으로 만든 망토를 입었다. 중심부에 사는 원주민 남자들은 보통 수달 가죽을 걸치고 있는데, 허리 부분까지 덮기도 힘들다, 손수건 정도 크기로 가슴에 끈으로 묶어서 바람에 휘날리는 대로 두었다. 그러나 카누를 타고 있던 원주민들은 거의 알몸에 가까웠다. 그 가운데 성인 여자가 한 명 있었는데, 마찬가지로 알몸이었다. 비가 심하게 와서 뱃전에 튀는 바닷물과 빗물이 계속 여자의 몸에 흘러내렸다. 어느 날 멀지 않은 포구에서 아기에게 젖을 먹이던 여자가 배 가까이 다가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우리를 쳐다봤다. 이 여자의 드러난 가슴과 가여운 아기의 맨몸 위에도 진눈깨비가 내리고 있었다. 이 안쓰러운 사람들은 체구가 작고, 얼굴에는 흰 칠을 소름 끼치게 하고 있으며, 피부는 지저분했다. 머리카락은 뒤엉켜 있고 귀에 거슬리는 목소리를 냈다. 행동도

거칠었다. 도무지 우리와 같은 세계에 살고 있는 인간이라고 믿을 수 없는 모습이었다. 하등동물은 어떤 즐거움으로 살아갈까 하는 상상을 하곤 한다. 그렇다면 이 미개인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질문해야 할까? 밤이 되면 비바람 속에서 벌거벗은 채, 동물처럼 몸을 구부리고 젖은 땅 위에서 잠을 청한다. 겨울이나 여름이나, 밤이나 낮이나 썰물 때가 되면 바위에서 조개를 따야 한다. 여자들은 잠수해서 성게를 잡거나 카누에 앉아서 낚시한다. 갈고리도 없는 줄에 미끼를 달아 작은 물고기를 홱 잡아 올린다. 바다표범을 잡거나 죽은 고래의 사체를 발견하면 잔칫날이다. 그 외에 맛없는 딸기 종류나 버섯을 조금 먹고 산다.

이 미개인들은 굶주림에 고생하기도 한다. 이곳 원주민들을 잘 아는 바다표범잡이 선장 로 씨가 서쪽 해안에 사는 원주민 이야기를 들려줬다. 이들은 비쩍 마르고 아주 힘들게 살고 있다. 폭풍이 계속되면 여자들은 조개도 못 따고, 카누로 바다표범 사냥을 나갈 수도 없다. 어느 날 아침, 남자 몇 명이 먹을 것을 구하러 나흘 동안 나갔다 왔다. 로 씨가 마중 나가 보니, 돌아온 그들은 지칠 대로 지쳐 있었다. 각자 썩은 고래 기름 덩어리 가운데에 구멍을 뚫어 머리에 뒤집어쓰고 있었다. 그 모습이 가우초가 판초나 망토를 입은 것 같았다. 고래 기름 덩어리를 위그왬으로 가져왔다. 노인이 얇게 썰어 놓고 뭐라 중얼거리고 나서, 잠깐 끓인 뒤 굶주린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그동안 원주민들은 아주 조용하게 기다린다. 로 씨의 이야기로는, 죽은 고래가 해안으로 밀려올 때마다 원주민들은 큰 덩어리를 떼어 굶주릴 때 먹기 위해 모래 속에 묻어둔다고 한다. 로 씨가 배에 태운 적이 있는 원주민 소년이 모래 속에서 고래고기를 발견한 적이 있다고 한다. 전쟁이 나면 다른 종족을 잡아먹는다. 로 씨가 태운 소년과 제미 버튼의 얘기를 들어 보면, 원주민들은 겨울에 먹을 것이 없으면 개를 잡아먹기 전에 노인들을 잡아먹는다고 한다. 로 씨가 그 이유를 묻자, 소년은 "개는 수달을 잡기라도 하지만, 노인들은 그것도 못한다"고 대답했다고 한다. 이 소년은 원주민들이 연기로 노인들을 질식시켜 죽이는 장면을

설명해 주었다고 한다. 그러면서 노인들의 비명을 장난스럽게 흉내 내기도 하고, 제일 먹기 좋은 부위에 대해서도 말해 주었다고 한다. 아는 사람과 친척의 손에 그렇게 죽는 것도 무시무시하지만, 기아에 허덕일 때 노인들이 느꼈을 공포를 생각하면 더 끔찍하다. 노인들이 두려움에 산속으로 도망이라도 가면 남자들이 쫓아가서 다시 데려온다고 한다. 따뜻한 집의 난롯가에 있는 도살장으로 말이다!

피츠로이 함장은 티에라델푸에고인들이 내세에 대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이들은 죽은 사람을 동굴에 묻기도 하고, 숲에 묻을 때도 있다. 어떤 장례 의식을 치르는지 알 수가 없다. 제미 버튼은, 육지에 사는 새가 죽은 사람을 먹는다는 이유로 그 새를 먹지 않는다. 이들은 죽은 친구들에 관해서는 말도 꺼내지 않는다. 그들이 종교의식을 갖는다고 보기도 어렵다. 노인이 썩은 고래 기름 덩어리를 굶주린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 전에 중얼거린 것이 일종의 종교 의식처럼 보이긴 했다. 집이나 부족마다 마술사나 치료사가 있지만, 치료하는 것을 확인할 수는 없었다. 제미는 귀신을 믿지는 않아도 꿈은 믿는다고 했다. 티에라델푸에고인들이 우리 비글호 선원들보다 미신을 유달리 더 많이 믿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 조타수 한 사람은 우리가 혼 곶에서 폭풍을 계속 만난 이유가 티에라델푸에고인을 태웠기 때문이라고 확신할 정도니 말이다. 내가 들은 것 중 가장 종교적인 느낌에 가까운 것은, 바이누가 표본용 새끼 오리 몇 마리를 총으로 잡았을 때, 요크 민스터가 진지하게 “바이누 씨, 이제 비바람과 눈이 심해질 겁니다”라고 말한 것이었다. 이는 인간이 먹을 수 있는 식량인 오리를 쓸데없이 낭비한 데 대한 복수어린 말이다. 요크 민스터는 몹시 흥분해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어느 날 요크의 형이 해안에 놔뒀던 죽은 새 몇 마리를 가지러 갔는데 깃털이 바람에 날려 가는 것을 보았다고 한다. “저게 뭐야?” 하며(요크는 형의 흉내를 낸다) 형이 앞으로 기어가다 절벽 위에서 내려다보니, 어떤 “야만인” 그 새를 주워 갔다. 형은 가까이 기어가 큰 돌을 던져 그를 죽여 버렸다. 그 후 오랫동

안 폭풍이 몰아치고 눈비가 엄청나게 내렸다고 요크가 주장했다. 요크는 모든 자연현상이 복수 때문에 일어난다고 생각했다. 이런 경우 조금 더 문명이 진보한 부족에서는 폭풍우와 같은 자연현상에 인격을 부여한다. "나쁜 야만인"이라고 그들이 부른 것이 무슨 뜻인지 나에게는 항상 수수께끼였다. 산토끼가 자고 간 듯한 장소를 발견했을 때, 나는 그가 부족에게 쫓겨난 도둑이라 짐작했다. 그러나 여러 혼란스러운 얘기들을 듣고 나니 도둑이 아닌 것 같다. 미치광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그럴듯한 설명 같다.

각 부족들은 통치 기구나 수장이 없다. 각 부족은 다른 방언을 쓰는 적대적인 부족들에 둘러싸여 있고, 버려진 중립 지대로 분리되어 있다. 이들의 전쟁은 생존을 위한 수단이다. 이들은 거친 바위 지대, 높이 솟은 산과 쓸모없는 숲으로 이루어진 곳에 살고 있다. 안개와 폭풍은 끊임없이 계속된다. 그래서 사람이 살 만한 곳은 해변뿐이다. 먹을 것을 찾아 계속 여기저기 헤매야 했다. 해안이 험해서 초라한 카누로만 움직일 수 있다. 가정이 무엇인지 모르고 애정도 모른다. 남편과 부인은 포악한 주인과 부지런한 노예의 관계 같다. 바이런이 서쪽 해안에서 직접 목격했던 끔찍한 일인데, 바다에서 잡은 성게 바구니를 떨어뜨렸다면서 아버지가 아들을 바위에 내동댕이쳤다. 피 흘리며 죽어 가는 아들을 안고 있는 어머니의 모습은 끔찍한 풍경이다. 본능보다 높이 있는 정신력이 이들에게는 없는 것인가. 바위에서 삿갓조개를 까는 데에는 어떤 정신력도 필요 없을 것이다. 이들의 기술은 동물의 본능과 비슷하다. 경험이 쌓여도 진보하지 않기 때문이다. 오죽하면 이들이 만든 가장 정교한 작품인 카누가 드레이크[6] 시절부터 250년 동안 조금도 나아지지 않고 그대로일까.

이 미개인들은 어디에서 왔을까. 무엇 때문에 북쪽의 살기 좋은 곳을 떠나 남아메리카의 코르디예라 산맥을 따라 내려와 칠레, 페루, 브라질에서도 쓰지 않는 카누를 만들어 타고 가장 척박하고 황폐한 이곳에 들어왔을까? 이런 의

6 프랜시스 드레이크 경Sir Francis Drake, 1540~1596. 영국의 해군 제독. 1577~1580년 세계 일주 항해를 했다-역주.

문이 들긴 하지만 쓸데없는 생각이다. 티에라델푸에고 원주민의 수가 줄어들 리도 없고, 이들은 어떻든 자신의 행복을 누리고 있다. 대자연의 전능한 힘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대대로 원주민들은 이 척박한 땅의 기후와 식량에 적응해서 살아왔다.

날씨가 너무 나빠져서 위그왬 소만에 6일 동안이나 갇혀 있다가 12월 30일이 되어 바다로 나왔다. 피츠로이 함장은 요크와 푸에기아를 고향에 내려 주기 위해 서쪽으로 향했다. 바다에 나오자 강풍이 계속되고 해류를 거슬러 가느라 남위 57도 23분까지 표류해 다녔다. 1833년 1월 11일 돛을 최대한 올려 요크 민스터 산(쿡 함장이 원주민의 이름을 따 명명했다)의 수 킬로미터 안까지 접근했지만, 심한 돌풍으로 돛을 접었다가 바다에 다시 나서게 되었다. 해안으로 파도가 거세게 쳤고, 물보라가 60미터 높이의 절벽 위로 치솟았다. 12일, 강풍이 더 심해져 우리는 정확한 위치도 파악할 수 없었다. "바람이 불어 가는 방향을 계속 감시하라!"는 지겨운 소리만 끊임없이 들렸다. 13일, 폭풍이 격렬하게 휘몰아쳤다. 바람으로 물보라가 퍼지면서 시야가 좁아졌다. 파도치는 바다가 마치 눈이 바람에 날리는 평원 같았다. 정오경 큰 파도가 우리 배를 덮쳐 보트 한 척을 버렸다. 비글호는 그 충격으로 키가 잠시 말을 듣지 않았으나, 바로 바람을 이겨 냈다. 조금 전의 파도가 한 번만 더 몰려왔으면 우리는 끝장났을 것이다. 서쪽으로 항해하기 위해 24일을 고생했지만 모두 지치고 말았다. 이제 마른 옷도 없다. 피츠로이 함장은 해안 바깥으로 나가려는 계획을 포기했다. 저녁에 폴스혼 곶 뒤쪽으로 돌아가 86미터 깊이에 닻을 내렸다. 닻 사슬이 권양기[7]로 감겨 들어갈 때마다 불꽃이 생겼다. 오랫동안 폭풍우 속을 헤매다 고요한 밤을 맞으니 너무 기뻤다.

1833년 1월 15일 | 비글호가 고어리 로드에 정박했다. 피츠로이 함장은 티에라델푸에고인들이 원하는 폰손비 협만에 내려 주기 위해 보트 네 척을 준비했

7 와이어, 체인 등으로 예비 타이어와 같이 무거운 물품을 달아 올려 부착시키거나 교환 시 달아 내리는 장비-역주.

다. 비글 해협을 통과해야 한다. 지난 항해에서 피츠로이 함장이 발견한 이 해협은 멋진 풍경을 자랑한다. 비글 해협에는 호수와 작은 만들이 줄지어 있어 스코틀랜드에 있는 네스 호湖의 골짜기에 비교될 만하다. 길이는 약 196킬로미터에, 평균 폭은 약 3킬로미터 정도로 일정하다. 대부분 직선이고 양쪽에 산이 멀리까지 이어진다. 티에라델푸에고 섬의 남쪽을 동서 방향으로 가로지른다. 그 중간 지점에서 직각으로 남쪽에 불규칙한 협만이 발달해 있는데, 바로 폰손비 협만이다. 이곳이 제미 버튼의 고향이다.

1월 19일 | 피츠로이 함장의 지휘하에 스물여덟 명이 고래잡이 보트 세 척과 욜[8] 한 척으로 떠났다. 오후에 해협 동쪽 입구에 들어서자, 작은 섬으로 둘러싸인 작고 아늑한 만이 나왔다. 여기에 텐트를 치고 불을 피웠다. 정말 편안한 풍경이다. 작은 포구의 맑은 물, 바위로 된 해안에 걸린 나뭇가지, 정박 중인 보트, 노를 십자로 엮어 세운 텐트, 나무가 빽빽한 계곡 위로 피어오르는 연기는 정겨운 시골의 풍경화 같았다. 다음 날 우리는 사람이 더 많이 사는 지역으로 순조롭게 항해했다. 이곳 주민들은 백인을 본 적이 거의 없어서 우리 보트 네 척이 나타나자 무척 놀랐다. 여기저기 불을 피운 것이 눈길을 끌었다. (여기에서 티에라델푸에고, 즉 '불의 땅'이라는 이름이 나왔다) 우리 소식이 순식간에 퍼져 나갔다. 해안을 따라 수 킬로미터를 달려가 소식을 전하는 남자도 있었다. 우리 앞에 나타난 미개인 한 무리의 모습이 잊히지 않는다. 갑자기 미개인 네댓 명이 절벽 끝에 나타났다. 이들은 완전히 벌거벗었고, 긴 머리카락이 얼굴에 휘날리는 모습으로 거친 무기를 휘두르고 팔을 흔들면서 괴성을 질러 댔다.

저녁이 되자 우리는 티에라델푸에고 원주민 무리 속에 있었다. 이들은 처음 우리를 보자 함장이 앞에 나설 때까지 투석기를 손에 쥐고 적대적인 자세를 보였다. 그러나 우리는 붉은 천을 머리에 둘러 주기도 하고 작은 선물들로 환심을 샀다. 원주민들은 비스킷을 좋아했다. 그런데 내가 들고 있던 통조림 고기를 만져 본 원주민은 질색했다. 내가 썩은 고깃덩어리를 진저리치게 싫어

8 돛대가 두 개인 범선의 한 종류—역주.

하는 것처럼 이 원주민은 통조림 고기가 차갑고 물컹하기 때문에 아주 싫어했다. 제미는 이 지역의 자기 부족을 수치스러워했다. 제미는 자신의 부족이 우월하다고 주장하고 싶어 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다. 이곳 원주민들은 만족해하지는 않지만 쉽게 즐거워했다. 남녀노소 모두 우리가 가진 모든 물건들을 가리키며 달라고 외쳤다. "얌머스쿠너yammerschooner"라고 계속 말했는데, '나에게 줘'라는 뜻이다. 나중에는 코트의 단추까지 달라고 할 정도로 이것저것 가리켰다. 그러다가 정말 갖고 싶은 물건이 보이면 작은 속임수를 썼다. 젊은 여자나 어린아이들을 손으로 가리키며 저들에게 주라고 말했다.

밤을 보내기 위해 원주민이 살지 않는 곳을 찾았지만, 결국 원주민 거주 지역 근처에서 야영을 하게 되었다. 원주민들은 조금 모여 있을 때는 적대감을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다음 날 아침(21일) 원주민들이 많아지자 공격할 듯한 분위기여서 싸움이 벌어질 것 같았다. 유럽인들은 총에 대해 아예 모르는 이런 미개인들과 싸울 때는 당황스럽다. 총을 겨누고 있는 모습이 야만인들에게는 활과 창, 투석기로 무장한 사람들보다 형편없어 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대에게 치명적인 총상을 입히지 않고서는 우리의 우월함을 보여 주기가 힘들다. 원주민들은 맹수처럼 적의 숫자도 세지 않는다. 공격당하면 물러나지 않고, 호랑이가 달려드는 것처럼 돌을 쥐고 머리를 치려고 포악하게 덤벼든다. 피츠로이 함장이 원주민 무리 몇 명을 쫓으려고 단도를 휘둘렀다가 비웃음만 샀다. 그래서 권총을 두 발 원주민 주변에 쏘았다. 원주민은 놀라는 듯하더니 머리를 긁적이며 쳐다보고, 친구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지만 달아나지는 않았다. 원주민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이해할 수 있다. 이곳 티에라델푸에고 원주민은 총소리 두 발을 들었지만, 총에서 나는 소리인지 뭔지도 알아채기 힘들어 머리를 긁었을 것이다. 또 원주민들은 총알 자국을 보아도 보이지 않는 총알의 위험을 느끼지 못할 수 있다. 더구나 단단한 물체를 찢지도 않고 관통하는 총알을 보고 힘이 약하다고 생각할 것이다. 이곳 원주민들은 총으로 물건이 깨어지고 작은 동물이 죽는 것을 보고도 총이 무엇인지, 얼마나 위험한 것

인지 모르고 있다.

1월 22일 | 제미의 부족과 우리가 어제 만난 부족이 사는 지역 사이에 있는 중립 지대에서 평온한 밤을 보내고 다시 즐겁게 항해를 시작했다. 두 부족은 서로 적대적이어서 지역 중간에는 넓은 경계 지역이 있다. 제미 버튼은 우리의 무기가 훨씬 위협적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다른 부족의 지역에는 발도 디디지 않으려 했다. 제미는 야만적인 오엔족 원주민들이 '나뭇잎이 붉게 물들 때' 티에라델푸에고의 동쪽 해안에서 산을 넘어와 이곳 원주민을 공격하는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다. 그 이야기를 할 때 제미의 눈빛에선 처음 보이는 야만적인 원주민의 표정이 스쳐 갔다.

비글 해협을 따라 항해하는 동안 보이는 경치는 장관이다. 그러나 보트에서는 시야가 낮아서 아쉬웠다. 그리고 섬의 계곡을 따라가면서 보니 높은 곳의 경치는 보이지 않았다. 이곳의 산은 약 910미터 높이로 봉우리와 능선이 날카롭게 뾰족뾰족 뻗어 있다. 바다 위에 우뚝 솟아 있는 산의 430미터에서 460미터 높이까지는 거무스름한 숲으로 덮여 있다. 숲이 끝나는 경계선이 산기슭을 둘러싸고 수평으로 형성되어 있는 것이 신기했다. 마치 바닷가에 해초가 파도에 밀려와 최고 수위의 흔적으로 남겨 놓은 것과 비슷했다.

밤이 되자 폰손비 협만과 비글 해협이 만나는 곳 근처에서 잤다. 이곳의 티에라델푸에고 원주민 가족은 조용하고 악의가 없었는데, 불 주위에 앉아 우리와 사이좋게 어울렸다. 우리 일행은 옷을 껴입고 불 앞에 앉아 있어도 추워서 벌벌 떠는데, 이곳 원주민들은 벌거벗고 불에서 멀찍이 앉아 있으면서도 땀을 뻘뻘 흘렸다. 원주민들은 선원들과 같이 노래를 부르며 즐거워했다. 이들의 원시적인 모습이 재미있었다.

밤사이 소문이 퍼져서 다음 날(23일) 아침 일찍, 제미의 부족인 테케니카족 사람들이 도착했다. 이들은 너무 급하게 오느라 코피를 흘리는 사람도 있었는

데, 입에 거품을 물어 가며 떠들었다. 이들의 벌거벗은 몸은 검은색, 흰색,[9] 붉은색으로 온통 칠해져 있어서 싸우다 온 마귀 같았다. 폰손비 협만을 따라 제미가 어머니와 친척들을 만나기로 한 장소를 향해 갔다. 각각 네댓 명이 탄 카누 열두 척이 우리 배를 따라왔다. 제미는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이미 들었다. 꿈이라고 생각하려는 듯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았으며 어쩔 수 없다는 듯 자신을 위로했다. 제미의 친척들이 아버지의 죽음에 대해 어떤 얘기도 들려주지 않아서, 더 이상 알아낸 사실은 없었다. 제미는 자신의 고향에 와서, 울리야 만이라는 한적하고 아름다운 곳으로 배들을 안내했다. 이 만은 작은 섬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저마다 고유의 이름을 가지고 있다. 이곳에서 제미와 같은 부족을 만났을 뿐, 제미의 친척은 만나지 못했다. 이 가족과 친하게 지냈는데, 저녁에 이들은 제미의 어머니와 형제들에게 소식을 전하러 카누를 보냈다. 울리야 만의 주변에는 이탄이나 수풀로 덮이지 않은 평탄한 지역 수 천 평이 접해 있다. 피츠로이 함장은 애초에 요크 민스터와 푸에기아를 그들의 부족이 있는 서쪽 해안으로 데려갈 계획이었다. 그런데 두 사람도 여기에 있고 싶어 했다. 그래서 선교사 매슈스를 포함해 모두 이곳에 정착시키기로 했다. 닷새 동안 이곳에 짐을 풀고 커다란 위그왬 세 채를 짓고 밭을 파고 씨를 뿌려 주었다. 다음 날(24일) 아침, 티에라델푸에고 원주민들이 몰려들기 시작했다. 제미의 어머니와 형제들도 도착했다. 제미는 형제의 목소리를 멀리서도 알아챘다. 그런데 이들이 만나는 광경은 말이 친구를 만나 같이 들판으로 뛰어나가는 것보다 더 단조로웠다. 특별한 애정 표현 없이 잠깐 서로 쳐다보다가 제미의 어머니는 자신의 카누를 살피러 갔다. 이전에 우리가 듣기로, 제미의 어

9 이 물질을 바른 후 마르면, 아주 밀착되는 느낌이 난다. 에렌베르크 교수의 조사에 따르면 14종의 폴리가스트리카를 포함한 적충류와 4종의 파이토리타리아로 구성되어 있다고 한다.(《왕립 아카데미》, 베를린, 1845년 2월) 에렌베르크 교수의 현미경 관찰에 의하면 모두 담수산이다. 제미 버튼은 이 물질을 산의 계곡 바닥에서 얻는다고 한다. 이 물질에 포함되어 있는 종은 티에라델푸에고 섬의 맨 남쪽에서도 발견되고, 아주 오래전부터 알려져 있다. 따라서 적충류의 광대한 지리적 분포를 알 수 있다.

머니는 제미가 없어지자 슬픔에 빠져 이리저리 찾아 헤맸다고 한다. 배가 떠나고 어딘가 남아 있을 줄 알았다고 한다. 원주민 여자들은 푸에기아에게 아주 친절히 대해 주었다. 제미는 부족의 언어를 거의 잊어버렸다. 영어도 몇 마디 못하고, 부족어도 거의 잊어버린 것이다. 언어의 양이 줄어 버렸다. 그의 형제에게 영어로 이야기하다 스페인어로 "내 말 못 알아듣겠어?"라고 묻는 것이 우스워 보이면서도 한편으론 애처로웠다.

사흘 동안 밭을 일구고 위그왬을 지었다. 모든 것이 평온하게 진행되었다. 이곳 원주민은 대략 120명쯤 된다. 여자들이 일을 하고 남자들은 하루 종일 빈둥거리며 우리를 지켜봤다. 이들은 무엇이든 달라고 하고 훔쳐 가기도 했다. 우리가 춤추고 노래하는 모습을 재미있게 지켜보았다. 우리가 물가에서 씻는 것도 신기하다는 듯 보았지만, 그 외에는 별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우리 배에도 흥미를 보이지 않았다. 요크가 고향을 떠나 있는 동안 본 것 중 가장 놀라운 것은 말도나도 근처에서 봤던 타조였다. 요크는 바이누 씨와 함께 말도나도 근처 평원으로 나갔는데, "우와, 바이누 씨, 새가 말만큼 커요"라고 숨이 차게 달려와서 소리친 적이 있다. 로 씨가 들려준 이야기에 의하면, 바다표범잡이용 배의 흑인 요리사를 본 원주민들은 백인을 볼 때보다 더 놀랐다고 한다. 이 요리사 주위에 모여들어서 고함을 지르는 바람에, 이 가엾은 요리사는 다시는 해안에 내리지 않으려고 했다. 모든 것이 순조로웠고, 나는 사관 몇 명과 함께 주변의 산과 숲을 돌아다녔다. 그런데 27일이 되자 여자들과 어린아이들이 없어졌다. 요크와 제미도 그 이유를 몰랐다. 우리는 뭔가 불안한 징조라고 여겼다. 누군가 전날 저녁 소총을 닦다가 실탄을 쏘아 놀라서 도망가 버린 것이라고 말했다. 보초에게 침을 뱉으며 늙은 원주민 한 명이 잠자고 있던 다른 원주민에게 우리를 잡아먹겠다는 시늉을 하는 것을 보았다는 사람도 있었다. 피츠로이 함장은 싸움이 벌어지면 티에라델푸에고 원주민에게 치명상을 입히게 될 것을 염려하여 수 킬로미터 떨어진 작은 만에서 밤을 보내기로 했다. 매슈스는 위험하지 않은 티에라델푸에고 원주민 세 명과 함께 이곳에 남아 있겠다는

용기를 보여 주었다. 공포의 첫날 밤을 맞이하도록 이들을 남겨두고 떠났다. 28일 아침이 되자, 남자들은 카누에서 창으로 물고기를 잡고 있었다. 피츠로이 함장은 욜과 고래잡이용 배를 본선으로 돌려보내고, 나머지 두 척으로 비글 해협 서쪽을 조사하기로 했다. 함장이 한 척을 직접 지휘하고(함장의 배려 덕분에 나는 이 보트를 탔다), 또 한 척은 해먼드 씨가 지휘했다. 비글 해협의 서쪽을 조사한 뒤 원주민의 정착지를 다시 방문하기로 했다. 햇살이 너무 뜨거워서 피부가 검게 탔다. 비글 해협의 중앙으로 들어가니 장관이 펼쳐졌다. 산 사이의 긴 해협은 시원하게 뚫려 있다. 여기저기서 물을 뿜고 있는 고래들[10]을 보면 이 해협은 곧장 바다로 통해 있을 것이다. 너도밤나무 가지 바로 밑으로 암수 고래 한 쌍이 천천히 헤엄쳐 지나가기도 했다. 날이 어두워지자 항해를 멈추고 만의 깊은 곳을 찾아 텐트를 쳤다. 야영하기에는 자갈밭 해변이 좋다. 이탄질 토양은 습기가 차고 바닥이 울퉁불퉁해서 잠자기에도 불편하고, 고기 요리를 해도 모래 가루가 고기에 박혀서 불편하다. 부드러운 자갈밭 위에 침낭을 펴고 누워 아주 편하게 잤다. 새벽 1시까지 내가 경계를 섰다. 밤 경치는 엄숙하고 고요하다. 내가 아주 멀리 떠나와 있다는 실감이 나지 않는다. 텐트에서 잠든 선원들의 코 고는 소리가 들리고, 어디선가 올빼미 우는 소리가 들려와 밤의 정적을 깬다. 가끔 멀리서 들리는 개 짖는 소리가 이곳이 야만인의 땅임을 깨닫게 한다.

1월 20일 | 아침 일찍 비글 해협이 갈라지는 곳에 도착해 북쪽으로 기수를 잡았다. 주위 풍경은 갈수록 장관이다. 북쪽으로 솟아 있는 산은 화강암 축을 분수령으로 해서 9백 미터에서 1천2백 미터 높이까지 솟아 있는데, 1천8백 미터가 넘는 봉우리도 있다. 산의 정상은 눈으로 덮여 있다. 수많은 폭포가 숲을 내려오다 좁은 해협으로 흘러들어 가고, 산기슭에서 웅장한 빙하가 여기저

10 티에라델푸에고 섬의 동부 해안을 벗어나던 날, 말향고래들이 물 밖으로 꼬리만 빼고 솟아오르는 것을 보았다. 고래들이 다시 물속으로 잠길 때 물기둥이 높이 치솟고, 멀리서 포성이 터지는 것 같았다.

기서 흘러내린다. 정상의 새하얀 눈에서 흘러내리는 에메랄드 같은 푸른빛의 빙하는 정말 아름답다. 정상에 쌓인 눈의 창백한 흰색과 대조된다. 빙산에서 떨어진 얼음 조각들이 떠내려와서 해협을 따라 빙산이 1.6킬로미터 정도 가득 차 있어, 북극해를 옮겨 놓은 듯하다. 저녁때는 해변에 보트를 대고 빙벽에서 조금 떨어진 거리에서 얼음이 떨어져 내리는 것을 기다렸다. 커다란 얼음 조각이 엄청난 소리를 내며 떨어지자 우리 쪽으로 파도가 밀려왔다. 선원들은 보트가 망가질까 봐 보트를 향해 뛰어갔다. 큰 파도가 보트의 뱃머리를 치려는 순간, 선원 한 명이 뱃머리를 잡고 굴렀다. 보트가 파도에 세 번 솟구치고 선원도 여러 번 굴렀지만 무사했다. 우리 보트가 본선에서 160킬로미터나 떨어져 있고, 식량도 무기도 거의 없는데 큰일 날 뻔했다. 해안의 큰 바위들이 위치가 바뀐 것을 전에 본 적이 있는데, 이번의 파도를 보기 전에는 원인을 짐작도 못 했다. 이 만의 한쪽은 운모판암이 튀어나와 있는데, 상단은 12미터 높이의 빙벽으로 이루어져 있다. 만의 반대쪽은 15미터가 넘는 벼랑으로, 넓고 둥그런 화강암과 운모판암으로 되어 있는데, 오래된 나무들이 자라고 있다. 한쪽에 튀어나와 있는 운모판암은 빙하가 발달하면서 쌓인 빙퇴석[11]으로 보인다.

우리는 비글 해협 북쪽 수로의 서쪽 입구에 도착했다. 이곳에서 알려지지 않은 황량한 섬 사이를 항해했는데 날씨가 아주 나빴다. 원주민은 한 명도 보이지 않았다. 주변 해안이 가팔라서 텐트 두 개를 칠 만한 곳을 찾느라 한참을 갔다. 썩은 해초로 둘러싸인 둥근 바위 위에서 야영하다가 물이 차서 서둘러 옮긴 적도 있다. 우리가 도착한 서쪽 끝이 스튜어트 섬으로 본선에서 약 240킬로미터 거리이다. 비글 해협의 남쪽 수로를 항해해 폰손비 협만으로 무사히 들어왔다.

2월 6일 | 울리야 만에 도착했다. 선교사 매슈스는 티에라델푸에고 원주민들의 나쁜 행동들을 힘들어했다. 피츠로이 함장은 매슈스를 비글호에 태워 나중

11 빙하에 의해 운반, 퇴적된 암석이 쌓인 것-역주.

에 그의 형이 선교사로 있는 뉴질랜드에 내려 주었다. 원주민들은 우리가 배를 떠나자마자 물건들을 계속 훔쳐 갔고, 여기저기서 원주민들이 계속 나타났다. 요크와 제미도 많은 물건을 도난당했다. 매슈스는 땅에 묻어 놓지 않았던 물건을 거의 잃어버렸다. 원주민들이 물건을 훔쳐서 나눠 가진 모양이다. 매슈스는 시계를 항상 갖고 있어야 하는데, 잃어버려서 힘들어했다. 게다가 주변에서 밤낮으로 떠들어 대는 원주민들 때문에 피곤해했다. 어느 날 매슈스가 원주민 노인에게 자신의 위그왬에서 나가라고 하자, 노인이 즉시 커다란 돌을 들고 뛰어들어 오기도 했다. 어떤 날은 돌멩이와 막대기를 든 원주민 무리가 몰려오기도 해서, 제미의 형과 젊은 친구들이 소리를 질러 쫓아 버렸다. 매슈스는 원주민들에게 선물을 주며 사정했지만, 원주민들은 매슈스를 발가벗기고 털을 다 뽑아 버리겠다는 흉내를 내기까지 했다. 다행히 우리가 돌아와서 매슈스를 겨우 살렸다. 제미의 친척들은 낯선 원주민들에게 물건 훔치는 것을 가르쳐 주었다. 우리와 함께 온 티에라델푸에고인 세 명을 이 미개한 부족 가운데 정착시킬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섰다. 그런데 정작 그들 세 명은 겁을 내지 않아 안심이 되었다. 건강한 청년 요크는 이제 결혼한 푸에기아와 함께 잘 살아갈 것이다. 가엾은 제미는 슬퍼 보였다. 우리와 함께 돌아오는 게 나았을까. 제미의 형제도 물건을 훔쳐 가는 바람에, 제미는 당황했다. 그는 "무슨 인간들이 이럴까? 모두 나빠. 아무것도 모르는 빌어먹을 바보들"이라며 자신의 부족을 처음으로 심하게 욕했다. 요크, 푸에기아, 제미 이 세 명의 티에라델푸에고인은 3년 동안 문명인과 지낸 뒤 돌아갔지만, 문명인의 생활을 유지하고 싶은 마음이 아니었을까. 그러나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그들이 영국에서 지냈던 3년이 과연 그들의 삶에 어떤 도움이 될지 걱정되었다.

저녁에 매슈스를 태우고 비글 해협을 벗어나 남쪽 해안을 따라 본선으로 돌아왔다. 파도는 세고 보트에는 짐이 무거워 위험한 항해였다. 7일 저녁, 우리는 21일 만에 비글호로 돌아왔다. 20일 동안 480킬로미터를 보트로 항해했다. 11일, 피츠로이 함장이 직접 요크, 푸에기아, 제미를 만나 봤는데, 더 이상 잃어

버린 물건 없이 잘 살고 있다고 했다.

다음 해인 1834년 2월 마지막 날, 비글호는 비글 해협 동쪽 어귀의 아담하고 아름다운 만에 정박했다. 피츠로이 함장은 대담하게 울리야 만으로 보트를 타고 갔던 뱃길로 서풍을 맞받으며 무사히 갔다. 폰손비 협만에 이르자 카누 열두어 척이 우리 배를 뒤따라 왔다. 이곳 원주민들은 우리가 바람을 받으며 갈지자로 가는 이유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그저 뒤쫓아 오기만 했다. 이 미개인들을 보니 힘이 우세한 상황이 어떤 것인지 느껴졌다. 보트에 타고 있을 때는 원주민들의 목소리가 듣기 싫었다. 무조건 뭘 달라는 소리들이었다. 비글호가 이 아담한 만에 정박했을 때 조용한 밤을 기대했건만, 어딘가 캄캄한 곳에서 "얌머스쿠너"라며 또 뭘 달라는 원주민들의 소리가 들려왔다. 횃불이 우리의 도착을 알리고 있다. "신이시여, 감사합니다. 드디어 저 불쌍한 이들에게서 떠납니다"라고 얘기하며 이곳을 떠날 때도 멀리서 뭘 달라는 원주민의 목소리가 들렸다. 티에라델푸에고 원주민들은 수가 많을수록 더 흥분해서 웃고 떠들었다. 그들은 물고기와 게를 우리에게 주며 옷감과 바꾸자고 했다. 원주민들은 멋진 천 조각과 저녁 먹을거리를 바꾸는 우리를 어리석고 불쌍하다고 여겼다. 얼굴에 검은 칠을 한 원주민 여자가 붉은 천 조각들을 머리에 두르고 좋아하는 표정이 재미있다. 이 젊은 여자의 남편은 이 지역 풍습대로 부인이 두 명이다. 남자는 사람들이 자신의 젊은 부인에게 관심을 보이자 질투를 하며 벌거벗은 부인들에게 충고를 한마디 하고는 노를 저어 사라졌다.

티에라델푸에고 원주민들은 물건을 교환하고 싶어 했다. 내가 한 원주민 남자에게 커다란 못(아주 귀중한 선물)을 건네주었을 때, 그는 물고기 두 마리를 창끝에 꽂아 건넸다. 선물이 다른 카누 근처에 잘못 떨어지면 반드시 주인에게 되돌려 주었다. 로 씨가 베에 태웠던 티에라델푸에고 원주민 남자 아이는 거짓말쟁이라 불리는 것이 비난이라는 의미를 확실히 알고 있는 듯 그렇게 불리자, 크게 화를 냈다. 그는 사실 거짓말쟁이다. 그런데 예전에도 그랬듯이 신기하게도 이곳 원주민들도 진정으로 쓸모 있는 물건들에는 무관심했다. 우리의

훌륭한 배는 본 체도 않았다. 대신 붉은 수건, 푸른 구슬, 우리 일행에 여자가 없다는 것, 우리가 몸을 씻는다는 것들을 신기해했다. 부갱빌[12]은 이런 원주민들의 행동에 대해, 그들은 "대자연의 법칙과 현상을 받아들이듯이, 인간이 만든 물건들을 위대한 작품"으로 받아들인다고 표현했다.

3월 5일 | 울리야 소만에 정박했는데, 놀랍게도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폰손비 협만의 원주민들이 이곳에 큰 싸움이 있다고 몸짓으로 알려 주어서 경계심을 가졌다. 무시무시한 오엔족이 내려왔다는 이야기를 나중에 들었다. 잠시 후 카누 한 척이 깃발을 휘날리며 다가왔다. 얼굴에 칠을 하지 않은 사람이 타고 있는데, 바로 가엾은 제미였다. 제미는 몸이 비쩍 마르고 긴 머리카락은 헝클어진 채, 허리에 천 조각 하나를 걸친 모습으로 완전한 원주민이 되어 있었다. 제미는 창피해서 몸을 돌리고 서 있었다. 그래서 우리는 카누가 가까이 왔을 때야 제미를 알아보았다. 우리와 헤어질 때 그는 살도 통통하고 깔끔한 모습이었는데……. 정말 통탄할 완벽한 변화였다. 우리가 다시 옷을 갈아입히고 법석을 떨자 제미는 다시 젊은이로 돌아왔다. 제미는 피츠로이 함장과 함께 예전처럼 깨끗하게 식사를 했다. 제미는 충분히 잘 먹고 있고, 추위도 없으며, 자신의 친척들도 모두 착한 사람들이라서 자신은 영국으로 돌아갈 생각이 없다고 했다. 저녁이 되자, 제미의 젊고 예쁜 부인이 왔다. 제미의 생각이 바뀐 이유를 알겠다. 제미는 친했던 친구 둘에게 수달 가죽을 선물하고, 함장에게는 자신이 만든 창 촉과 화살을 주었다. 제미는 직접 카누 한 척을 제조했고, 부족의 언어도 이제 조금 할 수 있다고 자랑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제미가 자신의 부족 사람들에게 영어를 가르쳐 주었나 보다. 원주민 노인이 '제미 버튼의 부인'이라는 말을 영어로 유창하게 말했다. 제미는 재산을 모두 잃어버

12 부갱빌Louis Antonie de Bougainville, 1729~1811. 프랑스의 항해가—역주.

렸다고 했다. 요크 민스터는 몇 달 전 큰 카누를 만들어 부인인 푸에기아[13]와 함께 고향으로 갔다. 몇 달 후 요크는 제미와 그 어머니에게 같이 가자고 꼬드겨 함께 갔다. 그런데 어느 날 밤, 제미의 물건을 몽땅 들고 도망을 가버렸다는 것이다. 제미와 요크는 최악의 이별식을 하고 만 것이다.

제미는 해변에서 자고 아침에 배로 다시 왔다. 제미가 닻을 올릴 때까지 배에 머무는 동안, 제미의 부인은 놀라서 제미가 카누로 돌아올 때까지 울고 있었다고 한다. 그는 귀중품을 들고 카누로 돌아갔다. 우리는 모두 섭섭한 마음으로 제미와 악수를 하며 헤어졌다. 제미 자신은 고향을 떠나지 않았더라도 여전히, 오히려 더 행복했을 것이다. 피츠로이 함장이 티에라델푸에고 원주민 세 명을 위해 희생을 치렀지만, 제미 버튼과 그 부족들의 후손이 앞으로 조난당한 선원들을 구해 주게 된다면 함장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이리라. 제미는 해안에 다다라 불을 피우고 이별을 고했다. 배가 바다 멀리 왔을 때도 연기가 계속 피어오르며 마지막이 될 긴 인사를 보내고 있었다.

티에라델푸에고 원주민 부족에 존재하는 개개인의 완벽한 평등이 오히려 문명화를 지연시키는 것 같다. 동물들도 생존을 위해 모여 살며 가장 강한 놈에게 복종하는 무리가 발전의 여지가 있듯이 인간도 그런 것 같다. 원인이 되었든 결과가 되었든지 간에, 문명이 발달된 사회에는 강한 정부가 만들어져 있다. 예를 들어 오타헤이테 원주민들이 처음 발견되었을 때, 세습되는 왕권이 지배하고 있었다. 이들은 뉴질랜드 원주민 가운데 가장 많이 문명화된 부족이다. 농사를 짓기 위해 서로의 이익을 얻는다 해도, 진정한 의미에서 공화정치를 하고 있다. 티에라델푸에고에서는 힘을 가진 족장이 등장해서 가축 등의 잉여 이익을 힘으로 차지할 때까지 정치적 상황은 개선되기 힘들다. 이들은 천 한

13 설리번 함장이 비글호 항해를 마친 뒤 포클랜드 제도 조사에 참여했다. 그는 1842년쯤 바다표범잡이 한 사람에게서 마젤란 해협 서쪽에 있을 때 얘기를 들었다. 바다표범잡이가 그곳에서 영어를 조금 할 줄 아는 원주민 여자를 보고 놀란 일이 있다고 했다. 이 원주민 여자는 분명 푸에기아 바스켓일 것이다. 그 여자는 배 위에서 며칠 동안 살았다(살았다는 말이 다른 뜻으로 해석될까 두렵다).

조각이라도 생기면 모두 찢어서 나눠 갖기 때문에 빈부 차이가 생기지 않는다. 한편 힘과 재산에서 우월한 족장이 어떻게 탄생하는지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이곳 남아메리카 최남단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이 세상 그 어느 곳보다 가장 덜 발달된 상태에 있는 것 같다. 태평양에 사는 두 종족 가운데 남태평양 제도의 원주민들도 이 지역 원주민보다는 상대적으로 더 문명화되었다. 에스키모인들은 지하 작은 집에서도 즐거움을 누리고 산다. 에스키모의 카누도 꽤 훌륭한 장비를 갖고 있다. 남아프리카 원주민 가운데에는 황폐한 벌판에서 식물 뿌리를 찾아 헤매는 불쌍한 부족도 있다. 오스트레일리아 원주민은 생활 방식이 단순하다는 점에서 티에라델푸에고 원주민과 가장 비슷하다. 그러나 오스트레일리아 원주민들은 부메랑, 창과 투척기, 나무를 오르는 기술, 동물을 사냥하는 기술 등을 지니고 있다. 오스트레일리아 원주민들이 뛰어난 기술을 갖고 있어도 정신적 능력이 우월하다고 할 수는 없다. 내가 항해하면서 관찰한 티에라델푸에고 원주민들의 모습과 오스트레일리아 원주민에 대해 책에서 읽은 사실로 볼 때, 정신적 능력이 우월해도 기술이 발달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 비글호는 1826년부터 1830년까지 이루어진 첫 번째 항해에서 티에라델푸에고 해안을 조사하던 중 보트 하나를 도난당했다. 그러자 피츠로이 함장은 보트를 돌려받기 위해 원주민을 인질로 붙잡는다. 그러고는 이 원주민 세 명과 진주 단추를 주고 산 어린아이 한 명을 영국으로 데려가서 교육시켰다. 그 가운데 한 명은 영국에서 사망했다. 피츠로이는 나머지 세 명의 원주민 요크 민스터, 제미 버튼, 푸에기아 바스켓을 섬으로 돌려보낼 계획이었다. 이것이 바로 비글호의 두 번째 항해의 중요한 동기가 되기도 했다.
비글호는 이번 항해에서 남아메리카 남단에 있는 티에라델푸에고 섬을 세 번 거쳐 간다. 1832년 12월 17일, 굿석세스 만에 처음으로 닻을 내린다. 요크 민스터 섬으로 가기 위해 서쪽으로 항해를 시작하지만 폭풍우로 표류하게 된다. 1833년 1월 비글호는 고어리로드에 정박한다. 피츠로이는 원주민 세 명을 고향에 데려다주기 위해 보트 네 척으로 제미의 고향인 폰손비 협만으로 향한다. 피츠로이는 한적하고 아름다운 울리야 만에 원주민 세 명과 선교사 매슈스를 정착시키기로 한다. 선원들은 이곳에 오두막 세 채를 짓고 밭을 일구어 준 뒤 이들을 남겨두고 떠난다. 비글 해협의 북서쪽 기슭을 조사하고 열흘 뒤에 울리야 만에 돌아온 피츠로이는 선교사 매슈스가 원주민들의 괴롭힘으로 힘들어하는 것을 보고 다시 배로 데려온다. 요크와 푸에기아, 제미를 남겨 두고 떠나오면서 다윈은 걱정스러운 마음을 적고 있다. 영국에서 보낸 문명인과의 3년 세월이 이들의 삶에 과연 도움을 준 것일까 불안해하는 모습에서 다윈의 인간적인 따뜻함이 느껴진다. 다윈은 특히 어린 제미를 남겨놓고 온 것이 마음에 걸린다. 1년 뒤인 1834년 3월 다시 울리야 만에 정박했을 때 가엾은 제미는 완전한 원주민의 모습이 되어 있다. 비글호는 제미와의 이별을 뒤로하고 섬을 떠나간다.
다윈은 섬으로 깊이 들어가면서 관찰한 지질과 식물상에 대해서도 적고 있다. 바다에 잠겨 있는 섬의 대부분은 산악 지형을 이루고 있다. 따라서 계곡이 형성될 것 같은 지대에는 깊고 작은 만이 발달해 있다. 서쪽 해안을 제외한 섬의

산기슭은 숲을 이루고 있다. 고도 300~450미터 사이에는 나무가 자라고 있다. 그 위쪽은 작은 고산성 식물과 이탄이 발견된다. 그 위로 만년설이 쌓여있다. 비글 해협이 갈라지는 곳의 풍경은 더욱 장관이다. 높이 솟은 산봉우리는 눈으로 덮여 있고, 폭포가 아래로 흐른다. 다윈은 봉우리의 새하얀 눈에서 흘러내리는 빙하의 푸른빛 아름다움에 감탄한다.

다윈은 티에라델푸에고 원주민들의 미개함에 충격을 받은 나머지 원주민을 야생동물이나 하등동물의 상태에 비유하기도 한다. 영국에서 같이 배를 타고 온 원주민에게서는 상상도 못 할 모습이었다. 다윈은 원주민들이 영국인들의 하얀 팔을 보고 놀라는 것을 보고 동물원의 오랑우탄 같다고 생각한다. 다윈에게는 원주민의 표정과 몸짓이 우스꽝스러워 보인다. 다윈이 보기에는 이곳의 원주민이 가장 원시적인 문명 상태에 있는 것 같다. 원주민들은 겨울에 먹을 것이 없으면 노인들을 잡아먹는다는 얘기를 들으며 마을에 식량이 부족할 때 노인들이 느꼈을 공포를 생각하고 끔찍해한다. 다윈은 원주민의 문명화가 늦은 이유로 부족에 힘 있는 통치 기구나 족장이 없는 사실에 주목한다. 문명이 발달된 사회에는 강한 정부가 만들어져 있다. 다윈은 빈부의 차이가 없는 원주민 부족 안에 힘이 세고 재산이 더 많은 족장이 등장해야 문명화가 진행될 것이라는 견해를 덧붙이고 있다.



마젤란 해협-남부 해안선의 기후



제11장
마젤란 해협–남부 해안선의 기후

마젤란 해협–패민 항–타른 산 등반–숲–먹을 수 있는 균류–동물학–거대한 해초류–티에라델푸에고를 떠나며–기후–남부 해안선 지역의 과실수와 생산물–코르디예라 산맥의 설선 고도–바다로 떠내려온 빙하–빙산의 형성–표석의 운반–남극 제도의 기후와 생산물–냉동된 사체의 보존–요약

1834년 5월의 끝 무렵에, 우리는 두 번째로 마젤란 해협의 동쪽 입구로 들어섰다. 이 해협의 양쪽 지역은 파타고니아처럼 거의 고른 평원 지대다. 두 번째로 나타나는 좁은 수로에 위치한 조그마한 네그로 곶에서 티에라델푸에고의 전형적 모습이 시작된다고 할 수 있다. 해협의 남쪽에서 동쪽 해안선을 따라 비슷하게 펼쳐진, 황폐한 공원 같은 풍경은 거의 모든 지형적 특징이 반대로 나타나는 해협의 양쪽 지역을 서로 연결해 주고 있다. 32킬로미터 정도밖에 되지 않는 거리를 두고 두 지역의 풍경이 그렇게 변하다니! 더 멀리 96킬로미터 정도 떨어진 패민 항구와 그레고리 만을 비교한다면 그 풍경의 차이는 더욱 놀랍다. 패민 항은 끊임없이 몰아치는 폭풍을 동반한 강우에 흠뻑 젖어 있는 울창한 숲으로 둘러싸여 있는 반면, 그레고리 곶은 건조하고 메마른 평원 위로 청명하고 푸른 하늘이 걸려 있다. 기류[1]는 빠르고 거칠게 마구잡이로 휘몰아치는 것 같지만, 마치 강물이 강바닥을 따라 흘러가듯, 어떤 정해진 경로를 따라 흘러가는 것 같다.

1 대체로 남서쪽에서 불어오는 미풍이 매우 건조하다. 1월 29일, 그레고리 곶에 정박. 서남쪽에서 매우 심한 폭풍이 불어왔다. 하늘은 맑고 적운이 약간 끼었다. 기온은 섭씨 14도이고 이슬점은 섭씨 2도로, 섭씨 12도의 차이가 난다. 1월 15일, 산훌리안 항구에 정박. 아침에 바람이 약하게 불며 비가 심하게 내렸다. 뒤이어 비를 동반한 돌풍이 심하게 일어났다. 폭풍은 가라앉고 적운이 잔뜩 꼈다. 하늘은 맑게 개고 남남서 방향에서 바람이 심하게 불어왔다. 기온은 섭씨 16도, 이슬점은 섭씨 6도로, 10도의 차이가 난다.

지난 1월 그레고리 곶에 체류했을 때, 파타고니아의 거인들이라 불리는 유명한 원주민 부족과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들은 우리에게 무척 호의적이었다. 과나코 가죽으로 만든 망토와 멋들어지게 늘어뜨린 긴 머리카락, 그리고 전반적으로 그들의 용모가 실제보다 더 커 보인다. 키는 대개 약 180센티미터 정도 되는데, 그보다 큰 남자들도 있지만 그보다 작은 경우는 거의 드물고 여자들도 마찬가지로 키가 큰 편이다. 확실히 이들 부족은 우리가 여타 지역에서 본 사람들 중 가장 키가 컸다. 생김새로 보면 전에 로사스와 함께 본 적이 있는 북쪽 지방의 인디오와 정말 많이 닮았다. 하지만 이들 부족의 표정이 더 야만적이고 무서워 보인다. 얼굴에 붉은색과 검은색을 짙게 칠했고, 어떤 사람은 티에라델푸에고 원주민처럼 얼굴에 흰색으로 원을 그리고 많은 점을 찍었다. 피츠로이 함장이 그들에게 아무나 세 명만 우리와 같이 가자고 하자, 모두가 따라가고 싶어 하는 눈치였다. 오랜 시간을 들여 배를 깨끗이 청소한 후 마침내 그들 거인 세 명이 배에 올랐다. 그들은 함장과 같이 저녁 식사를 했는데, 나이프와 포크, 스푼을 사용했으며 신사처럼 조용히 행동했고 설탕을 무척 좋아했다. 이 종족은 바다표범이나 고래를 잡는 사람들과 교류가 많아 대부분 영어나 스페인어를 조금씩 할 줄 안다. 그들은 반쯤 문명화되었는데 그만큼 세속에 물들었다고 할 수 있다.

다음 날 아침, 많은 사람이 물건을 가죽과 타조 깃으로 바꾸려고 해안에 상륙했다. 원주민들은 총기류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도끼 등의 연장 종류보다 담배를 훨씬 더 많이 바꾸고자 했다.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온 주민이 강둑에 늘어서 있는 장면은 정말 재미있는 풍경이었다. 소위 거인이라 하는 이들을 좋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그들은 유머가 넘쳤고 믿음직스러웠으며 우리에게 또 오라는 말도 아끼지 않았다. 그들은 유럽인들과 같이 사는 것을 좋아하는 것 같다. 그 마을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마리아라는 나이 많은 여자는 로 씨에게 선원들 중 아무라도 한 명만 남겨 달라고 간청하기도 했다. 그 부족은 이곳에서 1년의 대부분을 보내지만, 여름에는 코르디예라 산맥

의 기슭을 따라 사냥하며 살아간다. 그들은 때때로 북쪽의 네그로 강까지 1천 2백 킬로미터에 이르는 먼 여행을 떠날 때도 있다. 농장에는 말을 많이 기르고 있었는데, 로 씨에 따르면 마을 사람 한 명당 여섯 내지 일곱 마리의 말을 갖고 있으며 여자들이나 심지어 어린애들까지도 자신들의 말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사르미엔토 시대(1580년)에는 이 마을의 인디오들이 활과 화살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은 사용하지 않은 지 오래되었다. 그때 역시 약간의 말들을 소유했다고 하는데 이는 남아메리카에서 말이 예외적으로 매우 빠르게 번식했다는 것을 보여 주는 매우 흥미로운 사실이다. 1537년, 부에노스아이레스에 처음으로 말들이 들어왔으나 그 이후 얼마 동안 원주민 마을들이 말들을 황량한 상태로 방치하자 달아나서 야생마가 되었다. 그로부터 43년이 지난 1580년[2]에 마젤란 해협까지 말들이 진출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로 씨의 말에 의하면, 걸어 다녔던 인근의 인디오들이 요즘은 말을 타고 다니는 추세라 한다. 그레고리 만의 부족들은 자신들의 오래된 말들을 인근 부족에게 나눠 주며, 겨울철이 되면 사냥 기술이 좋은 사람들 몇몇을 보내 도와준다고 한다.

6월 1일 | 잘 형성된 만에 위치한 패민 항구에 정박했다. 지금은 초겨울이어서 볼거리가 거의 없다. 군데군데 눈 덮인 거무스름한 나무들만이 이슬비 내리는 뿌연 안개 사이로 흐릿하게 보일 뿐이다. 그러나 운 좋게도 이틀간은 날씨가 좋았다. 그중 하루에는 멀리 떨어져 있는 고도 2천 미터인 사르미엔토 산의 웅대한 모습이 드러났다. 티에라델푸에고에서 볼 때는 멀리서 작아 보이던 산들이 실제로는 굉장히 높이 솟아 있는 것을 보고 놀란 적이 많았다. 처음에는 생각 못 했지만, 그 이유는 산봉우리에서 기슭까지의 전체 모습이 한눈에 다 들어왔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기억해 보면, 비글 해협에서 처음으로 산을 봤을 때는 정상에서 기슭까지 전체 모습이 한눈에 다 들어왔었다. 하지만 폰손비 협만에서 봤을 때는 능선 일부만 연속으로 이어진 것이 보였다. 능선을 하나씩 새롭게 볼 때마다 각 능선들이 산 높이를 가늠하는 척도로 매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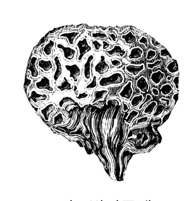
2 렌거, 《파라과이의 자연》, 334쪽.

새롭게 사용되었던 것이 신기했다.
패민 항구에 도착하기 전에 어떤 남자 두 명이 우리 배를 향해 소리 지르며 해안가를 따라 달려오는 모습이 보였다. 우리는 보트를 내려 줬다. 그들은 바다표범잡이 배에서 도망쳐 나온 선원으로 파타고니아 원주민들과 같이 생활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파타고니아 주민들은 늘 그렇듯 아무 사심 없이 그들을 환대해 주었는데, 사고로 일행들과 헤어진 후 이 선원들은 지나가는 아무 배라도 만나기 위해 패민 항구로 가는 중이었다. 부랑자라도 그들보다 더 비참한 모습은 아닐 것이다. 그들은 여기 오기 전 며칠간을 홍합과 작은 열매로 허기를 채웠으며, 입고 있는 누더기는 불 가까이에서 잠을 자다가 타버렸다고 했다. 아무런 은신처 없이 밤낮으로 바깥에서 지내면서, 최근에 몰아친 비와 눈, 진눈깨비를 동반한 폭풍우를 맞았을 텐데도 그들은 대단히 건강해 보였다.
패민 항구에 머무는 동안 티에라델푸에고 원주민들이 두 번씩이나 우리를 성가시게 했다. 해안에는 많은 장비와 옷가지들 그리고 선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내쫓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었다. 처음에는 그들이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장총 몇 자루로 위협사격을 했다. 망원경을 통해 관찰해 보니, 총알이 물에 떨어질 때마다 인디오들은 돌을 집어 무려 2킬로미터나 떨어져 있는 배를 향해 대담하게 던져댔는데, 그 행동이 어찌나 우습던지! 원주민 중에서 거친 행동을 보이는 몇몇 이들을 머스킷 소총으로 위협하기 위해 보트를 내렸다. 티에라델푸에고 원주민들은 나무 뒤에 몸을 숨긴 채 머스킷 소총이 불을 뿜을 때마다 화살을 쏘아 댔다. 하지만 화살은 보트까지 오지 못했고 우리 장교 한 명이 그 모습을 가리키며 웃어 대자, 이를 본 티에라델푸에고인들은 격노하여 미친 듯이 날뛰면서 망토를 벗어 흔들어 댔다. 그들은 결국 나무가 총알에 맞아 잘려 넘어지는 것을 보고서야 도망쳐 달아났고, 우리는 드디어 평온을 되찾을 수 있었다. 먼젓번 항해에서도 티에라델푸에고인들이 말썽을 피워 대는 바람에 하는 수 없이 위협을 주기 위해 밤에 그들이 사는 원형 움집 위로 불꽃을 쏘아 올렸는데, 그 방법이 효과가 있었다. 처음에는 왁자지껄하

게 떠드는 소리와 개 짖는 소리가 크게 나더니만 1~2분 후엔 갑자기 정적이 감돌아 우스웠다는 이야기를 장교 한 사람이 나에게 해 주었다. 다음 날 아침에는 단 한 사람의 티에라델푸에고인도 근처에서 볼 수 없었다.

비글호가 정박하고 있던 2월의 어느 날, 아침 4시경 나는 이 부근에서 가장 높은 산인 고도 790미터의 타른 산을 오르기 시작했다. 산기슭까지 보트를 타고 가서(하지만 운이 없게도 가장 좋은 장소에 배를 대지는 못했다) 그곳에서부터 걸어서 산을 오르기 시작했다. 바닷물의 최고 수위 선에서부터 숲이 시작되었는데, 산 정상에 도착하리라는 희망은 산을 오르기 시작한 지 두어 시간 만에 버려야 했다. 밀림 속이어서 나침반으로 끊임없이 방향을 재조정하면서 가야만 했다. 산악 지역인데도 모든 육상 표지물은 밀림에 완전히 가려 보이지 않았다. 깊은 계곡에서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죽음과도 같은 적막감이 배어 나오고 있었다. 계곡의 바깥쪽은 강풍이 휘몰아치고 있었지만, 텅 빈 계곡 안쪽은 바람 한 점 없어, 가장 큰 나무의 잎조차 미동도 하지 않았다. 모든 곳이 음침하며 춥고 축축해서 곰팡이나 이끼, 고사리류조차도 잘 자라지 못했다. 계곡에는 커다란 썩은 통나무들이 사방으로 흐트러져 길을 완전히 막고 있었기 때문에 기어가는 것조차 거의 불가능했다. 이렇게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다리 위를 지날 때, 썩은 나무통 속으로 무릎이 빠져 행렬을 멈추는 일이 다반사였다. 단단해 보이는 나무에 기대려 하다가 살짝 닿기만 해도 무너져 내리는 썩은 나무들 때문에 깜짝 놀라기도 했다. 마침내 키 작은 관목대灌木帶 안으로 들어온 후 조금 더 나아가 민둥산의 능선에 도착했으며, 그 능선을 따라 산의 정상에 도착했다. 이곳이 바로 티에라델푸에고 섬의 특징을 잘 볼 수 있는 곳이다. 군데군데 눈으로 덮인, 나지막한 산으로 이루어진 불규칙한 산맥들, 짙은 황록색을 띠는 계곡, 사방으로 육지를 가르는 바다의 만灣들을 볼 수 있었다. 산의 정상에서 부는 강한 바람은 뼈에 사무치듯 차가웠고 공기는 안개 낀 것처럼 흐릿해 거기서 더 이상 오래 머물 수 없었다. 내려올 때는 미끄러지고 떨어지면서 몸의 눌림에 의해 길을 만들며 내려왔기 때문에 올라가는 것만큼 힘들지

는 않았다. 앞에서도 언급한 적이 있지만 이곳의 상록림[3]은 어둠침침하고 흐릿하다. 이곳에는 두서너 종의 나무들만 자라고, 그 외의 나무들은 경쟁에서 밀려났다. 숲 지대 위로 키 작은 고산 식물들이 많이 자라고 있는데, 모두 이탄층에서 싹이 나고 자라서 후에 다시 이탄층을 이룬다. 이곳 식물들이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유럽의 종들과 매우 비슷하다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티에라델푸에고 섬의 가운데는 점토로 된 판암층이 있어 나무들이 생장하는 데 최적의 조건이 되는 반면, 바깥쪽 해안선 부근은 척박한 화강암질 토양에다가 강한 바람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라 나무들이 크게 자라지 못한다. 패민 항구 부근은 그래도 다른 곳보다는 큰 나무들이 많은 편이다. 윈터스바크 한 그루를 봤는데 줄기 둘레가 1.3미터 정도 되었으며, 높이가 4미터 정도인 너도밤나무 몇 그루도 있었다. 킹 함장은 둘레가 2미터, 높이가 5미터인 너도밤나무를 본 적이 있다고 했다.


너도밤나무에 기생하는 곰팡이류

티에라델푸에고 원주민들의 중요한 먹을거리인 한 식물에 대해 언급해야겠다. 그것은 동그랗게 생기고 밝은 노란색을 띠는 곰팡이류로서 너도밤나무 수피에서 많이 자란다. 어린 것은 탄력이 있고 통통하며 표면이 매끄럽다. 하지만 자라면서 오그라들고 점점 질겨지는데, 그림에서 보듯, 표면 전체가 우툴두툴하게 깊이 패이거나 벌집과 같은 모양이 된다. 이 곰팡이류는 새로운 속[4]에 포함되는데,

3 피츠로이 함장이 나에게 알려 주기를, 4월(우리의 10월에 해당)에 산기슭 부근에 서식하는 나무들은 단풍이 드는데 그보다 높은 곳에서는 잎의 색깔이 변하지 않는다고 한다. 예전에 읽었던 것을 기억해 보면, 영국에서는 추운 늦가을보다는 따뜻하고 맑은 초가을에 낙엽이 더 빨리 진다. 그러므로 이곳에서 고도가 높은 곳, 즉 보다 추운 곳에서 단풍이 늦게 드는 이유는 영국이나 여기나 동일하게 적용되는 식물의 일반적 법칙 때문인 것 같다. 티에라델푸에고에서는 1년 중 어떤 시기에도 나뭇잎 전체가 한꺼번에 떨어지는 일은 없다.

4 내가 채집한 표본과 버클리 목사가 《린네 회보》(19권, 37쪽)에 사이타리아 다위니Cyttaria darwinii란 이름으로 기재한 내용을 참고해 서술했다. 칠레에서 발견한 종은 사이타리아 베르테로이C. berteroii다. 이것의 속명은 불가리아Bulgaria와 연관이 있다.

나는 칠레에서 다른 종의 너도밤나무에서 자라고 있는 이 속의 두 번째 곰팡이 종을 발견했다. 또한 후커 박사는 아주 최근 반디멘스랜드 지역에 있는 세 번째 종의 너도밤나무에서 이 속의 세 번째에 해당하는 신종을 발견했다고 나에게 알려 주었다. 그렇게 멀리 떨어진 곳에서도, 나무의 종류와 그곳에 기생하는 곰팡이 사이에 상호 관련성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얼마나 독특한가! 티에라델푸에고에서는 다 자라서 질긴 이 곰팡이를 여자들과 어린아이들이 따와서 익히지도 않고 생으로 먹는다. 이 곰팡이류는 끈적끈적하며 약간 단맛을 내고 버섯 냄새를 풍긴다. 이곳 원주민들은 아르부투스[5]에 속하는 열매 몇 종류를 제외하곤, 이 곰팡이 이외의 어떤 식물도 먹지 않는다. 뉴질랜드에서는 감자가 들어오기 전에 고사리의 뿌리를 주로 먹었다지만, 이제 민꽃식물을 주요 먹을거리로 삼고 있는 지역은 티에라델푸에고가 전 세계에서 유일한 곳일 것이다.

티에라델푸에고의 동물상은 이 지역의 기후나 식생을 통해 예상할 수 있는 것처럼 종의 수가 매우 빈약하다. 고래나 바다표범류를 제외한 포유동물은 박쥐가 1종, 생쥐와 유사한 토끼쥐Reithrodon chinchilloides가 1종, 생쥐 2종, 투코투코와 같거나 유사한 투코투코설치류Ctenomys가 1종, 여우가 2종(마젤란 여우Canis Magellanicus, 게잡이여우Canis Azarae),[6] 해달[7]이 1종, 과나코와 사슴 1종이 전부다. 이 동물들의 대부분은 동쪽의 건조한 지역에서만 서식하며, 마젤란 해협의 남부 지역에서는 사슴을 볼 수 없다. 해협의 양쪽 면과 제도 사이의 절벽은 부드러운 모래 바위와 진흙, 조약돌로 이루어져 있는데 대체적으로 반대편 절벽과 모양이 잘 들어맞는다. 이러한 사실은, 한때 이 지역이 서로 붙어 있었으며, 투코투코나 토끼쥐같이 가냘프고 힘없는 동물들도 지나다녔을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하게 한다. 절벽의 모양이 서로 들어맞는다고 땅이 붙어 있었다

5 철쭉과에 속하는 상록 관목-역주.

6 현재 학명은 세르도키온 토우스Cerdocyon thous이다-역주.

7 라코라고도 한다. 족제비과Mustelidae에 속하는 반수성 포유동물이다-역주.

는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그와 같은 절벽은 대체로 지각이 융기되기 이전에, 기존의 해안에 축적되어 있던 경사진 퇴적층이 엇갈리게 교차되면서 형성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티에라델푸에고 섬 외곽에서 비글 해협에 의해 잘려나온 커다란 섬 두 개에서, 한쪽 섬의 절벽은 충적층의 층상 구조로 되어 있고 또한 그 앞쪽과 면한 맞은편 절벽 구조와 비슷한 모양을 하고 있는 반면, 다른 섬은 절벽 전체가 결정질의 오래된 암석으로만 이루어져 있다. 앞에 언급한 섬은 나바리노 섬인데 여기서는 여우와 과나코를 모두 볼 수 있다. 하지만 뒤에 언급한 오스테 섬은 모든 특징이 나바리노 섬과 비슷하지만 차이점이 있다면 단지 폭이 1킬로미터 조금 안 되는 좁은 수로에 의해 분리되어 있다는 것뿐인데, 제미 버튼의 말에 의하면, 여기서는 위의 두 동물을 전혀 발견할 수 없다고 한다.

어둠침침한 숲에는 새들이 거의 살지 않는다. 높은 나무 꼭대기 근처에 몸을 숨기고 있는 흰볏산적딱새Myiobius albiceps의 슬픈 울음소리를 가끔 들을 수 있으며, 머리에 맑은 주홍색 볏을 가진 검정 딱따구리가 아주 가끔씩 시끄럽고도 낯선 울음소리를 내곤 한다. 거무스름한 색깔의 작은 굴뚝새Scytalopus Magellanicus 한 마리가 어지럽게 뒤엉켜 썩어 가고 있는 나무 둥치 사이를 두 발을 모아 살금살금 뛰어다니고 있다. 그러나 이 지역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새는 나무타기류인 옥시우루스 투피니에리Oxyurus tupinieri이다. 가장 어둡고 습기 차며 발조차 들여놓을 수 없는 깊은 계곡의 너도밤나무 숲에서 아래위로 돌아다니는 이놈들을 만날 수 있다. 이 새는 적막한 숲에 침입자가 들어오면 호기심 어린 몸짓으로 계속 따라다니기 때문에 실제보다 더 많은 것처럼 보인다. 사람들과 불과 1~2미터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여기저기 나무들을 옮겨 날아다니며 귀에 거슬리는 소리로 끊임없이 지저귄다. 이놈들은 나무발바리Certhia familiaris처럼 조심성 있게 숨어 있지 않는다. 나무발바리처럼 나무 기둥을 뛰어 올라가지 않고, 오히려 버드나무굴뚝새처럼, 잔가지나 큰 가지 위에서 곤충들을 찾아 부지런히 뛰어다닌다. 조금 더 트여 있는 지역에서

는 핀치새 3~4종, 개똥지빠귀 1종, 찌르레기 1종(혹은 찌르레기흉내쟁이속Icterus의 한 종), 거무스름한 색깔의 작은 새인 오페티오린쿠스속Opetiorhynchi[8] 2종, 매와 올빼미 일부 종을 볼 수 있다.

포클랜드 제도와 마찬가지로 이 지역에서도 파충류가 전혀 없다는 것이 눈에 띄는 특징이다. 이 말은 나 자신의 관찰에만 근거를 둔 것이 아니라 포클랜드 제도에 사는 스페인 사람으로부터 들은 얘기와 제미 버튼으로부터 티에라델푸에고에 관해 들었던 것을 종합해서 하는 말이다. 남위 50도 부근에 있는 산타크루스 강둑에서 개구리 한 마리를 봤다. 도마뱀뿐만 아니라 이들 양서류는 파타고니아의 특징이 그대로 나타나는 마젤란 해협의 남쪽 먼 지역에서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티에라델푸에고의 습하고 추운 변두리에서는 전혀 발견되지 않는다. 이런 기후 조건이 도마뱀 같은 목目의 동물들에게는 맞지 않으리라는 것은 예상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개구리에 관해서는 그처럼 명확히 예상할 수 없다. 딱정벌레의 수는 극히 적다. 다양한 서식지와 식물들로 가득 차 있으며, 스코틀랜드만큼 넓은 이곳에 생물이 그렇게 적다는 것을 믿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렸다. 내가 발견한 것은 돌 밑에 사는 몇몇 고산종(먼지벌레과와 헤테로미대과Heteromidae)이 전부다. 열대 지방의 전형적인 특징들을 보여 주는 초식성 잎벌레과科 생물들은 이곳에서 거의 찾아볼 수 없다.[9] 극히 적은 수의 파리나 나비, 벌만 볼 수 있었으며 귀뚜라미나 메뚜기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 물웅덩이에는 수생 딱정벌레만 있고, 갈색뾰족쨈물우렁이Succinea[10]를 제외하

8 오페티오린쿠스Opetiorhynchus의 복수형. Cinclodes속과 같다. 화덕딱새과에 속한다-역주.

9 고산성 잎벌레인 할티카속Haltica 1종과 메라소마속Melasoma 1종은 제외되어야 한다고 본다. 워터하우스 씨가 알려 준 바에 의하면, 먼지벌레과는 8~9종이 있다. 많은 생물들이 매우 독특한 모습을 보여 주는데, 이수성 부절을 지닌 헤테로메라 4~5종, 왕바구미류 6~7종이 있으며, 반날개과Staphylinidae, 방아벌레과Elateridae, 지고갑과地叩甲科, Cebrionidae, 검정풍뎅이과Melolonthidae에서 각각 한 종씩 나타난다. 다른 목에 속하는 종들은 거의 없다. 모든 목에서 종수보다 개체 수가 적다는 것이 특징적이다. 딱정벌레목의 대부분은 워터하우스 씨가 《자연사 연보》에 자세히 기록해 놓았다.

10 호박琥珀색을 띠는 달팽이 종류-역주.

고는 민물조개류는 하나도 없다. 처음에는 갈색뾰족쨈물우렁이를 민물 달팽이로 생각했기 때문에 예외라고 했으나, 이곳의 갈색뾰족쨈물우렁이는 물과 멀리 떨어진 축축한 초지 위에서 서식하기 때문에 육상 달팽이로 부르는 것이 옳겠다. 그리고 이런 육상 달팽이들은 딱정벌레처럼 고산성 환경에서만 채집할 수 있다. 티에라델푸에고와 파타고니아 두 지방의 일반적인 지형뿐만 아니라 기후에 대해서는 앞에서 비교해 봤는데, 두 지역의 차이점은 각각에 서식하는 곤충의 종류에서도 극명하게 드러난다. 두 지역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곤충은 한 종도 없으며, 곤충들의 일반적인 특징들도 확연히 다르다고 확신한다.

육지에서 바다 쪽으로 관심을 돌려보면, 육지 생물들이 빈약했던 만큼이나 반대로 바다에는 생물들이 풍부하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바위가 많고 자연적으로 보호받고 있는 일부 해안에는 다른 어떤 서식지보다 더 많은 동물들이 살고 있다. 그 중요성으로 보아 특별히 언급할 만한 해양성 생물이 있는데, 바로 다시마의 일종인 자이언트 켈프Macrocystis pyrifera[11]이다. 이 식물은 바깥쪽 해안과 수로 안쪽 모두에서 간조 시의 수위에서부터 깊은 물 속에 이르기까지 바위에 붙어서 자란다.[12] 어드벤처호나 비글호를 타고 항해하는 동안, 해면 가까이 있는 바위 중 이런 부유성 해초로 덮여 있지 않은 곳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됐다. 따라서 이 해초류는 폭풍이 일고 있는 육지 근처를 항해하는 선박이 난파되는 것을 막는 데 큰 도움을 준다. 단단한 바위도 오래 견디지 못하는, 서쪽 바다의 거대한 파도가 부서지는 한가운데에서도 이 식물이 무성하게 잘 자

11 갈조류 다시마목의 해조류-역주.

12 켈프의 지리적 분포 범위는 매우 넓다. 혼 곶 부근의 최남단에 위치한 작은 섬에서부터 멀리 북쪽으로 위도 43도에 위치한 동부 해안까지(스토크스 씨가 알려 준 바에 의하면) 분포하고 있다. 하지만 후커 박사에 의하면, 서부 해안을 따라 캘리포니아 주의 샌프란시스코, 심지어는 캄차카 반도까지 분포한다고 한다. 따라서 이 켈프가 위도상으로 엄청나게 넓은 범위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종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쿡 함장이 케르겔렌 섬에서 이 종을 발견한 것으로 보아 경도상으로도 최소한 140도 정도 되는 넓이에 분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라고 있는 것을 보고 무척 놀랐다. 줄기는 둥글고 미끈거리며 부드럽다. 줄기 지름은 3센티미터를 거의 넘지 않는다. 그러나 이 식물의 줄기 몇 개를 합치면 그것들이 붙어 있는 커다란 바위를 충분히 들어 올릴 수 있다. 하지만 이런 바위를 물 위로 끌어올려 배 안으로 들여놓으려면 한 사람의 힘으로는 어림없을 정도로 무겁다. 쿡 함장이 그의 두 번째 항해에서 본 바에 의하면, 케르겔렌[13] 섬에 있는 켈프는 43미터보다 더 깊은 곳에서 자라 올라온다고 한다. "이 켈프는 수직 방향으로 자라는 것이 아니라 바닥 면에서 작은 예각을 이루면서 자라 올라와 대부분은 해수면에서 수 미터에 이르는 길이로 퍼진다. 어떤 것은 길이가 110미터나 그 이상까지 자라는 것도 있음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고 했다. 쿡 함장이 언급한 것과 같이 줄기가 110미터만큼 자라는 식물은 이 세상에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피츠로이 함장은 80미터 아래에서 자라 올라오는 켈프를 발견하기도 했다.[14] 이 해초층은 폭이 두껍지는 않지만 바닷물에 떠 있는 천혜의 방파제 역할을 한다. 탁 트인 항구로 밀려오는 원양의 파도가, 여기저기 산재해 있는 켈프의 줄기 사이를 통과하는 순간 파고는 낮아지고 잔잔해지는 것을 보면 무척이나 흥미롭다. 켈프에 밀접하게 의존해서 살아가는 다양한 종류의 생물체들을 보면 놀라운 감정을 감출 수 없다. 이 해초대 하나에만 서식하는 생물들에 대해 기술해도 아마도 두꺼운 책으로 나오지 않을까 싶다. 수면 위에 떠 있는 것을 제외한 대부분의 해초 잎들은 산호말들에 의해 흰색으로 두껍게 덮여 있는데, 그것은 정교하고도 섬세한 구조물을 보여 준다. 어떤 것에는 단순한 히드라 돌기들이 붙어 있기도 하고, 그보다 좀 더 조직화된 생물 종류들도 있으며, 아름다운 군집을 이루는 멍게들도 함께 보인다. 켈

13 남인도양 남부에 있는 프랑스령 제도-역주.

14 《어드벤처호와 비글호의 항해기》 1권, 363쪽. 해초는 굉장히 빨리 자라는 것처럼 보인다. 스티븐슨 씨는 썰물 때만 물 밖으로 드러나는 바위를, 11월에 끌로 매끈하게 밀어 놓았다가, 6개월 후인 다음 해 5월에 가 보았더니 길이가 60센티미터 정도 되는 다시마 푸쿠스 디지타투스Fucus digitatus와 무려 360센티미터나 되는 다시마 푸쿠스 에스큘렌투스F. esculentus로 두껍게 덮여 있었다고 한다.(윌슨의 《스코틀랜드 항해기》 2권, 228쪽)

프의 잎 위에는 또한 다양한 접시 모양의 조개류들이, 줄기에는 껍질 없는 연체동물들, 그리고 몇몇의 이매패류가 붙어서 살고 있다. 갑각류는 이 식물의 모든 부분에서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나타난다. 거대한 덩어리로 얽혀 있는 뿌리를 흔들어 보면 수많은 작은 물고기와 조개류, 오징어, 다양한 게와 멍게, 불가사리, 아름다운 모양의 해삼과 플라나리아, 그리고 갯지렁이처럼 기어 다니는 수많은 형태의 동물들이 함께 떨어져 나온다. 종종 되돌아가서 켈프 가지를 흔들어 댈 때마다 새롭고 신기한 모양의 동물들을 어김없이 발견할 수 있다. 켈프가 잘 자라지 않는 칠로에 섬에는 다양한 조개류나 산호말, 갑각류들이 존재하지 않는다. 태형류나 몇몇 멍게들이 있지만 이곳 티에라델푸에고에서 나타나는 것들과는 다른 종이다. 티에라델푸에고의 갈조류들은 그것을 서식지로 살아가는 동물들보다 훨씬 넓게 분포하고 있다. 남반구의 이런 거대한 수중 해초대를 열대 지역의 육상 밀림과 비교할 수 있겠다. 하지만, 만일 육상 밀림이 훼손된다 하더라도 이곳 켈프가 훼손됐을 때만큼이나 수많은 동물들의 멸종을 가져오지는 않을 것이다. 이 켈프의 잎들 사이에는 이곳 이외의 다른 어디에서도 먹이와 은신처를 구할 수 없는 수많은 종류의 물고기들이 살고 있는데, 이 물고기들이 죽으면 가마우지 등 물고기를 먹이로 하는 새들과 수달, 바다표범, 그리고 돌고래들 역시 굶어 죽을 것이고, 마침내 이 비참한 곳의 비련한 지배자인, 미개한 티에라델푸에고 원주민들은 다시 식인의 향연을 되풀이할 것이다. 그러면 원주민들의 수는 점점 줄어들어 결국에는 멸종될지도 모른다.

6월 8일 | 우리는 아침 일찍 닻을 올려 패민 항구를 떠났다. 피츠로이 함장은 발견된 지 얼마 안 된 마그달Magdalene린 수로를 통해 마젤란 해협을 떠나기로 결정했다. 경로를 정남쪽으로 잡았는데, 내가 전에도 암시한 적이 있듯이, 마치 우리를 더 나쁜 다른 세상으로 이끌어 가는 듯 음침해 보이는 항로를 따라 아래로 내려가고 있었다. 항해하기에는 바람의 상태가 좋았으나 안개가 짙게 끼어 있어 좋은 경치들을 많이 놓칠 수밖에 없었다. 산봉우리에서 기슭 주변

까지 산 전체를 먹구름 조각들이 빠르게 뒤덮었다. 안개 사이로 어렴풋이 보이는 경치들은 정말로 흥미로웠다. 들쭉날쭉한 봉우리들, 눈 덮인 산꼭대기, 푸른색의 빙하, 강렬한 산의 윤곽선이 짙은 하늘을 배경으로 각기 다른 거리와 높이에서 선명하게 보였다. 이렇게 멋진 경치 한가운데에 있는 텐 곳에 정박했다. 가까운 곳에 사르미엔토 산이 있는데 구름에 가려 잘 보이지 않았다. 우리가 정박한 이 조그만 항만의 양옆은 거의 수직으로 치솟아 있는데 그 아래쪽에 원형 움집 한 채가 버려져 있었다. 이 집은 그 옛날 어떤 사람들이 이토록 황량한 지역까지도 흘러와 살았음을 일깨워 줄 뿐이다. 그 사람들도 자연을 이용하거나 정복하려고 시도했을 것이다. 그러나 바위, 얼음, 눈, 바람, 그리고 물 같은 자연의 무생물적 작용들이 서로 간에는 다투고 있겠지만 인간에 대해서는 서로 연합해 대항하므로 인간은 이곳 자연의 절대적인 주권 앞에 지배당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6월 9일 | 기쁘게도 아침나절에 안개가 점차 걷히면서 베일에 싸여 있던 사르미엔토 산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이 산은 티에라델푸에고에서 가장 높은 산 중의 하나로 높이가 2천 미터에 달한다. 전체 높이에서 약 8분의 1에 해당하는 산의 아래쪽은 짙은 숲으로 덮여 있고 그 위쪽에서부터 산 정상까지는 눈으로 덮여 있다. 이런 엄청난 눈 더미들은 결코 녹지 않고 이 세상이 존재하는 동안 영원히 함께 있을 것처럼 보이면서 고상하고도 웅장한 장관을 연출한다. 산의 윤곽선은 뚜렷하고 명확해 감탄을 자아낼 만하다. 눈으로 덮인 산 표면에서 사방으로 햇빛이 반사돼 응달이 생기는 곳은 단 한 군데도 없으며, 하늘과 접하는 부분의 윤곽선만 구별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런지 산 전체가 더욱 뚜렷한 윤곽을 드러낸 채 서 있다. 빙하들이 눈 덮인 산 정상의 넓은 곳에서부터 구불구불한 경로를 따라 해안선으로 흘러내려 오는 모습은 마치 거대한 나이아가라 폭포가 얼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 푸른 빙하로 폭포를 이루고 있는 모습은 흘러내리는 물 못지않게 아름답다. 밤이 되어서야 우리는 해협의 서쪽 지역에 도착했다. 하지만 물이 깊어 정박할 만한 곳을 찾기가 어려웠다. 결국

바다의 좁은 만에서 무려 열네 시간 동안이나 칠흑 같은 어둠 속에 계속 떠 있어야만 했다.

6월 10일 | 아침이 되자 태평양으로 순조롭게 항해를 계속했다. 서쪽 해안은 낮고 둥그스름한 언덕으로 화강암과 녹암으로 이루어진 불모지였다. 나버러 경은 그곳을 "보기만 해도 너무나 황폐한 땅"이기 때문에 남부의 황무지로 불렀으며, 실제 보아도 그가 얘기한 것처럼 매우 황폐했다. 주요 제도의 바깥 편에는 수많은 암석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으며, 그 위로 대양에서 밀려오는 큰 파도들이 끊임없이 사납게 휘몰아치고 있었다. 우리는 동부와 서부 지역의 격랑지를 뚫고 북쪽으로 조금 더 항해를 계속했는데 그곳은 은하수라 불릴 정도로 암초들이 많았다. 육지 사람들은 그런 해안을 한번 쳐다보기만 해도 일주일 동안 난파나 해난, 죽음과 같은 악몽에 시달릴 것이다. 이 광경을 뒤로하면서 우린 티에라델푸에고 섬과 영원한 작별을 고했다.

다음의 논의는 남아메리카 대륙의 기후와 생산물의 관련성, 설선 고도,[15] 그리고 비정상적으로 낮게 흘러내려 온 빙하, 그리고 남극 섬에 나타나는 영구 동토 지역에 관한 것이다. 이러한 논의 주제에 끌리지 않고 흥미가 없는 이들은 이 부분을 그냥 넘어가거나 마지막에 있는 개괄적 설명만 읽어도 된다. 여기서는 단지 적요 부분만 제시하고자 하므로, 자세한 것은 이보다 앞서 발행된 이 책의 13장과 부록을 참고하기 바란다.

티에라델푸에고와 남서 해안, 두 지역 기후와 생산물에 관하여 다음 표에서는 티에라델푸에고와 포클랜드 제도의 평균 기온을 나타냈고 이와 비교하기 위해 더블린의 기온을 함께 제시했다.

섬 이름	위도	여름 기온	겨울 기온	여름과 겨울의 평균 온도
티에라델푸에고	남위 53도 38분	섭씨 10.0도	섭씨 0.6도	섭씨 5.3도
포클랜드 제도	남위 51도 38분	섭씨 11.0도	–	–
더블린	북위 53도 21분	섭씨 15.3도	섭씨 4.0도	섭씨 9.7도

15 만년설의 최저 경계선–역주.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티에라델푸에고의 중부 지방은 더블린보다 겨울에는 더 춥고 여름에는 섭씨 5.3도 이상 낮아 덜 더운 편이다. 폰부흐 씨에 따르면 노르웨이에 있는 살텐피오르의 7월(연중 가장 더운 달은 아니다) 평균 기온은 섭씨 14도이다. 실제 이 지역은 패민 항구보다 극지방 쪽으로 13도나 치우쳐 있는데도 말이다![16] 티에라델푸에고의 기후가 피부로 느끼기에는 생물들이 살기에 적합하지 않은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록수는 울창하게 자라고 있다. 남위 55도에서는 꽃의 꿀을 먹는 벌새와 윈터스바크 씨를 먹는 앵무새를 볼 수 있다. 그리고 그 지역의 주변 바다에 얼마나 많은 생명체들이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미 언급한 바 있다. 소어비 씨에 의하면, 이곳의 조개류(삿갓조개Patellae, 구멍삿갓조개Fissurella, 군부Chitons, 바나클Barnacles)는 북반구에 살고 있는 유사한 종들에 비해 훨씬 크고 생장이 빠르다. 크기가 큰 홍줄고둥Voluta은 티에라델푸에고의 남부 지역과 포클랜드 제도에 많이 서식하고 있다. 남위 39도에 위치한 바이아블랑카에서는 대추고둥Oliva(크기가 큰 것들 중 하나임) 3종과 홍줄고둥 1~2종, 송곳고둥Terebra 1종이 가장 많이 서식하고 있다. 이 생물들은 열대 지역의 특징을 가장 잘 보여 주는 종들이다. 대추고둥이 아주 작은 것이라도 유럽의 남부 연안에 존재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나머지 2종은 유럽에 없는 것이 확실하다. 만일 어떤 지질학자가 위도 39도에 있는 포르투갈의 한 해안에서 대추고둥 3종과 홍줄고둥 1종, 송곳고둥 1종에 속하는 수많은 조개류가 묻혀 있는 지층을 발견한다면, 그는 아마도 그 조개류가 존재했던 지질 시대의 기후가 열대성이라고 단언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남아메리카의 경우로 미루어 보면, 그러한 추론은 틀릴 수도 있다.

남아메리카 대륙의 서쪽 해안선을 따라 위도상으로 많이 올라가더라도 온도

16 티에라델푸에고의 온도는 킹 함장의 관찰 결과(《지리학회지》, 1830년)와 비글호 선상에서 측정한 것을 토대로 했다. 포클랜드 제도의 온도는 연중 가장 더운 달인 12월, 1월, 2월의 평균 온도(자정, 오전 8시, 오후 8시에 정확하게 측정한 온도로 계산한 것임)를 평균해서 얻은 것으로 설리번 함장의 도움을 받았다. 더블린의 기온 값은 바튼으로부터 얻었다.

만 약간 올라갈 뿐, 티에라델푸에고처럼 온화하고 습기가 많으며 바람이 많이 부는 기후가 계속된다. 혼 곶에서 북쪽으로 960킬로미터에 있는 삼림 지대도 매우 비슷한 기후 조건을 나타낸다. 북쪽으로 480~640킬로미터를 더 올라가더라도 기후가 같을 것이라는 증거는, 칠로에 섬(위도상 스페인의 북부 지역과 상응함)에서는 딸기나 사과가 잘 맺히지만 복숭아는 좀처럼 잘 맺지 못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그곳은 보리와 밀[17]조차도 집 안으로 들여와 건조시키고 익혀야만 한다. 발디비아 지방(위도상으로는 마드리드와 같은 40도에 위치함)에서는 포도나 무화과가 익기는 하지만 흔한 일은 아니다. 올리브는 부분부분 덜 익고 오렌지는 아예 익지 않는다. 반면 북반구에서 위도상으로 같은 유럽에서는 이 과일들이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잘 익는다. 그리고 남아메리카 대륙에서 위도상으로는 발디비아와 같은 지역인 네그로 강 유역에서는 고구마(메꽃속)가 잘 재배될 뿐만 아니라 포도, 무화과, 올리브, 오렌지, 수박, 머스크멜론과 같은 과일들이 풍부하게 생산된다. 비록 칠로에 섬과 그곳의 남, 북부 해안 지역의 기후가 온화하고 습해서 과일이 잘 익지는 않지만, 위도 45도와 38도 사이의 지역은 거의 열대 지역 못지않게 식물들이 왕성하게 자라나 자연 수림으로 무성하게 우거져 있다. 외떡잎 기생식물들은 수피가 매끄럽고 진한 색조를 띠는, 온갖 종류의 나무들 위에서 자라고 있다. 우아한 자태를 뽐내는 큰 고사리들이 많으며, 나무처럼 생긴 풀들이 지상 9~12미터까지 나무를 휘감으며 얽혀 있다. 야자나무는 위도 37도 부근에서 자라고, 대나무와 매우 비슷하게 생긴 나무 모양의 풀들이 위도 40도 부근에서 자란다. 그리고 이와 유연관계는 있지만, 줄기가 길고 직립성이 아닌 또 다른 식물종이 멀리 남위 45도 부근에서 무성하게 자라고 있다.

온화한 기후가 나타나는 이유는 분명히 육지에 비해 바다가 넓기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기후는 남반구의 넓은 지역에 걸쳐 나타나고 그 결과 식물의 생활형에 아열대의 특징이 나타난다. 나무고사리가 위도 45도의 반디멘스랜드에

17 아귀에로스, 《칠로에 지방에 대한 자연사적 기술》(1791), 94쪽.

서 무성하게 자라고 있었는데, 그 나무 둘레를 측정해 보니 최소 1.8미터는 됐다. 위도 46도에 위치한 뉴질랜드에서 포스터는 나무고사리를 발견했는데, 그 나무 위로 난초과 식물들이 기생하고 있었다. 디펜바흐 박사[18]에 의하면 오클랜드 제도의 고사리는 거의 나무고사리라 할 만큼 줄기가 굵고 크다고 한다. 그리고 이 제도뿐만 아니라 멀리 남쪽으로 위도 55도에 이르는 매쿼리 제도까지 많은 앵무새들이 서식하고 있다.

남아메리카에서 설선 고도와 빙하의 하강에 관하여 다음 표의 근거에 대해 자세히 알고자 하는 사람은 이 책의 전판을 참고해야 한다.

위도	설선 고도(미터)	관찰자
적도 지역 : 평균 결과	4724	훔볼트
볼리비아, 남위 16~18도	5100	펜틀랜드
칠레 중부, 남위 41~43도	4350~4500	길리스와 본 저자
칠로에, 남위 41~43도	1800	비글호 장교와 본 저자
티에라델푸에고, 남위 54도	1050~1200	킹

만년설로 덮여 있는 지면의 고도는 주로 그해의 평균 온도보다는 여름철의 최고 온도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여름철에 선선한 마젤란 해협의 설선 고도가 해발 1050~1200미터 정도까지 아래로 내려온다고 해서 놀랄 필요는 없다. 노르웨이에서는 북극 방향으로 위도 14도가량을 더 올라간, 즉 북위 67~70도 근처 지역까지 가야 이 정도 높이의 만년설을 볼 수 있다. 칠로에 섬 뒤쪽의 코르디예라 산맥(최고 높이는 단지 1680~2250미터에 불과하다)의 설선 고도와 칠레 중부[19](위도로 9도 정도 떨어져 있다)의 설선 고도차가 약 2천7백 미터에 이른다는

18 이 저널의 독일어 번역판을 보라. 또 다른 사실을 알고 싶으면 브라운 씨가 쓴 《플린더스의 항해기》의 부록을 보라.

19 칠레 중부의 코르디예라 산맥에서는 여름의 기후 조건에 따라 설선 고도가 매우 심하게 달라진다고 생각한다. 여름이 매우 건조하고 긴 경우, 높이가 무려 6천9백 미터나 되는 아콩카과 산에서 눈이 모두 없어지는 것을 확인했다. 이는 아마도 그렇게 높은 곳에 있는 눈이 녹았다기보다는 대부분 증발해 없어진 것 같다.

사실은 정말 놀라운 일이다. 칠로에 섬의 남부 지역에서 시작해 위도 37도 부근의 콘셉시온 지방까지의 땅은 물방울이 뚝뚝 떨어질 정도로 습한 밀림으로 덮여 있다. 그곳의 하늘은 흐리고 또한 남유럽성 과일들을 수확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익히 알고 있다. 반면에 콘셉시온에서 북쪽으로 약간 올라간 칠레 중부 지역은 하늘은 대체로 맑고 일곱 달 동안 지속되는 여름에도 비가 내리지 않아 남유럽성 과일들을 만족할 만큼 수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탕수수까지도 잘 재배된다.[20] 위도상으로 콘셉시온에서 멀지 않은 이곳에서 콘셉시온의 설선 고도보다 2천7백 미터나 위쪽에 만년설이 덮여 있다는 사실은 의심의 여지가 없으며, 이는 세계 어느 곳에서도 그 유례를 찾을 수 없다. 이곳 콘셉시온에서부터는 땅이 숲으로 덮이지 않는다. 왜냐하면 나무들이 자란다는 사실은 바로 비가 많이 내리는 기후임을 뜻하고, 또한 비가 내린다는 것은 하늘이 흐리고 여름이 덥지 않다는 것을 시사하기 때문이다.

내 생각에 바다 쪽으로 빙하가 내려가는 것은 해안 근처의 경사진 산에서 설선 고도가 낮아지는 것과 관계있는 것 같다(물론, 빙하 위쪽에서 눈이 계속해서 적절히 공급된다는 전제하에 말이다). 티에라델푸에고 지역에서는 설선 고도가 매우 낮기 때문에 많은 빙하들이 바다에 도달할 것이라고 예상했음에도 불구하고, 북반구의 위도상으로 컴벌랜드 지방에 해당하는, 높이가 9백~1천2백 미터밖에 되지 않는 계곡들이 바닷가로 흘러내리는 빙하로 가득 채워져 있는 것을 처음 봤을 때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티에라델푸에고뿐만 아니라 북쪽으로 펼쳐진 1040킬로미터의 해안에서 내륙의 높은 산맥을 지나 바다로 향하는 거의 모든 지류는, "거대하고도 놀라운 빙하"로 끝이 나 있다. 엄청난 크기의 얼음들이 이 얼음 절벽에서 자주 떨어져 내리는데, 그때의 굉음은 군함의 대포 소리처럼 적막한 수로를 따라 울려 퍼진다. 이 책의 앞 장에서 얘기한 것처럼, 얼

20 미어스의 《칠레》 1권, 415쪽. 사탕수수가 위도 32~33도의 인헤니오 지방에서 자라기는 하지만 이익이 생길 만큼 생산량이 충분하지는 않다고 한다. 인헤니오의 남쪽에 있는 키요타 계곡에서 커다란 대추야자나무 몇 그루를 봤다.

음이 떨어지면 큰 물결이 일어나 주변의 해안선에 부딪히곤 한다. 지진이 일어나면 종종 바닷가 절벽으로부터 거대한 땅덩어리가 아래로 떨어진다고 하는데, 만일 이렇게 강한 충격이 이미 조금씩 움직이고 있는, 군데군데 균열이 나 있는 빙하 덩어리에 영향을 미친다면 얼마나 끔찍한 일이 일어나겠는가!(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21] 수로의 물들이 영향을 받아, 가장 깊은 수로 변의 바깥쪽까지 밀려 나갔다가 거대한 바위들을, 마치 수많은 찌꺼기가 섞여 있는 것처럼, 엄청난 힘으로 되몰아 올 것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프랑스 파리와 같은 위도상에 있는 에이레 해협에는 엄청난 크기의 빙하들이 있지만 주위의 산 중 가장 높은 산은 1860미터에 불과하다. 이 좁은 해협에서 한번은 약 50여 개의 빙산들이 바깥쪽으로 흘러내려 가는 것을 본 적이 있는데, 확실히 그 중 한 개의 높이는 적어도 50미터는 됐다. 빙산들 중에서 일부는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큰 돌들을 포함하고 있는데, 그 성분은 주위 산에서 볼 수 있는 점판암과는 다른, 화강암이나 기타 암석으로 되어 있다. 비글호와 어드벤처호의 항해에서 조사한 것 중 극지방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빙하는 위도 46도 50분에 위치한 페나스 만에서 볼 수 있었다. 그 빙하는 길이가 24킬로미터 정도이고 어떤 부분은 폭이 11킬로미터 정도인데 해안선을 따라 흘러내려 가고 있었다. 그러나 그 빙하에서 북쪽으로 몇 킬로미터 떨어진 라구나데산라파엘 지방에서 우연히 만난 스페인 선교사[22] 몇 사람은 바닷가의 좁은 만 쪽에서 "크기가 큰 것과 작은 것, 그리고 중간 크기까지 다양한 크기의 빙산들을 많이 보았다"고 말했다. 그런데 날짜가 우리 달력으로 6월 22일이고, 또한 위도상으로 본다면 바로 제네바 호수와 일치하니 놀랍지 않은가!

폰부흐 씨에 의하면, 유럽에서 바다까지 흘러내려 온 빙하 중 가장 남쪽에서 발견된 것은 위도 67도에 있는 노르웨이 해안에서다. 이곳은 라구나데산라파엘 지방에 비해 위도상으로는 20도 이상, 거리상으로는 1970킬로미터 정도

21 벌클리와 커민의 《웨이저호 실종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지진은 1741년 8월 25일에 일어났다.

22 아귀에로스, 《칠로에 지방에 대한 자연사적 기술》, 227쪽.

더 가까이 극지방 쪽에 위치하고 있다. 이곳 라구나데산라파엘 지방과 페나스만에서 빙하들이 발견되는 것에는 매우 놀라운 점이 있다. 바로 빙하가 흘러내려 온 해안선이, 대추고둥 3종과 홍줄고둥 1종, 송곳고둥 1종이 흔히 발견되는 항구에서 위도상으로 7.5도, 거리상으로는 720킬로미터 이내에 있다는 점이다. 또한 야자나무가 자라는 곳과 최대한 떨어져 있다 해도 9도 이내이며, 재규어나 퓨마가 달리고 있는 평원 지역과는 최대 4.5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 그리고 나무 모양의 풀들이 자라는 지역과는 2.5도보다 멀리 떨어져 있지 않고, (같은 남반구에서 서쪽 방향으로 본다고 해도) 난초과의 기생식물이 자라는 지역과는 2도 이내이며, 나무고사리가 자라는 곳과는 위도상으로 불과 1도도 떨어져 있지 않으니 그 얼마나 충격적인가! 위와 같은 사실들은, 표석들이 빙하에 의해 운반된 시기에 북반구에 나타난 기후와 관련해 보면 지질학적으로 큰 흥미를 불러일으킨다. 이 커다란 표석들이 티에라델푸에고 동부 지역이나 산타크루스의 고원 그리고 칠로에 섬까지 오게 된 과정들을 빙산 이론에 의해 얼마나 간단히 설명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여기서 상세히 기술하지 않겠다. 티에라델푸에고에는 수많은 표석들이 그 옛날 바다의 수로—지금은 대륙이 융기해서 물이 말라 버린 계곡으로 변했지만—를 따라 쭉 놓여 있다. 그 표석들에는 층리가 없는 거대한 진흙이나 모래가 섞여 있으며, 속에는 둥글고 모난 다양한 크기의 암편들[23]을 많이 포함하고 있다. 그 암편들은 빙산들이 좌초하면서 바다의 밑바닥에서부터 계속 퍼 올린 물질들 위로 계속 다른 물질들이 운반되어 와서 쌓인 것이다. 높은 산 부근에 놓여 있는 표석들은 빙하 그 자체에 의해 앞쪽으로 밀려 올라간 것이고, 산에서부터 멀리 떨어져 해저에 묻힌 표석들은 빙산에 의해 그곳으로 운반되었거나 해안선 내의 얼음 속에서 결빙되었다는 점을 의심하는 지질학자는 거의 없다. 표석의 운반에는 어떤 형태로든 얼음이 관련된다는 사실은 전 세계에 나타나는 지리적 분포로 명확히 알 수 있다. 남아메리카에서는 남극을 기준으로 할 경우 위도상으로 48도보다 더

23 《지질학회지》 6권, 415쪽.

면 곳에서는 표석을 볼 수 없는 반면에, 북아메리카에서는 북극을 기준으로 운반 한계점이 위도 53.5도까지 뻗어 있다. 그러나 유럽에서는 똑같이 북극을 기준으로 측정해 보면 위도 40도보다 더 먼 곳에서는 표석이 없다. 반면에 아메리카나 아시아, 아프리카의 열대 지역에서는 이들을 전혀 볼 수 없고, 희망봉이나 오스트레일리아에서도 마찬가지다.[24]

남극 제도의 기후와 생산물에 관하여 티에라델푸에고와 그 북쪽 해안의 식생들이 지나칠 정도로 무성하게 자라는 것을 보면, 아메리카의 남부나 서남부에 있는 제도諸島의 상태는 너무나 놀랍다. 위도상으로 스코틀랜드 북부에 해당하는 샌드위치랜드 지방은 연중 가장 더운 달에도 "만년설이 1~2미터에 이를 정도로 두껍게 덮여 있는" 채로, 쿡에 의해 발견되었는데, 거기에는 식물상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 것 같다. 위도상으로 요크셔와 같고 길이가 154킬로미터, 폭이 16킬로미터 정도 되는 조지아 섬도 이와 마찬가지로 "한여름에도 섬 전체가 얼어붙은 눈으로 덮여 있다". 이끼류나 총생 화서를 갖는 몇몇 초본류, 야생 오이풀만 자라고, 육상 조류의 한 종인 코렌데라논종다리Anthus correndera만 서식하고 있다. 그렇지만 매켄지에 의하면 극지방으로 10도 가까이 위치하고 있는 얼음 땅에는 육상 조류가 15종이나 서식하고 있다고 한다. 위도상으로 노르웨이의 남부 절반에 해당하는 남셰틀랜드 제도에는 지의류와 이끼, 그리고 작은 초본류들이 서식하고 있는데, 켄달 대위[25]는 정박지에서 우리 달력으로 9월 8일에 해당하는 시기부터 얼기 시작하는 것을 보았다고 한다. 이곳 토양은 얼음과 그 사이로 화산재가 들어간 지층 구조를 보이는데, 지표면 아래로 조금만 내려가도 영구 동결된 토양이 나타난다. 켄달 대위는 그곳에서 오래전에 묻힌 한 외국 선원의 시체를 발견했는데, 몸에 있는 살점이나 외

24 이 주제에 대해 초판(내가 알기로는 처음 발행된 책)과 그 부록에서 자세히 기술했다. 표석이 나타나지 않는 지역에서 예외적으로 표석이 발견된 것은 관찰에 오류가 있었기 때문임을 지적했고, 이후에 여러 저자들에게 확인한 몇 가지 사항을 그 책에서 같이 언급했다.

25 《지리학회지》(1830, 65~66쪽).

양 전체가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다고 한다. 북반구의 커다란 두 대륙에서(두 대륙 사이에 끼어 있는 유럽 대륙은 제외하고), 저위도 지역에 영구 동토층이 존재한다는 것은 매우 신기한 사실이다. 즉 북아메리카 56도의 영구 동토층은 그 깊이가 90센티미터 정도 되며, 62도에 위치한 시베리아에서는 그 층의 깊이가 무려 360~450센티미터에 이른다.[26] 이런 결과들은 남반구와는 정반대의 환경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북반구에서는 넓은 대륙으로부터 방출된 지열이 맑은 대기 속으로 대부분 복사되기 때문에 겨울에 몹시 춥고, 따뜻한 해류가 흘러와도 추위가 누그러지지 않는 반면에 여름은 매우 짧고 덥다. 남반구의 해양은 겨울이 그리 심하게 춥지 않을 뿐 아니라, 여름도 훨씬 덜 덥다. 왜냐하면 하늘이 흐려서 태양 광선이 좀처럼 바닷물을 따뜻하게 데울 수 없으며, 또한 바닷물 자체도 열을 잘 흡수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영구 동토층의 깊이를 조절하는 연평균 기온이 낮다. 확실한 사실은, 극심한 추위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데 그렇게 많은 외부 열을 필요로 하지 않는 무성한 나무들은 북반구의 극한 기후보다는 남반구의 온화한 기후에서 영구 동토층 쪽으로 좀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는 것이다.

팔라스가 시베리아에서 얼어 죽어 있는 코뿔소를 발견한 지역(북위 64도)보다 조금 저위도인 남셰틀랜드 제도(남위 62~63도)에서 한 선원의 시체가 완벽하게 보존되어 나타난 사실은 매우 흥미롭다. 바로 앞 장에서도 얘기했듯이 네발 달린 큰 동물들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풍부한 식물들이 필요하리라는 가정이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중요한 점은 남셰틀랜드 제도의 지표 하단에 위치한 영구 동토층이 혼 곶 근처에 있는 숲으로 뒤덮인 제도와 580킬로미터 이내에서 나타난다는 것이다. 그 섬들의 전체 식생의 양만 고려해 본다면 몸집이 큰 네발 달린 어떤 동물도 살아남을 수 있으리라. 시베리아 지역에 온전하게 보존되어 있는 코끼리와 코뿔소의 사체들은 확실히 지질학적인 관점에서 매우 놀라운 사실 중 하나다. 그렇지만 인근 지역에서 그 동물들이 먹이를 구하는 데

26 리처드슨이 쓴 《백의 탐험》의 부록과 훔볼트의 《아시아의 분리》 2권, 386쪽.

어려웠을 것이라는 점만 연관시키지 않는다면, 위의 모든 사실들이 보통 생각하듯, 그렇게 복잡한 것은 아니다. 시베리아 평원도 팜파스 평원처럼 바다 밑에서 형성된 것으로 여겨지며, 강을 따라 그쪽으로 많은 동물들의 사체가 흘러들어 왔을 것이다. 그 동물들 중 대부분은 골격만 남아 있지만 일부 동물의 몸체는 온전히 보존된 것도 있다. 현재 아메리카의 북극 해안에 있는 얕은 바다의 밑부분은 어는데,[27] 봄이 되어도 육지의 지표면만큼 그렇게 빨리 녹지 않는다고 한다. 하지만 이보다 좀 더 깊은 곳에 있는 해저 지층은 얼지 않으며, 표면에서 1~2미터 아래에 있는 진흙층은 여름철에도 섭씨 0도 이하를 유지한다고 한다. 육지에서는 지표면 아래로 1~2미터에 있는 토양도 마찬가지다. 좀 더 깊숙이 들어가면 진흙과 물의 온도가 동물들의 사체를 보존하기에 충분할 만큼 그렇게 낮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북극 해안 근처의 얕은 바다보다 더 깊숙이 떠내려간 사체들은 뼈만 보존되었을 것이다. 현재 시베리아 최북단에는 뼈들이 너무 많아서 작은 제도가 거의 뼈로 이루어져 있다 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다.[28] 이 제도는 팔라스 씨가 코뿔소 사체를 발견한 지역에서 북쪽으로 위도상 최소한 10도 정도 위쪽에 위치해 있다. 반면에 북극해의 얕은 바다 쪽으로 떠내려간 동물의 사체들은 여름철 더운물의 열기가 침투되지 않도록 곧바로 진흙으로 충분히 두껍게 덮인다면, 그리고 만일 그 해저 바닥이 융기해 육지로 된 경우 작열하는 태양에 의해 사체들이 녹거나 부패되지 않도록, 또한 여름철의 뜨거운 공기를 막을 수 있도록 진흙으로 충분히 덮여 있다면 사체들은 언제까지나 그대로 남아 보존될 것이다.

요약 남반구의 기후와 얼음의 작용, 그리고 생산물에 관한 주요 사실들을 우리에게 익숙한 유럽 쪽으로 옮겨 상상해 봄으로써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다. 그럼 시작해 보자. 리스본 부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바닷조개류, 즉 대추고둥 3종과 홍줄고둥 1종 그리고 송곳고둥 1종은 열대기후에서 볼 수 있는 특징

27 디스와 심슨, 《지리학회지》 8권, 218~220쪽.

28 퀴비에(《뼈 화석의 단층》 1권, 151쪽), 《빌링의 항해기》에서 인용.

을 나타낼 것이다. 프랑스의 남부 지방은 땅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우거진 숲으로 덮여 있는데, 그곳에는 나무 모양의 풀들이 얽혀 있으며 나무들 위로는 기생식물이 자라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퓨마와 재규어가 피레네 산맥을 따라 출현할 테고, 위도상으로는 몽블랑에 해당되지만 서쪽으로 북아메리카 중앙부만큼 멀리 떨어져 있는 섬에서는 나무고사리와 기생식물인 난초가 우거진 숲 사이에서 무성하게 자라고 있으리라. 조금 더 멀리 북쪽으로 덴마크 중부까지 가 보면 벌새들이 달콤한 꽃 사이로 날갯짓하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며 또한 앵무새들이 상록수 사이에서 먹이를 구하는 모습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곳의 바닷가에서는 홍줄고둥 1종을 볼 수 있는데 모두 크고 잘 자라는 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 곶에 해당하는, 덴마크 지역에서 북쪽으로 576킬로미터만 더 가면 나타나는 몇몇 제도에서는 토양 속에 묻혀 있는(또는 얕은 바다로 씻겨 내려와 진흙으로 덮인) 동물의 사체들이 영구 냉동된 상태로 보존되어 있을 것이다. 만일 몇몇 대담한 항해자가 이러한 제도 사이를 뚫고 북쪽으로 항해를 계속해 나아간다면 엄청나게 큰 빙산들에 둘러싸이는 위험한 상태를 수없이 당하리라. 그는 빙산 일부에서 큰 암석 덩어리를 발견할 수 있을 텐데 그 암석은 생성된 곳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나온 것이다. 위도상으로 스코틀랜드 남부에 해당하지만 거리상으로 서쪽으로 두 배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또 다른 큰 섬은 “거의 섬 전체가 만년설로 덮여 있으며”, 바다로 통하는 각 지류의 끝은 얼음 절벽으로 되어 있어 해마다 엄청난 얼음 덩어리들이 아래로 떨어져 내릴 것이다. 그 섬에는 약간의 이끼류와 풀, 야생 오이풀만 자랄 뿐이며, 논종다리가 유일한 육상 동물일 것이다. 덴마크의, 혼 곶에 해당하는 지역으로부터 산맥 하나가 정남향을 향해 일직선으로 뻗어 있다. 알프스 산맥 높이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그 산맥의 서쪽 경사면에 있는 바다 쪽으로 통하는 깊은 협만, 즉 피오르드는 모두가 “크고도 놀라운 빙하”로 끝이 난다. 이 호젓한 수로에 얼음이 떨어지면서 내는 소리가 자주 울려 퍼질 것이며, 이때마다 큰 파도가 생겨나 해안선 쪽으로 들이칠 것이다. 수많은 빙산들이, 일부

는 대성당만큼 높은 것도 있고 때로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암석 덩어리”를 포함하는 것도 있는데, 바깥쪽에 위치한 여러 섬들 주위에 좌초될지도 모를 일이다. 일정한 시간 간격을 두고 일어나는 격렬한 지진이 거대한 얼음 덩어리들을 물 아래로 떨어뜨릴 것이다. 마지막으로, 바다와 연결된 긴 지류를 건너려는 몇몇 선교사들은 그리 높지 않은 주변의 산으로부터 바닷가로 흘러내리는 거대한 빙하를 볼 수 있으리라. 그리고 물 위에 떠 있는, 크기가 다양한, 수많은 빙산들이 보트를 타고 나가는 데 큰 걸림돌이 될 것이다. 우리 달력으로 계산하면 6월 22일에, 어딘가 하면 제네바 호수가 넓게 펼쳐져 있는 곳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 아닌가![29]

29 이전에 발행된 책과 그 부록에서, 대서양의 빙산과 표석의 운반에 대한 몇 가지 사실을 기술한 바 있다. 이 주제는 최근에 헤이스 씨가 《보스턴 저널》에서(4권, 426쪽) 훌륭하게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그는 육지에서 160킬로미터 정도, 아마도 더 멀리 떨어진 대서양 한가운데 떠 있는 빙산에 묻혀 있는 커다란 표석에 대해 내가 발표한 내용(《지리학회지》, 9권, 528쪽)을 모르고 있는 것 같다. 그 부록에서 빙산이 해저에 걸리면 빙하처럼 해저 암반에 홈을 내고 깎아 낼 가능성(당시에는 거의 생각하지 못했던)에 대해 길게 논의한 바 있다. 이것은 요즈음에는 쉽게 받아들여지지만, 쥐라 산맥에서도 이러한 견해가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의구심을 숨길 수가 없다. 리처드슨 박사는 북아메리카의 빙산들이 진행 방향에 있는 자갈이나 모래를 밀고 나가기 때문에 해저 암반은 아무 것도 없는 평평한 상태가 되어버린다고 나에게 자신 있게 말했다. 이러한 해저 암반이 해류가 흐르는 주요 방향으로 깎이고 긁혀 있다는 것은 거의 의심의 여지가 없는 사실이다. 이 부록을 서술한 이후에, 북웨일스에서 빙하와 바다에 떠 있는 빙산들이 서로 유사하게 작용하는 것을 본 적이 있다.(《런던 자연사 잡지》, 21권, 180쪽)

● 다윈은 마젤란 해협으로 들어와 티에라델푸에고 섬을 떠날 때까지 보았던 여러 육상 생물들과 바다 생물들, 그리고 빙하의 형성이나 표석의 이동 등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후반부의 요약편에는 이 지역의 특징들을 위도상 같은 유럽 대륙의 여러 지역들과 서로 비교해 가면서 재미있게 설명하고 있다.
원주민에 대해서는 과거에 만났던 파타고니아의 키 큰 인디오의 모습과 행동, 패민 항에서 만났던 티에라델푸에고 원주민들을 간단히 기술하는데, 원주민에 대한 표현은 다소 영국인의 시선을 기준으로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솔직하게 잘 드러내고 있다. 다윈에게는 파타고니아 인디오들이 티에라델푸에고 원주민들보다는 인상이 더 좋게 남았던 것 같다.
다윈은 티에라델푸에고 섬 부근의 특징을 얘기하면서 방문했던 시기가 초겨울인지라 과거에 들렀을 때 봤던 지역의 모습이나 여러 생물들을 회상하면서 서술하는 부분도 포함되어 있다. 다윈은 타른 산을 오르면서 느꼈던 밀림 속의 적막함과 어두움을 잘 나타내고 있으며, 이곳 기후나 식생의 단조로움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식물종이나 동물들에 대해 많이 기술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잘 나타나는 키 작은 고산식물이나 윈터스바크, 너도밤나무보다는 티에라델푸에고 원주민들의 주식이 되는 곰팡이의 모습이 자세히 묘사되어 있다. 다윈에게는 원주민들이 생으로 먹는 민꽃식물이 주식이 된다는 점이 신기했던지 세계에서 이곳이 유일할 것이라며 놀라고 있다. 동물에 대해서는 출현종이 빈약하여 투코투코나 게잡이여우 등 몇 종의 포유동물에 대해서 간단히 언급하며 파충류는 전혀 볼 수 없었다고 얘기한다. 새에 대해서는 어둠침침한 숲에서 흔히 나타나는, 나무타기새 종류인 옥시우루스 투피니에리를 나무발바리의 행동들과 비교하면서 기술하고 있다. 그리고 고산성 환경에서 보이는 갈색뾰족쨈물우렁이를 민물 달팽이로 생각했지만 물과 멀리 떨어진 축축한 초지 위에서도 서식하기 때문에 육상 달팽이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도 제시한다. 다윈은 마젤란 해협을 두고 양쪽 두 지역의 모습에서 나타나는 유사성을 얘기하면서, 과거에는 두 지역이 서로 붙어 있어 투코투코나 토끼쥐같은 동물

들도 지나다녔을 수 있었을 것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호스테 섬과 나바린 섬에서 보이는 지층의 차이를 설명하면서 모양이 서로 들어맞는다고 하여 땅이 붙어 있었다는 완전한 증거가 될 수 없음을 설명하고 있다. 흥미로운 사실은 다윈이 나바린 섬에서는 여우와 과나코를 모두 볼 수 있었지만, 단지 폭이 1킬로미터 조금 안 되는 좁은 수로에 의해 분리되어 있는 호스테 섬에서는 위의 두 동물을 전혀 발견할 수 없었다는 점이다. 지리적 격리를 통한 종의 분포가 달라지고 이에 따른 종의 적응과 일련의 자연선택 과정이 나타나는 그의 진화론적 사고의 단편을 볼 수 있는 장면이다. 이러한 예는 다윈이 언급한 티에라델푸에고와 파타고니아 두 지방의 일반적인 지형이나 기후뿐만 각각에 서식하는 곤충의 종류에서도 극명하게 드러나 있다. 두 지역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곤충은 한 종도 없고, 곤충들의 일반적인 특징들도 확연히 다르다고 다윈은 확신에 찬 글로 주장하고 있다.

한편, 다윈은 이 근처 해양의 자이언트 켈프를 관찰하면서, 그 속에 보이는 해양성 생물의 다양성이나 수중생태계를 자세히 묘사하고 있다. 거대한 수중 해초대인 자이언트 켈프가 바다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서 시작하여 물속에서 자라나는 과정과 모습의 특징들을 세밀하게 묘사하고 있다, 그리고 이로 인한 생태계의 먹이사슬 관계를 원주민의 생활형 결정 여부까지 생각의 고리를 이어가면서 그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다윈은 마젤란 해협을 떠나 턴 곶에서 티에라델푸에고 섬에서 가장 높은 산중의 하나인, 뚜렷한 윤곽선으로 나타나는 사르미엔토 산의 고상하고도 웅장한 모습과 더불어 마치 거대한 나이아가라 폭포가 얼어 내려오는 듯한 모습을 보고 감탄한다. 다윈은 이를 보자마자 마치 빙하에 대한 자신의 생각들이 일련의 연쇄반응이 일어난 것처럼 후반부에 아주 많은 지면을 할애하면서(부록처럼 되어 있지만) 재미있게 기술하고 있다. 다윈은 이장의 끝부분에서 지금까지의 여정에서 보았던 관찰의 결과들을 마치 중간 정리하듯이 몇 개의 주제별로 나누어 자신의 생각이나 주장을 정리하고 있다. 특히 사체가 지각층에서 뼈만

남을 수 있는 환경이나 아니면 냉동된 채로 온전히 잘 보존되는 환경조건 등을 여러 가지 과학적 자료를 제시하면서 과학적으로 추론하고 있다. 그의 박학다식함으로부터 배어 나오는 여러 현상들에 대한 설명은 매우 큰 설득력을 갖고 있음을 새삼 느끼게 하는 대목이다. 그리고 종합편에 해당하는 개요 부분에서는 북반구의 유럽 대륙과 비교하면서 기술하고 있어, 남아메리카의 특이하고 신기한 여러 현상들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리라 본다.



칠레 중부 지역



제12장
칠레 중부 지역

발파라이소–안데스 산맥 기슭 답사–칠레의 지형–키요타 계곡의 벨 산 등반–흩어져 있는 녹색 암반들–거대한 계곡–광산–광부들의 근무 조건–산티아고–카우케네스 온천–금광–분쇄기–구멍 뚫린 돌–퓨마의 습성–엘 투르코와 타파콜로–벌새

7월 23일 | 비글호는 밤이 늦어서야 칠레의 주요 항구인 발파라이소 만에 정박했다. 아침이 되자 항구의 모습이 찬란히 드러났다. 티에라델푸에고를 떠난 이후 기후는 매우 좋았다. 대기는 건조하고 하늘은 맑고 푸르며 태양은 밝게 빛나고 있다. 자연의 모든 것들이 생명력으로 충만해 있는 것 같다. 정박한 곳에서 바라보는 풍경도 무척 아름답다. 도시는 약 480미터 높이의 약간 경사진 낮은 산맥의 기슭에 세워져 있는데, 그곳으로부터 기다란 길 하나가 무질서하게 뻗어 나와 해안선과 나란히 달린다. 좁은 골짜기가 있는 곳은 어디에나 그 양편으로 집들이 늘어서 있다. 매우 빈약한 식생으로 듬성듬성 덮여 있는 둥그스름한 산에는 무수히 많은 작은 골짜기가 발달해 있다. 그 골짜기는 보기 드문 밝은 붉은색 토양으로 덮여 있다. 이런 골짜기와 그 아래로 타일 지붕에 희게 회칠한 집들이 어우러진 풍경은 테네리페의 산타크루스를 연상하게 한다. 북서쪽에서는 안데스 산맥이 어렴풋하게 보이나, 이 근처 산 위에서 보면 훨씬 더 웅장해 보이며, 산맥까지의 거리가 상당하다는 것을 좀 더 쉽게 감지할 수 있다. 아콩카과 화산은 특히 장대하다. 이 거대하고 불규칙한 원추형 덩어리는 침보라소 산보다 더 높다. 비글호의 사관 한 명이 높이를 측정해 보니 최소한 6천9백 미터는 되는 것 같았다. 그러나 이곳에서 코르디예라 산맥이 그토록 아름답게 보이는 것은 대기층과 조화를 이루기 때문이다. 해가 태평양으로 질 때, 울퉁불퉁한 산의 형상이 얼마나 선명하게 드러나는지 그리고

그것들이 만들어 내는 땅 그림자의 색이 얼마나 다양하고 미묘한지 감탄스러울 따름이다.
이곳에서는 운 좋게도 학교 동창이자 친구인 리처드 코필드를 만나 그의 집에서 묵었다. 비글호가 칠레에 머무는 동안 여러 가지로 베풀어 준 친절과 호의에 깊은 고마움을 보낸다. 발파라이소 인근은 자연사학자에게는 별로 얻을 것이 없다. 긴 여름 동안 바람은 남쪽으로부터, 그리고 해안과 약간 떨어진 곳에서 끊임없이 불어오고 비는 전혀 내리지 않는다. 그러나 겨울 석 달 동안은 충분히 내린다. 때문에 식생은 아주 빈약하다. 깊은 골짜기 몇 개를 제외하면 나무 한 그루 없고 풀 조금과 키 작은 덤불 몇 개만이 완만한 산 사면에 흩어져 있다. 이곳으로부터 남쪽으로 560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안데스 산맥의 이쪽 사면은 사람이 들어갈 수 없을 정도의 숲으로 완전히 덮여 있어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나는 자연사自然史 자료를 모으기 위해 멀리까지 돌아다녔다. 이 지역은 산책하기에 아주 알맞다. 아름다운 꽃들이 많고, 건조한 다른 지역에서처럼, 풀과 관목들은 독특한 냄새를 강하게 풍겨 옷깃이 살짝 스치기만 해도 냄새가 배어든다. 매일매일 계속되는 화창한 날씨에 경탄을 금할 수가 없다. 날씨에 따라 우리의 기분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구름으로 반쯤 가려진 검은 산맥을 볼 때와 맑은 날 희미한 푸른 안개에 싸여 있는 또 다른 산맥을 볼 때 느끼는 감정은 얼마나 대조적인가! 앞의 장면은 잠시나마 매우 장엄한 느낌을 갖게 하며, 뒤의 것은 유쾌하고 행복한 기분을 느끼게 한다.
8월 14일 | 안데스 산맥 기슭의 지질을 조사하기 위해 말을 타고 답사를 떠났다. 그곳은 연중 이맘때만 눈이 녹는다. 답사 첫날에는 해안을 따라 북쪽으로 갔다. 어두워진 후에 킨테로 대농장에 도착했는데, 이곳은 예전에 코크레인 경의 사유지로, 거대한 조개 화석 지대가 있다기에 보러 온 것이다. 조개 화석 지대는 해수면 보다 몇 미터 위에 있는데, 이를 태워서 석회를 만드는 재료로 이용한다. 해안선을 따라 이쪽 지층 전체가 상승했다는 증거는 명백하다. 몇십 미터 높이에서도 오래된 조개껍데기를 많이 발견했고, 390미터 높이에서

도 몇 개를 발견했다. 이 조개껍데기들은 땅 위에 그냥 흩어져 있거나 검붉은 식물성 부식토에 파묻혀 있다. 현미경으로 이 식물성 부식토를 관찰해 보니 놀랍게도 그것은 바다의 진흙이 쌓인 것이었고 그 속에 미세한 유기물 입자가 꽉 들어차 있었다.

8월 15일 | 우리는 키요타 계곡을 향해 돌아왔다. 그곳의 풍경은 목가적인 시를 연상케 한다. 넓은 풀밭 곳곳에는 시냇물이 흐르는 작은 계곡이 있고 언덕배기 곳곳에 양치기 움막 같은 오두막집이 흩어져 있다. 우리는 칠리카우켄 산맥을 넘어가야 했는데, 이 산맥 기슭에 있는 물이 흐르는 골짜기에는 상록수들이 우거져 있다. 발파라이소 인근 지역만 본 사람이라면 아마도 칠레에 이토록 아름다운 곳이 있다는 것을 상상하기 어려울 것이다. 시에라 산맥의 끝에 서자 키요타 계곡이 바로 우리 발아래 펼쳐졌다. 매우 인위적으로 조성된 풍요로운 광경이다. 계곡이 매우 넓고 평평해서 모든 부분에 쉽게 물을 댈 수 있다. 작고 네모난 과수원에는 오렌지와 올리브 나무를 비롯한 온갖 종류의 식물들이 꽉 들어차 있다. 이와 대조적으로 계곡 양쪽에는 거대한 민둥산이 솟아 있어 식물들이 알록달록하게 덮여 있는 계곡이 더욱 아름답게 보인다. 발파라이소를 '낙원의 계곡'이라고 부른 사람은 틀림없이 키요타 계곡을 염두에 두었을 것이다. 우리는 벨 산 바로 아래 기슭에 있는 산이시드로 농장까지 가로질러 갔다.

칠레는, 지도에서 보는 것처럼 코르디예라 산맥과 태평양 사이에 있는 좁고 긴 땅이다. 이 좁고 긴 땅을 여러 개의 산맥이 가로지르는데, 이 지역에서는 그것들이 코르디예라 산맥과 평행하게 달리고 있다. 이 바깥쪽 산맥과 코르디예라 산맥 사이에 편평한 분지들이 작은 통로로 쭉 연결되어 남쪽으로 펼쳐져 있다. 이곳에 산펠리페,[1] 산티아고,[2] 산페르난도[3] 등 주요 도시들이 자리 잡

1 칠레 중부의 발파라이소 주에 위치한 도시. 산티아고 북쪽에 있다-역주.

2 칠레 중앙 안데스 산맥과 해안 산맥 사이에 전개된 분지 위에 있으며, 높이 450~650미터의 고지대에 위치한다-역주.

고 있다. 이러한 분지들과 그것들을 해안과 횡으로 연결해 주는 키요타 같은 편평한 계곡은 옛날에는, 오늘날 티에라델푸에고와 서부 해안을 가로지르는 것 같은, 바다의 후미나 깊숙한 만의 바닥이었음이 틀림없다. 옛날에는 칠레의 땅과 바다의 분포가 서부 해안 지역과 비슷했을 것이다. 낮은 곳이 평탄한 안개층으로 뒤덮이면 닮은 점이 뚜렷이 드러나곤 한다. 계곡으로 휘몰아 들어가는 흰 수증기는 작은 내포內浦나 만이었던 곳을 아름답게 드러내 보이고,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작은 봉우리들은 예전에는 그곳에 섬이 있었음을 보여 준다. 이런 편평한 계곡과 분지가 불규칙한 산맥들과 대비되어 나타나는 풍경은 나에게는 매우 새롭고 흥미로운 것이다.

이 평야는 산맥의 자연적인 경사면으로부터 바다 쪽까지 매우 쉽게 물을 댈 수 있어서 이상하리만치 비옥하다. 여름 내내 하늘에 구름 한 점 없으므로, 이러한 관개 과정이 없다면 이 땅에는 거의 아무것도 자라지 못할 것이다. 산과 언덕 곳곳에 덤불과 키 작은 나무들이 있을 뿐 그 외에 다른 식물은 거의 없다. 땅 주인들은 언덕 지대의 일부분을 소유하는데, 그곳에다 상당히 많은 수의 완전히 길들여지지 않은 소들을 키우고 있다. 1년에 한 번 대규모의 '로데오'가 열리면 모든 소들을 몰고 내려와 수를 세고 표시를 한다. 그중 몇 마리를 따로 떼어 내 개간지에서 키우며 살을 찌운다. 밀을 광범위하게 경작하고 인디오 옥수수도 많이 재배한다. 그러나 일반 노동자들이 주식으로 삼는 것은 콩 종류다. 과수원에는 복숭아와 무화과, 포도가 넘쳐 난다. 이러한 모든 이 점들로 미루어 보아 앞으로 틀림없이 이 지역의 주민들은 지금보다 더 잘살게 될 것이다.

8월 16일 | 농장 감독이 친절하게도 안내인과 새 말을 내줘서, 우리는 아침나절에 1920미터 높이의 캄파나 또는 벨 산이라 부르는 곳을 오르기 시작했다. 가는 길은 매우 험했지만 지질과 경관이 좋아 고생한 보람이 있었다. 저녁 무

3 칠레 중부 오이긴스 주에 있는 도시. 라파엘 강江 연안의 해발고도 339미터의 골짜기에 위치한다-역주.

렵, 아주 높은 곳에 있는 아과델과나코라는 샘에 도착했다. 과나코들이 그 샘의 물을 먹은 지 꽤 오래되었으므로 그 이름 또한 오래되었음이 틀림없다. 올라가는 동안 북사면에서는 관목 이외의 식물은 보지 못했으나 남사면에서는 약 5미터 높이의 대나무 한 그루를 봤다. 야자나무도 더러 있었는데, 고도가 최소한 1350미터 정도 되는 고지대에도 야자나무가 한 그루 있는 것을 보고 놀랐다. 이 야자나무는 그것들이 속한 과科치고는 못생긴 나무로, 줄기가 크고 가운데가 위아래보다 굵은 이상한 형상을 하고 있다. 칠레의 어떤 지역에는 그 수가 엄청나게 많은데 그것의 수액은 당밀을 만드는 데 유용하다. 페토르카 근처의 한 농장에서 수를 세어 보려고 했지만 수십만 그루 정도 센 다음 포기하고 말았다. 매년 이른 봄인 8월에 많은 나무를 베어, 나무 둥치를 땅바닥에 누인 다음 줄기 끝의 잎을 쳐낸다. 그러면 곧바로 나무 꼭대기에서 수액이 흘러나오기 시작하여 수개월 동안 지속된다. 그러나 이러기 위해서는 매일 아침 맨 꼭대기의 표피를 얇게 벗겨 새로운 면이 드러나게 해야 한다. 건강한 나무는 4백 리터 정도의 수액을 내는데, 이것은 모두 겉으로 보기에는 메말라 보이는 나무줄기의 수관 속에 들어차 있던 것이다. 햇빛이 강한 날에는 수액이 더 빨리 흘러나오며 나무 둥치를 자를 때 나무 끝부분이 언덕 위쪽으로 향하게 해야지 만약 아래쪽으로 향하면 수액이 거의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를 들었다. 아래쪽으로 향하면 중력 때문에 수액이 더 잘 나올 것 같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다. 수액을 끓여 농축시킨 것을 당밀이라고 부르는데, 맛이 일반 당밀과 아주 비슷하다.

우리는 샘 근처에서 말안장을 벗기고 밤을 보낼 준비를 했다. 밤 풍경은 좋았다. 공기는 맑아서, 42킬로미터 이상 떨어져 있는 발파라이소 만에 정박해 있는 배들의 돛대가 검은 줄처럼 뚜렷이 보였고 돛을 펴고 항해 중인 배들은 하얀 점으로 밝게 보였다. 앤슨은 그의 항해기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도 해안에 있는 자기 배가 보이는 것에 대해 놀라움을 표현했으나 그 이유로 관찰한 곳이 고지대였다는 점과 공기가 굉장히 맑았던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려하

지 않았다.

해가 지는 모습은 장관이었다. 계곡은 어두워졌지만 안데스 산맥의 눈 덮인 정상은 여전히 붉은빛이 감돌았다. 날이 어두워지자 우리는 작은 대나무 아래에 불을 피워 차르키charqui(얇게 저며 말린 고기)를 굽고 마테 차를 마셨다. 그러고 나니 몸과 마음이 매우 편안해져서 이렇게 야외에서 지내는 것이 더할 나위 없이 매력적으로 느껴졌다. 밤은 고요하고 모든 것이 정지된 듯싶었다. 간혹 산에 사는 비스카차의 날카로운 소리와 쏙독새의 희미한 울음소리만 들릴 뿐, 이 메마르고 타들어 가는 듯한 산에는 새나 곤충들조차 거의 살지 않는다.

8월 17일 | 아침에, 산 정상을 덮고 있는 험준한 녹색 바위를 기어 올라갔다. 이 바위는 흔히 그렇듯, 커다랗고 모난 조각으로 깨져서 곳곳에 흩어져 있다. 그러나 한 가지 놀라운 점은 깨진 면의 신선도가 제각각이라는 것이다. 어떤 것의 표면은 마치 그 전날 깨진 것처럼 신선한 반면에 어떤 것들에는 이끼가 막 자라기 시작했거나 또 어떤 것은 이끼가 자란 지 상당히 오래돼 보이는 것도 있다. 이는 분명히 잦은 지진 때문일 것이라고 믿자, 발아래의 느슨한 지층에서 빨리 벗어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러한 현상은 사람으로 하여금 쉽게 그럴 것이라고 믿게 하는 면이 있기 때문에, 지진이 일어나지 않는 반디멘스랜드에 있는 웰링턴 산을 오를 때까지는 그 믿음의 정확성을 의심했다. 그 산의 정상에서 이와 비슷한 돌조각들이 흩어져 있는 것을 봤다. 그러나 돌조각들 모두 수천 년 전에 현재의 위치로 굴러 온 것처럼 오래되어 보였다. 그날 하루는 정상에서 보냈다. 그때만큼 즐거웠던 때도 없다. 칠레는, 지도에서 보는 것처럼, 안데스 산맥과 태평양으로 둘러싸여 있다. 아름다움 그 자체인 광경을 보며, 캄파나 산맥과 그것과 나란히 달리는 작은 지맥들 그리고 그곳을 직각으로 지나는 드넓은 키요타 계곡에서 받았던 밋밋한 느낌이 되살아나면서 그 감동은 더해 갔다. 이 산맥들을 들어 올린 엄청난 힘에 놀라지 않을 자 누구이고, 그 큰 땅덩어리를 부수고 제거해서 평탄하게 만드는 데 소요된 억만금의 시간에 놀라지 않을 사람이 또한 누구인가! 파타고니아의 광대한 퇴적층

을 코르디예라 산맥 위에 쌓아 놓는다면 그 높이가 수백 미터 이상 올라갈 것이라는 점을 쉽게 생각해 낼 수 있다. 파타고니아 평원을 바라보며, 어떤 산맥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 그런 물질을 공급할 수 있었으며 또한 그러고도 완전히 없어지지 않을 수 있었는가에 놀랐던 감정이 되살아난다. 그때 받았던 놀라움과 산맥을—심지어 거대한 코르디예라 산맥까지도—잘게 부숴서 자갈과 진흙으로 만들 수 있는 어떤 강력한 시간의 힘에 대한 의구심은 지금도 없어지지 않았다.

안데스 산맥의 모습은 기대했던 것과 많이 달랐다. 설선[4]은 물론 수평이고 산맥의 편평한 정상까지도 이 선과 상당히 평행하게 보인다. 드문드문 떨어져 있는 여러 개의 봉우리나 원추형 꼭대기만이 화산이 어디에 있었고 지금은 어디에 존재하는지 보여 줄 뿐이다. 이런 이유로 안데스 산맥은 여기저기 탑이 세워져 있는 견고한 벽처럼 보이고, 칠레라는 나라에 완벽한 장벽 역할을 하고 있다.

금광을 찾으려는 사람들이 그 산의 거의 모든 부분에 구멍을 뚫어 놓았다. 칠레 전역에 걸쳐 금광을 찾는 데 혈안이 된 사람들에 의해 훼손되지 않은 곳이 거의 없다. 저녁에는 전날과 마찬가지로 모닥불 주위에 앉아 일행 두 명과 이야기를 나눴다. 칠레의 구아소guaso들은 팜파스의 가우초에 해당하지만 이들과는 매우 다른 유형의 사람들이다. 팜파스 지역의 나라들보다 칠레가 더 문명화되어서인지 칠레 사람들은 개성을 더 많이 잃어버렸다. 계급 간의 차이가 더 심해져서, 구아소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자신을 보통 사람들과 같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동행한 구아소들이 나와 한자리에서 식사하는 것조차 불편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알고 무척 놀랐다. 이런 불평등의 감정은 부유한 특권층이 존재하는 필연적인 결과다. 몇몇 대지주들은 1년에 영국 화폐로 5천에서 1만 파운드 정도를 번다고 한다. 내가 알기로, 이런 부의 불평등은 안데스 산맥 동쪽의 목축 국가에는 없는 현상이다. 이 나라에서는 친절을 받은 사람이

4 높은 산이나 극지에서 1년 내내 녹지 않고 남아 있는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의 경계선.

적절한 보답을 하지 않고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을 정도로 사심 없이 호의를 베푸는 사람을 만나기 어렵다. 칠레의 거의 모든 집들은 여행객에게 하룻밤 묵을 방을 내주기는 한다. 그러나 다음 날 아침에 약간의 돈을 요구하는데, 아무리 부자라도 2~3실링은 달라고 한다. 가우초는, 설사 그가 살인자라 하더라도, 신사인 데 비해 구아소는 거의 존경을 받지 못하는 천민이다. 이들 두 유형의 사람들은 일을 하는 데 있어 같은 면이 훨씬 많지만 습관과 옷차림은 다르다. 그러나 각각의 특징은 자신들의 나라에서는 보편적이다. 가우초는 말의 일부처럼 보이며 말을 타는 것 이외의 일에 자신의 열정을 쏟는 것을 수치스럽게 생각한다. 반면에 구아소는 들에서 일하는 노동자로도 고용될 수 있다. 가우초는 완전히 육식을 하지만 구아소는 거의 채식을 한다. 여기에서는 팜파스에서 보았던 흰 부츠와 통 넓은 바지, 붉은 칠리파 등의 그림 같은 복장을 볼 수 없다. 이곳에서는 검은색과 초록색 털실로 짠 각반을 덧댄 바지를 주로 입는다. 그러나 판초라는 외투는 두 곳 모두에서 입는다. 구아소가 제일 자랑하는 것은 신발에 붙어 있는 박차다. 그것은 비정상적으로 큰데, 크기를 재어 보니 박차에 붙어 있는 톱니의 지름이 약 15센티미터 정도 되고 각 톱니에는 위쪽으로 30개의 바늘이 붙어 있다. 등자도 거의 같은 크기이고 각각은 나무를 네모나게 깎은 후 안을 파낸 것으로 무게가 1킬로그램이 조금 넘는다. 아마도 구아소가 가우초보다는 올가미를 더 잘 다룰 수도 있으나, 파타고니아 지역의 특성상 구아소는 볼라를 사용하지 않는다.

8월 18일 | 산을 내려오며 시냇물과 멋진 나무들이 있는 아름다운 곳들을 지나왔다. 전에 묵었던 대농장에서 잠을 잔 뒤 이틀 연속 말을 타고 계곡을 거슬러 올라갔다. 우리가 지나쳐 온 키요타는 마을이라기보다는 온갖 묘목들을 모아 놓은 밭을 연상시킨다. 과수원에는 한 무더기의 복숭아꽃이 아름답게 피어 있고 이곳저곳에서 대추야자나무도 보인다. 그 나무는 매우 기품 있어 보이는데 원산지인 아시아나 아프리카 사막에 서식하는 것들도 틀림없이 훌륭할 것이다. 계속해서 키요타만큼 아름다운 산펠리페를 지났다. 이 지역에서 계곡은

넓어져 평야가 되고, 이는 코르디예라 산맥 기슭까지 펼쳐진다. 이런 지형이 칠레의 경관에서 매우 신기한 면이라고 앞서 언급한 바 있다. 저녁 무렵, 코르디예라 산맥 측사면의 계곡에 있는 하우엘 광산에 도착한 후 이곳에서 5일 동안 머물렀다. 우리가 묵었던 집의 주인은 광산의 소장이며, 영국 콘월[5] 지방 출신으로 약삭빠르기는 하나 좀 무식한 사람이다. 그는 스페인 여자와 결혼했고 고향으로 돌아갈 생각은 없는 듯했으나, 콘월 지방의 광산에 대한 그의 찬사는 끝이 없었다. "이제 조지 렉스가 죽었으니, 렉스 가문의 사람들은 몇 명이나 남았나요?" 등의 질문들을 나에게 해댔다. 이 렉스는 틀림없이 책을 많이 쓴 위대한 작가 피니스의 친척일 것이다.

여기에 있는 광산들은 구리 광산이다. 캐낸 광석은 배로 실어 스완지로 보낸 다음 그곳에서 제련해서 그런지 이곳의 광산은 영국과 비교할 때 이상하리만치 조용하다. 여기서는 연기나 용광로 또는 거대한 증기 엔진이 주변 숲의 고요함을 흩어 놓지 않는다.

칠레의 행정법 또는 구舊스페인 법이라 할 수 있는 법률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탄광 개발을 독려한다. 5실링만 내면 어떤 곳에서도 채굴할 수 있고, 5실링을 내지 않아도, 비록 다른 사람의 땅이지만, 20일간은 작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칠레식 채굴 방법이 가장 비용이 적게 든다는 것은 현재 잘 알려져 있다. 외국인들이 두 가지 주요 개선 방법을 알려 주었다고 한다. 한 가지 방법은, 황동석을 미리 융해점 이하에서 가열하여 환원시키는 것이다. 황동석은 영국의 콘월 지방에서는 흔한 광석으로, 처음 이곳에 도착한 영국 광부들은 칠레 사람들이 이것을 쓸모없다며 버리는 것을 알고는 놀랐다. 두 번째 방법은, 오래된 용광로에서 나온 광석의 찌꺼기를 갈아서 물로 씻는 것이다. 이런 과정을 통해 금속 입자들을 많이 회수할 수 있다. 이런 쇠 찌꺼기를 영국으로 운반해 가기 위해 노새에 가득 실어 해안으로 가져가는 것을 실제로 본 적이 있다. 그러

5 영국 잉글랜드 남서부에 있는 주-역주.

나 첫째 경우가 훨씬 더 관심을 끈다. 칠레 사람들은 황동석에는 구리가 전혀 없다고 확신하며 영국 사람들의 무지를 비웃는 반면, 영국 사람들은 반대로 그런 칠레 사람들을 비웃으며 가장 값비싼 광맥을 헐값에 사 갔다. 아주 오랜 세월 대규모로 광업을 해온 칠레 사람들이 원광을 제련하기 전에 약간 가열하여 불순물인 황을 제거하는 그런 간단한 방법을 몰랐다는 것은 이상하다. 이외에도 간단한 기계에 몇 가지 개선점이 도입되기는 했으나, 몇몇 광산에서는 아직까지도 지하수를 가죽 부대에 담아 사람이 지고 수직굴을 오르내리며 퍼내고 있는 실정이다.

광산의 날품팔이 노동자들은 일을 매우 많이 한다. 식사할 시간도 거의 없고, 여름과 겨울 동안 해 뜰 때부터 어두워질 때까지 일한다. 한 달에 1파운드를 받으며 식사를 제공받는다. 아침에는 무화과 열매 16개와 작은 빵 두 조각이 나오고, 점심에는 삶은 콩을, 저녁에는 밀을 잘게 부수어서 볶은 것을 준다. 고기 맛은 거의 못 본다. 1년에 12파운드로 가족들의 의식주를 책임져야 한다. 광산 자체에서 일하는 광부들은 한 달에 25실링을 받고 쇠고기 육포도 어느 정도 먹는다. 그러나 그들은 2~3주에 한 번씩만 그 궁핍한 숙소에서 집으로 내려온다.

이곳에 머물면서 이 거대한 산의 이곳저곳을 마음껏 돌아다녔다. 예상했던 대로 이곳 지질은 매우 흥미로웠다. 햇볕에 그을린 채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바위에는 녹색의 암맥이 수없이 관통하고 있는데, 이것들은 과거에 일어났던 지각 변동을 보여 준다. 키요타 계곡에 있는 벨 산 인근의 풍경처럼, 건조하고 황량한 산에 잎이 거의 없는 관목만 듬성듬성 나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선인장, 즉 부채선인장이 이곳에 매우 많은데, 둥그런 선인장 하나의 지름을 재봤더니 가시 부분을 포함해서 2미터나 되었다. 흔한 원통형의 가지가 있는 선인장은 길이가 4~5미터 정도 되고 가지의 둘레(가시 포함해서)는 1미터 내외다.

마지막 이틀간은 산에 눈이 너무 많이 와서 예의 그 흥미진진한 답사를 하지 못했다. 나는 이곳 주민들이, 이유는 모르지만 막연히, 바다의 만灣으로 믿고

있는 어느 호수에 가보려고 했다. 매우 건조한 시기에 물을 얻기 위해 그 호수로부터 수로를 파자는 제안이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이를 면밀히 검토한 마을의 목사는 만약 호수가 주민들이 믿고 있는 것처럼 태평양과 연결되어 있다면 칠레 전체가 물에 잠길 수 있으므로 그것은 너무 위험하다고 단언했다. 꽤 높은 곳까지 올라갔지만 눈이 너무 많이 쌓여서 이 놀라운 호수까지 가보지도 못하고 돌아오는 길에 고생만 했다. 내 생각에 우리는 말을 풀어놔야 했다. 그러지 않고서는 눈의 깊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 가늠할 수가 없다. 만약 말들을 풀어놓았다면 그것들이 껑충껑충 뛰는 것을 보고 눈의 깊이를 알아낼 수 있었을 텐데. 어두컴컴한 하늘은 금방이라도 새로운 눈보라를 일으킬 것 같아서 그곳에서 빠져나왔을 때 깊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우리가 기슭에 닿았을 무렵 폭설이 시작되었고 이것이 세 시간 전에 일어나지 않은 것은 천만다행이다.

8월 26일 | 하우엘을 떠나 산펠리페 분지를 다시 지나갔다. 태양은 눈부시게 빛나고 대기는 매우 맑은 전형적인 칠레의 날씨였다. 아콩카과 화산과 안데스 산맥에는 내린 지 얼마 안 된 눈이 두껍게 쌓여서 더욱 웅장하게 보였다. 우리는 이제 칠레의 수도인 산티아고로 가는 길이다. 세로델탈겐 봉을 지나 작은 오두막집에서 잤다. 그 집 주인은 칠레의 상태를 다른 나라와 비교하며, "어떤 나라는 두 눈으로 보고, 어떤 나라는 한 눈으로 보지만, 칠레는 어떤 눈으로도 본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 나의 입장입니다"라고 아주 겸손하게 얘기했다.

8월 27일 | 나지막한 산을 여러 개 지난 후 작은 분지인 기트론 평야로 내려왔다. 이와 같이 해발 3백~6백 미터의 높은 곳에 있는 분지에는 아카시아 두 종이 흔하다. 이것들은 키가 작고 서로 멀리 떨어져 자라는데 해안 근처에서는 결코 본 적이 없다. 그래서 이러한 분지에 또 하나의 독특한 풍경을 이룬다. 기트론 평야와 산티아고가 있는 넓은 평원을 나누고 있는 낮은 산맥을 지나자 모든 것을 압도하는 풍경이 펼쳐졌다. 완전히 평탄한 대지에는 아카시아가 부분적으로 덮여 있고 멀리 안데스 산맥의 눈 덮인 봉우리는 석양에 빛나고 있

으며 그 기슭에 수평으로 맞닿아 도시가 형성되어 있었다. 첫눈에 보아도 이 평원은 과거에는 내륙으로 뻗은 바다의 일부였음이 틀림없다. 평탄한 길에 닿자 전속력으로 말을 달려 어두워지기 전에 산티아고에 도착했다.

일주일 동안 산티아고에 머물면서 즐거운 일이 많았다. 아침에는 말을 달려 평원 여기저기를 돌아보았고 저녁에는 이곳에서 그 친절함으로 잘 알려진 영국 상인들과 식사를 했다. 도시 가운데 솟아 있는 산타루시아라는 작은 바위 언덕을 올라간 것도 빼놓을 수 없는 즐거움이었다. 그곳에서 바라본 풍경은 매우 멋있었고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아주 특이했다. 이러한 특이한 풍경은 멕시코 고원에 형성된 도시들에 공통된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이 도시에 대해서는 자세히 얘기할 것이 거의 없다. 부에노스아이레스와 똑같은 모델로 건설되었지만 그것만큼 아름답지도, 크지도 않다. 이곳으로 올 때는 북쪽으로 돌아왔으므로 발파라이소로 돌아갈 때는 남쪽의 직선 도로를 이용해 좀 더 멀리 돌아가기로 했다.

9월 5일 | 정오 무렵, 산티아고로부터 남쪽으로 10여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있는 마이푸 강에 도달했다. 거세게 흘러가는 큰 강을 가로질러 매우 조잡하게 만들어진 현수교 하나가 매달려 있었다. 짐승의 가죽으로 만든 로프의 만곡을 따라 나무토막을 촘촘히 배열하여 길을 만들었다. 군데군데 구멍이 뻥뻥 뚫려 있고 말을 끌고 가는 사람의 몸무게만으로도 무섭게 흔들거렸다. 저녁 무렵 평온한 농가에 도착했다. 그곳에는 매우 아름다운 아가씨가 여러 명 있었는데, 그녀들은 내가 단지 일시적인 호기심만으로 교회로 들어온 것에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하며 "우리 종교는 확실한데, 왜 당신은 천주교 신자가 되지 않는 건가요?"라고 물었다. 그녀들에게 나도 일종의 천주교 신자임을 납득시키려 했지만 그녀들은 내 말을 들으려 하지도 않고 "신부나 주교는 결혼하지 않습니까?"라는 내 말에 대해서만 이의를 제기했다. 주교에게 부인이 있다는 모순된 사실이 그들에게는 특히 충격으로 다가간 듯하다. 그녀들은 그런 터무니없는 사실에 놀라야 할지 두려워해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는 듯했다.

9월 6일 | 정남쪽으로 더 나아가 랑카과[6]에서 잤다. 한쪽은 높은 언덕으로, 다른 한쪽은 코르디예라 산맥으로 막혀 있는, 좁지만 평탄한 대지를 지났다. 다음 날에는 카차푸알 강의 계곡으로 올라갔다. 이 계곡에는 오래전부터 의학적으로 효험이 있다고 알려진 카우케네스 온천이 있다. 대개 왕래가 뜸한 곳에 있는 현수교는 강물이 얕아지는 겨울철에는 아래로 내려놓는다. 이 계곡이 바로 그런 경우여서 우리는 말을 타고 강을 건너야 했다. 강물은 깊지는 않으나 굵은 자갈 위로 빠르게 흘러가며 물거품이 부글부글 일고 있다. 선두에 선 사람은 매우 당황했고 말들이 앞으로 나아가는지 그 자리에 서 있는지조차 알기 어려운 상황이라, 다리를 건너는 것보다 더 마음에 들지 않았다. 눈이 녹는 여름에는 물이 지나간 흔적이 주변에 선명하게 남을 정도로 물살이 거세서 건너가지 못한다. 저녁 무렵 온천에 도착해서 닷새를 머물렀는데 마지막 이틀은 비가 많이 와서 꼼짝을 못했다. 온천 건물은 작고 초라한 방이 사각형으로 배열되어 있고 각 방에는 테이블과 의자가 하나씩 놓여 있다. 온천은 중부 코르디예라 산맥을 막 벗어나 야생의 아름다움이 넘치는 고요하고 적막한 계곡에 있다.

카우케네스의 미네랄 온천은 성층 암반을 가로질러 형성된 단층면에서 솟아나온다. 그 암반 전체에는 열작용의 흔적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다. 따뜻한 물이 나오는 구멍에서 상당한 양의 가스도 뿜어 나온다. 샘들은 서로 수 미터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지만 물의 온도는 제각각이다. 가장 온도가 낮은 물에서는 광물의 맛이 거의 느껴지지 않는 것으로 보아 샘마다 온도가 다른 것은 찬물이 섞이는 비율이 다르기 때문인 것 같다. 1822년에 대지진이 일어난 후 샘은 말랐고 거의 1년 동안 물이 나오지 않았다. 1835년에 일어난 지진도 많은 영향을 미쳐 물의 온도가 섭씨 52도에서 섭씨 36도로 변했다.[7] 땅속 깊은 곳에서 나오는 광천수일수록 표면에 가까운 곳보다 지각 변동의 영향을 더 많이

6 산티아고의 남쪽 약 80km 지점에 위치한 도시. 칠레 중부 오이긴스주州의 주도州都이다-역주.

7 1836년, 《철학 회보》에 있는 칼드클뢰.

받는 것 같다. 온천 관리인에 의하면, 여름에는 겨울보다 물이 더 뜨겁고 많다고 한다. 물이 더 뜨거운 것은 건기에 찬물의 유입이 줄기 때문이라고 어느 정도 추측할 수 있다. 그러나 물의 양이 늘어나는 것은 매우 이상하고 모순처럼 보인다. 내가 생각하기에, 비가 한 번도 오지 않는 여름에 물의 양이 주기적으로 증가하는 유일한 원인은 눈이 녹아 흘러내리는 것이다. 그러나 여름 동안 눈으로 덮여 있는 산맥은 온천으로부터 14~15킬로미터 정도 떨어진 곳에 있다. 나에게 이런 사실을 알려 준 사람의 말을 하등 의심할 이유가 없는 것이, 그 사람은 이곳에 여러 해 살면서 이런 현상에 대해 잘 아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런 현상이 사실이라면 매우 신기한 것이다. 왜냐하면 눈 녹은 물이 다공성 지층을 지나 열작용을 받는 지대까지 운반되어 와서 카우케네스의 관입암貫入巖에 나 있는 단층선을 따라 지표면으로 올라온 것으로 추측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런 현상이 규칙적이라는 것은 이 지역에서 열작용을 받은 암석이 그리 깊지 않은 곳에 분포한다는 것을 암시한다.

어느 날 말을 타고서 인가가 있는 가장 먼 곳까지 계곡을 따라 올라갔다. 그곳 바로 위에서 카차푸알 강은 두 개의 깊고 거대한 계곡으로 나뉘고 각각의 계곡은 안데스 산맥을 곧바로 관통하며 흐른다. 나는 높이가 1천8백 미터 이상은 될 것 같은 높은 산을 기어 올라갔다. 다른 모든 곳이 그렇듯 이곳의 풍경도 정말 흥미로웠다. 칠레에 침입해 주변 지역을 약탈해 간 핀체이라는 바로 이 계곡 중 하나를 통해 들어왔다. 이 사람이 앞에서 언급한 네그로 강가에 있는 대농장을 습격한 바로 그 사람이다. 그는 배교背敎한 스페인계 혼혈인으로, 많은 인디오를 모아서 팜파스의 어느 강가에 자리를 잡았다. 그를 추격하는 어떤 군대도 그곳을 발견하지 못했다. 그곳으로부터 출격해 이제까지 한 번도 지나간 적이 없는 길을 따라 코르디예라 산맥을 넘어와 농가를 습격하고 소들을 그들의 비밀 회합 장소로 몰아갔던 것이다. 핀체이라는 말을 잘 탔고 자기 주변의 사람들 모두에게 공평하게 잘 대해 주었으나 그를 따르기 주저하는 사람은 누구나 가차 없이 쏘아 죽였다. 로사스 장군은 바로 이 사람과 그 외 방

랑하는 인디오 부족을 섬멸하기 위한 전쟁을 수행한 것이다.

9월 13일 | 카우케네스 온천을 떠나 주도로로 접어들었다. 클라라 강에서 하룻밤 묵고 산페르난도까지 말을 달려갔다. 그곳까지 가면서 지나친 마지막 내륙 분지는 거대한 평원을 이루고 있었는데, 그 평원은 멀리 남쪽까지 뻗어 있어서 멀리 보이는 안데스 산맥의 눈 덮인 정상이 바다의 수평선 위에 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산페르난도는 산티아고로부터 약 19킬로미터 정도 떨어져 있다. 이곳에서 직각으로 돌아 해안 쪽으로 향했기 때문에 산페르난도는 내가 여행한 최남단 지점이 된다. 야킬에 있는 금광에서 묵었다. 그곳은 미국 사람인 닉슨 씨가 운영하는 곳으로, 그의 집에서 나흘 동안 지내며 많은 신세를 졌다. 다음 날 아침, 이곳에서 20여 킬로미터 떨어진 비교적 높은 산 정상 부근에 있는 광산에 가봤다. 가는 길에 가이 씨가 기록한[8] 떠다니는 섬으로 유명한 타구아–타구아Tagua-tagua 호수를 언뜻 봤다. 그 섬들은 여러 가지 죽은 식물의 줄기가 서로 뒤엉켜서 된 것으로 그 표면 위에 살아 있는 다른 식물이 뿌리를 내리고 있다. 구형이고 두께는 1.2~1.8킬로미터 정도 되며 상당 부분 물에 잠겨 있다. 바람이 불면 그 섬은 호수 이쪽에서 저쪽으로 왔다 갔다 하며 종종 소나 말들을 운반하기도 한다.

광산에 도착했을 때 그곳에서 일하는 많은 사람들의 안색이 너무나도 창백한 것에 놀라 닉슨 씨에게 그들의 근무 조건에 대해 물어봤다. 인부들은 지하 135미터 아래에서 약 1백 킬로그램의 광석을 운반하고 있었다. 이 짐을 지고 수직굴에 지그재그로 놓인 나무 둥치에 파인 홈을 밟고 올라와야 한다. 심지어 근육이 발달하지 않은 18~20세의 풋내기들도 간신히 바지만 걸친 채 이 무거운 짐을 지고 어른들과 거의 똑같은 깊이를 올라와야 한다. 이러한 노동에 익숙하지 않은 건장한 사내라도 짐 없이 몸만 움직여도 땀을 비 오듯 흘린다. 이렇듯 심한 노동을 하면서 일꾼들은 삶은 콩과 빵만 먹고 산다. 실제 그들은 빵

8 1833년 3월, 《자연사 연보》. 열정적이고 유능한 자연사학자인 가이 씨는 그 당시 칠레 왕국 전역에 걸쳐 자연사의 모든 분야를 연구하고 있었다.

만 먹고 싶어 한다. 하지만 그들의 주인은 그렇게 먹어서는 힘을 쓸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마치 말에게 하듯, 그들에게 콩을 먹인다. 임금은 하우엘 광산보다는 약간 높아서 한 달에 24~28실링을 받는다. 3주에 한 번씩 광산에서 내려와 이틀 동안 가족들과 지낼 수 있다. 이 광산의 규칙 중 하나는 매우 가혹해 보이나 주인에게는 꽤 그럴듯한 해결책을 제시한다. 일꾼들이 금을 훔치는 유일한 방법은 금광석 조각들을 몰래 숨겨 뒀다가 기회가 생기면 밖으로 빼돌리는 것이다. 만약 숨겨 놓은 금이 현장 감독에 의해 발각되면 그만큼을 모든 인부들의 임금에서 제한다. 그러므로 그들 모두가 작당하지 않는 한은 서로가 서로를 감시할 수밖에 없다.

광석을 분쇄기에 넣어 미세한 가루로 부순 다음 물로 씻어 내어 가벼운 가루들을 제거한다. 마지막으로 아말감화를 통해 금가루를 모은다. 물로 씻어 낸다는 것은 말 그대로 보면 매우 간단한 과정인 것 같다. 그러나 금의 비중에 알맞게 물의 흐름을 정밀하게 조절해서 불순물을 제거하는 과정은 아름답기까지 하다. 분쇄기에서 나온 질척한 찌꺼기들은 웅덩이에 모아 침전시킨 후, 가끔 웅덩이 전체를 퍼내서 한쪽에 쌓아 놓는다. 그런 후 많은 화학 작용이 일어나고, 표면에서 다양한 종류의 염이 풍화되면서 덩어리는 점차 단단해진다. 1~2년 정도 지난 후 다시 물로 씻으면 금을 얻을 수 있다. 이 과정은 적어도 6~7회 정도 반복할 수 있으나 반복할수록 회수되는 금의 양은 줄어들고 (원주민 말처럼, 금을 만드는 데) 필요한 시간 간격도 더 길어진다. 앞서 언급한 화학 작용에 의해 여러 혼합물로부터 순수한 금이 유리되는 것이 확실하다. 처음 광석을 분쇄하기 전에 이러한 효과를 내는 방법을 알아낸다면 금광석의 가치를 몇 배나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여기저기 흩어져 있고 부식도 안 된 미세한 금가루를 상당량 모을 수 있다는 것이 참 신기하다. 얼마 전, 광부 몇 명은 쉬는 날 집과 분쇄기 주변의 땅바닥을 훑을 수 있도록 허락받았다. 그들은 그 흙을 물로 씻어 가루를 걸러 30달러어치의 금가루를 모았다. 이러한 과정이 자연에서도 똑같이 일어난다. 산

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붕괴되고 풍화되며 그 속에 있는 광맥도 같은 과정을 겪는다. 가장 단단한 암석도 미세한 진흙이 되고 그 속의 보통 금속은 산화된 후 없어지지만, 금과 백금 그리고 몇몇 다른 금속은 분해되지 않고 또한 무거워서 바닥에 가라앉은 채 남는다. 산 전체가 이런 분쇄 과정을 거친 후 자연의 손에 의해 씻기면 그 잔류물에 금속이 포함된다. 그러면 인간은 그것이 마지막 분리 작업을 할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대로 광부들의 처우가 매우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농장에서의 노동 조건이 워낙 나빠 광부들은 그 일을 기꺼이 받아들인다. 농장 노동자들의 임금은 더 낮아서 그들은 거의 콩만 먹고 산다. 이러한 가난의 주된 원인은 봉건 제도 같은 방식으로 땅이 경작되기 때문이다. 지주는 농장 일꾼이 집을 짓고 경작할 수 있는 땅을 아주 조금 주고는 그들(또는 그들의 대리인)의 일생 동안 매일매일 임금 한 푼 주지 않고 노동력을 착취한다. 아들이 장성하여 대신 노동력을 제공할 수 있을 때까지, 가끔 한 번씩은 예외도 있지만, 가장은 자기 소유의 손바닥만 한 땅도 돌볼 수 없다. 그러므로 이 나라의 노동자 계층에는 극심한 빈곤이 일상화되어 있는 것이다.

근처에 오래된 인디오 폐허가 몇 개 있다. 나는 그곳에서 구멍 뚫린 돌 하나를 발견했는데, 몰리나에 의하면, 여러 곳에서 상당히 많은 돌멩이가 발견되었다고 한다. 그것들은 지름이 12~15센티미터 정도인 납작한 구형이고 가운데에 구멍이 뚫려 있다. 대개 막대기 끝에 매달아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되나, 그것의 형태는 그런 목적에는 썩 잘 맞지 않는 것 같다. 버첼에 의하면,[9] 남아프리카의 몇몇 부족은 한쪽 끝이 뾰족한 막대기를 가지고 식물의 뿌리를 파냈는데 막대기의 다른 쪽 끝에 구멍이 뚫린 돌을 끼워서 무게와 힘을 더했다고 한다. 아마도 칠레의 인디오들도 과거에 그러한 조잡한 농기구를 사용했던 것 같다.

어느 날 자연사 표본 수집가인 레노우스라는 독일 사람과 늙은 스페인 변호사 한 명이 거의 동시에 나를 방문했는데 둘 사이의 대화가 재미있었다. 레노우

9 《버첼의 여행기》 2권, 45쪽.

스가 스페인어를 매우 잘해서 그 변호사는 그를 칠레 사람으로 잘못 알았다. 레노우스는 내가 들으라는 듯 스페인 변호사에게 물었다. "영국 왕이 당신네 나라로 사람을 보내 도마뱀과 딱정벌레를 채집하고 돌을 캐오게 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스페인 변호사는 잠시 진지하게 생각하더니 대답했다. "그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hay un gato encerrado aqui(여기에 갇혀 있는 고양이 한 마리가 있습니다). 그런 시시한 것들을 주워 오기 위해 사람을 보낼 정도로 부유한 사람은 없습니다. 나는 그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 중 한 사람이 영국에 가서 그러한 일을 한다면 영국의 왕이 곧바로 우리를 나라 밖으로 내보낼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 노신사는 직업으로 보아 아는 것도 많고 유식한 층에 속하는데도 이렇게 말하다니! 레노우스는 2~3년 전에 산페르난도에 사는 한 소녀에게 나비 애벌레 몇 마리를 주며 나비가 될 때까지 키워 보라고 한 적이 있다. 이 사실은 마을 전체에 소문이 났고 신부와 총독이 의논한 결과 그런 행위가 어느 정도 이단에 해당한다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따라서 레노우스가 돌아오자 그를 체포했다고 한다.

9월 19일 | 우리는 야킬을 떠나 키요타 계곡과 지형이 비슷하고 틴데리디카 강이 흐르는 편평한 계곡을 따라 갔다. 산티아고에서 남쪽으로 몇 킬로미터 떨어지지 않은 이곳만 해도 기후가 훨씬 습하다. 때문에 관개灌漑를 하지 않아도 푸른 목초지가 형성되어 있다.

9월 20일 | 계곡을 따라가다 보니 바다로부터 랑카과 서쪽의 산맥까지 뻗어 있는 대평원으로 연결되었다. 모든 나무, 심지어 관목조차 싹 사라져 주민들은 팜파스의 주민들만큼이나 땔감이 부족하다. 이러한 평원에 대해 들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칠레에서 그런 풍경을 보니 매우 놀랍다. 그 평원은 한 번 이상의 연속적인 융기 작용에 의해 형성되었고, 넓고 바닥이 납작한 계곡이 가로지르고 있다. 두 지형 모두, 파타고니아에서처럼, 서서히 융기하는 육지에 대한 바닷물의 작용을 보여 준다. 이 계곡의 양쪽 경계를 이루는 가파른 절벽에는 커다란 동굴이 몇 개 있는데, 틀림없이 파도의 작용으로 만들어졌을

것이다. 이 중 하나가 과거에 숭배 대상이 되었던 유명한 쿠에바델오비스포 동굴이다. 이날 몸이 좋지 않더니만 이때부터 10월 말까지 회복되지 않았다.

9월 22일 | 우리는 계속하여 나무 한 그루 없는 녹색 평원을 지나갔다. 다음 날 해안에 있는 나베다드 근처의 한 집에 도착했다. 부유한 농장 주인이 숙소를 내주어 연속하여 이틀을 머물렀다. 몸이 매우 좋지 않았지만 그럭저럭 제3기 지층에서 해양성 조개껍데기 몇 개를 채집했다.

9월 24일 | 우리의 여정은 이제 곧장 발파라이소로 향했다. 고생하며 27일이 되어서야 도착했고, 그 후 10월 말까지 앓아누워 있었다. 이 기간에 코필드 씨 집에서 묵었는데 그 고마움을 무어라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

칠레의 동물과 새들에 관한 관찰 사항 몇 가지를 덧붙이려 한다. 퓨마, 즉 남아메리카 사자는 희귀하지 않고 분포 범위도 굉장히 넓다. 적도의 숲에서부터 파타고니아의 사막을 거쳐 멀리 남쪽의 티에라델푸에고의 습하고 추운 지역(위도 53~54도)에서도 발견된다. 나는 칠레 중부의 코르디예라 산맥에서 고도가 최소한 3천 미터 정도 되는 곳에서도 퓨마의 발자국을 본 적이 있다. 라플라타에서 퓨마는 주로 사슴이나 타조, 비스카차 그리고 여러 작은 네발짐승을 잡아먹고 산다. 말이나 소는 물론 사람은 더더욱 거의 공격하지 않는다. 그러나 칠레에서는 아마도 다른 네발짐승이 없기 때문인지 어린 말과 소를 공격한다. 또한 남자 두 명과 여자 한 명이 퓨마에게 잡아먹혔다는 얘기를 들었다. 퓨마는 항상 먹이의 어깨에 뛰어 올라가 앞발로 먹이의 머리를 뒤로 잡아당겨 척추가 부러지게 해서 죽인다고 사람들은 말한다. 파타고니아에서 목뼈가 부러진 과나코의 유골을 본 적이 있다.

퓨마는 배부르게 먹은 후 큰 덤불로 남은 먹이를 덮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 드러눕는다. 이러한 습성 때문에 퓨마가 종종 발견된다. 하늘을 배회하던 콘도르가 가끔 진수성찬을 같이하기 위해 아래로 내려왔다가 퓨마에 쫓겨 일시에 하늘로 날아오른다. 그러면 그것을 본 칠레의 구아소들은 그곳에 먹잇감을 지키는 사자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개와 함께 쫓기 시작한다. 헤드 경에 의

하면, 팜파스의 가우초들은 콘도르가 하늘을 배회하는 것만 보고도 “사자다!”라고 소리친다고 한다. 나 같은 사람이 감히 그런 분별력 있는 사람에 필적할 수 있으랴! 만약 퓨마가 먹이를 지키는 이러한 습성 때문에 한 번 발각되어 잡히면, 이런 습성은 결코 계속되지 않으며 일단 실컷 먹은 후 멀리 떠난다고 한다. 퓨마는 쉽게 죽일 수 있다. 확 트인 지역에서 일단 볼라를 던져서 다리를 옭아맨 다음 올가미를 걸어 정신을 잃을 때까지 끌고 다닌다. 탄딜(라플라타 강 남쪽)에서는 석 달 동안 1백 마리를 잡았다는 얘기를 들었다. 칠레에서는 대개 퓨마를 관목이나 나무 위로 몬 다음 총을 쏘거나 개들이 괴롭혀서 죽인다. 이때 쓰이는 개는 레오네로스라는 품종으로 긴 다리 테리어처럼 약하고 가냘파 보이지만 퓨마를 잡는 특별한 본능을 가지고 태어난 종이다. 퓨마는 매우 영리해서 추격을 당하면 종종 자신이 과거에 지나갔던 발자국을 따라가다가 갑자기 한쪽 옆으로 뛰어들어 개들이 지나갈 때까지 기다린다. 매우 조용한 동물이어서 번식기 동안만 간혹 소리를 지를 뿐 상처를 입었을 때조차도 비명을 지르지 않는다.

새 중에서는 프테롭토초스속Pteroptochos의 2종인 메가포디우스와 알비콜리스 P. megapodius, P. albicollis(키틀리츠 명명)가 아마도 가장 눈에 띌 것이다. 칠레 사람들이 ‘엘 투르코’라 부르는 메가포디우스는 유럽개똥지빠귀만큼 크다. 두 종 사이에 어느 정도 연관이 있으나 메가포디우스의 다리가 더 길고 꼬리는 더 짧으며 부리는 더 강하다. 털 빛깔은 붉은 갈색이며 흔히 보는 새다. 메마르고 황량한 언덕에 흩어져 있는 덤불 사이에 집을 짓고 땅 위에서 산다. 때때로 꼬리를 곧추세우고 긴다리물떼새와 같은 다리로 덤불 사이를 빠르게 깡충거리며 뛰어다니는 모습이 눈에 띈다. 그 새 자신도 자기의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알고 부끄러워하는 것 같다. 그것을 처음 본 사람은 “꼴불견의 박제 표본이 박물관을 탈출해 다시 살아난 거 아냐?”라고 소리치고 싶은 충동을 느낀다. 웬만하면 날 수 없고 달리지도 못하며 오로지 깡충깡충 뛸 뿐이다. 덤불 속에 숨어서 내지르는 다양한 울음소리는 그것들의 모습만큼이나 이상하다. 그것들은

땅 바로 아래에 깊은 구멍을 파서 그곳에 둥지를 만든다고 한다. 여러 마리를 해부해 봤더니 단단한 근육질의 모래주머니에 딱정벌레류, 식물성 섬유, 자갈이 들어 있었다. 위와 같은 특징들과 긴 다리, 잘 할퀴는 발, 막으로 덮여 있는 콧구멍, 짧고 굽은 날개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이 새는 가금목家禽目의 지빠귀와 어느 정도 연관되어 있는 것 같다.

두 번째 종인 알비콜리스는 전체 생김새가 메가포디우스와 닮았다. 타파콜로, 즉 "뒤쪽을 덮어라"로 불리는데 그 이유는 꼬리를 곧추세우는 것에서 더 나아가 머리 쪽을 향해 구부리고 다니기 때문이다. 이 새들은 아주 흔하다. 다른 새들은 거의 살지 못하는 황무지 언덕에 흩어져 있는 덤불이나 산울타리를 이루는 관목 아래에서 빈번히 나타난다. 먹이를 먹는 방법, 몸을 숨기기 위해 덤불 속으로 깡충거리며 왔다 갔다 하는 것, 좀처럼 날지 않으려는 습성, 집 짓는 형태 등을 볼 때 투르코와 매우 닮았다. 그러나 타파콜로는 그렇게 우스꽝스럽게 보이지 않으며 매우 영리하다. 사람한테 놀라면 덤불 아래에서 움직이지 않고 있다가 어느 정도 지난 후 반대편의 더 좋은 장소를 찾아 기어간다. 또한 매우 활발해서 끊임없이 소리를 낸다. 이 소리는 다양하고 기이하다. 어떤 사람은 비둘기가 구구거리는 소리 같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물거품이 부글부글하는 것 같다고도 한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웃음소리에 견주기도 한다. 그 지역 사람들에 의하면, 이 새는 1년에 다섯 번 울음소리를 바꾼다고 하는데 이는 내가 생각하기에 계절의 변화에 따르는 것 같다.[10]

벌새 두 종도 흔하다. 트로칠러스 포르피카투스Trochilus forficatus는 더운 지역인 리마에서부터 티에라델푸에고의 숲까지 서해안을 따라 4천 킬로미터에 걸쳐 분포한다. 티에라델푸에고의 눈보라 속에서 훨훨 날아다니는 이 새를 볼 수

10 칠레의 모든 새와 동물에 대해 기술한 몰리나가 이 속, 그리고 그렇게 흔하고 특이한 습성을 가진 이 2종에 대해 한 번도 언급하지 않은 것은 무척 의외다. 그것들을 적절히 분류하지 못한 것인가? 그래서 보다 신중을 기하기 위해 언급하지 않는 것이 낫다고 생각한 것인가? 이는 그 저자가 소홀히 생각한 것이며 가장 바람직하지 않은 경우라고 본다.

있으며, 매우 습한 기후인 칠로에 섬의 숲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는 나뭇잎들 사이로 이리저리 건너뛰고 있는 것도 볼 수 있다. 아마도 다른 어떤 종보다 그 수가 많을 것이다. 나는 남아메리카 대륙의 많은 지역에서 이 새를 총으로 쏘아 떨어뜨린 뒤 여러 마리를 해부하여 위장의 내용물을 살펴보았는데, 곤충의 잔류물이 나무발바리 위장에서 만큼이나 많이 나왔다. 이 새들은 여름에 남쪽으로 이동해 가고 북쪽으로부터 또 다른 종이 이주해 와 그곳에 도착한다. 이 두 번째 종Trochilus gigas은 그것이 속한 과科의 새들에 비하면 매우 큰 편이며 나는 모습이 희한하다. 그 속의 다른 새들처럼 매우 빠르게 이곳저곳을 움직여 다니는데 그 속도는 파리 종류 중 꽃등에, 나방 종류 중 박각시나방에 필적한다. 그러나 꽃 위에 떠 있을 때는 날개를 매우 천천히 힘차게 퍼덕거린다. 보통 다른 벌새들은 날개를 매우 빠르게 진동시켜서 웅웅거리는 소리를 내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 몸무게에 비해 날갯짓이 그렇게 강력해 보이는 (나비에서처럼) 새를 본 적이 없다. 꽃 위에 떠 있을 때 꼬리는 부채처럼 폈다 접었다 하고 몸은 거의 수직으로 유지한다. 이런 행동이 날갯짓을 느리게 하면서도 몸을 흔들리지 않게 유지해 주는 것 같다. 먹이를 찾아 이 꽃에서 저 꽃으로 날아다니지만 위장 속에는 대개 곤충의 찌꺼기들이 들어차 있는 것으로 보아 꿀보다는 곤충을 찾아 날아다니는 것 같다. 이 새들의 울음소리는 그 과의 모든 종처럼 굉장히 날카롭다.

● 1834년 7월 23일, 비글호는 칠레의 주요 항구인 발파라이소에 정박한다. 칠레는 코르디예라 산맥과 태평양 사이에 있는 좁고 긴 땅으로 코르디예라 산맥과 이와 평행하게 달리는 바깥쪽의 작은 산맥들 사이에 편평한 분지들이 발달해 있으며 여기에 산펠리페, 산티아고, 산페르난도 등 주요 도시들이 자리잡고 있다. 칠레는 긴 여름 동안 비가 전혀 내리지 않다가 겨울 석 달 동안 흠뻑 내리는 기후로 몇몇 깊은 골짜기를 제외하고 나무 한 그루 없는 빈약한 식생을 보여 준다. 그러나 계곡이 매우 넓고 편평해서 관개가 쉬운 까닭에 여기저기 인위적으로 조성된 과수원들이 아름다운 경치를 자아낸다. 침침한 영국 날씨에 익숙한 다윈은 맑고 건조한 전형적인 칠레의 기후에 감탄사를 연발하며, 노을에 대비되어 그 형상이 더욱 아름답게 드러나는 코르디예라 산맥의 모습과 땅거미, 독특한 향을 풍기는 풀과 관목들을 기술하는데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다. 웅장한 안데스 산맥과 광활한 파타고니아 평원 모두를 체험한 다윈으로서는 그 큰 산맥을 들어 올리고 또한 그 큰 땅덩어리를 부수고 제거해서 광대한 퇴적층으로 만드는 데 소요된 억만 겁이나 되는 시간의 힘에 대해 경외와 함께 의구심을 느낀다.

다윈은 이곳에서 구아소와 함께 답사를 다녔는데, 밤이면 모닥불 주위에 둘러앉아 이들과 얘기를 나누곤 했다. 칠레의 구아소는 이전에 방문했던 팜파스의 가우초와 하는 일이 비슷하지만 사회적 지위라든지 처우 등이 많이 다르다. 특히나 이곳에서는 빈부나 계급 간의 격차가 심하고 구아소 역시 스스로에 대해 자부심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는 매우 놀란다.

코르디예라 산맥 측사면에 있는 하우엘 광산에서 5일간 머물며 인근의 지질을 조사하고 칠레식 채굴 방법과 그것의 문제점, 광부들의 열악한 근무 조건 등을 기록한다. 광산 노동자들의 근무 조건은 매우 열악하나 농장 노동자들의 임금은 그보다 더 낮기 때문에 광부들은 대체로 그 일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편이다. 이런 가난의 주된 원인은 봉건제도와 같은 방식으로 땅이 경작되기 때문이며, 이로 인해 이 나라의 노동자 계층에는 극심한 빈곤이 일상화되

어 있다. 하우엘을 떠나 도착한 산티아고에서 그곳에 거주하는 영국 상인들과 식사도 하고 인근 산에도 올라가며 즐겁게 보낸다. 다윈이 보기에 산티아고는 부에노스아이레스와 똑같은 모델로 건설되었지만 그것만큼 아름답지도, 크지도 않다. 고생해서 9월 24일 발파라이소에 도착해 이로부터 약 한 달 동안 다윈은 앓아누웠다.

마지막으로 칠레의 특징적인 동물과 새를 기록하고 있다. 퓨마, 즉 남아메리카 사자가 흔하고 그 분포 범위도 넓다. 퓨마는 주로 네발 달린 짐승을 잡아먹고 사는데 칠레에서는 이렇다 할 네발 달린 동물이 없기 때문에 어린 말과 소 심지어 사람이 퓨마에게 잡아먹혔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한다. 퓨마는 항상 먹이의 어깨에 뛰어 올라가 앞발로 먹이의 머리를 뒤로 잡아당겨 척추가 부러지게 해서 죽인다. 퓨마는 배불리 먹은 후 큰 덤불로 남은 먹이를 덮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 드러눕는데, 이러한 습성 때문에 퓨마가 종종 발견된다. 하늘을 배회하던 콘도르가 가끔 진수성찬을 같이 하기 위해 아래로 내려왔다가 퓨마에게 쫓겨 일시에 하늘로 날아오르면 그것을 본 칠레의 구아소들은 그곳에 먹잇감을 지키는 사자가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뒤쫓는다. 그 외에 엘투르코, 타파콜로라 부르는 새가 눈에 띈다. 이놈들은 꼬리를 곧추세우고 장다리물떼새와 같은 다리로 덤불 사이를 빠르게 깡충 거리며 뛰어다니는 모습이 우스꽝스럽다. 마지막으로 티에라델푸에고의 눈보라 속에서 훨훨 날아다니거나, 매우 습한 기후인 칠로에 섬 숲의 물이 뚝뚝 떨어지는 나뭇잎들 사이로 이리저리 건너뛰고 있는 벌새도 볼 수 있다고 적고 있다



칠로에 섬과 초노스 제도



제13장
칠로에 섬과 초노스 제도

칠로에 섬–전경–보트 답사–인디오 원주민–카스트로–길들여진 여우–산페드로 봉을 올라가다–초노스 제도–트레스몬테스 반도–화강암 능선–조난당한 선원들–로 항–야생 감자–이탄의 형성–뉴트리아쥐, 해달과 생쥐–추카우와 기드기드–오페티오린쿠스–조류의 기이한 특성–바다제비

11월 10일 | 비글호는 발파라이소 지방에서 남쪽으로 항해를 계속했다. 이번 항해의 목적은 칠레 남부 지역과 칠로에 섬, 그리고 초노스 제도라는 멀리 남쪽으로 트레스몬테스 반도까지 흩어져 있는 섬들을 조사하는 것이다. 21일에 우리는 칠로에 섬의 수도인 산카를로스 만에 정박했다.

칠로에 섬의 길이는 약 144킬로미터 정도이고 폭은 48킬로미터 조금 안 된다. 언덕이 많은데 그렇다고 산이라고 부를 정도는 아니었다. 그곳은 오두막집 주위로 군데군데 개간된 곳을 제외하고는 하나의 커다란 숲으로 덮여 있었다. 멀리서 보면 티에라델푸에고와 비슷해 보이지만, 가까이서 보면 이곳의 수목들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아름답다. 온갖 종류의 상록수와 열대성 식물들이 남해안의 짙은 너도밤나무를 대신하고 있다. 겨울의 날씨는 좋지 않아 혐오스럽기까지 하지만 여름은 그래도 조금 나은 편이다. 온대 지역치고 이곳만큼 비가 많이 내리는 지역은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 바람은 몹시 사납고 하늘은 거의 언제나 흐려 있어 일주일만 날씨가 좋아져도 멋질 것이다. 어쩌다 코르디예라 산맥을 흘끗 쳐다볼 수 있는 기회조차도 힘들다. 우리가 처음 이곳에 왔을 때, 단지 오소르노 화산을 한 번 뚜렷이 볼 수 있었는데 그것도 먼동이 터 오기 전의 일이다. 해가 떠오르자 동쪽 하늘이 밝아지기 시작하면서 산의 윤곽들이 점점 희미해져 가는 광경은 정말로 신기했다.

원주민은 얼굴빛과 작은 키로 보아 그들 혈통의 4분의 3 정도는 인디오로부터

물려받은 것처럼 보인다. 그들은 겸손하고 조용하며 부지런하다. 이곳은 화산암이 풍화되어 형성된 비옥한 토양으로 나무들이 자라기에는 적합하지만, 일조량을 많이 필요로 하는 여러 작물들이 자라기에는 기후가 적합하지 않다. 몸집 큰 네발 동물들을 키울 수 있는 목초지가 거의 없어 주식으로 돼지나 감자, 물고기를 먹고 산다. 주민들은 모두 질긴 털옷을 입고 있는데, 각 가정에서 직접 만들어 짙은 파란색 물감으로 염색한 것이다. 하지만 그 솜씨는 아주 조잡한 수준인데, 이상한 양식으로 땅을 일구거나 실을 잣거나 밀을 갈 때 혹은 보트를 만들 때 그 수준을 엿볼 수 있다. 이곳은 사람이 뚫고 지나갈 수 없을 정도로 숲이 울창하기 때문에 해안선이나 부근의 작은 섬들 외에는 경작지를 찾아보기 어렵다. 혹 길이 나 있어도 흙이 부드럽고 늪이 많아 좀처럼 지나다니기가 힘들다. 이곳 주민은 티에라델푸에고의 원주민들처럼 주로 해변으로 다니거나 보트를 이용해 이동한다. 이곳에는 먹을 것이 많다. 그러나 주민들은 일할 곳이 없기 때문에 매우 가난하다. 그 결과 하층 계급은 아무리 돈을 모아도 작은 장식품 하나 사기도 어렵다. 더욱이 이곳은 운송 방법도 많이 부족하다. 어떤 이는 사소한 물건 하나를 사기 위해 숯을 등에 지고 오기도 하고, 포도주 한 병과 바꾸기 위해 큰 두꺼운 판자를 갖고 오는 이도 봤다. 따라서 이곳은 손수 물건을 만드는 사람들 모두가 상인도 되어야 하기 때문에 자신이 교환해 얻은 물건을 다시 팔 수밖에 없다.

11월 24일 | 칠로에 섬 동부 내륙 해안선을 조사할 목적으로 설리번 씨(지금은 함장이지만)의 지휘 아래 작은 함재艦載 소형 보트와 웨일보트whaleboat[1]를 보냈다. 그 후 섬의 최남단 지점에서 비글호와 합류하기로 했다. 비글호는 그곳에 갈 때까지 섬의 외곽 부근을 항해하면서 섬 전체를 돌아보기로 했다. 나는 내륙 해안선 탐험에 참여하기로 했지만, 첫날은 보트 대신 말을 빌려 타고 섬의 북

1 하수 용골(접개들이 용골)이 붙어 있으며, 노와 돛을 사용하는 가벼운 쾌속 범선. 고래잡이용으로 개발되었다. 이 배는 조종성이 뛰어나 곧바로 선박의 범용 보트로 널리 사용되었으며, 오늘날에는 종종 커터cutter나 기그gig(긴 노로 젓는 가벼운 보트)로 사용되고 있다—역주.

단에 있는 차카오 마을까지 가기로 했다. 길은 해안선을 따라 나 있었는데, 가끔 무성한 숲으로 덮여 있는 곳의 벼랑들을 건너기도 했다. 이처럼 어두운 길에서는 반드시 양 길가에 통나무 판자를 설치해야 한다. 나무가 우거져 빛이 들어오지 않아 땅이 질척거리기 때문에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사람이나 말들이 지나갈 수 없다. 보트가 차카오 마을에 도착해 야영 텐트를 치고 난 후에 곧이어 나도 도착했다.

이 부근의 땅은 개간되어 넓게 펼쳐져 있었고, 숲 속에는 아주 조용하고 아름다운 곳도 많았다. 옛날에는 차카오가 이 섬의 주요 항구였다. 그러나 많은 배들이 이 해협에서 위험한 해류와 암초들을 만나 좌초되어, 스페인 정부는 교회를 불태우고 대다수 주민들을 산카를로스 지방으로 강제 이주시켰다. 우리가 야영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이곳 총독의 아들이 맨발로 우리들을 살펴보러 왔다. 그는 함재 소형 보트의 돛대에 영국 국기가 걸려 있는 것을 보고, 언제까지 국기를 차카오에서 휘날리게 할 것인지를 아무런 관심이 없다는 듯이 물어 왔다. 마을 곳곳에서 주민들은 군함 보트의 출현에 매우 놀라워하면서, 이 배가 칠레의 왕당파로부터 이 섬을 되찾기 위해 오는 스페인 함대의 정찰대이기를 기대했다. 그러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우리의 방문 의도를 이미 보고받아 알고 있었는지 매우 정중하게 대해 주었다. 우리가 저녁 식사를 하는 동안 총독이 방문했다. 그가 스페인군에 있을 때는 해군 중위나 육군 대령의 계급을 달았겠지만, 지금 모습은 비참할 정도로 초라해 보였다. 그는 우리에게 양 두 마리를 선물로 줬으며, 답례로 면으로 된 손수건 두 장과 황동으로 된 장신구 몇 점 그리고 약간의 담배를 받아 돌아갔다.

11월 25일 | 억수 같은 비 : 하지만 우리는 그럭저럭 말을 달려 우아피에서 레노우까지의 먼 거리를 해안선을 따라 내려갔다. 칠로에 섬의 동부 해안선은 똑같은 풍경이다. 평원 지대는 계곡에 의해 여러 작은 섬으로 나뉘고, 섬 전체는 울창한 숲으로 사람이 지나갈 수 없을 정도로 두껍게 덮여 있었다. 지붕 높은 오두막집들이 평원의 가장자리에 있는데 주위의 몇몇 곳은 개간된 채로 있

었다.

11월 26일 | 날씨가 눈부시게 맑았다. 오소르노 화산에서 많은 양의 연기가 뿜어 나오고 있었다. 완벽한 원뿔형의 이 화산은 눈으로 덮인 채 코르디예라 산맥 앞쪽에 버티고 서 있었다. 산봉우리가 마치 말안장처럼 보이는 한 화산의 큰 분화구에서도 수증기가 조금씩 올라오고 있었다. 이어서 높게 치솟은 코르코바도 화산도 봤는데, 정말 '유명한 코르코바도'라 불릴 만했다. 이렇게 해서 고도가 2천 미터 정도 되는 거대한 활화산 세 개가 한눈에 다 들어온 셈이다. 이외에도 멀리 남쪽으로, 눈으로 덮인 또 다른 원뿔형 산이 보인다. 지금도 활동 중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화산 활동으로 생겨난 것임에는 틀림없다. 이곳에서 보는 안데스 산맥은 칠레에서 볼 때만큼 그리 높지도 않고, 여러 지역을 나누는 장벽으로 완벽하게 형성된 것 같지도 않다. 거대한 산줄기가 실제로는 남북 방향으로 곧게 뻗어 있지만, 눈속임 때문에 항상 조금 굽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 아마도 각 산봉우리들에서 관찰자의 눈까지 연결된 여러 선들이, 마치 반원의 반지름 선들같이, 필연적으로 반원의 원점 같은 한곳으로 모여들기 때문일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봉우리와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지를 알 수 없기에(왜냐하면 대기가 아주 맑고 그 중간에 아무런 방해물이 없어서 판단하기 어렵다), 산들이 약간 납작한 반원 모양으로 서 있는 것처럼 보인다.

정오쯤 상륙해서 순수한 혈통의 인디오 가족을 만났다. 아버지는 이상하게도 요크민스터 지방 사람처럼 보였고, 얼굴빛이 불그스름한 어린 아들들은 팜파스 지역의 인디오로 착각할 정도였다. 내가 본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여러 다른 아메리카 인디오들이 별개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그들 사이에는 밀접한 관련성이 존재하는 것이 확실하다. 이 섬의 인디오들은 스페인어를 약간 조합할 수는 있지만, 대화할 때는 자기들의 언어를 사용한다. 비록 수준은 낮아도 백인 정복자의 문화에 이를 정도로 발전한 원주민을 만난다는 것은 즐거운 일이다. 남쪽으로 좀 더 내려가면 순수한 혈통을 지닌 인디오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 일부 섬의 원주민들은 모두 인디오식 별명을 가지고 있었다. 1832

년에 시행된 인구 조사에 의하면, 칠로에 섬과 주변에 딸린 섬들의 거주민 수는 4만 2천 명으로 아마도 많은 수가 혼혈아일 것이다. 1만 1천 명에 해당하는 원주민들은 자신들의 고유한 인디오식 별명을 갖고는 있지만, 그중 거의 대부분은 순수한 혈통이 아닌 것 같다. 이곳 주민의 생활상 역시 다른 곳과 마찬가지로 궁핍하다. 모두가 기독교 신자이지만 몇몇 이상한 미신적인 의식을 아직까지도 하고 있는데, 어떤 동굴 안에서는 악마와 의사소통이 되는 것처럼 흉내 내기도 한다. 옛날에는 이런 미신적 행위를 한 모든 사람들을 리마의 종교재판소로 보냈다. 인디오식 별명을 가진 1만 1천여 명에 포함되지 않는 주민들도 외모로 봐서는 인디오들과 구별할 수 없다. 레무이 지방의 총독인 고메스는 원래 양쪽 조상이 모두 스페인 귀족이었는데, 그다음 세대에 계속해서 이곳 원주민들과 결혼하는 바람에 지금은 인디오나 다름없다. 반면에 킨차오 지방의 총독은 가계의 대부분이 순수한 스페인 혈통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자랑으로 여긴다.

밤에 우리는 카우카우에 섬 북부에 있는, 아름답고 조그마한 만의 후미진 곳에 도착했다. 이곳 사람들은 경작할 토지가 부족해 불평불만이 많았다. 그들이 개간을 등한시한 것도 하나의 이유가 되겠지만, 한편으로는 정부의 규제도 이유가 된다. 아무리 작은 땅이라도, 그걸 사기 전에 땅값이 얼마가 되든 간에 측량 비용으로 콰드라(한 변의 길이가 140미터 정도 되는 정사각형의 땅)당 2실링을 반드시 지불해야 한다. 측량 이후의 토지는 3회 이상 경매에 부치는데, 만일 아무도 구매자가 부른 가격보다 더 높게 입찰하지 않으면 땅을 살 수 있다. 이런 강제적 규정이 토지를 개간하는 데 심각한 장애가 되기 때문에 그곳 주민들은 가난할 수밖에 없다. 대부분의 다른 지역에서는 산에 불을 놓아 별 어려움 없이 나무들을 제거할 수 있지만, 칠로에 섬의 습한 기후와 이곳에서 자라는 나무의 특성상 그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먼저 나무들을 잘라 내야만 한다. 바로 이 점이 칠로에 섬이 번영하는 데 중대한 약점으로 작용한다. 스페인 정부 시절에는 인디오들이 토지를 가질 수가 없었다. 아주 조그만 땅이라도 개간한

가족은 정부에 의해 쫓겨나고, 토지는 정부에 몰수당했다. 그러나 현재 칠레 정부는 이런 가난한 인디오들에게 그들의 생활 수준에 따라 어느 정도의 토지를 나눠 줌으로써 정의를 실천하고 있다. 원시림 상태의 토지는 매우 싼 편이다. 정부는 더글러스 씨(나에게 이곳 상황을 알려 준 사람으로, 현재 측량가로 일하고 있다)에게 빚 대신 산카를로스 부근에 있는 22제곱킬로미터의 개간하지 않은 땅을 줬는데, 그는 이것을 350달러, 즉 70파운드에 다시 팔았다.

다음 날 이틀 동안은 날씨가 맑았다. 밤이 되어 우리는 퀸차오 섬에 도착했다. 이 부근이야말로 많은 섬들 가운데서 가장 개간이 잘된 곳이다. 주요 섬들과 그에 딸린 작은 섬들의 해안선을 따라 펼쳐진 넓은 땅이 거의 완벽하리만큼 깨끗하게 개간되어 있었다. 눈에 띄는 몇몇 농가들은 매우 안락해 보였다. 이 사람들이 얼마나 부유한지 궁금했지만, 더글러스 씨의 말에 의하면, 정기적인 수입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한다. 가장 부유한 지주 한 사람이 오랫동안 일해서 모으면 많아야 1천 파운드 정도이고, 만일 가능하다면 그 돈은 모두 어떤 비밀스러운 구석에 보관되어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거의 모든 가정에서 항아리나 보물 상자를 땅속에 묻는 것이 풍습으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11월 30일 | 일요일 아침 일찍, 우리는 카스트로에 다다랐다. 이곳은 과거에는 칠로에 섬의 수도였는데 지금은 거의 버려진 황량한 곳으로 변해 버렸다. 마을에서는 스페인 건축 양식인 사각형 배열의 흔적이 남아 있지만, 거리와 광장은 녹색의 잔디로 뒤덮이고 그 위로 양들이 풀을 뜯고 있었다. 도시의 한가운데에 있는 교회는 두꺼운 판자로만 지어져 있었는데, 그 모습이 고색창연한 한 편의 그림 같다. 주민이 수백 명에 달하지만 우리는 이 마을 어디에서도 1파운드의 설탕이나 평범한 칼 한 자루조차 살 수 없었다. 이 현실이 얼마나 이곳이 가난한지를 단적으로 잘 보여 준다. 손목시계나 괘종시계 할 것 없이 마을에 시계를 가진 사람이 단 한 명도 없고, 그나마 시간을 잘 가늠한다고 생각되는 한 노인이 단순히 추측만으로 교회 종을 치고 있을 뿐이다. 이처럼 조용하고 외진 곳에 보트가 왔다는 사실 자체가 매우 드문 일이었기에, 거의 모든

주민들이 우리가 텐트 치는 모습을 보기 위해 해변으로 내려왔다. 이곳 주민들은 아주 친절했다. 우리를 집에서 묵을 수 있게 권하거나 사과주 한 통을 선물로 보내 준 사람도 있었다. 오후가 되자 총독이 인사차 우리를 방문했다. 그는 조용한 노인이었는데, 외모나 생활 면에서 영국의 농부보다 나을 것이 없었다. 밤이 되자, 비가 많이 내렸으나 텐트 주위의 구경꾼들을 쫓아 버리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카일렌에서 카누를 타고 장사를 하기 위해 이곳에 온 한 인디오 가족이 우리 주위에서 야영을 하고 있었다. 그들에게는 비를 피할 장소가 없었다. 아침이 되어, 흠뻑 젖어 있는 젊은 인디오에게 밤을 어떻게 지냈는지 물어봤더니 불만 하나 없는 표정으로 "굉장히 좋았어요"라고 대답했다.

12월 1일 | 우리는 레무이 섬을 향해 나아갔다. 나는 탄광으로 보고된 곳을 조사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다. 그곳은 경제적 가치가 별로 없는 갈탄으로 밝혀졌는데, 이 섬을 이루고 있는 사암층(고대 제3기 지층으로 추정) 지대 안에 있다. 레무이 섬에 도착했을 때는 밀물이어서 바로 숲 아래까지 물이 차 있었기 때문에 텐트 칠 만한 장소를 찾기 어려웠다. 얼마 되지 않아 우리는 토착 원주민으로 보이는 인디오들에게 둘러싸였다. 그들은 우리가 이곳에 도착했다는 사실에 매우 놀라워했는데, "최근 앵무새가 그렇게 많이 보이더니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나려고 그랬나 봐! 추카우(깊은 숲 속에 살면서 매우 독특한 울음소리를 내는 가슴 부위가 이상한 붉은색을 띠는 작은 새)가 아무 까닭도 없이 '조심하라'고 울지는 않았을 거야"라며 자기들끼리 수군거렸다. 곧이어 그들은 우리와 물건들을 바꾸는 데 열을 올렸다. 그들에게 돈은 거의 가치가 없었지만, 담배에 대한 집착은 생각보다 훨씬 강했다. 담배 다음으로 쪽빛 물감을 귀하게 여겼으며, 그다음은 고추, 낡은 옷, 그리고 화약 순이었다. 마지막에 화약을 필요로 하는 이유는 매우 순수한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었다. 각 마을마다 공공 용도인 소총이 한 자루씩 구비되어 있는데, 이 화약은 성인聖人의 날이나 축제일에 축포로 큰 소리를 내는 데 필요했기 때문이다.

이곳 사람들은 조개나 감자를 주식으로 하고 있다. 어떤 시기가 되면 물 아래

에 '울타리'를 쳐서, 썰물 때 물이 빠지면서 진흙 바닥에 남은 많은 물고기들을 잡는다. 그들은 가끔씩 가금류나 양, 염소, 돼지, 말, 소 등을 기르기도 하는데, 앞에서 언급한 동물 순서는 그 수가 많은 순으로 나열한 것이다. 나는 일찍이 이곳 주민들이 보여 준 태도보다 더 자상하고 겸손한 경우를 다른 데서 본 적이 없다. 그들은 대개 다음과 같이 운을 떼며 말을 시작한다. 즉 자신들은 이곳에 사는 가난한 주민으로 스페인 사람은 아니지만 담배와 기타 생활용품들을 간절히 원한다는 것이다. 최남단에 있는 섬인 카일렌 섬에서, 선원들은 3.5펜스의 담배 한 개비로 가금류 두 마리를 샀다. 인디오 말에 의하면, 그중 한 마리는 발가락 사이에 피부가 나 있다고 했는데, 후에 그것은 작은 오리로 밝혀졌다. 그리고 3실링의 손수건을 주고, 양 세 마리와 양파 한 다발을 얻었다. 우리는 해안에서 좀 떨어진 곳에 함재 소형 보트를 정박시켜 놓은지라, 밤에 강도가 보트를 약탈할까 봐 걱정됐다. 그래서 수로 안내인인 더글러스 씨가 지역 경관에게 다음과 같이 경고했다. 배 주위로 총을 든 보초를 세우는데, 우리는 스페인어를 모르므로 만약 밤에 보트 주위를 돌아다니는 사람을 본다면 누구든 예외 없이 총을 발사할 것이라고 했다. 매우 겸손한 그 경관은 우리 계획이 충분히 정당한 것이라 생각되었는지 동의했고, 그날 밤은 아무도 집 밖으로 나와 배회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연이은 나흘 동안 우리는 남쪽으로 항해를 계속했다. 이 지역의 전체 모습은 똑같지만, 주거지는 훨씬 많이 줄어들고 있었다. 탄키라는 큰 섬에는 개간된 곳이 거의 없어서 사방으로 나뭇가지들이 길게 해변 위로 뻗어 있었다. 하루는 사암으로 된 절벽 위에 굉장히 예쁜 식물인 팡케Gunnera scabra가 자라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이 식물은 대황을 크게 확대한 모습과 어느 정도 닮았다. 원주민들은 약간 신맛이 나는 이 식물의 줄기를 먹고, 뿌리는 가죽을 무두질하는 데 사용하며, 이 식물로부터 검은색 물감을 얻기도 한다. 잎은 거의 원형에 가깝지만 가장자리는 톱니 모양으로 깊게 패어 있다. 나무의 지름을 재봤더니 거의 2.4미터 정도가 되었는데, 그렇다면 그 둘레는 7.2미터보다 더 크

다는 얘기가 아닌가! 줄기는 1미터보다 조금 더 큰 편인데 거기에 각 식물마다 네댓 개의 거대한 잎이 매달려 있어 고상한 자태를 선사하고 있다.

12월 6일 | '기독교 세계의 끝'이라 불리는 카일렌 지방에 도착했다. 아침에 라일렉 지방 북단에 있는 어떤 집에 잠시 들렀다. 라일렉의 이 초라한 오두막집이 바로 남아메리카 기독교계의 끝 지점이다. 위도상으로 43도 10분이며, 대서양 연안에 있는 네그로 강보다 남쪽으로 2도 더 내려간 곳이다. 이곳 기독교인들은 매우 가난해서 자신들의 신세를 구실 삼아 우리에게 담배를 구걸했다. 이곳 인디오들이 가난하다는 증거를 들기 위해 이곳까지 오기 전에 잠시 만났던 사람의 얘기를 해야겠다. 그는 작은 도끼와 물고기 몇 마리 값을 받기 위해, 이곳까지 사흘하고도 반나절을 걸어왔는데 다시 그 정도의 거리를 되돌아가야 한다고 했다. 적은 빚을 받기 위해 그토록 고생했는데, 아주 작은 물건 하나라도 사려면 또 얼마나 힘들겠는가!

저녁에 산페드로 섬에 다다르니, 정박해 있는 비글호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배에서 장교 두 명이 주각周角을 재기 위해 경위의經緯儀[2]를 가지고 상륙했다. 여우인 카니스 풀비페스Canis fulvipes 한 마리가 바위 위에 앉아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이 여우는 이 섬에서만 유일하게 나타나는데 매우 희귀하고 새로운 종이다. 이놈은 일하는 선원들을 쳐다보는 데 푹 빠져 있어 내가 다가가는 것도 몰랐다. 나는 조용히 뒤로 걸어 올라가 지질 조사용 망치로 이놈의 머리를 내리쳐 잡았다. 이 여우는 호기심도 많고 학구적이라 할 수 있겠지만 다른 동료들에 비해 현명치 못한 결과로 지금은 동물학회의 자연사 기념관에 박제되어 있다.

이 항구에서 우리는 사흘 동안 머물렀다. 그중 하루는 피츠로이 함장과 일행 몇 명이 산페드로 섬의 봉우리에 올라가 보기로 했다. 이곳의 숲은 북쪽에 있는 숲과는 좀 다르다. 또한 해변도 없는 이곳의 바위들은 운모 점판암으로 되어 있으며, 이로 이루어진 급경사면이 바닷물 속으로 곧바로 떨어지듯 서 있

2 수평축이나 수직축을 기준으로 각도를 재는 측량 기기–역주.

었다. 결론은 이곳의 전경이 칠로에 섬보다는 티에라델푸에고 풍경에 더 가깝다는 것이다. 정상에 오르려는 우리의 헛된 시도는 계속됐다. 숲은 사람이 지나갈 수 없을 정도로 우거져 있었으며, 이곳을 보지 못한 사람들은 죽어 가는 나무와 이미 죽은 나무들이 서로 엉켜 있는 덤불을 상상조차 하지 못할 것이다. 확신하건대 종종 10분 이상 우리 발이 맨땅에 닿지 않았던 적도 있었고, 지면에서 3~5미터 정도 위에 떠 있던 적도 있었다. 그래서 선원들은 농담으로 수심을 측정하고 있다고 소리치기도 했다. 또 어떤 때는 썩은 통나무 아래로 한 명씩 줄지어 손과 무릎을 이용해 기어가기도 했다. 산 아래쪽에는 윈터스바크 나무가 당당한 모습으로 자라고 있었으며, 사사프러스나무[3]처럼 잎에서 좋은 향기가 나는 월계수, 그리고 이름 모를 온갖 나무들이 지하경地下莖의 대나무나 기는줄기들로 서로 뒤엉켜 있었다. 그때의 우리 모습이란 마치 그물에 걸려 도망치려고 파닥거리는 물고기와 다를 바가 무엇인가! 위로 조금 더 올라가자 키 큰 나무들 대신 관목층이 나타났고, 여기저기에 붉은삼나무[4]와 알레르케소나무[5]가 보였다. 더욱 기뻤던 일은 고도가 3백 미터 조금 못 미친 곳에서, 나의 오랜 친구인 남부너도밤나무를 본 것이다. 하지만 이곳 모습은 생육이 저해되어 초라해 보였다. 바로 이곳이 이 식물의 북방 한계선 부근이 틀림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결국 우리는 이곳에서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더 이상 산을 올라가는 것을 그만두었다.

12월 10일 | 설리번 씨는 함재 소형 보트와 웨일보트로 조사를 계속해 나갔지만, 나는 비글호에 남았다가, 다음 날 산페드로를 떠나 남쪽으로 항해를 계속했다. 13일, 구아야테카스 섬의 남부, 즉 초노스 제도가 있는 방향으로 접어들

3 녹나무과Lauraceae에 속하는 북아메리카산 교목. 향기 나는 잎 · 수피 · 뿌리 등은 양념이나 전통적인 민간 약품, 차로 쓰이고 있다—역주.

4 측백나무과Cupressaceae에 속하는 상록수의 일반명. 특히 자이언트측백나무와 연필향나무를 지칭한다—역주.

5 측백나무과 테트라클리니스속Tetraclinis에 속하는 단 하나의 종種. arartree, evergreen timber tree라고도 한다. 피라미드 모양으로 자라며 향기가 좋다—역주.

었다. 천만다행으로, 다음 날이 되어서야 티에라델푸에고 지역에서나 어울릴 것 같은 격렬한 폭풍이 사납게 몰아쳤다. 검푸른 하늘과 대조적으로 하얀 뭉게구름이 겹겹이 피어오르고, 군데군데 누더기처럼 보이는 검은 수증기가 그 사이로 빠르게 지나가고 있었다. 쭉 이어진 산맥들은 희미한 그림자처럼 보였고, 저무는 태양은 수풀 위로 노란색의 어렴풋한 미광을 만들어 내고 있었다. 마치 포도주의 영혼들이 불꽃을 만들어 내는 광경 같다. 수면 위로는 하얀 물보라가 일고 바람은 잦아들었다가 비글호의 의장 사이로 통과하면서 다시 한 번 큰 소리를 내질렀다. 그 광경은 뭔가 불길해 보였지만 한편으론 장엄하기도 했다. 무지개가 몇 분 동안 선명하게 나타났다. 나는 호기심이 일어 물보라가 일으키는 효과를 관찰하기로 했다. 물보라는 수면을 따라 움직이면서 통상적으로 반원 형태인 무지개를 점점 완전한 원의 형태로 변화시켜 갔다. 프리즘으로 분리된 여러 색깔의 띠들은, 만을 가로지르며 서 있는 아치의 양쪽 발치에서부터 우리 배 옆으로 가까이 이어져 있는데, 그 모습이 약간 비틀려 있지만 거의 완벽에 가까운 고리형을 갖추었다.

여기서 우리는 사흘 동안 머물렀다. 날씨는 계속 나빴지만, 이곳에서는 그리 심각한 문제가 아니었다. 어차피 섬의 육로를 통해서는 이동이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해안선은 굉장히 험한데 그쪽으로 굳이 걸어가려면 운모 점판암으로 된 날카로운 바위를 끊임없이 오르내리면서 기어가야만 한다. 숲도 마찬가지인데, 이 금단의 땅에 발을 들여놓으려고 시도하면서 겪었던 모진 고생의 흔적이 우리의 얼굴이나 손, 무릎, 정강이뼈 곳곳에 상흔으로 남아 있다.

12월 18일 | 우리는 바다로 나왔다. 20일쯤, 우리는 남부 지역에 안녕을 고한 뒤에 바람을 알맞게 받으면서 뱃머리를 북쪽으로 돌렸다. 트레스몬테스 곶을 출발해 비바람에 침식된 가파른 해안선을 따라 기분 좋은 항해를 계속했다. 여기서 눈에 띄는 점은 산의 윤곽이 뚜렷하다는 것과 거의 절벽에 가까운 곳조차 숲으로 두껍게 덮여 있다는 것이다. 다음 날 우리는 항구를 발견했는데, 이처럼 위험한 해안에서 조난당한 배들에게는 더없이 훌륭한 피난처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또 이곳에는 높이가 480미터 정도 되는 산이 하나 있어 쉽게 눈에 띄는데, 리우데자네이루에 있는 유명한 슈거로프[6] 산보다 더 완벽한 원뿔형이다. 다음 날 배를 정박시킨 후, 산의 정상까지 가는 데 성공했다. 산의 경사면들이 너무 가팔라서 어떤 곳은 나무를 사다리 삼아 지나가야 할 정도로 힘들었다. 푸크시아Fuchsia[7]의 거대한 덤불이 몇 개 있었는데, 땅 아래로 늘어뜨린 꽃들로 뒤덮여 아름답기는 했지만 그 사이를 기어가느라 굉장히 힘이 들었다. 이런 야생 지역에서는 어떤 봉우리라도 올라가 서보면 엄청난 희열을 느낄 수 있다. 아주 낯선 뭔가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끝없이 생겨나며, 간혹 방해받을 수도 있겠지만 계속해서 찾다 보면 결코 실패하는 법이 없다. 봉우리에서 바라보는 그 장대한 광경에서 마음속으로 전해오는 승리감이나 자부심을 모든 사람들이 느껴 봐야 한다. 그 느낌은 이제까지 그 누구도 가보지 못한 봉우리에 올라 눈앞의 광경을 감탄하고 있는 최초의 사람이 바로 당신일 수도 있다는 약간의 허영심과도 연결된다.

인적 드문 이곳에 전에 다른 사람이 왔던 적이 있었는지를 확인하고 싶은 생각이 강하게 일었다. 나는 못이 박힌 나무토막 한 개를 주워서 마치 상형 문자가 쓰여 있는 양 자세히 살펴봤다. 이런 생각을 하던 차에 해안선 으슥한 곳의 암반 아래에서 풀로 만든 잠자리 하나가 눈에 띄어 더더욱 흥미가 일었다. 잠자리 바로 옆에는 불을 지핀 자리가 있었고, 도끼를 사용한 흔적이 있었다. 불 지핀 자리와 그 옆 잠자리, 그리고 주변 상황들로 볼 때 인디오의 솜씨였다. 하지만 인디오는 아닐 것이다. 왜냐하면 이 지역의 인디오 종족은, 한꺼번에 모두 기독교 신자로 만들거나 노예로 만들려는 기독교계의 욕심으로 인해 멸종당했기 때문이다. 이 외진 곳에 잠자리를 마련한 외톨이는 조난당한 불쌍한 선원이었을 것이고, 해안선을 따라 올라가다가 이곳에서 황량한 하룻밤을 보

6 과나바라 만 어귀를 내려다보고 있는 브라질 남동부의 산. 봉우리 모양에서 이름이 유래했다. 화강암으로 된 원뿔형 산으로 리우데자네이루와 대서양 사이에 있는 짧은 산맥 끝에 솟아 있다–역주.

7 바늘꽃과의 관상용 관목–역주.

냈을지도 모른다는 염려스러운 마음이 그 당시에 들었다.

12월 28일 | 날씨는 계속 나빴다. 하지만 조사를 시작할 수 있다는 허락이 마침내 떨어졌다. 늘 그렇듯, 폭풍이 계속돼 하루하루 조사 일정을 연기하다 보면 시간이 남아돌아 무척 무료하다. 저녁에 또 다른 항구를 발견해 그곳에 정박했는데, 바로 그때 셔츠를 흔들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보트를 보냈더니 선원 두 명을 태워 왔다. 그들 일행 여섯 명은 아메리카 포경선에서 도망쳐 나와 보트를 타고 가다가 약간 남쪽에 상륙했는데 잠시 후 밀려오는 파도에 보트가 산산조각이 났다는 것이다. 그들은 지금까지 15개월 동안이나 해안선을 오르내리면서 어디로 가야 할지, 그리고 자기들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도 모른 채 헤매고 있었던 것이다. 이 항구를 지금 발견한 것이 얼마나 다행스럽고도 신기한 일인가! 만일 이런 기회가 오지 않았다면, 그들은 늙을 때까지 계속 헤매다 결국은 이 거친 해안선에서 황량하게 생을 마감했을 것이다. 그들은 극심한 고통을 겪었으며 일행 중 한 명은 절벽 아래로 떨어져 목숨을 잃기도 했다. 때때로 그들은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 헤어져야 할 때도 있었는데, 바로 이 상황이 이전에 발견된 한 고독한 사람의 잠자리를 설명해 주고 있다. 그들이 계산한 날짜가 실제와 단지 4일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그들은 극심한 고생을 하는 와중에도 시간 가는 것은 정확하게 계산한 듯 싶다.

12월 30일 | 트레스몬테스 반도 북단 근처에 여러 개의 높은 산기슭이 있는 만의 후미에 정박했다. 다음 날 아침 식사 후, 우리 일행은 여러 산들 중 한 곳으로 올라갔다. 고도가 720미터 정도 되는 산의 정상에서 바라보는 경관은 대단했다. 산맥의 주요 부분은 크고 단단한 화강암으로 험준했고, 마치 태초부터 그곳에 있었던 것처럼 보였다. 화강암 윗부분은 흑운모 점판암으로 덮여 있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이 부분이 침식되어 기묘한 손가락 모양의 산맥으로 나타났을 것이다. 화강암이나 흑운모 점판암의 생성에서 외형은 서로 다르더라도 그 위로 식생이 발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같다. 진녹색 나무들의 흔

한 숲 속 풍경에 오랫동안 익숙해 그런지, 이 불모지가 무척 낯설어 보인다. 나는 이 산들의 구조를 조사하면서 굉장히 즐거웠다. 복잡하게 높이 치솟아 있는 산맥들은 거친 세월을 오랫동안 견뎌 온 고귀한 모습을 띠고 있었지만, 그만큼 인간이나 다른 동물들에게 아무 쓸모없어 보였다. 지질학자들에게 있어 화강암은 고전이라 할 수 있다. 그 분포 범위가 넓고 짜임새가 치밀하고 아름다워서 예부터 이보다 더 많이 알려진 암석은 거의 없다. 화강암의 생성 과정은 다른 암석에 비해 많은 논의를 불러일으키고 있는지도 모른다. 화강암은 기반암을 구성하며, 그 생성 과정이야 어떻든, 지각에서 인간이 뚫을 수 있는 가장 깊은 층이라고 알고 있다. 어떤 주제에 대해 인간이 가진 지식의 한계가 드러나면 많은 흥미를 불러일으키기 마련인데, 그 주제가 상상의 영역으로 접근해 갈수록 흥미 역시 점점 더 커져 갈 것이다.

1835년 1월 1일 | 이 지역에 꼭 맞는 의식으로 새해를 맞이했다. 북서쪽에서 불어오는 강한 폭풍과 끊임없이 내리는 비가 새해의 시작을 알리는 가운데, 우리는 전혀 꾸밈없는 새해 소망을 빌어 본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운명이 여기서 끝나지 않고 태평양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쪽 푸른 하늘은 천국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머리 위로 지나가는 구름 너머 어딘가에 말입니다.

다음 날 나흘 동안은 북서풍이 심하게 불었지만, 우리는 그럭저럭 큰 만을 가로질러 가서 비교적 안전해 보이는 항구에 정박했다. 나는 함장과 함께 보트를 타고 깊숙한, 작은 만의 어귀로 들어갔다. 도중에 우리를 보고 있는 바다표범들의 수에 크게 놀랐다. 평평한 바위면 어디서나, 해변 곳곳에는 그놈들이 떼 지어 누워 있었다. 마치 사랑을 나누는 듯 이리저리 엇갈려 드러누운 채 곧바로 잠들어 버린 것 같았다. 그 모습이 마치 돼지 떼처럼 보이는데, 돼지라도 그 정도의 더러움이나 악취에는 부끄러움을 느끼리라. 쇠콘도르Turkey-buzzard가 예사롭지 않은 눈길로 끈질기게 바다표범의 각 무리들을 지켜보고 있다. 주홍색 대머리의, 이 정떨어지게 생긴 새는 사체를 파먹기에 알맞은 듯 생겼

는데, 서부 해안에서 아주 흔하게 볼 수 있다. 바다표범들을 예의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놈들의 먹이가 무엇인지 짐작할 수 있다. 그리고 거의 민물에 가까운 물(아마도 표층수만 그렇겠지만)을 발견했는데, 그 이유는 깎아지른 화강암질의 산 위에서 바다로 폭포처럼 쏟아지는 수많은 급류 때문이었다. 이러한 민물에는 많은 물고기들이 몰려들고, 이것이 다시 많은 제비갈매기나 갈매기, 그리고 두 종류의 가마우지를 불러온다. 여기서 아름다운 검은목백조 한 쌍과 모피가 비싼 작은 해달 몇 마리도 봤다. 돌아오는 길에는 또 한 번 재미있는 광경을 목격했다. 보트가 바다표범들 옆으로 지나가자, 노소를 불문하고 엄청난 수의 바다표범이 맹렬한 기세로 물속으로 뛰어드는 것이었다. 그놈들은 물속에 오래 있지 않고 곧바로 떠올라 목을 길게 쭉 빼고는 놀라움과 호기심에 가득 찬 모습으로 우리들을 따라왔다.

1월 7일 | 해안을 따라 올라와 초노스 제도의 북단 가까이에 있는 로 항에 정박한 후, 일주일 동안 거기서 머물렀다. 여기 섬들도 칠로에 섬처럼, 층리가 있고 부드러운 해안 퇴적층으로 되어 있었고 식생도 아름답게 우거져 있었다. 상록수 관목들은 자갈길을 덮으면서 해변까지 자라서 내려와 있었다. 우리는 정박한 곳에서 보이는 '유명한 코르코바도'를 비롯한 코르디예라 산맥의 눈 덮인 네 개의 봉우리가 빚어내는 화려한 경관을 함께 즐겼다. 이 위도에서 산맥은 그렇게 높지 않아서 인근 섬들의 봉우리 위로 거의 올라와 보이지는 않았다. '기독교 세계의 끝'이라 할 수 있는 카일렌 지방에서 온 다섯 명의 일행을 여기서 만났다. 그들은 물고기를 잡기 위해 보트와 비슷한, 초라한 카누를 타고 칠로에 섬과 초노스 제도 사이로 바다를 용감하게 건너온 사람들이었다. 여기 섬들도 조만간 십중팔구는 칠로에 섬 연안의 다른 섬들처럼 사람들이 살게 될 것이다.

초노스 제도에는 야생 감자가 해변 근처에 있는 모래나 조개껍데기가 섞인 토양에서 풍성하게 자란다. 키가 가장 큰 것은 높이가 1.2미터에 이르고, 감자는 대개 작은 편이지만 지름이 5센티미터 정도나 되는 알 모양의 감자를 발견한

적도 있었다. 이 감자들은 모든 면에서 영국 감자와 비슷하고 냄새도 같다. 하지만 삶으면 이곳의 감자가 더 많이 오므라들어 수분을 더 많이 함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으며, 쓴맛도 나지 않고 담백하다. 이 감자들은 이곳 고유종이 틀림없다. 로 씨의 말에 의하면, 멀리 남쪽으로 위도 50도까지 이 감자들이 자라는데, 그 지역 인디오들은 아키나스Aquinas라 부른다고 한다. 칠로에 섬의 인디오들은 그것을 또 다른 이름으로 부르고 있다. 내가 고국으로 가져간 말린 감자의 표본을 살펴본 헨슬로 교수는 그것이 발파라이소 지방에서 사빈 씨[8]가 기재한 것과 같지만, 변이가 일어난 것이어서 어떤 식물학자들은 그것을 별개의 종으로 간주하기도 한다고 했다. 여섯 달 이상 비가 내리지 않는 칠레 중부의 메마른 산과 이곳 남쪽 섬의 습한 숲 속 모두에서 똑같은 식물이 발견된다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초노스 제도의 중부 지역(위도 45도)의 숲은, 혼 곶에서 180미터에 걸쳐 있는 서해안의 숲과 정말 똑같은 특징을 보여 준다. 칠로에 섬에 있는 나무 모양의 풀들은 여기에 없는 반면, 티에라델푸에고 지역의 너도밤나무는 이곳에서도 크게 잘 자라 숲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먼 남부 지역처럼 너도밤나무만 자라는 배타적인 모습이 아니다. 이곳 기후는 민꽃식물이 자라기에 딱 알맞다. 전에 언급한 바 있듯이, 마젤란 해협의 지역은 너무 춥고 습기가 많아서 민꽃식물들이 완전히 정착하지는 못했다. 하지만 여기 섬들의 숲에는 지의류와 이끼류 그리고 작은 고사리 등 많은 종들이 왕성하게 자라고 있어 의외였다.[9] 티에라델푸에고에서는 나무들이 단지 산허리에서만 자라고, 평지에

8 《원예 회보》 5권, 249쪽. 칼드클뤼 씨가 집으로 감자 두 개를 보내 주었는데, 거름을 잘한 덕분에 첫 번째 수확인데도 감자가 많이 달리고 잎들이 풍성하게 자랐다. 멕시코에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이 식물에 대해 훔볼트 씨가 《신스페인에 관한 정치학 평론》 4권 9장에서 재미있게 논의한 내용을 보라.

9 이 상황에서, 포충망을 휘둘러 작은 곤충을 상당수 잡았다. 이들은 반날개과, 개미사돈속Pselaphus과 연관된 것들, 벌목目에 속하는 작은 곤충들이다. 하지만 칠로에 섬이나 초노스 제도의 보다 확 트인 장소에서 개체 수나 종수 모두에 있어 가장 두드러진 특징을 보이는 것은 바로 텔레포리대Telephoridae에 속하는 곤충이다.

는 모두 예외 없이 이탄층으로 두껍게 깔려 있었다. 그러나 칠로에 섬의 평지는 굉장히 울창한 숲으로 덮여 있다. 이곳 초노스 제도의 기후는 칠로에 섬 북부 지역보다는 티에라델푸에고 지역에 더 가깝다. 그 이유는 모든 평지가 두 종의 식물, 아스텔리아 푸밀라Astelia pumila[10]와 도나티아 마젤라니카Donatia magellanica[11]로 덮여 있는데, 이 식물들이 함께 썩으면 두껍고 탄력 있는 이탄층을 이루기 때문이다.

티에라델푸에고의 삼림 지대 위쪽으로는, 위에서 언급했듯 서로 친화성이 있는, 유명한 두 식물 중에서 아스텔리아 푸밀라가 주로 이탄을 만들어 낸다. 이 식물의 새싹은 항상 중앙의 주근主根 둘레에서 이어져 나오고, 아래의 오래된 잎은 곧바로 썩는다. 이탄층 아래로 뿌리를 찾아 내려가면 잎들이 뿌리에 매달린 채, 잎들 전체가 하나로 섞여서 알아볼 수 없는 덩어리로 될 때까지, 모든 분해 단계를 관찰할 수 있다. 아스텔리아는 몇몇 다른 식물들의 도움을 받는다. 덩굴월귤Cranberry[12]과 비슷한 목질의 줄기로 달콤한 열매가 열리는, 작은 기는식물인 도금양Myrtus nummularia과, 영국의 히스와 비슷한 시로미 Empetrum rubrum, 그리고 골풀Juncus grandiflorus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데, 늪지에서 자라는 거의 유일한 종들이다. 이 식물들은 같은 속에 속하는 영국의 종들과 전체적인 외관이 매우 닮았지만 다른 종이다. 보다 평탄한 지역에는 이탄층의 표면이 부서져 작은 연못으로 변한 곳도 있다. 다양한 높이로 연못이 생성되어 마치 사람이 일부러 파놓은 것처럼 보인다. 지하로 흐르는 작은 물줄기가 식물체의 분해를 완결 짓고 전체를 단단하게 굳히는 작용을 한다.

남아메리카의 기후는 이탄을 형성하는 데 특별히 좋은 조건이 되는 것 같다. 포클랜드 섬에서는 거의 모든 종류의 식물들, 심지어 땅 전체를 뒤덮고 있는 거친 풀조차 이탄으로 바뀐다. 어떠한 상황도 이탄의 생성을 막지 못해서 그

10 백합과 식물-역주.

11 초롱꽃목 도나티아과의 식물-역주.

12 진달래과科Ericaceae 산앵두나무속Vaccinium 식물-역주.

두께가 4미터나 될 만큼 두꺼우며, 아래쪽은 말라서 매우 딱딱해져 거의 타지 않을 정도가 된다. 이탄을 만드는 데엔 모든 식물들이 기여하지만, 가장 효과적인 식물은 아스텔리아다. 그리고 이끼류가 썩어서 이탄이 되는 것은 남아메리카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데, 이는 유럽과도 사뭇 다른 독특한 환경이다. 이탄을 생성하는 데 필수적인 분해 현상이 매우 천천히 진행되는 독특한 기후를 뜻하는 북방 한계선의 관점에서 본다면, 칠로에 섬(위도 41~42도)에 비록 많은 늪지대가 있다 하더라도 진정 이탄이라 할 만한 것은 없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남쪽으로 3도 정도 더 내려간 초노스 제도에서는 이탄을 많이 볼 수 있다. 아일랜드를 다녀온 스페인 사람으로부터 들은 얘기인데, 그 사람은 라플라타 강의 동부 해안선(위도 35도)에서 이탄을 부단히 찾아봤지만 아무것도 발견할 수 없었다고 한다. 하지만 자기가 발견한 것 중에서 이탄에 가장 가까운 것이라며 나에게 검은색의 이탄질 토양을 보여 주었는데, 그 속에 식물 뿌리가 뚫고 들어가 있어서인지 굉장히 느리게 탈 뿐만 아니라 완전히 타지도 않았다.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초노스 제도에서 동물상은 예상한 대로 매우 빈약한 편이다. 네발 동물로는 수생 동물 두 종이 흔하다. 뉴트리아쥐Myopotamus Coypus(비버와 비슷하지만 둥근 꼬리를 가짐)[13]의 모피는 귀해서 라플라타 강의 지류를 통해 교환되는 주요 물품 중 하나다. 하지만 이놈들은 염분이 있는 물에서만 자주 나타나는데, 이는 큰 설치류인 '카피바라'의 출현과 함께 언급되었던 상황과 비슷하다. 또한 작은 해달이 아주 많다. 이놈은 물고기만 먹지 않고, 바다표범처럼 수면 근처의 여울목에서 헤엄쳐 다니는 작은 붉은 게들을 많이 잡아먹는다. 바이누 씨는 티에라델푸에고에서 오징어를 먹고 있는 해달을 봤고, 로 항에서는 큰 고둥 하나를 자신이 살고 있는 구멍 쪽으로 나르는 해달을 잡은 적도 있다고 한다. 여기 섬의 한 장소에 덫을 놓아 독특하게 생긴 생쥐M.

13 Myocastor coypus라고도 한다. 남아메리카에 사는 반수생半水生 설치류의 한 종. 보통 후티아와 함께 후티아과Capromyidae로 분류된다. 뉴트리아쥐는 연못이나 강을 따라 있는 얕은 굴에 살며, 주로 수생 식물을 먹고 산다-역주.

brachiotis 한 마리를 잡은 적이 있다. 초노스 제도에서는 흔한 쥐이지만, 로 항에 살고 있는 칠로에 섬 주민들에 의하면, 자기들이 살고 있는 곳에는 전혀 없다고 한다. 이 작은 동물들이 여기저기 갈라져 있는 제도 전역으로 퍼져 나가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우연들이 연속적으로 일어나야 하며,[14] 혹은 평원이 얼마만큼 변해야 한단 말인가!

칠로에 섬과 초노스 제도 전역에서는 아주 낯선 두 종류의 새가 출현한다. 이 놈들은 서로 유연관계가 있는, 칠레 중앙 지역의 투르코새Turco나 꼬리세움새Tapacolo 부류를 대신해 여기에 살고 있다. 그중 한 새를 원주민들은 '추카우Pteroptochos rubecula'[15]라고 부르는데, 습한 숲 속의 가장 어둡고 외진 곳에 산다. 때로는 울음소리가 가까운 곳에서 들리는 듯해 주위를 아무리 세심하게 둘러봐도 추카우새를 찾아보기는 어렵다. 하지만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서 있을 경우에는, 가슴에 붉은색 깃털로 덮인 작은 새가 아주 익숙한 방법으로 1~2미터 내로 다가올 것이다. 그러고는 썩어 가는 솔방울과 가지들이 뒤엉켜 있는 곳을 작은 꼬리를 위로 치켜 올린 채 이리저리 매우 바쁜 모습으로 깡충깡충 뛰어다닌다. 이 추카우새는 이상하고 다양한 울음소리 때문에 칠로에 주민에게는 미신적인, 두려움의 대상이다. 뚜렷이 구분되는 세 가지 울음소리가 있는데, 이 중 한 가지는 '치두코chiduco'라고 하며 길조를 의미한다. 다른 하나는 '위트루huitreu'라는 것인데 굉장히 나쁜 일이 생길 징조로 여긴다. 세 번째 울음소리는 잊어버렸다. 이러한 단어들은 각각의 울음소리를 흉내 낸 것이다. 어떤 경우에는 원주민들이 정말 이 새들의 울음소리에 전적으로 의존한다. 확실히, 칠로에 원주민들은 이 익살맞고 작은 피조물을 자신들의 예언자로 선

14 일부 육식성 새들은 먹이를 살려 둔 채 둥지로 가져온다고 알려져 있다. 만일 그렇다면 수 세기를 거치는 동안, 둥지에 있는 어린 새들로부터 가끔씩 도망쳐 살아 나오는 놈들도 있었을 것이다. 근접해 있지 않은 여러 섬들에 걸쳐 몸집이 작은 설치류들이 어떻게 분포할 수 있는지를 설명하는 데는 그런 매개적 과정이 필요하다.

15 현재는 Chucao Tapaculo(Scelorchilus rubecula)로 불림. 참새목Passeriformes 꼬리세움새과 Rhinocryptidae에 속한다–역주.

택한 셈이다. 추카우새와 비슷하지만 몸집이 좀 더 큰 꼬리세움새Pteroptochos Tarnii는 원주민들 말로 '기드기드guid-guid'라 하며, 영국에서는 '짖는 새barking bird'로 부른다. 짖는 새란 이름이 잘 어울리는 것이, 누구라도 숲 속에서 이 새의 울음소릴 듣게 되면 처음에는 작은 개가 짖는 것으로 느끼기에 의심할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 추카우새의 경우처럼, 가끔씩 바로 옆에서 짖는 것처럼 새의 울음소리가 들려오지만 주의 깊게 찾아봐도 헛수고다. 만일 이 새를 찾기 위해 수풀을 헤칠수록 찾을 수 있는 기회는 점점 줄어들 것이다. 하지만 어떤 때는 기드기드가 아무런 두려움 없이 접근하기도 한다. 먹이를 먹는 모습이나 일반적인 습성은 추카우새와 매우 흡사하다.

해안선[16]에서는 작고 거무스름한 색깔을 띠는 새인 오페티오린쿠스 파타고니쿠스Opetiorhynchus patagonicus[17]를 흔히 볼 수 있다. 주목할 점은 이 새의 습성이 조용하다는 것이다. 이 새는 도요새처럼 해변에서만 서식한다. 띄엄띄엄 갈라져 있는 이 섬들에 서식하는 새들은, 오페티오린쿠스를 제외하면 극소수에 불과하다. 서툰 내 노트에 묘사해 놓은, 새들의 이상한 노랫소리가 어둠침침한 숲 속에서 자주 들려오지만 그렇다고 숲 전체의 정적을 깨뜨릴 정도는 아니다. 기드기드의 짖는 듯한 울음소리나 추카우의 휴휴 하고 갑작스럽게 우는 소리는 멀리 떨어진 곳에서 들려오지만 간혹 가까이서 들려오기도 한다. 티에라델푸에고 섬에서 보이는, 조그마한 검은굴뚝새의 울음소리가 이와 합치기도 한다. 나무타기새의 옥시우루스Oxyurus도 침입자를 따라다니며 야단스럽게 지저귀고, 벌새들도 가끔씩 이리저리 휙휙 날아다니면서 곤충처럼 날카로운 소리로 울어 대곤 한다. 흰볏산적딱새Myiobius가 나무 꼭대기에서 희미하지만 애처롭게 우는 소리를 마지막으로 들은 것 같다. 대부분 다른 지역은 핀

16 이곳 해안을 따라 숲 지대와 트여 있는 지역 간에 계절적인 차이가 얼마나 큰가를 보여 주는 증거 하나가 있다. 9월 20일에 위도 34도 부근의 둥지에는 벌써 어린 새들이 부화되어 있었다. 반면 이곳에서 210킬로미터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초노스 섬에서는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난, 여름에야 비로소 둥지에 알을 낳고 있었다.

17 Cinclodes patagonicus와 같으며 검은배화덕딱새류이다-역주.

치새처럼 흔히 볼 수 있는 새들이 절대다수를 점하고 있는 데 비해, 이곳의 가장 흔한 새는 모두 위에서 열거한 독특한 모습의 새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된다면 우선 놀랄 것이다. 칠레 중앙 지역에는 이 중 나무발바리와 꼬리세움새류 두 종류가 출현하지만 극히 드물다. 여기에서처럼 자연이라는 큰 설계도 위에서 그리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지 않을 것처럼 보이는 동물을 발견하게 되면, 그런 동물은 도대체 왜 창조되었을까 하는 의문이 습관적으로 일어난다. 그러나 다른 지역에는 위의 두 종의 새들이 아마도 자연계에서 중요한 구성원이거나, 혹은 그전 시기에 그런 역할을 했었으리라는 점을 항상 유념해야 한다. 만일 아메리카 남부 37도 부근이 바닷물 속으로 가라앉는다면, 이 두 종은 칠레 중앙 지역에서 오랫동안 계속 생존하겠지만 개체 수가 증가하기에는 매우 어려울 것이다. 이런 사례가 굉장히 많은 동물들에게서도 함께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 있음을 알아야만 한다.

바다제비 몇몇 종이 남쪽 바다에 자주 나타난다. 이 중에서 가장 큰 종류는 큰풀머바다제비Procellaria gigantea,[18] 혹은 넬리(스페인어로 '뼈를 깬다'라는 뜻)인데, 주로 내륙 수로나 공해 상에서 흔히 볼 수 있다. 이 새의 습성이나 날아가는 모습은 알바트로스와 매우 흡사하다. 몇 시간이나 계속 그 새를 지켜봐도, 알바트로스의 경우처럼, 그놈들이 어떤 먹이를 먹는지 알기란 매우 어렵다. 하지만 '뼈를 깬다'라는 의미가 나타내듯 이 새는 육식성이다. 산안토니오 항에서, 장교 몇 명은 이 새가 무자맥질하는 새를 공격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었다. 공격당하는 새는 도망가기 위해 물속으로 들어가거나 날거나 하면서 혼신의 노력을 다했지만, 계속된 타격으로 마침내는 머리에 큰 충격을 입고 죽었다. 또한 산훌리안 항에서는, 거대한 바다제비가 어린 갈매기를 잡아 게걸스럽게 먹는 모습을 본 적이 있다. 또 다른 종인 큰붉은발슴새Puffinus cinereus[19]는 유럽이

18 Macronectes giganteus. 남극권 주위의 섬들과 아남극 근해에서 번식하고, 많은 집단성 해양 조류의 새끼를 잡아먹는다. 이 새의 지독한 악취 때문에 똥새stinker라고도 한다—역주.

19 Puffinus gravis. 붉은발슴새속屬Puffinus의 한 종. 큰슴새Greater Shearwater라고도 한다—역주.

나 혼 곳, 페루 해안선에서 흔히 볼 수 있는데, 큰풀머바다제비와 비교할 때 크기가 훨씬 작지만 색깔은 비슷해서 칙칙한 검은색을 띤다. 이 새들은 대체적으로 내륙 쪽 해협에서 큰 무리를 지어 자주 나타난다. 칠로에 섬의 뒤쪽에서 봤듯이, 이들처럼 많은 수로 무리를 이루는 새들을 본 적이 없다. 수십만 마리의 새들이 불규칙적인 선을 그리면서 몇 시간 동안 한 방향으로 난다. 무리 중 일부가 수면 위로 내려앉으면, 수면은 검게 변하면서 마치 멀리 떨어진 곳에서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것 같은 소음이 들려온다.

다른 바다제비들이 몇 종 더 있지만 그중 한 종류만 더 언급하고자 한다. 베랄디잠수바다제비Pelacanoides Berardi라는 이 종은 분류상 잘 알려진 과에 속하는 것이 확실하지만, 좀 예외적인 경우로, 습성이나 몸의 구조가 전혀 다른 종과 오히려 유연관계가 있음을 보여 준다. 이 새는 조용한 내륙 쪽 해협을 결코 떠나지 않는다. 이놈들을 교란시키면 물속으로 잠수해 어느 정도 나아간 후, 수면 위로 나와 똑같은 몸짓으로 다시 날아오른다. 작은 날개를 빠르게 움직이면서, 허공을 직선 방향으로 날아오른 후에 마치 얻어맞아 죽은 것처럼 물속으로 떨어져 다시 잠수를 시작한다. 부리나 콧구멍의 형태라든지 발의 길이, 심지어 깃털의 색깔까지도 바다제비와 똑같다. 반면에 짧은 날개나 혹은 그로 인해 날아오르는 힘이 부친다든지, 또는 체형이나 꼬리의 생김새, 뒤 발톱이 없는 발, 그리고 자맥질하는 습성이나 그 상황 선택 등을 살펴보면, 처음에는 이 새가 바다쇠오리Auklet[20]와 유연관계가 가까운 생물이 아닌가 하는 의문점을 갖게 한다. 이 새가 날아가는 모습이라든지, 또는 티에라델푸에고의 외진 수로 주위를 자맥질하거나 조용히 헤엄치고 있는 모습을, 약간 떨어져서 바라본다면 확실히 바다쇠오리가 맞다고 오인할 수도 있겠다.

20 도요목Charadriiformes 바다오리과Alcidae에 속하는 바닷새류. 일반적으로 22종種으로 알려져 있으며, 21종이 현존하고 있다-역주.

● 비글호는 칠로에 섬과 트레스몬테스 반도까지 흩어져있는 초노스 제도를 조사하기 위해 발파라이소 지방에서 남쪽으로 항해를 계속한다. 칠로에 섬에 도착한 다윈은 다양한 상록수와 열대성 식물들을 보며 티에라델푸에고 지역과는 또 다른 감회를 느낀다. 그 후 다윈은 소형보트나 웨일보트, 혹은 말을 사용하여 칠로에 섬 동쪽의 내륙 해안선 지역을 조사하기 시작한다. 여정을 계속하면서 그곳 원주민들의 모습과 생활상에 대해 자세히 기술하고 있다. 칠로에 섬에서 그곳 인디오 원주민의 궁핍한 생활상을 자세히 묘사하고 있는데, 그 주된 이유를 일조량 부족으로 작물들이 자라기에는 기후가 적합하지 않고 일할 곳이나 운송 수단이 부족하다는 점, 그리고 정부의 규제로 인한 경작지의 부족 등으로 해석하고 있다. 한편, 다윈은 이곳에서 인디오 가족을 만나는데 부자지간의 모습에 큰 차이가 있음을 발견한다. 이곳 거주민들이 비록 인디오의 생활방식이나 인디오식 별명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스페인 혈통과 원주민과의 결혼으로 인해 혼혈아 비율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음을 다윈은 인구조사 결과 자료와 함께 설명하고 있다. 동시에 거주민 모두가 기독교 신자이지만 인디오의 미신적 의식이 생활에 아직 남아있음을 의아스럽게 생각하는데, 이는 문화적 융합의 한 형태로 나타나는 과도기적 현상으로 해석될 수도 있겠다.

다윈은 칠로에 섬 남단에서 윈터스바크나 사사프러스 나무, 붉은삼나무, 알레르케소나무 등과 함께, 생육이 저해된 너도밤나무를 보면서, 식생이 티에라델푸에고의 풍경에 가까워진다고 기술한다. 또한 운 좋게도 산페드로 섬에서만 나타나는 희귀종 카니스 풀비페스라는 여우를 잡는 데 성공하여 자연사 기념관에 박제 형태로 전시한다. 비글호에 다시 합류한 다윈은 초노스 제도를 향하면서, 변해가는 날씨와 바다의 상태, 육상 답사를 통한 산들의 모습과 식생의 변화를 자세히 묘사하고 있다. 다윈은 거칠게 생긴 이곳의 산을 오르면서 느끼는 경관의 감동과 지질의 특징을 기술하면서, "어떤 주제에 대해 인간이 가진 지식의 한계가 드러나면 많은 흥미를 불러일으키기 마련인데, 그 주제가

상상의 영역으로 접근해 가면 갈수록 흥미 역시 점점 더 커져간다"고 했는데, 그의 체험적 사실을 들려주는 것 같아 많은 공감을 일으킨다. 1835년의 새해를 초노스 제도 남부에서 맞이한 다윈은, 해변 근처에 자라는 '아키나스'라는 야생감자의 모양과 맛을 소개하면면 칠레 중부의 건조한 지역에서 나타나는 것과 같은 종류지만, 변이로 인한 별개의 종으로도 간주될 수 있다는 헨슬로우 교수의 말을 인용하고 있다. 이 내용은, 다윈의 사상이 형성되어가는 과정에서의 사고의 흔적, 혹은 환경 적응으로 인한 적자생존의 한 사례로 볼 수 있으리란 생각이 든다.

초노스 제도 평지에 나타나는 아스텔리아, 도나티아 식물들을 보면서, 다윈은 이끼 없이 일어나는 이곳 이탄층의 토양 형성 과정에는 늪지나 지하수가 개입하고 있다는 사실을 과학적으로 추론하고 있다. 이외에도 이곳의 동물들이 종류는 매우 빈약하지만 흔히 볼 수 없는 종으로 독특한 모습을 띤다고 기술하고 있다. 뉴트리아쥐와 이와 유사하게 생긴, 칠로에 섬에는 없고 초노스 제도에서만 나타나는 생쥐, 독특한 울음소리의 '추카우'새, 해변에만 나타나는 조용한 습성의 새 '오페티오린쿠스 파타고니투스', 그밖에 '옥시우루스', '흰볏산적딱새'등을 언급하면서 다른 곳에서는 흔한 핀치새가 여기서는 흔하지 않다는 점을 다윈은 흥미롭다는 듯이 얘기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특히 추카우새의 울음소리를 예언으로 삼고 있는 인디오 원주민들의 미신적 행태와 관련하여 이 새의 행동 습성을 재미있게 설명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다윈은 큰 풀머바다제비와 베랄디바다제비의 식성이나 비행 모습을 회화적으로 묘사하면서 "여기에서처럼, 자연이라는 큰 설계도 위에서 그리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지 않을 것처럼 보이는 동물들을 발견하게 되면, 그런 동물들은 도대체 왜 창조되었을까 하는 의문이 습관적으로 일어난다"고 했는데, 이 말은 다윈뿐만 아니라 자연과학을 하려는 모든 이들에게도 좋은 학문적 동기가 될 수 있으리라 믿는다. 다윈의 이러한 학문적 호기심과 탐구 태도가 후에 진화론이란 큰 사상으로 모습을 드러내는 토대가 되지 않았을까?



칠로에 섬과 콘셉시온 : 대지진



제14장
칠로에 섬과 콘셉시온 : 대지진

칠로에 섬의 산카를로스—아콩카과 화산, 코세기나 화산과 동시에 분출한 오소르노 화산—쿠카오까지 말을 타고 감—빽빽이 우거져 있는 숲—발디비아의 인디오—지진—콘셉시온—대지진—균열된 암반—대지진 이전의 시가지 모습—검게 변하며 끓는 바다—진동의 방향—뒤틀린 암석—거대한 파도—육지의 영구적 융기—화산 활동 지역—융기력과 폭발력의 상관관계—지진의 원인—산맥의 완만한 융기

1월 15일 | 우리는 로 항에서 출발해, 3일 후에 칠로에 섬의 산카를로스 만에 두 번째로 정박했다. 19일 밤에 오소르노 화산이 활동을 시작했다. 한밤중에 망을 보던 사람이 커다란 별 같은 것을 관찰했는데, 그것은 크기가 점점 커져 새벽 3시경에는 장관을 이뤘다. 망원경으로 보니, 커다란 붉은 섬광 한가운데에서 검은 물체가 끊임없이 치솟았다가 아래로 떨어지곤 했다. 빛이 반사되어 수면이 밝게 빛났다. 이 지역에 걸쳐 있는 코르디예라 산맥의 분화구에서 커다란 용암 덩어리들이 분출되어 나오는 것은 흔히 있는 일 같다. 코르코바도 화산이 폭발하면 커다란 덩어리들이 솟아올라 공중에서 터지며, 마치 나무 모양 같은 환상적인 광경을 연출한다고 한다. 코르코바도에서 150킬로미터 이상 떨어져 있는 산카를로스 뒤쪽의 높은 언덕에서도 그 불꽃이 뚜렷하게 보일 정도라니 그 크기는 틀림없이 엄청날 것이다. 아침 무렵에야 화산은 잠잠해지기 시작했다.
나중에, 이곳에서 북쪽으로 770킬로미터 떨어진 칠레의 아콩카과 화산도 이날 밤 활동했다는 것을 듣고는 놀랐다. 더욱더 놀라운 것은 이것들이 폭발한지 여섯 시간도 안 돼, 아콩카과에서 북쪽으로 4천3백 킬로미터 떨어진 코세기나 화산에서도 거대한 화산 활동이 일어났고 그때 함께 일어난 지진은 1천

6백 킬로미터 밖에서도 감지되었다고 한다. 코세기나 화산은 26년 동안 휴면 상태에 있었고 아콩카과도 화산 활동에 대한 어떤 조짐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일련의 화산 활동이 이렇게 일치된 것이 더욱 놀랍다. 이러한 일치가 우연히 일어난 것인지, 아니면 땅속으로 연결된 뭔가가 있는 것인지 추측하기조차 어렵다. 아이슬란드의 베수비오, 에트나, 헤클라 화산(이 세 곳은 남아메리카의 세 화산보다는 거리가 비교적 가깝다)도 같은 날 밤 갑자기 분출을 시작했다면, 그곳에서의 일치도 놀라운 것이라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곳의 경우가 훨씬 주목을 끄는데, 그 이유는 세 화산이 모두 같은 산맥에 있고, 동해안을 따라 형성된 광대한 평원과 서해안의 3천2백 킬로미터에 걸쳐 융기된 지층에서 발견되는 현생 조개류의 껍데기는 융기를 일으키는 힘이 어떻게 균일하게 서로 연결되어 작용하고 있는지 보여 주기 때문이다.

피츠로이 함장은 칠로에 섬의 바깥쪽 해안에서 몇몇 지점의 방위를 측정하는데 골몰하고 있어, 나와 킹 씨는 카스트로까지 말을 타고 가서 그곳으로부터 섬을 가로질러 서해안의 카펠라데쿠카오까지 가는 계획을 세웠다. 말과 안내인을 구한 뒤 22일 아침에 떠났다. 얼마 가지 않아, 같은 방향으로 가는 여자 한 명과 소년 두 명이 합류했다. 동행하는 사람들 모두 '서로 거리낌 없이' 행동했고, 이곳에서는—남아메리카에서는 드문 일이지만—총을 휴대하지 않고도 여행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릴 수 있다. 처음에는 언덕과 계곡이 연속해서 나타나더니 카스트로에 가까워지자 매우 평탄해졌다. 길 자체가 호기심의 대상이다. 길 전체에 거의 빈틈없이 넓은 통나무를 세로로 깔거나 좁은 통나무를 가로로 깔아 놓았다. 여름에는 별문제가 없지만 겨울에는 비 때문에 나무가 미끄러워서 지나다니기가 무척 힘들다. 겨울철이면 길 양쪽의 땅은 저습지가 되고 종종 물이 차기도 한다. 그러므로 세로로 깔려 있는 통나무는 양옆으로 막대기를 가로로 박아 땅에 단단히 고정해야 한다. 말에서 떨어질 때 이러한 말뚝 중 하나에 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위험 요소를 안고 있다. 그러나 칠로에 섬의 말들이 어찌나 민첩하게 행동하는지 내심 놀랐다. 통나무가

유실되거나 잘못 놓인 부분을 지날 때면, 거의 개와 같은 민첩성과 정확성으로 그 부분을 건너뛴다. 길 양쪽으로는 키 큰 나무들이 둘러쳐 있고 나무들 아래는 등나무 줄기가 헝클어져 있다. 어쩌다 이 길이 멀리 뻗어 있는 것이 보일 때도 있는데, 신기할 정도로 단조로운 풍경이다. 멀리서 보면 얇아 보이는 통나무의 하얀 선이 침침한 숲에 의해 가려지거나, 약간 경사진 언덕을 올라가며 구불구불하게 끝이 난다.

산카를로스에서 카스트로까지의 직선거리는 58킬로미터 정도밖에 안 되지만, 길을 내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다. 예전에 그 숲을 통과하려고 했던 몇 사람이 목숨을 잃었다는 얘기를 들었다. 그곳을 건너간 최초의 사람은 인디오였다. 그는 8일 동안 나무줄기를 잘라 내고 길을 뚫어 산카를로스에 도착했다. 그는 스페인 정부로부터 막대한 땅을 상으로 받았다. 여름에는 많은 인디오들이, 등나무나 다른 나무의 잎을 먹고 사는 반야생의 소들을 잡기 위해 숲을(주로 숲이 그렇게 무성하지 않은 높은 곳) 돌아다닌다. 몇 년 전, 섬의 바깥쪽 해안에서 좌초한 영국 배를 우연히 발견한 사람도 이들 사냥꾼 중 한 명이었다. 그 배의 선원들은 식량이 바닥나기 시작했는데, 이 사냥꾼의 도움이 없었다면 그렇게 빽빽한 숲을 결코 빠져나가지 못했을 것이다. 상황이 그런지라, 선원 한 명은 숲을 뚫고 나오는 동안 너무 힘이 들어 죽고 말았다. 인디오들은 태양을 보고 방향을 잡는다. 그러므로 구름 낀 날씨가 계속되면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다.

날씨는 화창했고, 꽃이 만개한 나무에서는 향기가 뿜어져 나왔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도 숲에서 풍기는 어둠침침하고 축축한 분위기를 모두 없애지는 못했다. 더군다나 많은 죽은 나무줄기들이 뼈다귀처럼 늘어서 있어서 이 태고의 숲에—오래전에 문명화된 지역의 숲에서는 볼 수 없는—장엄미를 더하는 데 손색이 없다. 해가 지고 나서 곧바로 야영할 준비를 했다. 우리와 동행한 여인은 비교적 미인이었고 카스트로에서 매우 존경받는 집안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신발이나 양말도 신지 않은 채 말 위에 걸터앉아 있었다. 그녀와 그녀의 남동생들에게서 그 어떤 자존심도 없는 것을 보고 놀랐다. 그들은 자기들이 먹

을 음식을 가져왔으면서도 식사 때마다 킹 씨와 나를 쳐다보고 앉아 있는 바람에 우리가 무안해서 음식을 나눠 줄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 밤에는 구름 한 점 없었다. 잠자리에 누워 어두운 숲을 비추는 수많은 별들을 감상했다. 무척이나 행복한 경험이었다.

1월 23일 | 아침 일찍 출발해서 오후 2시경에 아름답고 조용한 카스트로 시에 도착했다. 지난번 방문했을 때 봤던 나이 든 총독은 죽고 대신 칠레 사람이 그 직책을 수행하고 있었다. 우리는 돈 페드로에게 보내는 소개장을 가지고 갔다. 그는 무척이나 호의적이고 친절했으며 이쪽 지역에 대해 누구보다도 더 사심 없이 공평했다. 다음 날 돈 페드로는 우리에게 좋은 말을 구해 주었고 자신이 직접 우리를 안내해 주겠다고 했다. 우리는 여느 때처럼 해안을 따라 남쪽으로 내려가며 나무로 만든 커다란 헛간 같은 예배당이 있는 작은 마을 몇 개를 지났다. 빌리필리에서 돈 페드로는 사령관에게 쿠카오 호수까지 안내해 줄 사람을 붙여 달라고 부탁했다. 그러자 그는 자신이 직접 가겠다고 했다. 그러나 쿠카오처럼 외진 데를 우리 두 명의 영국인이 정말로 가보고 싶어 한다는 것이 그에게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것 같았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그 지역에서 가장 지위가 높은 귀족 두 명과 동행하게 되었는데, 불쌍한 인디오들이 그들을 대하는 태도를 보자 더욱 실감이 났다. 촌치에서는 복잡하게 굽은 길을 따라 섬을 가로질러 갔다. 때로는 울창한 숲을 지나기도 하고, 옥수수와 감자가 풍성하게 자라고 있는 아름다운 개간지를 지나기도 했다. 이렇게 기복이 있는 숲은 물론 부분적으로 개간되기는 했지만, 영국의 황무지를 연상케 해서 나의 눈에는 매우 매혹적인 광경이다. 쿠카오 호숫가에 있는 빌링코는 겨우 몇 곳만 개간되었고, 그곳의 주민들은 전부 인디오로 보였다. 이 호수는 길이가 19킬로미터 정도고 동서 방향으로 흐른다. 국지적 정황으로 보아 해풍이 낮에는 매우 규칙적으로 불고 밤에는 잠잠해지는데, 이 현상은 우리가 산카를로스에서 보았듯 매우 불가사의한 것이기 때문에 더욱 두드러져 보인다.

쿠카오로 가는 길이 좋지 않아 '페리아구아periagua'를 타기로 했다. 우리와 동

행한 사령관은 여섯 명의 인디오에게—여비를 줄 것인지 말도 하지 않고, 부탁하는 태도도 아닌 매우 강압적인 태도로—우리를 태울 준비를 하라고 명령했다. 페리아구아는 이상하고 조잡한 배인데 사공들은 더 이상했다. 나는 이 여섯 명의 인디오들이 그전에 배를 함께 탔던 적이나 있었는지조차 의심스러웠다. 그러나 그들은 즐겁게 저어 갔다. 앞 노를 젓는 인디오는 말이 많았고 돼지몰이를 하듯 이상한 소리를 질러 댔다. 우리는 가벼운 바람을 맞으며 출발했지만 그리 늦지 않게 카펠라데쿠카오에 도착했다. 호수 양쪽은 개간되지 않은 숲이었다. 우리가 탄 페리아구아에 암소 한 마리가 탔었다. 작은 배에 그렇게 큰 동물을 태운다는 것이 처음에는 불가능해 보였으나, 인디오들은 몇 분 만에 능숙하게 소를 태운 후 배의 가장자리로 몰아가서 배가 그쪽으로 기울었다. 그런 다음 노 두 개를 소의 배 아래쪽으로 넣고 양 끝을 배 난간에 걸쳐 놓았다. 이걸 이용해 소의 머리가 배 바닥에 닿도록 뒤로 넘어뜨린 후 밧줄로 단단히 묶어 버렸다. 쿠카오에서는 사람이 살지 않는 오두막집을 발견했다. 그곳은 신부가 카펠라를 방문할 때마다 묵었던 곳으로 우리는 이곳에다 불을 피우고 저녁 식사를 준비하면서 아늑한 밤을 보냈다.

쿠카오는 칠로에 섬의 서해안 전역에서 유일하게 사람이 거주하는 구역이다. 약 30~40가구가 살고 있으며 이들은 해안을 따라 6~8킬로미터씩 거리를 두고 흩어져 있다. 그들은 칠로에 섬의 다른 곳과는 완전히 동떨어져 생활하고 있으며 바다표범 지방에서 얻는 기름 약간을 제외하고 상업적 물품은 거의 없다. 옷은 직접 만들어 그럭저럭 입고, 먹을 것도 풍부하다. 그러나 그들은 보는 사람이 고통스러울 정도로 불만이 많아 보인다. 이러한 감정을 갖게 된 이유는 지배자들이 가혹하고 강압적인 태도로 그들을 대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우리와 동행한 사령관은 우리에게는 정중하나, 불쌍한 인디오들에게는 그들이 자유인이라기보다는 노예인 것처럼 대한다. 그들은 인디오들에게 식량과 말을 내놓으라고 명령하면서도 비용이 얼마인지 실제로 얼마를 줘야 하는지 물어보지도 않는다. 아침에 인디오들만 있을 때 담배와 마테 차를 주면서

그들의 마음을 풀어 주려 했다. 선물과 함께 흰 설탕 한 덩어리씩을 주자 매우 신기한 듯이 맛을 봤다. 인디오들은 "우리를 그렇게 대접하는 것은 우리가 비참한 인디오들이고,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왕이 있을 때는 그렇지 않았어요"라는 말로 그들의 모든 불평을 끝맺었다.

다음 날 아침을 먹고 북쪽으로 몇 킬로미터 말을 달려 푼타우안타모에 갔다. 아주 넓은 해안을 따라 길이 펼쳐져 있고, 맑은 날이 여러 날 지속되었는데도 파도가 심하게 일고 있었다. 바람이 심하게 불며 일으킨 파도 소리가 어찌나 큰지 언덕이 있고 숲이 우거진 지역을 지나 심지어 38킬로미터 이상 떨어진 카스트로에서도 밤에는 그 소리가 들릴 정도라고 한다. 그늘진 곳이면 어디든 땅은 완전히 진창이라 길 상태가 굉장히 좋지 않아서 정상까지 가는 데 고생을 좀 했다. 정상은 가파른 바위산이었는데, 브로멜리아와 연관 있어 보이고 원주민들이 체포네스라고 부르는 식물로 덮여 있었다. 그 지대를 기어가면서 손을 많이 긁혔다. 우리를 안내해 주는 인디오들은 자신의 단단한 살갗보다 바지가 더 잘 긁힐 것이라 생각했는지 조심스럽게 바지를 접어 올리고 갔는데, 그 모습이 재미있었다. 이 식물에는 솜엉겅퀴 모양의 열매가 매달려 있는데 그 안에는 수많은 씨주머니가 있고 이곳에서 귀하게 여기는 달콤한 과육이 들어 있다. 로 항구에서 칠로에 사람들이 이 과일을 가지고 치치chichi, 즉 과일주를 만드는 것을 본 적이 있다. 훔볼트가 지적했듯이, 거의 모든 지역에서 인간은 이러한 계통의 식물로 음료수를 만드는 방법을 알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티에라델푸에고와, 내가 알기로는, 오스트레일리아의 원주민들도 이러한 기술을 아직 모르는 것 같다.

푼타우안타모 북쪽 해안은 온통 바위투성이로 울퉁불퉁하고 파도가 수없이 부서지고 바다는 끊임없이 포효하고 있다. 킹 씨와 나는 가능하다면 이 해안을 따라 걸어서 돌아가고자 했다. 그러나 인디오들조차 그것은 실현 불가능하다고 했다. 쿠카오에서 산카를로스까지 숲을 통과해 직선으로 간 사람은 많았지만 해안을 따라서 간 사람은 없었다고 했다. 이번 탐험에서 인디오들은 볶은

옥수수를 가지고 다니면서 하루에 두 번 정도 아껴서 먹었다.

1월 26일 | 다시 페리아구아를 타고 호수를 건넌 후 말에 올라탔다. 칠로에 섬 전역은 이번 주 내내 계속되는 쾌청한 날씨 덕분에 나무를 태워 땅을 개간할 수 있었다. 사방에서 내뿜는 연기가 하늘로 솟아올랐다. 원주민들은 주도면밀하게 숲 곳곳에 불을 놓지만, 한 번도 광범위하게 번지게 하는 데 성공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 사령관과 저녁 식사를 했고, 어두워진 후에도 카스트로에 도착하지 못했다. 다음 날 아침 아주 일찍 출발했다. 몇 시간 동안 말을 달린 후, 경사진 언덕의 꼭대기에서 거대한 숲의 전경(길 쪽에서는 잘 볼 수 없는)을 볼 수 있었다. 나무들이 어우러진 지평선 위로 코르코바도 화산과 평평한 봉우리를 가진 거대한 화산 하나가 북쪽에서 위용을 뽐내며 버티고 있었다. 긴 산맥을 따라 다른 봉우리들의 눈 덮인 정상은 거의 보이지 않았다. 칠로에 섬 앞에 버티고 있는 이 장대한 코르디예라 산맥의 마지막 모습을 오래도록 기억하고 싶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밤하늘 아래서 야영을 하고, 다음 날 아침 산카를로스에 도착했다. 우리가 때맞춰 도착한 것이, 저녁이 되기 전에 굵은 빗줄기가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다.

2월 4일 | 칠로에 섬을 떠났다. 떠나기 전 마지막 주에는 짧은 답사를 몇 번 했다. 한번은 현생 조개껍데기가 묻혀 있는, 해발 1백 미터 이상으로 융기한 거대한 지역에 가보았다. 이런 조개껍데기 속에서 큰 나무들이 자라 숲을 이루고 있었다. 또 한 번은 푼타우에추쿠쿠에 가봤는데, 그 지역에 대해 지나칠 정도로 많이 아는 인디오와 동행했다. 그는 가는 곳마다 작은 봉우리, 시냇물, 작은 만에 붙여진 끝도 없이 긴 인디오 이름을 끈질기게 설명해 줬다. 티에라델푸에고에서도 그랬듯이, 인디오 언어는 어떤 지형의 아주 사소한 특징을 따서 이름을 붙이는 데 신기하게도 잘 들어맞는다. 아마도 칠로에 섬을 떠나는 것에 대해 모든 사람들이 기뻐했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겨울철의 음습함과 끊임없이 내리는 비를 잊을 수만 있다면, 칠로에 섬은 매력적인 곳이라 할 수도 있다. 그곳에는 원주민들의 소박함과 진심 어린 친절함에서 우러나오는,

사람을 끄는 뭔가가 있다.
우리는 해안을 따라 북쪽으로 항해했다. 짙은 안개 때문에 8일 밤이 되어서야 발디비아에 도착했다. 다음 날 아침, 보트를 타고 16킬로미터 정도 떨어진 마을로 갔다. 강줄기를 따라가며 간혹 작은 촌락과 듬성듬성한 개간지를 지나갔고 인디오 가족들이 탄 카누도 만났다. 마을은 강의 저지대에 형성되어 있고 사과나무 숲에 완전히 파묻혀 있어, 과수원 사이로 간신히 지나다닐 수 있는 길이 나 있을 뿐이다. 사과나무가 이 습한 남아메리카의 기후에 그토록 잘 적응해 자라는 과수원은 이제까지 어떤 지역에서도 본 적이 없다. 길가에는 씨가 떨어져 저절로 자라난 어린나무가 많았다. 칠로에 섬 원주민들은 놀랄 만큼 단기간에 과수원을 만드는 방법을 알고 있다. 거의 모든 가지의 아랫부분에는 작은 원뿔 모양의 주름진 갈색 돌기들이 솟아 나와 있다. 이것들은 언제든지 뿌리로 변할 가능성이 있는 것들로서, 때로는 진흙이 나무에 흩뿌려져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이른 봄에, 넓적다리만큼 굵은 가지를 골라 이 돌기들이 모여 있는 곳 바로 아래를 베어낸다. 잔가지들은 쳐낸 후 60센티미터 깊이로 땅에 묻는다. 여름이 시작되면서 그 가지에서는 긴 싹이 돋아 나오고 심지어 어떤 것들은 열매를 맺기도 한다. 나는 23개 정도의 사과를 매달고 있는 가지를 본 적이 있는데, 이런 경우는 매우 예외적인 것이라고 한다. 3년이 지나야 땅에 파묻은 가지는 (내가 봤던) 열매가 열리는 잘 자란 나무가 되는 것이다. 발디비아 근방에 사는 한 노인은 사과로 만든 여러 가지 유용한 것들에 대해 설명하며, "필요는 발명의 어머니"라는 좌우명을 들려줬다. 와인 같은 과일주를 만들고 남은 찌꺼기에서 흰색의 향기 나는 주정을 추출하거나, 또 다른 방법으로는 그가 꿀이라고 부르는 당밀을 만들기도 한다. 그의 아이들과 돼지들은 사과가 열리는 계절에는 과수원에서 살다시피 한다.
2월 11일 | 안내인과 잠시 말을 타고 나갔지만, 그곳의 지형이나 원주민에 대해 알아낸 것이 거의 없다. 발디비아 부근에는 개간지가 그리 많지 않다. 몇 킬로미터 떨어진 강을 건너 우리는 숲으로 들어섰다. 밤이 되어 잠잘 곳에 도착하

기까지 초라한 오두막집 하나만을 지났을 뿐이다. 칠로에 섬과 비교할 때 위도로 240킬로미터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데도 숲은 색다른 모습이다. 이는 나무들의 종류가 약간 다른 것에 기인한다. 상록수가 그리 많지 않아서 숲은 더 밝은 색을 띠고 칠로에와 마찬가지로 등나무 줄기가 엉켜 땅 위를 덮고 있다. 또한 또 하나의 식물종(브라질의 대나무를 닮았고, 높이가 6미터 정도 되는)이 군락을 이뤄 강둑을 아름답게 장식하고 있다. 바로 이 나무가 인디오들이 추조chuzo나 긴 테이프 같은 장식물을 만드는 재료가 되는 것이다. 우리가 머무는 집이 너무 지저분해서 나는 차라리 밖에서 자기로 했다. 이번 여행의 첫날밤은 괴로웠다. 콕콕 깨무는 벼룩에 적응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내 다리에는 은화 한 닢 크기 정도도 성한 데 없이 온통 벼룩들이 잔치를 벌인 빨간 점들로 덮여 있었다.

2월 12일 | 우리는 말을 타고 벌채되지 않은 숲을 지났다. 간혹 말 탄 인디오를 만나거나 남쪽 평야 지대로부터 알레르케 소나무 널빤지와 밀을 운반하는 노새 무리를 보기도 했다. 오후에 말 한 마리가 녹초가 되어 쓰러졌다. 우리는 작은 언덕마루에 도착했는데, 그곳에서는 야노스 평야가 눈에 들어왔다. 이 광활한 평야의 풍경은 야생의 숲을 통과한 뒤라 매우 신선했다. 이 서쪽 해안은 나에게 끝없이 넓은 파타고니아 평원을 떠올리는 즐거움을 안겨 준다. 숲이 단조로워 이내 지겨워졌지만 이와는 모순되게 숲의 정적이 만들어 내는 장엄함 또한 잊을 수가 없다. 야노스 평원은 나무가 거의 없는 이점 때문에 이 지역에서 가장 비옥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사는 곳이다. 숲을 벗어나기 전에, 영국의 공원처럼 주위에 나무 한 그루 정도 서 있는 평평하고 작은 잔디밭을 지났다. 나무로 우거진 구릉지에서 나무가 자라지 않는 매우 평평한 부분이 있다는 것에 종종 놀라움을 느낀다. 지친 말 때문에 쿠디코 선교구에 머물기로 했다. 우리는 이 선교구의 수도사에게 보내는 소개장을 가지고 왔다. 쿠디코는 우리가 지나온 숲과 야노스 평원의 중간쯤에 있다. 그곳에는 밀과 감자밭이 딸린 오두막집들이 많은데, 대부분 인디오들이 거주하고 있다. 발디비

아에 예속되어 있는 인디오 부족들은 '정복당해 천주교 신자가 된 사람들'이다. 이곳보다 더 북쪽인 아라우코와 임페리알 근처의 인디오들은 아직도 자신들의 생활 방식을 고수하며 개종하지 않고 있으나, 스페인 사람들과의 교류는 활발하다. 천주교를 믿는 인디오들은 미사에 참석하는 것을 좋아하지는 않더라도 종교에 대한 경외심은 있다고 신부가 말했다. 그들의 결혼 관습을 바꾸게 하는 것이 가장 어렵다고 한다. 인디오들은 원래 그들이 부양할 수 있는 한 많은 부인을 두는 것이 관습이다. 어떤 추장은 부인이 열 명 이상인 경우도 있다. 그의 집 안에 있는 화롯불의 수가 부인의 수를 말해 준다. 부인들은 차례로 돌아가며 일주일씩 추장과 지낸다. 그러나 모두가 추장을 위해 판초를 짜는 등의 일을 한다. 추장의 부인이 되는 것은 많은 인디오 여자들에게는 영광스러운 일이다.

이 부족의 모든 남자들은 털로 거칠게 짠 판초를 입는다. 발디비아 남쪽 사람들은 짧은 바지를 입고 북쪽 사람들은 가우초의 칠리파 같은 페티코트를 입는다. 대부분 긴 머리를 빨간 끈으로 묶고 있으며 머리에는 아무것도 쓰지 않는다. 이 인디오들은 체구가 건장하며 광대뼈가 튀어나왔고 전체적인 생김새는 그들이 속한 아메리카 인디오 계통과 닮았다. 그러나 인상은 전에 보았던 여느 부족과는 어딘가 다른 점이 있다. 그들은 대개 근엄하다 못해 아주 엄격해 보이며 개성이 많아 보여서, 정직한 완고함 내지는 강인한 결단력이 있어 보인다. 기다란 검은 머리, 엄숙하고 주름 잡힌 얼굴, 어두운 안색 등은 제임스 1세의 오래된 초상화를 떠올리게 한다. 이곳을 지나는 동안 칠로에 섬 사람들에게서 보았던 겸손하고 예의 바른 태도를 가진 사람은 한 명도 보지 못했다. 몇몇 사람은 짧게 "마리, 마리(안녕)"라고 하기도 했으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마디 인사도 건넬 마음이 전혀 없는 것 같다. 이런 배타적이고 독자적인 태도는 스페인 사람들과의 기나긴 전쟁에서 다른 부족은 이루지 못한 승리를 여러 번 쟁취한 결과인 듯싶다.

그날 밤은 마을의 신부와 이야기를 나누며 즐겁게 보냈다. 그는 친절하고 호

의적인 사람이었으며, 산티아고 출신으로 약간의 편의 시설을 갖추고 그럭저럭 살고 있었다. 자신이 교육을 거의 받지 못해 사교계에서 완전히 소외당하는 것에 대해 불평을 심하게 늘어놨다. 종교에 대한 열정도 없고 어떤 사업이나 추구하는 바도 없으니 이 사람의 인생은 얼마나 헛된 것인가! 다음 날 돌아오는 길에 매우 야만적으로 보이는 인디오 일곱 명을 만났다. 그들 중 몇은 추장이었는데, 이들은 칠레 정부와 오랫동안 우의를 지속시킨 데 대한 대가로 1년에 한 번씩 정부가 주는 쥐꼬리만 한 돈을 받아 오는 중이었다. 그들은 인상이 좋아 보였으며 우울한 표정을 한 다른 사람들과 교대로 말을 타고 가고 있었다. 우두머리인 나이 든 추장은 매우 근엄하고 괴팍해 보이는 것으로 미루어, 다른 사람들보다 술을 더 많이 마신 것 같다. 이들과 만나기 전에 인디오 두 명이 우리와 합류했다. 한 명은 유머가 풍부한 노인이었는데 주름 잡힌 얼굴에 수염이 거의 없어서 할아버지라기보다는 할머니처럼 보였다. 나는 그 두 사람에게 자주 담배를 권했다. 그들은 덥석덥석 잘도 받았지만, 설사 내가 먼저 감사하다는 말을 했으면 했지, 나에게 어떠한 감사의 표시도 하지 않았다. 칠로에 섬 인디오라면 모자를 벗고 "신의 가호를"이라고 말했을 텐데. 길이 좋지 않았고 큰 나무들이 쓰러져 가로막고 있어서 건너뛰거나 멀리 돌아오느라 여행은 매우 지루했다. 노숙을 하고, 다음 날 아침 발디비아에 도착해서 그곳에서부터 배를 타고 갔다.

며칠 후 사관들과 만을 가로질러 가서 니에블라라는 요새 근처에 상륙했다. 건물들은 완전히 폐허가 되었고 포가砲架도 많이 썩어 있었다. 위크햄 씨가 "대포 한 발만 더 쏘면 포가가 완전히 조각날 것 같은데요?"라고 지휘관에게 말했다. 그러자 난처해진 지휘관은 애써 좋은 표정을 지으면서 "아닙니다. 두 발은 견딜 겁니다"라고 정중히 대답했다. 스페인 사람들은 아마도 이곳을 난공불락의 요새로 만들려고 했던 것 같다. 요새 한가운데에는 바위에 버금가게 단단한 박격포들이 쌓여 있었다. 그것은 칠레에서 7천 달러를 주고 들여온 것이다. 혁명이 일어나고 나서 그것은 어떠한 목적으로도 사용이 금지되었고,

이제는 몰락한 옛 스페인의 영화榮華를 상징하는 것으로 남아 있다.
나는 2.4킬로미터 정도 떨어져 있는 어떤 집에 가보고 싶었다. 그러자 안내인은 숲을 직선으로 통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대신 소들이 지나가는 길을 따라가자고 제안했다. 가장 최단 거리였음에도 불구하고 걸어서 세 시간 이상이나 걸렸다. 그는 길 잃은 소를 잡아 오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그러니 분명이 숲에 대해 잘 알고 있을 그가 얼마 전 숲에서 길을 잃어 꼬박 이틀을 굶은 적이 있다고 한다. 이러한 사실은 이 지역의 숲을 지나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보여 주는 단적인 예가 된다. 한 가지 의문이 종종 일어난다. 죽은 식물의 흔적은 얼마나 오래 남아 있는가? 안내인은 나에게 14년 전에 왕당파가 도망가면서 베어낸 나뭇가지 하나를 보여 줬다. 이를 기준으로 생각해 보면, 대략 지름이 45센티미터 정도 되는 나무줄기는 30년 후면 흙으로 변할 것이다.
2월 20일 | 이날은 발디비아 역사에 결코 잊히지 않는 날이 될 것이다. 이날 마을에서 가장 나이 많은 사람이 경험한 것 중 가장 큰 지진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그때 나는 해안의 숲에 누워서 쉬고 있었다. 지진은 갑자기 일어나 약 2분 동안 지속되었으나 그보다 훨씬 길게 느껴졌다. 땅의 흔들림이 뚜렷하게 감지되었고, 우리 일행은 진동이 정동 쪽에서 시작한 것으로 생각한 반면 다른 사람들은 남서쪽에서 진동이 시작된 것으로 여겨, 진동의 방향을 감지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잘 보여 준다. 똑바로 서 있는 것은 어렵지 않았으나 현기증이 일었다. 잔물결이 엇갈려 일어나는 바다 위를 항해하는 배에 탄 기분이라고나 할까, 몸무게 때문에 아래로 처지는 얇은 얼음 위에서 스케이트를 타는 느낌이라고나 할까. 극심한 지진은 우리가 지구에 대해 가지고 있던 오래된 관념을 일시에 깨뜨린다. 단단함의 상징 그 자체인 지구는 유체 위에 떠 있는 얇은 껍질처럼 우리 발밑에서 움직이고 있다. 몇 시간을 생각해도 잘 떠오르지 않는 위험에 대한 상상력이 단 1초 만에 우리 마음속에 생겨나게 한다. 숲에 있던 내가 느낀 것은 미풍에 나무가 흔들리는 것처럼 땅이 흔

들린 것뿐, 그 이외의 것은 없다. 피츠로이 함장과 다른 사관들은 지진이 일어나는 동안 마을에 있었는데 그곳의 광경은 훨씬 충격적이다. 나무로 만들어진 집들은 쓰러지지는 않았지만 심하게 흔들렸고, 판자들은 금이 가면서 삐걱거렸다.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집 밖으로 뛰쳐나왔다. 지진의 영향을 느끼거나 본 사람들이 경험한 이런 부수적인 현상들 때문에 지진에 대한 총체적인 두려움이 생겨난다. 숲 속에서 느끼는 지진은 매우 흥미로운 것일 뿐 어떤 두려움을 일으키는 현상은 아니었다. 조수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신기했다. 간조일 때 지진이 일어났는데, 바닷가 근처에 있던 할머니 말에 의하면, 물이 고수위까지 매우 빨리 그러나 큰 파도를 이루지 않고 흘러왔다가 곧이어 원래의 수준으로 되돌아갔다고 한다. 이것은 모래밭이 젖어 있는 지점을 보면 뚜렷이 알 수 있다. 몇 년 전 칠로에 섬에서 약한 지진이 일어났을 때도, 지금과 똑같이 빠르고 조용한 조수의 흐름이 있었는데 그때는 원인도 모르는 채 크게 놀랐었다. 저녁 무렵이 되면서 보다 약한 많은 여진이 일어나 항구에 매우 복잡한 해류를 일어나게 했는데 그중 몇 개는 강도가 컸다.

3월 4일 | 우리는 콘셉시온 항으로 들어갔다. 정박하는 동안 나는 키리키나 섬에 내려섰다. 대농장의 감독관이 20일에 있었던 대지진에 대한 끔찍한 소식을 전하기 위해 급히 말을 타고 달려왔다. "콘셉시온이나 탈카우아노 항에는 제대로 된 집이 하나도 없습니다. 70개 마을이 파괴되었고 거대한 해일이 탈카우아노의 폐허를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마치 수천 대의 배가 난파된 듯이 목재와 가구들로 뒤덮인 해안 전역에 그 사람의 말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들이 널려 있었다. 의자와 테이블, 책꽂이 등등 외에도 거의 그대로 옮겨온 듯한 오두막집의 지붕들도 있었다. 탈카우아노에 있는 가게가 무너지면서 목화솜 가방, 마테 차와 그 외 값비싼 물건들이 해안에 흩어져 있었다. 걸어서 섬을 돌아다니는 동안 수많은 암석 조각을 발견했는데, 거기에 해산물들이 붙어 있는 것으로 보아 최근까지도 깊은 바다에 있었던 것이 틀림없다. 이것들 중 하나는 길이가 180센티미터, 폭이 90센티미터, 두께가 60센티미터나 됐다.

해안의 광경이 지진에 의해 일어난 파도의 위력을 보여 주듯이, 섬은 그 자체로 지진의 불가항력적인 힘을 명백히 보여 주고 있다. 여러 곳에서 땅이 남북으로 갈라져 있는데, 이는 아마도 이 좁은 섬의 양쪽 면이 나란히 경사를 이루며 무너져 내렸기 때문인 것 같다. 절벽 근처의 균열은 폭이 0.9미터나 되는 것도 있다. 많은 거대한 물질들이 이미 해안으로 내려와 있었고, 원주민들은 비가 오면 더 많은 조각들이 미끄러져 내릴 것으로 생각했다. 이 섬의 기반을 이루는 단단한 제1기 점판암에 미친 영향은 더욱 신기했다. 몇몇 좁은 능선의 일부분이 마치 폭약을 맞은 것처럼 완전히 부서졌다. 갓 깨진 조각이나 뒤집힌 흙에서 볼 수 있듯이 지진의 영향은 표면 근처에 국한되고 더 깊은 곳의 단단한 암석에는 영향을 주지 않은 것 같다. 또한 진동하는 몸체의 표면은 중심부와는 다른 영향을 받는다고 알려져 있으므로 이러한 현상을 뒷받침한다. 예상했던 대로 땅속 깊숙한 곳의 광산이 그리 심하게 파괴되지 않은 것도 같은 이유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대격변이 오랫동안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바닷물과 바람에 의한 마모 작용보다 키리키나 섬의 크기를 줄이는 데 더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믿는다.

다음 날 탈카우아노에 상륙해서 콘셉시온까지 말을 타고 갔다. 두 마을에서 이제까지 보았던 것 중 가장 끔찍하고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다. 그전에 마을을 본 적이 있는 사람이라면 더 강한 인상을 남겼을 것이다. 폐허는 뒤엉켜 있었고 사람이 살 수 있는 흔적이라곤 거의 없어서 이전의 상태를 상상할 수조차 없다. 지진은 오전 11시 30분경에 시작되었는데, 만약 한밤중에 일어났다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마을에만 약 수천 명이 산다)이 희생되었을 것이다. 실제 희생자가 백 명 미만인 것은 땅이 흔들리자마자 집 밖으로 뛰쳐나와서 목숨을 건졌기 때문이다. 콘셉시온에서는 개개의 집, 또는 일렬로 늘어선 집들이 그 자리에서 폐허 더미를 이루고 있었다. 그러나 탈카우아노에서는 거대한 파도 때문에 벽돌과 타일, 목재가 여러 층으로 쌓여 있고, 여기저기 벽의 일부만 간신히 구별할 수 있을 뿐이다.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아 그렇게 완전히 파괴되

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콘셉시온이 더 끔찍했다. 굳이 그것을 명명한다면 회화 같은 광경이라고나 할까. 첫 번째 충격은 매우 갑작스럽게 왔다. 키리키나의 농장 관리인이 처음 진동을 느낀 것은 그와 그가 탄 말이 함께 땅 위로 굴렀을 때라고 한다. 일어나자마자 다시 한 번 넘어졌다고 한다. 섬의 경사면에 있던 소들은 바다로 굴러갔으며, 거대한 파도에 의해 많은 가축이 죽었고 만의 어귀 근처의 나지막한 섬에서는 70마리의 동물이 파도에 실려 가 물에 빠졌다. 이번 지진이 칠레 역사상 최악으로 생각되지만, 극심한 지진은 워낙 오랜 시간 간격을 두고 일어나기 때문에 쉽게 단언할 수는 없다. 또한 완전히 파괴된 상태에서는 그 충격의 강약을 구분하기가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대지진 후에 수많은 작은 진동이 잇달아, 처음 12일 동안 최소한 3백 개의 진동이 감지되었다.

콘셉시온을 본 후에,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치지 않고 탈출할 수 있었는지 이해되지 않았다. 곳곳에서 집은 바깥쪽으로 쓰러져 길 한가운데에 벽돌과 쓰레기 더미가 쌓여 있다. 영국 영사인 라우즈 씨는 아침 식사를 하던 중 첫 번째 진동이 일어나자 집 밖으로 뛰쳐나왔는데, 정원의 중간에도 미치지 못했을 때 집의 한쪽 면이 굉음과 함께 넘어졌다. 일단 한번 무너진 더미의 꼭대기에 있으면 안전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무너진 집 더미 위로 기어 올라가자마자 다른 쪽 면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커다란 기둥이 바로 그의 얼굴을 스치고 지나갔다. 앞은 보이지 않았고 하늘을 뒤덮은 먼지 구름으로 숨이 막힐 지경에서 마침내 길에 도달했다. 몇 분 간격으로 진동이 연달아 일어났기 때문에, 감히 누구도 부서진 건물에 다가갈 엄두를 못 냈다. 그 누구도 가장 절친한 친구와 친척들이 구조 받지 못해 죽어 가고 있는지조차 알지 못했다. 재산을 조금이라도 챙긴 사람들은 주변을 어슬렁거리는 도둑 떼들을 끊임없이 경계해야 했다. 도둑들은 작은 진동이 있을 때마다 한 손으로 가슴을 치며 "자비를!"이라고 외치면서 다른 한 손으로는 폐허에서 물건을 훔쳤다. 이엉을 이어 만든 지붕이 불 속에 넘어져 여러 곳에서 화염이 일어났다. 수백 명의 사람

들은 자신들이 완전히 몰락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당장 그날 먹을 식량조차 없는 사람이 대부분이었다.

단 한 번의 지진으로도 한 나라의 번영이 송두리째 파괴될 수 있다. 만약 영국의 지하에서, 지금은 잠잠한 거대한 힘이 과거 지질 시대에 그랬던 것처럼 막대한 힘을 발휘한다면 영국의 전체 상황은 얼마나 완전히 뒤바뀔 것인가! 높은 건물, 인구가 밀집된 도심, 거대한 공장들, 수많은 아름다운 건물들은 어떻게 될까? 깊은 잠에 빠져 있는 한밤중에 대지진으로 인해 그런 격변의 시기가 시작된다면 그 참상은 어떠할까? 영국은 이내 파산에 빠질 것이고 모든 문서와 기록, 계산서는 그 순간 없어질 것이다. 정부는 세금을 거둘 수 없게 되고 권위를 유지하는 데 실패하며 폭력과 강탈에 무방비 상태가 될 것이다. 그리고 모든 대도시에 기근이 발생하고 전염병과 죽음이 꼬리를 물고 일어날 것이다.

진동이 일어난 직후 거대한 파도가 멀리 5~7킬로미터에서 만의 중심을 향해 다가오는 것이 보였다. 파도의 윤곽은 부드러워 보였지만 해안에 접근하자 무지막지한 힘으로 집과 나무들을 집어삼켰다. 만의 어귀에 다다르자 최고조 수위로부터 수직으로 7미터 이상 치솟아 올랐다가 하얀 포말을 남기며 무시무시하게 부서졌다. 요새에 있던 무게 4톤 정도의 대포와 포가가 내륙으로 5미터나 밀려 들어올 정도이니 그 힘은 엄청난 것이다. 한 스쿠너schooner선船[1]은 바닷가에서 180미터 떨어진 폐허의 한가운데에 가 있었다. 첫 번째 파도가 지나간 후 두 개가 더 일어났다. 파도가 물러가면서 물 위에 떠 있는 막대한 잔해들을 싣고 갔다. 만의 한쪽에서는 배가 해변 위로 좌초되었다가 물에 실려 가고 또다시 해안으로 밀려왔다가 다시 밀려가기를 반복했다. 또 다른 곳에서는 함께 정박해 있던 커다란 배 두 개가 빙글빙글 돌다가 닻줄이 서로 엉켰다. 그것들은 11미터 깊이에 정박되어 있었음에도 몇 분 만에 지상으로 밀려 올라왔다. 거대한 파도는 틀림없이 천천히 이동해 왔을 것이다. 탈카우아노 사람들

1 둘 내지 네 개의 돛대에 세로돛을 단 서양식 범선帆船—역주.

은 마을 뒤 언덕으로 필사적으로 뛰어 올라가고 뱃사람들은 파도가 부서지기 전에 안전하게 타 넘을 수 있도록 배를 바다 쪽으로 몰고 갈 정도의 시간은 되었다. 네댓 살의 사내아이를 데리고 있던 할머니는 배를 탔지만 배를 몰 사람이 없어 결국 그 배는 밀려나며 두 동강이 나고 말았다. 할머니는 익사했고, 어린아이는 몇 시간 뒤 난파선 조각에 매달린 채 구조되었다. 마을의 폐허 한가운데에는 바닷물 웅덩이가 여전히 남아 있었고, 부모들의 참담한 심정을 아는지 모르는지 오래된 테이블과 의자를 배처럼 타고 노는 아이들의 모습이 천진난만해 보였다. 그러나 대체로 예상하는 것보다 상황이 훨씬 더 능동적이고 유쾌해 보인다는 것이 굉장히 흥미로웠다. 내 것 네 것 할 것 없이 다 파괴되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더 비참하다거나, 전 재산을 잃어버린 참담한 결과에 대한 이웃 사람들의 냉담함을 의심하지 못하는 상황이 훨씬 진실에 가깝다는 것을 알았다. 라우즈 씨와 그의 따뜻한 보호 아래 있던 사람들은 사과나무 아래 정원에서 일주일간을 보냈다. 처음에 그들은 마치 소풍이라도 나온 것처럼 즐거워했으나, 비가 많이 내리자 비를 피할 곳이 전혀 없어서 큰 고생을 했다.

피츠로이 함장은 자신이 봤던 상황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줬다. 만에서 폭발이 두 번 일어났는데 하나는 연기 기둥 같은 것이 치솟았고, 또 하나는 거대한 고래가 물을 내뿜는 것 같았다고 한다. 또한 모든 곳에서 물이 끓어 넘치고 검게 변했으며 매우 지독한 유황 냄새가 났다고 한다. 이러한 물의 변화 양상은 1822년 지진이 일어났을 때 발파라이소 만에서도 관찰되었다. 이는 유기물을 함유한 바다 밑바닥의 진흙이 교란되어 생긴 것 같다. 지진이 일어나지 않을 때도 배의 닻줄이 바다 밑바닥을 긁고 지나갈 때 항로를 따라 진흙 거품이 일어나는 것을 카야오 만에서 본 적이 있다. 탈카우아노의 원주민들은 인디오 노파 몇 명이 2년 전 화가 나서 안투코 화산의 활동을 멈추게 한 것 때문에 지진이 일어났다고 믿는다. 이러한 우스꽝스러운 믿음이 신기한 것은, 화산 활동을 억제하는 것이 땅의 흔들림과 관련 있다는 것을 그들이 경험에 의해 알

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 주기 때문이다. 인과 관계를 알아차리지 못하는 시점에 마법을 적용할 필요가 있는데, 그 마법이 바로 화산 입구를 막는 것이다. 이번의 경우 그러한 믿음이 더욱 신기한 것은—피츠로이 함장에 의하면—안투코 화산은 전혀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것을 믿을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콘셉시온 시가지는 흔히 볼 수 있는 스페인풍으로 건설되었다. 길들은 서남서와 북북서로 나 있어 모든 거리는 직각으로 만나게 되어 있다. 서남서 방향의 벽들이 북북서 방향의 벽들보다 덜 무너졌고, 많은 벽돌 덩어리들이 북동 방향으로 떨어져 나가 있는 것은 진동이 남서에서 시작되었다는 생각과 완벽하게 들어맞는다. 그쪽에서는 지하에서 진동음까지 들렸다. 남서와 북동 방향으로 서 있던, 즉 양 끝이 진동이 오는 쪽을 향해 있던 벽들은 덜 무너진 반면에 북서와 남동 방향의 벽들은 건물 면 전체가 남서에서 오는 진동과 수직으로 맞부딪치고 진동이 건물 아래로 지나가면서 북서와 남동 방향으로 파동이 번져 피해가 더 컸다. 이러한 현상은 책을 카펫의 가장자리에 길게 세워 놓고, 미첼이 제안한 방법대로 지진파를 일으켜 보면 파동의 방향과 거의 일치하는 방향으로 서 있는 책들이 쉽게 넘어지는 것을 보아 알 수 있다. 땅 위의 균열도 균일하지는 않지만, 대체로 남동과 북서 방향으로 나 있어서 진동이 일어나는 선과 일치한다. 지진의 시발점이 남서 방향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이 모든 상황을 염두에 둘 때, 남서 방향에 위치한 산마리아 섬이 그 지역 전체가 융기하는 동안, 다른 곳보다 거의 세 배나 높아졌다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사실이다.

건물이 서 있는 방향에 따라 지진에 견디는 정도가 다르다는 것은 대성당에서도 잘 볼 수 있다. 북동쪽에 면한 벽은 거대한 폐허 더미를 이루고 그 한가운데에 마치 강물에 떠 있는 것처럼 문틀과 목재들이 서 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깨진 벽돌 덩어리들은, 높은 산에서 암석 조각들이 기슭으로 굴러가는 것처럼 멀리 굴러가 평평한 광장에 나뒹굴고 있다. 그 옆의 벽들(남서와 북동쪽으로

서 있는 벽)은 심하게 균열이 가기는 했으나 무너지지는 않았다. 넓은 버팀벽(그러니까 양옆의 벽과는 직각으로, 무너진 벽들과는 평행하게 서 있는)은 마치 조각칼로 날카롭게 잘라 낸 듯 꺾여 땅바닥에 내던져져 있다. 그 버팀벽을 덮고 있던 갓돌의 사각형 장식물은 대각선 방향으로 뒤틀려 있다. 이것과 유사한 상황이 발파라이소, 칼라브리아, 고대 그리스 사원을 포함한 여러 곳에서 관찰되었다.[2] 이러한 뒤틀림은 언뜻 보기에 지진의 영향을 받는 각 지점 아래로 소용돌이치며 지나가는 움직임을 암시하는 것 같지만, 이런 일은 거의 불가능하다. 흔들리는 종이 위의 핀들처럼, 각 돌멩이가 진동선에 따라 특정한 위치로 자리를 잡으려는 경향 때문이 아닐까? 대체로 건물의 다른 부분보다 아치형 현관이나 창문은 지진에 잘 견딘다고 하는데, 이번 지진에서는 평소 작은 진동만 있어도 습관적으로 현관으로 기어가곤 하던 몸이 불편한 어떤 노인이 건물 더미에 깔려 사망했다.

콘셉시온의 상태를 자세히 기술하지는 않겠다. 온갖 복잡한 감정들이 섞여 있는 데다, 그것을 제대로 전달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내가 도착하기 전에 그곳을 방문했던 비글호의 사관들 또한 어떤 표현을 써도 그곳의 참상을 그대로 전달하지는 못했다. 그렇게 많은 시간과 노동을 들인 건물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보는 것 자체가 고통스럽고, 굴욕감을 느끼게 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서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 단 한 순간에 일어나 버렸다는 사실에 너무도 놀라, 원주민들에 대한 동정심을 오래도록 느낄 여유도 없어졌다. 영국을 떠난 후 그렇게 강한 인상을 남긴 장면을 본 적이 거의 없다.

거의 대부분, 심한 지진이 일어나면 인근의 바닷물도 크게 동요된다. 콘셉시온의 경우에서 보듯이 바닷물의 움직임은 두 종류로 일어난다. 처음에는 진동이 일어나는 순간 해변에서 바닷물이 점진적으로 높이 올라간 다음 조용히 밀려 나간다. 두 번째는, 처음의 교란이 있은 지 얼마 후 바닷물 전체가 해안으

2 아라고, 《연구소》(1837년, 337쪽) ; 미어스, 《칠레》 1권, 392쪽 ; 라이엘, 《지질학의 원리》 2권, 15장.

로부터 밀려 나갔다가 막대한 힘을 가진 파도로 다시 돌아온다. 첫 번째 움직임은 지진동地震動이 유체인 바다와 고체인 육지에 각기 다르게 영향을 미쳐 일어나는 직접적인 결과이고, 그래서 바다와 육지 각각의 높이도 약간만 달라졌다. 그러나 두 번째 경우는 보다 중요한 현상이다. 대부분의 지진, 특히 아메리카 서해안에서 일어나는 지진에서 첫 번째로 일어나는 바닷물의 거대한 움직임은 해안으로부터 밀려 나가는 것이 틀림없다. 어떤 학자는 이를 두고 바다의 수위는 그대로인데 육지가 융기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육지에 인접한 바다는, 설사 그 육지가 어느 정도 경사진 해안이라 해도, 해저 바닥과 함께 움직이는 것 같다. 더군다나 라이엘 씨의 주장에 의하면, 이와 비슷한 바닷물의 움직임은 주요 진동선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섬, 즉 이번 지진에서는 후안페르난데스 섬에서, 저 유명한 리스본 지진에서는 마데이라 섬에서도 일어났다고 한다. 지진이 어떻게 일어났든, 처음에는 바닷물이 해안으로부터 밀려 나갔다가 다시 밀려 들어오면서 부서지는 것(명확하지는 않지만)이라고 생각된다. 나는 이러한 현상이 증기선의 짧은 노 주변에서 이는 작은 파도에서도 나타나는 것을 관찰한 적이 있다. 넓고 얕은 만의 어귀에 위치한 탈카우아노와 카야오(리마 근처)는 심한 지진이 일어날 때마다 거대한 해일의 피해를 입는 데 반해, 깊은 바다 근처에 위치한 발파라이소는 최악의 지진이 자주 일어나는 데 비해 해일에 의한 피해는 무시할 정도로 적다. 거대한 해일은 지진에 바로 이어서 일어나지 않으나 약 1시간 30분 정도 후에 일어나고, 멀리 떨어져 있는 섬도 진원지 가까이 있는 지역과 비슷한 정도의 피해를 입는 것으로 봐서 첫 번째 바닷물의 움직임은 융기 때 일어나는 것 같고, 이러한 현상이 대개 일반적으로 일어나므로 그 원인도 일반적일 것이다. 우리는 깊은 바다 속에서 진동의 영향을 덜 받는 물이 해안 근처에서 해저 바닥과 함께 움직이는 물과 충돌하는 지점을 면밀히 조사해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곳에서 거대한 파도가 처음 생겨난다. 또한 해저 바닥과 함께 동요되는 얕은 물의 양에 따라 파도의 크기가 달라지는 것처럼 보인다.

이번 지진의 가장 눈에 띄는 결과는, 아마도 원인이라고 말하는 것이 더 적절할 수도 있겠으나, 육지가 영구적으로 융기한 것이다. 콘셉시온 만 부근의 육지는 60~90센티미터 정도 상승한 것이 확실하다. 그러나 이번 해일로 경사진 모래 해안에 남아 있던 조석 작용을 표시하는 선들의 흔적이 없어졌기 때문에, 지금은 뭍으로 드러난 작고 얕은 바위가 전에는 물로 덮여 있었다는 원주민들의 한결같은 증언을 제외하고는 위의 사실을 증명할 만한 이렇다 할 증거가 없다. 48킬로미터 떨어진 산마리아 섬은 훨씬 더 많이 융기되었는데, 어떤 곳에서 피츠로이 함장은 부패한 홍합 껍데기가 바위에 붙은 채 최고 수위로부터 3미터 이상 올라가 있는 것을 발견했다. 과거에는 저수위 때도 원주민들이 이 홍합을 채취하기 위해 잠수를 해야 했다. 이 지역의 융기가 특히 더 흥미로운 것이, 이곳은 다른 여러 번의 심한 지진이 일어난 주 무대였고 해발 180미터, 내가 믿기로는 3백 미터에도 해수성 조개껍데기가 엄청나게 많이 흩어져 있다는 점이다. 이미 언급했듯이 발파라이소에서도 390미터에서 비슷한 조개가 발견되었다. 이렇게 대규모로 육지가 상승한 것은 이번 지진과 함께 일어난, 또는 지진의 원인이 된 연속적인 작은 융기 작용과 지금도 해안 어디선가 진행되고 있을 광범위하고 느린 융기가 그 원인이라는 것이 확실하다.

북동쪽으로 580킬로미터 떨어진 후안페르난데스 섬은 20일의 대지진 때 너무 심하게 흔들려 나무들이 서로 부딪치고 해안 가까이의 바닷물 속에서 화산이 폭발했다. 이 섬은 1751년의 지진에서도 콘셉시온으로부터 비슷한 거리에 있던 다른 곳에 비해 더 심하게 영향을 받았다는 점에서 더 놀랍다. 이는 콘셉시온과 후안페르난데스 섬 사이의 지하에 어떤 연결이 있음을 보여 준다. 콘셉시온에서 남쪽으로 540킬로미터 떨어진 칠로에 섬은 중간 지역인 발디비아보다 더 심하게 흔들렸던 것 같다. 발디비아의 비야리카 화산은 거의 영향을 받지 않은 데 비해, 칠로에 섬 전면에 있는 코르디예라 산맥의 화산 두 개는 동시에 격렬하게 분출했다. 이 두 화산과 부근의 다른 화산들은 오랫동안 활동했고 10개월 후 콘셉시온에서 일어난 지진의 영향을 다시 받았다. 이때 주

변 마을 전체가 흔들렸지만, 이 화산의 기슭에서 나무를 하던 사람들은 진동을 느끼지 못했다. 여기에서 하층민들의 미신처럼 만약 안투코 화산을 마법으로 막지 않았다면 콘셉시온에서 일어난 지진을 대체하거나 경감하는 화산의 분출이 있게 된다. 2년 9개월 후에, 발디비아와 칠로에 섬은 20일의 지진보다 더 심하게 흔들렸고, 초노스 제도의 한 섬은 240센티미터 정도 영구히 상승했다. 이러한 현상의 규모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빙하의 이동처럼) 이것이 유럽에서 일어났다고 가정해 보자. 아마 북해에서 지중해까지의 육지가 심하게 흔들렸을 것이고, 동시에 영국의 동쪽 해안선 전역과 그 경계에 있는 섬들이 영구히 상승했을 것이다. 네덜란드 해안의 화산들이 줄지어 분출하고 아일랜드 최북단의 해저에서 분출이 일어나며 마지막으로 오베르뉴, 캉탈, 몽도르의 오래된 분기공들이 하늘로 시커먼 연기 기둥을 쏟아내며 오랫동안 맹렬히 활동할 것이다. 2년 9개월 후에 프랑스 중심부로부터 영국 해협까지 지진에 의해 다시 한 번 폐허가 될 것이고, 어떤 한 섬이 지중해에 영원히 솟아 나게 된다.

20일에 발생한 화산 분출물은 한 방향으로 1천2백 킬로미터, 이와 직각인 다른 방향으로 640킬로미터까지 뻗어져 나갔다. 이로 보아 십중팔구 지하의 용암 호수는 이곳으로부터 북해의 두 배에 해당하는 면적에 걸쳐 퍼져 있는 것 같다. 이러한 일련의 현상에서 알 수 있듯이, 대륙을 상승시키는 힘과 일정한 간격을 두고 화산을 분출시키는 힘이 긴밀하고 복잡한 방식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고 이 두 힘은 결국 동일한 것이라는 확신에 도달하게 된다. 여러 가지 원인을 종합해 볼 때 이쪽 해안선에서 지진이 빈번히 일어나는 원인은 지층이 융기하면서 장력을 받은 결과, 지층이 갈라지고 거기에 액화된 암석이 관입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지층의 균열과 관입이 반복된다면(지진은 동일한 지역에 동일한 방식으로 반복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산맥이 충분히 만들어진다. 산마리아 섬은 주변 지역보다 세 배나 더 상승해 있고 지금도 이 과정이 진행 중인 것 같

다. 화산은 지구 내부의 물질이 반복적으로 분출되어 형성[3]되는 데 비해, 대개의 산은 지하에서 녹은 암석이 반복적으로 관입되어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다르다. 더군다나 코르디예라 같은 거대한 산맥의 형성에 대해 윗부분이 식어서 굳을 정도로 충분히 오랜 시간 간격을 두고 반복적으로 관입된 것으로 보는 대신, 몇몇 융기선의 가장자리에 분출되어 관입된 심성암 축을 덮고 있는 지층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그 지층이 단 한 번의 폭발에 의해 지금처럼 급경사의 거의 수직인, 심지어는 뒤집힌 현재의 위치가 되려면, 지구 내부 전체가 토해져 나와야 했을 것이다. 그리고 높은 압력 하에 굳은 암석으로 된 가파른 산맥이 보이는 것 대신, 각 융기선을 따라 수많은 지점에서 용암이 범람했던 흔적이 눈에 띌 것이다.

3 20일의 지진에 수반된 화산 활동에 관해 보다 자세히 설명하고 그것으로부터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지질학회지》 5권을 참고해야 한다.

● 1835년 1월 15일, 비글호는 칠로에 섬의 산카를로스 만에 정박한다. 며칠 후 코르디예라 산맥의 오소르노 화산이 활동을 시작하는데 나중에 거리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여러 분화구에서 동시에 화산이 분출되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다윈은 매우 놀라며 이에 대해 땅속으로 연결된 뭔가가 있지 않을까 하는 추측을 한다. 피츠로이 함장은 섬 바깥쪽 해안의 방위 측정에 골몰하고 있던 터라 다윈은 말을 타고 섬을 가로질러 답사하기로 한다.
죽은 나무줄기들이 뼈다귀처럼 늘어서 있어 태고의 장엄미를 더하는 숲에서 밤하늘의 별을 올려다보며 다윈은 무척이나 행복해한다. 답사하는 동안 현지의 사령관과 귀족 등이 길 안내를 자처하는데 이들은 인디오들을 매우 강압적인 태도로 대한다. 그들이 자유인이라기보다는 노예인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대접하는 것은 우리가 비참한 인디오들이고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왕이 있었을 때는 그렇지 않았어요"라고 인디오들은 한탄한다. 다윈은 이 칙칙한 섬을 떠나며 홀가분해하지만 칠로에 섬도 나름대로 매력적인 곳이라 생각하며 특히나 원주민들의 소박함과 마음이 담긴 친절함에 감동을 받는다.
해안을 따라 북쪽으로 항해한 후 2월 8일 밤이 되어서야 칠레의 발디비아에 도착한다. 이곳은 칠로에 섬과 위도로 240킬로미터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지만 상록수가 많지 않아 숲은 더 밝은 색을 띤다. 이곳의 인디오들은 칠로에 섬 사람들과는 대조적으로 매우 배타적이고 독자적인 태도를 보이는데 이는 스페인 사람들과의 오랜 전쟁에서 다른 부족은 이루지 못한 승리를 여러 번 쟁취한 결과로 보인다.
2월 20일 발디비아에는 역사상 최악의 지진이 일어난다. 그때 다윈은 해안의 숲 속에 누워 있어 큰 진동을 느끼지 못했으나 나중에 지진의 참상을 전해 듣고 폐허로 변한 도시를 본 후 경악을 금치 못한다. 지진은 지진 그 자체에 의한 피해도 피해지만 그에 수반해서 일어나는 해일로 인해 그 피해가 극심해진다. 바닷물은 처음 진동이 일어나는 순간 해변에서 점진적으로 높이 올라간

다음 조용히 밀려 나간다. 처음의 교란이 있은 지 얼마 후 바닷물 전체가 해안으로부터 밀려 나갔다가 막대한 힘을 가진 파도로 다시 돌아온다. 다윈은 이에 대해 첫 번째 움직임은 지진동이 유체인 바다와 고체인 육지에 각기 다르게 영향을 미쳐 일어나는 직접적인 결과이므로 깊은 바다 속에서 진동의 영향을 덜 받는 물이 해안 근처에서 해저 바닥과 함께 움직이는 물과 충돌하는 지점을 면밀히 조사해 봐야 한다고 생각했으며 이곳에서 거대한 파도가 처음 생겨난다고 보았다. 다윈은 지진 현장을 살펴보며 지면의 뒤틀림 상태를 볼 때 지진의 영향은 표면 근처에 국한되고 더 깊은 곳의 단단한 암석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 서남서 방향의 벽들이 북북서 방향의 벽들보다 덜 무너졌고 많은 벽돌 덩어리들이 북동 방향으로 나가떨어져 있는 것으로 보아 진동은 남서쪽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한다. 다윈으로서는 인간이 그렇게 많은 시간과 노동을 들인 건물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보는 것 자체가 고통스럽고 굴욕감을 느끼게 했으며, 세월이 지나면서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 단 한 순간에 일어나 버렸다는 사실에 너무도 놀라게 된다.

다윈은 연속적인 작은 융기 작용, 지금도 해안 어디선가 진행되고 있을 광범위하고 느린 융기를 이번 지진의 가장 눈에 띄는 결과이자 원인이라고 확신했다. 이번 지진뿐만 아니라 과거의 일어난 사례들을 분석한 결과, 대륙을 상승시키는 힘과 일정한 간격을 두고 화산을 분출시키는 힘이 긴밀하고 복잡한 방식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고 이 두 힘은 결국 동일한 것이라는 확신에 도달하게 된다. 이와 연장선 상에서 코르디예라 같은 거대한 산맥은 단 한 번의 거대한 폭발에 의해 생성된 것이라기보다는 지하에서 녹은 암석이 반복적으로 관입되어 만들어진 것으로 보았다.



코르디예라의 고갯길



제15장
코르디예라의 고갯길

발파라이소–포르티요 고개–총명한 노새–산의 급류–광맥은 어떻게 발견되는가–코르디예라 산맥의 점진적 융기에 관한 증거–눈이 암석에 미치는 영향–주요 두 산맥들의 지질학적 구조, 그 뚜렷한 근원과 융기–대침강–붉은 눈–바람–눈으로 된 첨탑–건조하고 맑은 대기–전기–팜파스–안데스 산맥 반대편의 동물상–메뚜기–커다란 빈대–멘도사–우스파야타 고개–자라던 그대로 묻힌 규화목–잉카스 다리–위험이 과장된 고갯길–쿰브레–카수차casucha–발파라이소

1835년 3월 7일 | 우리는 콘셉시온에서 3일간 머물다 발파라이소[1] 쪽으로 항해했다. 북풍이 불어와서 어두워질 무렵에야 콘셉시온 항구 어귀에 겨우 다다랐다. 육지와 매우 가까워서인지 안개가 피어오르기에 닻을 내렸다.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 배 옆에 커다란 미국 고래잡이 배 한 척이 모습을 드러냈다. 한 미국인이 부서지는 파도 소리를 주의 깊게 들으면서 선원들에게 조용히 하라고 욕지거리를 해대는 것이 들려왔다. 피츠로이 함장은 크고 또렷한 목소리로 그에게 인사하며 그 자리에 정박하라고 말해 주었다. 그 한심한 사람은 그 목소리가 해안에서 들려오는 것인 줄 알았나 보다. 그 배에서는 즉각 바벨탑의 아우성 같은 외침들이 터져 나왔다. 모두가 큰 소리로 "닻을 내려! 밧줄 방향 바꿔! 돛을 올려!" 하며 소리쳤다. 내가 지금까지 경험한 것 중 가장 우스꽝스러운 소란이었다. 배에 탄 선원들이 죄다 선장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시끄럽지는 않았을 것이다. 좀 있으니 항해사가 말까지 더듬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가 명령이라도 내리려면 다들 달라붙어 도와줘야겠군.

3월 11일 | 우리는 발파라이소에 정박했다. 그로부터 이틀 후, 나는 코르디예라 산맥을 횡단하기 위해 출발했다. 산티아고로 갔더니 칼드클뢰 씨가 필요한

1 칠레 발파라이소 주州의 주도州都–역주.

것들을 준비하는 일에 더할 나위 없이 친절하게 여러모로 도와주었다. 칠레의 이 지역에는 안데스를 횡단해 멘도사로 가는 고갯길이 두 군데 있다. 가장 흔히 지나다니는 길은 아콩카과 혹은 우스파야타 고개[2]라고 부르는데, 다소 북쪽에 자리 잡고 있다. 다른 길 하나는 포르티요라고 부르며 남쪽에 좀 더 가까이 있지만 보다 험하고 위험하다.

3월 18일 | 우리는 포르티요 고개로 떠났다. 산티아고를 떠난 우리는 그 도시가 자리 잡고 있는 불에 탄 평원을 가로질러 오후에는 칠레의 주요 하천 중 하나인 마이푸 강[3]에 도착했다. 마이푸 강이 코르디예라 산맥으로 처음 흘러들어 가는 지점의 계곡 양쪽은 험준하고 황폐한 산맥으로 둘러싸여 있다. 그 계곡은 넓지는 않지만 땅이 매우 비옥하다. 수많은 작은 집들이 포도 덩굴과 사과, 승도복숭아, 복숭아를 심은 과수원에 둘러싸여 있고, 그 가지들은 아름답고 잘 익은 과일의 무게 덕에 부러질 정도이다. 저녁에는 세관을 통과하면서 짐 검사를 받았다. 칠레 국경 지대는 바닷물보다는 코르디예라 산맥이 더 잘 방어해 준다. 산맥의 중앙부로 흘러들어 가는 계곡은 거의 없으며, 산맥의 나머지 부분들은 짐을 나르는 짐승들조차 절대 지나가지 못한다. 세관 관리는 무척 점잖았는데, 그건 아마도 내가 칠레 공화국 대통령이 발행한 여행증명서를 갖고 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래도 거의 모든 칠레 사람들이 지닌 타고난 예의 바름에는 존경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경우는 대다수 다른 나라에서 같은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과 뚜렷하게 대조된다. 내게 있어 매우 기분 좋았던 일화 하나를 얘기할까 한다. 우리는 멘도사 근처에서 노새를 타고 가는 작고 매우 뚱뚱한 흑인 여자 한 명을 만났다. 그 여자의 갑상샘종甲狀腺腫이 너무 커서 한동안 쳐다보지 않을 수가 없었다. 하지만 나와 동행하던 두 사람은 사과하는 의미에서 거의 순간적으로 모자를 벗어 그 나라 방식으로 인사

2 높이 약 3850미터인, 안데스 산맥 중의 고개. 아르헨티나의 멘도사Mendoza와 칠레의 산티아고를 잇는다-역주.

3 길이 약 250킬로미터인 칠레 중부의 강. 마이포Maipo 강이라고도 한다-역주.

했다. 과연 유럽의 어디에서 이렇게 상류계급 또는 시민계급의 사람들이 하층민으로 격하된 인종에 속하는 헐벗고 불쌍한 이에게 그렇게 예의 바른 모습을 보이겠는가?

우리는 작은 집에서 밤을 보냈다. 우리의 여행 방식은 즐거울 정도로 자족적이다. 사람이 살고 있는 곳에서는 땔감을 사고, 말들을 위해 목초지를 빌리고, 그 한쪽 구석에서 말들과 함께 야영한다. 쇠로 만든 주전자를 갖고 다니면서 구름 한 점 없는 하늘 아래에서 저녁을 해 먹으면서도 전혀 고생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예전에 칠레까지 나와 동행해 준 마리아노 곤살레스Mariano Gonzales, 그리고 열 마리의 노새와 '마드리나Madrina, 代母'를 데리고 다니는 '아리에로arriero(마부)'가 나의 일행이었다. 마드리나는 여기서 가장 중요한 주인공으로, 목에 작은 방울을 달고 다니는 늙고 성실한 암말을 이른다. 노새들은 그것이 가는 곳마다 마치 착한 아이들처럼 따라다닌다. 마드리나에 대한 노새들의 애정 덕분에 마부는 큰 수고를 던다. 노새 몇 무리를 풀밭 한쪽에서 풀을 뜯게 하면, 노새치기는 오전에 암말들을 데리고 조금 떨어진 곳에 가 있다가 종만 울리면 된다. 2백~3백 마리가 함께 있어도 노새들은 자기 마드리나의 종소리를 알아듣고는 그리로 온다. 늙은 노새를 잃어버릴 일도 거의 없다. 억지로 몇 시간 동안 잡아 둔다 해도 개만큼 냄새를 잘 맡아서 동료들이 마드리나를 찾아 따라가기 때문이다. 노새치기의 말에 따르면, 마드리나는 노새들이 가장 사랑하는 대상이기 때문이라고도 한다. 그러한 정서는 어떻든 개별적인 개체만의 것은 아니다. 나는 종만 달고 있으면 어떤 동물이든 마드리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믿는다. 평탄한 길에서 노새 한 마리는 약 190킬로그램(29스톤)[4] 이상의 짐을 나르지만, 산악 지방에서는 그보다 45킬로그램쯤 덜 나른다. 그 섬세하고 가는 다리에 쓸 만한 근육도 없는 노새들이 이토록 어마어마

4 영국식 무게 단위. 1스톤은 보통 14파운드(6.45킬로그램). 단, 고기 1스톤은 8파운드, 치즈는 16파운드, 건초는 22파운드, 양털은 24파운드로 쳤다고 한다. 보통 사람 몸무게를 말할 때 쓰였다-역주.

한 짐을 지다니! 노새들은 언제 봐도 가장 놀라운 동물이다. 교배를 통해 생겨난 종이 사고력, 기억력, 끈기, 사회성, 근육의 지구력, 그리고 수명에 있어 그 부모 세대보다 뛰어날 수 있다는 것은 인공적인 것이 자연을 능가한다는 사실을 시사하는 것 같다. 노새 열 마리 중 여섯 마리는 사람이 탈 것이었고 네 마리는 짐을 실을 것이었는데, 번갈아 가면서 이용했다. 포르티요 고개를 넘어가기에는 제철이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는 눈으로 도로가 막히는 경우에 대비해 식량을 많이 가져갔다.

3월 19일 | 오늘 하루 동안 우리는 이 계곡에서 마지막이자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집까지 달렸다. 거주민들의 수는 점점 줄었지만 물이 솟는 곳이라면 어디든 아주 비옥했다. 코르디예라 산맥의 주요 계곡 모두는 그 양편 가장자리가 거칠게 층을 이룬 자갈과 모래이거나 단구를 이루고 있는 것이 특징이며, 대부분의 경우 그 두께도 상당하다. 이런 가장자리는 한때 계곡을 가로질러 서로 이어진 채 뻗어 있었음이 분명하다. 북부 칠레의 하천이 흐르지 않는 골짜기 바닥들은 그런 식으로 완만하게 채워져 있다. 이런 가장자리 부분은 표면이 평평하고 아주 완만하게 골짜기 위로 이어져 올라가기 때문에 보통 그 위로 길을 내곤 한다. 그리고 이런 지역은 물을 끌어들이면 경작하기도 쉽다. 가장자리는 높이가 2천1백~2천7백 미터인 곳까지 이어지는데, 거기서부터는 불규칙하게 쌓인 암석 덩어리들 때문에 끊긴다. 그 가장자리들은 골짜기의 아래쪽 끝, 즉 입구는 코르디예라 산맥의 기슭에서 끊어지지 않고 산으로 둘러싸인 평원(역시 자갈로 이루어졌다)으로 이어진다. 이에 관해서는 앞에서 칠레의 특징적인 풍경이라고 설명한 바 있는데, 다시 한번 말하자면 지금의 남쪽 해안에서 그렇듯이 바다가 칠레 육지로 들어왔을 때 퇴적된 것이다. 이 거칠게 층이 진 자갈 단구는 남아메리카의 지질에서 내게 가장 흥미로운 사실이다. 호수나 좁은 만으로 흘러들어 오는 길목에서 조사해 보면, 이 단구의 토질은 각 계곡 급류에서 퇴적되는 물질과 매우 비슷하다. 하지만 현재 이 급류는 물질들을 퇴적시키지 않고 모든 주 계곡과 작은 계곡에 걸쳐 계속해서 단단한

암석과 이러한 충적 지층을 모두 침식시키고 있다. 여기서 그 이유를 밝히기는 불가능하지만, 나는 그 자갈 단구들이 코르디예라 산맥이 서서히 계단 모양으로 융기하는 동안 계곡 급류의 운반 작용으로 인해 퇴적된 것이라고 확신한다. 처음에는 그 자갈들이 바닷물이 좁고 길게 들어온 만의 끄트머리에 계곡 높이만큼 쌓였다가 땅이 천천히 융기함에 따라 점점 더 낮아진 것이다. 나는 결코 의심하지 않지만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거대하고 거친 코르디예라 산맥은, 최근까지 일반적인 견해였고 아직도 지질학자들이 일반적인 의견으로 내세우듯 '갑작스럽게 생겨난' 것이 아니라, 현세에 대서양 및 태평양 연안 지역에서 일어난 융기처럼 점진적으로 한 덩어리가 되어 천천히 솟아오른 것이다. 이 견해를 따르면 코르디예라 지질 구조에서 드러나는 수많은 사실들을 간단히 설명할 수 있다. 이 계곡을 흐르는 강물은 산간 급류라고 부르는 것이 더 어울린다. 경사가 매우 급하고 물은 진흙 빛이다. 마이푸 강이 커다랗고 둥근 암석들 위를 쏟아져 내려가며 내는 우렁찬 소리는 마치 파도 소리 같다. 흘러가는 물소리 가운데 돌들이 서로 부딪쳐 덜거덕거리는 소리가 멀리서도 아주 뚜렷하게 들린다. 이 덜거덕거리는 소리는 이 급류 전체에 걸쳐 밤낮을 가리지 않고 들린다. 이 소리가 지질학자들에게 의미하는 바는 명확하다. 서로 부딪치는 수천, 수만 개의 돌들은 균일하고 단조로운 하나의 음을 내며 모두 한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다. 마치, 지금 흘러가 버리는 1분, 1분이 다시 돌아오지 않는 '시간'을 이루는 느낌과 같았다. 이 돌들도 마찬가지다. 대양은 그것들에게 있어 '영원永遠'이며, 그것들이 내는 거친 소리 하나하나는 그들의 운명을 향해 한 걸음 더 다가가는 소리이다.

무수히 반복되는 원인과 반복 그 자체가, 야만인이 자기 머리카락을 가리키는 것보다도 명확하지 않은, 어떤 사고를 일으키는 것에 의해 일어난 결과를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아주 느리게 진행되는 과정을 생각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 두께가 수천, 수백 미터에 이르도록 퇴적된 진흙, 모래, 자갈층을 볼 때마다 나는 지금의 강이나 해변이 그러한 엄청난 물질들을 깎아내거나 만들어

냈을 리가 없다고 외치고픈 충동을 느낀다. 하지만 한편으로, 이런 급류에서 들려오는 거친 소음을 들으면서 이 땅을 누볐을 온갖 동물들을 떠올리면, 그리고 그 모든 세월 동안 이 돌멩이들이 밤낮으로 덜걱거리면서 제 갈 길로 흘러갔을 것을 생각하면, 나는 홀로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 과연 어떤 산이, 어떤 대륙이 이러한 마모磨耗를 견뎌 낼 수 있을까?

계곡 이쪽 부분에 있는 양쪽 산은 높이가 9백~1천8백 미터, 때로는 2천4백 미터까지 이르며, 능선은 부드럽지만 그 측면은 가파르고 초목이 없다. 암석은 대부분 침침한 자주색이며, 층리가 매우 뚜렷하다. 아름답지는 않았지만, 장엄하고 볼만한 경치였다. 낮에는 코르디예라 산맥의 더 높은 계곡에서부터 몰아 내려오고 있는 소 떼 몇을 보았다. 이것이야말로 겨울이 다가오고 있음을 나타내는 신호이기 때문에 우리는 걸음을 재촉했고, 지질 조사를 할 여유도 없었다. 우리가 묵은 집은 산기슭에 있었는데, 그 산의 꼭대기에는 산페드로데놀라스코San Fedro de Nolasko 광산이 있다.

헤드 경은 산페드로데놀라스코의 황량한 산꼭대기 같은 의외의 장소에서 광산이 발견되었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먼저, 이 지역의 광맥은 대개 주변 지층보다 단단해서 언덕들이 점진적으로 마모됨에 따라 지표면 위로 솟아오르게 된다. 두 번째로, 거의 모든 노동자들, 특히 칠레 북부 지방의 노동자들은 광석의 겉모양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다. 코킴보와 코피아포의 넓은 광산 지역에서는 땔감이 무척 귀해서 그쪽 사람들은 땔감을 찾아 온 산과 골짜기를 뒤진다. 그 지역의 좋은 광산들 대다수가 그 덕에 발견되었다. 몇 년에 걸쳐 수십만 파운드에 이르는 은이 발견된 차눈시요 광산은 한 남자가 짐 실은 당나귀를 향해 돌을 던지다가 발견했다. 왠지 돌이 무겁다고 생각한 그 사람이 돌을 주워 보니, 온통 순은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거기서 그다지 멀지 않은 곳에서 마치 금속 쐐기처럼 박혀 있던 광맥이 발견되었다. 일요일이면 광부들도 종종 쇠지레를 끌고 근처 산을 헤맨다. 광맥을 찾아내는 사람들은 대개 이 칠레 남부 지역에서 코르디예라 산맥으로 소 떼를 모는 사람들, 그리

고 작은 목초지가 있는 곳을 찾아 모든 산골짜기를 찾아다니는 사람들이다.

3월 20일 | 계곡을 올라가면서 몇몇 예쁜 고산 식물들을 제외하고는 식물이 급속히 드물게 보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네발 동물, 새 또는 곤충들은 아주 가끔가다 한 마리나 보일까 말까였다. 험준한 산들은 꼭대기에 눈이 덮인 채 제각기 우뚝 솟아 있었으며, 계곡들은 층리가 발달된 어마어마한 두께의 충적층으로 채워져 있었다. 때로 계곡 양쪽의 좁은 평원까지 이어지는 평평한 단구들, 완전히 황량하게 드러난 반암 수직 절벽의 밝은 붉은색과 자줏빛, 웅장한 벽지의 연속무늬 같은 암맥들, 깎아지른 듯한 부분에서는 그림 같은 험준한 산봉우리를 이루고 경사가 좀 덜한 곳에서는 산맥 외곽의 거대한 산들을 이루는 뚜렷하게 분리된 지층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곱고 밝은 색깔의 암설巖屑이 산맥 기슭에서부터 때로 6백 미터 높이까지 급경사를 이루며 부드러운 원뿔형으로 쌓여 솟은 것 등이야말로 안데스 산맥 풍경 중에서 내가 익히 알던 다른 산맥들과는 대조적인 모습이기에 가장 충격적으로 다가왔던 것들이었다.

티에라델푸에고와 안데스 두 곳 모두, 연중 대부분 눈에 덮여 있는 곳에서는 암석들이 매우 독특한 방식을 거쳐 작고 각진 암편으로 산산조각이 나는 것을 종종 관찰할 수 있었다. 스코어스비 씨[5]는 스피츠베르겐에서 이와 똑같은 사실을 관찰한 바 있다. 눈자락에 덮여 보호되는 산의 일부분은 다른 부분에 비해 분명 반복적이고 급격한 기온 변화의 영향을 덜 받을 것이기 때문에 내게는 이러한 사례가 사뭇 의아해 보인다. 서서히 스며드는 눈 녹은 물[6]이 비보다는 지표면의 흙과 암석 조각들을 치우는 속도가 더 느릴 테니, 눈 속에서 단단한 암석이 더 빨리 풍화되는 것처럼 보이는 현상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때때로 생각했다. 원인이 무엇이든, 코르디예라 산맥에서 부스러지는 암석의 양은 그

5 스코어스비, 《북극지방》 1권, 112쪽.

6 슈롭셔에서는 긴 장마로 인해 세 번 강이 범람하면 웰시 산맥의 눈 녹은 물로 인한 것보다 물이 더 탁하다고 들었다. 도르비니(1권, 184쪽)는 남아메리카 지역의 강물이 여러 가지 색깔인 이유를 설명하면서 물이 푸르거나 맑은 강은 눈이 녹아내리는 코르디예라 산맥에 그 수원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야말로 엄청나다. 봄에 때때로 엄청난 양의 이런 암설이 산을 타고 미끄러져 내려와 계곡에 쌓인 눈더미 위를 덮으면 천연의 얼음 창고가 만들어진다. 그런 얼음 창고 위를 지나가 본 적이 있는데, 그 높이는 만년설의 하한선보다 훨씬 아래였다. 저녁이 가까워 올 무렵, 우리는 바예델예소Valle del Yeso라 불리는, 분지같이 생긴 독특한 평원에 도착했다. 그곳에는 작고 건조한 목초지가 펼쳐져 있었으며, 바위투성이 사막으로 둘러싸인 한가운데에 소 떼가 있는 기분 좋은 광경을 볼 수 있었다. 계곡 이름 중 '예소'는 거대한 백색 석고층에서 따온 것인데, 내 생각에 그 두께가 적어도 6백 미터는 되는 것 같으며, 부분적으로는 아주 순수한 석고로 되어 있다. 우리는 한 무리의 사람들과 같이 야영했는데, 그들은 포도주를 만드는 데 쓰는 석고를 노새에 싣는 일을 하러 온 사람들이었다. 21일 아침 일찍 출발해서 계속 강줄기를 따라가다가 물이 태평양과 대서양으로 나뉘어 흘러들어 가는 분수령의 기슭에 이르자 강줄기의 규모는 크게 줄어들어 있었다. 지금까지의 길은 고르고 경사가 그리 급하지 않아 좋았지만, 이제 길은 가파른 갈지자 도로로 바뀌어 칠레 공화국과 멘도사 공화국[7]의 경계가 되는 거대한 산맥까지 이어진다. 여기서 코르디예라 산맥을 형성하고 있는 몇 개의 평행한 능선들의 지질에 대해 아주 간략히 설명하겠다. 이 능선들 중에는 다른 것들에 비해 두드러지게 높은 것이 두 개 있다. 하나는 칠레 쪽의 페우케네스 능선으로 도로가 통과하는 지점에서의 높이가 해발 4026미터이며, 다른 하나는 멘도사 쪽의 포르티요 능선으로 높이가 4360미터이다. 페우케네스 능선과 그 서쪽에 있는 큰 능선들의 아래쪽 지층은 해저 분화구에서 솟은 해양 용암이 흘러들어 와 형성된 각지거나 둥근 반암 조각이 번갈아 가며 맞물리는 거대한 지층으로, 그 두께는 수백, 수천 미터에 이른다. 이렇게 교차하는 지층의 중앙부는 상당한 두께의 적색 사암, 역암, 그리고 석회질의 점판암으로 덮여 있으며, 거대한 석고 지층과 결합하면서 결국 석고층

7 안데스 산맥 기슭에 있는 해발고도 785미터의 고원 도시. 1561년 칠레에서 원정 온 R. R. 카스티요가 세웠으며, 1816년 아르헨티나의 독립과 함께 서부의 중심 도시가 되었다.

자체가 된다. 이 위쪽 지층에서는 조개껍데기들이 꽤 자주 발견된다. 이 조개들은 유럽 백악층 하부가 형성되던 시기의 것들이다. 한때 바다 밑바닥을 기어 다니던 조개들이 지금은 그보다 거의 4천2백 미터 위에서 발견된다는 것은 이미 케케묵은 얘기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놀랍다. 이 거대한 지층의 하부는 뒤틀린 데다가 열 때문에 변성되었으며, 백색 나트륨질 화강암 덩어리가 작용하여 결정화되면서 거의 한데 혼합되었다.

또 다른 주요 능선인 포르티요 능선의 지질학적 구성은 전혀 다르다. 이 능선은 주로 적색의 칼륨이 많은 화강암으로 이루어진 장대한 바위 산봉우리들로 이루어져 있다. 이 능선은 서쪽 경사면을 따라 내려가면서 화강암의 열 때문에 석영으로 변성된 사암으로 덮여 있다. 석영 위로는 두께가 수백, 수천 미터인 역암층이 자리 잡고 있는데, 이 역암층은 적색 화강암층에 의해 융기되어 페우케네스 능선 쪽으로 45도쯤 기울어져 있다. 이 역암층 일부는 페우케네스 능선의 암석에서 조개 화석을 지닌 채 떨어져 나온 자갈들로, 다른 일부는 포르티요 능선에서와 같은 적색 칼륨질 화강암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발견한 나는 깜짝 놀랐다. 이와 같은 사실들에 따르면, 페우케네스와 포르티요 능선 모두 이 역암층이 형성되고 있을 때 부분적으로 융기하면서 침식작용에 노출되었다는 결론이 나온다. 하지만 이 역암층이 적색의 포르티요 화강암(및 그 아래 있는 변성된 사암층) 때문에 45도로 기울어져 있으므로, 이미 부분적으로 형성되어 있던 포르티요 능선의 관입 및 융기 작용은 대부분 역암층이 퇴적된 후에 일어났으며, 페우케네스 능선의 융기보다는 훨씬 나중에 일어났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지역의 코르디예라 산맥에서 가장 험준한 능선인 포르티요 능선은 비교적 덜 험준한 페우케네스 능선만큼 오래되지는 않았다. 포르티요 능선 동쪽 기슭에 있는 경사진 용암류는 훨씬 나중에 융기했기 때문에 능선이 그토록 높다는 것을 보여 주는 증거가 될 수 있다. 포르티요 능선의 초기 기원을 살펴보자면, 이미 존재하던 백색 화강암과 운모 편암으로 구성된 고대 능선에 적색 화강암이 관입했던 것으로 보인다. 코르디예라 산맥의 대부

분, 아니 어쩌면 전체에 걸쳐, 각각의 능선은 반복적인 융기와 관입으로 형성되었으며, 줄지어 늘어서 있는 몇몇 능선들은 서로 다른 지질시대에 형성된 것이라고 결론지을 수 있다. 그런 방향으로 생각해야만, 다른 산맥들에 비해 최근에 생겼으면서도 거대한 이 산맥이 거쳐 온 진정 놀라울 만큼의 침식작용이 일어날 만큼의 시간을 상정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가장 오래된 능선인 페우케네스 능선에서 발견되는 조개껍데기는 앞서 언급했듯 산맥이 제2기[8] 이후로 4270미터나 융기했음을 증명해 준다. 유럽에서는 제2기를 고대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 조개들은 다소 깊은 곳에서 서식했기 때문에, 지금은 코르디예라 산맥이 된 지역은 조개들이 살던 지층 위에 그만큼의 해저 지층이 쌓일 정도로 수천 미터나—칠레 북부에서는 거의 1830미터에 이를 정도로—침강했던 것이 틀림없다. 이런 증거는 파타고니아에서 발견된 제3기 조개들이 살던 때로부터 훨씬 나중에 수백 미터에 이르는 침강이 있었으며 뒤이어 융기한 것이 틀림없다는 것을 입증했던 증거들과 같은 것이다. 나 같은 지질학자로서는 어떤 것도, 심지어 불어오는 바람조차도 이 지역의 지각만큼 불안정하지는 않으리라는 생각을 매일같이 절실히 떠올리게 된다.

지질에 관해 한 가지만 더 언급하겠다. 이곳에서 포르티요 능선은 페우케네스 능선보다 높지만 그 사이의 계곡에 흐르는 물은 포르티요 능선을 뚫고 흐른다. 볼리비아의 코르디예라 산맥 동쪽의 험준한 능선에서도 이처럼 강물이 능선을 뚫고 지나가는 현상이 좀 더 큰 규모로 발견되었다고 보고된 사례가 있다. 유사한 현상들이 세계의 다른 곳에서도 발견되었다. 포르티요 능선이 연속적, 점진적으로 융기했다고 가정하면 이런 현상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먼저 일련의 작은 섬들이 바다 아래에서 드러났을 것이고, 이것들이 솟아오르는 동안 조수가 그 섬들 사이를 더 깊고 넓게 침식했을 것이다. 오늘날, 티에라델푸에고 해안의 가장 후미진 협만에서도 길쭉한 운하들을 연결하는 교

8 현대의 지질시대 구분상으로 중생대에 해당한다—역주.

차점들의 해류는 매우 강해서 항해 중인 배가 그 사이의 교차 수로에 들어가면 뱅글뱅글 돌게 된다.

정오 무렵, 우리는 힘겨운 페우케네스 능선을 등반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처음으로 호흡이 조금 곤란해지는 것을 느꼈다. 노새들은 45미터씩 갈 때마다 멈추곤 했는데, 이 불쌍하면서도 알아서 일하는 동물들은 몇 초 쉬고는 스스로 다시 가기 시작했다. 칠레 사람들은 희박해진 공기 때문에 호흡이 짧아지는 것을 '푸나'라고 부르는데, 그 기원에 대해서는 무척이나 터무니없는 생각들을 하고 있다. 몇몇은 "이곳의 물 때문에 푸나가 생긴다"고 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눈 때문에 푸나가 생긴다"고 하는데, 물론 이것은 절대 사실이 아니다. 나에게는 마치 따뜻한 방에서 날씨가 추운 바깥으로 뛰쳐나갔을 때 그러는 것처럼 머리와 가슴이 약간 죄어드는 정도로만 느껴졌다. 높은 능선에서 조개껍데기를 발견하자마자 너무 기쁜 나머지 푸나고 뭐고 깡그리 잊었던 것을 생각하면, 그런 느낌에도 사실은 약간의 과장이 더해졌던 것 같다. 하지만 걷기가 무척 힘들고, 호흡 또한 깊고 고통스러웠던 것은 분명하다. 해발 약 4천 미터에 위치한 포토시에서 외지 사람은 1년이 지나도 그곳 대기에 완전히 익숙해지지 못한다고 들었다. 이곳 사람들 모두 푸나에 양파를 추천한다. 양파는 유럽에서는 폐병 치료 약으로도 쓰이기 때문에 진짜 효과가 있을지 모른다. 내 경우엔 조개 화석만 한 것이 없었지만 말이다!

반쯤 올라갔을 때, 우리는 짐을 실은 노새 70마리를 포함한 커다란 무리를 만났다. 노새지기가 거칠게 외치는 노새 모는 소리와 노새들이 길게 줄지어 내려가는 모습이 흥미로웠다. 주변에 대비되는 것이라곤 온통 어두운 산들뿐이어서 노새들은 아주 자그마해 보였다. 정상 부근에 다다르자 어디나 그렇듯 바람이 강해지고 심하게 추워졌다. 능선 양쪽으로는 만년설이 멀리까지 덮여 있고, 이제 또 새로 오는 눈이 쌓일 터였다. 정상에 도착해 뒤를 돌아보자 찬란한 풍경이 펼쳐졌다. 눈부시게 맑은 대기, 강렬한 파란색 하늘, 깊은 계곡, 지나간 긴긴 세월 동안 쌓인 암석 조각들이 만든 거칠고 험난한 지형, 만년설

에 덮인 고요한 산들과 대조를 이루는 형형색색의 바위들, 이 모든 것들이 함께 어우러져 누구도 상상하지 못할 광경을 만들어 냈다. 저 높은 봉우리 위를 맴도는 콘도르 몇 마리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식물이나 새도 이 무생물 덩어리에 빼앗긴 내 시선을 돌리지 못했다. 나 혼자라서 기뻤다. 마치 천둥 번개를 지켜보거나 정식 관현악단 연주로 헨델의 〈메시아〉 합창을 듣는 것만 같았다.
눈에 덮인 몇몇 장소에서 흔히 '붉은 눈'이라고 불리며 북극 탐험가들의 얘기로 익히 알려져 있는 프로토코쿠스 니발리스Protococcus nivalis를 발견했다. 노새의 발자국을 관찰하던 중이었는데, 마치 발굽에 피라도 난 듯 흐릿한 붉은색이 도는 것이 내 눈길을 끌었다. 처음엔 적색 반암으로 이루어진 주변 산에서 날아온 먼지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눈의 결정체가 사물을 크게 보여 주기 때문에, 이 극미세 식물군은 꼭 거친 분진처럼 보였다. 이런 눈은 빨리 녹았거나 잘못해서 뭉개졌을 때만 색깔을 띤다. 이 눈을 종이에 대고 비비면 연한 장밋빛 색조가 벽돌색과 뒤섞여 나타난다. 종이에서 그것을 조금 떼어 내 관찰해 보니 지름이 수천 분의 1센티미터 정도 되는 무색 껍질 속에 들어 있는 작은 구체들로 이루어져 있었다.
페우케네스 능선 정상에서는 앞서 말한 대로 바람이 심하게 불고 매우 춥다. 바람은 서쪽, 즉 태평양 쪽에서 계속 불어온다고 한다.[9] 주로 여름에 그런 관찰을 했으니, 이 바람은 불어왔다가 대기 상층부에서 되돌아가는 기류일 것이다. 위도 28도에 위치해 있으며 고도는 이보다 낮은 테네리페 봉에도 이와 마찬가지로 상층부에서 되돌아가는 바람이 불어온다.
칠레 북부와 페루 해안을 따라 부는 무역풍이 남쪽에서 불어온다는 것이 처음에는 상당히 놀라운 일이었다. 하지만 남북으로 뻗어 있는 코르디예라 산맥이 마치 거대한 장벽처럼 대기권 하부 대류의 전체 흐름을 가로막는다는 것을 돌이켜 보면 이 무역풍이 산맥을 따라서는 북쪽으로, 즉 적도 부근을 향해서 불

9 1830년 8월, 《자연사학 · 지리학회지》의 길리스 박사가 이 능선들(페우케네스와 포르티요)의 높이를 발표했다.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산맥으로 가로막히기 전에는 지구의 자전에 따라 동쪽으로부터 서쪽으로 향했던 동력을 잃게 되리라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안데스 산맥의 동쪽 끝자락에 있는 멘도사의 기후는 긴 무풍 기간, 그리고 자주 모이지만 일시적인 비구름 떼에 좌우된다고 한다. 여기서는 동쪽으로 부는 바람이 산맥 때문에 가로막혀 정체되면서 이동을 예측하기 힘든 기단이 되었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페우케네스 능선을 가로지른 우리는 두 개의 주 능선 사이에 낀 산악지대로 하산해서 밤을 보낼 숙소를 잡았다. 이제 우리는 멘도사 공화국에 있는 것이다. 고도는 아마도 3,350미터 이상인 것 같고, 따라서 초목은 극도로 줄어들었다. 작은 관목 뿌리를 땔감으로 썼는데, 화력이 보잘것없고 바람은 살을 에는 듯했다. 하루 동안의 일과에 지친 나는 될 수 있는 한 빨리 잠자리를 만들어 잠을 청했다. 자정 무렵, 하늘에 갑자기 구름이 끼는 것을 보았다. 노새지기를 깨워 혹시라도 악천후가 올 위험이 있는지 물어보았더니, 천둥 번개만 없으면 눈보라가 일어날 걱정은 없다고 했다. 두 산맥 사이에서 악천후에 걸리는 것만큼 위험이 코앞에 닥친 데다 곧바로 대피하기 어려운 경우도 없을 것이다. 그럴 때는 믿을 만한 동굴만이 유일한 도피처이다. 지난달 같은 날짜에 이 능선을 가로질렀던 칼드클뢰 씨는 눈이 심하게 오는 바람에 한동안 발이 묶였다. 우스파야타 고갯길과 마찬가지로 이 고갯길에도 '카수차casucha', 즉 피난처들이 없기 때문에 가을에는 포르티요 고갯길로 사람들이 많이 다니지 않는다. 코르디예라의 주 산맥은 여름에는 구름 한 점 없어서, 그리고 겨울에는 눈보라만 불기 때문에 비가 전혀 내리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우리가 잤던 지역은 기압이 낮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낮은 다른 지역에 비해 낮은 온도에서 물이 끓는다. 파팽의 압력솥[10]과는 정반대 경우였다.

10 프랑스 태생의 영국 물리학자인 드니 파팽(1647~1712)은 1679년 증기 압력솥pressure cooker을 발명했고, 이를 계기로 실린더 안의 피스톤을 증기의 힘으로 움직이는 방법을 착안하여 1690년 증기기관의 기본을 설계했다. 직접 증기기관을 만들어 실용화하지는 못했지만, 훗날 산업혁명의 원동력이 된 증기기관의 개발에 큰 영향을 미쳤다-역주.

그래서 감자를 끓는 물 속에 몇 시간을 두어도 거의 무르지 않았다. 냄비를 밤새도록 불 위에 놓았다가 다음 날 아침에 다시 한 번 끓였는데도 감자는 익지 않았다. 동행 두 사람이 그 원인에 대해 얘기하다가 "그 저주받은 냄비(새것이었다) 때문에 감자가 익지 않는다"는 무지한 결론에 이르는 것을 듣는 바람에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3월 22일 | 결국 감자 없이 아침 식사를 하고 나서, 우리는 중간 지대를 가로질러 포르티요 산맥 기슭으로 향했다. 한여름에는 이곳으로 소 떼를 먹이러 오지만 지금은 없다. 심지어 수적으로 더 많은 과나코들마저도 눈보라 때문에 이곳에 갇히면 함정에 빠지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을 잘 알기에 죄다 피한 상황이다. 우리는 '투푼가토Tupungato'라고 불리는 거대한 산맥이 산 전체에 흠집 하나 없이 눈으로 덮여 있는 멋진 모습을 보았다. 그 한가운데에 푸른 부분이 보였는데, 빙하가 분명했다. 이 산맥에서는 보기 드문 현상이었다. 이제 페우케네스 능선에서처럼 힘겹고 긴 등반이 시작되었다. 양편으로는 붉은 화강암으로 된 벌거벗은 원추형 언덕들이 솟아 있었다. 계곡에는 종종 만년설로 덮인 넓은 들판이 펼쳐지곤 했다. 이 얼어붙은 눈들이 녹으면서 일부분은 뾰족한 봉우리나 기둥 형태가 되는데,[11] 그것들이 서로 붙어 높이 서 있으면 짐을 실은 노새들이 지나가기 어렵다. 이 얼음 기둥 중 하나에 말 한 마리가 마치 기둥 받침대처럼 붙어서 얼어 죽어 있었는데, 뒷다리는 허공으로 치솟아 있었다. 내 생각에 이 말은 눈이 계속 내릴 때 구덩이 아래로 고꾸라졌으며 후에 주변의 눈이 녹아 없어지는 바람에 이렇게 된 것이 분명하다.

포르티요 능선의 정상 가까이 오자, 우리는 미세한 침상 얼음 결정으로 된 구름 속에 갇힌 셈이 되었다. 이것이 하루 종일 계속되어 우리의 시야를 막았기

11 스코어스비는 스피츠베르겐 부근의 빙산에서 오랫동안 이러한 결빙설의 구조를 관찰해 왔으며, 최근 잭슨 대령(《지리학회지》 5권 12쪽)이 네바 강에서 좀 더 자세히 관찰한 바 있다. 라이엘(《지질학 원리》 4권 360쪽) 씨는 그 주상 구조를 결정짓는 것으로 보이는 틈들을, 거의 모든 암석에 나타나지만 특히 층리가 없는 암석에서 가장 잘 나타나는 절리와 비교했다. 결빙된 눈의 경우, 주상 구조는 눈이 쌓이는 과정보다는 변성 과정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무척 유감이었다. 이 고갯길의 '포르티요'라는 이름은 능선 꼭대기의 좁은 틈 또는 관문에서 유래했는데, 그 사이로 길이 나 있다. 이곳에서 보면 맑은 날에는 대서양까지 거칠 것 없이 펼쳐져 있는 광활한 평원을 볼 수 있다. 우리는 식물이 자라는 상한선까지 내려가 한 커다란 암반 아래에서 밤을 지낼 만한 좋은 자리를 찾았다. 여기서 여행객 몇 명을 만났는데, 그들은 도로 상태에 관해 걱정스럽게 물어 왔다. 날이 어두워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 갑자기 구름이 걷히자, 사뭇 마법과도 같은 효과가 나타났다. 보름달 아래 빛나는 거대한 산맥이 온통 우리 쪽을 향해, 그러니까 마치 깊은 골짜기를 향해 드리워져 있는 것 같았다. 어느 날 꼭두새벽에도 이와 같은 놀라운 착시 현상을 경험한 적이 있었다. 구름이 흩어지자마자 혹독하게 추워졌지만 바람은 불지 않아서 우리는 무척 편안히 잠들었다.

이런 고도에서는 완벽할 정도로 투명한 대기 덕분에 달과 별이 한층 찬란하게 보인다. 험준한 산맥 한가운데 있는 여행자들이 높이와 거리를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는 것은 대개 비교할 만한 대상이 없어서라고 한다. 내 경우에 그런 이유보다는 투명한 공기 때문에 서로 다른 거리에 있는 물체들을 혼동하는 것이 주된 이유인 것 같고, 또 부분적으로는 오르느라 힘이 들어서 여느 때와는 다른 피로감을 새삼 느끼기 때문인 것 같다. 이렇게 해서 습관적인 판단이 감각적인 증거와 어긋나는 것이다. 마치 그림이나 파노라마를 보듯, 모든 사물이 거의 하나의 평면에 끌려 들어오듯 보이는 이 지형의 특성은 이처럼 지나치게 맑은 공기 때문에 생겨나는 것이 분명하다. 내 생각에는, 고도는 높은데 공기가 고르고 건조하기 때문인 듯싶다. 목제품들이 수축하고 빵과 설탕 같은 식료품들이 아주 딱딱해지며 길에서 죽은 짐승의 가죽이나 살이 그대로 보존되는 것을 보면 공기가 얼마나 건조한지 알 수 있다. 정전기가 잘 발생되는 특성 또한 같은 이유 때문이다. 플란넬 천으로 만든 조끼를 어두운 곳에서 비볐더니 마치 인燐으로 빨래라도 하는 것 같았다. 개의 등 쪽 털은 온통 우지직거렸고, 심지어 리넨 천과 말안장의 가죽끈까지도 손을 대면 불꽃을 튀겼다.

3월 23일 | 코르디예라 산맥 동쪽 비탈로 내려오는 길은 태평양 쪽으로 내려오는 것보다 거리는 훨씬 짧고 경사는 급했다. 다시 말해, 이 산맥은 칠레의 산악지대 쪽보다 평원 쪽에서 더 급격히 솟아올랐다는 얘기이다. 우리 발밑으로 평탄하고 빛나는 구름바다가 펼쳐져 역시나 평탄한 팜파스를 향하는 시선을 가로막았다. 우리는 곧 구름 띠 속으로 들어가서는 그날이 다 가도록 거기서 벗어나지 못했다. 정오 무렵, 로스 아레날레스에서 짐승들에게 먹일 목초와 땔감으로 쓸 나무를 찾은 우리는 그곳에서 밤을 지내기로 했다. 그곳은 수풀이 자랄 수 있는 상한선 근처였고, 고도는 2천1백~2천4백 미터 사이인 것 같았다.

이 동쪽 비탈에 있는 계곡과 칠레 쪽 계곡에 자라는 식물상의 차이가 뚜렷한 것을 보고 무척 놀랐다. 하지만 두 곳은 토질은 물론 기후도 거의 똑같으며 경도의 차이도 크지 않다. 네발 동물의 분포 역시 차이가 크지만 새와 곤충류에서는 차이가 적었다. 쥐를 예로 들면, 대서양 연안에서는 13종을, 태평양 쪽에서는 5종을 잡았으나 어느 하나 똑같은 게 없었다. 높이 솟은 산맥에 끊임없이 출몰하거나 간간이라도 볼 수 있는 모든 동물들과 남쪽으로 마젤란 해협까지 분포하는 새 몇 종은 예외이다. 이러한 사실은 안데스 산맥의 지질학적인 역사와도 정확하게 일치한다. 이 산맥은 현세의 동물들이 나타난 이후로 쭉 거대한 장벽이 되어 왔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서로 다른 두 지역에서 같은 종이 발생했다고 가정하지 않는 한, 대양의 양쪽 해안에 있는 생물들 사이의 유사성보다 안데스 산맥 양쪽 기슭에 사는 생물들 사이에 더 많은 유사성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할 수는 없다. 두 경우 모두에서, 단단한 암석이나 짠 바닷물 같은 장벽을 넘을 수 있었던 종들은 고려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12]

12 이는 지질학적인 변화에 따른 동물의 지질학적 분포의 변화에 대해 라이엘 씨가 처음 내놓았던 감탄할 만한 법칙에 대한 단순한 예시일 뿐이다. 물론 전반적인 논리 전개는 종種의 불변성에 대한 가설에 기초를 두고 있다. 그렇지 않다면 서로 다른 지역에 사는 동물 종의 차이는 시간차를 두고 생겨났을 수도 있을 것이다.

대다수의 동식물들이 파타고니아의 동식물과 완전히 같은 것이거나 매우 밀접하게 연관된 것들이었다. 여기도 아구티, 비스카차, 아르마딜로 3종, 타조, 자고새 몇 종과 몇몇 조류 등, 칠레에서는 보이지 않았지만 파타고니아의 사막 평원에서는 두드러지게 나타나던 동물들이 있다. 마찬가지로 여러 종의 왜소한 가시덤불, 시든 풀과 작은 나무들 중에도 똑같은 것들(식물학자가 아닌 일반인의 눈으로 보기에는 말이다)이 있다. 심지어 천천히 기어 다니는 검정 딱정벌레들도 아주 비슷했으며, 내 생각에 몇 종은 엄밀히 조사해 보면 전적으로 똑같을 것 같다. 산맥까지 가는 길에 산타크루스 강을 타고 올라가는 일을 불가피하게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내게 후회되는 일이었다. 나는 지형이 크게 변하는 광경과 마주하고 싶다는 소망을 언제나 마음속에 지니고 있었다. 그러나 지금 돌이켜 보면, 그 변화의 광경을 목격하는 것이란 파타고니아 평원을 따라 산맥을 오르는 것에 지나지 않았으리라는 것을 확신한다.

3월 24일 | 이른 아침, 계곡 한쪽을 따라 산에 오른 뒤 팜파스를 향해 탁 트인 전망을 즐겼다. 나는 늘 그런 광경에 관심을 갖고 고대해 왔지만, 다소 실망하고 말았다. 처음 보기에는 멀리서 바라본 대양과 비슷했으나, 곧 북쪽 지역에 고르지 못한 부분이 눈에 들어왔다. 가장 경이로운 장면은 강물이 떠오르는 태양 빛을 받아 은으로 된 실 꾸러미처럼 빛나면서 저 멀리 대양으로 사라져 가는 것이었다. 한낮에는 계곡을 내려가서 어느 오두막에 다다랐는데, 그곳에는 장교 하나와 군사 셋이 통행증을 검사하며 보초를 서고 있었다. 그중 한 명은 순수한 팜파스 인디오였다. 그는 마치 블러드하운드(영국산 경찰견)처럼 걸어서 또는 말을 타고서 몰래 빠져 지나가는 사람을 쫓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

몇 년 전 한 통행객이 근처 산을 멀리 돌아서 통행증 검사를 피해 보려고 애썼지만, 우연히 그 자취를 찾은 이 인디오는 꼬박 하루 동안 메마르고 돌투성이인 언덕을 지나 추적하여 결국에는 협곡에 숨어 있던 도망자를 찾아냈다. 여기서 우리가 위쪽의 밝은 지역에서 바라보았던 이 은빛 구름이 폭우를 쏟아부었다는 얘기를 들었다. 이 지점에서부터 계곡은 점점 넓어지고 언덕들은 뒤

에 있는 웅장한 산들에 비해 그저 물에 깎인 작은 언덕이 되어 간다. 그러고는 완만한 곡선을 이루며 작은 나무와 덤불들이 깔려 있는 자갈 평원으로 이어진다. 이런 애추崖錐[13]는 협소해 보여도 완전히 평면인 팜파스로 이어지는 지점에서는 폭이 거의 16킬로미터나 된다. 우리는 이 근방의 유일한 가옥인 차카이오 대농장을 지나 해가 질 무렵 처음 찾은 아늑한 자리에서 걸음을 멈추고는 야영을 했다.

3월 25일 | 떠오르는 태양이 대양의 수평선에 걸리듯 지평선에 걸려 있는 것을 보니 부에노스아이레스의 팜파스가 떠올랐다. 밤새 이슬이 잔뜩 내렸는데, 코르디예라 산맥에서는 없었던 일이었다. 길은 저지대의 습지를 지나 동쪽으로 뻗어 있었다. 이어 건조한 평원이 나오는데, 거기서 북쪽의 멘도사 쪽으로 향하게 된다. 꼬박 이틀이 걸리는 거리였다. 첫날에는 에스타카도까지 68킬로미터를 이동했고, 둘째 날에는 멘도사 근처의 룩산까지 82킬로미터를 이동했다. 가는 길은 내내 평탄한 사막이었고, 집은 두세 채 정도 있었다. 태양은 심하게 뜨거웠고 가는 내내 재미라곤 찾을 수 없었다. 이 '횡단로'에는 물이 거의 없었는데, 이틀째 되는 날에 겨우 작은 물웅덩이 하나를 발견했다. 산맥에서 흘러내려 오는 물은 거의 없고, 그나마도 메마른 다공질의 땅에 이내 흡수되어 버렸다. 그래서인지 코르디예라 산맥의 바깥쪽에서 16~24킬로미터 정도 왔음에도 그동안 개울 하나 건너지 않았다. 여기저기 꽃 모양의 소금 결정들로 덮여 있어, 바이아블랑카 부근에서 흔히 보듯 염분을 좋아하는 식물들이 자라고 있었다. 마젤란 해협에서부터 파타고니아의 동쪽 해안선을 따라 콜로라도 강까지는 풍경이 거기서 거기였다. 그리고 이 강에서부터 산루이스 혹은 심지어 더 북쪽으로 광범위한 내륙 지방까지는 같은 지형이 이어지는 것 같다. 이들을 연결하는 곡선의 오른편으로는 비교적 습윤하고 푸른 부에노스아이레스 평원 분지가 있다. 멘도사와 파타고니아를 이루는 불모의 평원은 파도에 의해 닳아서 쌓인 자갈층으로 되어 있다. 반면에 엉겅퀴, 클로버 같은 풀로 덮인 팜

13 벼랑이나 급경사면으로부터 풍화된 암석이 무너져 내려 반원추半圓錐 모양으로 쌓인 것–역주.

파스는 먼 옛날 라플라타 강어귀에 쌓인 진흙층으로 되어 있다. 이틀간의 지루한 일정이 끝나고 저 멀리 룩산 강과 마을 둘레에 자라는 포플러와 버드나무들을 보니 가슴이 후련했다. 이곳에 도착하기 직전, 남쪽 하늘에서 어두운 적갈색을 띤 침침한 구름을 발견했다. 처음에는 평원에서 큰 불이 나서 생긴 연기라고 생각했는데, 머잖아 그것이 메뚜기 떼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것들은 가벼운 미풍을 받아 북쪽으로 이동하고 있었으며, 한 시간에 16~24킬로미터의 속도로 우리를 따라잡았다. 메뚜기 떼는 지면에서 6미터 높이에서부터 대략 6백~9백 미터 상공까지 퍼져 있는 것 같았다. 그것들이 내는 소리는 전투마들이 끄는 전차 소리, 아니면 항해 장비들을 스쳐 지나가는 강한 바닷바람 소리와 같을 정도였다. 앞서 가던 일행들에겐 마치 치밀한 동판화를 보는 듯 하늘이 겨우 보였으나, 본 부대의 시야는 완전히 가려졌다. 메뚜기 떼는 그리 빽빽하지 않았는데도 사람들이 앞뒤로 흔들어 대는 막대를 잘도 피했다. 한번 땅에 내려앉을라치면, 메뚜기들은 평원의 잎들보다도 많았고 푸르렀던 땅은 불그죽죽해졌다. 일단 땅에 내려앉은 메뚜기들은 이쪽저쪽 사방으로 제각각 날아올랐다. 이 근방에서 메뚜기 떼는 드문 재해가 아니다. 이번 철에도 이미 남쪽에서 몇 차례 소규모 메뚜기 떼가 올라왔다. 세계 다른 지방에서와 마찬가지로, 이곳 메뚜기 떼도 사막 지역에서 번식한다. 불쌍한 농부들이 불을 지르거나 고함치거나 나뭇가지를 흔들어 공격을 막아 보려고 하지만 헛일이다. 이 메뚜기들은 동양의 그 유명한 그릴루스 미그라토리우스Gryllus migratorius와 무척 유사하거나 어쩌면 같은 종인 것으로 보인다.

룩산 강을 건넜다. 상당히 큰 강인데, 해안 쪽을 향한 유로는 무척 불확실하게 알려져 있다. 평원을 흘러가면서 증발하거나 유실되는지도 모를 일이다. 우리는 강가 마을에서 묵었는데, 그곳은 온통 정원들로 둘러싸였으며 멘도사 지방에서 가장 남쪽에 있는 경작지였다. 주도州都로부터는 24킬로미터 남쪽에 있다. 밤에 나는 팜파스에 사는 크고 검은 빈대이며 레두비우스속Reduvius의 일종인 '벤추카Benchuca'에게 '공격'(이렇게 표현해야 마땅하다)당했다. 길이는 2~3센

티미터 정도에 매끄럽고 날개 없는 벌레가 몸 위를 기어 다니는 것만큼 역겨운 일도 없을 것이다. 처음에는 꽤 납작하지만 피를 빨고 나면 피로 가득 부풀어 둥글어진다. 게다가 이런 상태에선 짓뭉개기도 쉽다. 내가 이키케(이 벌레들은 칠레와 페루에도 있다)에서 잡았던 것은 속이 텅 비어 있었다. 이 벌레를 테이블 위에 놓고 손가락을 내밀면, 이 대담무쌍한 벌레는 주변에 사람들이 둘러서 있는 것도 개의치 않고 재깍 흡반吸盤을 뻗어 물어뜯을 태세를 취할 것이며, 여차하면 피를 빨려고 달려들었을 것이다. 상처는 전혀 아프지 않았다. 피를 빨고 있는 그 벌레의 몸체를 보고 있으면, 10분도 채 되지 않아 웨이퍼(살짝 구운 얇은 과자)처럼 납작했던 것이 거의 공 모양이 되는 것이 신기했다. 벤추카 한 마리가 어떤 장교의 피를 빨았는데, 이렇게 한 차례 포식한 뒤에는 넉 달 동안 버틸 수 있었으며, 2주가 지나자 바로 또 피를 빨려고 덤벼들 정도였다.

3월 27일 | 멘도사로 향했다. 그 지역의 땅은 훌륭하게 일구어져 있었고 칠레와 비슷했다. 근방은 과일로 유명한데, 포도밭을 비롯해 무화과, 복숭아, 올리브가 가득한 과수원이 무엇보다 잘되었다. 하나에 반 페니씩을 주고 어른 머리통 두 배만 한 수박을 샀는데, 무척이나 시원하고 맛도 좋았다. 그리고 3펜스만 주면 외바퀴 수레를 반 정도 채울 만큼 복숭아를 살 수 있었다. 이 지방의 사유 경작지는 매우 적다. 룩산에서 주도인 멘도사까지 오는 사이에는 그보다 좀 더 많은 사유 경작지를 지나쳐 왔었다. 칠레와 마찬가지로 이 지역이 비옥한 이유는 전적으로 인공적인 관개농업 때문이며, 황폐한 지역이 이렇게 놀랄 만큼 비옥한 땅으로 바뀌었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이다.

다음 날도 멘도사에 머물렀다. 이 지역의 번영도 최근 몇 년 동안 많이 기울었다. 이곳 주민들은 "살기에는 좋은 곳이지만, 부자가 되기에는 아주 나쁜 곳이지"라고 한다. 하층민들은 팜파스의 가우초들처럼 게으르고 무신경하게 살고 있었다. 옷이나 마구, 생활 습관, 거의 모든 것들이 똑같았다. 그 도시는 생각 없고 희망도 없는 분위기로 뒤덮여 있는 것 같았다. 이곳 자랑거리인 가로수 길이나 풍경은 산티아고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적어도 부에노스아이

레스에서부터 단조로운 팜파스를 지나온 사람에게는 정원이며 과수원들이 기쁨으로 가득해 보일 것이 틀림없다. 헤드 경은 이곳 주민들에 대해 얘기하면서 "저녁을 먹고, 그러고 나면 너무 더워 잠자리에 들고, 더 이상 어떻게 하겠소?"라고 했다. 나도 전적으로 동의한다. 먹고, 자고, 게으를 수 있다는 것은 멘도지노스(멘도사 사람들)들의 행복한 운명인 것이다.

3월 29일 | 칠레로 돌아갈 준비를 했다. 멘도사 북쪽에 있는 우스파야타 고개를 통해 가기로 했다. 72킬로미터에 걸쳐 길고 무척이나 황폐한 지역을 가로질러야 한다. 토양은 완전히 헐벗은 지역이 있는가 하면 지역 주민들이 '작은 사자들'이라고 부르는, 무시무시한 가시들로 무장한 작은 선인장들이 수없이 나 있는 곳도 있다. 키 작은 덤불들도 가끔 있다. 이 평원은 해발 915미터 정도임에도 불구하고 태양이 무척 강렬하며, 미세한 먼지 구름뿐 아니라 더위까지 가세해 여행자들을 극도로 진저리치게 만든다. 낮 동안 우리의 진로는 코르디예라 산맥과 거의 평행했으나, 점점 산맥에 다가가고 있었다. 해 지기 전에 우리는 어느 넓은 계곡으로 들어섰다. 평원을 향해 있는 '만灣'이라고 해도 될 정도였다. 계곡은 곧 좁아졌으며, 조금 위쪽으로 비야비센시오Villa Vicencio가 자리 잡고 있다. 하루 종일 물 한 방울 마시지 않고 달렸기 때문에 노새들이나 우리들이나 무척 목이 말랐다. 그래서 이 계곡에서 흘러내려 오는 개울을 애타게 찾았다. 흐르는 물이 점점 그 모습을 드러내는 것을 보면 무척 신기하다. 평원의 물줄기는 무척 메말라 있었다. 물줄기는 점점 더 축축해지기 시작하고, 그러다 물웅덩이가 등장하고, 이것들은 곧 서로 이어진다. 비야비센시오에 도착해 보니, 작지만 멋진 시냇물이 있었다.

3월 30일 | 안데스 산맥을 넘는 여행객은 누구나 비야비센시오라는 인상적인 이름의 외딴집 얘기를 한다. 나도 이틀 동안 이 집과 근처의 광산 몇 군데에 머물렀다. 주변 지역의 지질이 호기심을 끌었다. 우스파야타 능선은 길고 좁은 평원 또는 분지를 두고 코르디예라 주 산맥에서 분리되어 있다. 이 길고 좁은 평원 또는 분지는 칠레에서 종종 얘기하던 것들과 비슷하지만 고도는 해발

약 1천8백 미터로 더 높다. 코르디예라 산맥에 대한 이 능선의 지리학적 위치는 거대한 포르티요 능선과 거의 같지만, 능선의 기원은 전적으로 다르다. 우스파야타 능선은 다양한 종류의 해저 용암이 화산성 사암 및 다른 주목할 만한 퇴적암들과 교대로 층을 이루고 있다. 전체적으로는 태평양 연안의 제3기 지층의 일부와 아주 흡사한 모습이다. 이러한 유사성에서 나는 그렇게 형성된 지층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인 규화목을 발견할 수 있으리라 기대했다. 내 기대는 기상천외하게 맞아떨어졌다. 2천1백 미터쯤 융기된 능선 중심부의 헐벗은 비탈에서 나는 눈처럼 하얀 기둥 몇 개가 튀어나온 것을 발견했다. 그것들이 바로 석화된 나무들이었는데, 열한 그루는 규화목이었고 30~40 그루는 결정이 굵은 흰 방해석으로 변성되어 있었다. 지면 위로 몇십 센티미터 정도 수직으로 솟아오른 그루터기는 뭉텅 잘려져 있었다. 나무 밑동은 지름이 90~150센티미터였다. 나무들은 각각 조금씩 떨어져 있긴 했지만 전체적으로는 숲을 이루고 있었다. 로버트 브라운 씨가 친절하게도 그 숲을 조사해 주었는데, 남양삼목과의 특징을 일부 가지고 있는 전나무 계통에 속하면서 신기하게도 주목朱木과도 유사성이 있는 나무들이라고 했다. 저 밑에 규화목 뿌리가 박힌 채로 그 나무들을 덮고 있던 화산성 사암은 나무줄기 둘레에 차곡차곡 얇은 층을 이루며 쌓여 있으며, 나무껍질 자국이 여전히 남아 있었다.

이 장면이 잇달아 풀어내는 놀라운 이야기를 알아듣는 데 거창한 지질학적 소양이 필요한 건 아니다. 하지만 고백하건대, 처음엔 나도 너무나도 경악했기 때문에 가장 뻔히 보이는 증거조차 믿기 어려웠다. 나는 지금은 1126킬로미터나 물러나 있는 대서양이 안데스 산맥의 밑자락까지 다가왔던 그때, 한 군락의 소나무 가지들이 대서양 해안을 향해 흔들리던 그 장소를 본 것이다. 해수면 위로 솟아오른 화산성 토양 위로 나무들이 자라났으며, 뒤이어 이 메마른 땅은 나무들이 자란 채 대양 깊이 가라앉았다는 것도 알아보았다. 대양의 심연에서 이 메마른 땅은 퇴적층으로 덮였으며, 거대한 해저 용암류에 의해 다시 한 번 뒤덮였다. 단번에 수백, 수천 미터의 두께가 쌓일 만큼의 그런 해저

용암류 말이다. 그리고 이런 용암류와 해저 퇴적층은 다섯 번이나 교대로 쌓였다. 이렇듯 거대한 지층이 쌓인 대양은 무척이나 깊었던 것이 틀림없다. 하지만 지각 아래의 힘이 또다시 작용하여, 지금 나는 그 대양의 지층이 높이 2천 미터가 넘는 산맥을 만들어 내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 것이다. 그에 역행하는 힘, 즉 늘 지표면을 깎아내리고 있는 힘 또한 잠들어 있지 않았다. 거대한 퇴적층은 수많은 넓은 계곡들이 생기면서 끊기고, 이제 규화목이 되어 버린 나무들은 한때 화산성 토양이었던 바위에서 삐죽 튀어나와 있다. 먼 옛날 그 나무들이 푸른 새순이던 모습으로 당당하게 고개를 밀어 올리던 땅은 이제 바위로 변해 버렸다. 이제 모든 것은 돌이킬 수 없이 사막같이 되어 버렸다. 한때는 나무였던 석화된 허물에서는 이끼조차 자라지 못한다. 이렇게 우리 의식 수준으로는 거의 이해할 수조차 없을 정도로 거대한 변화들은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며, 코르디예라 산맥의 지질학적 역사에 비하면 비교적 가까운 특정 시기에 모두 발생했다. 코르디예라 산맥이 형성된 것 또한 유럽과 아메리카의 화석을 함유한 수많은 지층들에 비하면 전적으로 근세의 일이다.

4월 1일 | 우스파야타 능선을 넘은 우리는 그 평원에서는 유일하게 사람이 거주하는 세관에서 밤을 보냈다. 산맥을 떠나기 직전, 굉장히 기이한 경관이 펼쳐졌다. 검은색 용암과 번갈아 쌓인 적색, 자주색, 녹색, 그리고 아주 새하얀 퇴적암들이 어두운 갈색에서 밝디밝은 라일락 색깔에 이르기까지 온갖 색조를 지닌 반암 덩어리 때문에 깨어져서 온통 아무렇게나 흩어져 있었다. 이러한 광경은 나도 처음 보는 것이었는데, 지질학자들이 그리는 지구 내부의 아름다운 단편과 정말 흡사했다.

다음 날에는 평원을 가로질러 룩산 강 옆을 따라 흐르는 바로 그 거대한 산간 급류를 따라갔다. 여기 이르자 급류가 맹렬해져서 도대체 건너갈 수가 없었다. 비야비센시오에 있던 작은 개울처럼 저지대에서보다 더 커 보였다. 다음 날 저녁, 우리는 라스바카스 강에 도달했는데, 이 강은 코르디예라 지역에서 가장 건너기 힘들다고 하는 곳이었다. 여기 강들은 모두 물살이 급하고 유로

가 짧으며 눈이 녹은 물이기 때문에 하루 중 어느 때인가에 따라 유량의 차이가 상당하다. 저녁이면 강은 흙탕물로 가득하지만 새벽녘이면 물이 맑아지고 상당히 잠잠해진다. 라스바카스 강의 경우도 이와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생각했던 우리는 아침에 별 어려움 없이 강을 건넜다.
여기까지의 경치는 포르티요 고개에 비해 무척이나 밋밋했다. 꼭대기까지 길이 이어지는 바닥이 평평하고 웅장한 계곡의 헐벗은 장막 너머로는 거의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계곡과 거대한 바위산은 극도로 황폐했다. 키가 작고 진액이 많은 덤불 말고는 식물이라고는 거의 찾을 수가 없어 불쌍한 노새들은 앞서 이틀 밤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 오늘 행군하는 동안 코르디예라에서 가장 험한 몇몇 지역을 통과했는데, 그 위험성은 크게 과장된 것이었다. 내가 듣기로는, 걸어서 그곳을 지나려 하다가는 현기증이 날 것이고 노새에서 내릴 자리도 없을 것이라고 했었다. 하지만 몸을 뒤로 펴고 걸을 수 없을 만한 곳이라든가 노새에서 어느 쪽으로든 내리지 못할 곳은 단 한군데도 보지 못했다. 험한 길 중 하나인 '라스 아니마스las Animas('영혼들'이라는 뜻)'도 지나갔으나, 그날이 다 지나갈 때까지 그곳이 그처럼 무서운 곳이었는지도 몰랐다. 물론 노새가 발을 삐끗하면 타고 있던 사람이 까마득한 절벽 아래로 떨어질 만한 곳이 여러 군데 있었지만, 그럴 확률은 극히 적었다. 감히 말하겠는데, 매해 봄에 떨어진 암편 더미 위에 새로 생기는 '라데라스', 즉 '길'은 무척 험하다. 하지만 내가 보기엔 그렇게 위험하지 않은 것 같다. 물론 짐 실은 노새들이라면 경우가 다르다. 짐들이 너무 튀어나와 있어 종종 노새들끼리 부딪치거나 튀어나온 바위에 부딪히게 되면 중심을 잃고 벼랑으로 떨어진다. 강을 건너는 것은 훨씬 더 어려우리라는 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요즘 같은 계절에는 덜 어렵지만 여름이라면 위험천만일 것이 틀림없다. F. 헤드 경이 묘사했듯이, 그 깊은 틈을 '건너간 사람들'과 '건너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말에 담긴 느낌의 차이를 나 또한 상상할 수 있다. 사람이 물에 빠졌다는 이야기는 들은 적이 없지만 짐을 실은 노새가 그랬다는 얘기는 자주 들려왔다. 노새지기들은 사람이

탄 노새에게는 가장 좋은 길을 알려 주어 강을 건너게 하지만 험한 길로 가게 된 짐 실은 노새는 종종 실족한다.

4월 4일 | 라스바카스 강에서 푸엔테델잉카스 다리까지는 반나절 걸리는 거리다. 그곳에는 노새들이 풀을 뜯을 만한 목초지와 내가 관심 가질 만한 지질 환경이 있기 때문에 하루 동안 묵고 가기로 했다. 자연적으로 생겨난 다리라는 말을 들으면 깊고 좁은 산골짜기에 떨어져 가로놓인 굵은 바윗덩어리라든가 커다란 동굴 천장처럼 커다랗게 파인 아치를 떠올리게 마련이다. 하지만 잉카스 다리는 주변의 뜨거운 온천 침전물로 결합된 두꺼운 역암층으로 되어 있다. 마치 하천에 의해 한쪽 수로가 뚫리면서 위쪽에 남아 있던 튀어나온 바위에 반대편 절벽에서 떨어져 내린 흙과 돌이 붙은 것처럼 보인다. 이런 경우에서 흔히 보이듯 확실히 한쪽 방향으로 매우 뚜렷하게 비스듬한 모양으로 결합되어 있다. 하지만 잉카스 다리는 그 이름이 뜻하는 위대한 군주처럼 대단한 것은 전혀 아니었다.

4월 5일 | 중앙 능선을 넘어 잉카스 다리에서부터 오호스델아구아Ojos del Agua까지 하루 종일 달렸다. 오호스델아구아 근처에는 칠레 방면에서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카수차'가 있다. 카수차는 작고 둥근 탑인데, 눈발 때문에 땅에서 몇 피트 올라가 있기 때문에 바깥쪽에 땅으로 내려오는 계단이 있다. 카수차는 모두 여덟 개로, 스페인 정권 아래에서는 겨울 동안 식량과 석탄을 저장하는 곳이었으며 각 탑의 문서 전달원이 마스터키를 갖고 있었다. 지금은 그저 지하 저장고나 혹은 지하 감옥으로만 쓰이고 있다. 조금 높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카수차들은 황량한 주변 풍경과 썩 잘 어울리는 것 같다. 쿰브레, 즉 분수령까지 갈지자 길을 따라 올라가는 길은 무척 가파르고 지루했다. 펜틀랜드 씨에 의하면, 높이가 3천8백 미터라고 한다. 양쪽으로 만년설이 쌓여 있었지만 길에는 눈이 전혀 없었다. 정상에서 부는 바람이 심하게 차가웠지만, 하늘의 색깔과 눈부시게 투명한 대기를 올려다보느라 몇 번이고 잠깐씩 멈추지 않을 수 없었다. 웅장한 경치는 깊디깊은 계곡을 끼고 있는 수려한 산들이 늘어

선 서쪽으로 이어졌다. 대개 이때쯤이면 눈이 오기 때문에 이 시기에는 코르디예라 산맥의 통행이 때때로 금지되곤 한다. 우리는 운이 좋았다. 가장 높은 봉우리 위에 떠 있는 작고 둥근 증기 덩어리 몇 개를 빼면 하늘엔 밤이고 낮이고 구름 한 점 없었다. 나는 코르디예라 산맥이 지평선 너머로 숨어 있어 잘 보이지 않을 때 이 작은 구름들을 보면서 산맥의 위치를 가늠하곤 했다.

4월 6일 | 아침에 어떤 도둑이 우리 노새 몇 마리와 마드리나의 방울을 훔쳐 간 것을 알아차렸다. 그래서 계곡 아래로 3~5킬로미터 내려와 다음 날까지 묵었다. 노새지기 말로는 노새들을 계곡 어딘가 숨겨 놓았을지도 모른다고 하기에 혹시나 찾을까 싶어서였다. 이 부근의 경치에서는 칠레의 특징이 드러난다. 산맥 아래쪽은 연한 초록빛 상록수인 퀼라야나무와 커다란 샹들리에 모양의 선인장들이 점점이 나 있어 아무것도 없는 동쪽 계곡들보다는 분명 볼 것이 많았다. 하지만 몇몇 여행자들의 찬사에는 여전히 동감할 수 없다. 내 생각에 가장 큰 즐거움은 전적으로 위쪽의 추운 지역에서 벗어나 불을 피운 뒤 멋진 저녁 식사를 할 수 있다는 기대 때문이 아닐까 싶다. 물론 나도 그런 즐거움을 마음껏 누렸지만 말이다.

4월 8일 | 우리가 따라 내려온 아콩카과 계곡을 떠나 저녁 무렵 비야델산타로사Villa del St. Rosa 부근의 작은 집에 도착했다. 평원은 몹시 비옥했다. 때는 가을이어서 수많은 과일수 잎들이 떨어지고 있었고, 인부들은 초가지붕 위에 무화과며 복숭아를 말리거나 포도밭에서 포도를 거둬들이느라 바빴다. 아름다운 장면이긴 했지만 나는 영국의 가을이 진정한 1년의 황혼이라고 느끼게 해주던, 그 우수에 젖은 고요함이 그리웠다. 4월 10일, 우리는 칼드클뢰 씨의 환대를 받으며 산티아고에 도착했다. 겨우 24일간의 여정이었지만, 이보다 더 기쁜 적은 없었다. 며칠 후 나는 발파라이소에 있는 코필드 씨 집으로 돌아갔다.

● 1835년 3월, 비글호는 칠레의 발파라이소에 정박하고, 다윈은 코르디예라 산맥을 횡단하러 출발했다. 멘도사로 향하는 두 가지 길 중 포르티요 고개를 택한 일행은 칠레의 수도인 산티아고를 출발해 마이푸 강에 이른다. 비옥한 칠레의 농지와 과수원도 보기 좋았지만, 유럽에서의—그리고 식민지에서는 아마도 더 과격했을—엄격한 계급제도에 익숙해져 있던 다윈에게는 지나가던 원주민에게도 자신의 실례에 대해 사과하는 칠레 사람들의 타고난 예의 바름에 감탄한다.

다윈은 안내인 한 명과 노새지기, 열 마리의 노새 그리고 마드리나(노새를 인도하는 암말)와 동행한다. 이제 다윈에게 야영 생활은 고생이 아니라 자족적이고 즐거운 여정이었다. 코르디예라의 비옥한 계곡과 그 계곡을 흐르는 산간 급류를 유유히 지나면서 다윈은 잠시 시간과 영원에 대한 생각에 잠긴다. 인간의 인식으로는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작용을 떠올리며 다윈은 거부감 비슷한 경외심을 느끼면서도 자신도 모르게 과거의 모든 세월 동안 펼쳐졌을 풍경을 머릿속으로 그리며 전율한다. 점점 높은 곳으로 올라가면서 식물과 동물들은 줄어들고, 대신 험준하고 웅장하면서도 그때까지 보던 안데스 산맥 모습과는 대조적인 모습이 펼쳐진다.

코르디예라 산맥의 대표적인 능선으로는 페우케네스 능선과 포르티요 능선이 있는데, 다윈은 이 능선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 지금의 어마어마한 모습이 되었는지 놓치지 않고 설명한다. 일행은 페우케네스 능선을 넘어 멘도사 공화국에 들어선다. '푸나'라고 부르는 고산병 때문에 고생하기도 했지만, 관찰에 온 신경을 빼앗긴 다윈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았다. 만년설이 쌓인 봉우리들과 강렬한 파란색의 하늘, 형형색색의 바위들이 빚어내는 풍경을 만끽하는 틈틈이 만년설 속의 미세 식물군이나 능선 위의 바람 등을 관찰하면서 포르티요 능선으로 향한다. 페우케네스만큼이나 고된 등반이었다. 투명한 대기 덕에 모든 광경이 한 평면에 들어와 멋진 파노라마를 연출하는가 하면, 워낙 건조하여 온갖 물건에서 정전기가 일어나곤 했다.

코르디예라의 동쪽 비탈로 하산하는 길에서 만난 대다수의 동식물은 파타고니아에서와 비슷했다. 이틀간 저지대의 습지와 건조한 평원을 지나 엄청난 메뚜기 떼까지 만나면서 멘도사에 도달해 룩산 강을 건넜다. 이 지역에서 다윈은 '벤추카'라는 빈대류 벌레에게 '공격'당했지만, 상처가 하나도 아프지 않다고 적었다. 뒷날 다윈이 브라질수면병으로 알려져 있는 '샤가스병'이라는 남아메리카 풍토병에 걸려 오랫동안 고생한 것을 볼 때, 분명 적어도 당시의 남아메리카 방문 때 전염되었을 가능성이 없지 않다.
비옥하고 살기 좋지만 어딘가 흐트러지고 희망이 없는 듯한 멘도사에서 며칠 머문 다윈은 칠레로 되돌아간다. 이번에는 우스파야타 고개를 넘어가는데, 다윈은 이 고개의 지질학적 근원을 볼 때 규화목을 볼 수 있으리라 예견했고, 놀랍게도 그것들을 발견하게 된다. 그리고 눈앞에 나타난 규화목에 담겨 있는 먼 옛날이야기들을 직관적으로 파악하면서 다윈은 주체할 수 없는 흥분과 경탄을 느낀다. 인간의 의식 수준으로는 거의 이해할 수조차 없을 정도로 거대한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것임을 또 한차례 실감한 것이다.
우스파야타 능선을 넘어 산티아고로 향하는 길은 사람들이 경고했던 것만큼 험난하지는 않았다. 다윈 일행은 코르디예라 지역에서 가장 건너기 힘들다는 라스바카스 강과 자연적으로 생겨난 다리라는 푸엔테델잉카스 다리를 지나, 일종의 대피소이자 저장고 역할을 하는 '카수차'가 있는 오호스델아구아까지 내달렸다. 산맥 위에 떠 있는 구름들을 따라 이제는 지평선 너머로 멀어진 코르디예라 산맥을 바라보곤 했다는 다윈의 고백을 보면 신세계의 다소 외계적이기까지 한 광경들이 그에게 얼마나 인상적이었을지 공감할 수 있다.
산티아고로 돌아온 다윈은 풍요로운 칠레의 가을 풍경을 아름답다 여기면서도 어쩐지 고향 영국의 가을을 그리워하는 자신을 느낀다. 코르디예라에서의 엄청난 경험과는 별개로, 집 떠난 탐험가들에게도 여행은 역시 여행인 것이다.



칠레 북부 지방과 페루

제16장

칠레 북부 지방과 페루

코킴보로 가는 해안 도로—굉장히 무거운 짐을 나르는 광부들—코킴보—지진—계단 모양의 단구段丘—현생종이 발견되는 지층이 없다—제3기 지층과 동시대에 속하는 지층이 여러 지역에서 발견되다—골짜기 상류로 답사를 가다—구아스코로 가는 길—사막—코피아포 계곡—지진과 비의 관계—공수병—데스포블라도 계곡—인디오 유적—기후의 변화에 대한 가설—지진으로 인해 강바닥의 모양이 아치형으로 바뀌다—차가운 강풍—언덕을 지날 때 나는 소리—이키케 마을—염류 충적층—질산소다—리마—건강에 해로운 지역—지진으로 황폐해진 카야오 유적—최근 일어난 침강 작용—산로렌소 섬의 융기 작용으로 발견된 조개껍데기들이 풍화된 흔적—조개껍데기와 토기 조각이 묻혀 있는 평원—인디오의 유물

1835년 4월 27일 | 나는 코킴보[1]를 향해 출발했다. 코킴보에서 구아스코를 거쳐 코피아포까지 갈 예정이다. 피츠로이 함장의 배려로 코피아포에서 다시 비글호에 승선하기로 했다. 코피아포까지는 해안을 따라 북쪽으로 직선거리로 간다면 676킬로미터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나 내 방식대로 가다 보니 아주 긴 여행이 되었다. 여행을 위해 말 네 마리와 노새 두 마리를 샀다. 노새는 하루걸러 번갈아 짐을 싣기 위해 필요했다. 말과 노새를 합해 여섯 마리를 겨우 25파운드에 샀는데, 코피아포에 도착해서 23파운드에 다시 팔았다. 우리는 언제나 그래 왔듯이 밥을 직접 해 먹고 한뎃잠을 자며 여행했다. 비뇨델마르를 향해 떠날 때, 발파라이소의 풍경에 작별을 고하며 마지막으로 바라보았다. 지질학적 탐사를 할 목적으로 키요타의 벨 산기슭으로 가는 높은 길에서 우회했다. 금이 풍부한 충적토 지역을 지나 리마체[2] 지방으로 가서 밤을 지냈다. 개

1 칠레 북부에 있는 주. 동쪽으로 아르헨티나와 경계를 이루며, 서쪽으로 태평양에 접해 있다–역주.

2 칠레 중부에 있는 발파라이소 주 중부의 도시. 아콘가과 강 연안에 있다–역주.

울가마다 여기저기 오두막집이 많이 흩어져 있다. 이곳에 사는 주민들은 사금을 채취해서 생활하는데, 수입이 변덕스러우면 으레 그렇듯이 씀씀이가 사치스러워서 가난하게 살고 있다.

4월 28일 | 오후에 벨 산기슭에 있는 작은 집에 도착했다. 이곳 주민들은 자유토지를 소유하고 있는데, 칠레에서 그렇게 보편적인 형태는 아니다. 자기 소유의 작은 논밭에서 자급자족하고는 있지만, 무척 가난한 살림살이다. 이곳에서는 돈이 너무 부족해서 다음 해에 필요한 물건을 사기 위해 아직 익지도 않은 밀을 수확해 팔 수밖에 없다. 사정이 이러니 농산물을 구매해 간 사람들이 사는 발파라이소보다 생산지인 이곳에서 밀이 더 귀하다. 다음 날 코킴보로 가는 주요 도로로 들어섰다. 밤이 되자 비가 조금 내렸다. 9월 11일과 12일 카우케네스 온천에서 우리 발을 묶어 놓았던 호우 이후 우리가 처음으로 만나는 비다. 이 지역에서는 일곱 달 반 만에 내리는 비라고 하는데, 칠레에선 비교적 늦게 내린 것이다. 멀리 보이는 안데스 산맥은 두꺼운 눈으로 덮여 있어 장관이다.

5월 2일 | 바다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해안을 따라 길이 계속 이어져 있다. 칠레 중부 지역에 흔히 발견되는 몇 종의 나무와 관목이 이곳 북부 지역에서는 수적으로 급속히 감소하고, 유카속屬[3]으로 보이는 키 큰 초목이 자라고 있다. 지표면은 조금 울퉁불퉁하며, 좁은 평지나 분지에서 조그만 바위산이 가파르게 솟아 있다. 톱니 모양처럼 들쭉날쭉한 해안과 파도가 부서지는 바다의 밑바닥이 오랜 세월을 거쳐 마른 땅이 된다면 이런 지형이 형성될 것으로 짐작된다. 이러한 변화는 지금까지 우리가 지나온 지역을 따라 일어나고 있다.

5월 3일 | 킬리마리에서 콘찰레로 향했다. 갈수록 땅이 점점 더 황폐해진다. 계곡에서 물을 끌어다 농사짓기에는 물이 부족하다. 계곡 사이에는 염소를 먹일 풀도 찾기 어려울 만큼 메말라 있다. 겨울에 소나기가 내린 뒤 봄이 오면 목초가 조금씩 자라 있다. 이때 코르디예라 산맥에서 소 떼를 몰고 내려와 잠

3　용설란과에 속하며 40여 종의 다육식물로 이루어진 속—역주.

깐이나마 풀을 먹인다. 목초의 종자나 다른 식물들이 이곳 해안의 여러 지역에 따라 일정치 않은 호우량에 나름대로 적응되어 살아남는 것이 신기할 정도다. 멀리 북쪽 코피아포에 한 번 내린 소나기는 구아스코에서는 두 번, 이 지역에는 서너 번 내린 비와 맞먹는 영향을 식물 성장에 미친다. 발파라이소에서 목초가 말라 죽었을 만큼 건조한 겨울 날씨에도, 구아스코의 목초는 아주 잘 자란다. 강수량이 북쪽으로 갈수록 위도에 정확히 반비례하게 줄어들지는 않는다. 발파라이소에서 북쪽으로 겨우 108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콘찰레는 보통 5월 말까지 비가 오지 않는다. 그런데 발파라이소에서는 4월 초에 비가 꽤 내린다. 비가 늦게 내리는 지역은 연간 강수량 역시 그만큼 적다.

5월 4일 | 해안을 따라 이어지던 길에서는 이제 더 이상 흥미로울 것이 없어 보인다. 우리는 내륙으로 방향을 돌려 광산 지역과 이야펠[4] 계곡을 향해 나아갔다. 이야펠 계곡은 칠레의 계곡이 모두 그렇듯 폭이 넓고 평평하며 아주 비옥하다. 계곡 양쪽은 자갈로 층리가 형성된 절벽이거나 아니면 험난한 바위산으로 둘러 있다. 위쪽으로 관개용 수로가 곧게 뻗어 있다. 그 위쪽으로 나 있는 길은 갈색으로 덮여 있다. 아래쪽은 밝은 토끼풀의 일종인 알팔파[5]로 덮여 있어 담청색으로 보일 정도로 밝은 초록빛 천지다. 우리는 다른 광산 지방인 로스오르노스로 향했다. 이곳에서 제일 큰 산이 개미집처럼 여기저기 굴이 파헤쳐져 있다. 칠레의 광부들은 아주 독특한 습성을 갖고 있다. 극도로 고립된 갱에서 몇 주일 동안 함께 일한다. 그러다 축제 때 마을로 내려가면 못 말릴 정도로 흥청망청 산다. 가끔 큰돈을 벌기도 하는데, 이때는 포획 상금을 거머쥔 선원들처럼 돈을 물 쓰듯 써버린다. 고주망태로 퍼마시고 옷을 몽땅 사고는 며칠 만에 무일푼 신세가 되어 다시 비참한 갱으로 들어가 짐승처럼 일한다. 광부들의 이러한 생활 방식은 선원들처럼 계획성 없이 되는대로 살기 때문이다. 이들에겐 어쨌든 매일 침식이 제공되므로 신경 쓸 것이 없다. 또 주위

4 칠레 중부, 코킴보 주 남부의 도시. 라세레나 남쪽 190킬로미터에 있다-역주.

5 자주개자리라고도 한다. 콩과에 속하며 토끼풀처럼 생긴 다년생식물-역주.

에는 유혹이 도사리고 있고, 이들에겐 유혹에 넘어갈 수 있는 돈이 수중에 있는 것이다. 이와 달리 콘월을 비롯한 영국 일부 지역에서는 광맥의 일부분을 매각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곳 광부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생각하고 행동하는 까닭에 아주 똑똑하고 품행도 반듯하다.

칠레 광부들의 옷차림은 독창적인데 아주 재미있다. 어두운 색의 올이 거친 나사 천으로 만든 아주 긴 윗도리를 입는다. 그 위에 가죽 앞치마를 두른 다음 밝은 색의 허리띠를 맨다. 통이 넓은 바지를 입고, 진홍색 천으로 만든 작은 모자를 머리에 꼭 맞게 쓴다. 이렇게 차려입고 동료 광부들의 시체를 묻으러 가는 광부들과 마주친 적이 있다. 네 사람이 시체를 들고 아주 빠른 속도로 줄지어 지나갔다. 있는 힘을 다해 2백 미터 정도 가자 말을 타고 앞서 가 있던 다른 네 명이 교대했다. 이런 방식으로 계속 나아가면서 큰 소리로 서로의 기운을 북돋아 주었다. 이 모든 풍경이 아주 낯선 장례 행렬을 만들어 내고 있다.

계속해서 북쪽을 향해 갈지자로 올라갔다. 도중에 지질 조사를 위해 가끔 하루씩 머물기도 했다. 이 지역은 인적이 드물고 길이 뚜렷하지 않아 길을 찾느라 가끔 애를 먹기도 했다. 12일, 광산 지방에 머물렀다. 이곳의 광석은 특별히 질 좋은 것은 아니지만, 워낙 매장량이 풍부해서 대략 3만~4만 달러(즉 6천에서 8천 파운드)는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영국 회사가 금 1온스 가격(31.8실링)에 매입했다. 광석은 노란 황철광으로,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영국인이 들어오기 전에는 구리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했다. 또 미세한 구리 입자가 많이 박혀 있는 석탄재 찌꺼기도 엄청난 이익을 보고 구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 채광 회사는 알려진 바와 같이 막대한 손해를 보고 말았다. 떼로 몰려온 정부 관리들과 주주들이 정신 나간 짓들을 저질렀던 것이다. 칠레 관리들의 접대비로 매년 1천 파운드씩 지불하고, 지질학 서적 장정본으로 도서관을 채우며, 칠레에서는 발견된 적이 없는 주석 등의 금속을 찾기 위해 광부들의 노동력을 낭비했다. 또 암소도 없는 지방에서 광부들에게 우유를 공급하겠다는 계약을 하고, 필요도 없는 기계들을 사들이는 등 숱한 어리석은 짓들을

했다. 지금까지도 이곳 주민들의 웃음거리가 되어 있다. 이곳 광산에 똑같은 자본이 투자되어 잘 운영되었다면 거대한 이익을 낳았을 것이 틀림없다. 믿을 만한 사업가, 노련한 광부와 시금試金 기술자만 있었더라면!

헤드 대장은 광부들이 깊은 갱도에서 끌어올리는 광석의 무게는 상상을 초월해서, 광부들은 거의 짐을 나르는 짐승에 가깝다고 했다. 이 말을 들을 때는 과장이라고 생각했다. 내가 집은 광석 하나의 무게를 달아 볼 기회가 생겼는데 89킬로그램이었다. 이 광석을 들어 올리는 데 힘이 꽤 들었다. 광부는 이 광석을 수직으로 73미터 높이까지 들어 올렸다. 급경사가 진 곳도 있지만, 대부분은 갱로를 따라 나무 기둥이 지그재그로 놓여 있다. 이곳의 규칙에 따르면 광부는 깊이가 183미터인 곳에서는 멈추어 숨을 쉬는 것도 허락되지 않는다. 광석은 평균 무게가 91킬로그램 이상이다. 136킬로그램(22.5스톤)를 깊은 갱에서 들어 올린 적도 있다고 한다. 이곳의 광부들은 73미터 깊이의 광산에서 하루에 보통 열두 번씩 돌을 들어 올리므로, 하루에 1090킬로그램을 들어 올리는 것이다. 또 그 사이사이 광석을 계속 캐내야 한다.

광부들은 사고만 나지 않는다면 건강하고 활기차 보인다. 광부들의 몸은 근육질도 아니다. 일주일에 신선한 고기 한 번 먹기도 힘들다. 고기라곤 딱딱하고 마른 육포뿐이다. 모두 스스로 하고 싶어서 하는 노동이지만, 광산 입구에서 보면 아주 불쌍하다. 무거운 짐을 지고 있어 등은 굽고 팔은 늘어뜨리고 있다. 다리는 휘청거리고 근육이 떨린다. 얼굴에서 땀이 흘러 가슴까지 젖고, 숨이 차서 콧구멍이 벌름거리고 입은 일그러진다. 숨을 들이쉴 때마다 가슴속에서 날카로운 피리 소리 같은 신음이 짧게 난다. 짐을 지고 비틀거리며 와서 광석을 쌓아 놓은 곳에 짐을 쏟아 놓고 2, 3초 동안 숨을 몰아쉬며 이마의 땀을 닦고 나면 새로운 힘이 솟는 듯 재빨리 갱으로 달려간다. 정말 습관적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데, 인간이 견딜 수 있는 반복되는 노동의 양이 어디까지인지를 잘 보여 준다.

저녁때 이 광산의 현장 소장과 함께 전국에 흩어져 있는 외국인이 몇 명이나

될지 대화를 나눴다. 소장은 꽤 젊은 편인데 코킴보에서 학교를 다니던 어린 시절, 어느 휴일에 영국인을 본 적이 있다고 한다. 그 영국인은 총독과 대담을 하기 위해 이곳으로 안내를 받아 온 선장이었다고 한다. 당시 모든 사람들이 영국인과 접촉해서는 안 된다고 믿었다. 이런 외국인과 접촉하면 이교, 타락, 죄악의 길로 들어선다는 논리가 원주민들의 가슴속에 새겨져 있었던 것이다. 지금까지도 해적들이 저지른 흉악한 행동이 원주민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다. 한번은 어떤 해적이 성모 마리아 그림을 빼앗아 갔다가 성모 마리아에게 남편이 없어 불쌍하다면서 다음 해에 성 요셉 그림을 가지러 왔다고 한다. 코킴보에서 저녁을 먹을 때, 한 원주민 할머니는 자신이 영국인과 한 방에서 식사를 하다니 이 얼마나 이상한 일인가 라고 했다. 이 할머니는 어렸을 때, 두 번씩이나 영국인이라는 말만 듣고 귀중품을 싸들고 산속으로 도망갔다고 한다.

5월 14일 | 코킴보에 도착해서 며칠 동안 묵었다. 이 마을은 별 특징이 없고 무척 조용했다. 주민이 6천 명에서 8천 명이라고 한다. 17일 아침이 되자, 가는 비가 약 다섯 시간 동안 내렸다. 이 비는 올해 처음 내린 것이다. 대륙보다 습도가 높은 해안 가까운 곳에 밀을 심은 농부들은 이번에 내린 비를 이용해 땅을 갈았을 것이다. 두 번째 비가 내리면 씨를 뿌리고, 그다음 비가 내리면 봄에 수확을 잘할 수 있을 것이다. 적은 양의 비가 큰 효과를 내고 있다. 열두 시간이 지나자 땅이 말랐다. 열흘 후에는 낮은 산 쪽에 엷게나마 초록빛이 보이기 시작했다. 빈약하게 흩어져 있던 풀도 2.5센티미터나 쑥 자라 있다. 비가 내리기 전에는 땅 위에 아무것도 자라 있지 않아 모든 곳이 길처럼 보였다.

저녁때 피츠로이 함장과 나는 이곳에 체류하고 있는 영국인 에드워드 씨와 함께 식사를 했다. 에드워드 씨는 코킴보를 방문하는 사람들을 친절하게 대접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저녁을 먹을 때 강한 지진이 발생했다. 나는 땅이 울리는 소리가 가까워지는 것을 들었다. 여자들이 질러 대는 비명과 하인들의 어수선한 발걸음 소리, 남자 몇이 현관 쪽으로 뛰어가는 소리 때문에 땅이 흔들리는

것을 감지하지는 못했다. 나중에 여자들 몇 명은 무서워서 울음을 터뜨렸다. 어떤 남자가 밤새 잠을 못 잘 것 같다며, 만약 잠이 들면 집이 무너지는 꿈만 꿀 것 같다고 했다. 그의 아버지는 최근 탈카우아노Talcahuano[6]에서 전 재산을 잃어버렸다고 한다. 이 남자는 1822년 발파라이소에서 지붕이 무너질 때 간신히 살아 나왔다. 그가 발파라이소에서 일어났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우연의 일치인지 신기한 일이 있었다고 한다. 그때 남자는 카드놀이를 하고 있었단다. 함께 카드를 하던 독일 사람이 일어나 코피아포에서 문을 닫고 있다가 죽을 뻔했다며 이 나라에서는 문을 닫아놓고는 불안해서 못 앉아 있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그러고는 독일인이 문을 여는 순간, "지진이다!"라고 소리쳤는데, 바로 그 유명한 지진이 시작된 것이었다. 거기 있던 사람이 모두 도망 나와서 살아났다. 지진은 문을 열 시간이 없어서 위험한 것이 아니다. 지진이 일어날 때 벽이 움직이면서 문이 끼여서 열리지 않기 때문에 위험하다.

원주민과 현지 노인들 가운데에는 아주 자제력이 강하다는 사람도 있지만, 지진이 일어나는 동안 그들이 느끼는 공포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다. 이들이 이렇게 공포에 떠는 이유로는 공포가 부끄러운 감정이 아니기 때문에 자제하는 습관이 없기 때문이다. 사실 원주민들은 지진에 너무 둔해서 놀라지도 않는 사람을 싫어한다. 예전에 지진이 일어났을 때, 영국인 두 명이 밖에서 잠을 자다가 그렇게 위험한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는 그대로 누워 있었다고 한다. 당시 원주민들이 "저 이단자들을 봐라! 지진이 일어나도 꿈쩍도 않는다!"며 화가 나서 소리쳤다고 한다.

나는 며칠 동안 자갈로 형성된 계단형 단구를 조사했다. 이곳은 B. 홀 함장이 처음 발견했다. 라이엘 씨에 따르면, 지표면이 점점 융기하는 동안 바다의 작용으로 생긴 지형이라고 한다. 이곳의 단구에서 많은 현생종의 조개껍데기들이 발견된 것으로 보아 라이엘 씨의 추측은 신빙성이 있다. 좁고 완만한 단구 다섯 단이 술 장식처럼 층층이 솟아 있는데, 가장 잘 발달된 곳에서 자갈층이

6 칠레 중남부에 있는 비오비오 주 콘셉시온 군의 도시-역주.

이루어져 있다. 이 계단형 단구를 입구로 해서 계곡 양쪽으로 만이 형성되어 있다. 코킴보의 북쪽인 구아스코에 이르면 이곳 사람들도 놀랄 정도로 단구의 규모가 커져 평원이라 할 만큼 넓다. 단구가 여섯 단이 형성된 곳도 있지만, 다섯 단이 흔하다. 단구는 해안에서 60킬로미터나 멀리 떨어진 계곡까지 이어진다. 이곳의 단구는 산타크루스 계곡의 단구와 아주 비슷하다. 또 크기가 작은 점만 제외하면 파타고니아 해안 전체에 형성된 거대한 단구와 비슷하다. 대륙이 서서히 융기하는 긴 시간 동안 바다의 영향으로 조금씩 깎이면서 형성되었을 것이다.

높이가 약 76미터인 코킴보의 단구 표면에서 발견된 현생종의 많은 조개껍데기들은 두께가 6미터에서 9미터에 이르는 부슬부슬한 석회질 암석에서도 발견되는데, 양은 많지 않다. 최근에 형성된 이 지층은, 멸종한 조개껍데기 화석이 나오는 오래된 제3기 지층 위에 발달해 있다. 남아메리카 대륙의 태평양 쪽 해안과 대서양 쪽 해안을 수백 킬로미터에 걸쳐 조사했지만, 이곳과 북쪽 구아스코로 가는 길 위의 몇 군데를 제외하고는, 현생종의 조개껍데기가 발견되는 지층을 본 적이 없다. 이는 아주 특이한 사실이다. 왜냐하면 지질학자들은 보통 일정한 지역에서 특정 시기의 화석이 포함된 지층이 없을 경우, 당시의 지면이 육지였을 것이라고 설명한다. 그런데 이 설명이 이곳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곳 단구 표면 위에 흩어져 있는 모래 속에 묻힌 조개껍데기를 보면, 수천 킬로미터의 양쪽 해안이 최근에 물 속에 잠겼다는 사실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대륙 남쪽이 오랜 기간 동안 서서히 융기해 왔고, 해안을 따라 얕은 물에 퇴적되어 있는 물질이 지면과 함께 융기하면서 서서히 드러나 해변의 침식작용을 받았을 것이라는 추측이 나온다. 바다 생물이 살기 위해서는 비교적 깊이가 얕은 곳이어야 하는데, 이렇게 얕은 곳에는 퇴적층이 두껍게 쌓일 수 없는 것이다. 현재 파타고니아 해안의 거대한 절벽을 보거나, 해안을 따라 서로 다른 높이로 형성된 오래된 해안 절벽을 보면, 해변의 침식작용이 얼마나 강력한지 알 수 있다.

코킴보에서 발견되는 제3기 지층은 칠레 해안의 몇몇 지층(나베다드의 지층이 중요하다), 파타고니아의 거대한 지층과 같은 시대로 짐작된다. 나베다드와 파타고니아 두 지역에서는 E. 포브스 교수[7]가 만든 조개 산출표에서 보듯 화석으로 발견되는 조개들이 생존한 시기가 끝난 후 1백 미터 넘게 침강했다가 융기했을 것이다. 태평양 해안에서 남쪽으로 1770킬로미터 떨어져 있고, 대서양 해안에서는 최소한 2170킬로미터 떨어져 있으며, 대륙의 동쪽과 서쪽 끝에서 1130킬로미터나 떨어져 있는 지역에서 제3기에도 화석이 있는 퇴적물들이 발견되는 것이 가능할까. 화석이 포함된 광대한 현세의 지층 또는 제3기 이후 중간 시대의 지층이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음에도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을까. 충분히 그럴 수 있다. 세계 어느 지역에서나 비슷한 현상이 발견되고 있다. 퇴적층이 융기되면서 바다의 엄청난 침식력에 의해 오랜 기간 동안 퇴적층이 해안의 침식을 견디고 남아 있으려면 넓은 지역에 아주 두껍게 퇴적층이 형성되어 있어야 한다. 이러한 현상은 이곳에서 1천6백 킬로미터나 떨어져 있는 남부 파타고니아와 칠레에서 거의 같은 시기에 일어났던 것으로 보인다. 비슷한 시기에 남아메리카의 넓은 지역에서 침강 작용이 일어났다고 가정해 보자. 대양의 산호초 조사에서 그 결과를 짐작할 수 있다. 페루, 칠레, 티에라델푸에고, 파타고니아, 라플라타 지역에서 융기 작용이 일어난 바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침강 작용이 넓은 지역에 걸쳐 현생종의 조개가 살았던 시기에 발생했다면,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도 화석이 포함된 지층이 넓고 두껍게 발달하기 쉬웠을 것이다. 또한 이렇게 형성된 지층은 해안의 침식작용에도 잘 견뎌내고 앞으로도 계속 남아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5월 21일 | 나는 돈 호세 에드워즈와 함께 아르케로스 은광을 향해 출발했다. 그곳에서 코킴보 계곡으로 올라갈 작정이다. 산악지대를 가로질러 해 질 녘에 에드워즈 씨 소유의 광산에 도착했다. 이곳에서는 벼룩이 없어서 잠을 편하게 잤다. 영국에 있는 사람은 벼룩이 없다는 것에 감사해야 하리라! 코킴보의 숙

7 에드워드 포브스Edward Forbes, 1815~1854. 영국의 박물학자, 생리지리학 분야의 개척자—역주.

소에는 벼룩이 많았으나, 높이가 1킬로미터 올라온 이곳에서는 벼룩이 살 수 없었다. 여기에는 기온이 조금 낮은 것 외에도 다른 이유가 있는 것 같다. 이 은광은 과거 1년에 910킬로그램의 은을 생산한 적도 있지만, 현재는 상황이 안 좋다. "구리 광산은 돈을 벌고, 은광은 돈을 벌 가능성이 있고, 금광은 반드시 망한다"고 들었다. 그런데 이 말과 달리 칠레에서 돈을 버는 광산은 모두 귀금속 광산이다. 얼마 전에는 영국인 내과 의사가 은광에서 지분 약 2만 4천 파운드를 받아 코피아포에서 영국으로 돌아갔다. 구리 광산은 조금만 조심하면 분명 돈을 번다. 반면에 다른 광산은 도박이거나 복권 사는 것과 비슷하다. 귀금속 광산에서는 많은 귀금속이 도난당한다. 아무리 철저한 준비를 해도 도난을 막을 수 없다. 광산 주인 두 사람이 내기를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한 광산 주인이 자신의 부하 직원이 바로 눈앞에서 도둑질한다는 데에 내기를 걸었다. 광부가 광석을 캐면 보통 조각을 내서 가치 없는 돌멩이는 한쪽으로 던져 버린다. 그런데 주인과 미리 짠 광부 두 사람이 우연히 일어난 것처럼 일을 벌인다. 깨진 조각 두 개를 던지면서, "어떤 조각이 더 멀리 굴러가나 봅시다"라고 농담하는 것처럼 외친다. 그러면 광산주가 이 장면을 보고 옆에 있는 친구와 담배 내기를 한다. 광부는 조각이 굴러간 곳을 보고 쓸모없는 돌멩이들 가운데에서 보석이 놓인 자리를 기억해 놓는다. 저녁에 광산주에게 보석 조각을 주워 와서 커다란 상급의 은광석이라는 것을 보여 주면서, "이것이 바로 멀리 굴러가서 주인님이 내기에 이겨서 담배를 따게 해 준 보석입니다"라고 말한다.

5월 23일 | 비옥한 코킴보 계곡을 지나 돈 호세 친척 소유의 농장으로 내려와 다음 날 묵게 되었다. 나는 석화된 조개껍데기와 콩이 무엇인지 보기 위해 멀리까지 하루 일정의 탐사를 갔다. 콩은 다름 아닌 작은 석영 자갈이었다. 작은 마을 몇 곳을 지나갔는데, 골짜기마다 잘 경작되어 있고 주변 경치도 멋있었다. 이 지역은 코르디예라 산맥에서 가까워 주위 산들이 꽤 높았다. 칠레 북부 지역을 볼 때, 안데스 산맥 근처 고지대의 과실수 수확량이 저지대보다 훨씬

많다. 이곳의 무화과와 포도는 품질이 좋기로 유명한데, 아주 넓은 지역에서 재배되고 있다. 이곳의 계곡은 키요타 북부 지역에서는 가장 비옥할 것이다. 코킴보를 포함하면 주민이 2만 5천 명은 족히 될 것으로 생각된다. 다음 날 농장으로 돌아와서 돈 호세와 함께 코킴보에 도착했다.

6월 2일 | 다른 곳보다 덜 황량해 보이는 해안 길을 따라 구아스코 계곡으로 출발했다. 첫날은 '예르바부에나'라고 불리는 외딴집까지 갔는데, 그곳에 말을 먹이는 목초 지대가 있었다. 구아스코로 갈 때까지 2주 전에 만났던 소나기가 내려서, 초반에는 엷은 초록빛이라도 볼 수 있었는데 그마저 곧 사라졌다. 이 지역에서 아무리 푸르다 하더라도 다른 지역의 봄에 싹이 트는 잔디나 꽃봉오리에는 비교도 안 되게 삭막하다. 이 황량한 사막을 지나가는 동안, 갇혀 있는 죄수처럼 우울해지면서 초록빛과 촉촉한 공기가 그리웠다.

6월 3일 | 예르바부에나에서 카리살까지 갔다. 오전에 산이 많고 바위투성이의 사막을 지났다. 그 후 깊은 모래밭이 길게 펼쳐진 평지로 들어섰다. 여기 모래밭에는 조개껍데기 조각들이 흩어져 있다. 물은 아주 적고 조금 짭짤했다. 해안에서 코르디예라 산맥에 이르는 모든 지역은 사람이 살지 않는 사막이다. 살아 있는 동물의 흔적이 많이 보였다. 바로 불리무스달팽이였는데 가장 건조한 곳에 엄청난 수가 모여 살고 있었다. 봄이 되어 작은 식물이 아주 조금이라도 잎을 내면 달팽이들이 먹는다. 달팽이들은 이슬을 맞아 땅이 조금 촉촉한 새벽에만 보인다. 구아스코에서는 달팽이가 이슬에서 생긴다고 믿는다. 지금까지 다른 지역에서도 보았듯이 아주 건조하고 메마른 석회질 토양이 달팽이에겐 최적의 조건이다. 카리살에선 농가를 몇 채 보았다. 소금기가 조금 있는 물과 경작지도 조금 보였는데, 말을 먹일 밀과 짚을 조금 사는 것도 힘들었다.

6월 4일 | 카리살에서 사우세로 갔다. 사막을 지나는데 과나코 떼들이 모여 있다. 구아스코와 코킴보 사이에서 가장 비옥하다는 차네랄 계곡을 지났다. 너무 좁고 목초도 없어 말에게 먹일 것이 없었다. 사우세에서 한 노인을 만났는

데, 구리 용광로에서 관리자로 일한다고 했다. 노인의 친절로 짚 한 다발을 비싼 값이지만 살 수 있었다. 덕분에 하루 종일 걸어온 말들을 먹일 수 있었다. 칠레에는 현재 용광로가 거의 가동을 하지 않고 있다, 이곳은 연료가 너무 부족한 데다 칠레에서는 광석을 처리하는 기술이 서툴러 스완시[8]로 광석을 배에 실어 보내는데, 칠레에서 처리하는 것보다 더 이익이 남는다. 다음 날, 산을 몇 개 넘어 구아스코 계곡을 품고 있는 프레이리나까지 갔다. 북쪽으로 올라갈수록 식물상이 점점 빈약해진다. 커다란 선인장은 이제 보이지 않고, 다른 종의 아주 작은 선인장만 나 있다. 북부 칠레와 페루에서는 겨울 동안 태평양 쪽으로 높지 않은 하늘에 항상 구름이 떠 있다. 산 위에서 보니 하얗게 빛나는 구름의 경치가 무척 아름다웠다. 초노스 제도와 티에라델푸에고에 바닷물이 들어와 섬이나 갑岬을 만들어 놓듯이, 이곳에서는 구름이 섬이나 갑의 모양으로 떠 있었다.

프레이리나에서 이틀을 머물렀다. 구아스코 계곡에는 작은 마을이 네 곳 있다. 마을 입구 주위는 포구로 보이는데 메마른 사막으로 이루어져 있고, 물을 접하고 있지 않다. 이 포구에서 24킬로미터 정도 올라가면 프레이리나가 있다. 회벽을 칠한 괜찮은 집들이 여기저기 쭉 늘어서 있다. 여기에서 48킬로미터를 더 가면 바예나르가 있다. 그 위에 구아스코 알토라는 마을이 있는데, 이곳은 말린 과일로 유명하다. 맑은 날 계곡을 올려다본 풍경은 아주 아름답다. 곧게 뚫린 계곡은 멀리 보이는 눈 덮인 코르디예라 산맥까지 이어진다. 양쪽으로 수많은 계곡이 가로지르며 흐르는데, 멋진 안개와 어우러져 보인다. 앞쪽으로 평평한 계단 모양의 단구가 있어 특이한 풍경이다. 계곡 주위에 버드나무 숲이 울창한데, 양쪽의 메마른 산들과 대조를 이루고 있다. 지난 13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은 것을 보면 이 지역이 얼마나 메말라 있는지 알 수 있다. 이곳 주민들은 코킴보에 내린 비를 무척 부러워하며 비가 내리길 빌었는데, 2주 후에 소원이 이루어졌다. 내가 코피아포에 있을 때인데, 그곳 주민들

8 영국 웨일스 웨스트글러모건 주의 시와 행정구—역주.

도 구아스코에 비가 충분히 내린 것을 이야기하며 부러워했다. 2, 3년 동안 비가 겨우 한 번 와서 잔뜩 메말라 있다가 다음 해에 비가 오면 가뭄보다 더 큰 비 피해를 입는다. 강물이 갑자기 불어서 경작할 수 있는 땅을 자갈과 모래로 덮어 버릴 뿐 아니라, 물을 끌어오는 관개 수로도 망쳐 놓는다. 3년 전에 이렇게 해서 이 지역이 큰 피해를 보았다.

6월 8일 | 바예나르까지 갔다. 바예나르는 아일랜드의 발레나에서 그 이름이 유래했다. 이 지역은 스페인 정부하에서 칠레의 대통령과 장군들을 배출한 오히긴스 가문의 출생지이다. 구름에 덮인 바위산으로 둘러싸이고, 평지들이 계단처럼 넓게 형성되어 있어 파타고니아 지방의 산타크루스 계곡과 비슷한 풍경이다. 바예나르에서 하루를 보내고, 10일에 코피아포 계곡 상류를 향해 출발했다. 하루 종일 가도 지루한 지역이다. 메마르고 황량한 지역이 계속되었다. 황량하고 메마른 것으로 치면 파타고니아 평원이 대표적이다. 그래도 파타고니아 평원에서는 가시덤불과 풀덤불이라도 있어서 이곳 북부 칠레에 비하면 훨씬 비옥한 편이었다. 이 지역에서도 2백 제곱미터 넓게 자세히 조사해 보면, 덤불이나 선인장, 이끼 등을 찾을 수도 있을 것이다. 비가 오면 싹 틔울 준비를 하며 겨우내 흙 속에서 잠을 자고 있다. 페루에는 사막이 아주 넓게 분포되어 있다. 저녁에 어느 골짜기에 이르렀는데, 바닥이 촉촉했다. 골짜기를 따라 올라가자 물이 꽤 있는 곳에 닿았다. 밤이면 시냇물이 빨리 증발되거나 흡수되지 않기 때문에 낮보다 5킬로미터가량 더 아래쪽까지 흘러간다. 땔감으로 쓸 나뭇가지가 많아 우리가 야영하기에는 좋은 장소였지만, 가엾은 말에게는 먹일 것이 없었다.

6월 11일 | 열두 시간을 쉬지 않고 나아가 오래된 용광로가 있는 곳에 닿았다. 이곳도 물과 땔감은 있는데, 말에게 먹일 것이 없어 마당 한편에 묶어 놓았다. 나지막한 산 사이나 산 위로 길이 나 있다. 흥미롭게도 메마른 산들이 여러 빛깔을 띠고 있다. 이렇게 황량한 땅에도 태양은 계속 내리쬐고 있다니…… 이렇게 강렬한 태양은 푸른 평야와 나무가 있는 정원을 비추어 주어야 보다 값

질 텐데……. 다음 날, 코피아포 계곡에 도착했다. 그동안 말을 먹이지 못해 내내 걱정했는데 너무 기뻤다. 우리가 저녁을 먹는 동안 말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줄을 매 놓은 기둥을 갉기까지 했다. 정말 거슬리는 소리였다. 그런데 이 말들은 겉으로 보기에 멀쩡해서 55시간을 굶주린 것으로 보이지는 않았다.
우리는 빙글리 씨에게 쓴 소개장을 갖고 있었다. 빙글리 씨는 포트레로 세코 농장에서 친절을 베풀어 주었다. 이 농장은 길이가 32킬로미터에서 48킬로미터이다. 폭은 넓은 밭 두 개 정도로 아주 좁고 양쪽으로 강이 나 있다. 폭이 너무 좁은 곳이나 주변에 바위투성이 사막이 접한 땅은 관개할 수가 없다. 계곡 전체를 보면 경작지가 아주 좁은데, 지면의 높낮이가 달라 관개하기 어렵다기보다는 물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올해는 강물이 많이 불어, 계곡 상류에서도 강물의 높이가 말의 배까지 이른다. 강의 폭은 약 14미터이고 물살도 빠르다. 하류로 갈수록 물이 줄어들어, 30년 만에 한 번씩 그러듯, 강이 사라져 버리고, 바다로 흘러들어 갈 물은 한 방울도 없다. 이 지역 주민들은 코르디예라 산맥에 내리는 폭설에 관심이 많다. 이 산맥에 눈이 많이 오면 다음 해에 강수량이 많아지기 때문이다. 폭설은 낮은 지대에 내리는 비보다 훨씬 더 영향이 크다. 비는 2, 3년에 한 번씩 내리지만, 소와 노새들은 비가 내린 후 산에서 목초를 조금이라도 뜯어 먹을 수 있어서 큰 도움이 된다. 그러나 안데스 산맥에 눈이 오지 않으면 이곳 계곡까지 메말라 버린다. 가뭄이 들어 거의 모든 주민들이 남쪽으로 세 번씩이나 이동했다는 기록이 있다. 올해는 물이 많아 모든 사람이 원하는 만큼 물을 끌어다 쓸 수 있다. 다른 해에는 각 농장이 매주 할당된 시간만 물을 끌어다 쓰는지 감시하기 위해 수문에 군인을 배치하는 일도 잦았다. 이 계곡에는 1만 2천 명이 살고 있는데, 이곳의 물로는 3개월밖에 살 수 없어 발파라이소와 남쪽에서 물을 끌어와야 한다. 몰락해 가던 코피아포는 유명한 차눈시요 은광이 발견되면서 활기를 띠게 되었다. 지진으로 황폐해진 도시가 다시 일어서 번성기를 누리고 있다.
코피아포 계곡은 사막 지역에 녹색 띠를 이루며 정남쪽으로 흐르고 있다. 계

곡이 시작되는 코르디예라 산맥으로부터 상당히 길게 이어져 있다. 구아스코 계곡과 코피아포 계곡은 칠레 내의 다른 지역과 분리되어 있는 좁고 기다란 섬과 같은데, 바닷물이 바위투성이 사막을 사이에 두고 있다. 북쪽에는 파포소라는 메마른 계곡이 또 있다. 이곳에는 대략 2백 명이 살고 있으며 아타카마 사막[9]으로 이어진다. 이 사막은 거친 풍랑이 이는 바다보다도 더 큰 장애물이 되어 가로막고 있다. 며칠 동안 포트레로세코에 머문 다음 파포소 계곡을 올라가서 돈 베니토 크루스의 집에 소개장을 들고 찾아갔다. 내가 보기에 아주 친절한 사람이었다. 사실 남아메리카의 전 지역에서 오는 여행자들이 모두 친절한 대접을 받았는지를 확실히 증명할 길은 없긴 하다. 다음 날 중부 코르디예라 산맥으로 들어가는 홀케라 협곡까지 타고 갈 노새 몇 마리를 빌렸다. 이튿날 밤 폭설이나 폭우가 내릴 것처럼 찌푸린 날씨였다. 자려고 누워 있는 동안 지진이 약하게 왔다.

지진과 날씨 사이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들을 수 있다. 나는 이해가 잘 안 되지만 아주 흥미로웠다. 훔볼트의 《신변잡기》를 보면,[10] 뉴안달루시아나 페루 남쪽 지방에서 오래 산 사람들은 지진과 날씨 사이에 관계가 있다는 것을 부인하지 않는다. 그러나 다른 지역의 사람들은 지진과 날씨를 관련지어 말하는 것을 꾸며낸 이야기라고 생각한다. 과야킬에서는 건조한 시기에 소나기가 온 뒤, 반드시 지진이 뒤따라온다고 한다. 칠레 북부에서는 비가 거의 오지 않기 때문에 이런 현상을 발견할 확률이 아주 적다. 그럼에도 이곳 주민들은 대기 상태와 지진 사이에 관계가 있다고 믿는다. 코피아포 주민들에게 코킴보에서 큰 지진이 발생했다고 얘기했다가, 그들이 "다행이야! 올해는 목초가 잘 자라겠군"이라고 소리치며 좋아하는 것을 보고 내심 놀랐다. 코피아포

9 칠레 북부의 서늘한 건조 지대-역주.

10 4권 11쪽과 2권 217쪽. 과야킬에 관한 내용은 실리만의 《학술지》 24권 384쪽 참조. 해밀턴 씨가 타크나에 대해 언급한 내용은 1840년 《영국 학술협회 회보》 참조. 칼드클뢰 씨의 코세기나에 관해서는 1835년 《런던 왕립학회지》 참조. 기압이 내려가는 현상과 지진의 일치와 같은, 지진과 기상 사이의 일치에 관한 참고 문헌들을 모아 놓았다.

주민들에게는 비가 오면 목초가 잘 자라듯이, 지진이 나면 비가 내린다고 믿는 것이다. 실제로 지진이 발생한 바로 그날 소나기가 내렸다. 앞서 언급했듯이, 열흘 만에 풀이 여기저기 자라났다. 그 외에도 지진이 발생한 뒤에 비가 왔는데, 이는 지진 그 자체보다 더 신기한 현상이었다. 이런 현상은 1822년 11월과 1829년에 발파라이소에서, 또 1833년 9월 타크나[11]의 지진 후에도 발생했다. 이 지역의 기후를 아는 사람은 어떤 때는 비가 오지 않는다는 것도 알고 있다. 보통의 날씨 법칙에서 예외적인 일이다. 코세기나 폭발과 같은 거대한 화산 폭발에서는 의외의 계절에 '중앙아메리카에서는 전례 없는' 엄청난 폭우가 내렸다. 이때 발생한 엄청난 양의 수증기와 화산재 구름이 대기권의 평형을 깰 수도 있었으리라는 것은 이해가 된다. 훔볼트는 폭발이 일어나지 않는 지진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주장하지만 내 의견은 다르다. 갈라진 땅 틈에서 새어 나오는 소량의 기체 상태의 유동체가 그렇게 큰 효과를 낼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P. 스크로프[12] 씨가 최초로 주장한 견해에 따르면, 기압이 낮고 비가 오려고 할 때 넓은 지역에 걸친 대기의 압력이 얼마나 감소되었는가에 의해 지진이 발생하는 날짜가 정해질 수도 있다. 이날이 되면, 지하에서 작용하는 힘에 의해 최대한 늘어난 땅이 쩍 소리가 나며 갈라지고 흔들린다. 내 생각에는 스크로프 씨의 견해가 훨씬 설득력이 있다. 그러나 이 견해로는 폭발이 없는 지진이 일어난 뒤 건조한 시기에 소나기가 며칠 동안 퍼붓는 현상은 설명하기 힘들다. 이 현상은 대기와 지하의 영역 사이에 더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증거로 볼 수 있다.

이 근처의 협곡에는 흥미가 없어서 나는 돈 베니토의 집에서 이틀간 머물면서 조개 화석과 규화목을 채집했다. 규화된 큰 나무줄기가 역암 속에 묻혀 있는 것이 많았다. 둘레가 4.6미터가 되는 것도 있다. 이 거대한 원통 모양 안에서

11 페루 최남단의 주—역주.

12 조지 P. 스크로프George Julius Poulett Scrope, 1797 1876. 영국의 지질학자, 정치경제학자. 화산 연구로 암석이 해양에서 퇴적되어 형성되었다는 암석 수성론을 부정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역주.

나무 물질을 이루는 모든 원자가 전부 이산화규소로 바뀌고 관이나 기공 조직은 그대로 보존된다니 놀라울 뿐이다. 이 나무들은 대략 전기前期백악기와 비슷한 시기에 번성했던 것으로 모두 전나무 계통에 속한다. 이곳 원주민들이 내가 채집한 화석 조개들을 보면서 이것이 '자연적으로' 생긴 것이냐에 대해 논쟁하는 것을 들으니 재미있다. 이 논쟁은 유럽에서는 백 년 전에나 있던 것이니 말이다. 내가 이 지역을 돌며 지질학 조사를 하자 대부분의 칠레 사람들이 신기해했다. 하지만 광산을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지질학 조사를 한다는 것을 믿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다. 이러한 점이 가끔 문제를 일으키므로 내가 하는 일을 설명하기 위해 주민들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졌다. 지진과 화산에 대해 궁금하지 않는가, 왜 어떤 샘물은 뜨겁고 어떤 샘물은 차가울까, 왜 칠레에는 높은 산이 있는데 라플라타에는 언덕도 없는가 등 질문을 던지면 많은 사람들이 지질학 조사가 무엇인지 이해했다. 그래도 몇 사람은 그런 질문이 모두 쓸모없고 신앙심이 부족하기 때문이며, 하느님이 산을 그렇게 만들었다고 믿었다(영국에서도 백 년 전의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 소수 있다).

길에서 헤매는 주인 없는 개들을 사살하라는 명령이 최근에 내려졌다. 나도 길에서 죽은 개들을 많이 보았다. 미친개들이 많이 돌아다녔고, 개에 물려서 죽은 사람도 있었다. 공수병(광견병)이 수차례 골짜기를 휩쓸었다. 이렇게 희귀하고 무서운 병이 외부와 단절된 지역에서 계속 발생했다는 것이 놀랍다. 영국에서도 특히 이 병이 자주 일어나는 마을이 있다고 한다. 우나누에 박사에 따르면, 공수병은 1803년 남아메리카에서 처음 알려졌다고 한다. 아사라와 울로아는 자신들이 활동한 시기에는 공수병에 대해 들은 적이 없다고 증언했으므로 확실하다. 우나누에 박사는 이 병이 중앙아메리카에서 발생해서 남쪽으로 서서히 내려갔다고 한다. 1807년에 아레키파[13]에서는 개에 물리지 않은 사람도 공수병에 걸린 적이 있고, 공수병으로 죽은 새끼 황소를 먹은 흑인이 공

13 페루 남부 아레키파 군과 주의 주도. 칠리 강 유역 해발 2천3백 미터가 넘는 고지대에 자리 잡고 있다-역주.

수병에 걸린 사실도 있다. 이카에서는 42명이 공수병으로 죽어 갔다. 물린 지 12일에서 90일 사이에 발병하고, 발병하게 되면 닷새 안에 죽는다. 1808년 이후에는 발생한 바가 없다. 반디멘스랜드나 오스트레일리아에서도 공수병에 대해서는 들은 적이 없다. 버첼은 희망봉에 있던 5년 동안 공수병에 대해 들은 적이 없다고 한다. 웹스터에 따르면 아조레스 제도[14]에도 발생하지 않았고, 모리셔스 섬[15]과 세인트헬레나 섬에서도 발생한 적이 없다고 한다.[16] 이렇게 희귀한 병이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 발생했던 상황을 자세히 연구할 필요가 있다. 병에 걸린 개가 이렇게 먼 지역까지 와서 병을 퍼뜨린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밤에 낯선 사람이 찾아와 돈 베니토의 집에서 묵기를 청했다. 이 사람은 산에서 길을 잃고 17일 동안이나 헤맸다고 했다. 그는 구아스코에서 출발했는데, 코르디예라 산맥을 많이 다닌 적이 있어서, 코피아포로 오는 길은 쉽게 찾을 것이라고 자신했는데, 산속에서 빠져나오는 길을 잃었다고 한다. 데리고 가던 노새 몇 마리는 절벽에서 떨어져 버려서 큰 곤경에 처했다. 무엇보다 그는 낮은 지대에서도 물을 못 찾아 산맥의 가장자리를 쭉 따라서 갔다고 한다.

골짜기를 내려와 22일에 코피아포 마을에 도착했다. 계곡 아래쪽은 키요타의 평지처럼 널찍하고 평평했다. 마을은 꽤 넓었다. 집집마다 정원이 있긴 한데 정돈되어 있지도 않고, 시설도 좋지 않았다. 주민들 모두 돈 버는 데에만 정신이 팔려 있고, 돈을 벌고 나면 가능한 한 빨리 그곳을 떠나는 것 같았다. 주민들 모두 직간접적으로 광산과 관련되어 있고 이들에게는 광산과 광석만이 유일한 화제였다. 이 마을에서 포구까지의 거리가 86킬로미터이고 육상 운송비

14 북대서양의 주요 9개 섬으로 구성된 제도-역주.

15 인도양의 마다가스카르에서 동쪽으로 약 8백 킬로미터 지점, 마스카린 제도 중앙에 있는 독립된 섬나라. 굴 모양의 화산섬으로 주변이 거의 산호초로 둘러싸여 있다-역주.

16 《리마 기후 관찰》, 67쪽 ; 아사라의 《여행기》 1권, 381쪽 ; 울로아의 《여행기》 2권, 28쪽 ; 버첼의 《여행기》 2권, 524쪽 ; 웹스터의 《아조레스 제도 기술》, 124쪽 ; 《국왕 수행 장교의 프랑스 섬 항해기》 1권, 248쪽 ; 《세인트헬레나 섬 기록》, 123쪽.

가 비싸 모든 생활필수품의 가격이 아주 비쌌다. 닭 한 마리가 5실링에서 6실링이나 했고, 고기는 영국만큼이나 비쌌다. 땔감은 코르디예라 산맥에서 당나귀로 2, 3일 걸려서 공급되니 비싸고, 가축을 먹일 목초는 하루 분량이 1실링이나 되었다. 이런 가격은 남아메리카에서는 너무 비싼 것이다.

6월 26일 | 나는 다른 길을 통해 코르디예라 산맥으로 가기 위해 안내인 한 명과 노새 여덟 마리를 빌렸다. 그 지역은 황폐해서 노새를 먹이기 위해 보리와 썬 밀짚 섞은 것을 한 짐 반쯤 싣고 갔다. 마을에서 10킬로미터가량 올라가면 데스포블라도라는 넓은 계곡이 시작된다. 이 계곡의 이름은 사람이 살지 않는다는 뜻을 갖고 있다. 코르디예라 산맥으로 넘어가는 통로로 이어지는 아주 넓은 계곡인데, 비가 충분히 오는 겨울 며칠을 제외하고는 아주 메마른 곳이다. 부서진 산의 양쪽 비탈에 협곡에 의해 파인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 골짜기 밑바닥은 자갈밭인데 평평하고 매끄럽다. 이 계곡은 남쪽 계곡들과 달리 계곡 바닥이 절벽으로 둘러싸여 있지 않은 것으로 보아 하천이 심하게 흐른 것 같지는 않다. 이 계곡도 페루의 계곡처럼 땅이 서서히 융기하면서 파도의 영향을 받아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데스포블라도 계곡이 골짜기와 만나는 지점의 밑바닥은 주변보다 높은 지대로 모래와 자갈로만 이루어져 있다. 물이 한 시간만 흘러도 물길이 패었을 텐데, 엄청난 세월 동안, 시냇물이 이 계곡으로 흘러든 적이 없어 보인다.이 골짜기의 배수 장치(이런 용어가 가능하다면)를 보면 정말 신기하다. 거의 모든 장치가 완벽한데, 배수 작용이 일어난 적은 없다. 썰물 때 모래펄에 작은 산과 골짜기 모양의 흔적이 남는다. 이곳에서는 밀물, 썰물 대신에 바다가 오랜 세월 물러갈 때 대륙이 솟아오르면서 생긴 바위 형태가 그대로 남아 있다. 모래펄 위에 소나기가 내린 뒤 마르게 두면 얕게 패어 있던 흔적이 더욱 깊어진다. 우리가 대륙이라고 총칭하는 바위와 흙으로 된 곳에 수 백 년 동안 비가 계속 내려도 마찬가지 현상이 일어난다.

해가 진 뒤에도 계속 말을 달려 '아구아 아마르가'라는 이름의 작은 샘이 있는 협곡에 도착했다. 이 샘의 물은 짠맛이 있고, 이름에 담긴 뜻처럼 악취와 쓴맛

이 나서 홍차나 마테 차로도 마시기 힘들다. 코피아포 강에서 이곳까지는 적어도 40킬로미터는 될 텐데, 전 지역에 물이 한 방울도 없는 사막이다. 그런데도 이 사막의 중간쯤 되는 곳인 푼타고르다Puntagorda 근처에 오래된 인디오 유적이 있었다. 데스포블라도에서 흘러나오는 계곡 앞에 모인 돌무덤 두 개가 이 작은 계곡의 입구를 가리키고 있었다. 나를 안내한 사람도 이곳을 전혀 몰랐다. 내가 물으면 그걸 아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며 딴청을 부렸다.

코르디예라 산맥 몇 곳에서 인디오 유적을 보았다. 우스파야타 고개에 있는 탐비요스 유적이 가장 잘 보존되어 있다. 네모나고 작은 방들이 군데군데 모여 있고 문틀 몇 개도 서 있다. 문틀은 90센티미터 높이의 넓적한 돌을 가로질러서 만들었다. 울로아가 옛날 페루 원주민의 낮은 문에 대해 언급한 적이 있다. 이 집들은 원래 많은 사람들이 살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잉카족이 산맥을 건널 때 쉬어 가던 집이라고 전해 내려온다. 인디오의 거주지로 보이는 유적들이 여러 곳에서 발견되었는데 단순히 휴식의 장소만은 아니었던 것 같다. 그러나 경작을 할 만한 땅도 아니다. 실제로 인디오 유적이 발견된 장소는 탐비요스 부근, 잉카스 다리, 포르티요 고개 등이다. 아콩카과 부근에 있는 하우엘 협곡 안에, 길도 없고 아주 춥고 메마르고 높은 곳에서 거주지 흔적이 발견되었다고 한다. 처음에 나는 스페인 사람이 들어왔을 때 인디오들이 만든 은신처로 추측했다. 그러나 그 후 기후 조건이 조금 변했을 가능성이 더 많다.

칠레의 북부 지역 코르디예라 산맥 안에는 오래된 인디오 거주지가 특히 많다고 한다. 유적을 파헤치다 보면, 양털로 만든 물건, 귀금속으로 만든 기구, 옥수수 이삭 등이 흔히 발견된다. 또 지금 티에라델푸에고에서 쓰이는 것과 똑같은 마노로 만든 화살촉 한 개도 발견되었다. 페루의 인디오들은 지금도 아주 높고 추운 곳에서 생활한다고 알려져 있다. 안데스 산맥에서 평생 살아온 사람들을 코피아포에서 만났는데, 그 사람들의 이야기로는 만년설에 거의 닿을 만큼 높은 곳에도 집이 많다고 한다. 또 길도 없고 나무도 자라지 않는 땅에도, 더군다나 물 한 방울 없는 곳에도 집이 있다고 한다. 주변 환경을 봐서

는 이해하기 힘들지만 이 지역 사람들의 의견에 따르면, 집의 형태를 보아 인디오의 주거지였음이 분명하다고 한다. 푼타고르다의 이 계곡에는 네모나고 작은 방이 일곱 개에서 여덟 개 남아 있다. 형태는 탐비요스의 유적과 비슷하지만, 주로 진흙으로 지어져 있어서 이 지역이나(울로아의 의견으로는) 페루 사람들이 모방할 수 없는 내구성을 지니고 있다고 한다. 이 집들은 평평하고 넓은 계곡의 바닥에 위치해 있어서 눈에 아주 잘 띄어 무방비 상태인 곳이다. 사방 14킬로미터에서 19킬로미터 내에는 물이 없다. 물이 있어도 양이 아주 적고 질이 나쁘다. 토양은 아주 메말라서 바위에는 이끼조차 찾아보기 힘들다. 요즈음에는 이곳에 광산이 있어 짐을 나르는 짐승을 부리더라도 매장량이 엄청나게 많지 않다면 이익을 보기 힘들다. 이런 악조건인 장소가 과거 인디오들의 거주지였다니 신기할 따름이다. 현재에는 비가 1년에 두세 번만 와도 이 골짜기에 작은 시냇물이 흐르고, 물을 끌어와서(과거 인디오들은 관개 방법을 잘 알고 있었다) 몇 가족을 먹여 살릴 만큼의 수확은 쉽게 얻어낼 수 있을 것이다.

남아메리카 대륙의 이 지역이 현생종 조개들이 서식하기 시작한 이후 해안 근처에서 120미터에서 150미터, 곳에 따라 300미터에서 400미터 융기했다는 설득력 있는 증거들이 있다. 내륙 쪽으로 갈수록 융기가 더 높이 이루어졌다. 코르디예라 산맥은 고도가 높기 때문에 기후가 아주 건조하다. 따라서 융기가 일어나기 전에는 대기가 지금보다 덜 건조했을 것이다. 육지의 융기는 오랜 세월 서서히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기후 조건도 마찬가지로 서서히 변해 왔을 것으로 보인다. 이곳에 사람이 거주하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기후가 많이 변한 것을 보면, 이 주거지 유적은 아주 오래전에 지어진 것으로 추측된다. 칠레의 기후 조건에서는 그렇게 오래된 유적도 충분히 보존될 수 있다고 본다. 남아메리카에서 인간이 오래전부터 살기 시작했다는 사실은 분명해 보인다. 육지가 융기함에 따라 기후는 아주 조금씩 서서히 변해 왔기 때문이다. 사실 지난 220년 동안 발파라이소에서 지면은 겨우 6미터 융기되었다. 리마에서는 인디오가 살기 시작한 이래 해변이 24미터에서 27미터 융기했을 뿐이다. 이렇게

미세한 융기 현상이 수증기를 담은 대기의 흐름을 바꿀 만한 힘은 없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브라질의 동굴 유적에서 인간의 해골을 발견한 바 있는 룬드 박사는 여러 상황을 고려해 볼 때 남아메리카에서 인디오가 살기 시작한 것은 아주 오래전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문제에 대해[17] 리마[18]에서 길 씨와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다. 길 씨는 내륙 지방을 많이 돌아본 토목 기술자인데, 자신도 기후 변화의 원인에 대해 관심을 가진 적이 있다고 했다. 길 씨의 말에 따르면, 유적지 대부분이 지금은 농사를 지을 수 없도록 황폐해진 원인은 과거 인디오들이 수로를 훌륭하게 지어 놓았지만 제대로 관리를 못 한 데다 지반의 융기 운동으로 수로가 망가졌기 때문이다. 실제로 페루 사람들은 암반으로 된 산에 터널을 뚫어 관개 시설을 만들기도 했다. 길 씨가 이러한 터널을 조사한 적이 있는데, 관개 수로가 좁고 낮으며 구불구불하고 폭이 일정치 않지만 상당히 긴 수로였다고 한다. 당시 인간이 강철이나 화약도 없이 그러한 수로 공사를 해냈다는 것이 정말 놀랍지 않은가? 길 씨에게서 아주 흥미 있는 사실을 처음 들었다. 내가 알기로 유례가 없는 일인데, 대륙의 운동으로 인해 배수 환경이 변한 지역을 보았다는 것이다. 그는 카스마에서 우아라스[19](리마에서 멀지 않다)로 가는 동안 아주 황폐한 평원을 발견했는데, 유적지와 함께 과거에 경작한 흔적이 있었다고 한다. 주변에는 이 평원에 관개용 물을 끌어왔을 법한 큰 강이 말라 있었다. 몇 년 전까지 물이 흘렀을 것 같은 수로도 보였다. 강바닥 군데군데 모래밭과 자

17 템플이 페루 위쪽 볼리비아를 기록한 여행기에 따르면, 포토시에서 오루로로 지나면서 "산 여기저기에 지금은 폐허가 된, 인디오들이 살던 거주지나 마을이 많이 보인다. 이곳은 지금 황폐해졌지만, 과거에는 여기 사람이 살았다는 증거를 보여 주고 있다"고 한다. 템플은 이러한 주제를 다른 책에서도 언급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은 황폐해졌다는 것이 현재 그곳에 사람이 살고 있지 않다는 것인지, 그곳의 주변 환경이 예전에 비해 변화했다는 것인지 애매하다.

18 페루 중부에 있는 주. 연안 지역에는 비가 거의 오지 않으며, 안데스 산맥에서 흘러오는 강이 있는 곳에서만 관개가 가능하다–역주.

19 페루 중부 앙카시 주의 주도이며 우아라스 군의 군청 소재지. 블랑카 산맥 우아일라스 협곡의 해발 3052미터 고지에 있다–역주.

갈층이 펼쳐져 있다. 단단한 바위가 침식되어 수로가 된 곳도 있는데 폭이 40미터, 깊이가 34미터였다. 강을 따라 상류로 가려면 당연히 경사진 길을 올라가게 된다. 그런데 길 씨는 이 강의 흔적을 따라 올라가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낮은 쪽으로 내려가고 있어서 깜짝 놀란 적이 있다. 내리막 언덕의 높이는 수직으로 12미터에서 18미터로 추측된다 산등성이가 강바닥과 교차하여 열십자 방향으로 융기했다는 명백한 증거다. 이렇게 되면 물길이 아치 모양을 그리면서 방향을 바꾸어 흘러가게 되면서 새로운 수로가 만들어진다. 따라서 그 주변의 평야에는 물길이 없어지면서 사막으로 황폐해졌을 것이다.

6월 27일 | 아침 일찍 출발해서 정오 무렵 파이포테 협곡에 이르렀다. 이곳에는 물이 조금 흐르고 있고, 식물도 조금 있었는데, 미모사의 일종인 프로소피스[20]도 몇 그루 보였다. 이곳에는 땔나무가 분포되어 있어 과거에 용광로가 지어져 있다. 용광로를 관리하는 남자가 혼자 있었는데 과나코를 잡는 게 유일한 낙이었다. 밤이 되면 기온이 영하로 뚝 떨어졌지만 땔나무가 많아서 따뜻하게 보냈다.

6월 28일 | 협곡을 따라 계속 올라가자 골짜기가 좁아졌다. 낮에 과나코 몇 마리를 보았다. 과나코와 비슷한 종인 비쿠냐Vicuña[21]의 발자국도 보았다. 비쿠냐는 높은 곳에 사는 습성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만년설의 경계에서 아래로 많이 내려가면 거의 발견되지 않는다. 비쿠냐는 과나코보다 더 높고 황량한 지대에서 발견된다. 그 외에 작은 여우 몇 마리를 본 게 전부다. 여우는 생쥐와 그 외 설치 동물을 먹고 산다. 설치 동물들은 아무리 황량한 사막이라도 식물이 조금만 있으면 꽤 많이 분포되어 있다. 파타고니아의 소금 호수 주변에서는 이슬밖에 없는데도 떼를 지어 발견되었다. 아주 좁고 메마른 지역, 예를 들어 바다 한가운데 있는 작은 섬에서라도 살 수 있는 동물은 도마뱀 다음으로 이 생쥐를 들 수 있다. 맑은 날씨에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이지만 풍경은

20 콩과科 Prosopis속 식물의 총칭-역주.

21 남아메리카산의 야마속의 야생동물-역주.

황량해 보인다. 이곳의 웅장한 풍경은 금방 지루해진다. 협곡의 물이 처음으로 갈라지는 산기슭에서 야영했다. 동쪽으로 흐르는 하천들은 대서양까지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높은 지대로 흘러든다. 그 가운데 높이 300미터 지점에 있는 거대한 소금 호수로 흘러가 작은 카스피 해를 이룬다. 우리가 야영한 곳 주변에 눈이 넓게 쌓여 있는데, 1년 내내 쌓여 있는 것은 아니다. 이 높은 지역에도 바람이 계속 불어온다. 낮에는 계곡 쪽에서 시원한 미풍이 올라온다. 해가 지고 한두 시간이 지나면 높고 찬 지역에서 바람이 아래쪽으로 깔때기 모양을 통과하듯 분다. 오늘 밤엔 강풍이 불어왔다. 기온이 영하로 뚝 떨어져 주전자에 있는 물이 금방 얼어 버렸다. 옷을 아무리 껴입어도 너무 추워서 잠을 이루기 힘들었다. 아침에 보니 몸이 얼어서 감각이 없었다.

코르디예라 산맥 남쪽에서는 심한 눈보라로 목숨을 잃기도 하는데, 이곳에서는 다른 사고가 일어나기도 한다. 안내인 이야기로는 열네 살 때 5월쯤 다른 사람들과 함께 코르디예라 산맥을 넘어간 적이 있다고 한다. 도중에 엄청난 강풍을 만났는데, 노새를 붙잡기도 힘들 정도였고, 돌멩이들이 바람에 날려 다닐 정도였다고 한다. 맑은 하늘에 눈도 내리지 않았는데 기온은 낮았다. 영하로 많이 떨어지지 않았더라도 옷을 제대로 갖춰 입지 못한 그 사람들은 찬바람을 이기기 힘들었을 것이다. 강풍이 하루가 지나도 계속 불어오자 사람들은 지쳐 갔고 노새들은 움직이지 않으려 했다. 함께 갔던 안내인의 형은 돌아가려고 했지만, 결국 죽어서 2년 후 길가에서 노새와 함께 시체가 발견되었다. 그때도 노새의 고삐를 꼭 잡고 있었다고 한다. 다른 두 사람은 동상으로 손가락과 발가락을 잃었다. 노새 2백 마리와 암소 30마리를 이끌고 나섰는데, 노새 14마리만 살아남았다. 그전에도 강풍으로 사라진 일행이 있는데 아직 시체도 발견되지 않고 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하늘 아래 추위와 강풍을 만나는 것은 세계 어느 지역에서도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니다.

6월 29일 | 골짜기를 따라 내려오는 길에 우리가 야영했던 곳을 지나쳤다. 아구아 아마르가 근처까지 왔다. 7월 1일 코피아포 계곡에 이르렀다. 데스포블

라도의 메마르고 황량한 공기 속에 있다가 이곳의 토끼풀 냄새를 맡으니 상큼했다. 이곳 주민들이 근처에 '엘 브라마도르'라는 작은 산에 대해 들려주었다. 이 산의 이름은 '울부짖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별 관심 없이 들었는데, 이 산이 모래로 덮여 있어 사람들이 산을 올라갈 때 나는 모래 소리에서 유래했으리라 생각된다. 이와 비슷한 현상에 대해 세첸과 에렌베르크[22]가 자세히 기록한 것[23]이 있다. 홍해 근처의 시나이 산을 여행한 사람들도 이러한 소리를 들었다고 한다. 나에게 얘기를 해 준 주민은 자신이 직접 들었다며 아주 신기해했다. 그 사람은 소리의 원인은 모르겠지만 모래를 경사진 곳으로 흘러내려 가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마르고 굵은 모래밭을 말이 걸어갈 때도 모래 입자의 마찰 때문에 비슷한 소리가 나는데, 나도 브라질 해안에서 몇 번 들은 적이 있다.

사흘 후 비글호는 이곳에서 86킬로미터 떨어진 포구에 도착했다는 것을 전해 들었다. 이곳에는 골짜기를 따라 경작지가 거의 없었다. 그 주변의 넓은 지대에는 뻣뻣하고 메마른 풀만 나 있어 당나귀도 먹기 힘들었다. 이렇게 식물이 잘 자라지 못하는 이유는 토양에 염류의 양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포구에는 메마른 땅 위에 초라한 오두막집이 모여 있는 작은 마을이 있다. 이곳은 바다로 이어져 있는 강물이 많아 주민들이 2킬로미터만 걸어가도 물을 구할 수 있다. 해변에는 많은 물건들이 쌓여 있어 활력이 넘쳤다. 저녁에 나와 함께 칠레를 동행한 마리아노 곤살레스에게 아쉬운 작별 인사를 했다. 다음 날 아침 비글호는 이키케[24]를 향해 출발했다.

7월 12일 | 페루 해안에 있는 이키케 포구에 정박했다. 이키케 포구는 남위 20도 12분, 주민은 약 1천 명이다. 해안은 높이 610미터의 암벽으로 이어져 있

22 에렌베르크Christian Gottfried Ehrenberg 1795~1876. 독일의 생물학자, 탐험가-역주.

23 《에든버러 박물학지》(1830. 1, 74쪽) ; (1830. 4, 258쪽) ; 《화산에 관한 도브니의 글》, 438쪽 ; 《벵골 학술지》 7권, 324쪽.

24 칠레 북부 이키케 군과 타라파카 주의 주도. 비가 오지 않는 아타카마 사막에 속한 암석질 반도에 자리 잡고 있다-역주.

다. 이곳 암벽 기슭에 모래로 덮인 좁은 평지에 마을이 있다. 포구는 황량해 보인다. 수십 년 만에 한 번 비가 조금 내릴 뿐이다. 협곡은 암석 부스러기가 쌓여 있다. 산기슭은 하얗고 고운 모래 언덕으로 덮여 있다. 모래 언덕의 높이가 300미터에 이르는 것도 있다. 요즘 같은 계절에는 바다 위 하늘까지 펼쳐진 구름층은 해안의 암벽보다 낮게 떠 있다. 작은 포구에는 배도 거의 없고, 초라한 집들이 모여 있어 음침한 인상을 받았다. 주위의 웅장한 자연이 마을을 짓누르는 느낌이다.

주민들은 배 위에 거주하는 방식으로 살고 있다. 생활필수품들은 멀리에서 수송해 온다. 물은 64킬로미터 북쪽 피사구아에서 배로 실어 와 18갤런짜리 한 통에 9리알(4실링 6펜스)로 팔린다. 나는 포도주병에 가득 담은 물을 3펜스에 샀다. 땔감은 물론 모든 식량도 다른 지역에서 들여온다. 이곳에서는 짐승을 키우기 힘들다. 다음 날 아침, 초석 광산으로 가기 위해 노새 두 마리와 안내인을 4파운드에 어렵게 구했다. 현재 이키케는 이 광산에 의존하고 있다. 이곳의 광석은 1830년에 처음 수출했는데, 한 해 10만 파운드 물량이 프랑스와 영국으로 수출되고 있다. 이곳에서 생산된 물질은 비료와 질산 제조에 쓰이고 있으며, 조해성을 갖고 있어 화약 제조는 어렵다. 예전에는 근처에 질 좋은 은광산 두 곳이 성황이었지만, 현재는 생산량이 아주 적다.

우리가 도착하기 바로 전에 이 마을에 우환이 있었다. 페루는 무정부 상태에 있어 각 정파가 국민에게 기부금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때문에 이곳 가난한 이키케 마을 사람들도 나쁜 일이 일어날까 봐 불안에 떨고 있었다. 마을마다 문제가 있기 마련이다. 얼마 전에는 프랑스인 목공 세 명이 하룻밤에 성당 두 곳에 들어가 모든 식기류를 도둑질했는데, 그중 한 사람이 자수해서 모두 되찾았다. 범인들은 960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주 수도인 아레키파로 보내졌다. 수도 당국에서는 다양한 가구를 만드는 유능한 목공 기술자들을 처벌하느니 풀어 주었다. 그 후 성당에 다시 도둑이 들었고 이번에는 식기류를 되찾지 못했다. 이에 마을 주민들은 분노해서 이단자의 범죄임을 선언하고 영국인 몇

명을 잡아 고문하고 총살하려 했다. 이때 당국이 개입해서 평화를 되찾았다.

7월 13일 | 아침에 이 마을에서 70킬로미터 떨어진 초석 광산으로 출발했다. 갈지자로 난 모랫길을 따라 해안의 가파른 산을 올라가니, 관타하야 광산과 산타로사 광산이 멀리 보였다. 광산 입구 낮은 언덕 위에 마을이 두 개 있는데, 이키케보다 더 초라하고 황량해 보인다. 하루 종일 사막 지대를 지나 어두워져서야 광산에 도착했다. 짐을 나르다 지쳐서 죽은 동물의 뼈와 마른 가죽들이 길 위에 흩어져 있다. 사체를 먹고 사는 새인 쇠콘도르를 제외하고는 새든, 네발 동물이든, 파충류든, 곤충이든 아무것도 없었다. 요즘 계절에는 해안을 따라 이어진 높이 약 610미터의 산에는 구름이 걸려 있고 바위틈에 선인장이 드물게 보였다. 사람이 다니지 않은 모랫길에는 지의류가 군데군데 자라 있다. 이 지의류는 클라도니아속으로 순록이끼와 형태가 비슷했다. 이 근처는 멀리서 보면 옅은 노란색으로 보일 정도로 모래 위에 이끼가 많이 자랐다. 내륙으로 말을 타고 70킬로미터 들어가는 동안 내가 본 유일한 식물은 죽은 노새 뼈에서 자라고 있는 아주 미세한 노란 이끼였다. 이곳은 아주 황량한 사막 지대에 가까웠다. 이미 발파라이소에서 코킴보를 거쳐 코피아포를 향해 북쪽으로 올라오면서 이런 사막 풍경에 익숙했기 때문에 이곳에서 그렇게 강렬한 인상을 받지는 않았다. 이 지역의 특이한 점은 소금이 두껍고 딱딱하게 지표면 위에 덮여 있거나, 소금을 함유한 충적층이 형성되어 있다는 것이다. 충적층은 육지면이 바다 위로 서서히 융기하면서 퇴적된 것으로 보인다. 소금은 흰색으로 아주 단단하고 밀도가 높다. 모래밭 가운데에 물에 깎인 단괴團塊 속에서 소금과 석고가 많이 발견되었다. 이 근처의 풍경은 눈이 다 녹기 전과 비슷했다. 소금이나 석고 덩어리가 드러난 풍경은 눈이 다 녹기 전에 더러워진 눈덩이 같다. 물에 잘 녹는 이런 물질들이 땅 위에 이렇게 층을 이루어 덮여 있다는 것은 이 지역이 얼마나 오랫동안 극심한 건조 기후를 보였는지를 말해주고 있다.

밤이 되어 초석 광산의 주인집에서 묵었다. 이곳도 해안의 산악지대처럼 땅

위에 아무것도 자라지 않고, 우물에선 짭짤한 물을 조금 얻을 수 있다고 한다. 이 집 우물은 깊이가 30미터인데, 이곳에 비가 거의 오지 않기 때문에 빗물이 우물물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주변의 지면을 소금층이 덮고 있는 곳이 많으므로 이 근처의 물이 스며든 것이라면 심하게 짠맛이어야 맞다. 그런데 조금 짠 것으로 보아 아주 멀리 떨어진 코르디예라 산맥 지대에서 물이 지하로 스며들어 우물물까지 닿았다고 볼 수 있다. 코르디예라 산맥 쪽으로 조금 올라가면 작은 마을이 몇 개 있는데, 이 마을 주민들은 땅에 물을 조금 댈 수도 있고 초석을 나르는 노새와 당나귀를 먹일 목초를 키울 정도의 물은 있다. 초석은 해안에서 45킬로그램당 14실링에 팔리는데, 거의 해안까지 수송하는 비용이다. 이곳의 광산은 두께 60센티미터에서 90센티미터의 단단한 질산소다층으로, 황산소다가 조금 섞여 있고, 식염이 다량 함유되어 있다. 질산소다층은 240킬로미터 정도에 걸쳐 큰 분지나 평지 주위 지층 바로 밑에 발달되어 있다. 형태로 보면 과거 호수였을 것으로 보인다. 또 소금층 안에서 요오드염이 나오는 것을 보면 바다가 내륙 쪽으로 들어온 것처럼 보인다. 이곳의 평지 지면은 태평양 해면보다 5300킬로미터 높다.

7월 19일 | 페루의 수도 리마를 둘러싸고 있는 카야오 만에 정박했다. 이곳에 6주 동안 머물렀는데, 사회 분위기가 어수선해서 조사는 많이 못했다. 머무는 동안 날씨가 계속 나빴다. 내륙 쪽 하늘에 항상 두꺼운 구름이 끼어 있어 처음 16일 동안 리마 뒤쪽에 있는 코르디예라 산맥을 한 번 밖에 볼 수 없었다. 구름 사이로 봉우리를 드러낸 산맥은 웅장했다. 페루의 낮은 지대에는 비가 전혀 내리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다. 그런데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 우리가 머무는 동안 이 지역에는 거의 매일 습기 찬 안개가 끼어 길은 질척거리고 옷도 축축했다. 이러한 안개를 페루의 이슬이라고 부른다. 마을의 집들은 진흙을 굳혀서 평평하게 만든 지붕으로 덮여 있고, 항구에는 한 배 가득 실을 양의 밀이 아무 덮개도 없이 몇 주일씩 쌓여 있다. 이를 보면 비가 거의 내리지 않는 것이 확실해 보인다.

페루를 조금밖에 보지 못해서 판단하기 힘들다. 여름에는 지금보다 기후가 훨씬 더 좋아진다고 한다. 이곳은 1년 내내 학질이 돌아, 주민이나 외지인이나 모두 고통을 겪는다. 학질은 페루 해안 지역에 흔한 병인데, 내륙에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나쁜 기후 조건 때문에 발생하는 이런 병은 원인을 알 수 없다. 어떤 지역이 자신의 건강에 좋은지 해로운지를 판단하기가 힘들다. 열대 지방 가운데에서 가장 살고 싶은 곳으로 이 지역을 꼽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카야오Callao[25]를 둘러싸고 있는 평야는 군데군데 마른풀이 나 있고, 작은 소택지도 보인다. 여기에 고인 물에서 독기가 올라오는 것으로 짐작된다. 이곳과 기후 환경이 비슷한 아리카 마을도 이러한 소택지를 없애 버린 후 병이 줄어들었다. 소택지에서 올라오는 독기가 수풀이 무성하고 더운 지역에서만 생기는 것은 아니다. 브라질에도 수풀이 무성한 지역에 늪이 있지만, 페루의 이 메마른 해안 지대보다 훨씬 건강에 좋다. 칠로에 섬은 온대기후이고 울창한 숲도 있지만 공기 중에 독기가 전혀 없다.

카보베르데 제도의 생자고 섬은 또 다른 사례를 보여 준다. 이 섬은 건강에 아주 좋은 환경으로 보이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이곳은 몇 주 동안 비가 온 뒤에 아무것도 없던 평지에 식물이 조금씩 자라난다. 그런데 이 식물이 다시 시들어 말라 버리는 동안 독기가 발생해, 이곳 원주민이나 외지인이 심한 열병에 시달린다. 반면, 태평양에 있는 갈라파고스 제도는 이곳과 비슷한 토양이고 식물상도 주기적으로 똑같이 발달하지만 건강에 아주 좋다. 훔볼트에 따르면,[26] “베라크루스와 카르타게나와 같이 뜨거운 지역에서는 아주 작은 습지도 치명적일 수 있다. 모래가 섞인 건조한 토양이 주위 공기의 온도를 높이므로 이곳에 자라고 있는 덤불에서 독기가 나온다”고 한다. 한편 페루의 해안은 기온이 아주 높지는 않기 때문에 말라리아열도 아주 심하진 않다. 이렇게 공기 중에 독기가 있을 때 바닷가에서 자는 것은 위험한데, 잠을

25 페루의 주요 상업 항구도시—역주.

26 《신스페인 왕국 정치학 논문집》 4권, 199쪽.

자는 동안 일어나는 신체의 작용 때문인지, 밤이면 독기가 더 올라와서인지 애매하다. 따라서 바닷가에 있는 것보다 해안 가까이 정박하더라도 배 위에 머무는 것이 더 안전하다. 그런데 특이한 사례로 아프리카 해안에서 수백 킬로미터 떨어져 정박한 전함에서도 열병이 발생했다고 들었다. 그리고 같은 시간에 시에라리온에서 무시무시한 죽음의 시기가 시작되었다[27]고 한다.

페루는 독립을 선언한 후 계속 무정부 상태로 혼란을 겪고 있다. 남아메리카에서 페루처럼 어수선한 나라도 없다. 우리가 방문할 당시 정부에서 네 명의 장군이 각 정파로 나뉘어 세력을 다투고 있었다. 한 사람의 세력이 강해지면 나머지 세 사람이 단결해서 싸워 이기고, 그러고 나면 또다시 싸움이 일어난다. 대통령이 참석한 독립 기념행사에서 미사가 엄숙하게 열렸다. 찬미송이 울려 퍼지는 동안 각 정파들이 페루 국기 대신 해골이 그려진 검은 깃발을 걸었다. 정부 행사에서 서로 목숨을 걸고 싸우겠다는 의지를 내보이다니, 놀라운 풍경이다. 내가 방문했을 때도 이렇게 사회가 어지러워서 마을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제지당했다. 항구가 있는 메마른 산로렌소 섬에서만 사람들이 마음 놓고 걸어 다닐 수 있다. 겨울이 되면 고도가 300미터가 넘는 지대는 구름에 덮인다. 민꽃식물이 많이 자라고 몇 종류의 꽃도 자란다. 리마 근처 낮은 산의 비슷한 고도에는 이끼가 덮고 있고, 아만캐스라는 노란 백합이 자라 있다. 이를 보아 이곳이 이키케에서 같은 고도인 지역보다 습도가 훨씬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리마 북쪽으로 갈수록 점점 습도가 높아져서 적도 바로 밑에 있는 과야킬에는 울창한 숲이 있다. 그런데 페루의 메마른 해안에서 비옥한 땅으로의 변화는 블랑코 곶이 위치한 위도 선 상에서 갑자기 일어난다. 블랑코 곶은 과야킬에서 위도상 2도 남쪽에 있다.

카야오는 작은 항구인데 지저분하고 초라하다. 리마와 이곳 주민들은 유럽인,

27 《마드라스 의학 계간지》(1839), 340쪽에 흥미롭게도 비슷한 사례가 나온다. 퍼거슨 박사의 논문(《에든버러 왕립학회 회보》 9권)에 의하면, 독소는 건조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므로 건조하고 더운 기후가 건강에 해로울 수 있다고 한다.

흑인, 인디오 혈통이 가지가지로 섞인 사람들이 있다. 이들은 술에 취해서 난장판이다. 열대 지방 특유의 냄새가 나는데, 심한 악취가 진동한다. 코크레인 경이 지은 오래된 요새가 아직도 건재하다. 그러나 우리가 머무는 동안 대통령은 황동 대포를 처분하고 요새를 허물기 시작했다. 그렇게 중요한 임무를 맡을 장교가 없다는 게 명분이었다. 현 대통령 자신이 이 요새를 지키다가 반란을 일으켜 그 자리에 올랐기 때문이다. 우리가 남아메리카를 떠난 뒤 그 대통령도 다시 반란에 희생되어 총살되었다고 한다.

리마는 바다가 서서히 물러가면서 형성된 계곡과 평지 위에 있다. 리마는 카야오에서 10킬로미터 떨어져 있는데, 고도는 리마보다 150미터 높다. 그런데 경사가 아주 완만하고 길은 거의 평지에 가까워서 고도가 높아진다는 사실이 믿기 힘들다. 훔볼트도 이 사실에 관해 언급한 바 있다. 평지에 가까운 지대 위에 가파르고 메마른 낮은 산들이 섬처럼 솟아 있다. 평지는 곧게 뻗은 진흙 장벽에 의해 넓고 푸른 들판으로 나뉘어 있다. 버드나무 몇 그루만 보이고, 바나나와 귤나무 덤불이 조금 있다. 리마 시는 현재 아주 황폐한 상태로 길거리는 포장되지 않아 울퉁불퉁하고, 쓰레기 더미가 여기저기 쌓여 있어 검은 갈리나소들이 이에 길들여져서 고기 조각을 찾아 돌아다니고 있다. 마을의 집은 지진에 대비해 거의 2층으로 지어져 있다. 회칠한 목조 건물과 사람이 살고 있는 오래된 집들은 아주 웅장하고 잘 지어져서 손색이 없다. 왕들의 도시인 리마는 역사적으로 유명한 곳이다. 가까이에서 보면 아주 인상적으로 지어진 교회 건물이 지금도 많이 남아 있다.

하루는 상인 몇 명과 도시 근교로 사냥을 나갔다. 사냥감은 신통찮았지만, 도중에 낮은 언덕 위에서 오래된 인디오 거주지 유적을 발견했다. 집들이 흩어져 있고, 울타리, 관개용 수로와 무덤이 보였다. 여기 살던 사람들의 수와 생활환경을 짐작할 수 있었다. 이들이 사용하던 토기, 양털 의류, 돌을 깎아 만든 도구, 구리로 만든 연장, 보석 장신구, 궁전, 수력을 이용한 기계 등을 보면

이곳에 살던 인디오들의 기술 문명 수준에 놀랄 뿐이다. 우아카huaca[28]라고 부르는 낮은 무덤도 불가사의할 정도로 훌륭하다. 자연적으로 형성된 낮은 언덕에 인디오의 솜씨가 더해진 곳도 있었다.

그 외 다른 유적지도 흥미로웠다. 1746년의 대지진과 해일로 파괴된 카야오의 유적은 탈카우아노에서 보았던 것보다 훨씬 더 황폐해 있다. 벽의 기초는 자갈로 덮여 있고, 벽돌 구조물은 썰물에 자갈이 밀려가듯 파도에 휩쓸려 사라졌다. 당시 대지진으로 땅이 가라앉았다고 하는데, 증거는 발견할 수 없었다. 하지만 과거 도시가 건설된 이후 해안선이 조금 변한 것으로 보아 그 가능성은 충분하다. 당시 사람들이 자갈 위에 도시를 건설할 리는 없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곳을 항해하고 난 뒤 추디 씨는 과거와 현재의 지도를 비교하여, 리마 해안 북쪽과 남쪽이 침강한 것이 확실하다고 주장했다.

산로렌소 섬에는 최근 융기 작용이 일어났다는 충분한 증거가 있다. 융기 작용 이후 이어서 침강 작용이 일어난다는 믿음과도 일치한다. 카야오 만의 맞은편에 있는 이 섬은 침식작용이 일어나 세 개의 단구가 희미하게 발달해 있다. 아래쪽 단구는 길이가 2킬로미터에 가깝고 높이는 26미터에 이르는데, 근처 바다에 서식하고 있는 18종의 조개껍데기 층으로 덮여 있다. 이곳에는 조개껍데기들이 많이 묻혀 있는데 고도 150미터에서 180미터의 칠레 해안에서 발견되는 조개껍데기보다 훨씬 더 오래 풍화된 흔적을 보이고 있다. 이 조개껍데기들은 다량의 소금, 소량의 황산칼슘, 황산나트륨, 염화칼슘과 함께 발견된다. 소금과 황산칼슘은 융기 작용이 일어나면서 물보라가 증발할 때 형성되었을 것이다. 이 물질들은 하부층인 사암 조각 위에 두껍게 덮여 있다. 단구 위쪽에서 발견된 조개껍데기들은 얇게 갈라지고 부서져 미세한 가루가 된다. 높이가 50미터인 위쪽 단구와 그 위쪽에서도 짠맛이 나는 가루가 포함된 층이 발견되었다. 분명히 이 상층의 단구는 원래 조개층이다. 약 306미터 높

28 페루 케추아어. 영적인 힘이 포함된 성소나 성물, 그리고 신전과 같은 경배의 대상 또는 장소의 형태로 존재하는 성스러움이 깃든 대상물을 말한다-역주.

이의 암붕에 있는 단구도 과거 조개껍데기 층이었을 것으로 추측되는데, 현재는 생물체의 흔적이 전혀 나오지 않는다. 리크스 씨의 분석에 따르면, 가루는 황산염, 석회와 나트륨의 염화물, 그리고 소량의 탄산칼슘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한다. 소금과 탄산칼슘을 섞어 두면 두 물질이 서로를 조금씩 녹이는 성질이 있는데, 농도가 옅은 용액에서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 아래쪽 단구에서 발견된 조개껍데기에서는 다량의 소금이 나오고, 위쪽에서도 염류가 나온다. 이곳의 조개껍데기들이 현저하게 부식된 것으로 보아 조개껍데기들은 두 번에 걸쳐 분해 작용이 이루어졌다고 생각된다. 그 결과로서 생성되는 염은 탄산나트륨과 염화칼슘이다. 염화칼슘은 현재 존재하는데, 탄산나트륨은 발견되지 않는다. 따라서 탄산나트륨이 황산염으로 변했다고 추측된다. 비가 많이 오는 지역에서는 염류층이 보존되기 힘들다. 조개껍데기가 이렇게 오랫동안 보존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건조한 기후 때문에 녹지 않은 소금이 덮고 있어서 조개껍데기들이 분해와 풍화 작용을 거쳤다고 볼 수 있다.

흥미롭게도 위에서 본 30미터 높이의 단구에 목화 실 조각과 길게 엮은 갈대, 옥수수 줄기 이삭 등이 조개껍데기와 바다에서 휩쓸려 온 쓰레기 속에 묻혀 있다. 페루의 우아카 유적에서 발견된 유물들과 흡사하다. 산로렌소 섬 앞의 벨라비스타 근처 대륙에는 약 30미터 고도의 평지가 있다. 지층은 모래와 더러운 점토, 자갈이 섞여 층리가 형성되어 있다. 지면은 90센티미터에서 180센티미터 깊이까지 붉고 고운 흙으로 덮여 있다. 흙 속에 조개껍데기들이 여기저기 조금씩 흩어져 있고 투박하고 붉은 토기 조각들도 발견되었다. 이곳을 보고 표면이 부드럽고 넓어서 바다 아래에서 퇴적 작용을 거쳐 평지를 형성했을 것으로 짐작했다. 그런데 유적을 살펴보다 사람이 만든 바닥이나 둥근 돌과 같은 흔적을 발견했다. 육지가 융기되기 전에, 카야오 주변의 평지가 자갈로 된 해변으로 둘러싸인 채 조금 융기했다고 짐작된다. 그러나 바다면보다 높아지지는 않았다. 이 평원에서 과거에 인디오들이 아래쪽의 붉은 점토로 토기를 만들었을 것이다. 1713년부터 1746년 사이에 큰 지진으로 바닷물이 유입

되어 카야오 부근에 호수가 만들어졌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 후 진흙이 흘러와 쌓이고, 가마에 있던 토기 조각들이 흩어져 쌓이고, 바다에서 온 조개껍데기도 묻혔을 것이다. 목화 실 등의 유물이 나온 산로렌소 섬의 아래쪽 단구 표면과 비슷한 높이의 지층에서 조개껍데기와 함께 화석 토기 조각이 발견되고 있다.

따라서 앞에서 밝혔듯이 남아메리카에 인간이 거주하기 시작한 이후 적어도 30미터 이상 융기 현상이 일어났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옛 지도가 그려진 뒤 미세한 융기 작용은 그동안 해안에 묻혀 버렸을 수도 있다. 우리가 항해하기 220년 전 발파라이소에서는 580센티미터 이상 융기 작용이 일어난 적이 없다. 그런데 1817년 이후 미세한 융기가 일어났고, 1822년에 지진으로 300센티미터에서 340센티미터가 융기되었다. 위에서 유물이 묻힌 후 적어도 20미터 융기가 일어났다는 사실로 미루어, 이 지역에선 아주 오래전부터 인간이 살고 있었으리라. 과거 융기가 일어나기 전 파타고니아 해안에는 마크라우체니아가 서식하고 있었다. 그런데 파타고니아 해안은 코르디예라 산맥에서 꽤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융기 작용이 여기보다 천천히 일어났을 것이다. 바이아블랑카에서는 당시 번성하던 네발 동물들이 묻힌 후 겨우 수십 센티 정도 융기가 일어났다. 이 멸종된 네발 동물이 생존할 당시에 인간은 존재하지 않았다. 파타고니아 해안에서 융기 작용은 코르디예라 산맥과는 관계가 없을 것이다. 오히려 반다오리엔탈에 가는 띠 모양으로 형성된 화산암과 관계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파타고니아 해안은 페루 해안보다 훨씬 느리게 융기가 이루어졌을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추측이 다 애매할 수밖에 없다. 나로서는 확실한 결론을 내릴 수 없다. 왜냐하면 융기 작용이 일어나는 사이사이에 침강 작용이 불규칙적으로 일어났을 수도 있으며, 파타고니아 해안 전역에서 일어난 융기 작용이 아주 오랫동안 중단되었던 적이 분명히 여러 번 있었기 때문이다.

● 1835년 3월, 비글호가 발파라이소에서 콘셉시온으로 돌아갔다 오는 동안, 다윈은 대륙 탐사를 떠나기로 한다. 그는 발파라이소에 사는 친구 리처드 코필드와 함께 산티아고로 말을 달린다. 산티아고에서 포르티요와 멘도사를 거치는 답사에서 다윈은 지질학적으로 만족할 만한 조사 결과를 얻고 발파라이소로 귀환한다.

이 장에서는 다윈이 발파라이소를 떠나 코피아포 부근까지, 남아메리카를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대륙 탐사를 하는 여정을 담고 있다. 다윈은 1845년 4월 27일 발파라이소를 떠나 코킴보로 향한다. 비글호는 이제 북쪽으로 향한다. 피츠로이 함장은 다윈이 구아스코를 거쳐 코피아포에서 다시 비글호에 승선하도록 배려해 준다. 다윈은 발파라이소에서 친구 코필드와 작별한 뒤, 안내인과 함께 출발한다. 이곳에서 말 네 마리와 노새 두 마리를 싼값에 구입한다. 다윈 일행은 이번에도 음식을 직접 해 먹고 야외에서 잠을 자면서 여행한다. 발파라이소에서 코피아포까지는 해안을 따라 북쪽으로 직선거리로 간다면 약 670킬로미터지만, 이렇게 가다 보니 아주 긴 여행이 되었다. 대륙 탐사 동안 다윈은 이 지역의 기후와 지질, 인디오의 유적에 대해 자세히 기록하고 있다.

코킴보로 가는 해안 도로 주변은 메마르고 황폐해 보인다. 칠레 중부 지역에서 보이던 나무와 관목이 이곳 북부 지역에서는 급속히 감소한다. 해안을 따라 이어지던 길에서 내륙으로 방향을 돌려 광산 지역과 이야펠 계곡에 도착한 다윈은 계속 북쪽으로 갈지자로 올라가면서 지질 조사를 하는데, 코킴보에 머무는 동안 강한 지진을 목격하기도 한다. 다윈은 이곳 코킴보에서 자갈로 형성된 계단형 단구를 조사하면서 라이엘의 추측에 신빙성을 부여하고 있다. 라이엘은 이곳의 지표면이 점점 융기하는 동안 바다의 작용으로 생긴 지형일 것이라고 주장한다. 코킴보와 북쪽 구아스코로 가는 길 위 몇 군데 외에는 현생종의 조개껍데기가 발견되는 지층이 발견된 적이 없다. 이곳의 단구 표면에서 발견되는 현생종 조개껍데기들을 보면 양쪽 해안이 물에 잠긴 적이 있다는 증거다. 따라서 다윈은 대륙 남쪽이 서서히 융기하면서 해변의 침식작용이 일어

났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다.
다윈은 코킴보 계곡을 거쳐 구아스코 계곡으로 향한다. 이제 황량한 사막 지역을 지나는 것이다. 이렇게 메마른 땅 위에도 태양은 계속 내리쬐고 있다. 다윈은 말을 먹이지 못해 걱정하다가 코피아포 계곡에 도착하자 크게 기뻐한다.
다윈은 지진과 날씨에 대한 가설들을 살펴보면서 지진이 일어난 뒤 소나기가 퍼붓는 현지의 자연 현상에 대해 여러 추측을 내놓기도 한다. 칠레의 북부 지역 코르디예라 산맥 지역에서는 오래된 인디오 거주지가 많이 발견된다. 다윈은 인디오 거주지를 보며 이 지역에서 인간이 살기 시작한 이래 오랜 세월에 걸쳐 이루어진 기후의 변화와 육지의 융기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서 적고 있다.
7월 초 비글호는 코피아포 계곡에서 90킬로미터 떨어진 포구에 들어온다. 다윈은 칠레까지 동행한 안내인과 아쉬운 작별을 나누고 비글호에 오른다. 비글호는 페루 해안에 있는 이키케 포구에 정박한다. 다윈은 초석 광산으로 올라가는데, 메마르고 황량한 사막 지대에 가깝다. 페루의 수도 리마를 둘러싸고 있는 카야오 만에 머무는 6주 동안 날씨가 나쁘고 사회 분위기도 어수선해서 조사를 많이 하지는 못한다. 페루는 독립을 선언한 후 무정부 상태로 혼란을 겪고 있어 다윈은 페루를 마음껏 탐사하지 못하고 떠나게 된다.
이제 비글호는 갈라파고스 제도 주변을 측량하기 위해 기나긴 항해를 앞에 두고 있다.



갈라파고스 제도



제17장
갈라파고스 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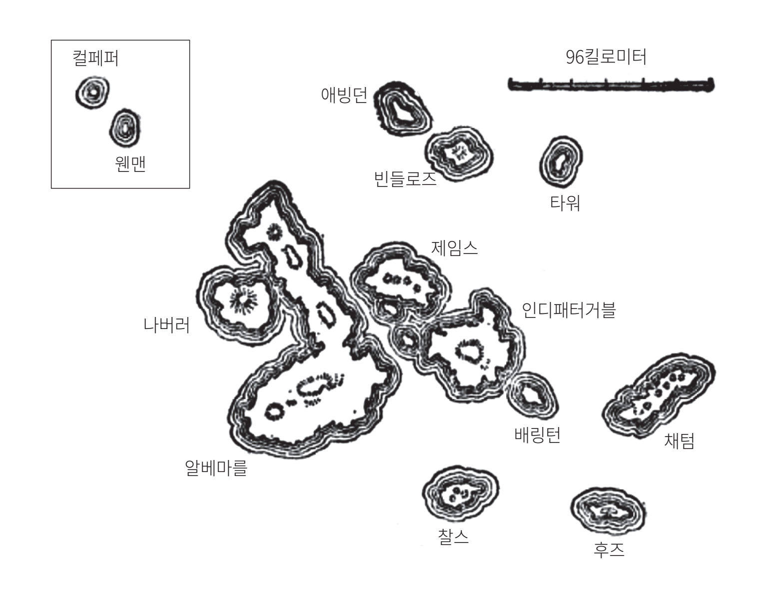
전체가 화산암으로 이루어진 갈라파고스 제도–분화구 개수–잎 없는 덤불–찰스 섬의 거주지–제임스 섬–분화구의 소금 호수–갈라파고스 제도의 자연사–신기한 새, 핀치–파충류–거대한 육지거북의 습성–해초를 먹고 사는 바다 도마뱀–굴을 파는 초식 육지 도마뱀–갈라파고스 제도에서 파충류의 중요성–어류, 패류, 곤충류–식물–아메리카 대륙형 생물체–각기 다른 섬에 있어 종種과 유類의 차이–길들여진 새–습득된 본능, 인간에 대한 두려움

9월 15일 | 갈라파고스 제도는 열 개의 주요 섬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중 다섯 개가 나머지들보다 크기 면에서 두드러진다. 이 섬들은 적도 아래에 있으며, 아메리카 대륙 해안선에서 서쪽으로 800~970킬로미터 떨어져 있다. 모두 화산암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열에 의해 변성되어 신기한 광택이 나는 몇 개의 화강암 덩어리들도 예외라고 볼 수 없다. 큰 섬에 있는 분화구 몇 개는 크기가 어마어마하며 높이는 900~1200미터에 이른다. 분화구의 경사면에는 보다 작은 구멍들이 수도 없이 뚫려 있다. 나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이 제도를 통틀어 분화구의 수가 최소한 2천 개는 된다고 말할 수 있다. 분화구들은 용암 아니면 화산재로 되어 있거나 혹은 세밀한 층리를 지닌 사암 같은 응회암으로 되어 있다. 후자의 경우는 대부분 절묘하게 대칭 구조로 되어 있으며, 용암은 전혀 없이 화산재만 분출하여 생겨난 경우이다. 우리가 조사한 응회암 분화구 28개 모두가 다른 방향에 비해 남쪽 면의 높이가 훨씬 낮다는 점, 아니 그보다는 무너져 내려 없어졌다는 것이 주목할 만한 점이다. 이 분화구들은 모두 바다에서 형성된 것이 확실하고, 무역풍으로 인한 파도와 탁 트인 태평양으로부터의 거대한 물결의 힘이 이곳에서 만나 모든 섬들의 남쪽 해안에 영향을 주었다는 것에서, 이 부드러운 응회암 분화구들이 독특하고 일정한 모양

으로 무너져 내린 이유를 쉽게 알 수 있다.
이 섬들은 적도 바로 아래에 있는 데도 불구하고 전혀 무덥지 않다. 이는 여기까지 흘러오는 거대한 남극 해류 때문에 주변 해수 온도가 유별나게 낮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아주 짧은 기간을 빼고는 비가 거의 내리지 않으며, 그나마 비가 온다 해도 불규칙적이다. 구름은 대부분 낮게 깔려 있다. 따라서 이 섬들의 저지대 부분은 무척 황폐한 반면, 고도 300미터 이상의 고지대는 기후가 습윤하고 식물상도 상당히 풍부하다. 특히 대기 중의 습기를 제일 먼저 받아서 응축시키는 쪽, 즉 섬에서 바람이 불어오는 쪽을 향한 면일수록 더욱 그렇다.
17일 아침, 우리는 채텀 섬에 상륙했다. 이곳은 다른 섬들처럼 윤곽이 부드럽고 둥글며 이전에 생긴 분화구의 잔해가 이곳저곳에 언덕처럼 튀어나와 있는 섬이다. 그 첫인상처럼 정떨어지는 것도 없을 것이다. 검은 현무암질 용암으로 이루어진 거친 평원은 울퉁불퉁한 파상波狀으로 펼쳐진 채 온통 거대한 균열투성이였으며, 생기라곤 전혀 없이 태양에 그을린 작은 덤불들로 온통 뒤덮여 있다. 정오의 태양이 달군 메마르고 그을린 지표면은 마치 난로처럼 갑갑하고 무더운 기운을 내뿜었다. 심지어 덤불에서도 불쾌한 냄새가 나는 것 같았다. 나는 부지런히 가능한 한 많은 식물들을 채집하려고 애썼지만 아주 조금밖에 모으지 못했다. 그리고 그 보잘것없이 작은 잡초들은 적도의 식물이라기보다는 북극 지방의 것이라고 하는 게 나을 것 같았다. 덤불은 조금 떨어져서 보면 보통 겨울에 보는 영국 나무들이 그렇듯 잎이 없는 것 같았다. 얼마 후에야 나는 이 식물들이 잎이 다 나 있었을 뿐 아니라 꽃까지 만발해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가장 흔히 보이는 덤불은 쥐손이풀목目의 한 종이었다. 그늘을 만들어 주는 나무라고는 아카시아 한 그루와 거대하고 이상하게 생긴 선인장 하나가 전부였다. 심한 우기가 지나면 이 제도는 일시적으로, 그리고 부분적으로 파릇파릇해진다. 여러 가지 면에서 위치 조건이 비슷한 화산섬 페르난도 노로냐가 내가 본 것 중에서 유일하게 이 갈라파고스 제도와 전체적으로

유사한 식물상을 지닌 곳이었다.

비글호는 채텀 섬을 빙 돌아 항해하면서 몇몇 항구에 정박했다. 어느 날인가, 검은색에 중간에서 잘린 모양의 분화구들이 유달리 많은 어느 섬 해안에서 자게 되었다. 약간 높은 지대에서 세어 보니 어느 정도 완전한 분화구 모양인 것은 모두 60개였다. 대다수의 것들이 붉은 화산암재나 슬래그가 엉겨 붙어 고리 모양을 이루고 있을 뿐이었고, 높이는 용암 평원에서부터 고작 15미터에서 30미터 정도였다. 최근까지 화산 활동을 한 분화구는 없었다. 섬의 이 부분 표면은 지하의 증기가 드나들면서 온통 고운 체같이 뚫려 있다. 여기저기서 부드러운 액체 상태였던 용암이 커다란 방울 모양으로 부풀었던 흔적이 있다. 어떤 곳은 역시 비슷한 모양의 지하 동굴이, 가파른 벽면으로 둘러싸인 둥그런 구덩이만 남긴 채 천장이 무너져 내려 있기도 하다. 수많은 분화구들의 일정한 모양이 인공적으로 보여서 그런지, 나는 어쩐지 거대한 제철소들이 즐



비한 영국의 스태퍼드셔[1] 지역이 생생하게 떠올랐다. 날은 타는 듯 더운데, 울퉁불퉁한 땅 위로 복잡하게 얽힌 덤불을 헤치며 기어 다닌다는 것은 무척이나 지치는 일이었다. 하지만 미지의 거석巨石들이 즐비한 장면을 보았으니 고단함을 충분히 보상받은 셈이다. 혼자 걷고 있다가 한 마리당 90킬로그램은 족히 나갈 커다란 거북 두 마리를 발견했는데, 한 마리는 선인장 조각을 먹고 있다가 내가 접근하자 나를 응시하다가 슬며시 돌아가 버렸다. 다른 한 마리는 깊게 쉿, 쉿 소리를 내더니 머리를 집어넣어 버렸다. 검은 용암과 잎이 없는 관목, 그리고 커다란 선인장에 둘러싸인 이 거대한 파충류들을 보니 마치 고대의 생물을 발견한 것만 같았다. 색깔이 칙칙한 새 몇 마리가 있었지만 그것들은 나에 대해서는 거북에게 쏟는 만큼의 관심도 없었다.

9월 23일 | 비글호는 찰스 섬으로 이동했다. 이 제도는 오래전부터 해적을 선두로 하여 고래잡이들 같은 사람들이 드나들었지만, 작은 거주지가 생긴 지는 기껏해야 6년밖에 되지 않는다. 거주민은 200에서 300명 사이인데, 거의 대부분이 키토가 수도인 에콰도르 공화국에서 정치범으로 추방된 유색인들이다. 이들의 정착지는 내륙으로 7킬로미터쯤 들어간 곳에 있으며 고도는 300미터쯤 될 것이다. 가는 길의 처음엔 채텀 섬에서처럼 잎이 없는 관목을 지나쳤다. 고도가 높아질수록 숲은 점점 푸르러졌고, 섬의 능선을 넘어서자마자 상쾌한 남풍이 불어와 땀을 식혀 주었다. 푸르고 무성한 식물들을 보니 시야까지 시원해지는 것 같았다. 이 고지대에는 거친 풀들과 양치류가 많았지만 나무고사리는 없었다. 종려나무과의 식물은 어디에도 없었다. 북쪽으로 580킬로미터 올라간 코코스 섬은 야자 열매가 많아 그 이름이 붙여졌을 정도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이는 더 희한한 일이다. 집들은 고구마와 바나나를 재배하는 편평한 토지 위에 이리저리 흩어져 있었다. 페루와 칠레 북부의 메마른 토양에 오랫동안 길들어 있던 우리에게 검은 옥토가 펼쳐진 광경이 얼마나 기분

1 영국, 잉글랜드 중부의 주州. 주도는 스태퍼드. 철강 · 화학 등 공업이 발달하고 농업 · 축산업이 성하다–역주.

좋은 것이었는지 다른 사람들은 모를 것이다. 이곳의 주민들은 가난 때문에 불평을 해대면서도 큰 고생 없이 생계 수단을 얻는다. 숲에는 멧돼지며 야생 염소들이 많으나 기본적인 동물성 식품으로 이용되는 것은 거북이다. 물론 이 섬의 거북 수는 급격히 줄어들고 있지만 주민들은 여전히 일주일에 이틀 사냥하면 나머지 5일 동안은 고기를 먹을 수 있으리라 여긴다. 옛날에는 이곳에서 배 한 척당 700마리나 되는 거북을 잡아가기도 했으며, 몇 년 전 한 쾌속 범선 회사에서는 하루 동안 2백 마리의 거북을 잡아 해안에 내려놓기도 했다고 한다.

9월 29일 | 우리는 알베마를 섬의 남서쪽 끄트머리를 돌아 항해했는데, 다음 날은 알베마를 섬과 나버러 섬 사이에 바람이 거의 불지 않아 항해하지 못했다. 두 섬 모두 땅 밖으로 드러난 검고 거대한 용암 덩어리로 덮여 있다. 검은 용암은 마치 피치[2]를 끓이면 냄비 가장자리로 끓어 넘치듯이 거대한 분화구 가장자리로 넘쳐흐르거나 비탈진 곳에 있는 작은 분화구를 통해 뿜어져 나와 있다. 용암은 해안까지 수 킬로미터에 걸쳐 흘러내려 와 있다. 이 두 섬에서는 모두 화산 분출이 있었다고 알려져 있는데, 알베마를 섬의 큰 분화구들에서는 아직도 연기가 조금씩 나오고 있었다. 저녁이 되자 우리는 알베마를 섬[3]의 뱅크스 소만小灣에 정박했다. 다음 날 아침에는 산책을 나섰다. 비글호가 정박해 있는 잘려나간 응회암 분화구의 남쪽으로 멋들어지게 대칭을 이룬 타원형 분화구가 하나 더 있었다. 타원의 장축은 1.6킬로미터가 조금 안 되었고, 깊이는 약 150미터였다. 분화구 바닥에는 얕은 호수 하나가 있었는데, 그 한가운데 조그만 분화구 하나가 작은 섬처럼 있었다. 날씨는 몸을 가누기 어려울 정도로 덥고, 호수는 맑고 파랬다. 나는 먼지에 숨이 막히면서도 화산재로 덮인 경사면을 따라 서둘러 내려가서는 허겁지겁 물을 마셨다. 그러나 애통하게도, 그 물은 바닷물만큼이나 짰다. 해안의 바위에는 크기가 90~120센티미터쯤 되

2 원유 · 콜타르 등을 증류시킨 뒤 남는 검은 찌꺼기.

3 에콰도르의 서부 갈라파고스 제도 중 최대의 섬-역주.

는 거대한 검은 도마뱀들이 흔했고, 언덕 쪽으로 가면 지저분한 황갈색 도마뱀들이 그만큼 많았다. 이 황갈색 도마뱀들은 우리가 나타나면 뒤뚱뒤뚱 도망가거나 굴속으로 파고들었다. 이제 곧 이 두 파충류의 습성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하려고 한다. 이 알베마를 섬의 북쪽 지역은 전체적으로 처참할 정도로 황폐하다.

10월 8일 | 우리는 제임스 섬에 도착했다. 찰스 섬과 마찬가지로 이 섬의 이름은 오래전에 영국 스튜어트 왕조 왕들의 이름에서 따온 것이다. 바이누 씨와 나, 그리고 우리 수행원들은 비글호가 바다에 나가 있는 일주일 동안 식량과 텐트 하나만 가지고 여기 남아 있게 되었다. 여기서 물고기를 말리고 거북고기를 절이기 위해 찰스 섬에서부터 파견된 스페인 사람 한 무리를 만났다. 내륙으로 약 10킬로미터 정도 안쪽이고 고도는 6백 미터에 가까운 곳에 거북 잡는 일을 하는 사람 둘이 사는 허름한 집이 하나 있었다. 다른 사람들은 대개 해안에서 물고기를 잡는다. 나는 이들을 두 번 방문했고, 하루는 그곳에서 자기도 했다. 다른 섬의 저지대에는 잎이 거의 없는 덤불이 자라지만, 이곳의 나무들은 그 어느 곳보다 컸고, 몇몇의 경우는 지름이 60센티미터, 심지어는 110센티미터까지 되는 것도 있었다. 구름 때문에 습도가 유지되는 고지대의 식물상은 푸르고 풍성하다. 땅이 무척 습윤하기 때문에 거친 왕골밭이 드넓게 펼쳐져 있는데, 그곳에는 아주 작은 흰눈썹뜸부기Water-rail가 무수히 모여 살면서 새끼를 친다. 이 고지대에 머무는 동안 우리는 거북 고기만 먹고 살았다. 고기가 붙은 채 구운 흉갑(가우초들이 '카르네 콘 쿠에로'를 만들듯)은 아주 맛있었다. 어린 거북으로 만든 수프는 그야말로 환상적이었다. 하지만 다른 부위 고기들은 내 입맛엔 그저 그랬다.

하루는 스페인 사람들과 함께 살리나, 즉 소금이 나는 호수로 웨일보트를 타고 나간 적이 있다. 땅에 닿자 최근 생성된 험한 용암지대 위로 힘들게 걸어갔다. 용암지대가 응회암 분화구를 둘러싸다시피 하고 있는데, 그 분화구 안에 소금 호수가 있다. 호수의 깊이는 고작해야 8~10센티미터였으며 밑바닥은 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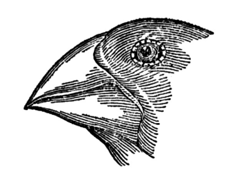
부시게 결정화된 하얀 소금층이다. 호수는 아주 둥글었는데, 가장자리에는 밝은 녹색의 다육·다즙식물들이 자라고 있다. 깎아지른 듯한 분화구 사면은 온통 숲으로 뒤덮여 있어, 그림 같으면서도 묘한 광경이었다. 몇 년 전, 이 조용한 곳에서 어떤 바다표범잡이 배의 선원들이 선장을 살해한 사건이 있었다는데, 덤불 사이에서 그의 해골을 보았다.

이곳에 머무는 일주일 중 대부분의 시간 동안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었고 무역풍이 잠깐이라도 잦아들라치면 더위가 엄습했다. 이틀 동안은 텐트 안에 있는 수은주가 몇 시간 동안 섭씨 34도에 이르기도 했다. 하지만 햇볕은 있어도 바람이 부는 바깥 온도는 고작 29도였다. 모래 또한 뜨겁게 달아올랐다. 갈색 모래에 온도계를 넣으면 금세 58도까지 올라갔다. 온도계가 거기까지밖에 안 올라가기 때문에 실제 얼마나 더 올라갈 수 있을지는 나도 모른다. 검은 모래는 훨씬 더 뜨거워서 두꺼운 부츠를 신고서도 걷기 어려울 정도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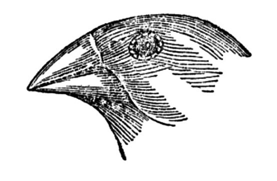
이 제도의 자연사自然史는 유별나게 신기해서 눈여겨볼 만하다. 대부분의 생물들은 다른 곳에서는 볼 수 없는 토착종들이다. 같은 생물이라도 섬들마다 차이가 있기도 하다. 그렇지만 모든 종이 대양 저 멀리 800~970킬로미터나 떨어져 있는 아메리카 대륙의 생물들과 두드러진 연관성을 보인다. 이 제도는 그 자체가 작은 세계, 아니 심지어 아메리카 대륙에 붙어 있는 위성이라고도 할 수 있다. 바로 그 아메리카 대륙으로부터 몇몇 외래 동식물들이 떠돌다 들어왔고, 아메리카 대륙 토착종의 일반적인 특징들도 이어받았기 때문이다. 섬들의 크기는 작은 것에 비해 토착종의 수와 그것들의 서식 범위는 놀라울 정도다. 언덕마다 분화구가 있고 용암류 대부분의 경계가 명확한 것을 볼 때, 지질학적으로 현세에 해당하는 시기까지도 이곳에 '끝없는 대양'이 펼쳐져 있었다는 것을 확신하기에 이른다. 이로부터 우리는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나 지구 상 최초의 생명체 출현이라는 위대한 사실, 미스터리 중의 미스터리에 어느 정도 근접한 것만 같다.

육상의 포유류 중 토착종이라 여겨지는 유일한 종은 갈라파고스 생쥐Mus

galapagoensis뿐인데, 내가 확신하기로, 이것은 제도에서 가장 동쪽에 위치한 채텀 섬에만 있다. 워터하우스 씨에게서 들은 바로 이 생쥐는 아메리카 대륙 생쥐의 특징을 보이는 과科에 속한다고 한다. 제임스 섬에는 워터하우스 씨가 이름을 새로 붙이고 설명까지 했을 정도로 보통의 생쥐들과 뚜렷이 구별되는 쥐 1종이 있지만, 그것은 구대륙(유럽 대륙)의 쥐과에 속하는 데다 이 섬에는 150년 전부터 배가 드나들었기 때문에 이 쥐는 외래종이 새롭고 독특한 이곳의 기후, 먹이, 토양에 적응해 생겨난 변종에 불과할 뿐이라는 것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 뚜렷한 근거 없이는 그 누구에게도 멋대로 추론할 권리가 없지만, 채텀 섬의 쥐들은 아마 아메리카 대륙에서부터 이곳으로 옮겨 온 것이리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인적이 아주 드문 팜파스에서도 새로 지은 오두막 지붕에 토착종의 생쥐가 살고 있는 것을 본 적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쥐들이 배를 타고 이동할 수 있다는 것도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북아메리카에서도 리처드슨 박사가 이와 유사한 사실들을 관찰한 바 있다.



1. 큰땅핀치, 게오스피자 마그니로스트리스 Geospiza magnirostris



2. 중간땅핀치, 게오스피자 포르티스 Geospiza fortis



3. 작은나무핀치, 게오스피자 파르불라 Geospiza parvula



4. 개개비핀치, 세르티데아 올리바세아 Certhidea olivasea

갈라파고스 핀치들의 부리

육상 조류로는 26종을 발견했는데, 북아메리카에서 온 것으로 종달새같이 생긴 핀치Dolichonyx oryzivorus(미국쌀먹이새) 1종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른 곳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것들이었다. 그 핀치는 북아메리카 대륙의 북위 54도까지 분포하며 대개 늪지에서 자주 보인다. 나머지 25종의 새 중에서 첫 번째로 매를 들 수 있는데, 이 매는 신체 구조 면에서 신기하게도 말똥가리, 그리고 아메리카 대륙에 서식하는 썩은 고기를 먹는 폴리보루스속屬의 중간에 해당한다. 폴리보루스속의 새들과는 모든 습성과 심지어 울음소리까지 아주 유사하다. 두 번째로는 두 종의 올빼미를 들 수 있는데, 유럽의 짧은귀올빼미와 흰가면올빼미 정도에 해당한다. 세 번째는 굴뚝새와 세 종의 산적딱새Tyrant-flycatcher(미국산 딱새 무리로, 이 가운데 두 종은 피로세팔루스속Pyrocephalus에 해당하는데, 그 둘 중 하나 또는 두 종 모두가 변종일 뿐이라고 보는 조류학자도 있다), 그리고 비둘기 1종이다. 이들은 모두 아메리카 종들과 유사하면서도 확연히 다르다. 네 번째는 제비 1종인데, 아메리카 대륙의 프로그네 푸르푸레아Progne purpurea보다 색이 더 흐릿하고 몸집은 더 작고 가늘어, 굴드 씨는 이를 엄밀히 다른 종으로 쳤다. 다섯 번째로, 흉내지빠귀가 3종 있는데, 이것들은 아메리카 대륙의 고유종이다. 나머지 육상 조류들은 다른 무엇보다도 독특한 한 무리의 핀치들인데, 부리의 구조와 짧은 꼬리, 몸과 깃털의 모양에 있어 서로 연관성이 있다. 핀치는 모두 13종인데, 굴드 씨는 이것들은 네 개의 하위 그룹으로 나누었다. 하위 그룹인 칵토르니스속Cactornis의 종들 중에서 최근 로 제도[4]의 보 섬에서 들어온 것 1종을 제외하면 모두 이 제도 고유의 종들이며, 모든 하위 그룹이 이 제도에만 있다. 칵토르니스 하위 그룹 중 두 종은 종종 커다란 선인장의 꽃 사이로 오르내리곤 하는 것이 보이지만, 그 그룹의 다른 종들은 모두 낮은 지

4 남태평양 프랑스령 폴리네시아 중부의 산호초로 이루어진 섬 무리. 소시에테 제도 동쪽에 있으며, 파우모투 제도 · 투아모투 제도라고도 한다. 길이 72킬로미터, 너비 24킬로미터인 랑이로아 환초부터 지름 1.5킬로미터 이하의 것까지 80여 개 섬이 있고, 그 가운데 절반 정도는 무인도이다. 구아노와 진주조개가 산출된다-역주.

역의 건조하고 메마른 땅에서 먹이를 찾으며 떼 지어 여러 종이 섞여 산다. 대다수의 수컷 핀치들은 새까만 색이며 암컷들은(한두 마리쯤 예외가 있겠지만) 갈색이다. 무엇보다 신기한 사실은 게오스피자속Geospiza에 해당하는 각 종들은 부리 크기가 완벽하게 점진적으로 커진다는 것이다. 큰 것은 콩새 부리만 한 것에서부터 푸른머리되새 부리만 한 것, 그리고(만일 굴드 씨가 분류한 하위 그룹인 세르티데아Certhidea를 메인 그룹에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하다면) 심지어는 휘파람새과인 솔새의 부리만 한 것까지 있다. 게오스피자속에서 가장 부리가 큰 경우가 그림 1이며, 가장 작은 경우는 그림 3에 제시되어 있다. 중간 크기의 부리를 가진 것은 그림 2에 제시되어 있는데, 그것뿐 아니라 거의 눈치채지 못할 만큼씩 단계적으로 크기가 다른 부리를 가진 새들이 적어도 여섯 종은 더 있다. 하위 그룹 세르티데아의 부리는 그림 4에 제시되어 있다.

칵토르니스의 부리는 어떤 점에서는 찌르레기의 부리와 비슷하며, 네 번째 하위 그룹인 카마린쿠스Camarhynchus의 부리는 어떻게 보면 앵무새 부리처럼 생겼다. 이렇게 작지만 밀접하게 연관된 새들의 그룹에서 나타나는 구조의 점진적인 변화와 다양성을 볼 때, 어쩌면 이 제도에 있던 소수 토착종 새들 중에서 하나의 종이 선택되어 여러 가지 다른 목적에 맞게 변종되었을지도 모른다는 상상을 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원래는 말똥가리였던 새가 이곳에 들어와서는 아메리카 대륙의 썩은 고기를 먹는 폴리보루스속에 해당하는 자리를 차지했다고도 상상할 수 있다.

섭금류涉禽類와 물새류로는 11종밖에 못 찾았는데, 이 중 단 3종(그 제도의 습기 많은 꼭대기에서만 사는 흰눈썹뜸부기까지 포함해서)만 새로운 종이었다. 갈매기들의 이동 습성을 고려했을 때, 나는 이 제도에 서식하는 종들이 고유하긴 하지만 남아메리카 남부 지역의 한 종과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놀랐다. 육상 조류들이 훨씬 더 고유하다는 점, 즉 26종 중 25종이 새로운 종 혹은 적어도 새로운 부류라는 것을 섭금류나 물갈퀴 있는 새들의 경우와 비교하면, 후자(섭금류와 물새류)의 종들이 전 세계적으로 더 널리 퍼져 있다는 사실에 잘 들

어맞는다. 여기서부터 이렇듯 수중 생물이—바닷물에 살든, 민물에 살든 간에—같은 강綱에 속하는 육상 생물보다 지구 어느 곳에서든 덜 고유하다는 법칙에 대해 알아볼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조개류에서는 뚜렷하게 드러나고, 이 제도에 있는 곤충류에서는 덜 나타난다.

섭금류 가운데 2종은 다른 지역에서 들어온 같은 종들보다 조금 작다. 제비 또한 작은데, 그와 유사한 종들과 확실히 다른 종인지 아닌지 의심스럽기는 하다. 올빼미 2종, 산적딱새 2종(피로세팔루스속에 해당하는 것)과 비둘기 역시 그것들과 가장 가까운 연관성을 가진 새들과 비슷하게 생겼지만 분명히 다른 종이며, 그것들에 비해 크기도 작다. 반면, 갈매기는 비슷한 종들보다 오히려 더 크다. 올빼미 2종, 제비 3종의 흉내지빠귀 모두, 비둘기는 전체는 아니지만 각각의 색깔에 따라, 그리고 도요새류Totanus와 갈매기는 모두 그것들의 유사한 종들보다 색이 짙다. 그리고 흉내지빠귀와 도요새의 경우에는 각 속에 해당하는 어느 종보다도 색이 짙다. 선명한 노란 가슴 털이 있는 굴뚝새, 진홍색 술과 가슴 털이 있는 산적딱새를 제외하면 적도 지역에 어울리게끔 깃털 색깔이 화려한 새는 없다. 이러한 사실로 볼 때, 어쩌면 이곳에 들어온 몇몇 고유종의 크기를 줄어들게 만든 공통적인 원인 때문에 대부분의 갈라파고스 제도 고유종 또한 색깔이 어두워진 것은 물론이고 크기까지 줄어들었는지도 모른다. 이곳의 모든 식물은 초라하고 변변치 못한 모습이며, 예쁜 꽃이라고는 본 적이 없다. 다시 곤충 얘기를 하자면, 크기는 작고 색깔은 어두우며, 워터하우스 씨 말대로 전체적인 겉모습에는 적도 아래 지역의 곤충이라고 여길 만한 구석이 없다.[5] 새, 식물, 곤충들은 사막 지역에서 나타나는 특징을 띠고 있으며, 남부

5 연구의 진전 과정에서 이 제도에 고유한 것으로 생각되었던 새들 중 몇몇은 아메리카 대륙에도 사는 것으로 밝혀졌다. 저명한 조류학자 스클레이터는 내게 스트릭스 푼크타티시마Strix punctatissima와 피로세팔루스 나누스Pyrocephalus nanus가 그런 경우이며, 오투스 갈라파고엔시스Otus galapagoensis와 제나이다 갈라파고엔시스Zenaida galapagoensis도 아마 그럴 것이라고 알려 주었다. 따라서 토착 조류의 종은 23종 혹은 21종으로 줄게 된다. 스클레이터는 이 토착 조류 중 한둘은 별도의 종이라기보다는 변종으로 평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내 생각에도 그럴 수 있을 것 같다.

파타고니아 동식물보다 화려한 색깔을 지닌 것이라곤 하나도 없다. 이로부터 열대 지방 식생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화려한 색상은 그 지역의 온도나 일조량이 아니라 몇몇 다른 요인, 아마도 생물체가 생존하기 위한 일반적인 조건들과 연관되어 있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이제 이 제도의 동물상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을 보여 주는 파충류목目을 살펴보자. 종의 수는 많지 않지만 각 종별 개체 수는 어마어마하다. 남아메리카에서 볼 수 있는 속에 속하는 작은 도마뱀 1종과 갈라파고스 제도에서만 볼 수 있는 암블리린쿠스속Amblyrhynchus의 도마뱀 2종(혹은 그 이상)이 있다. 자주 보이는 뱀이 1종 있는데, 비브롱 씨가 알려 준 바에 의하면 칠레에서 들어온 프삼모피스 템민키Psammophis temminckii[6]와 같은 종이다. 내가 보기에 바다거북은 1종 이상 있으며, 육지거북은 2~3종 있다. 두꺼비와 개구리는 단 한 마리도 없다. 높은 지대 숲의 온화한 기후와 습도가 그것들에게 아주 잘 맞을 것 같다고 생각했던 나는 그런 사실이 놀라웠다. 이런 과의 동물들은 대양의 화산섬에서는 발견되지 않는다[7]는 보리 생뱅상Bory St. Vincent의 말이 떠올랐다. 내가 여러 가지 연구를 통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이런 현상은 태평양과 심지어 샌드위치 제도의 큰 섬들에서도 일어나는 것 같다. 마스카렌개구리Rana mascariensis가 많았던 모리셔스 섬[8]만은 분명 예외다. 이 개구리는 현재 세이셸 제도, 마다가스카르 섬, 그리고 부르봉 섬에 서식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6 권터 박사가 (1859년 1월 24일, 동물학회에서) 다른 어느 곳에서도 살고 있지 않은 특이한 종으로 발표하였다.

7 《아프리카 4개 섬 항해기Voyage aux Quatre Iles d'Afrique》. 샌드위치 섬에 대해서는 타이어만과 베넷의 《학술지Journal》 1권, 434쪽을 보라. 모리셔스 섬에 관하여는 《수행 장교 항해기Voyage par un Officier》 제1부 170쪽을 참고하기 바란다. 카나리 군도에는 개구리가 없으며(웹과 베르텔로의 《카나리 군도의 자연사Hist. Nat. des Iles Canaries》), 카보베르데 제도의 생자고 섬에서도 보지 못했고, 세인트헬레나 섬에도 없다.

8 아프리카 동쪽 인도양 남서부에 있는 섬. 현재는 모리셔스 공화국이다. 1598년부터 1710년까지는 네덜란드의 식민지, 1715~1810년에는 프랑스의 식민지였으며, 그 후 1814년 정식으로 영국 식민지가 되어 오랫동안 영국의 식민지였다가 1968년 3월 18일 영국 연방 내에서 독립했다-역주.

다른 한편으로 뒤부아Du Bois 씨의 1669년 항해 일지에 부르봉 섬에는 육지거북을 제외하면 파충류가 없다는 기록이 있고, 국왕 수행 장교는 1768년 이전에 모리셔스 섬에 개구리를 들여오려는 시도(내 생각에는 아마도 식용으로 도입하려고 했던 것 같다)가 있었지만 실패했다고 밝혔다. 이런 점들로 볼 때, 이 개구리가 이 섬들의 토착 생물인지 여부는 충분히 의심할 만하다. 대양의 섬에 개구리과가 없다는 사실은 대다수의 아주 작은 섬에서도 번식하는 도마뱀과 비교해 보면 더욱 눈길을 끈다. 이러한 차이가 혹시, 석회질의 껍데기로 싸여 있는 도마뱀 알이 미끌미끌한 개구리 알보다 짠 바닷물에서도 더 잘 이동할 수 있기 때문인 건 아닐까?

먼저 매우 자주 언급되곤 하는 육지거북—'인디카indica'라고 불리던 테스투도 니그라Testudo nigra—의 습성을 기술하겠다. 이것들은 이 제도의 모든 섬에 있는 것으로 보이며, 개체 수도 엄청나게 많은 것이 확실하다. 비교적 높은 곳의 습지에 잘 나타나지만 극도로 건조한 저지대 지역에도 살고 있다. 앞서 밝혔듯이, 예전에 하루 동안 잡혔던 거북 숫자를 보면 그것들이 과연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있다. 거북 중 몇 마리는 어마어마한 크기까지 자란다. 이곳 거주지의 부총독인 영국인 로슨 씨는, 너무 커서 땅에서 들어 올리려면 장정 6~8명이 달려들어야 할 정도인 것도 몇 마리 봤으며, 어떤 것은 고기만 해도 90킬로그램이나 나왔다고 얘기해 주었다. 늙은 수컷 거북이 제일 크고, 암컷들은 그렇게 크게 자라는 일이 거의 없다. 수컷은 꼬리가 더 길어서 암컷과 쉽게 구별된다. 물이 전혀 없는 섬이나 다른 섬의 건조한 저지대 지역에 사는 육지거북들은 주로 다즙多汁 선인장을 먹고 산다. 고지대의 습지에 사는 것들은 여러 가지 나뭇잎이나 시고 단단한 딸기류 열매(구아야비타guayavita라고 불린다), 또는 나뭇가지에 걸려 늘어져 있는 실 모양의 연한 녹색 이끼Usnera plicata를 먹고 산다.

이 육지거북은 물을 무척 좋아하고 많이 마시며, 진흙밭에서 뒹군다. 큰 섬들의 중심부 고지대에는 샘이 있다. 따라서 저지대에 자주 나타나는 육지거북들

은 목이 마르면 먼 거리를 이동해야만 한다. 그 때문에 샘에서부터 해안까지는 넓고 탄탄하게 닦인 길들이 사방으로 뻗어 내려 있다. 이곳에 온 스페인 사람들은 이 길을 따라 올라가 처음으로 물이 솟는 곳을 발견했다. 내가 채텀 섬에 처음 내렸을 때는 과연 어떤 동물이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잘 찾아낸 길을 따라 이동하는지 상상도 하지 못했다. 샘가에서 이 거대한 피조물들을 보는 것은 기이한 구경거리이다. 어떤 놈은 목을 길게 빼고 열심히 기어오고 있고, 실컷 물을 들이켠 뒤 돌아가는 놈도 있다. 샘에 도착한 거북은 누가 보든 말든 상관없이 머리를 눈 위까지 잠기게 물에 처박고는 그 커다란 입으로 한가득, 1분에 약 10회 정도의 속도로 탐욕스럽게 물을 들이켠다. 근처에 사는 사람들 말로는, 물가에 온 거북은 약 3, 4일 머물다가 저지대로 돌아가지만 물가에 찾아오는 빈도는 다르다고 한다. 육지거북은 먹이[9]의 특징에 따라 물가에 오는 횟수를 조절하는 것 같다. 어떻든, 육지거북은 연중 며칠간의 강우기에 내리는 빗물을 제외하면 물이라곤 없는 섬에서도 살아 나갈 수 있는 것이 확실하다.

개구리의 부레가 생존에 필요한 수분을 저장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은 익히 알고 있는 사실이다. 거북의 경우도 마찬가지인 것 같다. 샘에 왔다 간 지 얼마 후면 거북의 방광은 액체로 차서 부풀어 오르지만, 그 액체는 점점 부피가 줄어들면서 탁해진다고 한다. 이곳 주민들은 저지대를 걷다가 갈증에 지치면 종종 이것을 이용한다고 한다. 거북의 방광이 가득 차 있으면 그 내용물을 마시는 것이다. 거북 한 마리를 죽이는 것을 봤는데, 방광에 찬 액체는 상당히 투명하고 아주 약간 쓴맛이 났다. 그러나 주민들은 항상 심낭[10]에 든 물이 최고라며 먼저 마신다.

어떤 곳을 향해 의도적으로 이동할 때라면 육지거북은 밤이고 낮이고 쉬지 않고 이동하여 예상보다 훨씬 빨리 목적지에 도착한다. 거북에 표시를 해놓고

9 앞에서 말했듯이 육지거북의 주된 먹이는 다즙 선인장이다-역주.

10 심장의 바깥을 주머니처럼 덮어 싸고 있는 얇은 막.

관찰해 본 결과, 이곳 주민들은 거북들이 2, 3일에 약 13킬로미터 정도 이동한다고 알고 있다. 내가 본 커다란 거북 한 마리는 길에서 먹이를 먹는 시간까지 포함해서 10분에 55미터, 즉 한 시간에 330미터, 하루에 6.4킬로미터 정도의 속도로 걸었다. 수컷과 암컷이 함께 있는 번식기가 되면 수컷은 거칠게 그르렁거리는 소리를 내는데 이것은 90미터 밖에서도 들릴 정도라고 한다. 암컷은 소리를 전혀 내지 않으며 수컷만 번식기에 소리를 낸다. 따라서 이 소리가 들리면 암수가 함께 있는 셈이다. 거북은 10월인 이맘때 알을 낳는다. 땅이 모래땅이면 암컷은 한곳에 알을 낳고 모래로 덮는다. 하지만 땅이 돌투성이인 곳이면 어느 구멍에든 무차별적으로 알을 낳아 넣는다. 바이누 씨는 땅 틈에서 거북 알 일곱 개를 찾았다. 알은 흰색의 공 모양인데, 내가 잰 것은 둘레가 19센티미터로 달걀보다 컸다. 어린 거북은 알에서 깨자마자 대다수가 썩은 고기를 먹는 독수리들의 먹잇감이 되고 만다. 나이 든 거북은 대개 절벽에서 떨어지는 등의 사고로 죽는다. 주민들의 말에 의하면, 적어도 뚜렷한 이유 없이 죽은 거북은 한 마리도 본 적이 없다고 했다.

이곳 사람들은 거북들이 절대 소리를 듣지 못한다고 믿고 있다. 분명 거북들은 뒤에서 다가오는 사람 소리를 듣지 못한다. 이 거대한 동물이 소리 없이 나아가고 있는 것을 따라잡아 그 옆을 지나가는 순간, 그것이 순식간에 쉿 하는 소리를 내면서 얼마나 재빨리 머리와 다리를 집어넣고 둔탁한 소리와 함께 땅에 떨어져 내려 죽은 척하는지를 보는 일은 언제나 재미있었다. 가끔 등에 올라타서 등딱지 뒤쪽을 몇 번 치면 일어나서 앞으로 걸어간다. 하지만 균형을 잡기가 꽤 어려웠다. 거북 고기는 주로 날것으로 먹거나 소금에 절여 먹으며, 지방으로부터 아주 투명한 기름을 뽑아낸다. 거북을 잡으면 등판 아래쪽의 지방층이 두꺼운지를 들여다볼 수 있도록 꼬리 근처에 칼집을 낸다. 지방층이 얇으면 거북을 놓아주는데, 상처는 이내 아문다고 한다. 이 육지거북을 잡으려면 바다거북처럼 뒤집는 것만으로는 안된다. 왜냐하면 육지거북은 다시 몸을 뒤집어 설 수 있기 때문이다.

갈라파고스 제도의 이 육지거북은 물이 전혀 없는 작은 섬까지 포함해 거의 모든 섬에서 발견되는 것으로 보아 거의 의심할 바 없이 이곳의 토착 동물이다. 이것이 만약 외래종이었다면 거북처럼 그리 자주 볼 수 없는 동물군이 그렇게 널리 분포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더욱이 옛 해적들은 이 거북을 지금보다도 훨씬 더 많이 보았고, 1708년에 우드와 로저스 씨도 이 지역을 제외한 세상 어떤 곳에서도 이 거북을 볼 수 없으리라는 것이 스페인 사람들의 의견이라고 한 바 있다. 이 거북은 이제 널리 분포되어 있다. 그런데 이것이 다른 지역에서도 토착종이지 않을까 하는 의문이 있을 수 있다. 모리셔스 섬에서 멸종된 도도새의 뼈와 함께 나온 거북 뼈는 일반적으로 이 육지거북에 속하는 것으로 통한다. 만일 그게 사실이라면 그 거북은 의심할 바 없이 그곳의 토착종이다. 하지만 비브롱 씨는, 지금 모리셔스에 살고 있는 종이 분명 이곳 갈라파고스의 육지거북과 다른 종인 것으로 보아서는 (도도새와 함께 살았을) 그 거북도 이곳 거북과 전혀 다른 종이었을 것이라고 알려 주었다.

도마뱀 중 주목할 만한 암블리린쿠스Amblyrhynchus속은 이 제도에서만 볼 수 있다. 총 두 종이 있는데 모습은 전반적으로 서로 닮았지만 하나는 육상 동물이고 다른 하나는 수상동물이다. 그중 물에 사는 종Amblyrhynchus cristatus은 벨 씨에 의해 처음 소개되었는데, 그는 그것이 짧고 넓은 머리와 길이가 모두 같은 강한 발톱으로 보아 습성이 매우 특이하고 그것과 가장 가까운 종족인 이구아나와는 다른 습성을 가졌을 것이라고 적절하게 예측했다. 이것들은 온 제도의 모든 섬에 아주 많이 살고 있으며, 오로지 바위 해변에만 살기 때문에 해안에서 10미터만 멀어지면 한 마리도—적어도 나는 한 놈도 못 봤다—볼 수 없다. 이 도마뱀은 흉측하게 생긴 데다 색깔은 우중충한 검은색에, 행동은 우둔하고 느리다. 다 자란 도마뱀의 길이는 대개 1미터 정도이고, 1.2미터쯤 되는 것도 가끔 있다. 커다란 것은 무게가 9킬로그램쯤 나간다. 다른 곳보다 알베마를 섬에서 더 크게 자라는 것 같다. 꼬리는 옆쪽이 납작하며 네 개의 발 모두에는 불완전한 물갈퀴가 있다. 때때로 해안에서 몇백 미터 떨어진 곳에서

헤엄치고 있는 것이 보이기도 한다. 콜넷 함장은 그의 항해기에서 "그것들은 떼를 지어 바다로 물고기를 잡으러 나가서는 바위 위에서 일광욕을 즐긴다. 작은 악어라고 불러도 될 것 같다"라고 얘기했다. 하지만 그것들이 물고기를 먹고 산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물속에 있을 때면 이 동물은 다리를 전혀 움직이지 않고 양옆에 착 접어 붙인 채 몸통의 좌우 운동과 납작한 꼬리를 이용해 더할 나위 없이 편안하고 빠르게 헤엄친다. 배에 타고 있던 선원 하나가 도마뱀 한 마리에 무거운 것을 매달아 가라앉혔는데, 바로 죽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한 시간 후에 줄을 끌어올려 보니 기력이 여전했다. 도마뱀의 사지와 드센 발톱은 온 해안에 널려 있는 울퉁불퉁하고 갈라진 용암대지를 기어 다니기에 감탄할 만큼 딱 좋게 생겼다. 그런 곳에서는 이 흉측한 파충류 예닐곱 마리가 파도 위로 솟은 검은 바위 위에서 네 다리를 쭉 뻗고 일광욕하고 있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다.

도마뱀 몇 마리의 위를 해부해 보니 거의가 잘게 다져진 해초Ulva(갈파래)로 차 있었다. 이 해초의 엽상체는 밝은 녹색이나 흐린 적색을 띠며 얇고 넓적하다. 조간대의 바위에서는 이런 해초를 조금이라도 본 기억이 없으며, 이 해초들이 해안에서 어느 정도 떨어진 바다 밑바닥에서 자란다고 볼 수 있는 근거는 있다. 이게 사실이라면, 이 동물들이 때때로 왜 바다로 나가는지를 설명할 수 있다. 배 속에는 해초만 들어 있었다. 바이누 씨가 한 마리에서 게 조각을 찾아내긴 했지만, 내가 육지거북의 위에 들어 있던 이끼 속에서 애벌레를 봤던 것처럼 그것도 우연히 들어갔을 것이다. 도마뱀의 창자는 다른 초식동물들처럼 컸다. 꼬리와 발의 구조뿐 아니라 이 도마뱀의 먹이, 그리고 스스로 바다로 헤엄쳐 나간다는 사실은 이 동물이 수중 생물의 습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완전하게 입증한다. 하지만 이런 점에서 볼 때 이상한 점이 한 가지 남는데, 이 동물이 놀랐을 때 물속으로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이다. 때문에 이것들을 바닷가 절벽의 좁은 지역으로 몰아가면, 거기서는 물속으로 뛰어들지 않으므로 사람들이 금세 그 꼬리를 잡을 수 있다. 그것들은 무는 것이 뭔지 모르는 것 같다.

하지만 심하게 놀라면 양쪽 콧구멍에서 액체를 한 방울씩 뿜어낸다. 한번은 내가 도마뱀 한 마리를 썰물이 빠져나가면서 생긴 깊은 웅덩이에 가능한 한 멀리 던졌는데, 그것은 몇 번이고 변함없이 내가 서 있는 곳으로 곧바로 헤엄쳐 돌아왔다. 도마뱀은 바다 바닥에 가깝게, 매우 우아하고도 재빨리 헤엄쳤으며, 때로는 발로 울퉁불퉁한 바닥을 디디면서 나아갔다. 해안에 가까이 오면 물속에서 있는 채로 해초 사이에 숨으려 하거나 좁은 틈 사이로 들어가 버렸다. 더 이상 위험하지 않다고 판단되자, 도마뱀은 마른 바위 위로 기어 올라와서 최대한 서둘러 사라져 버렸다. 내가 한곳으로 몰아 몇 번이고 잡은 도마뱀이 바로 그놈이었는데, 그것은 다이빙하고 헤엄치는 데 있어 완벽한 능력을 갖고 있으면서도 물에 들어가려 하지 않았다. 그러고는 앞서 말한 것처럼 내가 물에 던져 넣을 때마다 되돌아왔다. 이 둘도 없이 명백한 우둔함은 어쩌면, 상어 떼의 먹이가 되고 말 것이 뻔한 바다에 비해 해안에는 이 파충류의 천적이라 할 것이 전혀 없는 환경 탓인지도 모르겠다. 따라서 이 도마뱀은 어떠한 위험에 처하든, 자신에게 안전한 곳에 대한 고정적이고 유전되는 본능을 따라 그 해안으로 피신하는 것 같다.

섬에 들어갔던 기간(10월) 동안 극소수의 작은 개체들을 보았는데, 모두 1년은 넘은 것들 같다. 이런 상황으로 보아 아직 번식기가 시작되기 전인 듯하다. 주민들에게 이 도마뱀들이 어디에 알을 낳는지 물어보았으나 사람들은 육상에 사는 도마뱀 알은 많이 보았지만 바다에 사는 도마뱀이 어떻게 번식하는지는 전혀 모르겠다고 했다. 이 도마뱀이 아주 흔하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적잖이 이상한 일이다.

이제 꼬리가 둥글고 발가락에 물갈퀴가 없는 육상에 사는 종Amblyrhynchus demarlii에 대해 알아보자. 이 도마뱀은 바다 도마뱀처럼 이 제도의 모든 섬에서 발견되지 않고 제도의 중심부, 즉 알베마를 섬, 제임스 섬, 배링턴 섬, 그리고 인디패티거블Indefatigable 섬에서만 보인다. 남쪽으로 있는 찰스 섬, 후드 섬, 채텀 섬, 그리고 북쪽의 타워스 섬, 빈들로즈 섬, 애빙던 섬에서는 이 도마뱀

을 보지도 듣지도 못했다. 마치 제도의 중심부에서 생겨나 특정한 거리 안에서만 전파되었던 것 같다. 이 도마뱀 중 일부는 고지대의 습지에 살기도 하지만 해안 근처 저지대의 메마른 지역에 훨씬 더 많이 서식한다. 이 도마뱀이 얼마나 많은지를 보여 줄 강력한 증거를 들자면, 우리가 제임스 섬에 남았을 때, 이 도마뱀 굴이 없는 자리를 골라 천막 하나 칠 자리를 찾는 데만도 한참 걸렸다는 얘기만 한 것도 없을 것이다. 이것들도 형제 격인 바다 도마뱀처럼 못생겼는데, 배 쪽은 노란 오렌지빛이 돌고, 등 쪽은 적갈색이다. 안면각[11]이 낮다 보니 얼굴도 유난히 아둔해 보인다. 육지 도마뱀들이 바다에 사는 종보다 비교적 크기가 작아 보이는데, 그래도 그중 몇몇은 5~7킬로그램이나 나가기도 한다. 그것들이 움직일 때 보면, 게으르고 반쯤 자고 있는 것 같다. 놀랐을 때가 아니면 꼬리와 배를 바닥에 질질 끌며 천천히 기어간다. 그러다가 가끔 멈춰 서서는 1, 2분 정도 졸기도 하는데, 그럴 때면 눈을 감고 뒷다리는 메마른 땅 위에 쭉 뻗은 모습이다.

육지 도마뱀은 용암 조각 사이에 굴을 파고 사는데, 대개는 부드러운 사암 느낌의 평평한 응회암 위에 만들 때가 더 많다. 구멍은 그다지 깊어 보이지 않으며 들어가는 부분이 지면과 이루는 각이 작아서 그 도마뱀 굴 위로 걸어갈 때면 땅이 계속 무너져서 걷기에 지친 사람 입장에서는 무척 성가셨다. 이 동물은 굴을 팔 때면 몸의 양쪽을 교대로 사용한다. 한쪽 앞다리로 잠깐 동안 땅을 긁어 올려서는 뒷다리 쪽으로 밀어 보낸다. 뒷다리는 굴 입구 밖으로 흙을 내던지기에 좋게 자리 잡고 있다. 이 일을 하다가 한쪽이 지치면 다른 쪽 다리로 일을 하고, 이렇듯 계속 교대로 작업을 한다. 도마뱀의 몸이 반쯤 묻힐 때까지 한참 동안 이걸 관찰하다가 걸어가서 도마뱀의 꼬리를 잡아당겨 보았다. 그러자 그것은 무척 놀란 듯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황급히 두리번거리더니 내 얼굴을 빤히 쳐다보는 것이, 마치 "어째서 내 꼬리를 잡아당기는 거야?"라고 묻는 것만 같았다.

11 동물의 얼굴을 옆에서 보았을 때 턱의 돌출도를 나타내는 각도-역주.

이 도마뱀들은 낮에 먹이를 먹으며 자기 굴에서 멀리 돌아다니지 않는다. 놀라게 하면 매우 어색한 걸음걸이로 서둘러 도망간다. 언덕을 달려 내려갈 때 말고는 그다지 빨리 움직이지 못하는데, 이는 분명 다리가 몸통 옆쪽에 붙어 있기 때문이다. 겁은 전혀 없어서 어떤 놈이든 골라서 주의 깊게 관찰하면 그것들은 꼬리를 돌돌 말고 앞발로 버티고 서서는 고개를 아래위로 빠르게 끄덕이면서 아주 사납게 보이려고 애쓴다. 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사납지 않다. 사람이 발로 한 번만 땅을 구르면 그것은 꼬리를 내리고 최대한 잽싸게 달아난다. 작은 파리를 잡아먹는 도마뱀들이 무엇인가를 주의해서 볼 때도 바로 그 모습대로 고개를 끄덕이는 것을 여러 번 봤다. 하지만 왜 그러는지는 전혀 모르겠다. 이 암블리린쿠스를 붙잡아서 막대기로 괴롭히면 막대기를 아주 꽉 문다. 그런데 내가 놈들의 꼬리를 당겨 여러 마리를 잡았는데도 그것들은 절대 나를 물지 않았다. 만일 두 마리를 한데 붙여 땅에 내려놓으면 서로 물고 뜯어서 피가 흐를 때까지 싸울 것이다.

저지대에 살고 있는 더 많은 도마뱀들은 1년을 통틀어 물 한 방울 먹기 어렵다. 하지만 다량의 다즙 선인장을 먹고 사는데, 선인장 가지는 때때로 바람에도 부러지곤 한다. 가끔씩 선인장 한 조각을 두세 마리가 함께 모여 있는 데에다 던져 주고 그것들이 뼈다귀를 갖고 다투는 개들처럼 먹이를 잡아서 제 입에 가져가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는 것도 재미있었다. 이 도마뱀들은 먹이를 아주 천천히 먹지만 씹지는 않는다. 작은 새들도 이 피조물들이 얼마나 온순한지 알고 있어서, 굵은부리핀치 한 마리가 도마뱀 한 마리가 먹고 있는 선인장(모든 저지대 동물들이 즐겨 먹는 것이다)의 다른 쪽 끝을 쪼아 먹고 있는 것을 본 적도 있다. 다 먹고 나자 그 작은 새는 아무 상관 없다는 듯 도마뱀의 등 위로 뛰어올랐다.

도마뱀의 위를 해부해 보았더니 식물성 섬유질과 각양각색의 나뭇잎, 그것도 아카시아 잎으로 가득 차 있었다. 고지대에 사는 도마뱀들은 주로 시큼하고 떠름한 구아야비타 열매를 먹고 산다. 그 나무 아래에서 이 도마뱀들과 거대

한 육지거북이 함께 열매를 먹고 있는 것을 보았다. 도마뱀들은 아카시아 잎을 먹으려고 낮은 나무를 기어 올라가는데, 지면에서 몇 미터 안 올라간 나뭇가지에 한 쌍이 올라앉아 조용히 잎을 뜯어 먹는 것을 흔히 볼 수 있다. 이 도마뱀을 요리하면 흰 살코기가 나오는데, 음식을 가리지 않고 잘 먹는 사람들은 이 고기를 좋아한다.

훔볼트는 남아메리카 열대 지방의 건조한 지역에 살고 있는 도마뱀들은 별미거리로 여겨진다고 했다. 주민들의 말에 의하면, 고지대의 습지에 살고 있는 도마뱀들은 물을 마시지만 다른 곳에 살고 있는 것들은 물을 마시지 못하므로 앞서 말한 육지거북처럼 저지대의 메마른 지역에서 물을 찾아 올라간다고 한다. 우리가 방문했던 당시에는 암컷들이 크고 길쭉한 모양의 알을 많이 배고 있었는데, 이것들은 굴속에 알을 낳는다. 지역 주민들은 식용으로 이 알을 찾아다닌다.

앞서 얘기했듯 암블리린쿠스 2종은 전반적인 신체 구조와 여러 가지 습관에서 일치한다. 2종 모두 천천히 움직이는데, 이는 도마뱀속Lacerta과 이구아나속Iguana의 특징이다. 먹고 사는 식물의 종류는 서로 다르지만 둘 다 초식성이다. 벨 씨는 유독 짧은 주둥이의 모양을 따서 이 속의 이름을 지었다. 사실, 주둥이 부분의 형태는 거의 거북과 같다고 할 수 있다. 아마도 초식인 식성에 따라 변형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제한된 세상의 한 귀퉁이에서 같은 속으로 분류되는데 바다에 사는 종과 육지에 사는 종이 함께 있다는 것을 발견한다는 것은 무척이나 흥미로운 일이다. 물에 사는 종은 유일하게 해양식물을 먹고 사는 현생종 도마뱀이기 때문에 더더욱 주목할 만하다. 내가 처음에 관찰했듯이, 이곳 섬들에 사는 파충류의 종수는 개체 수에 비해 그다지 많지 않다. 수천 마리의 거대한 육지거북이 탄탄하게 다져 놓은 길과 수많은 바다거북, 육지 암블리린쿠스들이 파놓은 커다란 굴들, 그리고 이 제도 모든 섬의 바위 해안에서 일광욕을 하는 해양 도마뱀 무리들을 되돌아보면, 이 파충류라는 목目이 이렇게 독특한 방식으로 초식 포유류를 대신하는 곳은 이 세상 다른 어느

곳에도 없을 것이라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지질학자가 이 얘기를 듣는다면, 아마도 크기는 현존하는 고래와 맞먹는 초식성과 육식성 도마뱀들이 육지고 바다고 할 것 없이 들끓었던 제2기를 떠올릴 것이다. 따라서 이 제도는 기후가 습윤하고 식물상이 무성하기는커녕 극도로 건조하다고밖에는 달리 생각할 수 없으며, 적도 지역치고는 두드러지게 온난하기 때문에 지질학자들이 관찰할 만한 가치가 있다.

동물에 대한 설명을 마무리 지어야겠다. 여기서 찾은 15종의 바닷물고기들은 모두 새로운 종이다. 그 종들은 모두 12개 속에 해당하는데, 아메리카 대륙 동해안에 4종이 서식하고 있다고 이미 알려진 프리오노투스Prionotus(성대과의 한 속)를 빼고는 모두 널리 분포되어 있다. 달팽이는 16종(2종의 두드러진 변종을 포함해서)을 찾았으며 그중 타히티 섬에서 발견된 나선달팽이속Helix 1종을 빼고는 모두 이 제도에서만 볼 수 있다. 담수 조개로 유일한 속Paludina은 타히티 섬과 반디멘스랜드에서도 흔히 볼 수 있다. 커밍 씨는 우리가 오기 전에 이곳에서 바닷조개를 90종 찾았는데, 아직 명확하게 연구되지 않은 밤고둥, 각시고둥, 좁쌀고둥 등에 속하는 몇 종들은 제외한 것이다. 그는 친절하게도 내게 다음과 같은 재미있는 결과들을 알려 주었다. 90종의 조개 중에서 적어도 47종은 어디서도 찾을 수 없는 것이었다. 일반적으로 바닷조개들이 얼마나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는가를 생각하면 놀라운 일이다. 지구 상의 다른 지역에서도 발견되는 나머지 조개들 43종 중 25종은 아메리카 대륙 서해안에 서식하며, 그중 8종은 뚜렷한 변종이다. 나머지 18종(한 가지 변종을 포함하여)은 커밍 씨가 로 제도에서 발견했고, 그중 몇 가지는 필리핀에서도 발견된다. 태평양 한가운데 있는 섬에 사는 조개가 이곳에서도 발견된다는 사실은 주목할 만하다. 왜냐하면 태평양 섬 지대에 서식하면서 아메리카 대륙의 서해안에서도 나온다고 알려진 바닷조개는 이제껏 한 종도 없었기 때문이다. 아메리카 대륙 서해안에서 벗어나 남북으로 펼쳐진 광활한 대양은 조개류 분포 구역을 뚜렷하게 두 지역으로 갈라놓는다. 하지만 갈라파고스 제도에는 다수의 신생종이 생겨

나는 일종의 '절충 지대'가 있으며, 거대한 두 개의 조개류 분포 구역 또한 이 곳으로 각각 몇몇 종씩을 옮겨 보낸다. 이곳 조개 중에는 아메리카 쪽 조개류 분포 구역에서 보낸 대표적인 것도 있는데, 아메리카 대륙 서해안에서만 발견되는 외뿔고둥속Monoceros에 해당하면서 갈라파고스 제도에 고유한 종 하나가 바로 그것이다. 그리고 역시 아메리카 대륙 서해안에서는 흔하지만 (커밍 씨의 말에 의하면) 태평양 한가운데 있는 섬에서는 발견되지 않는 구멍삿갓조개속과 감생이고둥속Cancellaria에 해당하면서 갈라파고스 제도에 고유한 종들도 있다. 반면, 서인도 제도와 중국 및 인도의 바다에는 흔하지만 아메리카 대륙 서해안이나 태평양 한가운데에서는 발견되지 않는 오니시아Oniscia와 스타일리페르Stylifer에 속하는 것으로 갈라파고스 제도에 고유한 종들도 있다. 덧붙여 커밍 씨와 힌즈 씨가 아메리카 대륙의 동해안과 서해안에서 채집한 2천 종의 조개들을 비교한 결과, 서인도 제도와 파나마 해안, 그리고 갈라파고스 제도에 서식하는 푸르푸라 파툴라Purpura patula라는 조개 1종만이 양쪽에 공통적으로 살고 있다. 따라서 이 지역에서는 아주 뚜렷하게 나타나는 거대한 조개류 분포 구역 세 곳이 놀랄 만큼 서로 가까우면서도 남북으로 길게 뻗은 육지 또는 대양으로 인해 분리된다.

곤충채집은 무척 고통스러웠다. 하지만 티에라델푸에고를 빼고는 이렇게 곤충이 적은 곳도 처음이었다. 고지대의 습지에서조차 대개 흔히 볼 수 있는 작은 파리목과 벌목을 빼고는 곤충을 거의 잡지 못했다. 앞서 말했듯이, 열대 지역치고는 곤충들의 크기가 매우 작고 색깔도 옅다. 딱정벌레는 25종(선박이 닿는 곳이면 어디든 전파되는 수시렁잇과Dermestes와 개미붙잇과Corynetes를 제외하고)을 채집했다. 이 중 2종은 초식성 먼지벌레과Harpalidae, 또 2종은 물땡땡이과Hydrophilidae, 9종은 세 과로 나뉘는 헤테로메라과Heteromera에 해당하며, 나머지 12종은 각각 12개의 서로 다른 과에 속한다. 이렇게 수는 적지만 서로 다른 여러 과에 속하는 곤충들이 있는 환경(식물 환경도 마찬가지지만)은 내 생각에는 무척 일반적인 것 같다. 이 제도의 곤충에 관한 연구 논문을 발표했을 뿐 아니

라 앞서 말한 내용을 내게 알려 준 워터하우스 씨[12]는 곤충들 중에 몇 개의 새로운 속이 있으며, 새로운 속이 아닌 것들 중에는 아메리카에 있는 속이 1~2개 있고 나머지는 일반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것들이라고 알려주었다. 나무를 좀먹는 아파테나방과 아메리카 대륙에서 건너온 물에 사는 딱정벌레 1~2종을 제외하고는 모든 종들이 새로운 종으로 보인다.

이 제도의 식물상은 동물상만큼이나 흥미롭다. 후커 박사가 그 내용을 조만간 《린네 회보》에 발표할 예정인데, 다음의 자세한 내용들은 상당 부분 그에게서 얻은 것이다. 지금까지 알아낸 바로 이곳에는 꽃식물 185종과 민꽃식물 40종 해서 225종의 식물이 있다. 나는 운 좋게도 이 중 193종을 채집해 올 수 있었다. 꽃식물 중에서는 1백 종이 신종이고, 아마도 이 제도에 고유한 것 같다. 후커 박사는 이 지역에 국한되지 않은 식물들 중에서, 찰스 섬 경작지 주변에서 발견한 적어도 10종쯤 되는 식물들은 외지에서 유입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거리가 800~960킬로미터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콜넷의 저서 58쪽에 따르면 부목浮木, 대나무, 등나무 줄기, 그리고 야자 열매 등이 종종 동남쪽 해안으로 쓸려 올라온다는 점에도 불구하고 좀 더 많은 아메리카 대륙의 종들이 자연스럽게 유입되지 않았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내 생각에, 185종(외지에서 유입된 잡풀들을 제외하면 175종) 중에서 신종인 100종이 차지하는 비율은 갈라파고스 제도를 뚜렷이 구분되는 식물 분포 구역이라고 규정하기에 충분한 근거다. 하지만 이곳의 식물상도 세인트헬레나 섬의 식물상만큼, 또는 후커 박사의 얘기대로라면 후안페르난데스 제도만큼 독특하지는 않은 것 같다. 갈라파고스 제도 식물상의 독특함은 특정 과에서 아주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즉, 이곳에는 21종의 국화과 식물들이 있는데, 그중 무려 20종이 이 제도에 고유한 종이다. 이 국화과 식물들은 12가지 속으로 구분되는데, 그중 이 제도에 고유한 속이 무려 10종이나 된다! 후커 박사는 이곳 식물상이 의심할 바 없이 아메리카 대륙 서부 식물상의 특징을 지니고 있으며, 태

12 《자연사 학술지 연보Ann. and Mag. of Nat. Hist.》 16권, 19쪽.

평양 지역의 식물상과는 어떠한 연관성도 찾아낼 수 없다고 알려 주었다. 따라서 태평양 중심부의 섬에서 들어온 외래종이 분명한 해양 생물 18종, 담수 생물 1종, 달팽이 1종, 그리고 마찬가지로 갈라파고스 핀치군 중 유일하게 구분되는 태평양 지역의 종 하나를 제외하면, 이 제도는 비록 태평양에 위치하고 있지만 생물학적으로는 아메리카 대륙에 들어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특징이 단지 아메리카 대륙에서 건너온 동식물 때문이라면 특별히 주목할 것은 없다. 하지만 이곳의 육지 동물 대다수와 꽃식물 중 과반수가 토착종임을 알고 있다. 새로 발견한 새들, 처음 보는 파충류, 낯선 조개와 곤충, 식물들, 그리고 그것들의 다양하고 미세한 세부 구조, 더 나아가 새들의 울음소리와 날갯짓에 둘러싸이면, 파타고니아의 온난한 평원 혹은 칠레 북부 지역의 뜨겁고 건조한 사막이 내 눈앞에 생생하게 펼쳐지는 듯하다는 점이 무엇보다 인상적이다. 주변 지역이 최근세에 바다가 된 것이 분명한 이 작은 땅덩어리들, 현무암질 용암으로 이루어져 아메리카 대륙과는 지질학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으며 특유의 기후를 지닌 이곳에, 왜 그러한 토착종들이, 그것도 (내 생각에는) 대륙에 있는 종들과는 종과 개체 수의 비율도 다르게, 따라서 서로 다른 방식으로 영향을 주며 생겨났을까? 왜 이 종들은 아메리카 대륙의 생물 유형을 따라 만들어졌을까? 갈라파고스 제도가 아메리카 대륙 해안과 비슷한 정도보다는 카보베르데 제도와 모든 자연적인 조건에서 훨씬 더 밀접하게 닮았을 것이다. 하지만 두 제도의 토착 동식물은 전적으로 다르다. 카보베르데 제도의 동식물 상은 아프리카 같다는 인상을 주는 반면, 갈라파고스 제도의 동식물들은 아메리카 대륙 것들과 판박이다.

나는 아직 자연사自然史상 이 제도의 자연사에서 가장 놀라운 특징을 언급하지 않았다. 바로,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는 각기 다른 섬마다 서로 다른 생물군이 서식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부총독 로슨 씨가 섬들마다 살고 있는 육지거북이 달라서 어떤 것이 어느 섬에서 왔는지 확실하게 알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을 보고 처음 이 사실에 주목하게 되었다. 한동안은 그 이야기에 관심을 충

분히 기울이지 않고 있었고, 게다가 이미 두 곳의 섬에서 얻은 표본들을 부분적으로 섞어 놓은 상태였다. 서로 80~100킬로미터씩 떨어져 있고, 거의 대부분의 섬들끼리 서로 건너다보이며, 정확히 똑같은 암석으로 이루어졌고, 매우 유사한 기후대에 속한 데다 해발고도도 거의 같은 섬들에 서로 다른 생물들이 살고 있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하지만 우리는 머잖아 이곳이 바로 그런 경우임을 알게 된다. 대부분의 항해자들이 그 지역에서 가장 흥미로운 것을 발견하자마자 서둘러 떠나는 운명에 처하곤 한다. 하지만 나는 생물의 분포에 있어 이렇듯 가장 두드러진 사실을 입증할 만한 충분한 자료를 얻었다는 것에 감사해야 할 것이다.

앞서 말했듯이, 이곳 주민들은 자기들이 각 섬에서 온 육지거북들을 구별할 수 있으며, 또한 그것들은 크기뿐 아니라 특징에서도 서로 다르다고 얘기한다. 포터 함장[13]은 찰스 섬과 그곳에서 가장 가까운 섬인 후즈 섬에서 온 육지거북이 앞쪽 등딱지가 두껍고 스페인식 말안장처럼 위로 들린 반면, 제임스 섬의 육지거북은 더 둥글고 검으며 요리하면 맛이 더 좋다고 기술했다. 게다가 비브롱 씨는 갈라파고스 제도에서 온, 뚜렷이 구분되는 것으로 보이는 육지거북 2종을 보았으나 어느 섬에서 왔는지는 모르겠다고 했다. 내가 세 군데 섬에서 가져온 표본들은 어린 것들이고, 그래서 그런지 그레이 씨나 나나 특별한 차이점은 찾아내지 못했다. 알베마를 섬에 사는 바다 암블리린쿠스는 다른 어느 곳에 사는 것보다 크다는 얘기를 앞에서 했다. 비브롱 씨는 이 속에 해당하는, 뚜렷이 구분되는 물에 사는 도마뱀 2종을 보았으며, 따라서 각각의 다른 섬에는 아마도 대표적인 육지거북뿐 아니라 대표적인 암블리린쿠스 종이 있을 것이라는 얘기를 해 주었다. 나와 같이 승선한 몇몇 다른 일행들이 쏘아 잡은 수많은 개똥지빠귀 표본들을 함께 비교하던 나는, 놀랍게도 찰스 섬에서 온 것들은 모두 미무스 트리파스시아투스Mimus trifasciatus, 알베마를 섬에서 온 것들은 미무스 파르불루스Mimus Parvulus, 그리고 제임스 섬과 채텀 섬(이 두

13 《미합중국 군함 에식스호 항해기Voyage in the U. S. Ship Essex》, 1권, 215쪽.

섬 사이에는 다른 섬 두 개가 마치 줄지어 있는 것처럼 더 있다)에서 온 것들은 미무스 멜라노티스Mimus melanotis라는 종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발견하고는 처음으로 주의를 기울이기 시작했다. 뒤의 두 종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몇몇 조류학자들은 그저 눈에 띄는 변종일 뿐이라고 여기기도 하지만, 맨 처음에 말한 미무스 트리파스시아투스는 아주 뚜렷하게 구분된다.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핀치 표본들은 죄다 뒤섞였지만, 게오스피자 하위 그룹에 해당하는 몇 종은 각각 섬에 고유하다고 생각할 만한 근거가 충분하다. 만일 서로 다른 섬마다 게오스피자 그룹에 속하는 각각의 대표 종이 있다면, 이렇게 작은 제도에서 이 하위 그룹 안에 이토록 유별나게 많은 종이 존재한다는 점과 그 많은 종 때문에 있을 법한 결과, 즉 완벽하게 크기별로 각 단계에 해당하는 부리를 지닌 종들이 모두 있다는 점을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칵토르니스 하위 그룹의 2종과 카마린쿠스에 해당하는 2종도 이 제도에서 찾았다. 그리고 제임스 섬에서 이 두 하위 그룹의 수많은 표본을 네 명의 채집가들이 쏘아 잡았는데, 모두 각 하위 그룹 중 각각 1종에 해당하며, 반면 채텀 섬 아니면 찰스 섬(두 섬에서 잡은 것

들이 섞여 버렸다)에서 잡은 수많은 표본들은 나머지 2종에 속한다. 따라서 우리는 이 섬들 각각에 위의 두 하위 그룹에 해당하는 고유한 종이 있다고 거의 확신할 수 있다. 달팽이들의 경우에는 이러한 분포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워터하우스 씨 얘기로는, 내가 채집한 얼마 안 되는 곤충들 중 채집 장소를 쓴 딱지를 붙여 놓은 것들은 각각 그 섬 외에 다른 섬에서는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이제 식물상을 보면, 각기 다른 섬의 토착 식물들은 경이로울 정도로 다르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나의 벗 J. 후커 박사의 고견을 근거로 다음의 모든 결과물을 제시하겠다. 서로 다른 섬에서 피어 있는 꽃이란 꽃은 모두 무차별적으로 채집했다는 것과 다행히도 채집한 것들을 따로따로 보관했다는 것을 전제로 하자. 그래도 비례적인 결과들을 너무 확신하지는 말아야 하는데, 몇몇 다른 자연사학자들이 고향으로 가져온 소수의 채집 표본들은 한편으로는 결과에 대한 확신을 주기도 하지만, 솔직히 말해 이 제도의 식물상에 대해 더 연구할 것이 훨씬 많다는 것을 보여 주기 때문이다. 더구나 콩과는 여태껏 대략적으로만 연구되어 왔으니 말이다.

섬 이름	종種의 수	다른 지역에서도 발견되는 종의 수	갈라파고스 제도에 고유한 종의 수	한 섬에서만 고유한 종의 수	갈라파고스 제도에 고유하지만 하나 이상의 섬에 사는 종의 수
제임스 섬	71	33	38	30	8
알베마를 섬	4	18	26	22	4
채텀 섬	32	16	16	12	4
찰스 섬	68	39*	29	21	8

*(타 지역에서 유입된 것으로 보이는 식물들을 제외하면 29종)

이 결과를 통해 갈라파고스 제도에 고유하며 다른 곳에서는 발견되지 않는 식

물 38종 중 30종이 제임스 섬 한곳에서만 발견된다는 대단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알베마를 섬에서는 26종의 갈라파고스 토착 식물 중에서 22종이 그곳에서만 발견되는 것으로, 다시 말하면 지금에 와서는 단 4종만이 이 제도의 다른 섬에서도 자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위의 표를 보면 채텀 섬과 찰스 섬의 식물들도 마찬가지라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몇 가지 예를 들어 보면 더욱 두드러질 것이다. 한 예로, 국화과 식물 중에서 뚜렷하게 나무 모양을 하고 있는 스칼레시아속Scalesia에는 6종이 있다. 채텀 섬, 알베마를 섬, 찰스 섬에서 각 1종, 제임스 섬에서 2종이 나며, 여섯 번째 종은 나머지 세 섬 중 하나에서 나는데 어느 섬인지 모르겠다. 이 중 어느 한 종도 두 군데 이상의 섬에서 나지 않는다. 예를 하나 더 들자면, 분포 지역이 넓어서 흔히 볼 수 있는 등대풀속Euphoria의 경우 이곳에 8종이 있는데, 그중 7종이 갈라파고스 제도의 고유종이며 두 곳 이상의 섬에서 발견되지 않는다. 역시 흔히 볼 수 있는 깨풀속Acalypha과 보헤리아속Borreria[14]에 해당하는 식물로는 각각 6종, 7종이 있는데, 이것들 역시 두 섬에서 발견되는 보헤리아속 중 1종을 제외하고는 두 섬에 같은 종이 있는 경우가 없다. 국화과 식물들은 유별나게 지역성이 크다. 후커 박사가 각 섬마다 나타나는 종의 차이를 아주 두드러지게 보여 주는 몇 가지 사례를 알려 주었다. 그는 이 분포의 법칙이 이 제도에 국한된 속에 유효할 뿐 아니라 지구의 다른 지역에 분포된 속에도 적용된다고 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각각의 다른 섬마다 흔히 보는 육지거북속이라든가 아메리카 대륙에 널리 분포되어 있는 흉내지빠귀속에 해당하는 고유종이 있다는 것을 관찰했으며, 갈라파고스 핀치의 두 가지 하위 그룹, 그리고 확신하건대 갈라파고스 제도에 있는 암블리린쿠스속도 이런 경우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한 섬에는 흉내지빠귀가 있고 다른 섬에는 완전히 구별되는 다른 속이 있거나, 한 섬에는 그곳에 고유한 도마뱀이 있지만 다른 섬에는 역시 아예 다른 속이 있거나 또는 아예 없다면, 아니면 각기 다른 섬에 같은 속 식물의 서로 다른 대표 종이 자라

14 꼭두서니과Rubiaceae의 한 속.

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다른 속의 식물들이 자라는 등 위의 법칙이 어느 정도까지만 유효하다면, 이 제도에 서식하는 동식물의 분포는 그리 경이로운 것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제임스 섬에는 커다란 열매나무가 있지만, 찰스 섬에는 그와 같은 속에 해당하는 종이 없다. 하지만 몇몇 섬에 고유한 종인 육지거북, 흉내지빠귀, 핀치 및 수많은 식물들이 있는 상황에서, 이 종들이 전반적인 습성이 같고, 유사한 환경에서 살고 있으며, 이 제도에서 나타나는 자연의 섭리에서 동일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나를 경이로움에 휩싸이게 만든다. 적어도 육지거북과 몇 가지 조류의 경우, 이렇게 고유한 대표 종 몇 가지는 앞으로 뚜렷이 구별되는 유일한 계통으로 밝혀질 수도 있다. 이는 자연철학자들에게도 그만큼 커다란 관심거리가 될 것이다. 앞에서 대부분의 섬에서는 다른 섬이 건너다보인다고 했다. 찰스 섬은 채텀 섬과 가장 가까운 지점에서 보면 80킬로미터 떨어져 있으며, 알베마를 섬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는 53킬로미터 떨어져 있다. 채텀 섬은 제임스 섬과 가장 가까운 지점에서부터는 95킬로미터 떨어져 있지만 그 사이에는 내가 가보지 못한 섬이 두 개 더 있다. 제임스 섬은 알베마를 섬의 가장 가까운 부분에서 16킬로미터밖에 떨어져 있지 않지만, 각 섬에서 채집을 시행했던 두 지점은 52킬로미터 떨어져 있다. 다시 한번 토양, 고도, 기후 및 그와 연관된 생물들의 전반적인 특징과 그에 따른 개체 간의 상호작용 등 어떤 것도 각 섬마다 크게 다를 바 없다는 얘기를 하겠다. 만일 날씨가 조금이라도 다르게 느껴진다면 그건 아마도 바람이 불어오는 쪽에 있는 섬들(찰스 섬과 채텀 섬)과 바람이 불어 가는 쪽에 있는 섬들 간의 차이 탓일 것이다. 하지만 양쪽 섬들 간에는 그런 차이에 따른 동식물 상의 차이는 전혀 없는 것 같다.

이렇듯 각기 다른 섬에 살고 있는 동식물 상 사이의 뚜렷한 차이점에 대해 내가 제시할 수 있는 사실은 하나밖에 없다. 서쪽과 서북서 방향으로 흐르는 매우 거센 해류가 바다에 의한 운반 작용으로 남쪽의 섬들과 북쪽의 섬들을 갈라놓을 수밖에 없으며, 북쪽 섬들 사이에는 강한 북서 해류가 있어 제임스 섬

과 알베마를 섬을 실질적으로 분리시킨다는 것이다. 갈라파고스 제도에는 거센 바람이 없기 때문에 새나 곤충, 혹은 가벼운 씨앗들이 섬에서 섬으로 날아가지 않는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섬 사이 바다의 헤아릴 수 없는 깊이, 그리고 이곳이 (지질학적인 면에서) 분명히 최근에 생성된 화산지형이라는 점은 이 섬들이 한때는 붙어 있었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해 준다. 그리고 아마도 이것은 동식물의 지리적인 분포에 있어 다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고려 대상이 된다.

여기까지 설명한 사실들을 돌아보면, 이 작고 황폐한 바위투성이 섬들에 나타난 엄청난 창조력—이런 표현을 써도 괜찮다면—에 놀란다. 더구나 그 창조력이 그토록 가까운 지점에서 다양하면서도 유사하게 작용했다는 점에 더 놀란다. 갈라파고스 제도를 아메리카 대륙에 붙은 위성이라 해도 좋을 것이라 말한 적이 있다. 하지만 여러 섬들이 자연적으로는 유사하고 생물학적으로는 뚜렷이 다르면서도 서로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섬들끼리의 연관성보다는 훨씬 덜하지만 제도 전체가 거대한 아메리카 대륙에 명백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점을 보면, '위성'보다는 '위성 그룹'이라 불리는 편이 나을 것이다.

이제, 사람을 전혀 무서워하지 않는 새들에 대해 설명하는 것으로 이 제도의 자연사에 대한 기술을 끝맺고자 한다.

이러한 성향은 흉내지빠귀, 핀치새, 굴뚝새, 산적딱새, 비둘기, 그리고 죽은 고기를 먹는 수리 등 모든 육상 조류들에게 공통적이다. 이 새들은 종종 회초리로 때려잡기에도 충분할 정도로 가까이 다가오는데, 나도 때로 해 봤듯이 모자로 잡을 수도 있을 정도였다. 나무에 앉은 매를 총구로 밀어 떨어뜨릴 정도이니까 이곳에서 총은 거의 사치품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하루는 내가 누워서 손에 들고 있는 육지거북 등딱지로 만든 물 주전자 가장자리에 흉내지빠귀가 올라앉아서는 아주 조용히 물을 마시기 시작했다. 새가 주전자에 앉아 있는 동안 나는 땅에서 일어날 수 있었다. 나는 몇 번 새의 다리를 잡으려고 해 봤는데, 거의 성공할 뻔했다. 예전에는 새들이 지금보다 훨씬 더 사람들을

겁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카울리(1684년)는 "거북비둘기는 사람을 겁내지 않아서 모자나 팔 위에도 종종 내려앉기 때문에 산 채로 잡을 수 있었다. 우리 일행 중 몇몇이 총을 쏠 때까지는 사람을 겁내지 않았지만 그 후로는 좀 더 겁이 많아졌다"라고 얘기한 바 있다. 같은 해에 댐피어 역시 아침 산책을 하다 보면 이 거북비둘기를 70~80마리는 잡을 수 있다고 했다. 지금도 분명 사람을 겁내지는 않지만, 이제는 사람들 팔에 올라앉거나 그렇게 여러 마리가 잡힐 때까지 가만히 있지도 않는다. 이 섬들에는 지난 150년간 해적과 고래잡이들이 수시로 오갔으며, 육지거북을 찾아 숲을 뒤지던 선원들이 그 작은 새들을 잔인하게 쏘아 잡기를 즐겼다는 것을 보면, 그 새들이 더 사나워지지 않은 것이 놀라울 지경이다. 이 새들은 지금도 여전히 괴롭힘을 당하지만, 사납게 굴지 않는다. 6년 전부터 사람이 살기 시작한 찰스 섬에서 손에 회초리를 들고 우물가에 앉아 있던 한 소년이 물을 마시러 오는 비둘기며 핀치를 잡는 것을 본 적이 있다. 그 아이는 이미 저녁 식사 거리로 한 더미를 잡은 상태였으며, 새를 잡으려고 우물가에 앉아 기다리는 일이 습관이 되었다고 했다. 이 제도의 새들은 아직 인간이 육지거북이나 암블리린쿠스보다 더 위험한 동물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 채 인간을 무시하는 것 같다. 마치 영국에서 까치 같은 겁 많은 새가 들판에서 풀을 뜯는 소나 말을 무시하듯이 말이다.

포클랜드 제도에서는 이와 유사한 성질을 지닌 새들에 관한 두 번째 예를 찾을 수 있다. 페르네티, 레송 및 다른 항해자들이 오페티오린쿠스Opetiorhynchus라는 작은 새가 사람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이는 그 새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폴리보루스속Polyborus의 새들, 도요새, 고지대와 저지대의 거위, 개똥지빠귀, 멧새, 그리고 심지어 몇 종의 매에 이르는 모든 조류들이 어지간해서는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는다. 여우나 매, 올빼미들이 있는 그곳(포클랜드 제도)에서도 새들이 겁이 없는 것을 보면, 갈라파고스 제도의 새들이 겁이 없는 것은 육식동물이 없기 때문인 건 아니라고 추측할 수 있다. 포클랜드 제도의 고지대 거위들은 작은 섬에 둥지를 지어 경계하는 것으

로 보아 여우의 위협을 두려워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에게까지 야성을 드러내지는 않는다.

새들, 그중에서도 특히 물새들이 사람을 겁내지 않는 것은 과거 티에라델푸에고에서 오랫동안 원주민의 괴롭힘을 받아 왔던 같은 종의 습성과 뚜렷하게 대조된다. 포클랜드 제도에서 사냥꾼은 하루 동안 집에 가져가고도 남을 만큼의 고지대 거위를 잡는 반면, 티에라델푸에고에서는 영국에서 보통의 야생 거위를 잡는 것처럼 한 마리 잡기도 어렵다.

페르네티가 와 있던 시절(1763년)에는 모든 새들이 지금보다 훨씬 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는 오페티오린쿠스가 거의 자기 손가락에 앉을 뻔했으며 지팡이로 30분 만에 10마리나 잡았다고 했다. 당시 그곳에 있던 새들은 지금 갈라파고스 제도의 새들만큼 겁이 없었던 게 틀림없다. 갈라파고스 제도에 있는 새들은 알맞은 경험을 할 수 있었던 포클랜드 제도에서보다 더 천천히 경각심을 익혀 온 것 같다. 포클랜드 제도에는 자주 배의 왕래가 있었던 것 말고도 전 기간 동안 간간이 사람이 살았기 때문이다. 페르네티의 설명에 따르면, 모든 새들이 사람을 그토록 겁내지 않았던 예전에도 검은목고니는 잡을 수가 없었다고 한다. 그 새는 철새니까 아마도 다른 나라에서 경각심을 갖게 되었을 것이다.

뒤부아에 의하면 1571년에서 1572년 사이, 홍학과 거위를 제외한 부르봉 섬의 모든 새들은 사람을 전혀 겁내지 않아서 손으로, 혹은 막대기로 얼마든지 잡

을 수 있었다고 한다. 또 카마이클[15]은 대서양의 트리스탄다쿠냐 섬[16]에서는 개똥지빠귀와 멧새과에 속하는 단 2종의 육상 조류만이 "너무나 겁이 없어서 손그물로도 잡힌다"라고 기술하고 있다. 이 몇 가지 사실들로부터 첫째, 사람에 대한 새의 야생성은 '인간'을 경계하는 특정 본능이며, 다른 종류의 위험 요인에 대한 경계심의 정도에 영향받지 않는다는 것, 둘째, 이는 비록 다른 종들에게 많이 시달렸더라도 개개의 새들이 단기간에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세대에 걸쳐 유전되는 것이라고 결론지을 수 있을 것 같다. 길들여진 동물들에서도 새로 획득하거나 유전되는 정신적인 습성이나 본능을 찾아볼 수 있다. 하지만 자연 상태에 있는 동물들에게서는 새로 획득한 유전적인 지식의 예를 발견하기가 아주 어렵다. 따라서 인간에 대한 새의 야생성은 유전된 습관이라고 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다. 영국에서는 사람에게 상처 입는 어린 새들이 비교적 적지만, 심지어 새끼 새까지도 모두 사람을 무서워한다. 반면에 갈라파고스 제도와 포클랜드 제도에서는 수많은 새들이 사람에게 쫓기거나 상처 입지만 아직 그들에게 유용한 두려움을 익히지 못했다. 이러한 사실에서, 한 지역에 있는 토착 생물들의 본능이 외지에서 유입된 생물의 술수나 힘에 적응하기 전에 새로운 육식동물을 들여온다면 얼마나 큰 해악을 끼칠지 예상할 수 있다.

15 《린네 회보》 12권, 496쪽. 이 주제에서 무엇보다 이례적인 사실은 북아메리카 대륙의 북극 지역에서 만난 작은 새들의 야생성이었다. (리처드슨의 《북극 동물지Fauna Bor.》 2권, 332쪽에 기술된 것처럼) 이 경우 더욱 이상한 것은, 같은 종의 몇몇은 미국 내에서 보내는 겨울 기간 동안에는 순하다는 것이다. 리처드슨 박사가 잘 얘기했듯이, 새들이 겁내는 것과 자기 둥지를 숨길 때 주의하는 정도의 차이에 대해서는 완전히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많다. 일반적으로 아주 야생성인 영국의 산비둘기가 늘 주택 근처의 관목 숲에서 새끼들을 키운다면 얼마나 이상한가!

16 남대서양 트리스탄다쿠냐 제도에 있는 영국령 섬. 1502년 포르투갈이 점령한 이후 1815년 영국이 세인트헬레나 섬에 유배 중인 나폴레옹을 감시하기 위해 점령했다. 높이 2315미터인 화산이 있다-역주.

● 1835년 9월, 비글호 일행은 갈라파고스 제도에 상륙한다. 비글호를 이끄는 피츠로이 함장은 귀족 출신에다가 성경과 창조론을 전적으로 신봉하는 사람이었다. 그가 비글호 탐사에 자연사학자를 대동한 이유 또한 창조론을 뒷받침해 줄 증거를 수집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바로 이곳 갈라파고스 제도에서 다윈은 피츠로이 함장의 목적과는 전적으로 배치背馳되는 것들을 관찰하고 깨닫기 시작하게 되니, 그야말로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다윈은 처음 한동안 갈라파고스의 주요 섬을 둘러보며 특징적인 지질구조 등을 살핀다. 그러다가 점차 이 제도의 유별난 자연사를 눈여겨보기 시작한다. 무엇보다도, 눈에 띄는 생물이 다른 지역에서는 전혀 볼 수 없는 토착종이었다. 게다가 같은 생물이라도 제도 내 섬마다 조금씩 달랐다. 다윈은 조심스럽게, "이로부터 우리는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나 지구 상의 최초의 생명체 출현이라는 위대한 사실, 미스터리 중의 미스터리에 어느 정도 근접한 것만 같다"고 기술한다.
우선 다윈은 말똥가리, 올빼미, 비둘기, 제비를 포함한 육상 조류들의 고유성이 높다는 것을 발견하는데, 그중 가장 독특한 것은 바로 그 유명한 다윈의 핀치군이었다. 다윈은 13종의 핀치들이 부리의 구조, 몸통과 꼬리, 깃털의 모양에 있어 서로 연관성을 보인다는 것을 파악했다. 그리고 그로부터 그 제도에 있던 소수 토착종 새들 중에서 하나의 종이 '선택'되어 여러 가지 다른 '목적에 맞게 변종'되었을지도 모른다는 상상을 하기 시작한다. 당시로서는 상상력의 싹에 지나지 않았겠지만, 훗날 그것이 '진화론'이라는 엄청난 개념이 되어 세계에 미친 영향을 보면 다윈의 수기를 읽는 지금의 우리들도 흥분하게 된다.
다윈은 갈라파고스 제도에서 핀치뿐 아니라 파충류에 관해서도 깊이 파고들었다. 훗날 진화론을 저술하는 계기 중 하나가 되는 '갈라파고스거북'은 지금은 국제적으로 멸종 위기에 처해 있지만, 다윈이 방문한 당시에는 개체 수가 무척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맨 처음 채텀 섬에서 그것들을 본 다윈은 마치 고대의 생물을 만난 것 같은 경외감마저 느꼈다. 갈라파고스 주민들에게 이 거북

은, 갈증을 느낄 때는 방광에 든 액체까지 제공해 주는 주요한 단백질 공급원이기도 했다. 다윈은 다른 곳에서는 흔히 보기 힘든 거북이 이 제도의 모든 섬에서 흔히 발견되는 것을 보고 토착 동물이라고 확신한다. 이 외에도 다윈은 이구아나와 비슷한 2종의 토착 도마뱀에 대해서도 매우 상세하게 기술한다. 이 2종은 각각 바다와 육지에 사는데, 이렇게 제한된 지역에서 동일한 속에 해당하면서 바다에 사는 종과 육지에 사는 종이 함께 있는 흥미로운 사례가 되었다.

어류와 조개, 곤충, 식물들까지 분석한 다윈은 이 제도가 비록 태평양에 위치해 있지만 이 모든 분석 자료들을 종합하면 마치 파타고니아가 눈앞에 떠오르는 듯하다고 했다. 지질학적으로 아메리카 대륙과 판이하게 다르며 기후 역시 독특한 이곳에 이토록 많은 토착종이, 아메리카 대륙의 생물 유형을 토대로 서로 다른 방식으로 영향을 주며 생겨난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이후 다윈의 화두가 되었다.

그리고 이어 다윈은 자연사상 가장 놀라운 특징을 깨닫는다. 바로,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는 각기 다른 섬마다 서로 다른 생물군이 서식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예를 들면, 이 제도에 고유한 육지거북 속이 있더라도 각각의 다른 섬마다 대표적인 육지거북 종이 있다는 것이다. 개똥지빠귀, 핀치, 육지거북 그리고 수많은 식물의 표본을 분석하고, 또 이 섬들이 서로 가까이 있지만 해류 때문에 실질적으로 분리되며 최근 형성된 화산지형이라는 전제까지 덧붙여 확신을 얻은 다윈은 갈라파고스 제도에서 나타나는 자연의 섭리를 실감하고 경이로움에 휩싸인다.

지금은 상식적인 개념이 되어 버린 진화론—물론 아직 입증해 가고 있는 중이다—이지만, 그 혁명성은 누구나 인정할 것이다. 한 분야의 지식만으로는 떠올리기 힘든 복합적이고 창의적인 개념을 떠올린 젊은 다윈은 생물학자이자 지질학자, 고생물학자이자 위대한 자연사학자로 성장하고 있었다.



타히티 섬과 뉴질랜드



제18장
타히티 섬과 뉴질랜드

로 제도를 지나다–타히티 섬–경관–산의 식생–에이메오의 풍경–내부 지역 답사–깊은 골짜기–잇따른 폭포들–야생 유용 식물의 수–원주민들의 금주–원주민들의 도덕적 상태–소집된 추장 회의–뉴질랜드–아일랜드 만–히파–와이마테 마을의 탐사–선교회 설립–야생형이 되어 가는 현지의 영국 잡초들–와이오미오 마을–뉴질랜드 여자의 장례식–오스트레일리아로의 항해

10월 20일 | 갈라파고스 제도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우리는 타히티 섬 방향으로 키를 돌려 5천7백 킬로미터의 기나긴 항해를 시작했다. 처음 며칠 동안은, 멀리 남아메리카 해안선에서 겨울철이면 확장되는, 어둡고 구름 낀 해역을 항해했다. 그 후로는 청명한 날씨 속에 하루 240~260킬로미터의 속도로, 끊임없이 불어오는 무역풍을 만나기 전까지, 즐겁게 항해했다. 태평양 중심부로 나아갈수록 아메리카 해안보다 온도가 점점 더 높아진다. 배 끝부분의 선실에 걸어 놓은 온도계는 밤낮으로 섭씨 27~28도 정도의 쾌적한 온도를 가리키고 있지만, 만일 여기서 섭씨 1~2도만 더 올라간다면 열기로 숨이 막힐 것이다. 로 제도 또는 데인저러스 제도라 부르는 섬 사이를 통과하면서 바라본 신기한 고리 모양의 산호초들은 물가에서 이제 막 솟아오르는 것처럼 보였는데, 그래서지 '환초 제도'라고도 부른다. 하얗게 반짝이는 긴 해변의 가장자리는 숲으로 덮여 있다. 해변은 멀어질수록 급격히 좁아져서 결국은 물 아래로 다시 잠기고 있다. 돛대 끝에서는 환초 안쪽으로 잔잔한 물결이 넓게 펼쳐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처럼 안쪽이 오목한 산호섬은 그 바깥에서 용솟음치고 있는 파도와는 어울리지 않는다. 섬의 연약한 침입자인 산호초들이, '고요한 바다'로 잘못 이름 붙여진 태평양에서 쏟아 내는 파도의 그 엄청난 파괴력과 지칠 줄 모르는 힘에 굴복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놀라울 따름이다.

11월 15일 | 남해의 항해자들에게는 오래도록 고전적인 풍경으로 남아 있는 타히티 섬을 한낮에 볼 수 있었다. 멀리 떨어져서 보면 매력적이진 않았다. 저지대의 울창한 숲은 아직 보이지 않지만, 구름이 걷히는 순간 아주 거칠고 가파른 봉우리들이 섬 한가운데에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마타바이 만에 배를 정박시키자마자 카누들이 우리 배를 둘러쌌다. 이날은 우리 식으로 하면 일요일이지만 타히티 섬에서는 월요일에 해당한다. 만일 이와 반대였다면 카누가 한 대도 오지 않았을 것이다. 안식일에는 카누를 띄우지 말라는 엄명이 내려져 있기 때문이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매력적인 타히티라는, 처음 보는 땅의 첫인상이 안겨 준 즐거움을 만끽하기 위해 배에서 내렸다. 비너스 곶에는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 웃음 띤 얼굴로 우리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들은 우리를 그 지역의 선교사인 윌슨 씨 집으로 예의 바르게 안내해 주었고, 선교사는 친절하게 길에 나와 우리를 환영해 주었다. 윌슨 씨 집에 잠시 머문 뒤, 흩어져서 산책을 하고 저녁 무렵이 되어 돌아왔다.

경작할 수 있는 곳은 섬의 나지막한 가장자리인 충적토로 된 땅을 제외하고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충적토는 산 아래쪽을 돌아가며 둥글게 쌓여 있었는데, 해안선 전역을 감싸고 있는 산호초가 파도로부터 보호해 주고 있었다. 이 산호초 안쪽에는 호수와 같은 넓은 물결이 잔잔하게 펼쳐져 있어, 원주민이 카누를 타고 안전하게 왕래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배들도 정박할 수 있다. 산호로 된 모래 해변까지 이어진 나지막한 땅에는 열대 지방에서나 볼 수 있는 아름다운 산물들로 덮여 있다. 바나나, 오렌지, 야자나무, 빵나무가 있는 지역 한가운데에는 군데군데 땅을 개간해 감자, 고구마, 사탕수수, 파인애플을 재배하고 있다. 굳이 관목이라 한다면 수입해 온 과실수인 이른바 '구아바guava'인데, 너무 번성한 나머지 마치 잡초처럼 해로운 식물이 되어 버렸다. 브라질에서는 바나나와 야자나무, 오렌지나무들이 함께 대비되면서 만들어 내는 온갖 아름다움에 자주 감탄한 적이 있다. 여기서는 반질반질하면서 손가락처럼

깊게 파인 빵나무의 커다란 잎이 눈에 띈다. 이 나무의 나뭇가지들이 영국의 참나무처럼 힘차게 앞으로 내뻗으면서—크고 영양가 많은 과일들을 매단 채—만들어 내는 작은 숲은 감탄할 만하다. 어떤 물건이 쓸모가 있는지의 여부가 사람의 눈을 즐겁게 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곳의 아름다운 나무들은 그 생산성이 높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감탄을 자아낼 만하다. 주변에 그늘이 드리워진 작고 구불구불한 길을 따라가다 보면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집들을 볼 수 있는데, 가는 곳마다 집주인들이 반갑게 맞아 주었다.
이곳의 원주민만큼 나를 기쁘게 해 준 건 없었다. 그들의 용모는 야만인이라는 생각을 이내 떨쳐 버릴 정도로 온화한 면이 있고, 더불어 문명사회로 나아가고 있음을 보여 주는 지적인 면도 풍기고 있다. 이곳 사람들은 대개 상체를 벗은 채 일하는데, 이러한 점이 그들에게 이롭게 작용하는 것 같다. 타히티 사람들은 키가 크고 어깨가 넓으며 강인하고 균형 잡힌 몸매를 지니고 있다. 유럽인의 눈에는 검은색 피부가 더 상쾌하고 자연스러워 보여 피부색을 보다 검게 하려는 관습이 있지만 여기서는 없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타히티 사람 옆에서 목욕하고 있는 백인의 모습은, 탁 트인 들판에서 왕성히 자라는 멋진 검푸른 식물들과 대조되는, 정원사들이 인공적으로 하얗게 표백시킨 식물에 비유할 수 있다. 이곳 남자들 대부분은 몸에 문신을 하고 있는데, 무늬가 몸의 굴곡을 따라 아주 우아하게 그려져 있어 세련되어 보인다. 자세히 보면 무늬들이 다양하지만, 공통적으로 야자나무 꼭대기와 비슷한 왕관 모양을 하고 있다. 무늬는 등 중심에서 시작해 몸의 양면으로 돌아가며 우아하게 그려져 있다. 나의 직유적인 표현이 너무 공상적일지 모르겠지만, 그런 무늬를 가진 사람들의 몸은 마치 가냘픈 나무발바리에 둘러싸인 고상한 나무 둥치처럼 보인다.
노인들의 발은 대부분 작은 그림들로 덮여 있어 마치 양말을 신은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런 유행은 조금씩 없어지고 다른 것이 유행하는 추세다. 이 섬에서 몸을 치장하는 유행 경향은 세월 따라 영원히 변치 않는 것은 아니겠지

만, 이곳 사람들은 그가 젊었을 적에 유행했던 방식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규칙이 있다. 즉 나이 든 사람들은 그들 나이에 맞는 치장이 도장처럼 그들 몸에 찍혀 있어 멋진 젊은이 같은 분위기를 만들어 내기는 어렵다. 이곳 여자들도 남자들과 마찬가지로 문신을 새기는데 대개 손가락에다 한다. 요즘은 어울린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치장 방식이 유행하고 있다. 이를테면 고리처럼 머리 가장자리 부분만 머리카락을 남겨 두는 것인데, 머리 위 중심 부위의 머리카락을 면도로 원을 그리면서 제거해 버리는 것이다. 이곳 선교사가 이런 풍습을 바꿔 보려고 설득을 많이 해봤지만, 그것이 곧 유행이라는 것이다. 유행이라는 말은 프랑스 파리에서처럼 이곳 타히티에서도 충분한 대답이 된다. 나는 이곳 여성들의 개인적 외모에 많이 실망했다. 그들은 모든 면에서 남자들보다 많이 뒤떨어진다. 흰색과 주홍색 꽃을 머리 뒷부분이나 귀에 뚫려 있는 조그만 구멍에 꽂은 모습은 그나마 봐줄 만하다. 야자나무 잎을 엮어 쓴 머리관도 눈을 가리기에는 낡았다. 치장을 하는 데 있어 남자들보다는 오히려 여자들에게 잘 어울리는 어떤 풍습이 절실히 필요한 것 같다.
여기 원주민들은 거의 모두 영어를 조금씩은 안다. 즉 일상적인 것은 이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손짓과 몸짓을 적당히 섞으면 완전하진 않지만 어느 정도 대화를 나눌 수 있다. 저녁때 보트로 돌아오는 도중에, 꽤 재미있는 풍경을 보고 발길을 멈췄다. 잔잔한 바다와 나무들을 비추고 있는 모닥불 주위로 많은 어린아이들이 해변에서 놀고 있었다. 다른 아이들은 빙 둘러앉아 타히티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우리도 모래밭에 앉아 그들 파티에 끼어들었다. 노래는 즉흥적이었는데 우리가 이 섬에 온 것과 관련 있는 것 같았다. 소녀가 한 구절을 부르면 나머지 아이들이 다른 구절들을 부분적으로 맡아 부르면서 멋진 화음을 연출해 냈다. 이 전경은 우리가 널리 알려진 남태평양의 한 섬 해안에 앉아 있다는 사실을 또렷이 느끼게 해주었다.
11월 17일 | 지금까지 태양의 자취를 따라서 계속 항해해 왔기 때문에, 항해 일지에는 이날을 16일, 월요일로 하기보다는 17일, 화요일로 기록했다. 아침 식

사도 하기 전에, 한 무리의 카누가 우리 배를 둘러쌌다. 원주민들이 배에 오르도록 허락한 후에 그 수를 세어 보니 족히 2백 명은 되는 것 같았다. 이렇게 수가 많은데도 별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는 것은 다른 부족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 모든 선원들의 공통된 생각이었다. 이곳 원주민들은 모두 뭔가를 팔기 위해 가져왔는데, 주요 품목은 바로 조개껍데기였다. 지금은 타히티 사람들도 돈의 가치에 대해 충분히 알고 있어서, 낡은 옷가지나 다른 물건보다도 돈을 더 좋아한다. 하지만 영국이나 스페인에서 발행된 다양한 동전들을 받아 들고는 당황하여, 이것을 달러로 바꾸기 전까지는 조그마한 은화라도 결코 안심하는 것 같지 않다. 일부 추장들은 상당한 돈을 모았다. 얼마 전에 한 추장은 작은 배를 구입하는 데 8백 달러(약 160파운드)를 썼다. 또한 그들은 50~100달러의 돈을 치르고 고래잡이 배나 말을 자주 사는 편이다.

아침 식사 후에 바닷가로 가서 가장 가까이에 있는 비탈길을 이용해 높이가 60~90미터에 이르는 산을 오르기 시작했다. 바깥쪽 산들은 부드러운 원뿔 모양을 하고 있지만 가파르다. 산을 이루고 있는 오래된 화산암은 수없이 많은 깊은 골짜기들로 갈라져 있고, 골짜기는 섬 중심부에서부터 시작해 해안선까지 뻗어 나와 있다. 사람들이 거주하는 비옥한 땅의 좁고 나지막한 가장자리를 가로질러, 깊은 골짜기 사이에 있는 가파르고 매끈한 산마루를 따라 올라갔다. 특이하게도 식생은 거의 모두 키 작은 조그마한 고사리들로 이루어져 있었고, 위로 갈수록 거친 풀들이 간간이 섞여 나타났다. 그 모습은 웰시 언덕과 큰 차이가 나지 않았는데, 이것들이 해안에 있는 열대성 식물 과수원 바로 위에 있다는 사실이 정말 놀라웠다. 내가 올라간 곳 중 가장 높은 곳에서는 나무들이 다시 모습을 드러냈다. 숲의 울창함 정도를 비교해 세 지역으로 나눠 보면, 가장 아래쪽 지역은 습기가 많고 비옥한데, 그 이유는 편평함에서 찾을 수 있다. 이 지역에서는 해수면 위로 올라와 있는 지면을 거의 볼 수 없는데, 만일 지면이 높은 곳에 있다면 아래쪽으로 물이 천천히 빠져나가 없어져 버릴 것이다.

중간 지역은 높은 지역과는 다르게, 축축하고 구름이 많은 공기층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메마르다. 높은 지역에서는 나무들이 매우 예쁘고, 나무고사리가 해변의 야자나무를 대신해서 자라고 있다. 그렇다고 이 나무들이 브라질의 장엄하고 화려한 숲에서 본 것과 전적으로 똑같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브라질과 같은 대륙의 숲에서 일어나는 엄청난 생산성을 이 섬에서 기대하기란 어렵다.

가장 높은 꼭대기에 올라서니 멀리 에이메오 섬이 보였다. 그 섬은 타히티와 같은 통치령에 속해 있다. 높이 치솟아 뾰족하게 부서진 모양을 하고 있는 산봉우리 위에 두껍게 쌓여 있는 흰색의 구름층은, 마치 에이메오 섬이 푸른 바다에 떠 있는 것처럼, 푸른 하늘에 하나의 섬을 이루고 있다. 에이메오 섬은 작은 출입구 하나를 제외하고는 산호초로 완전히 둘러싸여 있다. 여기에서는 좁고 뚜렷한 반짝이는 흰 선만 보인다. 산호로 된 장벽이 이 지점에서 처음으로 바다의 파도와 조우하고 있다. 좁은 하얀 선 안쪽으로는 유리처럼 맑은 산호초의 넓은 호수 위로 산들이 불쑥 솟아 있으며, 바깥쪽으로는 대양의 요동치는 물결이 검은색을 띠고 있다. 그 광경은 아주 인상적이며, 액자 속의 판화와 비교하면 적절할 것 같다. 액자 틀은 부서지는 파도를 의미하고, 주위의 종이는 잔잔한 산호 호수를, 그리고 그 속에 그려진 그림은 섬을 나타낸다. 저녁 무렵에 산에서 내려와, 내가 예전에 호의로 조그만 선물을 건네줬던 사람을 만났는데 그가 야자 열매와 파인애플, 그리고 따뜻하게 구운 바나나를 가지고 왔다. 뜨거운 태양 아래 산책을 하고 나서 먹는 싱싱한 야자 열매즙보다 더 맛있는 것을 나는 아직 알지 못한다. 이곳에서 파인애플은 아주 흔해서 사람들은 마치 영국에서 순무를 먹듯 마음껏 먹는다. 이곳 과일은 아주 훌륭한 맛과 향기가 있어 영국에서 재배한 것보다 훨씬 나은 것 같다. 이 말은 과일에 부여할 수 있는 최고의 칭찬이라고 생각한다. 배에 오르기 전에 윌슨 씨는 나에게 관심을 보인 타히티 사람에게 다음 날 산으로 짧은 답사를 가려는데 그와 다른 한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통역해 주었다.

11월 18일 | 가방에 먹을 것을 약간 담고, 나와 안내인이 사용하기 위해 담요 두 장을 준비한 다음, 아침 일찍 바닷가로 나왔다. 동행한 타히티 사람들은 긴 막대기 양쪽 끝에다 물건들을 묶은 후 어깨에 메고 교대로 지고 갔다. 그 사람들은 막대기 양쪽 끝에다 23킬로그램씩 나가는 무거운 물건을 매달고도 온종일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익숙해 있다. 나는 안내인들에게 필요한 음식과 옷가지들을 미리 준비하라고 얘기했지만, 그들은 산에 가면 먹을 것이 많고 옷은 피부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말했다. 우리 일행은 티아우루 계곡 쪽으로 나아갔다. 그곳에서 강줄기가 비너스 곶의 옆쪽 바다로 흘러가고 있었다. 이 강은 섬의 주요 하천 중 하나로, 그 발원지는 높이가 약 2천1백 미터 정도 되는 가장 높은 가운데 산꼭대기의 바로 아래쪽에 있다. 섬 전체가 많은 산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섬 안쪽으로 뚫고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계곡을 따라 올라가는 것이다. 처음에는 강 양쪽에 나무가 우거져 있는 길을 따라 나아갔다. 한쪽 경사면 여기저기에서 춤을 추듯 흔들리고 있는 야자나무 사이로 언뜻 보이는, 우뚝 솟은 산꼭대기는 그림처럼 아름다웠다. 곧이어 계곡은 좁아지기 시작했고 양쪽 계곡면은 점점 높아져 깎아지른 듯이 험하게 변해 갔다. 서너 시간을 걸은 후에 우리는 계곡의 폭이 강폭을 거의 넘지 못하는 장소에 이르렀다. 계곡의 양 벽면은 거의 수직에 가까웠으며 화산암층 토양의 부드러운 성질이 아직까지 남아 있어, 절벽에서 튀어나온 모든 암반들 위에는 무성한 초목들이 자라고 있다. 이 절벽들의 높이는 1천~2천 미터에 이르는 것이 틀림없으리라. 절벽 전체가 산골짜기를 이루고 있는데 그 모습은 일찍이 내가 보았던 어떤 모습보다 장대했다. 정오가 될 때까지는 태양이 골짜기 바로 위에 수직으로 떠 있고 공기는 차갑고 습하여 축축했지만, 지금은 찌는 듯이 덥다. 원기둥처럼 보이는 화산암층 아래 위치한 암반의 그늘진 곳에서 저녁 식사를 했다. 타히티 사람들은 벌써 작은 물고기와 민물 참새우를 잡아다가 한 접시 요리를 해왔다. 그들은 둥근 테에 작은 그물이 감겨 늘어져 있는 물건을 갖고 다닌다. 깊이 소용돌이치는 물속으로 잠수하여 마치 수달처럼 눈을 동그

랗게 뜬 채 물고기들을 구멍이나 구석진 곳으로 내몬 다음 잡는다.

타히티 사람들은 양서류처럼 물속에서 능란하다. 엘리스가 말해 준 일화는 그들이 물속 환경을 얼마만큼 편하게 느끼는지 잘 보여 준다. 1817년 포마레 여왕의 말을 배에서 내리다가 줄이 끊어져서 그만 말이 물속으로 빠졌다. 원주민들은 즉시 물속으로 뛰어들어 말을 구하기 위해 소리소리 지르며 도왔지만, 그러한 노력도 헛되이 말이 익사할 뻔했다. 하지만 말은 가까스로 해안으로 기어올랐고, 그 순간 원주민 모두는 도망치기 시작했다. 바로 원주민 자신들이 말에 붙인 '사람을 실어 나르는 돼지'를 피해서 말이다.

조금 더 위로 올라가니 강이 세 갈래로 나뉘어 작은 하천으로 흐르고 있다. 북쪽에 있는 작은 하천 두 개는 산꼭대기에서 계속 이어져 흘러내려 오는 폭포로 때문에 길로 이용하기에는 어려웠다. 나머지 한쪽 하천도 위쪽 두 하천들과 마찬가지로 사람이 접근하기는 어려웠지만 비상한 통로 하나를 발견해 그럭저럭 올라갈 수 있었다. 이곳 계곡의 양 벽면은 거의 수직에 가까운 가파른 모습이나, 여러 암석층에서 흔히 볼 수 있듯 작은 암반들이 쑥쑥 튀어나와 있어 야생 바나나와 백합과 식물, 그리고 다른 열대성 식물들이 그 위를 두껍게 덮고 있다. 과일을 찾기 위해 암반 사이를 기어 올라간 타히티인들은 절벽 전체를 지나 올라갈 수 있는 작은 길 하나를 발견했다. 처음에는 계곡 위로 올라갈 때 매우 위험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나 있지 않고 가파르게 기울어진 바위 면을 밧줄에 지탱해서만 움직일 수 있었기 때문이다. 기울어진 산비탈을 따라 지나갈 수 있는 유일한 곳으로 이처럼 만만치 않은 장소를 어떻게 사람이 발견해 낼 수 있단 말인가!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그 후 우리는 암반으로 된 길을 따라 계속 주의를 기울이며, 세 하천 중 어떤 한 지점에라도 도착할 때까지 계속 걸어 올라갔다. 평평한 암반 위로는 높이가 1백~2백 미터에 이르는 아름다운 폭포가 쏟아지고 있으며, 그 아래에는 또 다른 폭포가 계곡 아래의 하천 쪽으로 물줄기를 떨어뜨리고 있다. 이처럼 시원하고 그늘진 휴식처에서 우리는 위에서 떨어지는 폭포수를 피하기 위해 돌아가야만 했

다. 앞에서처럼 튀어나온 암반을 따라 나아갔지만 이번에는 수풀이 바위 위에 두껍게 자라고 있어 위험이 일부 해소되었다. 한번은 암반 사이를 지나가는데 수직 암벽이 떡하니 버티고 있었다. 좀 씩씩해 보이는 타히티 사람 하나가 그 사이에 나무 기둥을 걸쳐 놓은 다음 기어 올라가 바위틈을 이용해 위에 먼저 도착했다. 그는 튀어나온 곳에다 밧줄을 고정시킨 다음 아래로 내려와서 개와 여행 가방을 끌어올렸고, 그 후 우리도 그걸 이용해 기어 올라갔다. 죽은 나무들이 깔려 있는 암반 아래로는 150~180미터 정도의 깊은 절벽이 펼쳐져 있는데, 만일 시야 위로 쑥 내밀고 있는 고사리나 백합들이 그 심연의 절벽을 일부나마 가리지 않았다면 현기증이 일어 그곳을 쳐다볼 엄두도 내지 못했으리라. 때때로 암반을 따라서, 그리고 또 어떤 때는 양옆으로 깊은 계곡이 나 있는 칼날처럼 예리한 산 능선을 따라서 계속 올라갔다. 코르디예라 산맥에서는 이보다 훨씬 큰 규모의 산들을 봤지만, 여기처럼 험준한 곳은 없었다. 저녁에야 우리는 한 하천의 강둑 위에 있는 작고 평평한 지점에 이르렀다. 이 하천이 우리가 계속 따라 올라왔던 바로 그 하천으로, 폭포수가 떨어져 내리고 있었다. 우리는 이곳에서 밤을 보내기로 했다. 계곡 양옆으로는 산지성 바나나가 층을 이루어 두껍게 자라고 있고 잘 익은 과일이 그 위를 덮고 있다. 이 식물의 대부분은 높이가 6~8미터 정도로 둘레는 1미터 내외 정도다. 안내인들은 나무껍질을 벗겨 밧줄을 만들고, 대나무 줄기로는 서까래를, 그리고 큰 바나나 잎으로는 지붕을 만들어 우리들이 지낼 수 있는 멋진 집을 순식간에 지었다. 게다가 시든 잎으로는 부드러운 침대까지 만들었다.

그다음에 그들은 불을 지펴 저녁 식사를 준비했다. 불을 피우기 위해 막대기 끝의 무딘 부분을 다른 막대기의 작은 구멍에 집어넣어 마치 그 속을 깊게 팰 것처럼 비벼 대면 그때 일어나는 먼지 속에서 불이 일어난다. 특이한 점은 이 작업에는 오로지 희고 매우 가벼운 무궁화나무Hibiscus tiliareus[1]만 사용한다는 것이다. 양 끝에 짐을 매달아 나르는 막대기라든지 또는 카누에 매달려 있는

1 무궁화속의 식물-역주.

물 위에 뜨는 로프에도 이와 똑같은 나무를 사용한다. 불과 몇 초 만에 불길이 일어났는데, 이 기술을 잘 모르는 사람이 하려면 대단히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한다. 하지만 자랑스럽게도 나는 피어나는 먼지 속에서 결국 불을 피우는 데 성공했다. 팜파스 지역의 가우초들이 사용하는 방법은 이와 다르다. 길이가 약 46센티미터 정도의 탄력 있는 나뭇가지를 사용해 한쪽 끝은 가슴으로 누르고, 다른 쪽 끝은 나뭇조각의 구멍 속에 집어넣은 다음 구부러지는 부분을 마치 목수가 타래 송곳 돌리듯 빠르게 돌린다. 타히티 안내인들은 막대기에 조그마한 불길을 만들어 그 위에 크리켓 공 크기의 돌 20여 개를 놓아두었다. 약 10여 분이 지나자 막대기는 다 타버렸지만 돌멩이는 뜨거워졌다. 그전에 이미 그들은 잎으로 싼 작은 꾸러미들을 만들어 놓는다. 그 안에는 고기 조각이나 물고기 또는 익었거나 아직 익지 않은 바나나, 그리고 야생 아룸Arum[2]의 윗부분이 들어가 있다. 이 녹색 꾸러미들을 뜨거운 돌 층 사이에 넣는다. 그다음 전체를 흙으로 덮으면 연기나 김이 전혀 나지 않는다. 약 15분 정도 지나면 전체가 정말로 맛있게 익어 있다. 이제 잘 익은 녹색 꾸러미들을 바나나 잎으로 된 식탁보 위에 놓고, 야자나무 껍질로 시원한 시냇물을 떠 마시며 전원의 식사를 만끽했다.

주위의 식물들을 바라보니 감탄을 금할 수 없다. 사방은 바나나 숲이고, 다양한 방식으로 요리해서 먹을 수 있는 과일들이 땅에 무더기로 널브러져 썩어가고 있다. 앞쪽에는 야생 사탕수수가 밭을 이루듯 넓게 펼쳐져 있고, '아바Ava'라는 식물의 진녹색 마디성 줄기들이 그늘을 만들어 하천에 드리워 있다. 이 식물 줄기는 옛날에 사람을 취하게 만드는 효과로 매우 유명했다. 한 조각을 씹어 보니 매우 자극적이고 역한 냄새와 불쾌한 맛이 나서 누구라도 단번에 유독하다고 말할 만하다. 지금은, 선교사들이 노력한 덕택에, 사람들에게 해가 미치지 않는 깊은 계곡에서만 무성하게 자란 이 식물을 볼 수 있다. 또 바로 가까이에는 야생 아룸이 보이는데, 이 식물의 뿌리는 잘 요리하면 먹기

2 천남성과科 아룸속의 식물–역주.

에 좋고 어린잎들도 시금치보다 나은 것 같다. 그리고 야생 감자인 '얌yam'과 '티Ti'라고 불리는 백합과 식물도 많이 자라고 있다. '티'라는 식물의 뿌리는 갈색이고 부드러운데 그 형태와 크기가 마치 거대한 통나무 같다. 우리는 디저트로 이 뿌리를 먹었는데 당밀만큼 달고 맛 또한 훌륭했다. 뿐만 아니라 몇몇 야생 과일과 유용한 채소류들도 있고, 작은 시내에는 시원한 물과 뱀장어, 가재들이 보인다. 온대 지역의 개간되지 않은 곳과 이곳을 비교해 본다면 정말이지 이곳 광경에 감탄할 수밖에 없다. 인간이, 비록 미개인이라도, 자연에 대한 분별력이 일부라도 발달한 것은 열대 지방의 소산이라는 말의 위력이 강하게 느껴지는 순간이다.

저물어 가는 저녁에 나는 시냇물 위쪽에 나 있는 길을 따라 바나나나무의 어둑한 그늘 아래를 거닐고 있었다. 얼마 안 가 60~90미터 높이의 폭포에 이르렀을 때 산책을 끝내야만 했다. 그 위쪽으로도 또 다른 폭포가 드러나 있는 것이 보였다. 이 작은 하천에 이처럼 폭포가 많이 보인다는 사실을 언급하는 이유는 이곳 지면이 기울어 있다는 일반적인 생각을 표현하기 위함이다. 물이 떨어지고 있는 이 작은 휴식처에는 바람 한 줄기 불어오지 않는 것 같다. 커다란 바나나 잎 가장자리의 얇은 부분이 갈가리 찢기지 않고 물기를 머금은 채 온전한 모습으로 있다는 사실이 그걸 말해 준다. 우리가 있는 곳은 거의 산비탈에 매달려 있다시피 한 곳인데 언뜻언뜻 옆 계곡의 깊은 곳도 보이고, 또한 위에서 볼 때 60도 안쪽으로 기운 채 솟은 중앙의 산봉우리들이 저녁 하늘의 절반을 가리고 있다. 마지막까지 남아 있던 최정상의 봉우리까지 짙은 어둠으로 점점 덮여 가고 있는 광경을 앉아서 바라보고 있노라니 장엄하기 그지없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그중 나이 많은 타히티 사람이 무릎을 꿇고 눈을 감은 채 타히티 말로 오랫동안 기도를 드렸다. 그는 아무런 가식적인 신앙심이나 조롱에 대한 두려움 없이 경건한 자세로 기독교인들이 하듯 그렇게 기도를 올렸다. 식사 때도 그전에 짧은 감사 기도라도 하지 않으면 그들 중 누구도 음식을

입에 대지 않았다. 티히티인이 선교사가 볼 때만 기도를 올릴 것이라고 생각하는 여행자들은 반드시 이 산에서 우리와 함께 밤을 보내 봐야 한다. 아침 전까지 비가 굉장히 많이 내렸지만 바나나 잎으로 지붕을 잘 이은 까닭에 젖지 않고 잘 지낼 수 있었다.

11월 19일 | 날이 밝자, 나의 길벗인 타히티인들은 기도를 끝내고 저녁때와 마찬가지 방법으로 멋진 아침 식사를 준비했다. 그들은 음식을 많이 먹는 편으로, 이렇게 많이 먹는 사람들을 일찍이 본 적이 없다. 그들의 위가 엄청나게 커진 것은 그들이 먹는 음식물이 주로 부피에 비해 상대적으로 영양가가 적은 과일이나 채소류이기 때문이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본의 아니게 그만 타히티 동료들이 자신들의 법과 결심을 어기게 했다. 나는 독한 술을 한 병 가져왔는데, 그들은 이를 거절하지 못하고 함께 마시며, 조금씩 마실 때마다 손가락을 입에 대고는 "선교사"라고 말하는 것이었다. 약 2년 전에 '아바'의 사용이 금지되기는 했지만, 독한 술의 수입은 허용되어 마시고 취하는 모습이 만연했다. 선교사들은 급속히 타락해 가는 마을을 지켜보고 있는 소수의 선량한 사람들을 설득해 금주협회를 조직하도록 했다. 선의인지 아니면 부끄러워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많은 추장과 여왕도 마지막에는 설득되어 가입하게 되었다. 그 즉시 법안이 만들어져서 통과되어, 독한 술은 섬 안으로 들어올 수 없게 되었고, 금지된 물품을 사거나 파는 사람들도 벌금을 물게 되었다. 그 법안이 발효되기 전에 수중에 재고로 남아 있는 것은 다 팔 수 있도록 일정 기간을 허용하는 공정성도 눈에 띌 만하다. 하지만 이 법이 시행되자 대대적인 조사가 시작되었고 선교사의 집이라고 해서 예외일 수는 없었으며, 모든 아바(원주민들이 독주라고 불렀기 때문에)는 땅바닥에 내팽개쳐졌다. 폭음暴飮이 두 곳의 아메리카 원주민들에게 미친 영향을 돌이켜 생각해 본다면, 타히티 섬에 호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 선교사들에게 감사해야 한다. 세인트헬레나란 작은 섬이 동인도 회사의 통치 아래에 있을 때 독한 술로 인해 큰 피해가 생기자 독한 술의 수입이 금지됐지만, 포도주는 희망봉에서 공급받을 수 있었다. 타

히티 섬에서는 주민들의 자유 의지에 의해 술이 금지된 해에 세인트헬레나에서는 독한 술의 판매가 허용되었다는 사실은 놀라운 일이지만, 그렇다고 그리 유쾌한 일은 아닐 것이다.

아침 식사 후에 우리는 여행을 계속했다. 답사 목적이 내륙의 경관을 약간만 보는 것이었기에 다른 경로를 통해 아래쪽 중심 계곡으로 돌아왔다. 얼마간은 계곡을 형성하고 있는 산의 경사면을 따라 아주 복잡한 길을 돌아왔다. 좀 덜 가파른 곳에 우거져 있는 야생 바나나 숲을 지났다. 몸에 문신을 새기고 머리를 꽃으로 장식한 벌거벗은 타히티인들은 짙은 숲의 어두운 그늘 아래에서 보면 마치 어떤 원시 대륙에 살고 있는 사람을 그려 놓은 듯하다. 내려올 때는 산의 능선을 타야 했는데 길이 너무 좁고 사다리처럼 거의 수직으로 경사가 져 있었으나 많은 나무들로 덮여 있었다. 걸음걸이마다 균형을 잡기 위해 신경을 곤두세운 까닭에 걷는 일이 몹시 피곤했다. 칼날같이 날카로운 산등성이에서 내려다보이는 계곡과 절벽의 경이로움에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었다. 이곳에서 보이는 경관은 비록 작고 좁지만 그 감동은 마치 기구를 타고 보는 것과 같았다. 내려오며 중심 계곡으로 들어가는 지점에서 로프를 단 한 번 사용했다. 어제 저녁 식사를 했던 그 지점에서 잠을 청했다. 밤기운은 상쾌했으나 골짜기가 깊고 좁아 칠흑같이 어두웠다.

이 지방을 실제로 보기 전에는 엘리스가 말한 두 가지 사실을 이해하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옛날에 잔혹한 전투가 있은 다음에 진 쪽의 생존자가 산속으로 몸을 숨겼는데, 그곳에서 열 명도 되지 않는 이 생존자들이 수많은 적을 물리쳤다는 것이다. 타히티인들이 수령이 오래된 나무들을 기르고 있는 곳에서는, 확실히 단 여섯 명만으로도 수천 명을 쉽게 물리칠 수 있었을 것이다. 두 번째는 기독교가 들어온 후에도 산속에 살고 있는 야만인들과 그들 은신처는 좀 더 개화된 다른 원주민들에게 알려지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11월 20일 | 아침 일찍 출발해 정오쯤 마타바이 만에 도착했다. 도중에 길에서 야생 바나나를 따러 가는 한 무리의 건장한 사람들을 만났다. 물을 구하기 어

려워진 우리 배가 파파와 항으로 이동했다는 사실을 알고 즉시 그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곳은 정말 예쁜 곳이었다. 작은 항만은 산호초로 둘러싸여 있고 물은 마치 호수처럼 고요했다. 경작지는 아름다운 식물들로 가득 차 있고 그 사이로 작은 집들이 군데군데 흩어진 채 바닷가 가까이까지 내려와 있었다. 이 제도에 도착하기 전에 읽은 여러 이야기들로 인해, 나는 그들의 도덕적인 상태가 어떤지 직접 판단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비록 그 판단이 매우 불완전할지라도 말이다. 첫인상은 항상 선입관에 의해 크게 좌우되기 마련이다. 나의 관념은 엘리스의 《폴리네시아 연구》에서 얻은 것이다. 이 책은 칭찬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대단히 흥미 있는 역작이다. 하지만 《비치의 항해기》나 선교 제도에 대해 전반적으로 비판적인 《코체부의 항해기》와는 달리 근본적으로 모든 사물을 호의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다. 이러한 세 가지 이야기들을 비교해 본 사람이라면, 현 상태의 타히티에 대해 웬만큼 정확한 생각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비치의 항해기》와 《코체부의 항해기》에서 받았던 느낌 중 하나는 결정적으로 부정확한 것이었다. 즉 타히티인들은 음울한 민족이며 선교사들을 두려워한다는 것이다. 두려움과 존경심을 진정 같은 개념으로 혼동하지만 않는다면, 이곳에서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찾기란 어려울 것이다. 유럽에서는 일상적인 감정인 불만스러움 대신 즐겁고 행복한 다수의 얼굴을 군중 속에서 반가량 집어낸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여기 사람들은 피리를 불거나 춤을 추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잘못되고 어리석은 일이라고 심하게 비난한다. 비슷한 견지에서 본다면 이는 장로회에서 안식일을 지키는 방법보다 더 심한 경우다. 바로 이 점이 내가 그 섬에 있던 날짜 수만큼에 해당하는 많은 햇수를 그곳에서 거주했던 사람들에 대하여 어떠한 의견도 그럴듯하게 제시할 수 없는 이유일 것이다.

전반적으로 볼 때, 주민들의 도덕성이나 종교는 상당히 신뢰할 만하다. 선교사나 선교 제도 또는 그로 인해 만들어진 여러 결과물들에 대해 코체부 씨보다 더 신랄하게 공격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런 사람들은 섬의 현재 상태를 과

거 20년 전의 상태나 더 나아가 유럽의 현 상태와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성서에나 있는 높은 수준의 완벽한 경지와 비교할 따름이다. 그들은 일찍이 성서의 전도사들도 실패했던 것들을 현재의 선교사들이 이룩해 주길 기대한다. 주민들의 상태가 그와 같은 높은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한, 선교사들은 자신들이 이룩한 결과들에 대해 믿음을 얻기보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기독교 신앙이 이곳에 도입되면서, 인간을 제물로 바친다든가, 맹목적인 우상 숭배의 힘을 믿는다든가, 다른 어느 세계에서도 병립할 수 없는 방탕한 제도나 그 제도로 말미암은 영아 살해 현상 또는 여자나 어린애를 가리지 않고 죽이는 유혈 전쟁과 같은 것이 모두 없어지고, 불성실성이나 무절제 그리고 방종도 엄청나게 줄어들었다는 사실을 비판자들은 잊거나 또는 기억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선교사들의 이러한 노력을 망각한 항해자는 근본적으로 은혜를 모르는 자다. 왜냐하면 미지의 어느 해안에 좌초되어서야 비로소 그는 선교사들의 가르침이 멀리 이곳까지 미쳐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기도를 올리기 때문이다.

도덕적 관점에서 여자들의 정조는 예외적으로 매우 개방적이라고 알려져 왔다. 이러한 사실을 심하게 비난하기 이전에, 쿡 함장이나 뱅크스 씨가 얘기한 장면들을 떠올려 봐야 할 것이다. 여기에는 현 인류의 할머니나 어머니들이 한몫을 담당하고 있다. 심한 비판자들은 현재 유럽 여성들이 지니고 있는 도덕성 중 얼마만큼이 어머니가 딸에게 초기에 심어 준 체제에 기인한 것인지, 종교적 교훈이 얼마만큼 각 개인에 영향을 끼치는지를 반드시 고려해 봐야만 한다. 그러지 않고서는 이러한 이유를 대는 사람들과 논쟁한다는 것 자체가 더 이상 무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들이 과거와 같은 방탕함으로 많이 개방되어 있는 분야를 찾지 못하여 실망스럽기도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것을 실행하기를 원치 않는 이유가 도덕성 때문이라든지, 또는 물론 얕보는 것은 아니겠지만, 이것을 과소평가하고 있는 종교로 인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할 만한 신뢰가 가지 않으리라.

11월 22일 일요일 | 파피에테 항은 여왕이 거주하는 곳으로 섬의 중심지라 할 만하다. 또한 이곳에는 주요 공공기관이 자리 잡고 있으며 해운업이 번창하고 있다. 피츠로이 함장은 이날 예배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일행과 같이 참석했다. 예배는 이 섬의 주임 선교사인 프리처드 씨가 담당했으며, 처음에는 타히티 말로 진행하고 그다음은 영어로 했다. 예배당은 크고 공기가 잘 통하는 나무로 만들어져 있으며, 그 안에는 말쑥한 차림의 남녀노소 사람들로 넘쳐 났다. 물론 설교를 듣는 수준은 다소 실망스러웠지만 나의 기대치가 너무 높아서 그럴 것이라 믿는다. 겉으로 보이는 모든 것이 영국의 시골 교회에서 보는 것과 거의 똑같다. 찬송가 소리는 정말 듣기 좋았다. 그러나 연단에서 흘러나오는 말들은, 비록 유창하기는 하지만, "타타 타, 마타 마이"와 같은 말들이 끊임없이 반복되면서 소리를 단조롭게 하는 바람에 좋게 들리지는 않는다. 영어로 하는 예배를 마친 후 우리 일행은 걸어서 마타바이 만으로 돌아왔다. 오는 동안은 이따금씩 해변을 끼고 걷거나 아름다운 나무 그늘 아래를 지나가는 즐거운 산책길이었다.

2년 전쯤에 영국 국적의 작은 배가 당시 타히티 여왕의 통치 아래에 있던 로제도의 주민들에게 약탈당한 적이 있다. 약탈자들은 여왕이 공포한 어떤 경솔한 법률에 선동된 것 같다. 영국 정부는 보상을 요구했고, 이것이 받아들여져 총액이 거의 3천 달러에 달하는 보상금을 작년 9월 1일에 받기로 했다. 리마에 있는 함대 사령관은 피츠로이 함장에게 이 빚에 관해 조사해 보고 만일 받지 않았다면 갚을 것을 요구하라는 명령을 전해 왔다. 이에 따라 피츠로이 함장은, 프랑스로부터 냉대를 받은 이래로 유명해진, 포마레 여왕과의 면담을 요청했다.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한 의회가 열려 여러 족장들과 여왕이 한자리에 모이게 되었다. 피츠로이 함장의 흥미진진한 설명에 근거해 그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는 길게 쓰지 않으려 한다. 보상금은 지불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며, 아마도 여러 가지 근거 없는 이유들을 댄 듯하지만 이조차도 상당히 미심쩍은 것들이었으리라. 하지만 다른 면에서 그들이 보여 준 극히 훌륭

한 감각과 추리력 그리고 절제와 공정성, 신속한 문제 해결 능력에 대해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다. 우리 모두 이곳에 처음 왔을 때 타히티인에 대해 마음속에 품었던 생각과는 사뭇 다른 견해를 가지고 그 회의 장소를 떠났으리라 믿는다. 이곳의 족장들과 주민들은 기부금을 모아 부족한 보상금을 채우기로 해결책을 마련했다. 피츠로이 함장은 멀리 떨어져 있는 섬 주민이 잘못한 것으로 이곳 사람들의 사유 재산이 손해를 입어서는 곤란하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함장의 염려에 고마움을 표하기는 했지만, 포마레는 그들의 여왕이며 그녀가 이처럼 어려울 때 도와주기로 결정했다고 답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해결 방안을 보고해야 했기 때문에, 이런 해결책과 신속한 집행은 충성심과 우호적 감정이 넘치는 놀랄 만한 장면을 연출하며 완벽한 결론을 만들어 냈다.

주요 논의가 끝난 후, 몇몇 족장들은 피츠로이 함장에게 선박과 외국인의 처우와 관련한 국제적인 관습이나 국제법에 관해 많은 질문을 했다. 몇 가지 문제는 결론이 나자마자 곧바로 그곳에서 법률을 만들어 구두로 공포했다. 이 타히티 의회는 일곱 시간이나 계속되었다. 회의가 끝난 후 피츠로이 함장은 포마레 여왕을 비글호로 초청했다.

11월 25일 | 저녁 무렵, 여왕의 권위에 걸맞게 보트 네 척을 보냈다. 깃발로 배를 장식하고 여왕이 승선할 때는 공식적인 예우를 갖췄다. 여왕은 족장들 대부분과 함께 왔다. 그들 모두는 정말 도를 넘지 않게 행동했다. 아무것도 구걸하거나 요구하지 않았으며 피츠로이 함장의 선물을 받고 무척 기뻐했다. 여왕은 몸집이 크고 어줍어 보이는 여자로 아름다움이나 우아함, 위엄과는 거리가 멀었다. 그녀가 왕족으로서 보여 준 유일한 속성은 어떤 상황에서도 완벽하리만치 표정의 변화가 없고 약간 무뚝뚝한 표정을 짓고 있는 것이다. 불꽃놀이가 가장 감탄을 자아냈는데 매번 폭발할 때마다 어두운 만 근처의 해안가에서 "오!"라고 외치는 굵은 저음의 목소리들이 들려오곤 했다. 선원들의 노래 또한 많은 찬사를 받았다. 그런데 여왕은, 아주 활기찬 노래는 찬송가가 될 수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닌가! 왕족 일행은 자정이 지날 때까지 돌

아가지 않았다.

11월 26일 | 저녁 무렵에 육지에서 불어오는 부드러운 바람을 받으며 우리는 뉴질랜드로 항로를 돌렸다. 해가 지면서, 태평양을 항해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찬탄의 대상인 타히티의 산들과 마지막 작별을 했다.

12월 19일 | 저녁 무렵 멀리 뉴질랜드가 보였다. 우리는 이제 태평양을 거의 횡단한 것 같다. 태평양의 광대함을 이해하려면 그 대양大洋을 항해해 볼 필요가 있다. 몇 주일간 빠른 속도로 항해했지만 보이는 것은 언제나 푸르고 깊디깊은 대양뿐이었다. 한 제도 내에서도 각 섬들은 단지 작은 점에 불과하며 서로 간에도 아주 멀리 떨어져 있다. 많은 점들과 여러 지명들로 꽉 차 있고 명암법으로 작게 축소한 지도를 보는 일에 익숙해져서인지, 육지가 광활한 바다에 비해 얼마나 한없이 작은가를 올바로 판단하기가 어렵다. 또한 대척점[3]을 연결하는 자오선도 지나온 것 같다. 요즘은 조금씩 앞으로 나아갈 때마다 영국 쪽으로 점점 다가가고 있다는 생각에 행복하다. 대척점은 어린 시절에 가졌던 의문과 놀라움을 마음속에 새삼 불러일으킨다. 바로 며칠 전만 해도 우리가 고국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지점으로서, 나는 이 보이지 않는 벽과 만나기를 고대했다. 그러나 지금 이 선을 지나고 보니, 상상 속의 지점은 그림자와 같아서 앞으로만 나아가는 사람은 결코 잡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며칠 동안 계속된 폭풍으로 인해, 우리는 요즈음 한가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 고국을 향해 가는 동안 앞으로 할 활동 범위들을 가늠해 본다든지 아니면 이 여행이 빨리 끝나기를 간절히 빌어 본다.

12월 21일 | 아침 일찍 우리는 아일랜드 만으로 들어갔다. 초입 부근에 있는 동안의 몇 시간은 바람이 불지 않아 정오가 될 때까지도 정박지에 이르지 못했다. 이 지역은 완만한 언덕 지대로, 만에서부터 펼쳐져 있는 바다의 수많은 지류들이 깊숙이 들어와 있다. 좀 떨어져서 보면 섬의 표면은 마치 거친 목초로 덮여 있는 듯하지만 실상은 고사리 외에 아무것도 없다. 계곡의 일부 지역이

3 지구 상의 한 지점과 지구의 중심이 연결되는 직선의 연장이 지구 반대쪽 표면과 만나는 점-역주.

나 좀 더 멀리 떨어져 있는 언덕 위로는 삼림 지대가 크게 발달해 있다. 경관에서 보이는 전반적인 색조는 밝은 녹색은 아니고, 칠레의 콘셉시온에서 남쪽으로 조금 떨어진 지역과 많이 닮았다. 아일랜드 만의 일부 지역에는, 사각형으로 깔끔하게 지은 집들이 모인 마을들이 여기저기 흩어져서 아래 물가까지 내려와 있다. 고래잡이 배 세 척이 정박 중이고 카누 한 척이 가끔씩 해안 사이를 오가곤 한다. 이를 제외하면 극도의 적막감이 온 지역을 감싸고 있다. 카누 한 척만이 유일하게 우리를 따라 나란히 들어왔다. 이 배와 전체적인 경관은, 타히티에서 받았던 즐겁고 떠들썩한 환영 분위기와 사뭇 대조적으로 그리 유쾌하지는 않았다.

오후에 우리는 집들이 모여 있는 한 해안으로 갔는데, 그곳은 마을이라 하기에는 어딘지 좀 빈약해 보였다. 마을 이름은 '파히아Pahia'인데 선교사들이 살고 있는 곳이다. 이곳은 하인이나 일꾼을 제외하면 원주민들이 없다. 아일랜드 만 인근에 거주하는 영국인은 그들 가족을 포함해서 2백~3백 명 정도다. 흰색 도료를 칠해서 매우 말끔해 보이는 작은 집들은 모두 영국인 소유다. 원주민들의 오두막은 너무 작고 초라해서 먼 곳에서는 좀처럼 보이지 않는다. 이곳 파히아의 집 앞뜰에 있는 영국 꽃들을 보니 즐거웠다. 영국 꽃들로는 장미 몇 종류와 인동덩굴, 재스민, 자라난화紫羅欄花가 자라고 있었고, 집 울타리를 치고 있는 들장미가 있었다.

12월 22일 | 아침에 산책을 나섰다. 그러나 얼마 되지 않아, 길이 통행하기에 썩 좋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언덕은 키 큰 고사리와 사이프러스처럼 자라는 키 작은 관목들로 두껍게 덮여 있고, 벌채되거나 개간된 땅은 극히 적다. 해변으로 가보려고도 했지만 어떤 방향이든 간에 짠물이 흐르는 후미나 깊은 시내로 길이 가로막혀 있었다. 여기 만에서 섬들 사이를 왕래할 수 있는 교통수단은 (칠로에 섬에서처럼) 거의 전적으로 보트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내가 올라갔던 거의 모든 언덕들이 예전에 어느 정도 요새화되었다는 사실에 놀랐다. 산봉우리들은 계단 또는 계단 모양의 평지로 나뉘어 있었고, 깊은 도랑을 파

서 적의 공격을 방어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 후 관찰한 바에 의하면, 섬 내륙의 주요 언덕들도 모두 같은 방법으로 인공적인 외형을 갖추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이것들이 바로 파스Pas라는 것인데 쿡 함장이 그렇게 자주 언급했던 '히파hippah'와 같은 것으로, 접두사 때문에 발음이 다르게 되는 것이다.

파스에서 발견되는 조개껍데기 더미나 고구마 비축용으로 파놓은 구덩이들을 보면 과거에 파스가 상당히 많이 사용되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언덕 위로는 물이 없기 때문에, 장시간의 포위 공격에 대비해 파스를 만들었다기보다는 약탈해 가는 급습에 대비한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 계단 모양의 지형이 훌륭한 방어막을 제공했을 것이다. 총기가 보편적으로 도입되면서 전반적인 전투 방식도 바뀌어 갔다. 지금은 언덕 위가 노출되는 것이 차라리 쓸모없는 것보다 더 나쁜 상황이 되어 버렸다. 요즘에는 파스를 항상 지표면의 평지에 짓는다. 굵고 긴 말뚝에 지그재그 모양의 울타리를 이중으로 둘러쳐서 옆쪽이 서로 접해지는 구조로 되어 있다. 울타리 안쪽에는 흙으로 된 토루土壘가 높게 쌓여 있어, 마을을 지키는 사람들이 그 뒤편에서 쉬거나 또는 그 위쪽으로 총질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평지 위에 조그마한 아치 통로를 만들어 가끔씩 흉벽을 통해 지나갈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이 길을 이용해 섬사람들은 울타리 쪽으로 기어나가 적을 정찰할 수 있다. 나에게 이 설명을 해 준 윌리엄스 목사는, 어떤 파스는 토루 안쪽으로 버팀벽이나 부벽扶壁이 올라와 있어 흙으로 된 토루를 보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 벽의 사용 목적을 마을의 추장에게 물어보니, 만일에 마을을 지키는 사람들 중 한두 명이 총을 맞는 경우 그것을 본 옆 동료가 용기를 잃을까 봐 아예 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뉴질랜드인들은 이러한 파스를 정말 완벽한 방어막으로 여길 수도 있겠다. 그 이유는 공격하는 병사들이 울타리 쪽으로 돌진해 와 그 기둥을 베어 넘기고 들어올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잘 훈련된 사람들이 결코 아니기 때문이다. 부족 간에 전쟁이 나면, 추장이 한 무리는 이리로 가고 다른 무리는 저리로 가라는

명령을 내릴 수가 없다. 즉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방법으로 싸우기 때문에, 제각각 뿔뿔이 흩어져서 접근해 가면 총기로 무장한 울타리 앞에서는 죽을 수밖에 없으리라. 뉴질랜드인들보다 더 호전적인 종족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을 것이다. 쿡 함장에게 들은 것처럼, 그들이 배를 보고 취했던 첫 번째 행동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거대하고도 멋들어진 대상을 향해 일제히 돌을 던지는 행동이라든지 "해안으로 들어오면 다 죽여서 먹어 버릴 테다!"라는 도전적 언사는 범상치 않은 그들의 대담성을 잘 보여 준다. 이 같은 호전적 기질은 그들의 관습이나 심지어 아주 사소한 행동에서도 나타난다. 만일 뉴질랜드인을 누군가가 때린다면, 비록 그것이 장난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강한 주먹이 되돌아오는데, 실제로 우리 배의 선원 한 명이 이런 경우를 당했다.

요즈음은 점점 문명화되어 몇몇 남부 종족을 제외하고는 전쟁이 아주 많이 줄어들었다. 나는 불과 얼마 전에 남부 지역에서 일어난 특이한 일화를 들은 적이 있다. 한 선교사가 추장과 그의 부족들이 전쟁 준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소총은 반질반질하게 손질되어 있었고 탄약들도 준비되어 있었다. 선교사는 전쟁의 무익함과 그로 인해 쌓이는 부질없는 분노에 대해 긴 시간 동안 설교했다. 추장은 많이 흔들리고 몹시 망설이는 것 같았다. 하지만 결국에는 화약 한 통이 상태가 좋지 않아 오래 유지할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그의 머릿속에 떠올랐다. 이러한 사실은 곧바로 전쟁을 시작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대한, 반박의 여지가 없는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즉 상당히 좋은 화약을 망치도록 내버려 둔다는 것은 생각도 할 수 없다는 것이 논쟁의 요지였다. 나는 선교사로부터 '숑기Shongi'라는 인디오의 삶에 대해 들었다. 그는 영국을 방문한 적이 있는 인디오 추장인데, 그가 사랑하는 것은 오직 전쟁이며 그의 모든 행동이 끊임없는 전쟁에서 비롯되었다고 한다. 그가 추장 중에서도 주요 자리에 있던 어느 시기에, 자신의 부족이 템스 강 유역의 다른 부족으로부터 박해를 받은 적이 있었다. 숑기 부족의 남자들은 아들들이 자라나 충분한 힘을 가지게 되면, 자신들이 받았던 상처를 잊어버리거나 이에 대한 용서를 결코 하지

않을 것이라고 엄숙하게 맹세했다. 추장 숑기가 영국으로 가게 된 동기는 이 맹세를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며 또한 영국에 가서도 그 일이 유일한 목적이었다. 그에게는 선물도 전쟁 무기로 전환할 수 있는 것에만 가치를 두었으며, 여러 가지 기술도 전쟁 무기를 만드는 일과 관련 있을 때만 흥미를 보였다. 숑기가 시드니에 있을 때인데, 묘한 인연인지는 모르겠지만 적대적 관계에 있던 템스 강 유역의 추장을 마르스덴의 집에서 만난 적이 있었다. 그들은 서로에게 몹시 정중히 대했지만, 숑기는 그 추장에게 뉴질랜드로 돌아가면 그의 부족에 대한 전쟁을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의 도전은 받아들여졌으며, 돌아간 숑기는 자신의 으름장을 결국 실천에 옮겼다. 템스 강 유역의 부족은 완전히 격퇴되었고, 도전을 받았던 추장도 죽음에 이르렀다. 숑기는 비록 증오와 복수를 그렇게 마음속 깊이 품고 있었지만 본성은 선한 사람이었다고 전해 온다.

피츠로이 함장, 베이커 선교사와 함께 코로라디카 마을을 방문했다. 마을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많은 이들을 만나 얘기를 나눴다. 뉴질랜드 원주민들을 보면 자연히 타히티 원주민들과 비교하게 된다. 그들 두 주민들은 계통적으로 혈통이 같지만, 비교해 보면 뉴질랜드 원주민들에게 보다 불리하게 얘기할 수밖에 없다. 뉴질랜드인들은 힘은 더 강할지 모르겠지만 다른 모든 면에 있어 매우 뒤떨어진다. 표정을 흘긋 쳐다만 봐도 한쪽은 야만인이고, 다른 한쪽은 문화인이라는 확신이 든다. 뉴질랜드 사람 전체를 뒤져 보아도 타히티의 늙은 추장인 우타메와 같은 얼굴이나 풍채를 찾기란 거의 헛수고에 가깝다. 이곳에서도 문신을 하는 특이한 관습이 일상화되어 있지만, 그 모양이 그리 유쾌하게 보이지는 않는다. 얼굴 전체를 덮고 있는 복잡하고 대칭적인 모양의 문신은 이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을 당황하게 하거나 현혹시킨다. 얼굴에 칼자국을 깊이 내어 피부의 근육 활동을 파괴시켜 굳건하고 강직된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아마도 더 흔한 관습일 것이다. 하지만 이외에도 눈을 번뜩이는 것 등은 교활하거나 잔인해 보이게 할 뿐이다. 키도 크고 풍채도 좋지만 그 우아함에

서는 타히티 섬의 노동자 계층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저급하다.

이곳 사람들은 몸이나 집이 아주 더럽거나 불쾌하지만 않다면, 몸이나 옷가지들을 씻어야겠다는 생각이 결코 떠오르지 않는 것 같다. 한 추장을 만났는데 그가 입고 있는 셔츠는 새까맣고 오물로 마구 뒤엉켜 있었다. 어떻게 해서 옷이 그렇게 더러워졌는지 묻자, 그는 놀란 듯이 "아니, 옷이 오래되어 그런 것인 줄 보고도 모릅니까?"라고 하는 것이었다. 몇몇 남자들은 셔츠를 입고 있다. 하지만 그들의 일상복은 때로 찌들어 새까만 큰 담요 한두 장이 전부인데, 아주 불편하고 어설픈 모습으로 어깨 위에 걸쳐 입는다. 이곳의 주요 추장들 중 일부는 버젓한 영국제 옷들이 있지만 큰 행사 때만 입는다.

12월 23일 | 와이마테 마을은 아일랜드 만에서 약 24킬로미터 떨어진, 동부와 서부 해안의 중간 지점에 있는 곳으로, 선교사들이 농사를 짓기 위해 땅을 약간 사놓은 곳이다. 윌리엄스 목사를 소개받은 뒤, 그곳을 방문하고 싶다는 생각을 밝히자 자신의 집에 초대했다. 영국인 거주자인 부시비 씨가 자신의 보트로 그곳의 후미까지 데려다주겠다고 했다. 그러면 아름다운 폭포도 볼 수 있고 걷는 거리도 많이 짧아질 것 같다. 게다가 그는 안내인도 한 사람 주선해 줬다.

이웃 추장에게 사람을 한 명만 추천해 달라고 하자 자신이 직접 가겠다고 했다. 하지만 돈의 가치를 잘 몰라서인지 처음에는 그가 수고비로 몇 파운드를 줄 것인지 물었으나, 나중에는 2달러에도 크게 만족했다. 가져갈 아주 작은 짐꾸러미 하나를 추장에게 보여 주자 노예 한 명이 꼭 필요하다고 했다. 요즘은 자존심이라는 감정이 점차 사라져 가고 있지만, 옛날 지도자들은 아무리 작은 짐이라도 그걸 운반하는 모욕을 당하기보다는 차라리 죽는 편이 낫다고 여길 것이다. 같이 갈 동료 추장은 몸이 가볍고 활동적인 사람으로 더러운 담요를 몸에 걸치고 있었고, 얼굴은 온통 문신으로 채워져 있었다. 아마도 그는 옛날에 위대한 용사였으리라. 그 추장은 부시비 씨와 매우 다정하게 말을 나눌 때도 있었지만 심하게 다투기도 했다. 부시비 씨는 뉴질랜드인들이 시끄럽게

떠들 때는 그냥 조용히 가볍게 비꼬아 주는 것이 그들을 조용히 만드는 데 좋은 방법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추장이 부시비 씨에게 다가와 허세를 부리면서 "위대하고도 위대한 사람인 이 추장 친구가 방문했으니, 뭔가 좋은 음식이나 선물과 같은 것을 대접해 줘야 하지 않겠소?"라는 식으로 열변을 토했다. 부시비 씨는 그의 설교가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다음과 같이 조용히 대답했다. "그러면 당신 노예는 당신을 위해 뭘 할 생각이죠?" 순간 추장은 매우 익살스러운 표정을 짓더니 허풍을 멈췄다.

부시비 씨는 얼마 전에 심한 습격을 당해 고생한 적이 있었다. 한밤중에 어떤 추장과 그 무리들이 집을 부수고 안으로 침입하려 했는데, 쉽게 되지 않자 구식 소총을 난사하기 시작했다. 부시비 씨는 가벼운 상처를 입기는 했지만 침입한 무리들을 물리쳤다. 얼마 안 있어 침입자들의 정체가 밝혀졌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체 추장들이 회의를 시작했다. 뉴질랜드 사람들은 이번 사건을 아주 흉악한 일로 간주했다. 왜냐하면 한밤중에 침입해 공격했다는 사실과, 부시비 부인이 이번 일로 병이 나 몸져누워 버린 것 때문이었다. 부인과 관련된 상황은 추장들의 명예와 크게 관련된 일로, 다른 어떤 일보다도 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할 것으로 생각했다. 추장들은 침입자의 토지를 몰수해 영국의 국왕에게 주도록 했다. 하지만 추장을 이런 식으로 처벌하는 것은 전적으로 선례가 없는 일이었다. 더욱이 그 침입자는 동료 추장들이 인정하는 특권계급으로서의 신분을 상실했는데, 이 조치는 영국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토지를 몰수하는 것보다 더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여겨진다.

보트가 막 출발하려는 순간, 부副추장이 올라탔다. 그는 단지 샛강을 따라 아래위로 오르내리는 항해를 즐기길 원한다고 했다. 나는 이 사람보다 더 무섭고 잔인한 인상을 가진 사람을 결코 본 적이 없다. 순간 어디선가 이 사람과 비슷한 모습을 봤다는 생각이 갑자기 떠올랐다. 그것은 바로 프리돌린 지방에 대한 실러의 민요를 짧게 줄인 레츠의 글이 아닌가 싶다. 여기서 어떤 두 사람이 로베르트란 사람을 불타고 있는 용광로 속으로 밀어 넣는 장면이라 생각한

다. 이때 로베르트의 가슴을 팔로 밀고 있는 사람이 부추장과 닮았다. 이런 점에서 관상은 진실을 말해 준다. 즉 부추장은 과거에 악명 높은 살인자였을 뿐만 아니라 소문난 비겁자였다. 보트가 육지에 닿자, 부시비 씨는 수백 미터의 길을 동행했다. 우리가 떠나려는 순간 보트에 누워 있던 백발의 늙은 악한이 "오래 머물러 있지 마시오. 이곳에서 기다리는 일은 피곤하니까"라고 부시비 씨에게 소리쳤다. 그 뻔뻔스러움에 경탄을 금할 수 없다.

우리는 걷기 시작했다. 길은 잘 다져 있으며, 길 양가에 보이는 키 큰 고사리가 이 지역 전체를 덮고 있다. 몇 킬로미터를 간 후 작은 시골 마을에 다다랐다. 이곳에는 오두막집이 몇 채 모여 있었고, 일부 밭에서는 감자를 키우고 있었다. 감자를 들여온 것은 이 섬에 이익을 가져다주는 데 가장 필수적이고, 지금도 어떤 토종 야채보다 널리 이용되고 있어서다. 뉴질랜드 사람들은 한 가지 커다란 대자연의 혜택을 누려 왔는데, 즉 결코 굶어 죽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이곳은 전 지역이 고사리로 덮여 있을 만큼 많은데, 그 뿌리는 입에 썩 맞지는 않지만 영양분이 풍부하다. 원주민들은 고사리 뿌리와 해안선 어디에나 풍부한 조개나 게 따위로 생활해 나간다. 마을이 눈에 쉽게 띄는 이유는 땅 위에서 3~4미터의 높이로 기둥 네 개가 떠받치고 있는 단壇이 있기 때문이다. 이 단 위에 들판의 작물들을 놔두어 온갖 사고로부터 안전하게 보관한다.

한 오두막집에 가까이 갔을 때, 코를 서로 비비거나 누른다고밖에 할 수 없는 그들의 예식을 봤는데 정말 놀라웠다. 여자들에게 다가가자 처음에 그녀들은 매우 슬픈 듯한 어떤 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그러고는 아래로 웅크리고 앉아서 얼굴을 위로 쳐들었다. 우리와 함께 간 원주민들은 그 여자들을 굽어보는 자세에서 한 사람씩 차례차례 콧마루를 직각으로 대고 누르기 시작했다. 우리가 진심으로 악수할 때의 시간보다 더 오랫동안 계속되었으며, 우리가 악수할 때 손을 잡는 힘이 변하듯 그들이 코를 누를 때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는 동안 그들은 보다 안정감 있는 작은 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마치 돼지 두 마리가 그와 같은 방법으로 서로 비빌 때 내는 소리처럼 말이다. 같이 간 노예는 그의

주인인 추장보다 먼저 하든 나중에 하든 순서에 상관없이 만나는 사람들마다 코를 누르는 것을 봤다. 비록 미개인들 간의 관계일지라도 추장은 그 노예의 생사에 대해 절대 권력을 갖고 있다. 하지만 그들 사이에 격식을 차리는 법은 전혀 없다. 버첼 씨는 남아프리카의 야만족인 바차핀족에서도 이와 같은 현상을 봤다고 했다. 문명이 어떤 경지에 도달하면, 서로 다른 계급 사이에 갑자기 복잡한 격식들이 생겨나게 된다. 그래서인지 타히티 섬에서는 왕이 나타나는 장소에 최소한 상반신의 허리까지는 옷을 입지 않는 격식을 지키고 있다.

모든 사람들이 코를 누르는 예식을 공식적으로 끝마치자 우리는 한 오두막집 앞에 빙 둘러앉아 30여 분 동안 쉬었다. 오두막집은 모두 그 형태나 크기가 거의 같았으며, 몹시 더러운 것까지 똑같았다. 집들은 한쪽이 트여 있는 외양간과 비슷했다. 하지만 안쪽은 작게 나뉜 사각형의 방이 있는데 조금 어두웠다. 원주민들은 이 방에다가 자신들의 재산을 보관하며, 날씨가 추울 때는 이곳에서 잠을 자기도 한다. 그러나 식사를 한다든지 하는 대부분의 활동은 앞쪽의 탁 트인 공간에서 한다. 안내인들이 담배를 피우자마자 우리는 다시 걷기 시작했다. 길은 기복이 있는 대지를 가로질러 나 있었고, 앞에서 언급했던 고사리가 전 지역을 고르게 덮고 있었다. 오른쪽에는 뱀같이 꾸불꾸불한 강이 흐르고, 강둑 주변은 나무들로 차 있었으며, 언덕 위에는 관목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자라고 있었다. 경관 전체가 초록빛을 띠고 있지만 쓸쓸한 면이 더 강했다. 이처럼 많은 고사리를 보고 이곳이 혹 불모의 땅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틀린 것이었다. 왜냐하면 고사리가 가슴 높이까지 무성하게 자랐던 곳은 어디든 간에 경작을 하면 비옥했기 때문이다. 몇몇 거주민들은 넓게 탁 트여 있는 지역들이 원래는 숲이었는데 불을 내 개간해서 만든 것으로 알고 있다. 헐벗은 땅을 파보면, 카우리소나무에서 흘러나오는 여러 종류의 송진들을 발견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주요 먹을거리인 고사리는 탁 트인 길을 따라 무성하게 자라는데, 이는 원주민들이 불을 지펴 땅을 개간해야만 하는 분명한 동기가 되었다. 이 섬의 식생에서 나타나는 두드러진 특징은 풀들을 거의

찾아볼 수 없는 것인데, 아마도 원래 이곳이 나무들로 우거진 숲이었기 때문인 것 같다. 이곳은 화산암층 토양으로 되어 있다. 우리는 우툴두툴한 용암층을 지나왔고, 주위 언덕 몇 군데에서 분화구를 뚜렷이 구별할 수 있었다. 경치는 아름답지 않지만, 이따금씩 괜찮은 곳이 있으면 산책을 즐겼다. 만일, 동행한 추장이 입심 강한 사람이 아니었다면 산책을 좀 더 즐겼을 수도 있었으리라. 나는 단지 세 단어면 됐다. "좋습니다", "나쁘군요", "그렇군요"로 나는 그의 모든 말에 답할 수 있었다. 물론 그가 말하는 것을 한마디도 이해하지 못했음에도 말이다. 하지만 이것으로 충분하고도 남았다. 나는 그의 말을 잘 들어주고 적절히 동의도 해주는 훌륭한 대화 상대였으니, 그는 결코 얘기를 멈출 줄 몰랐을 것이다.

마침내 우리는 와이마테 마을에 도착했다. 수 킬로미터를 걸으며 아무도 살지 않는 불모의 땅을 지난 후, 마치 마법 지팡이에서 튀어나온 것 같은 영국식 농가와 잘 정돈된 들판이 갑자기 모습을 드러내자 굉장히 기뻤다. 윌리엄스 씨는 집에 없어서 대신 데이비스 씨의 집에 가서 머물며 따뜻한 환대를 받았다. 그의 가족들과 차를 마신 후, 우리는 농장 주위를 거닐었다. 와이마테 마을에는 큰 집이 세 채 있는데, 선교사인 윌리엄스, 데이비스, 클라크 씨의 가족들이 각 한 채씩에 거주하고 있다. 근처에는 원주민 노동자들의 오두막집이 보인다. 그 옆에 딸린 비탈진 땅에는 보리나 밀 같은 작물들이 통통한 이삭을 가득 매달고 있었다. 여기저기 다른 지역에서는 감자나 토끼풀들이 자라고 있었다. 나는 여기서 본 것들을 일일이 다 기록하지 않으려 한다. 왜냐하면 영국의 모든 과일과 채소류들이 자라고 있는 밭들이 굉장히 넓었고, 더 따뜻한 지방에서 자라는 것들도 많았기 때문이다. 굳이 예를 들자면, 아스파라거스, 강낭콩, 오이, 대황, 사과, 배, 무화과, 복숭아, 살구, 포도, 올리브, 구스베리, 알이 작고 씨 없는 건포도, 홉, 울타리를 치는 데 쓰이는 가시금작화나 영국산 참나무, 그리고 기타 온갖 종류의 꽃들이 피어 있었다. 농장 마당 주위에는 마구간이나 탈곡기를 갖춘 헛간, 대장간, 그리고 쟁기류나 그 외의 여러 도구들

이 있었다. 마당 한가운데에는, 대개의 영국 농장처럼 돼지나 닭들이 섞여 한가로이 놀고 있었다. 몇백 미터 떨어진 곳에는 실개천을 둑으로 막아 만든 저수지가 있었는데, 그곳에는 크고 튼튼한 물레방아가 있었다.
5년 전만 해도 이곳에는 단지 고사리만 무성히 자라고 있었다는 사실이 몹시 놀랍다. 더군다나 뉴질랜드 원주민들이 선교사들이 가르쳐 준 기술로 이러한 변화를 일으켜 놓은 것이다. 선교사들의 교육이 곧 요술 지팡이인 셈이다. 뉴질랜드인들이 집을 세우고 창틀을 만들었으며, 들판도 경작하고 심지어는 나무 접붙이기도 했다. 방앗간에서 일하는 뉴질랜드 사람들은 영국의 방앗간에서 일하는 사람들처럼 하얀 밀가루를 뒤집어쓰고 있었다. 이러한 광경은 정말 감탄을 자아낼 만하다. 이는 단지 영국의 풍경이 내 마음속에 선명히 떠올라서가 아니다. 하지만 저녁이 가까워짐에 따라 집에서 흘러나오는 소리들, 옥수수밭, 그리고 멀리서 나무들과 함께 기복을 이루는 대지는 나로 하여금 마치 고국에 있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킨다. 하지만 이런 감정은 영국인들이 해놓은 업적을 보면서 느끼는 승리의 감정이 아니라, 오히려 이 멋진 섬이 앞으로 발전하기를 바라는 간절한 소망이 더 맞을 것이다.
선교사들이 노예에서 해방시켜 준 몇몇 젊은이들은 농장에 고용되어 일하고 있었다. 그들은 셔츠와 재킷, 그리고 바지를 입고 있었고 준수한 외모였다. 그들이 틀림없이 정직하리라는 생각은 다음의 사소한 한 일화로 판단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들판을 걷고 있는데 한 젊은 일꾼이 데이비스 씨에게 다가오더니, 칼 한 자루와 나사송곳을 주면서 말하길, 길에서 주웠는데 누구 것인지 모르겠다는 것이 아닌가! 청년들이나 소년들의 모습은 즐거워 보이고 성격도 좋아 보인다. 저녁에는 그중 한 무리가 크리켓을 하는 것을 봤다. 선교사들의 지나친 금욕적인 생활이 비난받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선교사의 아들 하나가 그 게임에 끼어들어 열심히 뛰고 있는 모습을 보니 즐거웠다. 좀 더 결정적이고 기분 좋은 변화는 그 집 하녀로 일하고 있는 젊은 여자들에게서 찾을 수 있었다. 영국 농장에서 일하는 여자들처럼 깨끗하고 단정하

며 건강한 모습이 코로라디카의 불결한 오두막집 여자들과는 놀랄 정도로 대조적이었다. 선교사 부인들은 그녀들에게 문신을 하지 말라고 설득했지만 유명한 문신 기술자가 남쪽 지방에서 오면, 하녀들은 "정말로 입술에만 몇 줄 할게요. 안 그러면 나이 들었을 때, 주름이 잡혀 몹시 보기 싫을 거예요"라고 말했다. 옛날처럼 문신을 그렇게 많이 하는 것은 아니지만, 아마도 추장과 노예를 구별 짓는 상징으로 오랫동안 행해질 것 같다. 왜냐면 일련의 관념들이 정말 빠르게 습성화되는 것 같기 때문이다. 선교사 자신들의 눈에도 문신을 하지 않은 보통 얼굴은 하잘것없어 보이고 뉴질랜드 신사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저녁 늦게 나는 윌리엄스 씨의 집에서 밤을 보냈다. 거기에는 성탄절을 보내기 위해 많은 어린아이들이 모여 차가 놓여 있는 테이블 주위에 앉아 있었다. 이처럼 멋지고 즐거운 모임을 본 적이 없다. 바로 이곳이 식인의 풍습과 살인, 그리고 모든 흉악한 범죄들이 일어나는 땅의 한가운데라니! 이 어린 얼굴들에 꾸밈없이 그려진 따뜻함과 행복함이, 늙은 선교사의 얼굴에서도 똑같이 느껴졌다.

12월 24일 | 아침에, 가족 모두가 원주민의 언어로 기도를 낭독했다. 나는 아침 식사 후 시간을 정원과 농장 주위를 거닐며 보냈다. 오늘은 장이 서는 날이라, 작은 마을 주위에는 원주민들이 감자나 인디오 옥수수, 돼지를 가지고 나와 담요나 담배로 바꾸거나, 이따금씩 선교사의 설득으로 비누와 바꾸기도 했다. 데이비스 씨의 맏아들은 농장을 직접 경영하는데 이 시장에서는 사업가라 할 수 있다. 어릴 때 이 섬으로 들어온 선교사의 아이들은 부모보다 이곳 언어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어 원주민에게서 무엇이든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정오가 되기 조금 전에 윌리엄스와 데이비스 씨는, 유명한 카우리소나무를 보여 주기 위해 나를 근처 한 숲 속으로 데려갔다. 울창한 나무 한 그루에서 뿌리 위쪽의 둘레를 측정해 보니 9미터였다. 직접 보지는 않았지만 인근에는 10미터 정도 되는 것도 있으며, 12미터나 되는 것도 있다고 들었다. 이 나무들은 매끈한 원통 모양의 줄기가 특징이다. 높이가 18미터에서 심지어 54미터까

지 뻗어 있는데, 거의 둘레 변화가 없이 일정하며 옆으로 잔가지 하나 나 있지 않다. 나무 꼭대기의 가지들은 줄기에 비해 어울리지 않게 작고, 잎들도 가지에 비해 작다. 이곳의 숲은 거의 카우리소나무들로 이루어져 있었고, 커다란 수목들이 마치 숲을 떠받치는 거대한 기둥처럼 나란히 늘어서 있었다. 카우리 목재는 이 섬에서 매우 값비싼 생산물이다. 더욱이 이 나무의 껍질에서 나오는 송진도 상당해서 미국으로 1파운드당 1페니의 가격으로 팔렸는데 그 용도는 알려지지 않았다. 뉴질랜드 숲의 일부는 비정상적이라 할 만큼 우거져 있어 사람이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 폭이 55킬로미터 정도밖에 되지 않는 숲이 거주 지역 두 곳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는데 최근, 그것도 처음으로, 길을 뚫었다고 매슈스 씨가 알려 주었다. 매슈스 씨와 그 외 선교사들 50여 명이 모여서 길을 내는 데 착수하여 2주 조금 걸렸다고 하니 대단하지 않은가! 숲에서는 새들을 거의 보지 못했다. 동물에 대해 정말 주목할 만한 사실은, 이 큰 섬에 조그마한 쥐를 제외하고는 토착 동물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다. 이 거대한 섬은 길이가 1130킬로미터가 넘고, 폭은 대부분 150킬로미터나 되며, 다양한 산지와 좋은 기후, 그리고 높이는 최고 4천3백 미터가 되는데도 말이다. 조류 중 몸이 큰 모아새[4] 몇 종이 이곳에서 네발 달린 포유류를 대체하고 있는 것 같다. 마치 갈라파고스 제도에서 파충류들이 그랬던 것처럼 말이다. 흔한 노르웨이 쥐가 이 섬의 북단에 들어와, 2년이라는 짧은 시간 내에 뉴질랜드 토착종들을 멸종시켰다고 한다. 여러 곳에서 잡초 몇 종을 봤는데, 쥐처럼 나 자신도 이 지방의 토착민이 될 수 있음을 강요하는 것 같다. 서양 부추가 전 구역을 덮고 있어 큰 문제를 일으킬 소지는 있지만, 실은 프랑스 함선이 호의를

4 Dinornis와 같다. 모아목Dinornithiformes에 속하는 타조형의 멸종된 무익조류無翼鳥類의 속명. 종의 수는 아직 논란이 많으나 13~25종으로 추정된다. 몸의 크기는 칠면조 크기에서부터 타조보다 더 큰 것에 이르기까지 다양한데, 어떤 종은 서 있을 때의 높이가 약 3미터 정도에 달한다. 마오리 인들의 전통에 의하면, 모아는 빠르게 달리며, 구석에 몰리면 발길질을 하여 자신을 방어했다고 한다—역주.

베풀기 위해 들여온 것이다. 또한 수영[5]들도 널리 퍼져 있는데, 이는 한 영국인이 수영 씨앗을 담배 씨앗으로 속여서 팔았다는 악행의 증거로 영원히 남아 있을 것 같아 염려스럽다. 즐겁게 산책을 마치고 돌아와 윌리엄스 씨와 함께 저녁 식사를 마친 후에, 말을 빌려 타고 아일랜드 만으로 다시 돌아왔다. 선교사들이 환영해 준 친절에 대한 감사와 함께, 그들의 신사다움과 유능함, 그리고 고결한 성격에 깊은 존경심을 보낸다. 그들이 하고 있는 고귀한 일에, 그들보다 더 적합한 사람을 찾는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 되리라.

성탄절 | 며칠만 더 있으면 영국을 떠나온 지 만 4년이 된다. 첫 번째 성탄절은 플리머스에서 보냈으며, 두 번째는 혼 곶 근처의 생마르탱 만에서, 세 번째는 파타고니아 지방의 데지레 항구에서, 네 번째는 트레스몬테스 반도의 큰 항구에서, 다섯 번째인 지금은 바로 이곳에서, 그리고 다음번은 영국에서 맞을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우리는 파히아에 있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다. 예배는 영어와 원주민 말을 섞어 가며 진행되었다. 뉴질랜드에서 최근에 사람고기를 먹었다는 얘기를 듣지는 못했지만, 정박지 근처의 작은 섬에서, 불 피웠던 곳 주위로 불에 탄 사람의 뼈가 흩어져 있는 것을 스토크스 씨가 발견했다. 하지만 오붓한 진수성찬의 잔재가 몇 년 동안 그곳에 남아 있었을 수도 있겠다. 뉴질랜드 사람들의 윤리적 상태는 상당히 빠르게 개선되어 가리라 믿는다. 부시비 씨는, 기독교인임을 고백하는 사람들 중 적어도 몇 명은 진실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흐뭇한 일화 하나를 들려주었다. 한 젊은이는 다른 하인들에게 성서를 읽어 주는 데 익숙해 있던 터였는데, 그 곁을 떠나가게 되었다. 그 뒤 몇 주가 지난 어느 저녁의 늦은 시간에, 부시비 씨가 우연히 헛간 옆을 지나가는데, 일꾼 중 한 명이 다른 사람들에게 불빛 옆에서 힘겹게 성서를 읽어 주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 조금 시간이 지나자 그들은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렸다. 그런데 바로 그 기도문 안에는 바로 부시비 씨와 그의 가족들, 그리고 따로 떨어져 있는 여러 구역의 선교사들 이름이 차례로 들어가 있었다.

5 마디풀과의 여러해살이풀—역주.

12월 26일 | 부시비 씨는, 나와 설리번 씨에게 강 위쪽으로 카와카와 마을까지 자신의 보트를 타고 몇 킬로미터 정도 가서, 그 뒤 와이오미오 마을까지는 걸어서 가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안했다. 와이오미오 마을은 몇몇 신기한 바위들이 있는 곳이다. 우리는 만의 후미를 따라 즐겁게 노를 저어 가면서 아름다운 경치를 구경하다가 한 마을에 도착했는데, 그 마을 위쪽으로는 보트를 타고 갈 수가 없었다. 그곳에서 6킬로미터 거리에 있는 와이오미오 마을까지는 추장과 그 일행이 우리와 함께 가겠다고 자원했다. 요즘 추장은 자신의 부인 중 한 명이 노예와 불륜을 저질렀다고 그들 모두를 교수형에 처해 악명이 더욱 높아진 상태였다. 선교사 한 사람이 이에 대해 충고하자 그는 놀란 듯이, 자신은 영국 방식을 정확히 따른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었다. 늙은 숑기가 여왕의 공판이 진행되는 동안 영국에 있던 적이 있었는데, 그는 재판의 전반적인 과정에 큰 불만을 표했다. 그에게는 다섯 명의 아내가 있는데 그중 한 명이 골치를 썩이면 차라리 모든 아내들을 교수형에 처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마을을 벗어나 조금 떨어져 있는 언덕 중턱의 다른 마을을 지나게 되었다. 아직까지 기독교를 믿지 않던 추장의 딸이 닷새 전에 이곳에서 죽었다. 그녀가 죽은 오두막집은 태워져서 흙으로 되돌아갔다. 두 개의 작은 카누 사이에는 죽은 여자의 몸을 밀봉하여 땅 위에 세운 다음, 그들 신을 본떠 만든 목각 신상으로 감싼 후에 전체를 밝은 빨강색으로 칠해 멀리서도 뚜렷이 보이게 하였다. 그리고 죽은 여자의 겉옷은 관에다 묶고, 머리카락은 잘라서 발치에 던져 두었다. 가족 친지들은 자신들의 팔이나 몸, 얼굴을 찢어 상처를 내어서인지, 온몸이 굳은 피로 범벅이 되어 있었다. 늙은 여자들은 너무 더러워서 구역질이 날 정도였다. 다음 날 선원 몇 명이 그곳을 방문했는데, 그때까지도 여자들은 자신들의 몸에 상처를 내면서 울부짖고 있었다고 한다.

우리는 걸음을 재촉해 얼마 안 있어 와이오미오 마을에 도착했다. 그곳에는 무너진 성곽을 닮은, 특이한 석회암 덩어리들이 있다. 이 암석들은 오랫동안 매장지에 이용됐기 때문에 너무 신성화되어 접근하기가 어려웠다. 하지만 한

젊은이가 "우리 모두 용기를 내자"고 소리치면서 앞으로 달려 나갔다. 그러나 목표 지점까지 90미터도 남지 않은 순간에, 갑자기 더 좋은 생각이 떠올랐다는 듯 모두가 멈춰 섰다. 하지만 우리가 그 지역 전체를 조사하는 데는 전혀 관심이 없다는 듯 내버려 두었다. 마을에서 몇 시간을 쉬는 동안, 부시비 씨는 어떤 토지의 매각 권리에 대해 긴 토론을 했다. 계보에 능통해 보이는 한 노인이 작은 막대기로 땅 위에다가 그림을 그려 가며 상속자들의 계보를 설명하고 있었다. 마을을 떠나기 전에, 우리는 맛있게 구운 감자가 담겨 있는 작은 바구니를 각자 한 개씩 받았는데, 그곳 풍습에 따라, 길을 가면서 먹을 요량으로 가져왔다. 나는 요리하고 있는 여자들 사이에서 한 남자 노예를 발견했다. 이처럼 호전적인 지역에서, 그것도 하찮은 여자들이 하는 것으로 여기는 일을 남자가 한다는 것은 정말 치욕적인 일임에 틀림없다. 노예들은 전쟁에 나가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그렇다고 해서 그걸 고난으로 여기기는 어려울 것이다. 나는 불쌍하고 가엾은 한 남자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는 교전 중에 적의 진영으로 도망치다가 두 남자에게 발견돼 곧바로 붙잡히게 되었다. 하지만 누구의 노예로 삼을 것인지 두 사람의 의견이 분분해, 돌도끼를 든 채 그의 몸을 밟고 서서 옥신각신하는데, 둘 중 적어도 한 사람은 그 불쌍한 남자를 살려서 보내지는 않을 것 같았다. 이 불쌍한 사람은 공포로 인해 거의 죽을 뻔했지만, 추장 아내의 요청으로 간신히 살아날 수 있었다고 한다. 우리는 보트가 있는 곳까지 계속 산책을 즐기면서 돌아왔다. 하지만 저녁 늦어서야 비로소 우리 배에 도착할 수 있었다.

12월 30일 | 오후에 제도의 만을 벗어나 시드니로 항로를 잡았다. 뉴질랜드를 떠나게 되어 모두가 매우 기뻐할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뉴질랜드는 기분 좋은 곳이 아니다. 원주민들에게서는 타히티 섬에서 봤던 매력적인 순박함이 없고, 이곳 영국인들 대부분은 정말 인간 폐물들이다. 지역 자체도 매력적이지 않다. 하지만 돌이켜 보면 밝게 빛나는 한 지역이 있는데, 바로 기독교인들이 살고 있는 와이마테 마을이다.

● 다윈은 갈라파고스 제도를 지나, 환초들로 이루어진 로 제도를 거쳐 타히티 섬에 정박한다. 다윈이 타히티 섬의 풍경과, 친절하고 밝은 원주민들의 모습과 생활상에 큰 호감을 가졌다는 것은 글을 통해 알 수 있다. 그런가 하면, 산호초로 둘러싸인 타히티 섬의 모습을 한편의 그림을 보는 듯 세밀하게 묘사하고 있다. 해변가에는 열대 지방에서나 볼 수 있는 아름다운 산물들로 덮여 있고 지역 한가운데에는 땅을 개간해 감자, 파인애플 등을 재배하는 모습을 보면서, 다윈은 '구아바'라는 수입 과실수가 너무 번성하여 마치 잡초처럼 해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과 빵나무의 커다란 잎이 눈에 띈다고 말하면서 식물들의 생산성이 이 지역에서는 매우 높을 것이라고 감탄하고 있다. 한편, 다윈은 원주민들의 검게 그을린 건강한 피부와 온화한 풍채, 우아한 문신을 보면서 이곳이 점점 문명사회로 진행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데, 재밌는 점은 문신이나 외모의 치장에서는 아직 이곳 여자들의 유행이 많이 뒤떨어진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세련된 풍습이 절실히 필요함을 은근히 시사하고 있다.

다윈은 타히티 섬의 산을 오르면서 수많은 폭포들의 모습에 감탄하는데, 그것을 지면이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사방으로 보이는 바나나 숲과 땅에 무더기로 너부러져 있는 과일들, 넓은 사탕수수밭, 하천 주변의 '아바', 야생 아름, 야생 감자 등을 보며, 그 풍요로움에 감탄한다. 다윈은 같이 가면서 보고 느끼는 타히티 원주민들의 모습과 생활상—물속에서의 능란함, 근처 나무들로 순식간에 지어내는 멋진 집, 무궁화나무 막대기로 불을 피우는 모습,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모습, 많은 식사량, 금주 습관, 도덕성과 종교, 마지막으로 여자들의 정조—을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객관적이고 호의적인 관점에서 서술하고 있다. 여기서 다윈은 자신이 직접 경험한 위의 여러 사례들을 열거하면서, 《비치의 항해기》와 《코체부의 항해기》에 있는 타히티인들의 묘사가 부정확하다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그 후, 다윈은 한 달이 약간 안 되는 긴 항해 동안 대척점을 지나 뉴질랜드로 들어온다. 뉴질랜드를 바라보는 다윈의 시선은 타히티 섬에서처럼 그리 호의

적이지 못하다. 다윈은 이곳에서 느낀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면서, 글의 끝부분에 '뉴질랜드는 기분 좋은 곳이 아니다. 원주민들에게서는 타히티 섬에서 봤던 매력적인 순박함이 없고, 이곳 영국인들 대부분은 정말 인간 폐물들이다. 지역 자체도 그리 매력적이지 않다. 하지만 돌이켜 보면 밝게 빛나는 한 지역이 있는데, 바로 기독교인들이 살고 있는 와이마테 마을이다'라고 적고 있다. 예를 들어 얼굴 문신의 칼자국을 통해 나타나는 뉴질랜드 원주민들의 호전적인 분위기나 비글호 선원이 겪었던 그들의 호전적 기질, '파스'라고 불리는 언덕 위의 요새, 숑기라는 인디오 추장의 얘기 등을 보고 들은 다윈은 뉴질랜드인들이 키도 크고 풍채도 좋지만 그 우아함에서는 타히티 섬의 노동자 계층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저급하다고 표현하고 있다. 와이마테 마을로 가면서 동행하는 추장과 부추장의 모습을 보면 다윈의 생각이 옳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윈은 이곳 원주민들이 코를 비비면서 나누는 인사법을 타히티인들의 격식과 비교하기도 하고, 한 추장 딸의 장례식에서 나타나는 혐오스러운 의식과 가족 친지들의 모습들도 자세히 묘사하고 있는데, 서구의 문명화된 시선으로 바라봐서 그런지 그렇게 밝아 보이진 않다.

식생으로는 와이마테 마을의 키 큰 카우리소나무도 있지만 뉴질랜드의 주류는 나무고사리인데, 그래서인지 토양은 비옥하다고 언급한다. 동물상에 대해서는 노르웨이쥐들로 인한 토착종의 멸종을 강조하면서, 모아새 일부 종들이 네발 동물 포유류를 대체하고 있다고 적고 있다. 요즘 일부 국가에서 자행되고 있는 외국 귀화 생물들의 무분별한 유입이나, 혹은 토착종이나 희귀종들의 무자비한 남획으로 인해 자연생태계가 훼손되거나 일부 생물종들이 멸종되는 문제가 이슈화되는 것을 보면, 그 당시 다윈이 지적했던 점을 조금이나마 먼저 알고 대체했더라면 큰 피해는 없었으리란 생각이 든다. 만일 뉴질랜드의 자연생태계가 체계적인 제도나 관리로 인해 잘 조절되었더라면, 우리는 지금 멸종되어 볼 수 없는 여러 토착종들과 모아새들을 보며 어떤 생각들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상상을 해본다.



오스트레일리아



제19장
오스트레일리아

시드니–배서스트 답사–숲에 대한 관찰–원주민 무리–원주민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현실–전염병–블루마운틴 산맥–거대한 만灣처럼 보이는 계곡의 풍경–계곡의 기원과 형성–배서스트 하층민의 예의 바름–사회적 상황–반디멘스랜드–호바트타운–원주민이 모두 추방되다–웰링턴 산–킹조지 해협–이 지역의 어두운 측면–석회질을 띤 볼드헤드의 나무–원주민들의 잔치

1836년 1월 12일 | 이른 아침 실바람을 타고 잭슨 항의 입구를 향해 다가갔다. 멋진 집이 군데군데 보이는 초록빛 풍경이 펼쳐지리라 기대했는데, 초록은커녕 누르스름한 해안 절벽이 꼿꼿이 서 있어 파타고니아 해안이 다시 떠오를 정도다. 하얀 돌로 지어진 등대 하나만이 우리가 사람들로 북적이는 대도시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려주었다. 항구로 완전히 들어서니 널찍한 해안 풍경이 멋지게 펼쳐진다. 해안을 따라 늘어선 절벽은 수평층이 형성된 사암砂岩이다. 겨우 평지를 이룬 곳에는 비쩍 마른 나무들이 자라고 있어 이곳이 불모의 땅임을 보여 주고 있다. 해안에서 더 내륙 쪽으로 들어갈수록 토지가 개발되어 있는 모습이다. 멋진 저택과 예쁜 별장들이 바닷가를 따라 군데군데 지어져 있다. 2, 3층 높이의 석조 주택들이 멀리 보이고, 언덕가에는 풍차가 서 있다. 드디어 우리가 오스트레일리아의 수도 가까이 온 것이다.
마침내 시드니 만에 닻을 내렸다. 항구의 좁고 깊숙한 곳에는 큰 배들이 많이 정박해 있고, 주위는 창고로 둘러싸여 있다. 저녁에 시내를 걸어서 쭉 둘러보았는데, 전체적인 풍경에 무척 감탄하며 돌아왔다. 시드니 시내는 영국 민족의 힘을 보여 준 아주 위대한 증거물이라 할 수 있다. 남아메리카보다 더 가망 없는 이 땅에서 우리 영국 민족은 남아메리카에서 수백 년 동안 이룬 것보다 몇 배 더 많은 발전을 수십 년 만에 이루어 냈다. 이곳을 보니 우선 내가 영국

인으로 태어난 것이 기뻤다. 나중에 시내를 더 많이 보고 나서는 처음 느꼈던 감동이 약간 줄어들었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멋진 도시라고 생각한다. 널찍하고 깨끗한 도로는 아주 질서 정연하게 정리되어 있고, 적당한 크기의 집과 구색을 갖춘 가게들이 자리하고 있다. 넓게 확장된 런던 교외나 영국에 위치한 몇몇 대도시와 정확히 견줄 만하다. 그러나 런던이나 버밍엄(영국 중부에 위치한 도시) 근처에서도 이렇게 급성장한 모습은 찾기 힘들다. 이제 막 공사를 마친 큰 집과 건물들이 정말 놀랄 만큼 많았다. 그런데도 이곳에서는 집을 구하기도 어렵고 임대료도 너무 비싸다고 모두들 불평하고 있다. 남아메리카에서 어느 정도의 재산가는 모두 도시 전체의 유명 인사가 되어 있다. 여기는 거리의 마차를 봐도 도대체 누구의 것인지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이 남아메리카를 거쳐 온 나에게는 가장 놀라웠다.

배서스트[1]로 안내해 줄 사람 한 명과 말 두 마리를 빌렸다. 배서스트는 내륙 쪽으로 193킬로미터 거리에 있는 마을인데, 광활한 목초 지역의 중심지이다. 그러므로 배서스트로 가면 이 지역의 자연 풍경에 대해 전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으리라 기대했다. 1월 16일 아침, 답사 여행을 위해 출발했다. 처음 도착한 곳은 패러매타[2]였다. 이곳은 작은 시골 마을이지만 시드니 다음으로 중요한 지역이다. 머캐덤 공법[3]에 따라 만들어진 도로가 아주 훌륭했는데,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단단한 암석을 일부러 옮겨 와서 만든 것이다. 이곳은 모든 점에서 영국과 닮아 있다. 아마 선술집은 여기가 더 많을 것이다. 범죄를 저지른 죄수들 한 무리를 이곳에서 보았는데, 영국과는 전혀 다른 풍경이다. 죄수들은 무장 경비병들의 감시를 받으며 사슬에 묶인 채 일하고 있다.

오스트레일리아 정부는 강제 노동을 동원해 곳곳에 훌륭한 도로를 동시에 개

1 오스트레일리아 뉴사우스웨일스 주 중동부에 있는 도시. 블루마운틴 서쪽의 매콰리 강 남쪽에 위치한다-역주.

2 오스트레일리아 뉴사우스웨일스 주 패러매타 강 연안, 시드니 서쪽 근교에 있는 도시-역주.

3 18세기 스코틀랜드의 존 머캐덤이 고안한 포장도로 공법. 도로 밑부분에 부순 화강암이나 녹암을 깔고, 표면을 가벼운 돌로 덮어 폐수를 흡수하면서 배수로로 빠져나갈 수 있게 했다-역주.

설할 수 있는 권력을 갖고 있는데, 이 식민지가 일찌감치 번창하도록 이끈 주원인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에뮤 선착장에 있는 아주 편안한 여관에서 밤을 지냈다. 에뮤는 시드니에서 56킬로미터 떨어져 있으며 블루마운틴[4]으로 올라가는 길 근처에 있다. 이 길은 이 지역에서 가장 붐비는 곳으로, 지금까지 가장 오랫동안 사람이 거주해 온 곳이다. 전 지역이 높은 울타리로 둘러싸여 있다. 이곳 농부들이 아직까지 산울타리 나무를 키워 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견고한 집들과 멋진 시골 별장들이 여기저기 지어져 있다. 이렇게 많은 땅이 개간 중에 있지만, 그래도 훨씬 더 넓은 토지가 처음 발견되었을 당시 모습 그대로 미개간 상태로 있다.

뉴사우스웨일스 주 지역 대부분에서 보이는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은 식물의 분포가 극히 일정하다는 것이다. 어디에나 널따란 삼림 지대가 펼쳐져 있다. 땅 위에는 비쩍 마른 목초가 드문드문 나 있으며 푸른 풀은 거의 보이지 않는다. 이 지역의 나무는 대략 같은 과科에 속한다. 나뭇잎이 수평에 가깝게 나 있는 유럽과 달리, 대부분 잎이 수직 방향으로 나 있다. 조금 나 있는 나뭇잎은 특이하게 엷은 초록빛 색조를 띠고 있는데 광택은 전혀 없다. 숲 속은 나무 그늘이 없고 밝다. 이런 자연환경은 여름의 타는 듯한 햇빛을 받고 숲을 지나야 하는 여행자에게는 불편하지만, 농부에게는 중요하다. 햇빛이 없으면 자라지 못할 풀을 자라게 해 주기 때문이다. 이곳의 나무에서는 낙엽이 한꺼번에 철 따라 주기적으로 떨어지는 일이 없다. 이런 특징은 남반구 전 지역, 즉 남아메리카, 오스트레일리아, 희망봉 등에 걸쳐 흔히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 남반구 지역과 열대 지방의 주민들은 나뭇가지만 남은 나무 위에서 새 나뭇잎이 한꺼번에 확 자라나는 그 놀라운 풍경을 본 적이 없다. 우리는 흔히 보던 풍경이지만, 어쩌면 이 세상에서 가장 찬란한 순간이라 할 수 있다. 그래도 우리는 이 순간을 보기 위해 몇 달 동안 벌거벗은 나무만 보는 비싼 대가를 치렀지 않은가. 사실 그렇긴 하지만 우리의 감각은 그래서 더욱 봄에 피어나는 멋진 초록

4 오스트레일리아 뉴사우스웨일스 주에 있는 이스턴 산악지대의 일부–역주.

의 향연을 더욱 강렬하게 즐기고 싶은 것이다. 작열하는 기후 덕분에 1년 내내 멋진 자연을 누리는 열대 지방 사람들은 절대 느낄 수 없는 기분이리라. 상록 거목인 유칼리나무 몇 그루를 제외하고 많은 나무들이 그렇게 거목으로 자라지는 않지만, 적당한 간격을 두고 꽤 곧고 높이 잘 자라고 있다. 유칼리나무의 껍질은 해마다 한 번씩 벗겨져 떨어지기도 하고, 죽은 나무껍질 조각이 길게 매달려 있다. 죽은 나무껍질 조각이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리고 있으니, 숲이 황량하고 지저분해 보인다. 이렇게 오스트레일리아 숲은 발디비아[5]나 칠로에 섬[6]의 숲과 모든 점에서 극히 완벽한 대조를 이루고 있다.

해 질 무렵, 검은 피부의 원주민 20명 정도가 무리를 지어 지나간다. 각자 몸에 익은 습관대로 창 1묶음과 그 외 무기들을 몸에 지니고 있다. 우두머리로 보이는 젊은이에게 1실링을 주었더니 원주민들이 순순히 발걸음을 멈추고는 나에게 창던지기를 해 보이며 재미를 주었다. 이들은 모두 몸을 일부만 가리고 있다. 몇 명은 영어를 조금 했다. 모두 사근사근하고 명랑했다. 원주민들은 아주 미천한 사람들로 흔히 묘사되는데,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았다. 원주민이 지닌 기술은 정말 훌륭했다. 27미터 거리에 모자를 고정시켜 놓고, 막대기를 이용해 창을 날려 꽂았다. 그 빠르기가 마치 숙련된 궁수가 쏘는 화살과 같았다. 원주민들은 동물이나 사람을 추적해 잡을 때 뛰어난 민첩함을 보여 주는데, 자신들의 예리한 감각을 증명하는 몇 가지 이야기를 나에게 들려주었다. 그러나 토지를 경작하거나 집을 짓고 정착하려고 하지는 않는다. 심지어 양 떼가 생겨도 지키고 돌보려고 하지 않는다. 대체로 이곳 원주민들은 티에라델푸에고 원주민보다 문명화 정도가 약간 더 높아 보인다.

이렇게 문명화된 사람들 가운데, 해를 끼치지 않는 미개인 무리가 오늘 밤 어디에서 잠을 잘지도 모른 채, 숲 속에서 사냥해 먹고살면서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풍경은 아주 기묘하다. 백인들이 계속 들어오면서, 몇몇 부족들이 사는

5 칠레 남부의 로스라고스 주에 있는 도시-역주.

6 칠레 남부의 로스라고스 주 칠로에 군에서 가장 큰 섬-역주.

지역까지 백인들이 퍼지게 되었다. 이렇게 백인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상황에서도 원주민 부족들은 고유의 우수성을 지켜나가고 있는데, 때로 부족끼리 전쟁이 일어나기도 한다. 최근 일어난 부족 간 전쟁에서는 두 부족이 아주 이상한 일이지만 배서스트 마을 중심을 싸움터로 택했다. 이는 결국 패배한 부족에 유리한 일이 되었다. 왜냐하면 도망친 병사들이 마을의 막사 속으로 피신했기 때문이다.

원주민의 수가 빠른 속도로 줄어들고 있다. 이번 여행에서 영국인들이 키우고 있는 소년 몇 명 외에 한 무리를 더 보았을 뿐이다. 외국에서 독한 술이 수입되는 한편으로 유럽에서 질병(홍역[7]과 같이 약한 전염병도 이곳 원주민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다)이 들어오고, 야생동물이 감소하기 때문에 원주민이 감소하고 있다. 원주민 가운데 많은 어린이들이 떠돌아다니는 생활 방식 때문에 아주 어려서 죽는다. 이들은 먹을 것을 구하기 힘들기 때문에 더 오래 떠돌아다닐 수밖에 없다. 이렇게 굶어 죽었다고 확실히 밝혀진 죽음을 제외하고도 문명사회보다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문명사회에서는 아버지가 자식을 먹여 살리기 위해 일하다 자기 몸을 다치는 일은 있어도 자식을 죽이지는 않는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확실하게 드러난 원주민의 사망 원인 외에도 더 신비로운 작용이 미치고 있는 것 같다. 유럽인이 발을 내디딘 지역마다 죽음이 원주민을 따라다니는 듯하다. 광활한 남북아메리카와 폴리네시아, 희망봉, 오스트레일리아의 경우를 봐도 그렇다. 원주민의 사망 원인으로 백인만 있는 것은 아니다. 말레이 혈통의 폴리네시아인은 부분적으로 동인도 제도 혈통으로 검은 피부의 그곳 원주민들을 쫓아냈다. 동물이 서로 다른 종끼리 영향을 미치듯 인간의 세계에서도 비슷하다. 약육강식의 원리가 지배하여 강한 종이 약

7 현지의 기후 조건에 따라 같은 질병이라도 다른 양상을 보인다. 세인트헬레나 섬과 같이 작은 섬에서는 성홍열猩紅熱 정도의 전염병도 아주 무서운 역병으로 받아들인다. 동일한 전염병이라도 그 지역의 원주민과 외지인이 감염되었을 때 각각 아주 다른 증상을 보이기도 한다. 이러한 예가 칠레에서도 여러 차례 발생했다. 또한 훔볼트에 의하면 멕시코에서도 사례가 있었다고 한다(《신新스페인 왕국 정치학 논문집》 4권).

한 종을 몰아내는 것이다. 뉴질랜드에 사는 젊은 원주민이 자신의 아들이 어른이 될 때쯤에는 자기 종족의 땅이 소멸될 운명이라고 말하는 현실이 슬프다. 아름답고 건강한 타히티 원주민들의 수가 쿡 함장의 항해 이후 줄어들고 있다고 들린다. 이곳에서는 원주민의 인구가 증가하리라고 기대되었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예사로 이루어졌지만 이제는 어린아이들을 죽이지 않고, 방탕하게 사는 사람도 줄어들었고, 싸우다 사람을 죽이는 일도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윌리엄스 목사의 재미있는 저서[8]에 보면, 원주민과 유럽인이 처음 접촉할 때면 "꼭 열병이나 이질, 그 외 다른 질병이 들어와 많은 원주민이 사망한다"고 한다. 또 "내가 이 군도에 머무는 동안 이런 질병들이 심하게 돌았는데, 이는 배를 통해서 들어온 것이 확실하다고 한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렇게 심한 질병을 가져온 배의 선원들에게서는 질병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9]라고 적고 있다. 윌리엄스 목사의 이 기록이 그렇게 특이한 것은 아니다. 질병을 가져온 사람들은 건강한데, 현지에서 아주 극심한 열병이 발생했다는 사례에 대한 기록들이 이미 과거에도 몇 번 있었기 때문이다. 조지 3세가 통치하던 시절 전

8 《선교 사업 이야기》, 282쪽.

9 비치 함장에 따르면(1권, 4장), 피트케른 섬 원주민들은 배가 들어온 후에는 꼭 피부병과 다른 질병으로 고생한다고 한다. 비치 함장은 외부인이 머무르는 동안 이들의 섭식이 변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매큘럭 박사(《서쪽의 섬들》 2권, 32쪽)에 의하면 "외부인이 들어오면 (세인트킬다에서) 주민들 모두가 어김없이 감기에 걸린다고 확신한다"고 한다. 매큘럭 박사는 과거에 가끔 그런 사례가 있었을 수는 있지만 이런 믿음은 어이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는 계속해서 "우리는 이곳 원주민 모두가 여기에 동의하는지 의문이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밴쿠버의 항해기에는 오타헤이테와 비슷한 일화가 실려 있다. 디펜바흐 박사는 이 항해기를 번역하면서 채텀 군도와 뉴질랜드 일부 지역의 원주민들은 모두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알려 주었다. 이러한 믿음이 확실한 근거가 없다면 북반구와 지구 반대쪽, 그리고 태평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믿고 있지는 않을 것이다. 훔볼트(《신스페인 왕국 정치학 논문집》 4권)에 따르면 파나마와 카야오에서 돌았던 심한 전염병들은 칠레에서 온 배가 도착하면서 극심해졌다고 하는데, 온대 지방 사람들이 찌는 듯이 더운 지역에서 온 사람들에게 처음으로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이라고 한다. 내가 들은 얘기로도, 슈롭샤이어에서는 배로 건강한 양들을 들여와도, 현지에서 다른 양들과 섞어 놓았을 때 그 안에서 질병이 발생한다고 한다.

반기에 지하 감옥에 갇혀 있던 죄수 한 사람이 법정에 가기 위해 경찰 네 명과 함께 마차에 타고 간 적이 있었다. 이 죄수는 멀쩡했는데도 함께 타고 갔던 경찰 네 명은 발진티푸스로 금방 죽었고, 그 외 다른 사람들은 무사한 적이 있었던 것이다. 이런 사례들로 미루어 보면 얼마 동안 갇혀 있던 사람이 내뿜는 냄새를 흡입하면 유독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또 인종이 다른 경우에도 훨씬 심하게 영향을 받을 수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보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사람이 죽고 나서 시체가 부패하기 전에 이미 독성이 퍼져 버려서 시체를 해부하다가 칼에 조금만 베어도 치명적일 수 있다는 점이다.

1월 17일 | 아침 일찍 나룻배를 타고 네피언Nepean 강을 건넜다. 이 강은 폭이 넓고 깊은데 강물은 아주 적다. 맞은편 저지대를 지나 블루마운틴 산맥[10] 기슭에 다다랐다. 정상으로 올라가는 길은 사암 절벽을 지나 가파르지 않게 나 있다. 정상에는 거의 평평한 평원이 펼쳐져 있는데, 이 평원은 서쪽으로 갈수록 고도가 높아져서 914미터 이상이 된다. 블루마운틴 산맥이라는 거창한 이름을 가지고 있고 또 절대 고도가 높은 것으로 보아, 이 지역을 가로지르는 거대한 산맥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정상에 형성되어 있는 평원이 경사를 이루면서 해안 근처에 있는 저지대까지 닿아 있을 정도다. 이곳에서 보면 동쪽으로 광활한 삼림 지대가 멋지게 펼쳐져 있으며 크고 듬직한 나무들이 보인다. 그렇지만 사암 대지 위까지 올라가면 보이는 풍경은 아주 단조롭다. 길 양쪽으로 유칼리과의 관목이 있으며, 작은 여관 몇 개 외에는 집도 개간지도 보이지 않는다. 가는 길은 한적한데, 양털을 등에 싣고 가는 손수레가 자주 보일 뿐이다.

한낮이 되어 웨더보드라는 작은 여관에서 말을 먹였다. 이곳은 해발 853미터 높이에 자리 잡고 있다. 여기에서 대략 2.4킬로미터 거리에 경치가 멋진 곳이 있다. 냇물이 흐르는 작은 골짜기를 따라 내려가다 보면 놀랍게도 길 양쪽의 나무 사이로 약 457미터 깊이의 거대한 만灣이 보인다. 몇 미터 더 가다 보면 거대한 절벽을 맞닥뜨리게 되는데, 그 아래로는 울창한 나무로 덮인 거대

10 오스트레일리아 뉴사우스웨일스 주에 있는 산맥-역주.

한 만이 보인다. 여기에서 보이는 것은 만의 시작 부분이다. 양쪽으로 절벽이 형성되어 있어 해안처럼 갑岬이 계속해서 나타난다. 절벽은 수평 층리가 형성된 흰색 사암인데, 수직으로 서 있어서 절벽가의 어디에서라도 조약돌을 던지면 아래쪽 나무에 맞는 것을 볼 수 있다. 절벽 사이로 내려가기 위해서는 작은 시냇물이 흘러 만들어진 폭포의 바닥까지 26킬로미터를 돌아서 가야 한다. 약 8킬로미터 더 가다 보면 또 다른 절벽이 시작되는데, 절벽이 골짜기를 완전히 싸고 있다. 이곳은 거대한 원형 경기장 모양이어서 만灣이라는 이름에 딱 들어맞는다. 이 골짜기에 해안까지 이어진 완만한 땅이 드러나 모랫바닥이 숲으로 된다면 똑같은 풍경이 될 텐데 아주 신기했다.

저녁에 블랙히스에 도착했다. 사암 대지가 여기까지 형성되어 있는데, 이곳의 높이는 1킬로미터가 넘고 역시 관목으로 덮여 있다. 위에서 보였던 골짜기의 특징이 그대로 관찰되긴 하지만, 절벽이 너무 가파르고 깊어서 골짜기의 밑바닥은 보이지 않는다. 블랙히스는 늙은 군인이 운영하는 아주 편안한 여관이다. 북北 웨일스에 있는 작은 여관이 떠올랐다.

1월 18일 | 아침 일찍 고베트의 절벽을 보기 위해 약 4.8킬로미터를 걸어갔다. 이곳은 웨더보드 근처와 비슷하지만 더 웅장했다. 이른 아침 엷게 푸른 안개로 차 있는 만의 경치는 아래로 보이는 숲을 더 깊이 보이게 했다. 이 계곡은 이주민들이 내륙으로 들어가는 것을 가로막고 있는 것으로 유명하다. 만의 위쪽 끝부분에서 형성된 굽은 만들이 중심 계곡에서 분기되고 사암 대지로 형성된다. 사암 대지는 계곡 속에 우뚝 솟은 모래 언덕을 남기기도 하고, 커다란 모래 덩어리로 남아 있기도 하다. 이 계곡을 내려가기 위해서는 32킬로미터를 돌아가야 한다. 최근에 와서야 지형 조사반이 다른 계곡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 지금도 이주자들은 소를 타고 계곡으로 들어갈 수 없다. 그런데 계곡 끝에서는 계곡의 넓이가 수 킬로미터에 이르는데, 입구 쪽으로 갈수록 사람 하나 지나갈 수 없을 만큼 폭이 좁아진다는 것이 특징적이다. 측량 감독관인 미

첼 경[11]은 이 계곡을 올라가 보기 위해 처음에는 걸어서, 그다음에는 거대한 사암 절벽 사이를 기어서, 또 그로스 강과 네피언 강이 만나는 골짜기를 따라 올라가 보려고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다고 한다. 그로스 강 계곡의 상부는 사방이 절벽인데 꼭대기는 해발 914미터가 넘고 폭이 수 킬로미터인 광대하고 평탄한 분지를 이루고 있다. 울간 강의 골짜기를 향해 자연적으로 생긴 길과 땅 주인이 만들어 놓은 길을 따라 소들을 몰고 내려가면 소들은 도망칠 도리가 없다. 이 길을 제외하고는 모두 깎아지른 절벽으로 둘러싸여 있고 13킬로미터 아래에는 아주 좁아져서 사람도 동물 한 마리도 지나갈 공간이 없기 때문이다. 미첼 경에 따르면, 콕스 강의 거대한 계곡과 지류들이 네피언 강과 만나는 지점에서는 폭이 2킬로미터, 깊이가 약 305미터인 협곡으로 좁아진다고 한다. 이와 같은 사례들은 이외에 몇 군데 찾아볼 수 있다.

이 지역의 거대한 계곡들과 원형 경기장처럼 굽은 양쪽 절벽의 지층이 이어진 것을 보면 역시 물의 압력에 의해 침식되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좁은 협곡이나 바위틈으로 운반되어 온 돌멩이들이 사라져 버린 것을 보면, 이 지역이 침강되어 있는 상태로 짐작된다. 그러나 나뭇가지처럼 삐쭉삐쭉 형성되어 있는 계곡들과 대지에서 계곡 속으로 흘러들어 형성되어 있는 좁은 갑岬 모양의 지형들을 보면 꼭 그렇지는 않다. 이 지역의 움푹하게 팬 지형은 하천의 작용으로 형성된 것은 아니다. 웨더보드 근처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상부의 물이 반드시 이 골짜기의 위쪽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만처럼 굽이진 곳의 한쪽으로 떨어지는 것이다. 원주민 몇 명도 갑이 양쪽으로 움푹 패어 있으면서 해안의 험한 지형과는 다른 지역은 본 적이 없다고 했는데, 이 말이 맞다. 뉴사우스웨일스 지방의 해안 입구는 폭이 1.6킬로미터에서 0.4킬로미터로 좁고 사암 절벽 사이에 형성되어 바다와 이어진다. 이곳의 포구들은 대륙의 거대한 계곡과 형태는 비슷하지만 규모는 작으며, 수많은 포구들이 넓게 이리

11 《오스트레일리아 여행기》 1권, 154쪽. 나는 뉴사우스웨일스 지방에 있는 이 거대한 계곡에 관하여 미첼 경과 흥미로운 편지를 주고받았는데, 깊은 감사를 전한다.

저리 뻗쳐 있다. 그런데 바닷물에 의해 광활한 대지에서 이렇게 움푹 팬 지형으로 침식작용이 일어나면서 입구에는 운반되어 온 물질들이 빠져나갈 협곡이 형성되는지 의문이 생긴다. 이렇게 들쭉날쭉하게 형성된 모래톱은 서인도 제도와 홍해의 바다 일부에서 형성되고 있으며, 이 주위의 경사가 아주 가파르다는 사실에서 이 수수께끼의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모래톱은 밑바닥이 울퉁불퉁한 지역에서 해류가 오랫동안 강하게 흐르면서 퇴적물들이 쌓여 만들어지는 것으로 짐작된다. 서인도 제도를 조사한 결과를 볼 때 바다는 퇴적물을 넓은 지역에 고루 퇴적시키는 것이 아니라, 바다 밑바닥의 바위와 섬 주변에 불규칙하게 퇴적시킨다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또 남아메리카의 여러 지역을 보면 파도는 육지로 둘러싸인 포구에서도 높고 가파른 절벽을 만들 정도로 강력하다. 뉴사우스웨일스의 사암 대지를 보면, 강한 해류의 영향과 함께 바다 밑바닥의 울퉁불퉁한 지형에서 파도의 작용에 의해 형성된 것으로 추측된다. 그 주변에 움푹 팬 곳의 가파른 측면이 천천히 융기하면서 침식되어 절벽이 형성되고, 사암 쇄설물들은 바다가 좁은 협곡으로 형성되어 가는 동안이나 그 이후에 하천의 작용에 의해 제거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블랙히스를 출발하자 바로 빅토리아 산으로 가는 길을 만나 사암 대지에서 내려오기 시작했다. 이 길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양의 암석을 제거했어야 할 것이다. 이 길의 설계와 건설 방식은 영국의 어느 것에도 뒤지지 않았다. 이제 높이가 305미터로 낮아지고 화강암으로 이루어진 지역으로 들어왔다. 이곳으로 들어서니 바위 지형이 바뀌고 식물의 분포가 더 풍부해진다. 더 잘생긴 나무가 군데군데 보이는데, 나무 사이의 목초가 푸르게 잘 자라 있다. 하산의 벽에서 큰길로 벗어나 왈레라왕이라는 농장으로 가는 지름길로 접어들었다. 시드니에 사는 농장 주인이 농장 지기에게 쓴 소개장을 갖고 가는 길이다. 브라운 씨는 친절하고 고맙게도 우리 일행에게 묵어가라고 말해 주었다. 이 농장은 이주 지역 내에 위치한 큰 규모의 농장이지만, 그보다 양을 키우는 농장의 모범이 되고 있다. 이 지역의 골짜기에는 습기가 있어서 목초가 풍부

하게 자라기 때문에 소와 말들이 더 많이 사육되고 있다. 집 근처에 있는 평지 몇 군데를 개간해 옥수수를 심었는데 지금 수확 중이다. 밀도 재배하고 있는데, 이곳 일꾼들이 1년간 자급자족할 양만큼만 키우고 있다. 이곳에 고용되어 일하는 농장 노동자는 보통 마흔 명 정도인데, 지금은 조금 더 많다. 이 농장에는 부족한 것이 없어 보이지만 그렇게 편안해 보이지는 않는다. 농장에는 여자가 한 명도 없다. 맑은 날 해가 질 무렵에는 거의 모든 풍경은 풍요롭고 행복해 보이게 마련이다. 그런데 이곳의 한적한 농가 근처에 있는 나무들은 푸르게 자라고 있지만, 농장의 마흔 명 정도 되는 일꾼들은 아프리카에서 잡혀 온 노예 신세처럼 처참하게 일하고 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또 다른 농장 지기인 아처 씨와 함께 캥거루 사냥을 나갔다. 하루 종일 돌아다녔지만 운이 안 좋아 캥거루나 들개 한 마리도 만나지 못했다. 그레이하운드 사냥개들이 속이 빈 나무 속으로 도망간 캥거루쥐[12]를 쫓아가서 끌어냈다. 캥거루쥐는 집토끼만큼 작았는데 모양은 캥거루를 닮았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곳에 야생동물이 많이 살았는데, 현재 에뮤[13]는 멀리 사라져 버렸고, 캥거루도 드물었다. 영국산 그레이하운드가 에뮤와 캥거루를 모두 쫓아 버린 것이다. 얼마 더 지나면 완전히 멸종될지 모르지만, 이미 멸종될 운명에 처한 것은 확실하다. 원주민들은 농장에서 개를 빌리고 싶어 한다. 개를 빌려주는 것이나 사냥 후 남은 고기와 암소 젖을 조금 주는 것은 내륙으로 들어오는 침입자들이 내미는 화해의 선물인 것이다. 멋모르는 원주민들은 이 사소한 선물에 눈이 멀어 백인이 들어오는 것을 좋아하지만, 백인들은 그 땅을 대대로 차지할 계획에 몰두하고 있다.

사냥을 나가 잡은 것은 없지만 신나게 말을 타고 다녔다. 이곳 삼림 지역은 나무 사이에 공간이 있어 말을 타고 달릴 수 있다. 가다 보면 나무도 없고 바닥

12 쥐목 주머니쥐과 캥거루쥐속의 총칭. 캥거루처럼 힘센 꼬리와 긴 다리를 가지고 있어서 캥거루쥐라고 부른다-역주.

13 오스트레일리아에 서식하는 날지 못하는 새. 현존하는 조류 중 두 번째로 크다-역주.

이 평탄하면서 초록색 풀밭이 자란 골짜기들이 있는데 마치 공원 같은 풍경이다. 어딜 가나 불에 탄 흔적이 있다. 이 흔적들은 거의 최근에 불이 나서 생긴 것인데, 검은 나무 그루터기들이 단조로운 풍경에서 여기저기 눈에 띄었다. 숲 속에는 새들이 그렇게 많이 보이진 않았다. 그 가운데 나는 흰색 코카투앵무새[14]가 떼를 지어 보리밭에서 모이를 먹고 있는 것을 보았는데, 아주 예쁜 앵무새 몇 마리도 눈에 띄었다. 갈까마귀 비슷한 까마귀도 많이 보이고, 까치 비슷한 새도 보였다. 해 질 무렵, 쭉 이어진 연못을 따라 산책했다. 사슬처럼 이어져 있는 연못은 이 메마른 지역에서 강처럼 형성되고 있었다. 이곳에서 운 좋게도 잘 알려진 오리너구리Ornithorhynchus paradoxus[15] 몇 마리도 보았다. 이 오리너구리들은 연못에서 잠수하거나 놀고 있는데, 몸을 수면 위로 조금밖에 내놓지 않아 언뜻 보면 물쥐로 착각하기 쉽다. 브라운 씨가 오리너구리 한 마리를 총으로 잡았는데, 정말 특이한 동물이다. 박제해서 만든 오리너구리를 보면 머리와 부리 부위가 수축되면서 굳는 바람에 모양을 알아보기 힘들 정도이다.[16]

1월 20일 | 하루 종일 말을 달려 배서스트에 도착했다. 숲 속의 작은 길을 따라갔는데, 목장 사람들이 사는 오두막 몇 채 외에는 한적했다. 작은 길을 벗어나 한길로 나섰다. 사하라 사막에서 지중해 연안으로 불어오는 열풍 같은 오스트레일리아의 바람을 만났는데, 내륙의 뜨거운 사막에서 불어왔다. 먼지 구름이 온 사방에 퍼지고, 바람은 불 위를 지나온 듯 뜨거웠다. 나중에 들으니 당시

14 앵무과 코카투앵무아과에 속하는 몇몇 종의 앵무류. 오스트레일리아와 말레이 반도에서 솔로몬 제도까지 분포한다—역주.

15 동부 오스트레일리아와 태즈메이니아의 호수와 냇가에 산다. 오리너구리는 넓적하고 탄력 있는 주둥이를 가진 점과 알을 낳는 점이 특징이다—역주.

16 이곳에서 개미나 다른 곤충이 굴을 파놓았는데 속이 빈 원뿔 모양으로 아주 흥미로웠다. 파리가 여기에서 미끄러져 들어가 버렸다. 또 큰 개미가 빠졌다가 나오려고 몸부림쳤다. 커비와 스펜스(《곤충학》 1권, 425쪽)에 의하면 곤충은 꼬리로 먹이에다 모래를 홱 뿌렸다. 그런데 이 개미는 파리보다 운이 좋아 원뿔형 함정 바닥에 있는 턱에 물리지 않고 도망 나왔다. 오스트레일리아에서 관찰된 이 함정은 유럽에서 볼 수 있는 것보다 반 정도 작았다.

기온이 섭씨 48.3도였고, 밀폐된 방에서는 35.5도였다고 한다. 오후에 배서스트의 초원을 보았다. 조금의 경사는 있지만 거의 평탄한 초원으로 나무가 한 그루도 없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이곳은 갈색의 목초가 얕게 자라고 있다. 이 초원을 몇 킬로미터 달려 엄청나게 넓은 골짜기에 위치한 배서스트 시내에 닿았다. "시드니의 길을 보고 오스트레일리아를 너무 나쁘게 보지 마라. 또 배서스트를 보고 너무 좋게 보지 말라"는 얘기가 있는데, 배서스트 얘기는 정말 맞다. 가뭄이 심할 때는 그렇게 좋지 않다. 두세 달 전보다도 훨씬 못하다. 이곳 배서스트의 갈색 목초지가 외부인이 보기에는 메말라 보이지만, 사실은 양을 키우기에 최고라는 데 배서스트의 발전에 대한 비밀이 있다. 매콰리 강변, 해발 670미터에 마을이 형성되어 있는데, 이 매콰리 강은 거대하고 우리에게 미지의 대륙인 내륙으로 흘러들고 있다. 내륙의 하천과 해안의 하천을 나누는 분수계의 높이는 약 914미터인데, 해안에서 129킬로미터 내지 161킬로미터 거리쯤에서 남북 방향으로 흐른다. 매콰리 강은 지도에 확실하게 나타나는데, 이 지역에서 흘러나가는 강 가운데 가장 큰 강이다. 그런데 위에서 말했듯, 이 강은 쭉 이어진 연못이 사슬 모양으로 연결된 것으로 연못 사이의 공간은 건조한 지역이다. 이곳은 보통 작은 하천이 흐르고 있는데, 가끔 심하게 넘치기도 한다. 결론적으로 이 지역은 물이 적은 편으로, 내륙으로 들어갈수록 더욱 적어진다.

1월 22일 | 새로 난 로키어 도로를 따라 배로 돌아갔다. 근처에는 낮은 산들이 많이 둘러싸고 있어 경치가 좋았다. 하루가 걸리는 길인데 우리가 묵을 집은 길에서 조금 떨어져 있어 찾기 힘들었다. 뜻밖에도 아주 친절한 하층민들을 만나 호의를 입었다. 이들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생각하면 정말 기대하기 힘든 호의를 베풀어 준 것이다. 밤을 보낸 농장은 두 젊은이가 소유하고 있다. 이들은 최근에야 정착했다고 한다. 모든 것이 부족해 보이는 생활이었지만, 이 젊은이들 앞에는 확실한 성공이 기다리고 있다.

다음 날, 불길에 덮인 지역을 지나는데, 엄청난 연기가 휘몰아쳤다. 정오가 되

지 않아, 앞서 지났던 길에 다시 들어서서 빅토리아 산으로 올라갔다. 웨더보드에서 잠을 자고 어두워지기 전에 원형 경기장 같은 곳을 보러 갔다. 시드니로 돌아오는 길에 킹 함장과 함께 던헤벳에서 아주 즐거운 저녁을 보냈다. 이로써 뉴사우스웨일스 지역의 여행이 끝났다.

이곳에 도착하기까지 세 가지가 나에겐 가장 흥미로웠다. 상류층의 생활 모습과 죄수들의 비참한 현실, 그리고 외부인을 잡아끄는 매력이 그것이다. 물론 짧은 시간 동안 느낀 이러한 의견이 신뢰성이 없을 수도 있다. 그러나 진실을 알기는 힘들어도 어떤 식으로든 의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곳에 와서 내가 들은 사실들로 미루어 볼 때 원주민들의 생활상에 실망했다. 거의 모든 문제에서 사회는 적대적으로 갈라져 있다. 상류층 사람들 가운데에도 생활이 난장판이면 따돌림을 받는다. 부유한 농장 주인의 자식들과 자유농민의 자식들 사이에는 시기심이 많았다. 농장 주인의 아이들은 정직한 자유농민들을 훼방꾼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부자든 가난하든 사람들은 돈 버는 데에만 관심이 있었다. 상류층에서는 양털과 양을 키우는 문제가 최고의 관심이었다. 가정의 안전에도 심각한 문제들이 많았다. 죄수 하인들이 일으키는 사건이 많았다. 며칠 전에 나쁜 짓을 저질러 매를 맞은 사람이 시중든다고 생각하면 기분이 불편할 수밖에 없다. 하녀들도 아주 행실이 나빠서 어린아이들이 하녀들의 상스럽고 천박한 말을 따라 한다. 천박한 생각까지 배우지 않으면 다행이다.

한편 같은 자본으로 영국보다 세 배의 이익을 볼 수 있어 큰 부자가 된다. 이곳의 사치품은 영국보다 조금 비싸지만, 식품은 대부분 더 싸다. 이 지역의 기후 조건은 건강에 최적의 조건을 갖고 있다. 그러나 사회의 다른 문제들 때문에 기후의 훌륭함도 사라져 버린다. 이주민들은 자신의 젊은 아들이 일해서 큰 이익을 본다. 16살에서 20살 때 멀리 떨어져 있는 농장을 맡는 것이 보통이다. 그런데 이 경우에 아이들은 죄수 하인들과 함께 생활해야 한다. 사회 분위기가 어떻게 형성되는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지적인 노력 없는 이러한 사회

분위기는 분명 타락의 길로 갈 것이다. 내 생각으로는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민은 말리고 싶다.
내가 이런 현실을 몰랐다면 이 식민지가 빨리 발전했다는 것과 미래의 전망에 대해 이해하기 힘들었을 것이다. 이곳의 주요 수출품은 양털과 고래 기름이다. 그런데 두 가지 모두 생산량에 한계가 있다. 이곳은 운하를 파기가 어려운 여건이라, 내륙 먼 곳에서 육상으로 양털을 수송하게 되면 양을 키우고 털을 깎는 비용도 남지 않는다. 양을 키우기 위한 목초가 어디나 풍부한 것은 아니어서 이미 내륙으로 좁아졌다. 내륙으로 들어갈수록 땅은 아주 메말라 간다. 한발旱魃 때문에 대규모 농업은 불가능하므로 오스트레일리아는 남반구의 상업 중심지가 되어야 하고, 미래에는 제조업에 의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석탄이 매장되어 있으니 동력은 걱정 없기 때문이다. 해안 주변에만 사람이 살 수 있는 데다 영국의 전통에 따라 오스트레일리아는 해양 국가로 성장할 것이다. 예전에는 오스트레일리아가 북아메리카만큼 거대하고 강력한 국가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지금 생각은 그렇지 않다.
무엇보다 죄수들의 생활상을 확실히 판단할 수 없다. 죄수들의 생활이 과연 처벌에 합당한가 싶은 강한 의문이 든다. 아무도 가혹한 처벌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더라도 본국에 있는 범법자들이 이 처벌을 무서워한다면 별 문제는 없을 것이다. 죄수들은 먹고사는 데 부족함 없이 제공받는다. 규칙을 지키며 생활하면 풀려나는 것도 그리 머지않다. 죄수의 생활이 모범적이라면, 범법 혐의와 범죄 사실이 없는 한 몇 년 뒤에 선고된 형량에 비례해 정해진 지역 내에서 휴가증이 주어진다. 이렇게 좋은 여건이라고 해도, 지금까지 감옥 생활을 보면 수형 생활이라는 것은 불만과 불행 속에서 지나간다. 죄수들은 성욕 외에는 즐거움이 없다고 들었는데, 이들에게는 허락되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가 자유 방면을 제안하면서 거둬들인 엄청난 보석금과 격리되어 있는 유형지라는 공포로 인해, 죄수들은 자신감을 잃게 되므로 범죄가 예방된다. 죄수들에게는 수치심이 없어 보이는데, 이에 대한 몇 가지 증거가 있다. 죄수들

은 아주 비굴하다는 것이 특징이다. 어떤 죄수는 아주 무심하기도 하고, 아주 극성이기도 한데, 꾸준한 용기가 필요한 일은 수행하지 못한다. 합법적인 교정이라는 것이 있지만, 법이 관여하기에는 비교적 사소한 범법 행위이고 어떤 도덕적인 개선이 전혀 일어날 것 같지 않다. 죄수 하인들과 함께 생활하게 되면 계속 착하게 생활하기가 힘들다. 이렇게 되면 함께 비참해질 것이다. 오스트레일리아에서든 영국에서든 죄수를 싣고 가는 배의 선원들도 죄수들로 인해 나쁜 영향을 받는다. 전체적으로 수형 장소로서의 목적은 실패한 것 같다. 교화를 위한 현실적 제도로도 역시 효과가 없다. 그러나 겉으로 보면 지구 한쪽에서 실패한 범법자들을 다른 지역으로 이주시켜 건전한 시민으로 만들어 새로운 문명국가를 탄생시켰고, 역사상 유례없이 성공해 왔다고 할 수 있다.

1월 30일 | 비글호는 반디멘스랜드의 호바트타운Hobart Town[17]으로 출발했다. 초반에는 날씨가 좋았는데, 후반 엿새 동안에는 엄청나게 춥고 매서운 바람이 부는 동안 항해한 후, 2월 5일 스톰 만 입구에 도착했다. 스톰 만의 이름에 어울리게 바람이 매서웠다. 만의 꼭대기에서 더웬트 강이 시작되므로 하구라고 불려야 할 것이다. 강어귀 가까이에는 넓은 현무암 대지가 몇 곳 있는데, 위쪽으로는 산악 지형으로 나무가 조금 나 있다. 만을 감싸고 있는 나지막한 산의 기슭이 개간되어 밝은 노란색의 밀밭과 진한 녹색의 감자밭이 있는데 아주 잘 자라 있다. 늦은 저녁, 조용한 만에 정박했다. 이곳 해안에 태즈메이니아의 수도가 있다. 첫 느낌은 시드니보다 안 좋았다. 시드니가 도시라면 여기는 시골 마을 같다. 이 마을은 웰링턴 산기슭에 있다. 경치는 훌륭하지 않지만, 이 산은 높이가 945미터로 마을에 물을 충분히 공급해 주고 있다. 작은 만을 따라 창고가 몇 채 지어져 있고, 한쪽은 작은 성채가 있다. 성채를 짓는 데 치중하는 스페인 식민지를 보고 왔기 때문에, 이 식민지의 성채는 초라해 보였다. 시드니와 비교해 볼 때, 이미 지어졌거나 짓고 있는 큰 건물이 너무 적었다.

17 호바트Hobart의 옛 이름. 오스트레일리아 태즈메이니아 주의 주도이자 최대 도시이며 주요 항구 도시–역주.

1835년 인구 조사에 따르면, 호바트타운의 주민 수는 1만 3826명, 태즈메이니아 전체는 3만 6505명이다.
원주민을 모두 배스 해협[18]에 있는 섬으로 이주시켰기 때문에 반디멘스랜드에는 원주민이 한 명도 없다. 원주민들이 끊임없이 강도, 방화, 살인을 저지르기 때문에 이를 위해 잔인하지만 어쩔 수 없는 조치였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원주민들이 이곳에서 완전히 멸종된 것으로 보인다. 무섭게도 이러한 범죄와 악행의 결과가 우리나라 사람에게도 미친다. 아일랜드만큼 큰 이 섬에서 태어난 원주민을 모두 추방하기에 30년은 너무 짧다. 이 문제에 관해 본국 정부와 반디멘스랜드 정부 간의 협의는 아주 흥미 있다. 몇 년 동안 가끔씩 원주민들을 찾아다니면서 총으로 쏴서 죽이고 죄수로 잡아들이기도 했다. 그러나 1830년에 섬 전체에 계엄령을 내려 주민 모두가 원주민을 잡으려고 나서자, 원주민들은 그제야 우리의 힘을 깨닫기 시작했다. 그때 원주민을 잡기 위한 계획은 인도에서 벌어진 대사냥 경기와 비슷했다. 원주민을 태즈먼 반도[19]의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넣기 위해 섬을 가로질러 사람들을 쭉 배치해서 경계선을 만들었다. 그런데 원주민들이 밤중에 개를 데리고 이 경계선을 몰래 뚫고 지나갔기 때문에 실패로 돌아갔다. 원주민들이 야생동물을 쫓아다니며 익힌 뛰어난 감각과 바닥을 기어 다니는 습성을 볼 때 당연한 결과다. 원주민들은 아무 장막도 없는 맨땅에서도 몸을 숨길 수 있을 것이다. 원주민들의 검은 피부는 이 지역에 흩어져 있는 검게 탄 나무 그루터기와 비슷해서 눈에 띄지 않기 때문이다. 원주민 한 사람과 영국인들이 시합을 벌인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원주민이 벌거벗고 산기슭에 서 있다가, 영국인들이 눈을 잠시 감고 있는 동안 원주민이 바닥에 쪼그려 앉으면 영국인들은 주위의 나무 그루터기들과 원주민을 절대 구별할 수 없다. 다시 앞의 사냥 이야기로 돌아가자. 원주민들은 백인들의 힘과 수에 우선 놀랐다. 두 부족으로 이루어진 13명의 원주민 무리가 나

18 오스트레일리아 남동 해안과 태즈메이니아 섬 사이의 해협-역주.

19 태즈메이니아 주 남동부에 있는 반도-역주.

타났다가 자신들의 무력함을 알고 무서워서 항복했다. 로빈슨 씨가 가장 적대적인 원주민을 찾아가 용감무쌍하게 활약한 후, 원주민 모두가 항복해 왔다. 그 후 원주민들을 섬으로 이동시켜 옷과 식량을 제공했다. 스트르젤레키 백작에 따르면,[20] “1835년 원주민들을 이송할 당시 숫자가 210명이었다. 7년 후 1842년에는 겨우 54명으로 줄었다. 백인과 접촉한 적이 없는 뉴사우스웨일스 지방 내륙의 원주민 가족에게는 어린아이도 발견되었다. 반대로 플린더스 섬[21]의 원주민들은 8년 만에 단 14명만 남고 말았다!”고 한다.

비글호는 이 지역에 열흘 동안 정박했다. 그동안 나는 주변의 지질을 관찰하기 위해 몇 차례 짧은 여행을 통해 아주 흥미로운 관찰을 몇 가지 했다. 첫째, 데본기 또는 석탄기에 속하는 화석이 아주 많은 지층을 발견했다. 둘째, 최근에 지표면이 조금 융기한 증거를 보았다. 마지막으로 나뭇잎의 흔적이 남은 황색 석회암에 육지에 사는 달팽이가 지표로 발견되었다. 이곳 외에도 반디멘스랜드의 식물상을 기록하고 있는 곳이 또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 지역은 뉴사우스웨일스 지방보다 습도가 높고, 땅도 더 비옥하다. 농사가 아주 잘 되어 채소와 과일이 잘 자란다. 조용하고 구석진 곳에 농가들이 예쁘게 지어져 있다. 전체적인 식물상은 오스트레일리아와 비슷하지만, 더 푸르게 자라 있고, 나무 사이에 자란 목초도 더 풍성하다. 하루는 마을 맞은편에 있는 해안 쪽을 오랫동안 산책했다. 증기선을 타고 만을 건너가는 동안 배가 계속 앞뒤로 흔들렸다. 증기선 가운데 한 척에 있는 기관은 식민지에서 만들어졌다. 이곳 식민지는 겨우 33년 전에 건설되었다. 어느 날 웰링턴 산에 올라갔다. 처음에 등산할 때 나무가 너무 빽빽해서 다시 돌아온 적이 있으므로 이번에는 길잡이를 한 명 데리고 갔다. 그런데 함께 간 길잡이가 어리석게도 산의 남쪽 습기 찬 곳으로 이끌었다. 이곳은 식물이 많이 자라 있고 썩은 나무줄기가 많아 올라가는 데 힘이 들었다. 티에라델푸에고 섬이나 칠로에 섬에서 산

20 《뉴사우스웨일스와 반디멘스랜드의 지형》, 354쪽.

21 태즈메이니아 주 퍼노 제도의 최북단에 있는 가장 큰 섬–역주.

을 올라갈 때만큼이나 힘들었다. 정상까지 올라가는 데 다섯 시간 반이나 걸렸다. 유칼리나무가 도처에서 크게 자라고 있어 훌륭한 숲을 이루고 있었다. 협곡은 습도가 아주 높아 목생 양치류가 특히 번성해 있다. 큰 것은 엽상체 밑까지의 높이가 최소한 6미터는 되고 둘레는 정확히 1.8미터가 될 정도였다. 커다란 엽상체는 아주 멋진 양산이 되어 초저녁 같은 그늘을 드리웠다. 산의 정상은 넓은 평원인데, 뾰족하고 거대한 초록색 바위들로 덮여 있다. 높이는 해발 945미터였다. 날씨가 맑아 시야가 멀리 보였다. 북쪽으로는 우리가 서 있는 정상과 비슷한 고도로 부드러운 삼림 지대가 펼쳐져 있다. 남쪽으로는 육지와 물이 만나 구불구불한 만을 이루고 있다. 몇 시간 동안 정상에서 머문 뒤에 내려가기 좋은 길을 찾았다. 그러나 하루 종일 고생하고 저녁 8시가 되어서야 정박해 놓은 비글호로 돌아왔다.

2월 7일 | 비글호는 태즈메이니아에서 출발했다. 다음 달 6일 오스트레일리아 남서쪽에 있는 킹조지 해협[22]에 도착했다. 이곳에 8일간 머물렀는데, 정말 지루하고 재미없었다. 이 협만은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면 숲으로 덮인 평지로 군데군데 나무로 덮인 둥근 화강암이 솟아 있다. 하루는 캥거루 사냥을 나가는 사람들을 따라 이 지역을 오랫동안 걸어 다녔다. 어디를 가나 모래 섞인 땅은 매우 황폐해 보였다. 마르고 키 작은 덤불과 마른풀, 키 작은 나무숲만 보였다. 전체적으로는 블루마운틴 산맥에서 본 높은 사암 대지와 비슷한 풍경이다. 그러나 이 지역에는 유칼리나무는 적고 카수아리나나무(유럽 소나무와 조금 비슷한 나무)가 훨씬 많이 보인다. 탁 트인 평지에는 백합과의 상록관목이 많았다. 이 상록관목은 종려나무와 비슷한 형태를 갖고 있지만, 엽상체 대신 꼭대기에 아주 빳빳한 풀잎이 드리워 있다. 멀리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곳의 관목과 식물들은 풍요로운 연둣빛 풍경을 만들어 낸다. 그런데 조금만 가까이 가보면 얼마나 메말라 있는지 환상이 깨진다. 따라서 다시는 이 지역을 걷고 싶은 생각이 없어진다.

22 웨스턴오스트레일리아 주 남부 해안에서 가장 훌륭한 천연 항만의 하나–역주.

어느 날 피츠로이 함장과 함께 볼드헤드로 갔다. 뱃사람들이 이곳에 대해 말하는 것을 많이 들었다. 여기서 산호를 보았다는 사람도 있고, 성장 단계를 그대로 담고 있는 규화목을 보았다는 사람도 있다. 둥글게 닳은 조개껍데기와 산호 입자로 된 가는 모래를 바람이 불어 올려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나뭇가지와 뿌리가 달팽이와 함께 묻히게 되었을 것이다. 그 뒤 석회질 물질이 여기에 흘러들어 와서 굳은 다음, 단단한 종유석과 같은 물질이 묻혀 있는 나뭇가지와 뿌리가 썩으면서 생긴 공간을 채워 갔을 것이다. 계속해서 풍화와 침식이 진행되면서 부드러운 부분은 마모되고, 나뭇가지와 뿌리는 단단해져서 지면 위에 솟아 있게 되었고, 죽은 나무 그루터기와 비슷하게 보이는 것이다.
우리가 이 지역에 머무는 동안, 큰 원주민 부족인 흰앵무새족 남자들이 우리를 찾아왔다. 우리가 쌀과 설탕 몇 통을 선물로 주자, 이 남자들은 킹조지 협만에 사는 부족들과 함께 커다란 댄스파티인 '코로베리'를 열겠다고 했다. 원주민들은 날이 어두워지자 불을 작게 피워 놓고 화장을 시작했다. 이들의 화장은 하얀 칠로 점과 선을 그리는 것이다. 큰 불을 피워 놓고 여자와 어린아이들이 둘러앉았다. 앵무새 부족과 킹조지 부족의 남자들은 두 팀으로 나눠 서로 화답하듯 춤을 추었다. 함께 옆으로 달려가거나 일렬로 서서 행진하면서 땅을 힘차게 쿵쿵 밟으며 춤을 추었다. 땅을 밟는 동작에서는 들고 있는 곤봉과 창을 부딪쳐 소리를 냈고, 팔을 쫙 벌리고 몸을 트는 등 여러 동작을 함께 했다.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 의미도 없고 원시적이며 야만적인 춤일 뿐이었다. 그러나 원주민 여자들과 어린아이들은 아주 재미있게 구경하고 있었다. 이 춤은 원래 전쟁과 승리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 원주민의 춤 가운데 에뮤 춤이란 것에서는 남자들이 에뮤의 목처럼 팔 하나를 굽혀서 춤을 추었다. 또 어떤 춤에서는 남자 하나가 캥거루가 풀을 뜯어 먹는 동작을 흉내 내자, 다른 남자가 기어가 창으로 찌르는 흉내를 냈다. 앵무새족과 킹조지 부족이 함께 춤을 추는 동안 땅바닥은 쿵쿵거리고, 원주민들이 지르는 소리가 하늘을 울렸다. 흔들리는 불빛 사이로 보이는 거의 벌거벗은 몸뚱이들은 야만인의 축

제다웠다. 티에라델푸에고에서도 야만인들의 신기한 풍경들을 많이 보았지만, 원주민들이 이렇게 신나고 흥겹게 노는 것은 처음 보았다. 춤이 끝난 후, 모두가 땅 위에 둥글게 모여 앉아 밥과 설탕을 나누어 먹었다.

구름 때문에 며칠을 더 머문 뒤 3월 14일 킹조지 해협을 떠나 킬링 섬으로 출발했다. 오스트레일리아여 안녕히! 너는 지금 자라나는 어린아이와 같다. 언젠가 남쪽을 지배하는 위대한 공주로 자라날 것이다. 그러나 너는 사랑받기에는 너무 거대하고 야심에 차 있다. 또 존경받기에는 너무 부족하다. 나는 슬픔도 후회도 없이 너의 해안을 떠나가노라.

● 비글호는 1836년 1월 12일에 잭슨 항에 입항한다. 이후 3월 14일 킹조지 해협을 떠나 킬링 섬으로 출발할 때까지 오스트레일리아를 탐사하게 된다. 비글호는 시드니에서 호바트타운을 거쳐 킹조지 협만에 정박한다. 다윈은 비글호가 정박해 있는 동안 내륙 쪽으로 답사를 다녀오면서 조사한 지질과 식물상을 기록하고 있다. 또 식민지 국가로서의 사회적 상황과 원주민들의 생활상에 대해서도 자세히 관찰하고 있다.

다윈은 처음 시드니 시가지를 둘러본 뒤 멋진 도시의 풍경에 가슴 벅찬 감동을 느낀다. 시드니 시가지는 영국의 힘을 보여 준 위대한 증거물이라며 자부심에 한껏 들뜨기도 한다. 다윈은 이 지역의 자연을 전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내륙 쪽으로 답사를 다녀와 지질과 동식물 상에 대해 적고 있다. 뉴사우스웨일스 지역의 지질을 조사하고 과거의 지질 현상을 추측해 보기도 한다. 다윈은 이 지역에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야생동물이 많이 살았는데 현재 에뮤와 캥거루도 많이 줄었다고 적고 있다. 그는 또 흰색 코카투앵무새 떼도 보고, 운 좋게 오리너구리 몇 마리가 놀고 있는 모습도 본다. 나아가 다윈은 반디멘스랜드의 지질 탐사를 통해 흥미로운 조사 결과를 몇 가지 얻는다. 이곳에서 데본기나 석탄기에 속하는 화석이 포함된 지층을 발견하고, 최근 지표면이 융기한 증거도 보았다고 기록하고 있다.

다윈은 식민지를 건설한 백인들 사이에서 검은 피부의 미개한 원주민들이 돌아다니고 있는 기묘한 풍경에 대해 고개를 갸우뚱한다. 또 오스트레일리아 원주민들에 대해 관찰한 기록을 남기고 있다. 그는 이곳 원주민들이 티에라델푸에고 원주민보다 조금 더 문명화되었다고 생각한다. 다윈의 눈에 별로 미개해 보이지 않으며, 창을 던져 사냥하는 기술도 뛰어났다. 그런데 이들은 토지를 경작하거나 집을 지어 정착하려고 하지 않는다. 백인들이 계속 들어오면서 원주민의 수가 급속히 줄어들고 있지만 원주민 부족들은 고유의 우수성을 지켜 가고 있다. 다윈은 유럽인이 발을 내디딘 지역마다 원주민의 사망이 늘어나는 현상에 대해 여러 원인을 추측하면서 씁쓸해한다. 그는 동물이 서로 다른 종

끼리 영향을 미치듯 인간 세계도 비슷하다고 생각한다. 원주민이 사라져 가는 현상에 대해 다윈은 인간세계에서도 약육강식의 원리가 지배하여 강한 종이 약한 종을 몰아내고 있다고 적고 있다.

다윈은 뉴사우스웨일스 지역의 답사를 끝내고 이곳 식민지 국가의 사회 상황에 대해 느낀 바를 들려준다. 그는 상류층의 생활 모습과 죄수들의 비참한 현실을 보고 실망한다. 이주민들은 같은 자본으로 영국에서보다 몇 배의 이익을 볼 수 있어 큰 부자가 된다. 열여섯에서 스무 살짜리의 아들이 멀리 떨어진 농장을 맡는 것도 흔하다. 그런데 부유한 농장 주인의 자식들과 자유농민의 자식들 사이에는 적대감과 시기심이 팽팽했다. 부유하든 가난하든 돈 버는 데만 관심 있고, 가정에서는 아이들이 죄수 하인들과 생활하고 있어 위험해 보였다. 다윈은 이렇게 지적이지 않고 타락할 것 같은 사회 분위기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적고 있다.

다윈은 오스트레일리아의 현실을 둘러보며 미래의 전망에 대해 예측해 본다. 오스트레일리아는 내륙으로 들어갈수록 땅이 메마르고 대규모 농업이 불가능하므로 미래에 남반구 상업의 중심지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 해안 주변에만 사람이 살 수 있는 자연환경에다 영국의 전통에 따라 해양 국가로 성장하리라 생각한다. 그러나 다윈은 오스트레일리아의 사회 현실을 접하면서 첫발을 내디딜 때의 감동이 조금 시들해지기도 한다. 이제 야심만만하게 성장하고 있는 이 식민지 국가에서 미련 없이 발길을 돌려 다음 목적지인 킬링 섬으로 향한다.



킬링 제도 : 산호초 형성



제20장
킬링 제도 : 산호초 형성

킬링 제도–진기한 외형–빈약한 식물상–씨의 운반–새와 곤충들–수면이 오르내리는 샘–죽은 산호 대지–나무뿌리에 엉켜 운반된 돌–거대한 게–쏘는 성질이 있는 산호–산호를 먹는 물고기–산호 형성 과정–산호초 섬–초를 만드는 산호가 살 수 있는 깊이–나지막한 산호섬들이 흩어져 있는 광대한 지역–산호초 기반의 침강–보초–거초–거초가 보초나 환초로 바뀜–해수면 변동의 증거–보초에 나 있는 틈–몰디브 환초의 독특한 구조–죽어서 물에 가라앉은 산호초–침강과 융기가 일어난 지역–화산의 분포–광대한 지역에 걸쳐 천천히 일어나는 침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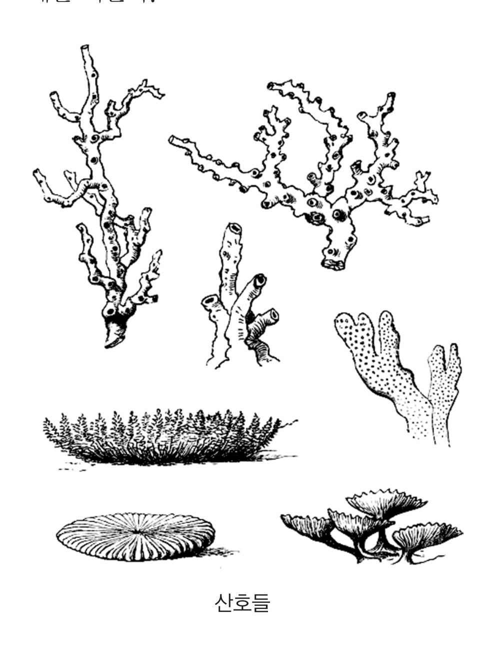
4월 1일 | 인도양에 위치한 수마트라 해안에서 1120킬로미터가량 떨어진 킬링 제도 또는 코코스 제도라고도 불리는 섬들 가까이 왔다. 이 섬은 산호초 섬 중 하나로, 예전에 우리가 지났던 로 제도와 비슷하다. 배가 섬 입구의 수로에 도착했을 때, 섬에 사는 영국인 리스크 씨가 보트를 타고 왔다. 이 섬에 사람이 거주하게 된 역사를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9년 전, 별 볼 일 없는 인간인 헤어 씨가 서인도 제도에서 수많은 말레이 사람들을 노예로 데려왔는데, 지금은 그 사람들의 아이들까지 포함해 거의 100명이 넘는다. 얼마 후, 전에 상선을 타고 이 섬을 방문한 적이 있던 영국인 로스 함장이 가족과 함께 정착에 필요한 물품을 싣고 섬에 도착했다. 그때 항해사였던 리스크 씨도 함께 오게 된 것이다. 그러자 말레이 노예들은 헤어 씨가 정착했던 섬에서 곧바로 도망쳐 로스 함장 일행에 합류했다. 그렇게 되자 헤어 씨는 결국 그 섬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
말레이 사람들은 현재 명목상 자유 신분이며 개개인에 대한 처우를 보면 확실히 그렇다. 그러나 다른 면에서 그들은 노예처럼 취급된다. 넉넉하지 못한 형

편과 이 섬에서 저 섬으로 자주 교환되는 점, 사소하지만 부당하게 대우받는 점에서 보면 그들의 앞날은 그리 밝지 못하다. 섬에는 돼지를 제외하고 네발 달린 가축이 없으며 야자 열매가 주요 산물이다. 섬 전체가 이 나무에 의존하고 있어, 야자 열매 기름과 야자 열매가 유일한 수출 품목이다. 주로 싱가포르와 모리셔스 섬으로 수출하고 잘게 갈아서 카레를 만드는 데 주로 사용한다. 뚱뚱하게 살찐 돼지도 거의 야자 열매를 먹여 기르고 오리와 닭도 마찬가지다. 거대한 육상 게조차 이 열매의 껍데기를 열어 알맹이를 먹을 수 있는 도구를 갖추고 있다.

산호초 섬을 이루는 고리 모양 산호초 위에는 작은 섬들이 쭉 늘어서 발달해 있다. 북쪽, 즉 바람이 불어 가는 쪽에 배가 정박지로 들어갈 수 있는 통로가 있다. 안쪽에 있는 정박지로 들어서며 본 광경은 무척 신기하고 아름다웠다. 이 아름다움은 온전히 이곳을 둘러싸고 있는 색채의 찬란함 때문이다. 얕고 잔잔하며 맑은 초호礁湖의 물 아래로는 하얀 모래가 깔려 있고 여기에 햇빛이 수직으로 비추며 매우 선명한 녹색을 띤다. 초호의 폭은 11킬로미터 정도 되는데, 빙 둘러서 철썩이고 있는 눈처럼 하얀 파도에 의해 검푸른 바닷물과 나뉘고, 야자나무의 평평한 윗부분이 그려 내는 섬들의 윤곽을 따라 푸른 창공과 구분된다. 여기저기 떠 있는 하얀 구름은 담청색 하늘과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고, 이와 마찬가지로 초호에서도, 살아 있는 산호의 어두운 띠가 짙은 녹색 바닷물과 대조를 이룬다.

정박한 다음 날 아침, 디렉션 섬의 해안으로 갔다. 좁고 긴 그 섬은 폭이 수백 미터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초호 쪽으로는 하얀 석회질의 해변이 있고, 찌는 듯한 무더위에서 뿜어져 나오는 복사열은 숨이 막힐 정도다. 외해 쪽 산호 바위로 된 단단하고 넓은 평지는 외해의 맹렬함을 상쇄해 주는 역할을 한다. 모래가 조금 섞여 있는 초호 주변을 제외하면, 섬 전체는 둥글둥글한 산호 조각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듯 무르고 건조하며 돌이 많은 토양이지만 열대기후 그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식물을 생산해 낼 수 있다. 좀 더 작은 몇몇 섬에는

어리거나 완전히 자란 야자나무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며 지상에서 가장 우아한 숲을 이루고 있다. 반짝이는 하얀 모래 해변이 이 아름다운 섬들 사이에 경계를 이룬다.



산호들

이제 이 섬들을 자연사적인 관점에서 간단히 훑어보자. 그쪽 방면으로 워낙 빈약한지라 오히려 독특한 흥미를 자아낸다. 언뜻 보면 숲에는 야자나무만 있는 것 같으나 대여섯 종류의 다른 나무들도 있다. 이것들 중 하나는 매우 크게 자라지만 목질이 물러 쓸모가 없고, 다른 것 하나는 배를 만드는 데 훌륭한 목재로 쓰인다. 이 나무들 외에 식물 수는 극히 적으며 주로 쓸모없는 잡초들만 있다. 내가 채집한 목록에는—아마도 섬에 있는 식물 모두를 포함한다고 생각되는데—이끼류와 지의류, 균류를 제외하고 20종이 포함된다. 이것에 2종을 보태야 하는데, 그중 하나는 꽃이 피지 않고 다른 하나는 보지는 못하고 듣기만 했다. 후자는 이 종류에서 유일하게 섬에 살아 있는 것이며 해변 근처에 살아 있다고 한다. 틀림없이 씨 하나가 파도에 실려 해변에 정착했을 것이다. 길란디나Guilandina도 한 섬에만 서식하고 있다. 위의 목록에 사탕수수와 바나나 그리고 몇몇 다른 채소들과 과실수는 들어 있지 않다. 섬은 산호초로만 되어 있고 한때는 단지 바닷물에 씻기는 암초로만 되어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땅에서 자라는 모든 것들이 파도에 실려 이곳으로 온 게 틀림없다. 따라서 섬의 식물상은 난민들의 피난처

와 같은 특징을 보인다. 헨슬로 교수가 알려 준 바에 의하면, 내가 채집한 20종 중 9종이 각기 다른 속屬이고 이것들은 다시 적어도 16과로 나뉜다고 하니 그 다양함이란![1]

홀먼은 자신의 여행기[2]에서, 이 제도에서 12개월을 거주한 키팅 씨에게서 들은 것을 토대로, 해안에 밀려온 것으로 추정되는 다양한 씨들과 여러 물체에 관해 언급하고 있다. "수마트라와 자바에서 식물과 씨들이 바람이 불어오는 쪽에서 밀려드는 파도에 실려 이 섬까지 왔다. 그것들 중에는 수마트라와 말라카 반도가 원산지인 키미리Kimiri도 있고, 크기와 모양으로 봐서 발시야자 열매 같은 것, 말레이 사람들이 후추나무와 함께 심는 다다스Dadass 등이 있다. 후추나무는 다다스 줄기 둘레를 휘감으며 다다스 줄기에 있는 가시로 지탱한다. 이외에도 비누나무, 아주까리, 사고야자나무의 줄기, 섬에 정착한 말레이 사람들도 알지 못하는 다양한 종류의 씨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 모든 것들은 북서 계절풍에 의해 뉴홀랜드 해안으로 밀려갔다가 그 후 다시 남동 무역풍에 의해 이 섬으로 밀려온 것으로 추측된다. 거대한 미국측백나무와 편백나무, 뉴홀랜드의 푸른색 고무나무 외에도 자바 티크나무와 목질이 노란 커다란 나무 덩어리들이 거의 완전한 상태로 발견된다. 덩굴 식물의 단단한 씨들은 싹을 낼 수 있는 성질이 남아 있지만, 망고스틴나무 씨처럼 무른 것들은 이동 중에 부서져 버린다. 때로 자바에서 온 것 같은 어업용 카누가 해안에 쓸려오기도 한다." 여러 나라로부터 드넓은 대양을 건너 표류해 온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씨들을 발견하다니 몹시 흥미롭다. 헨슬로 교수에 의하면, 내가 이 섬에서 가져온 거의 모든 식물들은 동인도 제도 해안에서 흔한 종이라고 한다. 그러나 바람과 해류의 방향으로 보아, 그것들이 이곳까지 곧바로 흘러올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키팅 씨가 상당히 설득력 있게 이야기한 것처럼, 만약 그것들이 처음에는 뉴홀랜드 해안으로 흘러갔다가 그 후에 뉴홀랜드 산물

1 이 식물들은 1838년에 발행된 《자연사 연보》, 337쪽에 기술되어 있다.

2 《홀먼의 여행기》 4권, 378쪽.

과 함께 다시 거꾸로 표류해 온 것이라면, 틀림없이 그 씨들은 발아하기 전에 2900~3800킬로미터를 이동해 온 것이 된다.

차미소는[3] 태평양 서쪽에 위치한 라닥 제도에 대해 기술하며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이 섬에서 전혀 자란 적 없는 많은 나무의 씨와 열매가 바닷물을 타고 이 섬으로 왔다. 이 씨들 중 대부분은 생명력을 잃어버리지 않았던 것 같다." 또한 열대 지방의 야자나무와 대나무, 북쪽 지방의 전나무 둥치들이 해안으로 밀려왔다고 기술하고 있다. 이 전나무들은 틀림없이 엄청나게 먼 거리를 이동해 왔을 것이다. 이 사실은 매우 흥미롭다. 만약 섬에 사는 새가 해안으로 쓸려 온 씨를 물어 나르고, 산호로 된 무른 토양 대신 씨가 자라기에 더 적합한 토양이 있다면, 머지않아 산호초 섬에서 가장 후미진 곳도 지금보다 훨씬 풍부한 식물상을 가지게 될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육상 동물 목록은 식물보다 더 빈약하다. 몇몇 섬에는 쥐가 서식하는데, 이것들은 모리셔스에서 온 배가 좌초하면서 이 섬에 옮겨진 것이다. 워터하우스 씨에 의하면, 이 쥐들은 영국 쥐와 동일한 것으로 보이나 좀 더 작고 털 색깔이 밝다. 진정한 의미의 육상 조류는 없다. 왜냐하면 도요새와 뜸부기Rallus Phillippensis 무리는 건조한 목초에서만 산다 해도 섭금류목Waders에 속하기 때문이다. 이 목에 속하는 새들은 태평양에 있는 작고 나지막한 몇몇 섬에서도 발견된다고 한다. 육상 조류가 없는 어센션 섬에서 뜸부기 종류Porphyrio simplex를 산 정상 부근에서 쏘아 죽인 적이 있는데, 그것은 분명히 길을 잃은 철새였을 것이다. 카마이클에 의하면, 트리스탄다쿠냐 섬에는 단지 육상 조류 2종과 쇠물닭 1종이 있다. 이런 사실로 미루어 짐작해 보면 섭금류—물갈퀴를 갖는다는 것에서 그 이름이 붙여진—가 바다에 떠 있는 작고 고립된 섬에 최초로 서식하는 동물인 것 같다. 한 가지 덧붙일 것은, 내가 육지로부터 멀리 떨어진 바다에서 본 새들은 모두 해양 조류가 아니라 이 목에 속하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이 종류들은 자연히 육지에서 먼 어떤 곳에 최초로 서식하는 동물이 되

3 《코체부의 첫 번째 항해기》 3권, 155쪽.

는 것이다.

이곳에서 본 파충류라곤 작은 도마뱀 한 종이 전부다. 곤충은, 모든 종류를 다 채집하느라 고생했는데, 엄청나게 많은 거미를 제외하고 13종 정도 되며,[4] 이 중 딱정벌레는 단 한 종이다. 유일하게 그 수가 많은 곤충은 무르고 건조한 산호 덩어리 아래를 기어 다니는 수천 마리의 작은 개미들이다. 땅에서 나는 산물은 빈약할지라도, 주변 바닷물로 눈을 돌리면 생물체 수는 거의 무제한이다. 차미소가 라닥 제도에 있는 산호초 섬의 자연현상에 대해 기술한 것과 비교해 보면,[5] 그곳에 사는 생물의 수와 종류는 킬링 제도의 것들과 눈에 띄게 비슷하다. 라닥 제도의 산호초 섬에는 도마뱀 1종과 섭금류인 도요새와 마도요 2종이 있다. 식물은 양치류를 포함해 19종이 있고, 그것들 중 몇몇은 이곳 식물들과 같은 것이다. 라닥 제도와 킬링 제도는 아주 멀리 떨어져 있고 주변의 바다도 다른데 말이다.

길고 좁은 땅덩어리들이 일직선으로 늘어서 있는 섬들은 파도에 의해 산호 조각이 밀려오고 바람에 의해 석회질 모래가 쌓일 정도의 높이까지만 올라가 있다. 외해 쪽 산호 바위로 된 단단한 평지는 폭이 넓어서 파도를 일차적으로 약화시킨다. 만약 그러지 않으면 하루 만에 섬들 전체와 거기에서 나는 모든 것들이 파도에 휩쓸려 가 버릴 것이다. 이곳에서 바다와 육지는 우위를 점하기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는 것 같다. 건조한 대지가 발판을 마련했다지만, 물속 생물들 또한 그들의 권리가 최소한 육지와 동등하게 유효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모든 지역에서 집게를 한 종 이상 볼 수 있는데,[6] 이것들은 인근 해변에

4 13종은 다음 목에 속한다 : 딱정벌레목의 작은 방아벌레Elater, 메뚜기목의 귀뚜라미Gryllus와 바퀴Blatta 각 1종, 노린재목 1종, 매미목Homoptera 2종, 뿔잠자리목Neuroptera의 뿔잠자리 Chrysopa 1종, 벌목의 개미 2종, 나비목 디오피아Diopaea 1종과 털날개나방Pterophorus 1종, 파리목Diptera 2종.

5 《코체부의 첫 번째 항해기》 3권, 222쪽.

6 이 게들은 뒤로 물러날 때 커다란 집게발로 조개껍데기를 덮는 뚜껑을 만드는데, 마치 조개껍데기가 원래 게의 일부인 양 완벽하게 들어맞는다. 특정 종의 집게들은 언제나 일정한 종류의 조개껍데기만 이용한다고 들었고 내가 관찰한 바도 그렇다.

서 훔쳐 온 조개껍데기를 등에 지고 다닌다.

머리 위로 수많은 북양가마우지와 군함새, 제비갈매기가 나무 위에 앉아 쉬고 있다. 나무에는 둥지가 엄청나게 많고 고약한 냄새도 나서 바다의 공동 주택이라 불러도 될 듯하다. 가마우지는 엉성한 둥지에 앉아 약간 멍청하지만 화난 듯한 표정으로 뭔가를 응시하고 있다. 검은제비갈매기는 그 이름에서도 풍기듯이 약간 우스운 피조물이다. 그러나 매력적인 새도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작고 눈처럼 하얀 제비갈매기다. 머리 위 1~2미터 정도 먼 거리에서 매끄럽게 날아다니며 매우 호기심 어린 커다란 검은 눈으로 당신의 표정을 살핀다. 약간의 상상력만 동원해 보면, 그렇게 가볍고 부드러운 몸에는 틀림없이 하늘을 배회하는 요정의 영혼이 깃들어 있지 않을까 하는 공상을 하게 된다.

4월 3일 | 일요일 일과 후에, 피츠로이 함장과 함께 이곳에서 몇 킬로미터 떨어진, 키 큰 야자나무로 두껍게 덮인 작은 섬에 있는 주거지에 가 봤다. 로스 함장과 리스크 씨는 양 끝이 뚫려 있고 안쪽을 나무껍질로 덧댄 커다란 헛간 같은 집에 살고 있었다. 말레이 사람들의 집은 초호 해안을 따라 늘어서 있다. 전체적으로 사람이 가꾸거나 경작한 과수원은 하나도 없어 황량해 보인다. 원주민들은 동인도 제도의 여러 섬에서 왔으나 사용하는 언어는 모두 같다. 보르네오, 셀레베스, 자바 그리고 수마트라 출신 사람들을 만났다. 피부색으로 보아 타히티 사람과 닮았고 생김새도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나 중국인의 특징을 많이 가진 여자들도 있다. 나는 그들의 전체적인 분위기와 목소리가 좋았다. 그들은 가난해 보였고 집 안에 가구라곤 없었지만, 아이들은 토실토실한 것으로 보아 야자 열매와 거북 고기만으로도 생계를 유지하는 데 부족함은 없어 보인다.

이 섬에는 우물이 있어서 지나가는 배들이 물을 얻는다. 우물 속 민물의 수위가 조수에 따라 규칙적으로 오르락내리락하는 것이 처음에는 무척 이상했고, 바닷물에서 소금을 걸러 내는 능력이 모래에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상상을 했다. 이렇듯 썰물 때 물이 빠지는 우물은 서인도 제도에 있는 나지막한 섬에

서는 흔하다. 단단하게 다져진 모래 또는 다공성 산호 바위에 스펀지처럼 바닷물이 스며들지만, 바위 표면에 내린 빗물이 주변 바닷물 수위까지 내려가 축적되어 그만큼의 바닷물을 대체하는 것이 분명하다. 거대한 스펀지 같은 산호 덩어리 아랫부분에 고인 짠물의 수위가 조수와 함께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기 때문에, 표면 가까이 있는 빗물도 그렇게 되는 것이다. 만약 바닷물과 빗물이 기계적으로 섞이는 것을 방지할 정도로 산호 덩어리가 단단히 결합되어 있다면 위쪽의 물은 늘 민물 상태로 유지될 것이다. 그러나 군데군데 열린 구멍이 있는 느슨한 산호 덩어리로 돼 있는 지역에서 우물을 파 보면, 내가 앞서 본 것처럼, 어김없이 짠물이 나온다.

저녁을 먹은 후, 우리는 말레이 여자들이 보여 주는 진기하면서도 어느 정도 미신적인 풍습을 구경했다. 커다란 나무 숟가락에 옷을 입혀 무덤으로 가져가면, 보름달이 뜰 때 숟가락에 신이 들려 춤을 추고 무덤 주위를 뛰어다닌다고 했다. 준비 단계가 끝나자, 여자 둘이 치켜든 숟가락은 마구 흔들리기 시작했고, 주위에 있던 아이들과 여자들의 노랫소리에 맞춰 춤을 추기 시작했다. 내가 보기에 굉장히 어리석은 광경이었지만, 리스크 씨의 주장대로라면, 많은 말레이 사람들이 그런 영적인 움직임을 믿는다고 한다. 춤은 달이 떠오를 때까지 기다렸다 시작됐는데, 밤 공기를 가르는 미풍에 살랑살랑 흔들리는 야자나무의 긴 가지 사이로 밝게 비추는 달이 너무 아름다워서 충분히 그럴 만하다고 생각했다. 이러한 열대의 밤 풍경은 그 자체로 너무나 감미로워서, 그리운 고향 산천을 대하는 듯한 포근함을 느끼게 한다.

다음 날은 이 섬들의 단순하지만 매우 흥미로운 구조와 기원을 조사하며 보냈다. 평상시와 달리 물결이 잦아서, 죽은 바위로 된 바깥쪽 평지를 건너 살아 있는 산호 언덕까지 가 보았다. 그곳에서는 외해의 파도가 부서지고 있었다. 좁은 수로와 웅덩이에는 아름다운 녹색과 여러 가지 색깔의 고기들이 있고, 식충植蟲류[7]의 모양과 색채도 감탄할 만했다. 풍요로운 열대 바다에 살고 있는

7 말미잘, 불가사리, 산호, 해면 등–역주.

무한한 생명체에 열광하게 되는 것이 어느 정도 이해된다. 그러나 여러 자연사학자들이 수천의 아름다운 생명체로 장식된 해저 동굴을 온갖 미사여구로 묘사한 것은 조금 과장했다는 것이 솔직한 심정이다.

4월 6일 | 피츠로이 함장과 함께 초호가 시작되는 지점에 있는 한 섬에 갔다. 수로는 섬세하게 가지가 쳐 있는 산호밭을 휘감으며 몹시 복잡하게 엉켜 있었다. 우리는 바다거북 몇 마리와 거북잡이 배 두 척을 봤다. 물이 몹시 맑고 얕아서, 처음에 거북이 재빨리 시야에서 도망치더라도 운항 중이던 카누나 배에 있던 사람들 눈에 금방 띄게 된다. 이때 뱃머리에서 준비하고 있던 사람이 거북 등을 향해 물속으로 뛰어든다. 그러고 나서 양손으로 거북의 목을 꽉 잡고 거북이 지쳐 더 이상 도망갈 힘이 없어질 때까지 따라간다. 배 두 척이 이리저리 급회전을 해 가며 뒤쫓고, 앞쪽에 서 있는 사람들이 사냥감을 먼저 차지하기 위해 물속으로 돌진해 들어가는 모습을 재미있게 지켜봤다. 모레스비 함장은 차고스 제도 원주민들이 매우 잔인한 방법으로 살아 있는 거북이 등딱지를 벗겨 낸다고 내게 알려 줬다. "시뻘건 숯불로 거북이 등을 덮어 버리면, 바깥쪽 등딱지가 밖으로 말려 올라갑니다. 그러면 칼로 떼어 내서 식기 전에 판자 사이에 끼워 평평하게 만들죠. 이런 야만적인 일을 당한 후, 거북이는 새로운 딱지가 돋아날 때까지 고생을 하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새로운 딱지가 생기지만 너무 얇아서 이런 거북이는 항상 쇠약하고 병들어 보입니다."

초호 입구에 있는 좁은 섬을 지나며, 바람이 불어오는 쪽 해안에서 부서지는 거대한 파도를 봤다. 이유는 뭐라 설명하기 어렵지만, 이 산호초 섬의 바깥쪽 해안 풍경이 매우 광대하다는 느낌이 일었다. 장벽 같은 해변에는 단순함이 있고, 녹색 덤불과 키 큰 야자나무로 된 가장자리와 죽은 산호로 된 평평한 바위에는 거대한 산호 덩어리와 양쪽으로 부서져 흘러가는 맹렬한 파도의 선들이 흩뿌려져 있다. 드넓은 암반 위로 물을 뿌려 대는 대양은 천하무적의 막강한 힘을 가진 적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런 막강한 대양도 언뜻 보기에 매우 약하고 비효율적인 듯한 방법에 의해 저항을 받고 심지어 정복되기도 한다는 것

을 우리는 안다. 대양이 산호 바위를 너그럽게 봐주는 것이 아니다. 산호가 거대한 조각으로 부서져 암반 위에 흩뿌려지고 해변에 쌓이면 그곳에 야자나무 싹이 트는 것이다. 이는 파도가 지닌 무자비한 힘을 그대로 보여 준다. 한순간도 멈추는 적이 없다. 늘 광대한 지역을 건너 한쪽 방향에서 불어오는 무역풍의 지속적이고 점진적인 작용에 의해 일어나는 긴 파도는 굉장한 파괴력을 가진다. 이것은 온대 지방에서 폭풍이 일 때의 파괴력과 맞먹으며 결코 멈추지 않는다. 이 파도를 보면 매우 단단한 바위로 된 섬, 예를 들어 반암, 화강암 또는 석영으로 되었다 하더라도 이 가차없는 힘에 결국은 부서지고 말 것이라는 확신이 든다. 그러나 이 나지막하고 보잘것없는 산호섬은 건재하고 또한 승리한다. 거기에는 이 싸움에 경쟁자로 참여하는 또 다른 힘이 있기 때문이다. 거품이 일며 부서지는 잔해물 속에서 탄산칼슘 입자를 하나씩 분리해서 다시 대칭적인 구조물로 합성해 내는 유기적 힘이 존재한다. 태풍이 산호초를 수천 개의 거대한 덩어리로 산산이 조각낸다 한들, 밤낮으로 1년 12달 일하는 수만의 건축가들이 보여 주는 축적된 힘을 당할쏘냐? 그러므로 인간의 기술이나 무생물적 작용으로는 저항할 수 없는 대양의 막강한 기계적 힘에 대해, 연약하고 물렁물렁한 산호 돌기 몸체가 생물학적 원리를 매개로 승리한다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이다.

초호에 오랫동안 머물며 산호밭과 거대한 차마Chama 조개껍데기를 관찰하느라 늦게까지 배로 돌아가지 않았다. 만약 살아 있는 차마 조개 안으로 손을 집어넣으면 조개가 살아 있는 한 다시 빼낼 수 없을 것이다. 초호가 시작되는 곳에서 3제곱킬로미터 이상 되는 넓은 지역이 섬세하게 가지를 친 산호 숲으로 덮여 있는 것을 발견했는데, 산호들이 똑바로 서 있기는 하지만 모두 죽어서 썩어 있는 것을 보고 놀랐다. 처음에는 그 이유를 몰라 몹시 당황했는데, 이후 생각해 보니 다음과 같은 신기한 여러 상황이 조합되어 그런 일이 일어났을 것 같다. 그러나 이보다 먼저 언급해야 할 것은, 산호는 짧은 시간 동안이라도 햇빛에 노출되면 살지 못한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그것들이 똑바로 자

랄 수 있는 최대 높이는 대조大潮 때의 최저 수위에 의해 결정된다. 옛날 지도를 몇 장 보면, 바람이 불어 가는 쪽에 있는 긴 섬은 옛날에는 넓은 수로에 의해 작은 섬 여러 개로 나뉘어 있었다. 이 작은 섬들의 나무가 더 어린 것을 봐도 산호의 성장 한계가 물 높이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예전에 암반이 처한 환경 조건에서는, 강한 바람이 불어 많은 물이 장벽을 넘어 초호 쪽으로 밀렸기 때문에 초호의 수위가 올라가는 경향이 있었다. 지금은 정반대로 작용한다. 왜냐하면 초호 안쪽의 물은 외해로부터의 유입에 의해 증가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바람의 힘에 의해 바깥쪽으로 밀려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초호 입구 근처의 조수는 강한 바람이 부는 동안에는 바람이 잠잠할 때만큼 높게 상승하지 않는다. 이런 수위의 차이로 인해, 분명 그 차이는 매우 작을 것이지만, 이전의 보다 개방된 조건하에서 최대 성장 한계선을 유지했던 외해 쪽 산호 숲의 죽음이 초래된 것이라고 생각된다.
킬링 제도에서 몇 킬로미터 북쪽으로 작은 산호초 섬이 또 하나 있다. 그곳의 초호는 거의 산호 진흙으로 메워져 있다. 로스 함장은 그곳 외해의 역암층에서 어른 머리보다 더 큰 둥근 녹색 돌이 묻혀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와 부하들은 이에 너무 놀라 그 돌을 가져와 진기한 물품으로 보관하고 있다. 다른 물질은 모두 석회질인 곳에서 그런 돌이 발견된 것은 확실히 수수께끼다. 그 섬은 사람들의 발길이 거의 닿지 않는 곳이고, 그곳에서 배가 좌초될 가능성도 없다. 더 이상 그럴듯한 설명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나는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했다. 그 돌은 틀림없이 어떤 커다란 나무뿌리에 뒤엉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다. 그러나 가장 가까운 육지라도 엄청나게 멀리 있고, 어떤 돌이 나무뿌리에 엉키고 그 나무가 바닷물에 휩쓸려 먼 거리를 떠다니다가 간신히 육지에 닿아 사람 눈에 띌 정도로 파묻히게 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함을 생각해 보면, 이런 일은 거의 일어날 것 같지 않다. 그러므로 코체부와 동행했던 유명한 자연사학자인 차미소가 태평양 한가운데에 있는 산호초 섬 군락인 라닥 제도에 관해 말한 것에 흥미를 가질 수밖에. 그곳 원주민들은 연장을 연마하는

데 필요한 돌을 해변으로 밀려온 나무뿌리 속에서 찾는다고 한다. 돌은 추장이 소유하고 그 돌을 훔치려는 사람은 벌을 받는 규율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돌이 여러 번에 걸쳐 발견되었던 것이 확실하다. 이렇게 작은 섬들이 드넓은 대양 한가운데에 고립되어 있다는 점, 산호초를 제외하면 육지에서 아주 멀리 떨어져 있다는 점, 즉 그 거리는 아무리 통이 큰 뱃사람이라 해도 흘러온 돌멩이 하나를 귀하게 여길 정도[8]로 먼 거리라는 점, 그리고 외해의 해류가 느리다는 점 등 모든 것을 고려해 볼 때, 자갈이 이동해 와 발견되는 것은 대단해 보인다. 이렇게 해서 종종 돌멩이가 이동해 오고, 돌이 정착한 섬이 산호 외에 어떤 다른 물질로 이루어져 있다면 그 돌들은 거의 주목받지 못할 뿐 아니라 기원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지 않을 것이다. 더군다나 나무가 돌을 매단 채, 그것도 수면 바로 아래에 떠서 이동해 올 것이라는 생각은 하지 못할 것이다. 티에라델푸에고 수로에서 커다란 목재가 해변에 떠오기도 하지만, 물에 실려 오는 나무는 극히 드물다. 이러한 사실은 때때로 고운 모래 입자에 파묻힌 채 발견되는 모나거나 둥근 돌멩이 하나를 이해하는 데 실마리를 제공한다.

어느 날 웨스트 섬을 방문했는데 이곳의 나무들은 다른 곳보다 훨씬 더 우거져 있었다. 야자나무는 대개 서로 떨어져서 자라는데, 이곳에서는 어린나무들이 큰 나무 아래에 우거져서 길게 휘어진 나뭇잎으로 훌륭한 나무 그늘을 만들어 내고 있었다. 그런 곳에 누워서 시원한 야자 열매 과즙을 마셔 본 사람만이 그 달콤함을 알 수 있으리라. 이 섬에는 커다란 만灣 같은 지역이 있는데 이곳은 하얀 고운 모래로 덮여 있고 매우 평평하며 최고 수위일 때 조수에 의해 살짝 덮일 뿐이다. 이 커다란 만에서 작은 시냇물이 흘러나와 주위 숲으로 지나간다. 물이 있음을 보여 주는 반짝이는 하얀 모래밭과 그 주위로 바람에 흔들리는 키 큰 야자나무들이 펼쳐져 있는 광경은 매우 독특하고 아름답다.

야자 열매를 먹고 사는 게에 대해 언급한 적이 있다. 그것은 건조한 땅 어디에서나 흔히 볼 수 있으며 굉장히 크게 자란다. 야자게Birgos latro와 밀접히 연관

8 코체부가 캄차카로 데리고 간 원주민 몇 명은 고향으로 가져가기 위해 돌멩이를 모았다.

된 것이거나 같은 종이다. 한 쌍의 앞발은 매우 강하고 무거운 집게발이며 가장 뒤쪽 발은 좀 더 약하고 가느다란 물체에 잘 들어맞는다. 처음에는 게가 강한 껍질로 덮여 있는 야자 열매를 깬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것처럼 생각됐다. 그러나 리스크 씨는 이런 일이 실제 일어나는 것을 여러 번 봤다고 나에게 힘주어 말했다. 일단 게는 언제나 구멍 세 개가 있는 한쪽 끝에서부터 껍질을 한 오라기씩 찢기 시작한다. 이것이 다 되면 강한 집게발로 구멍 중 하나가 뚫릴 때까지 두드리기 시작한다. 그런 다음 몸을 돌려 뒤쪽의 좁은 집게발을 이용해 하얀 단백질 즙을 빨아 먹는다. 이는 내가 이제까지 들었던 어떤 경우보다 더 본능적인 행동이며, 자연 상태에서 서로 무관한 것 같은 게와 야자나무 사이에 구조적으로 적응된 예를 보여 준다. 야자게는 주행성 습성을 가진다. 그러나 매일 밤 아가미를 적시기 위해 바닷가로 온다고 한다. 새끼도 해안에서 부화해 얼마 동안 그곳에서 산다. 이 게들은 깊은 굴을 파고 살며 나무뿌리 바로 아래에 입구를 낸다. 그곳에다 야자 열매껍질을 잔뜩 쌓아 놓고 침대처럼 그 위에 엎드려 지낸다. 말레이 사람들은 때로 이것들을 모아 불쏘시개로 쓴다. 이 게는 맛이 좋다. 게다가 큰 게의 꼬리 부분에는 커다란 지방 덩어리가 있어서, 녹이면 1리터들이 병 하나 정도의 기름을 얻을 수 있다. 어떤 학자는 야자게가 열매를 훔치기 위해 야자나무를 기어오른다고 하지만, 그 가능성에 대해 나는 회의적이다. 그러나 판다누스나무에서는[9] 쉽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리스크 씨에 의하면, 이 섬의 야자게는 땅으로 떨어지는 열매만 먹고 산다고 한다. 모레스비 함장 말에 따르면, 이 게들은 차고스와 세이셸 제도에는 서식하지만, 그 부근의 몰디브 제도에는 살지 않는다고 한다. 예전에는 모리셔스 섬에도 풍부했으나 지금은 작은 것 몇 마리만 발견될 뿐이다. 태평양에서는 이 종 또는 이것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종이 소시에테 제도 북쪽에 있는 한 산호섬에 산다고 한다.[10] 이 게가 가지고 있는 앞 집게발의 위력을 보여 주는

9　1832년에 간행된 《동물학회 회보》 17쪽을 보라.

10　타이어만과 베넷의 《항해기》 등 2권, 33쪽.

일화가 있다. 모레스비 함장이 이 게 한 마리를 비스킷을 담았던 양철 상자에 넣고 철사로 뚜껑을 조여 놨는데 이 게는 상자 가장자리를 젖히고 탈출했다. 상자 가장자리를 보니, 수없이 많은 작은 구멍을 뻥뻥 뚫어 놓은 것이 아닌가!
쏘는 성질이 있는 불산호속Millepora 2종(M. complanta, alcicornis)을 발견하고 적잖이 놀랐다. 물에서 금방 꺼낸 단단한 산호 가지나 덩어리는 거칠거칠한 느낌이 들고, 역겨운 냄새가 많이 나기는 하지만 끈적거리지는 않는다. 쏘는 성질은 개체마다 다양한 것 같다. 산호 조각 하나를 얼굴이나 팔의 부드러운 피부에 대고 누르거나 문지르면, 몇 초 후에 찌르는 듯한 아픔이 느껴지고 그 후 몇 분 동안 아픔이 지속된다. 그러나 어느 날 산호 가지 하나가 얼굴을 살짝 스치기만 했는데도 금방 고통이 일고 몇 초 후에 점점 심해지더니 몇 분 동안 아픈 느낌이 지속되고 약 30분 정도 얼얼했다. 쐐기풀에 쏘인 것처럼 아팠으나 군함해파리가 쏘는 것과 더 비슷했다. 팔에 붉은 반점이 생기고 물집이 잡힐 것 같았지만 그렇지는 않았다. 쿼이 씨가 이와 같은 경우로 불산호속 산호의 예를 언급한 적이 있고, 나도 서인도 제도에 있는 쏘는 산호에 대해 들은 적이 있다. 군함해파리 외에도 많은 해파리들 그리고 카보베르데 제도에 사는 군소 또는 해삼 무리 등 많은 바다 생물이 이처럼 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아스트롤라베의 항해기》에는 화관히드라속Sertularia에 속하는 유연한 산호류뿐 아니라 해변말미잘속Actinia도 공격과 방어의 수단으로 이런 쏘는 능력을 갖고 있다고 기술되어 있다. 동인도양에서는 쏘는 해초도 발견되었다고 한다.
이곳에 흔한 물고기인 파랑비늘돔속Scarus 2종은 거의 산호만 먹고 산다. 둘 다 빛나는 청록색이며, 한 종은 항상 초호 안에 살고 다른 한 종은 외해 쪽 파도가 치는 곳에서 산다. 리스크 씨는 이 물고기 떼들이 강한 턱뼈를 이용해 산호 가지 끝을 갉아 먹는 것을 여러 차례 봤다고 확신에 차서 말했다. 이것들의 배를 갈라 봤더니 노르스름한 석회질 모래 진흙으로 꽉 차 있었다. 중국 미식가들이 선호하는 미끈미끈하고 기분 나쁜 해삼류(불가사리와 같은 계통)또한 주로 산호를 먹고 사는데, 몸에 박혀 있는 딱딱한 돌기들이 이에 적합하다고 앨

런 박사가 알려 줬다. 이러한 해삼류, 물고기들, 구멍을 뚫고 사는 수많은 조개류, 죽은 산호 덩어리마다 구멍을 뚫는 갯지렁이 등은 초호 바닥과 해변에 있는 하얀 진흙을 만드는 데 일조하는 동물들이다. 그러나 물에 젖으면 고운 분필처럼 보이는 이 진흙 속에 규산질로 덮인 적충류가 약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에렌베르크 교수에 의해 알려졌다.

4월 12일 | 아침나절에, 프랑스 섬으로 가기 위해 초호 밖으로 나왔다. 전 세계적으로 멋진 장소 가운데서도 으뜸인 이곳을 방문하게 되어 매우 기뻤다. 해안에서 겨우 2천 미터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인데도, 피츠로이 함장이 내린 2200미터의 줄이 바닥에 닿지 않았다. 그러므로 이 섬은 가장 가파른 분화구보다 더 경사가 급한 높은 해저산맥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받침접시 모양의 산 정상은 지름이 거의 16킬로미터 정도로 다른 산호초 섬에 비해 작은 편이다. 그렇지만 여전히 거대하다고 할 수 있는 이 산을 이루고 있는 가장 작은 입자부터 가장 큰 암석 조각까지[11] 모두 단일 원자로 되어 있다는 것은 그것들이 유기적 배열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 주는 증거가 된다. 우리는 여행자들이 피라미드나 기타 다른 유적지의 광대함에 대해 얘기할 때 놀라곤 한다. 그러나 여러 종류의 작고 연약한 동물들이 힘을 모아 쌓아 놓은 이 돌산과 비교하면 그것들의 위대함은 얼마나 사소한 것인가! 이러한 사실은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겨졌으나 곰곰 생각해 볼수록 마음 깊은 곳까지 놀라게 된다. 이제는 세 종류의 산호초, 즉 환초atolls, 보초barrier, 거초fringing-reefs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고 그것들의 형성에 대한 나의 견해를[12] 말하겠다. 태평양을 건너 여행하는 사람들은 모두 산호초 섬—인디오 말로는 애톨스atolls라고 함—에 대해 무한히 놀라고 그에 대해 어떤 설명을 해 보려고 한다. 심지

11 물론, 말라카와 자바에서 배를 통해 이곳으로 운반되어 온 토양과 파도에 실려 여기로 온 부석 조각들은 제외된다. 더욱이 북쪽 섬에서 발견된 녹색 돌 한 개도 제외해야 한다.

12 이에 대해서 1837년 5월에 열린 지질학회에서 처음으로 발표했으며, 그 후로 《산호초의 구조와 분포》라는 책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어 아주 오래된 1605년까지 거슬러 올라가, 피라르 드 라발은 “인간의 손길이 전혀 닿지 않은, 빙 둘러 돌로 된 큰 둑이 있는 환초 하나하나를 본다는 것은 최고다”라고 경탄했다. 저 유명한 비치 함장의 항해기에서 베낀 태평양의 휘트선데이 섬 삽화를 덧붙여 환초가 보이는 기이한 측면을 희미하게나마 상상할 수 있도록 했다. 그것은 산호초 섬 중 크기가 매우 작은 편이고 좁다란 작은 섬들이 고리 모양으로 모여 있는 그림이다. 나지막한 육지와 초호 내부에 있는 고요하고 밝은 초록색 물이 광대한 바다와 거친 파도에 대비되어 나타나는 모습은 직접 보지 않고서는 상상하기 어렵다.


휘트선데이 섬

옛날 사람들은 산호를 만드는 동물들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본능적으로 거대한 원을 만든다고 상상했으나, 이는 사실과 거리가 멀다. 산호초의 기반이 되는 큰 산호 덩어리는 외해에서 자라는 반면, 섬세하게 가지를 치는 다른 산호들이 잘 자라는 초호 안에서는 살지 못한다. 더군다나 이 관점에서 보면 각기 다른 속과 과에 속하는 많은 종들이 한 가지 목표를 위해 결합해야 하는데, 이런 예는 전 자연계에서 하나도 없다. 환초가 해저 분화구에 기초한다는 이론이 가장 널리 퍼져 있다. 그러나 환초의 형태나 크기, 숫자, 근접성, 다른 것들과의 상대적 위치 등을 고려할 때, 이 이론은 설득력을 잃는다. 수아디바 환초는 한쪽 지름이 70킬로미터고 다른 쪽 지름은 54킬로미터다. 림스키 환초의 지름은 86×32킬로미터이며 가장자리가 이상하게 구불구불하다. 보우 환초는 길이가 48킬로미터이며 폭은 평균적으로 10킬로미터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멘치코프 환초는 환초 3개가 연합하거나 붙어 있다. 더군다나 이 이론은 인도양에 있는 북부 몰디브 환초(길이가 141킬로미터고 넓이가 16~32킬로미터)에는 전혀 맞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보통의 다른 환초들처럼 좁은 산호초로 둘러싸이지 않고, 서로 떨어져 있는 무수히 많은 작은 환초들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이며, 다른 작은 환초들은 가운데에 있

는 거대한 초호 같은 공간에서 솟아 나온다. 차미소가 내놓은 세 번째 이론은 그중 낫다. 그는 실제 산호가 외해에 노출되었을 때 더 잘 자라는 것으로 미루어 봐서, 바깥쪽 가장자리가 다른 부분보다 먼저 어떤 일반적인 기반에서 자라며 이것이 고리 또는 컵 모양 구조를 설명해 준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곧 알게 되겠지만 분화구 이론뿐 아니라 이 이론에서도 아주 중요한 사항을 놓치고 있다. 아주 깊은 곳에서는 살지 못하는 산호는 큰 산호초 덩어리를 어디에 기초하여 만드는 것일까?

피츠로이 함장은 킬링 환초의 바깥쪽 가파른 곳에서 물속을 여러 번 조사했다. 18미터 깊이 이내에서는 항상, 납 조각에 묻혀 놓은 짐승 기름에 살아 있는 산호의 흔적이 찍혀 올라왔다. 처음에는 마치 잔디밭 위에 떨어뜨린 것처럼 깨끗하게 찍혔으나 수심이 깊어짐에 따라 산호의 흔적이 찍히는 횟수는 줄어들고 모래가 점점 더 많이 달라붙어 올라왔다. 마침내 부드러운 모래로 된 바닥에 닿았음이 확실해졌다. 잔디밭에 비유하자면, 잔디 층이 점점 얇아지다가 마침내 토양이 너무 척박해 아무것도 싹이 날 수 없는 상태에 도달한 것이다. 다른 많은 사람들도 이와 같은 결과를 얻은 것으로 보아 산호가 초를 만들 수 있는 최고 깊이는 36~54미터 정도라고 추론할 수 있다. 현재 태평양과 인도양의 광대한 지역에 있는 모든 단일 섬들은 산호로 형성되어 있고, 파도에 의해 산호 조각이 밀어 올려지고 바람이 모래를 쌓을 정도 높이까지만 상승해 있다. 라닥 제도의 환초는 길이 830킬로미터에 폭 380킬로미터의 불규칙한 사각형이고, 로 제도는 긴 축이 1340킬로미터고 짧은 축이 670킬로미터인 타원형이다. 이 두 제도 사이에는 다른 작은 제도와 작고 나지막한 단일 섬들이 있다. 실제 이것들은 대양에서 6400킬로미터 이상 길게 선 상으로 배열되어 있으며 일정한 높이 이상으로 상승한 것은 하나도 없다. 또한 인도양에서는 제도 3개가 2400킬로미터에 걸쳐 펼쳐져 있으며, 그곳의 섬은 모두 나지막하고 산호로 되어 있다. 초를 형성하는 산호는 깊은 곳에서 살지 못한다는 사실로부터, 이 광대한 전 지역에서 현재 환초가 있는 곳이면 어디든, 그 기반은

원래 표면으로부터 36~54미터 깊이에 존재했음이 확실하다. 육지로부터 아주 멀리 떨어져 있고 물 또한 맑은 태평양과 인도양 한가운데 깊은 곳에 넓고 높은 퇴적층이 따로 떨어져 수백 킬로미터 길이로 무리를 지어 가파르게 쌓일 가능성은 거의 없다. 상승력이 작용해 광대한 지역에 걸쳐 수많은 거대한 암반을 해수면으로부터 36~54미터 이내로 밀어 올리되, 단 하나도 그 높이를 넘지 않도록 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길이가 수백 킬로미터에 달하며 그곳에 있는 많은 봉우리들이 몇 미터 이내로 솟아 있고 단 하나도 그것을 넘지 않는 단일 산맥을 이 지구 상에서 찾을 수 있겠는가? 만약 산호초가 자라기 시작하는 기반이 퇴적에 의해 형성되지 않았다면, 그리고 그것들이 필요한 높이만큼 융기하지 않은 것이라면, 그것들은 반드시 침강했을 것이다. 이러면 어려움이 풀린다. 산들이 연달아 침강하듯 섬들이 차례차례 천천히 수면 아래로 침강하면서 산호가 자랄 수 있는 신선한 기반이 계속해서 만들어질 것이다. 여기에서 모든 것을 자세히 기술하기는 불가능하다. 그러나 광대한 지역에 퍼져 있는 수많은 섬들, 이 모든 섬들이 높이가 낮고 모두 산호로 이루어져 있고 수면으로부터 일정한 깊이 안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것을 그 누가 어떤 다른 방법으로 설명할 수 있겠는가?[13]

환초가 어떻게 독특한 구조를 갖게 되었는지 설명하기 전에, 둘째 큰 부류인 보초에 대해 언급해야겠다. 이것들은 대륙이나 커다란 섬 해안 앞에 일직선으로 발달하거나 작은 섬들을 둘러싼다. 두 경우 모두 비교적 깊고 넓은 수로에 의해 육지와 분리되는데 그 수로는 환초 내부에 있는 초호와 비슷하다. 섬을 둘러싸는 보초는 정말이지 멋진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 거의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이 놀랍다. 아래 그림은 태평양에 있는 보라보라 섬을 둘러싸고 있는 보초 그림으로 섬의 한 꼭대기에서 본 것을 그린

13 라이엘 씨가, 심지어《지질학의 원리》초판에서부터, 육지의 생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즉 산호초의 성장과 화산 활동 등을 비교할 때 실제 육지의 면적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보아 태평양이 침강한 양은 상승한 양을 초과함이 틀림없다고 추론한 것은 놀랄 만하다.

것이다. 이곳의 산호초 전체는 육지로 변했으나, 초호 수로를 채우고 있는 밝은 녹색의 물은 야자나무로 덮여 있는 나지막한 섬들과 눈처럼 하얗게 부서지는 파도에 의해 대양에서 밀려오는 검푸른 물과 구분된다. 초호 수로 내부의 잔잔한 물은 대개 저지대의 충적토를 적신다. 이 토양은 섬 중앙에 있는 가파른 산맥 기슭에 위치하며 열대에서 나는 아름다운 산물들로 넘쳐 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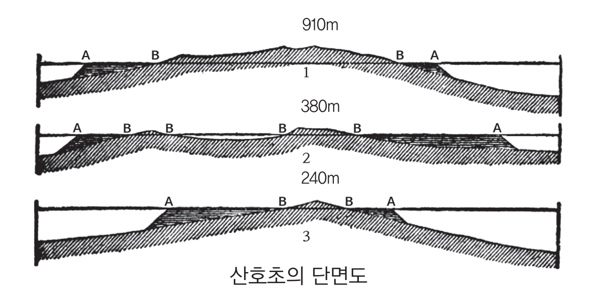
보라보라 섬

섬을 둘러싸는 보초는 크기가 다양해서 지름이 5킬로미터에서 70킬로미터까지 된다. 누벨칼레도니아의 한쪽을 막고 양 끝을 둘러싸고 있는 산호초는 길이가 640킬로미터 정도 된다. 개개 보초는 다양한 높이로 된 바위섬들을 한 개, 두 개 또는 여러 개씩 둘러싼다. 어떤 경우는 열두 개까지 둘러싼 것도 있다. 보초는 그것이 둘러싸고 있는 육지에서 다소간 거리를 두고 발달한다. 소시에테 제도에서는 육지에서 대개 2~6킬로미터 정도 거리를 두며, 호골류에서는 남쪽으로 32킬로미터, 그 반대쪽인 북쪽으로 22킬로미터 떨어져 있다. 초호 수로의 깊이도 매우 다양하다. 18~54미터는 평균을 나타내는 것이고, 바니코로에서는 109미터까지 되는 곳도 있다. 보초는 안쪽으로 초호 수로를 향해 완만하게 경사지거나 때로는 물속으로 60~90미터 높이의 수직 벽을 이루며 끝나기도 한다. 바깥쪽으로는 환초처럼 대양 깊은 곳에서 급경사를 이루며 솟아 나온다. 이보다 더 진기한 지형이 어디 있겠는가? 우리가 보는 섬은 마치 성城과 같다. 그 성은 뾰족한 해저산맥의 정상에 우뚝 서 있고, 바깥쪽으로는 거의 모든 부분에서 수직 벽을 이루며 안쪽으로는 드문드문 경사가 져 있는 거대한 산호 암벽에 의해 보호되며, 넓고 평평한 정상에는 여기저기 좁은 통로가 있어 가장 큰 배라도 그곳을 통해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넓고 깊은 해자[14]로 들어갈 수 있다.

실제 산호초를 살펴보면 보초와 환초 사이에 일반적인 크기나 외형, 모여 있

14 도시 성곽 둘레를 판 못—역주.

는 상태 그리고 세부적인 구조까지 거의 차이가 없다. 지리학자인 발비가 잘 지적했듯이, 환초 내부에 있는 초호에 솟아 나온 육지가 있으면 그것이 바로 보초로 둘러싸인 섬인 것이다. 그러므로 내부의 육지를 제거하면 완벽하게 환초 자체만 남게 된다. 그러나 육지로부터 상당히 멀리 떨어진 곳에서 보초가 솟아 나오게 하는 원인은 무엇인가? 산호가 육지 가까이에서 자라지 않을 리는 없다. 초호 수로 안쪽 해안은 충적토로 둘러싸이지 않을 때는 종종 살아 있는 산호로 뒤덮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앞으로 보게 될 거초라고 부르는 또 하나의 큰 산호초 부류다. 이것은 대륙이나 섬 해안에서 아주 가까운 곳에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런 이름을 붙였다. 앞의 문제로 다시 돌아가서, 깊은 곳에 살지 못하는 산호는 무엇을 기반으로 보초를 만들까? 이것은 환초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대체로 지나치기 쉽고 매우 어려워 보이는 문제다. 다음 단면도를 자세히 살펴보면 좀 더 명확히 알 것이다. 보초가 있는 바니코로, 갬비어 그리고 마우루아 제도의 실제 구조를 남북으로 횡단한 것으로, 수평과 수직 양방향으로 모두 25만 6천분의 1 비율로 축소하여 그린 것이다.



산호초의 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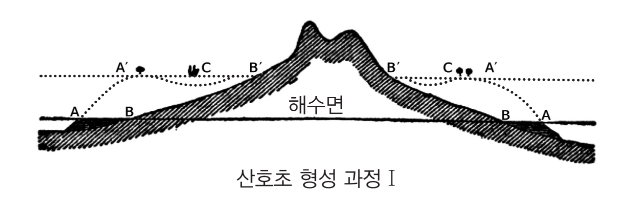
이 섬들이나 보초로 둘러싸인 다른 많은 섬들을 어느 방향에서 횡단해 그려도 일반적인 형태는 같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초를 만드는 산호는 수심 36~54미터보다 더 깊은 곳에서는 살지 못한다는 것과 그림의 오른쪽에 있는 추는 엄청나게 축소해서 그렇지 실제는 360미터 깊이를 나타낸다는 것을 명심할 때, 이 보초들은 무엇을 기반으로 만들어지는 것일까? 각 섬들이 옷깃 같

은 해저 바위로 둘러싸이거나 또는 산호초가 끝나는 곳에서 급경사를 이루는 거대한 퇴적층으로 둘러싸여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는가?
섬들이 산호초로 보호되기 전에 바닷물이 섬 깊숙이 침식해 들어와서 수면 아래에 섬을 둘러싸는 얇은 바위가 생기게 했다면, 현재 해안은 모두 거대한 절벽으로 둘러싸여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는 실제와 전혀 다르다. 게다가 이런 가정으로는 산호가 자라기에는 너무 깊은 암반의 가장 바깥쪽 가장자리에서 산호가 벽처럼 자라 올라오는 것과 그 안에 넓은 호수가 만들어지는 것을 설명할 수 없다. 이 섬들 주위로 넓은 퇴적층이 쌓이고 섬이 작을수록 그 주위 퇴적층이 넓어지는 것과, 이 섬들이 대양 한가운데 가장 깊은 곳에 위치해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누벨칼레도니 보초의 경우 섬의 북쪽 지점에서 위로 240킬로미터 뻗어 있으며 그것과 면해 있는 서쪽 해안과 똑같이 일직선 상으로 발달해 있다. 높은 섬 앞에 퇴적층이 일직선으로 쌓이는 것과 외해에서 섬이 끝나는 지점에서 더 나아가 퇴적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마지막으로, 높이가 비슷하고 유사한 지질학적 구조를 갖지만 산호초로 둘러싸이지 않은 다른 섬들을 살펴보면, 해안과 아주 가까운 곳을 제외하면 18미터 정도로 얕은 곳은 거의 찾을 수 없다. 이는 대개 물 밖으로 급격히 융기한 섬들은, 산호초로 둘러싸이든 그렇지 않든 간에, 물속으로 급격히 침강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질문을 던져 보자. 이 보초들은 무엇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것인가? 왜 그것들이 둘러싼 육지와 멀리 떨어져 있고 또한 그 사이에 넓고 깊은 해자 같은 수로가 있는 것일까? 이런 어려움이 얼마나 쉽게 풀리는지 곧 알게 될 것이다.
이제 셋째 부류인 거초에 대해 살펴볼 텐데, 이것은 간단히 설명할 수 있다. 육지가 급경사를 이루며 바다와 만나는 곳에서 거초는 폭이 몇 미터 정도밖에 되지 않으며 해안 주위에 리본이나 가두리 형태로 자란다. 육지 경사가 완만한 곳에서는 좀 더 뻗어 나가 때로 육지에서 몇 킬로미터까지 자란다. 하지만 그러한 경우 산호초 바깥쪽 수심을 측정해 보면 육지가 해저 쪽으로 연장된

부분은 항상 완만한 경사를 이룬다.

실제로, 산호초는 생존에 필수적인 18~54미터 깊이에 자랄 수 있는 기반이 있는 거리까지만 뻗어 있다. 산호초들을 살펴보면, 거초와 보초, 환초 사이에 근본적인 차이점은 없다. 그러나 대체로 거초는 폭이 좁아서 그 위에 작은 섬이 형성되지 않는다. 바깥쪽에서 산호가 더 잘 자라고 침식된 퇴적물이 안쪽에 있는 산호에 해를 입히므로, 산호초 바깥 가장자리가 가장 높고 그것과 육지 사이에 깊이가 1~2미터 정도 되는 얕은 모래 수로가 있다. 서인도 제도 일부 지역에서처럼, 수면 근처에 퇴적물이 쌓이는 곳은 때때로 산호로 덮이게 된다. 그러면 어느 정도 환초와 비슷해진다. 이와 마찬가지로 경사가 완만한 섬을 둘러싸는 거초는 어느 정도 보초와 닮는다.

산호초 형성에 대한 어떤 이론이라도 세 부류 산호초를 포함하지 않는다면 만족스럽다고 할 수 없다. 지금까지의 설명은 나지막한 섬들이 흩어져 있는 광대한 지역이 침강했다는 것을 믿게끔 한다. 이 섬들 중 단 하나도 바람과 파도에 의해 퇴적이 일어날 수 있는 높이 이상으로는 상승하지 않았고, 그리 깊지 않은 곳에 기반을 둔 산호에 의해 형성된 것들이다. 거초로 둘러싸여 있고 구조가 별로 어렵지 않은 섬 하나를 예로 들어 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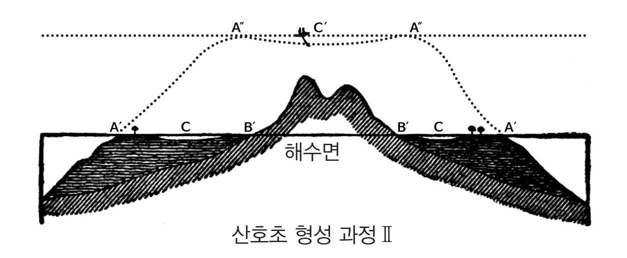
산호초 형성 과정 I

AA : 해수면에서 거초의 바깥쪽 끝. BB : 산호초로 둘러싸인 섬의 해안. A'A' : 섬이 침강하는 동안 위로 성장한 산호초의 바깥쪽 끝. 곧 그 위에 작은 섬들이 남게 된다. B'B' : 그렇게 되었을 때 산호초로 둘러싸인 섬의 해안. CC : 초호 수로.

주의 : 이 그림과 다음 그림에서 육지가 침강한 사실은 해면이 올라오는 것처럼 보이는 것으로도 알 수 있다.

위의 삽화에서 실선으로 표시된 이 섬은 산호초와 함께 천천히 침강한다. 자 이제, 섬이 침강함에 따라 한 번에 1~2미터를 내려가든 아니면 더 천천히 내려가든,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것을 추론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산호의 성장에 유리한 조건을 생각해 보면, 산호초 가장자리에서 밀려오는 파도에 잠긴 살아 있는 산호 덩어리는 자라서 곧 물 표면에 도달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바닷물이 조금씩 해안을 침식해 들어옴에 따라 섬은 점점 낮아지고 작아지게 된다. 그러면 산호 안쪽 가장자리와 해변 사이의 공간은 비례적으로 넓어지게 된다. 100~200미터 정도 침강이 일어났을 때의 섬과 산호초 단면이 점선으로 나타나 있다. 산호섬은 산호초 위에 형성되는 것으로 추정되며 배는 초호 수로에 정박해 있다. 이 수로는 침강 속도, 그 안에 쌓이는 퇴적물의 양, 그곳에서 살 수 있는 섬세하게 가지를 치는 산호의 성장 등에 따라 깊이가 다소 다르다. 이 상태의 단면도는 보초로 둘러싸인 섬의 단면도와 모든 면에서 비슷하다. 실제로 이것은 태평양에 있는 보라보라 섬을 12만 3천분의 1 축적으로 그린 횡단면이다. 보초가 그것들과 면해 있는 해안으로부터 왜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지 이제 알 수 있다. 또한 새로 생긴 산호초 바깥쪽 가장자리로부터 오래된 거초의 아래 단단한 암석 기반까지 수직으로 선을 그어 보면, 침강한 깊이만큼 산호가 살 수 있는 작은 한계 범위를 초과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작은 건축가는 전체 지면이 침강함에 따라 다른 산호나 조각들이 단단하게 모여 있는 것을 기반으로 거대한 벽 같은 덩어리를 만들어 내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처음에는 그렇게 크게 보였던 어려움이 해결되는 것이다.

만약 섬 대신 거초가 있는 대륙의 해안이 침강한다고 상상해 보면, 오스트레일리아나 누벨칼레도니에서처럼 넓고 깊은 수로에 의해 육지로부터 분리된 거대한 일직선의 보초가 틀림없이 생겨날 것이다.



산호초 형성 과정Ⅱ

A'A' : 해면에서 보초의 바깥쪽 끝으로 작은 섬들이 위에 있다. B'B' : 산호초로 갇힌 섬의 해안. CC : 초호 수로.
A"A" : 환초로 바뀐 산호초 바깥쪽 끝. C' : 새로 생긴 환초의 초호.
주의 : 실제보다 초호 수로와 초호의 깊이는 많이 과장되었다.

보초로 둘러싸인 새로운 예를 들어 보자. 이것은 앞서 얘기한 보라보라 섬의 실제 횡단면이며 보초는 실선으로 나타냈다. 이 섬이 침강한다고 할 때, 보초가 천천히 물에 잠김에 따라 산호는 위를 향해 더욱 활발히 자랄 것이다. 그러나 섬이 침강함에 따라 해안이 점점 바다에 잠기게 된다. 그러면 떨어져 있던 산들은 처음에는 거대한 산호초 내에서 떨어져 있는 섬들로 보이고 마지막에 가서 최후의 가장 높은 봉우리가 사라지게 된다. 그 순간 완전한 환초가 형성되는 것이다.

앞서 얘기했듯이, 보초로 둘러싸인 곳 안에 있는 높은 육지를 없애 보라. 그러면 환초만 남고 육지는 제거된다. 둘러싸고 있던 보초로부터 생겨난 환초가 전체적인 크기나 형태, 함께 모여 있는 방식, 한 줄이나 두 줄로 배열되어 있는 것 등이 어떻게 해서 보초를 닮았는지 이제 이해할 수 있다. 환초는 가라앉은 섬을 나타내는 대략적인 해도海圖라고 불릴 만하다. 또한 태평양과 인도양에 있는 환초가 어떻게 그 대양의 거대한 해안선과 높은 섬들의 우세한 주향走向에 평행하게 뻗어 있는지 더 잘 알게 되었다. 그러므로 나는 육지가 침강함에 따라 산호가 위쪽으로 자라 올라온다는 이론으로 이제까지 여러 항해자들

의 뜨거운 관심거리였던 산호초 섬의 놀랄 만한 특징들과,[15] 작은 섬을 둘러싸든 아니면 대륙 해안을 따라 수백 킬로미터를 뻗어 있는 것이든 간에, 이에 못지않게 멋진 보초들을 간단히 설명할 수 있음을 감히 확신한다.

보초나 환초가 침강한다는 직접적인 증거를 댈 수 있냐는 질문을 받기도 한다. 그러나 침강의 영향을 받은 부분이 물 아래로 가라앉기 때문에 그 움직임을 감지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감안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증거를 댄다면, 킬링 제도의 환초에서 초호에 빙 둘러서 있는 늙은 야자나무 밑동이 침식되어 쓰러져 있는 것을 관찰했다. 어떤 곳에서, 원주민 말에 의하면, 7년 전 만조 시 해수면 바로 위에 서 있던 창고 기둥이 이제는 날마다 일어나는 조수에 잠긴다고 한다. 주민들에게 물어보니, 지난 10년 동안 이곳에는 지진이 세 번 있었는데 그중 한 번은 심했다고 한다. 바니코로에서 초호 수로는 눈에 띄게 깊고 산호초로 둘러싸인 높은 산맥 기슭에는 충적토가 거의 퇴적되지 않는다. 그리고 벽처럼 올라온 보초 위에는 산호 조각과 모래 등이 쌓여 이루어진 작은 섬들이 거의 없다. 이러한 사실과 이와 유사한 몇 가지 사실들로 보아, 이 섬은 최근에 침강했고 산호초는 위로 자랐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이곳 역시 지진이 매우 심하게 빈번히 일어난다. 한편 소시에테 제도에서는 초호 수로가 거의 메워지고, 많은 충적토가 나지막이 쌓여 있으며 보초 위에는 작은 섬들이 형성되어 있다. 이러한 사실은 모두 그 섬들이 최근에 침강한 것이 아니며 아주 미세한 충격도 거의 없었다는 것을 보여 준다. 이렇게 바다와 육지가 주도권 쟁탈전을 벌이는 듯한 산호초 형성 과정에서 주기적으로 일어나는 조수와 아주 천천히 일어나는 침강작용이 세트를 이루기 때문에 그것들이 미치는 영향을 구별하기란 쉽지 않다. 또한 이런 많은 산호초들이 지금도

15 미국의 대규모 극지방 탐험대 자연사학자였던 쿠소이Couthouy 씨가 쓴 팸플릿에서 다음과 같은 문장을 발견하고 매우 만족스러웠다. "수많은 산호섬을 몸소 조사해 봤고, 해변이 있고 부분적으로 산호초로 둘러싸인 화산섬에서 몇 달을 지내면서 내가 관찰한 사항으로 보아, 다윈 씨의 이론이 옳다는 확신이 들었다." 그러나 이 탐험대의 자연사학자들은 산호초 형성에 대해 몇 가지 점에서 나와 견해가 다르다.

어떤 변화를 겪고 있다는 것도 확실하다. 몇몇 환초에서는 최근에 급격히 커지는 섬들이 있는가 하면 부분적으로 혹은 전체가 물에 침식되는 섬들도 있다. 몰디브 제도의 한 지역에 사는 주민은 작은 섬 몇 개가 처음 만들어진 날을 기억하는 반면, 다른 지역에서는 물에 침식된 산호초 위에 산호가 번성해 있다. 물에 침식된 산호초 위에 무덤으로 파놓은 구멍만이 이곳이 옛날에는 주거지였음을 증명해 주고 있다. 대양에서 조류의 흐름이 그렇게 자주 바뀐다는 것은 믿기 어렵다. 그러나 몇몇 환초의 원주민들은 지진이 일어났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으며 다른 환초에서는 커다란 균열이 관찰되는 것으로 보아 지하 내부에서 커다란 변화와 교란 작용이 진행되고 있음이 명백하다.

우리 이론에 비추어 보면, 가장자리만 간신히 산호초로 둘러싸인 해안은 눈에 띌 정도로 침강하지 않았음이 확실하다. 따라서 그것들은 산호가 성장한 이후로 움직임이 없었거나 융기했을 것이다. 그리고 거초로 둘러싸인 섬들이 융기했다는 것은 융기된 유기물 흔적을 보면 대부분 알 수 있다. 더 나아가 이것은 우리 이론을 뒷받침하는 간접적인 증거가 된다. 쿼이와 가이마르 씨가 기술한 내용이, 그들이 암시한 대로, 전체 산호초에 들어맞기보다는 거초 부류에만 맞는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놀랐으며, 특히 앞에서 설명한 내용이 맞다는 생각이 더 강하게 들었다. 그러나 이 훌륭한 자연사학자들이 방문했던 모든 섬들이 비교적 최근에 융기했다고 그들 자신이 말했다는 것을 어떤 기회에 알게 되고 난 후 나는 더 이상 놀라지 않았다.

보초와 환초 구조에서 나타나는 웅대함과 그것의 형태, 크기 그리고 다른 특징에서의 유사성은 모두 침강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다. 그리고 이와는 별도로 생존에 필수적인 깊이에 산호가 자랄 수 있는 기반이 꼭 있어야 하므로 이 이론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또한 많은 상세한 구조와 예외적인 경우도 간단히 설명할 수 있다. 몇 가지만 예를 들어 보겠다. 보초를 지나는 통로는 놀랍게도 그것이 둘러싸고 있는 육지에 있는 계곡과 정면으로 만난다는 것이 오랫동안 알려져 왔다. 심지어 실제 통로 자체보다 더 넓고 깊은 초호 수로에 의해

육지로부터 분리되어 있어, 육지로부터 쓸려 내려온 매우 적은 양의 물이나 퇴적물에 의해 산호가 해를 입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 보이는 산호초에서조차도 그렇다. 그리고 거초 부류의 모든 산호는, 비록 1년 중 대부분은 말라 있지만, 가장 작은 시냇물과 면한 좁은 통로로 틈이 나 있다. 때때로 침식되어 가라앉은 진흙, 모래, 자갈이 산호 위에 쌓여 산호를 죽이기 때문이다. 그 결과 거초가 있는 어떤 섬이 침강하면 대부분의 좁은 통로는 바깥쪽과 위쪽으로 자라는 산호에 의해 아마 막히게 될지라도, 막히지 않은 어떤 것(그리고 몇몇은 퇴적물과 초호 수로에서 흘러나오는 탁한 물에 의해 항상 열려 있을 것이다)은, 여전히 원래 거초의 틈이 나 있던 입구에서, 그 계곡의 상류와 정확히 면해 있을 것이다.

한쪽 면만 보초에 면해 있거나 혹은 한쪽 끝이나 양쪽 끝이 보초로 둘러싸인 섬이 오랜 침강 후에 하나의 벽 같은 산호초나, 섬에서 뻗어 나온 거대한 일직선 지맥을 갖는 환초, 혹은 일직선 산호초로 함께 묶인 두세 개의 환초—온갖 예외적인 경우가 실제로 일어난다—로 변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다. 초를 만드는 산호도 먹이가 필요하고, 다른 동물에게 먹히고, 퇴적물에 깔려 죽고, 느슨한 바닥에는 붙지 못하며, 싹이 나오지 못할 정도로 깊은 곳으로 쉽게 이동해 가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불완전한 환초나 보초를 본다 해도 그리 놀랄 일은 아니다. 누벨칼레도니의 거대한 보초는 많은 부분이 불완전하고 손상되어 있다. 그러므로 침강이 오래되면, 640킬로미터 정도 되는 거대한 단일 환초를 만들지 못하고, 몰디브 환초에 있는 것과 거의 비슷한 규모의 환초 제도를 만들 것이다. 더욱이 일단 반대편으로 틈이 난 환초는, 그 틈으로 바닷물과 조류가 곧바로 통하기 때문에, 특히 침강이 계속되는 동안에는, 산호들이 그 틈을 메우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만약 메우지 못하면 전부가 가라앉게 되면서 하나의 환초가 둘 또는 그 이상으로 나뉠 것이다. 몰디브 제도에는 위치상으로 대단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나 수심을 잴 수 없는 깊은 수로로 분리된 별개의 환초들이 있다(로스 환초와 아리 환초 사이에 있는 수로의 깊이는 270미터고 북닐란두 환초와 남닐란두 환초 사이 수로는 깊이가 360미터나 된다). 지도를

보면 그것들이 한때는 더욱 긴밀히 연결되어 있었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또 같은 제도에서 마흘로스-마흐두 환초는 깊이가 180~240미터 정도 되고 두 갈래로 나뉘는 수로로 분리되어 세 개의 별개 환초라고 해야 할지 아니면 아직 완전히 분리되지 않은 하나의 커다란 환초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다.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겠다. 다만 북부 몰디브 환초의 신기한 구조는 (손상된 가장자리를 통해 바닷물이 자유롭게 들어온다는 것을 고려하면) 위쪽과 바깥쪽으로 성장하는 산호의 특성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 될 수 있다는 것은 말해야겠다. 그러한 산호의 성장은, 흔히 보는 환초에서는, 초호에 흩어져 있는 작은 산호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보통의 형태를 갖는 모든 환초에서는, 일렬로 늘어선 산호초 가장자리에 있는 손상된 부분에 기반을 둔다. 나는 이 복잡한 구조의 진기함에 대해 다시 한번 말하고 싶은 충동을 억누를 수가 없다. 모래로 되어 있고 대개는 오목 접시 모양인 거대한 덩어리가 수심을 잴 수 없는 대양에서 불쑥 솟아 나오고, 가운데 넓은 부분에는 섬들이 곳곳에 흩어져 있으며, 그 가장자리는 바다 표면 바로 위로 드러난 산호 암반의 계란형 분지로 대칭적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산호초 대지에는 때때로 식생이 덮이고 맑은 물의 호수가 있는 것이다.

한 가지만 더 자세히 말해야겠다. 인접한 두 개 제도에서 한쪽에는 산호가 풍부히 자라는데 다른 쪽은 그렇지 않다는 것과, 앞에서 열거한 수많은 조건이 산호의 존재에 영향을 미치는 것 때문에, 땅이나 공기 그리고 물이 변화하는 동안 특정 지점이나 지역에서 산호가 영원히 살 수 있을지는 설명할 수 없다. 그리고 우리 이론에서처럼, 환초와 보초가 있는 지역이 침강하기 때문에 때때로 죽어서 물에 잠긴 산호를 발견하게 된다. 초호 수로에서 바람이 불어 가는 쪽으로 침식되어 나오는 퇴적물 때문에, 그쪽 지역은 산호가 장기간 왕성하게 자라는 데 가장 좋지 않다. 그러므로 바람이 불어 가는 쪽에서 죽은 산호를 발견하는 것은 그리 드문 일이 아니다. 죽은 산호들은 아직 벽 같은 정상적인 형태를 유지하고 있지만 몇몇 경우에는 수면 아래 수 미터 되는 곳까지 가

라앉아 있다. 차고스 제도는 몇 가지 이유, 아마도 침강이 너무 급속히 이루어졌기 때문에 과거에 비해 현재는 산호가 자라기에 훨씬 좋지 않은 환경이 되었다. 환초 한 개는 가장자리 14킬로미터 정도 되는 부분이 죽거나 물에 잠겨 있다. 둘째 환초는 살아 있는 작은 지점 몇 개가 물 위로 올라와 있으며, 셋째와 넷째는 거의 죽어서 물에 잠겨 있다. 다섯째는 형체가 거의 소멸된 상태다. 이 모든 경우에서, 죽은 산호 또는 그 일부분이 모두 거의 같은 깊이, 즉 수면에서 11~14킬로미터 정도 되는 곳에 놓여 있는 것이 주목할 만하다. 마치 어떤 단일한 움직임에 의해 그것들이 아래로 내려온 것 같다. 모레스비 함장(많은 귀중한 자료를 주어 감사를 드린다)이 '반쯤 익사한 환초들'로 불렀던 이것들 중 하나는 한쪽 방향으로 170킬로미터, 다른 쪽 방향으로 110킬로미터 정도 되는 매우 큰 크기이고 여러모로 매우 신기하다. 우리 이론에 의하면, 환초는 새로 침강이 일어난 지역마다 형성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두 가지 비중 있는 반론이 나올 수 있다. 즉 환초는 수가 무한정으로 증가해야 한다는 것과 이전에 침강이 일어났던 지역에서 자라는 환초는, 그것들이 주기적으로 손상되는 것을 증명하지 않는다면, 두께가 무한히 증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산호로 이루어진 거대한 고리 구조가 처음 만들어지고 일상적인 변화를 거치며 간혹 성장에 영향을 주는 사건들도 일어나 마침내 죽어서 소멸하기까지 일련의 역사를 추적해 봤다.

《산호초의 형성 과정》이라는 나의 저서에는 환초를 짙은 파란색으로, 보초는 옅은 파란색으로, 거초는 붉은색으로 표현한 지도가 들어 있다. 거초는 육지가 움직임이 없었던 기간에 형성되었거나, 융기된 유기물 흔적이 자주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천천히 융기하는 동안에 만들어졌다. 반면에 환초와 보초는 침강이라는 정반대의 움직임이 일어나는 동안 만들어졌다. 침강은 매우 천천히 진행되었으며 환초의 경우 모든 산맥 꼭대기가 대양 속으로 묻혀 버릴 정도로 넓은 범위에 걸쳐 일어났다. 지도를 보면, 동일한 지각운동에 의해 형성된 파란색 산호초들은 일반적으로 눈에 띄게 근접해 있다. 또한 파란색 지역

은 넓게 펼쳐져 있으며 붉은색의 광대한 해안선으로부터 떨어져 있다. 산호초의 특성은 지각운동에 영향을 받는다는 이론에 따라 두 산호초의 상황을 추론할 수 있다. 붉은색과 파란색 원이 근접해 있는 경우는 해면에 주기적 변동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 주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러한 경우 붉은색, 즉 거초는, 본래 우리 이론에 따라, 침강하는 동안 환초를 형성하고 그 환초가 다시 상승한 것이다. 그리고 다른 한편 옅은 파란색, 즉 보초는 산호 암반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산호 암반은 침강이 일어나기 전에 현재 높이까지 융기되었음이 틀림없다. 그리고 그 침강이 일어나는 동안 그전에 존재했던 보초가 위로 자라 올라온 것이다.

몇몇 학자들은 여러 대양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산호초인 환초가 서인도 제도와 같은 바다에는 전혀 없다는 것에 의외의 놀라움을 표하곤 한다. 우리는 이제 그 이유를 한눈에 알 수 있다. 서인도 제도와 동인도 제도의 일부 지역에서처럼 침강이 일어나지 않은 곳에 환초가 형성되었을 리 없다. 그러한 지역은 최근의 지질시대에 융기가 일어난 곳이다. 붉은색과 파란색으로 칠해진 보다 넓은 지역은 모두 길쭉하고 두 색깔 사이에는 정교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두 가지 색이 번갈아 가며 나타난다. 이는 마치 한쪽에서 일어난 상승 작용을 다른 쪽의 침강으로 균형을 맞추려 한 것처럼 보인다. 거초로 둘러싸인 해안과 (예를 들어 남아프리카처럼) 산호초가 없는 해안 모두에서 최근에 융기가 일어났다는 증거를 고려해 보면 거대한 대륙은 대부분 융기하는 지역이며, 산호초 형성의 원리에 따라 대양의 중심은 침강하는 지역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균열이 많은 땅인 동인도 제도는 대부분 상승한 지역이고, 침강이 일어난 좁고 긴 지역이 이를 둘러싸거나 관통하고 있다.

앞선 지도에 여러 유명한 활화산을 주홍색 점으로 표시했다. 짙거나 옅은 파란색으로 나타낸 침강이 일어난 전 지역에서 이 점들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 매우 놀랍다. 주요 화산이 나타나는 지역선과 붉은색으로 칠한 부분, 즉 오랫동안 움직임이 없는 상태로 있었거나 이보다는 최근에 융기했을 것으로 결

론 내렸던 지역이 일치하는 것도 이에 못지않게 놀라운 사실이다. 많은 주홍색 점들이 파란색을 띠는 단일 원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나타난다 하더라도, 환초 제도나 심지어 작은 환초군에서도 근방 수백 킬로미터 이내에 단 하나의 활화산도 발견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융기한 후 부분적으로 침식된 환초군으로 이루어진 프렌들리 제도에서 역사적으로 두 개 혹은 그 이상의 화산이 활동했었다고 전해 내려오는 것은 놀라운 사실이다. 한편, 태평양에 있는 보초로 둘러싸인 대부분 섬들이 화산 활동으로 생겨났고 그 화산들 중 일부는 아직까지 뚜렷이 구분되는 분화구의 잔재가 남아 있다 하더라도, 그것들 중 하나도 폭발했다고 알려진 것은 없다. 그러므로 이런 경우 화산은 동일한 지점에서 상승 운동과 침강 운동 중 우세하게 일어나는 것에 따라 폭발하고 잦아들었던 것처럼 보인다. 화산 활동이 활발한 지역에서 융기된 생물의 잔재가 흔히 나타난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수많은 사실을 증거로 댈 수 있다. 그러나 침강이 일어난 지역에는 화산이 없거나 활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 줄 수 있을 때까지는, 화산의 분포가 지구 표면의 융기나 침강에 영향을 받는다고 추론하는 것은 그 자체로는 가능성이 있지만 위험 요소를 안고 있었다. 그러나 이제, 내 생각에는 이 중요한 추론을 자유롭게 인정해도 될 것 같다.

이제 지도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보고 융기한 생물의 잔재를 고려하여 만들어 낸 진술을 명심해 보면, 그리 오래되지 않은 지질 시대에 수면이 상승하거나 하강하는 변화를 겪은 지역의 광대함에 틀림없이 놀랄 것이다. 또한 상승 운동과 하강 운동은 거의 같은 법칙에 따르는 것처럼 보인다. 단 하나의 높은 산봉우리도 바다 위에 남아 있지 않은 채 환초들만 퍼져 있는 전 지역에 걸쳐 침강은 엄청난 양으로 일어났음이 틀림없다. 더군다나 침강은 연속적으로 일어났든, 살아 있는 산호가 다시 표면까지 자랄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긴 간격을 두고 반복해서 일어났든 간에, 극도로 천천히 일어났을 것이다. 아마도 이 결론이 산호초 형성 연구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점이며,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도달할 수 있으리라고 상상하기 힘든 그런 결론인 것이다. 그

렇다고 이전에 높이 솟은 섬으로 이루어진 제도가 존재했을 가능성도 전혀 간과할 수 없다. 그 제도는 이제 산호 암반으로 된 고리만 광대한 바다에 왜소하게 남아, 다른 높은 섬에 사람들이 분포하는 것에 몇 가지 암시를 던지며 대양의 한가운데에 서로 무한히 멀리 떨어진 채 서 있다. 산호초를 만드는 산호는 해저의 주기적 변동에 대한 놀라운 추억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다. 우리는 개개 보초에서 그곳 육지가 침강했다는 증거를 볼 수 있고, 개개 환초에서는 지금은 사라진 섬에 대한 기념비를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천년만년을 살면서 그동안 거쳐 간 변화를 기록한 지질학자처럼, 이 지구 표면이 붕괴되고 육지와 바다가 교환되는 거대한 체계에 대한 어떤 통찰을 얻을 수 있다.

● 1836년 4월 1일, 비글호는 인도양의 수마트라 해안에서 1120킬로미터 떨어진 킬링 제도에 정박한다. 이 제도는 산호초로 이루어진 섬으로 자연사적으로는 이렇다 할 것이 없지만, 다윈은 이곳에서 얻은 정보를 토대로 산호초 형성에 대한 이론을 체계적으로 제시하였으며 그 이론은 오늘날에도 거의 맞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섬에는 이렇다 할 식물이 많지 않으나 상대적으로 그 종수가 무척 다양하다. 이 식물들 대부분은 동인도 제도에서 해류를 따라 뉴홀랜드 해안으로 흘러갔다가 그 후 다시 거꾸로 표류해 온 것으로 보이는데, 다윈은 이를 보고 난민들의 피난처와 같은 특징을 보인다고 기술하고 있다. 육상의 생물상이 빈약한 반면 주변 바다의 생물체 수는 거의 무제한이다. 북양가마우지와 군함새, 제비갈매기 같은 바닷새들이 많고 야자 열매를 먹고 사는 야자게, 쏘는 성질이 있는 불산호, 산호를 먹고 사는 파랑비늘돔 속의 물고기가 이 섬에서 흔히 보인다.

자연과학자 다윈은 자연을 대하며 냉철한 이성 못지않게 풍부한 감성도 드러낸다. 산호로 둘러싸인 내해의 맑고 고요한 초호와 맹렬한 파도가 부서지는 외해 쪽의 광대한 바다를 바라보며, 이 망망대해에서 산호가 어디에 기반하여 자라는 것인가를 고민하는 한편 작고 연약해 보이는 산호섬이 천하무적의 막강한 힘을 가진 바다라는 적과 싸워 건재함에 박수를 보내고 있으니 말이다.

다윈은 자신과 피츠로이 함장이 측정한 여러 자료와 여타 지역에서의 참고 자료, 다른 학자들의 견해를 비교해 가며 산호초의 특징과 생성 과정을 구체적인 삽화를 곁들여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산호초 형성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산호의 특성을 알아야 한다. 산호는 짧은 시간 동안이라도 햇빛에 노출되면 살지 못하므로 산호가 똑바로 자랄 수 있는 최대 높이는 만조 때의 최저 수위에 의해 결정된다. 아주 깊은 곳에서는 살지 못하는 산호가 어디에 기초하여 자라는가 하는 문제가 다윈이 가장 먼저 풀어야 할 숙제였다. 피츠로이 함장이 측정해 본 바에 의하면, 산호가 초를 만들 수 있는 최고 깊이는 36~54

미터 정도라고 추론할 수 있다. 여러 가지 정황을 종합해 다윈은 산들이 연달아 침강하듯이 섬들이 차례차례 천천히 수면 아래로 침강해 가면서 산호가 자랄 수 있는 신선한 기반이 계속해서 만들어질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한다.

자, 이제 세 종류의 산호초 즉 환초, 보초, 거초의 특징과 그것들의 형성 과정에 대한 다윈의 탁월한 견해 속으로 들어가 보자. 보초는 커다란 섬 해안 앞에 일직선으로 발달하거나 작은 섬들을 둘러싸고 있는 것이고 그 내부의 육지를 제거해 버리면 완벽하게 환초 그 자체만 남게 된다. 마지막 부류인 거초는 해안 주위에 리본이나 가두리 형태로 자란다. 해안 주변의 암반을 토대로 산호가 자라고 그 후 섬이 천천히 침강하면서 바깥쪽의 산호는 더 잘 자라는 반면 침식된 퇴적물이 안쪽에 있는 산호에 해를 입히므로 산호초 바깥 가장자리가 더 높아지며 그것과 육지 사이에 수로가 형성되면서 보초가 생기게 된다. 보초가 천천히 물에 잠길수록 산호는 위를 향해 더욱 활발히 자라게 되고 떨어져 있던 산들은 처음에는 거대한 산호초 내에서 떨어져 있는 섬들로 보이지만 마지막으로 최후의 가장 높은 봉우리가 사라지게 되는 순간 완전한 환초가 형성된다. 거초는 육지가 움직임이 없었던 기간에 형성되었거나 천천히 융기하는 동안에 만들어졌다. 바다와 육지가 주도권 쟁탈전을 벌이는 듯한 산호초 형성 과정에서 이에 관여하는 주기적인 조수 작용과 아주 천천히 일어나는 침강 작용이 세트를 이루어 나타나기 때문에 각각이 미치는 영향을 구별하기란 쉽지 않다. 산호초를 만드는 산호는 해저의 주기적 변동에 대한 놀라운 추억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어, 우리는 개개 보초에서 그곳 육지가 침강했다는 증거를 볼 수 있고 개개 환초에서는 지금은 사라진 섬에 대한 기념비를 볼 수 있다는 문학적 표현으로 글을 맺고 있다.



모리셔스에서 영국으로



제21장
모리셔스에서 영국으로

모리셔스[1]의 아름다운 경관–거대한 분화구 모양의 고리가 있는 산–힌두교 신자–세인트헬레나–식생의 변천 과정–육상 달팽이의 멸종 원인–어센션 섬–외래종 쥐의 변이–화산탄–적충류 지대– 바이아–브라질–열대 풍경의 장관–페르남부쿠–신기한 모래톱–노예 제도–영국으로 돌아옴–항해를 돌아보며

4월 29일 | 아침나절에 모리셔스 혹은 프랑스 섬이라 불리는 섬의 북쪽 끝을 둘러보았다. 이 지점에서 바라본 섬의 경관은 그 아름다운 경치에 대한 칭송을 익히 들어 기대하고 있던 바와 같았다. 눈앞에 펼쳐진 비스듬한 팜플레무스 평야에는 집들이 드문드문 있고 넓은 사탕수수밭이 있어 밝은 녹색을 띠고 있다. 녹색은 대체로 가까이서 볼 때만 눈에 띄는 색깔이라 그런지 그 밝음이 더욱 두드러져 보인다. 섬 가운데로 갈수록 나무로 덮인 산들이 매우 잘 경작된 평야에서 솟아 있으며, 산 정상은 오래된 화산 암반에서 흔히 보이는 것 같은 뾰족한 봉우리로 들쭉날쭉하다. 봉우리마다 하얀 뭉게구름이 나그네의 눈을 즐겁게 해 주려는 듯 걸려 있다. 완만하게 펼쳐진 평야와 그 가운데 솟아 있는 산들이 어우러져 빚어내는 섬의 경관은 그야말로 완벽하게 고상한 분위기를 풍긴다. 이런 말로 제대로 표현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름답게 조화를 이룬 한 폭의 그림 같다고나 할까.
다음 날은 마을을 돌아다니며 사람들을 만나 보았다. 마을은 상당히 규모가 크고 주민도 2만 명이나 된다고 하며, 길은 아주 깨끗하고 반듯반듯하게 잘 닦여 있다. 이 섬은 오랫동안 영국령이었는데도, 곳곳에서 보이는 전반적인 특징은 프랑스풍이 우세하다. 영국계 사람도 하인에게는 프랑스어로 얘기하며 상점들도 모두 프랑스어를 사용한다. 실제 칼레[2]나 볼로뉴가 훨씬 더 영국화

1 아프리카 동쪽 인도양 남서부에 있는 섬나라–역주.

했다는 생각이 든다. 마을에는 아주 작고 예쁜 극장이 하나 있는데, 현재 오페라를 절찬리에 상연하고 있다. 또한 책이 꽉 들어찬 서가가 있는 커다란 서점을 보고 놀랐다. 음악을 감상하고 책을 읽는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지금 구대륙의 문명사회에 도착해 있음을 피부로 느끼게 한다. 사실 그동안 우리는 오스트레일리아와 아메리카 같은 신대륙을 거쳐 왔던 것이다. 포트루이스[3]에서는 다양한 인종들이 거리를 활보하는 광경이 단연 흥미를 끌었다. 인도에서 종신형을 선고받은 죄인들이 이곳으로 유배되어 현재 8백 명가량 살고 있으면서 여러 공공사업에 동원된다. 이 사람들을 보기 전까지, 나는 인도 사람들이 그렇게 기품 있어 보이는 줄 몰랐다. 피부는 아주 검고 노인들 대부분은 눈처럼 하얀 커다란 콧수염과 턱수염을 기르고 있다. 이런 외모와 정열적인 표정으로 인해 인도 사람들은 매우 위엄 있어 보인다. 이 인도인들 대부분은 살인이나 극악한 범죄를 저질러 추방되었지만, 그중에는 종교적인 신념 때문에 영국 법을 준수하지 않은 것 같은, 거의 도덕적 범죄라고 할 것까지도 없는 그런 이유로 쫓겨 온 사람도 있다. 이들은 대개 점잖고 예의 바르게 행동한다. 또한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과 청결함 그리고 우리 눈에는 이상하게 보이는 자신들만의 종교 의식을 충실히 거행하는 것 등을 볼 때, 그들을 뉴사우스웨일스에 있는 비참한 영국인 죄수들과 동등한 시각으로 본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5월 1일 | 일요일, 해안을 따라 마을 북쪽까지 천천히 걸어갔다. 이쪽의 평원은 거의 개간하지 않은 상태이고, 거친 풀과 미모사 덤불로 덮인 검은 용암 대지다. 광경을 굳이 묘사한다면, 갈라파고스와 타히티의 중간쯤 되는 특징을 가졌다고나 할까. 그러나 이런 표현만으로는 누구도 그 풍경을 선명히 떠올리지는 못할 것 같다. 매우 상쾌한 풍경이기는 하나, 타히티에서 풍기는 매력이나 브라질의 웅대함을 맛보기는 어렵다. 다음 날, 라푸스 산에 올랐다. 그 산은 이름이 암시하듯 엄지손가락 모양으로, 마을 바로 뒤에 고도 780미터까지

2 도버 해협에 임한 프랑스의 항구 도시-역주.

3 모리셔스의 수도-역주.

솟아 있다. 섬 중앙은 지층이 바다 쪽으로 기울어진 넓은 대지인데, 오래된 현무암질 산들이 띄엄띄엄 둘러싸고 있다. 중앙의 대지는 비교적 최근에 흘러간 용암으로 형성된 것으로 짧은 축 길이가 21킬로미터 정도 되는 알 모양이다. 바깥에 둘러선 산들은 '상승 분화구'라고 하는 구조에 가깝다. 상승 분화구는 여느 분화구와 달리 거대하고 급작스러운 융기에 의해 만들어진 것으로 추측들하지만, 나는 이런 생각에 중대한 오류가 있다고 본다. 한편, 이것과 몇몇 다른 경우에서처럼, 대지 주변을 둘러싼 이런 분화구 모양의 산들이 거대한 화산에서 꼭대기는 날아가거나 땅속 깊숙한 곳에 묻히고 단지 기저 부분만 남아 있는 것이라고도 생각하기 힘들다.
이렇게 높은 곳에서 보니 섬 전체가 한눈에 들어온다. 이쪽 지역은 깨끗하게 잘 개간되어 밭으로 나뉘어 있고 군데군데 농가가 보인다. 그러나 이 지역의 반도 안 되는 곳만 개간된 상태라고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이 섬이 현재 막대한 양의 설탕을 수출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머지않아 이 섬에 사람들이 들끓게 되면서 섬의 가치는 올라갈 것으로 생각된다. 영국이 통치한 지 겨우 25년 정도 되었는데, 그동안 설탕 수출량이 75배나 증가했다고 한다. 이러한 번영을 이룬 가장 큰 원인은 도로 상태가 아주 좋다는 것이다. 인근에 아직 프랑스령으로 남아 있는 부르봉 섬의 도로 상태는 이 섬의 수년 전 상태와 같이 형편없다. 이 섬에 살고 있는 프랑스인 주민들은 섬이 번영함으로써 많은 이익을 얻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여전히 영국 정부를 좋아하지 않는다.
5월 3일 | 저녁 무렵, 파나마 지협을 조사한 것으로 유명한 측량 전문가인 로이드 함장이 스토크스 씨와 나를 초대했다. 그의 집은 빌하임 평야의 가장자리에 있으며 포트루이스에서 약 10킬로미터 정도 떨어져 있다. 우리는 이 기분 좋은 곳에서 이틀간 묵었다. 이곳은 해면에서 거의 240미터 올라가 있고 공기는 맑고 시원했으며 사방으로 산책로가 뻗어 있다. 바로 옆에는 섬 중앙의 대지에서 흘러나온 용암이 지나가면서 약 150미터 깊이로 파인 거대한 골짜기가 있다.

5월 5일 | 로이드 함장은 우리를 남쪽으로 몇 킬로미터에 있는 누아르 강으로 안내했다. 나는 그곳에서 융기한 산호 암반 몇 개를 조사했다. 잘 가꾼 경작지와 거대한 용암 대지 한가운데에 있는 사탕수수밭을 지났다. 길 양옆에는 미모사가 울타리를 이루고 대부분의 집 근처에는 망고나무를 심은 작은 길이 나 있다. 높이 솟은 산과 잘 개간된 농장이 한데 어우러진 풍경이 그림처럼 아름다워, 우리는 "이렇게 조용한 곳에서 일생을 보낸다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소리치고 싶은 충동을 몇 번이나 느꼈다. 로이드 함장은 코끼리 한 마리를 가지고 있어서 가는 길에 우리를 태워 줬다. 우리는 인도에서 하는 것과 똑같은 방식대로 코끼리를 탔는데, 나를 가장 놀라게 한 것은 코끼리의 발소리가 거의 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현재 이 코끼리가 이 섬에서 유일한 것이지만, 장차 다른 코끼리들을 더 들여올 것이라고 한다.

5월 9일 | 포트루이스를 출발해 희망봉에 들렀다가, 7월 8일에 세인트헬레나 섬에 도착했다. 이 섬은 감히 범접하기 어려운 경관으로 종종 묘사되듯, 거대한 검은 성처럼 대양에서 불쑥 솟아 나와 있다. 마을 근처에는 천혜의 성벽을 보완이라도 하듯 작은 요새와 총안[4]이 울퉁불퉁한 바위틈에 들어차 있다. 마을은 평평하고 좁은 계곡을 따라 발달해 있고, 남부끄럽지 않은 집들 사이로 초록색 나무가 몇 그루 흩어져 있다. 정박지로 다가가자 놀라운 광경이 나타났는데, 그것은 바로 높은 언덕 위에 자리 잡은 불규칙한 성이었다. 그것은 곳곳에 흩어져 있는 전나무 몇 그루로 둘러싸인 채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다. 다음 날, 나폴레옹의 무덤[5]이 돌을 던지면 닿을 정도로 가까이 있는 곳에 숙소를 구했다. 그곳은 정중앙이어서 모든 방향으로 답사하기에 좋았다. 이곳에서 나흘을 머무는 동안, 나는 밤낮으로 돌아다니며 섬의 지질을 조사했다. 내가

4 몸을 숨긴 채로 총을 쏘기 위해 성벽, 보루堡壘에 뚫어 놓은 구멍–역주.

5 이것을 주제로 온갖 수사를 늘어놓은 책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온 이후로는, 그 무덤을 언급하는 것조차 꺼려진다. 어떤 신식 여행가는, 단지 열두 줄밖에 되지 않는 분량에서 다음과 같은 제목을 들먹여가며 이 초라한 작은 섬에 부담을 주고 있다. '무덤, 분묘, 피라미드, 공동묘지, 매장소, 지하묘지, 석관, 뾰족탑, 영묘.'

묵은 숙소는 해발 6백 미터에 있는데, 매우 춥고 비가 계속 내리며 날씨가 사나웠다. 때로는 섬 전체가 두꺼운 구름층에 쌓이기도 했다.
해안 근처의 울퉁불퉁한 용암 지대에는 식물이 거의 없다. 가운데 쪽으로 조금 높은 지대는 장석질 암석이 분해되어 생성된 점토질 토양으로 덮여 있는데, 나무가 없는 그곳에 산뜻한 빛깔의 초지가 펼쳐져 있다. 이맘때면 비가 계속 와서 촉촉해진 이 땅에 독특한 밝은 녹색의 목초가 자란다. 아래로 내려갈수록 초록색은 점차 연해지다가 마침내 사라져 버린다. 위도 16도, 고도 450미터의 낮은 지대에서 영국 식생의 특징이 확연히 나타나는 식물상에 깜짝 놀랐다. 그 언덕의 꼭대기에는 불규칙하게 심은 스코틀랜드 전나무가 덮여 있고 경사진 제방에는 노란 꽃으로 덮인 가시금작화 덤불이 두껍게 흩어져 있다. 강둑에는 수양버들이 흔하고, 그 유명한 검은 딸기가 열리는 나무가 울타리를 만들고 있다. 현재 이 섬에 있는 식물의 수가 746종인데 이 중 52종만 섬의 토착종이고 나머지는 대부분 영국에서 들여온 것이니, 이 섬에서 영국 식생의 특징이 나타날 만도 하다. 이 영국 식물들 상당수는 영국보다 이곳에서 더 잘 자라는 것 같고 지구 반대편에 있는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온 식물도 잘 적응한다. 많은 외래종들이 일부 고유종을 멸종시킨 것이 분명하며, 현재 섬 고유의 식물상은 가장 높고 가파른 능선에서만 우세하게 나타난다. 깊은 골짜기 바닥이나 높은 언덕의 꼭대기에서 보이는 수많은 오두막집과 흰색의 작은 집들은 영국, 즉 웨일스 지방에 가까운 풍경을 자아낸다. 눈에 띄는 경치도 몇 장면 있다. 예를 들어 W. 도브턴 경의 집 근처에서 보면 로트라 부르는 높은 봉우리가 짙은 전나무 숲 너머로 보이며, 그 뒤로 물에 침식된 남쪽 해안의 붉은 산맥이 보인다. 높은 곳에서 섬을 바라보면 우선 눈에 띄는 것은 도로와 요새가 많다는 점이다. 그 공공사업에 쏟은 막대한 노동력은, 이곳이 감옥이라는 상황을 염두에 두지 않는다면, 섬의 크기나 가치에 비해 도가 지나쳐 보인다. 평지나 쓸 만한 땅이 거의 없는 탓에 5백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어떻게 먹고사는지 놀랄 따름이다. 하층민, 즉 해방된 노예들은 극도로 가난

하다. 그 사람들은 일자리가 없는 것이 불만이다. 동인도 회사가 섬을 통치하는 것을 포기했기 때문에 공무원 수가 줄고, 그 결과 많은 부유한 사람들이 섬을 떠나면서, 빈곤은 더 심해질 것이다. 노동자 계층 사람들은 쌀과 소금에 약간 절인 고기를 주식으로 하는데 이것들 중 어느 것도 섬 자체에서 생산되지 않아 돈을 주고 사 먹어야 하기 때문에 저임금은 가난한 사람들을 짓누른다. 해방된 노예들은 지금 한창 그들이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자유와 권리를 만끽하고 있으므로, 조만간 그 숫자가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되면 이처럼 열악한 상황의 세인트헬레나 섬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내가 고용한 안내인은 나이 든 사람으로, 소년 시절에 염소를 몰았던 까닭에 그 암반 지대에 나 있는 길들을 속속들이 알고 있다. 그는 여러 대에 걸쳐 혼혈이 된 사람으로, 피부는 까무잡잡하지만, 흑백 혼혈인들에서 나타나는 불쾌한 표정은 보이지 않는다. 매우 정중하고 말이 없는 노인인데, 하층민 대다수가 이런 특징을 보인다. 피부가 거의 하얗고 옷도 제법 갖춰 입은 한 남자가 자신이 노예였던 시절의 얘기를 아무렇지 않게 하는 것이 나에게는 좀 어색하게 들렸다. 우리가 먹을 밥과 뿔에 담긴 물—낮은 계곡에 있는 물은 모두 소금기가 있어서 물이 꼭 필요하다—을 젊어진 안내인과 함께 온종일 멀리까지 돌아다녔다. 위쪽 중앙의 녹색 지역 아래에 매우 황량하고 아무것도 없는 원시 계곡이 있다. 지질학자에게 이곳은 연속적인 변화 과정과 복잡한 지각 변동의 흔적이 남아 있어 많은 흥미를 불러일으키는 곳이다. 내 생각에 세인트헬레나 섬은 아주 오래전부터 섬으로 존재했다. 그러나 융기가 일어난 지형이라는 불분명한 증거 몇 개도 아직까지 공존한다. 중앙에 있는 가장 높은 봉우리가 거대한 분화구의 가장자리 일부를 이루는 것 같고 그 분화구의 남쪽 절반은 파도에 의해 전부 쓸려가 버렸을 것이다. 게다가 모리셔스의 해안에 있는 산들처럼 중앙의 화산 흐름보다 더 오래된 검은 현무암질 바위가 외벽을 이룬다. 좀 더 위로 올라간 곳에서는 오래전부터 해산 종으로 알려져 있는 조개껍데기 상당량이 토양에 묻힌 채로 발견된다. 그 조개는 코클로제나

Cochlogena, 즉 매우 독특한 형태의 육상 달팽이로 밝혀졌다.[6] 그 외에 나는 다른 여섯 종을 더 발견했고, 또 다른 지점에서 여덟째 종을 찾아냈다. 그 조개 중 현존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 주목할 만하다. 그것들은 지난 세기 초에 숲이 완전히 파괴돼서 먹을 것과 은신처를 잃어버리는 바람에 멸종된 것 같다. 비트슨 장군이 이 섬에 대해 기록한 것을 보면, 융기된 평원인 롱우드와 데드우드가 거쳐 온 변화 과정이 무척 신기하다. 두 평야 모두 옛날에는 나무로 덮여 있어서 그레이트 우드라고 불릴 정도였다고 한다. 가장 최근인 1716년만 해도 나무가 많았다. 그러나 1724년에 늙은 나무 대부분이 쓰러졌고 염소와 돼지를 풀어놨기 때문에 어린나무들도 모두 밟혀 죽었다. 나무들이 없어지고 나서 몇 년 후 예기치 않게 왕바랭이가 땅 위를 덮었다고 공식 기록에도 나와 있다.[7] 비트슨 장군은 이 평야는 지금 "고운 잔디로 뒤덮여 아마도 이 섬에서 가장 훌륭한 목초지가 될 것이다"고 덧붙이고 있다. 이전 기간에 나무로 덮여 있던 땅은 적어도 2천 에이커는 될 것으로 추정한다. 그러나 지금 이곳에는 단 한 그루의 나무도 없다. 1709년 샌디 만에 죽은 나무가 상당히 많았다고도 한다. 그곳은 지금 완전히 불모지가 되어 그곳에 나무가 살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기록 외에는 그 사실을 믿게 할 아무것도 없다. 염소와 돼지가 막 돋아나는 어린나무들을 전부 죽이고, 그런 공격에서 비교적 안전했던 늙은 나무들도 세월이 흐름에 따라 수령이 오래되어 죽었다는 사실은 명확히 이해된 것 같다. 염소는 1502년에 들어왔고, 86년 후인 캐번디시 시대에 그 수가 엄청났다고 한다. 1세기 이상 지난 1731년 피해가 극에 달해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자, 주인 없이 돌아다니는 모든 짐승을 죽이라는 명령이 공포됐다. 1501년에 세인트헬레나에 동물이 들어왔으나 220년이라는 세월이 지날 때까지는 섬 전체의 경관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점이 매우 흥미롭다. 염소

6 내가 한 곳에서 발견한 이 수많은 조개껍데기 표본 모두는 뚜렷한 변종으로, 다른 곳에서 채집한 또 다른 표본 세트와 다르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7 비트슨의 《세인트헬레나 섬》 서문, 4쪽.

는 1502년에 들어왔고, 1724년에 "오래된 나무들 대부분이 쓰러져 있다"는 기록에서 이를 추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식생에서 일어난 이런 큰 변화가 육상 달팽이 8종을 멸종시키고 또한 수많은 곤충들에도 영향을 끼쳤음은 의심할 바가 없다. 세인트헬레나는 대륙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대양 한가운데 있으며 독특한 식물상을 보여 호기심을 불러일으킨다. 지금은 모두 멸종한 육상 달팽이 8종과 살아 있는 갈색뾰족쨈물우렁이속 1종은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이 섬에만 있는 종이다. 그러나 커밍 씨가 알려 준 바에 의하면, 영국산 달팽이속이 이곳에서 흔한데 그 달팽이의 알은 분명 많은 외래 식물에 섞여 들어왔을 것이라고 한다. 커밍 씨는 해안에서 해산 조개 16종을 채집했는데 그중 7종은 그가 알기로 이 섬 고유종이라고 한다. 새와 곤충들은,[8] 예상했던 대로, 그 수

8 이들 몇 안 되는 곤충들 중에 자그마한 똥풍뎅이Aphodius 1종(신종)과 남방장수풍뎅이Oryctes 1종을 발견하고 놀랐는데, 2종 모두 동물의 배설물 아래에 엄청나게 많았다. 이 섬이 발견되었을 당시에는 생쥐를 제외하곤 네발 달린 육상 동물이 전혀 없었던 것이 확실하므로, 배설물을 먹고 사는 이런 곤충들이 우연히 이곳에 들어온 것인지, 또는 이 곤충들이 토착종이라면 그전에는 무엇을 먹고 살았는지를 밝혀내는 일이 점점 어려워진다. 라플라타 강변은 많은 소나 말의 배설물로 인해 초지가 매우 비옥한데, 동물의 배설물을 먹고 사는 여러 종류의 딱정벌레가 유럽에는 상당히 많지만 이곳에서 그것을 찾는 것은 무모한 짓이다. 이런 환경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남방장수풍뎅이 1종(이것과 같은 속으로 분류되는 유럽 종들은 주로 썩은 식물을 먹고 산다)과 파내우스Phanaeus 2종만을 관찰했을 뿐이다. 코르디예라 산맥을 경계로 라플라타 강과 맞은편에 있는 칠로에에서는 또 다른 파내우스들이 매우 많은데, 그것들은 소의 배설물을 흙으로 둥글게 말아 땅속에 묻는다. 소들이 이곳에 들어오기 전에는 파내우스들이 사람의 시체를 먹고 살았을 것으로 믿는 이유가 있다. 유럽에서 자기 이외의 동물 혹은 자기보다 큰 동물의 몸속 물질에서 먹이를 찾는 딱정벌레는 그 수가 많아서 1백여 종도 더 될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고, 라플라타 평원에서 이와 같은 종류의 먹이가 얼마나 많이 사라졌는지를 관찰해 보면, 상당히 많은 동물이 자연적으로 연결되어 있던 먹이 사슬을 인간이 교란한 실례를 봤다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반디멘스랜드에서 나는 소똥풍뎅이속Onthophagus 4종과 똥풍뎅이속 2종, 그리고 다른 속의 종 하나를 발견했는데, 모두 소의 배설물 아래에 매우 많았다. 하지만 소가 이곳으로 들어온 지는 겨우 33년밖에 되지 않았다. 그전에는 캥거루와 다른 작은 동물들이 네발 동물이었으며, 그들의 배설물은 인간에 의해 그 후 계속 들어온 소나 말 같은 동물의 것과는 질적으로 많이 다르다. 배설물을 먹고 사는 많은 영국 딱정벌레들은 식성이 까다롭다. 즉, 살기 위해서 아무 네발 동물의 배설물을 먹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반디멘스랜드에서 일어났음이 분명한 이런 식성의 변화에 매우 주목할 만하다. 앞에 서술한 곤충들의 이름을 알려 주신, 곤충학 분야에서 나의 스승이라 할, 호프 신부님께 감사드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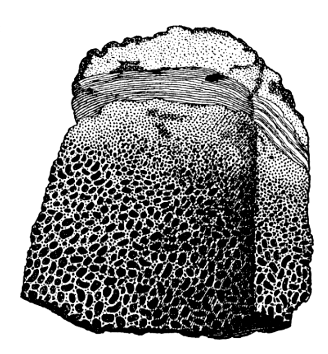
가 매우 적으며 실제 새들 모두는 최근 몇 년 사이 섬에 들어온 것으로 생각된다. 자고새와 꿩이 굉장히 많다. 이 섬은 영국의 영향을 지나치게 많이 받은지라 수렵법을 엄격히 시행하지 않고 있다. 심지어 영국에서 들어 본 적도 없는 부당한 법령에 의해 마을 주민이 희생했다는 얘기도 들었다. 예로부터 가난한 사람들은 해안 암벽에서 자라는 식물을 태워 그 재로 소다를 만들어 팔며 살았다. 그러나 이를 금하는 단호한 명령이 내려졌는데, 그 이유란 바로 자고새가 집 지을 장소가 없다는 것이다.
산책하면서 깊은 골짜기로 둘러싸인 초원 지대를 몇 번 지나친 적이 있는데, 그곳에 롱우드가 있다. 가까이서 보면 마치 고관대작의 시골 저택처럼 보인다. 앞쪽에는 경작된 밭이 조금 있고 그 너머로 '플라그스태프'라는 알록달록한 바위로 된 완만한 언덕과 '반'이라는 울퉁불퉁한 사각형의 검은 암반이 보인다. 전체적으로 황량하고 무미건조한 풍경이다. 산책하는 동안 별다른 불편은 없었으나 바람이 심하게 불었다.
어느 날 신기한 현상을 목격했다. 나는 그때 깊이가 수백 미터는 되는 큰 절벽으로 끝나는 평지의 가장자리에 서 있었다. 바람이 불어오는 쪽으로 수 미터 떨어진 곳에서 제비갈매기들이 강한 된바람을 맞으며 버둥거리고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그런데 내가 서 있는 곳은 바람 한 점 없이 고요했다. 바람이 절벽에 부딪혀 위로 꺾여 올라오는 것처럼 보이는 절벽 가장자리로 가까이 다가가 팔을 뻗어 보자 곧바로 강한 바람의 힘을 느낄 수 있었다. 폭이 2미터 정도 되는 보이지 않는 장벽이 강한 바람과 고요한 공기를 완전히 분리하고 있는 것이다.
세인트헬레나의 암반과 산을 돌아다니며 너무 즐거웠던지라 14일 아침에 마을로 내려올 적에는 무척이나 아쉬운 마음이 들었다. 정오가 되기 전에 배에 올랐고, 비글호는 다시 항해를 시작했다.
7월 19일에 우리는 어센션 섬에 도착했다. 건조한 지역에 있는 화산섬을 본 사람이라면 곧바로 어센션의 모습을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대개 꼭대기가 잘

리고 선명한 붉은색을 띤 원뿔형 모양의 완만한 작은 산들이 울퉁불퉁한 검은 용암 지대 위로 불쑥불쑥 올라와 있는 광경이 떠오를 것이다. 섬 중앙에 있는 가장 높은 산은 주위에 있는 다른 낮은 산들의 아버지처럼 보인다. 이 산은 아주 희미한 엷은 녹색을 띠기 때문에 '그린 힐'이라 부르는데, 연중 이맘때는 정박지에서 그 색깔이 거의 구별이 안 된다. 해변의 검은 암석들이 거칠고 사나운 바닷물에 부서지며 황량함을 더하고 있다.
해변 가까이에 마을이 있다. 여기저기 불규칙하게 흩어져 있는 집 몇 채와 병영 막사가 전부지만, 그것들은 흰색 사암으로 견고하게 잘 지어져 있다. 주민이라곤 해군들과 노예선에서 풀려난 흑인 몇 명이 전부로, 정부에서 급여와 식량을 공급하고 있다. 이 섬에 민간인은 없다. 해군들 대부분은 그들의 상황에 매우 흡족해하는 듯하다. 무슨 일을 하든 배에서 생활하는 것보다는 육지에서 21년을 근무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아마 내가 해군이라도 진심으로 이렇게 생각했으리라.
다음 날 아침, 870미터의 그린 힐에 올라 거기에서부터 섬을 가로질러 바람이 불어오는 쪽으로 걸어갔다. 해안의 정착지에서 중앙의 산꼭대기 근처에 있는 집이나 과수원, 밭에 이르기까지 달구지가 지나갈 수 있는 길이 잘 닦여 있다. 길가에는 이정표가 있고, 물통 같은 것도 있어서 목마른 행인이 물을 충분히 마실 수 있게 되어 있다. 섬에 있는 시설물 곳곳에서 이와 같은 배려가 눈에 띄는데, 특히 우물은 한 방울의 물도 손실되지 않도록 잘 관리하고 있다. 실제 섬 전체는 최상급으로 유지되는 거대한 선박에 비유할 수 있겠다. 나는 온갖 수단을 동원해 이러한 효과를 만들어 낸 그들의 부지런함에 내심 감탄하면서도 동시에 너무나 빈약하고 하찮은 목적에 쓸데없는 노력을 낭비했다는 데 유감스러운 마음이 들기도 했다. 이에 대해 레송 씨 같은 사람은 영국인만이 어센션 섬을 생산적인 곳으로 만들 생각을 했지, 다른 나라 사람들은 단지 해양의 단순한 요새로만 이용했을 것이라고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기도 한다.
해안 근처에는 아무것도 자라지 않는다. 섬 안쪽으로 좀 더 들어가면 녹색 빛

깔의 아주까리와 사막의 진정한 친구라 할 수 있는 메뚜기 몇 마리를 가끔 볼 수 있다. 가운데 약간 올라간 지대의 표면에 얼마간의 초지가 군데군데 흩어져 있어, 마치 웰시 지방의 열악한 산악과 많이 닮았다. 목초지가 빈약해 보이기는 하지만, 대략 양 6백 마리와 많은 염소들 그리고 소와 말 몇 마리를 먹여 살리는 데는 부족함이 없다. 토착 동물로는 여러 마리가 무리 지어 다니는 육상 게와 쥐들이 있다. 쥐들이 정말 토종인지에 대해서는 매우 의문스럽다. 워터하우스 씨가 기록한 변종이 두 종 있다. 하나는 빛나는 검은색 털로 덮여 있으며 산꼭대기의 초지에 서식한다. 다른 하나는 갈색의 덜 빛나는 긴 털로 덮여 있고 해안의 인가 근처에 서식한다. 몸체 크기는 둘 다 보통의 검은 쥐M. rattus(곰쥐)의 3분의 1 정도며, 털 색깔이나 특징이 검은 쥐와 다르지만 다른 기본적인 특징은 같다. 이 변종들은(야생으로 자라는 일반 쥐들처럼) 외부에서 유입되어, 갈라파고스에서 처럼 그들이 처한 새로운 환경의 영향을 받아 변한 것이 확실하다. 그러므로 섬 꼭대기에 사는 변종은 해안에 사는 변종과 다르다. 이 섬에 토종 새는 없다. 하지만 카보베르데 제도에서 들여온 기니아 닭은 많은 편이며, 일반 닭들과 비슷하게 야생종으로 변했다. 고양이들도 원래는 쥐나 생쥐들을 없애기 위해 들여온 것이 그 수가 늘어나면서 이 지역의 큰 재앙이 되어 버렸다. 섬 전체에는 나무가 하나도 없다. 이런 점에서, 아니 다른 모든 점에서도, 이곳은 세인트헬레나보다 크게 뒤떨어진다.

한 번은 이 섬의 남서 방향 끝자락까지 답사를 갔다. 날씨는 맑고 더웠으며, 섬은 나를 향해 아름답게 미소 짓기보다는 섬뜩한 모습으로 노려보는 듯했다. 용암이 흘러내린 지점들은 작은 언덕으로 덮여 있고, 지질학적으로 쉽게 설명되지 않을 정도로 울퉁불퉁하다. 그 사이 공간은 속돌이나 화산재, 그리고 화산질의 응회암층으로 채워져 있다. 배를 타고 섬의 이쪽 끝부분을 지나며 보았던, 평원 전체를 얼룩덜룩하게 덮고 있는 흰 조각들이 그땐 무엇인지 알 수 없었는데 지금 보니 그것은 바닷새였다. 그놈들은 어찌나 천하태평으로 자는지 한낮에도 가까이 다가가 맨손으로 잡을 수 있을 정도다. 이날 하루 종일 내

가 본 유일한 생명체는 이 새뿐이다. 바람은 약했지만, 해안에서는 군데군데 흩어진 용암 바위들 위로 커다란 파도가 세차게 떨어지고 있었다.



화산탄

이 섬의 지질은 여러 면에서 흥미롭다. 몇 군데에서 화산탄, 즉 액체 상태일 때 공기층으로 튀어나와 구球형이나 서양배梨의 모습을 띠게 된 용암 덩어리가 눈에 띄었다. 외형뿐 아니라, 몇몇 경우는, 내부 구조에서도 이것들이 공기층을 회전한 매우 흥미로운 방식을 보여 준다. 그중 한 개를 깨뜨렸을 때 보이는 내부 구조를 위에 매우 세밀하게 그려 봤다. 가운데 부분은 작은 공간이 엉성하게 모여 있고 가장자리로 갈수록 공간의 크기가 작아진다. 가장자리 부근은 두께가 9밀리미터 정도 되며 돌들로 조밀하게 메워진 조개껍데기 같은 덮개가 있다. 그것은 다시 작은 세포 모양의 용암으로 된 바깥 껍데기로 덮여 있다. 일차적으로는 바깥 껍데기 부분이 지금 보고 있는 것처럼 그 상태에서 빠르게 냉각되고, 이차적으로 아직 액체 상태인 안쪽의 용암이, 화산탄들이 회전하면서 생긴 원심력에 의해, 바깥 부분의 차가워진 껍질에 부딪히면서 조밀해져 딱딱한 돌 껍데기가 된 것이 확실하다. 마지막으로 화산탄의 중심 부위로 갈수록 압력이 줄어들면서 뜨거운 증기가 원심력에 의해 다시 세포들을 팽창시키면서 중심 부위에 조잡한 모양의 세포 덩어리를 형성한 것이다.

좀 더 오래된 화산암으로 형성된 언덕은 화산 분화구인 것으로 잘못 여겨지고 있는데, 넓고 약간 파인 둥근 모양의 꼭대기가 화산재나 얇은 스코리아scoriae로 된 많은 지층들로 연속적으로 채워져 있는 것이 눈에 띈다. 접시 모양의 지층들은 가장자리가 노출되어 다양한 색을 가진 완전한 형태의 고리 모양을 형성하여 산 정상의 광경을 매우 환상적으로 보이게 한다. 이 고리 중 하나는 폭

이 넓고 흰데, 마치 말들을 훈련시킬 때 돌게 하는 코스와 비슷해서 이 언덕을 '악마의 승마 학교'라고 부른다. 나는 분홍색의 석회 지층 하나를 표본으로 가져왔다. 놀랍게도, 에렌베르크 교수는[9] 그 지층 전체가 거의 유기 물질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 속에서 규산질 껍질을 가진 담수산 적충류 약간과 주로 풀인 25여 종이 넘는 규산질 식물을 발견했다. 이 속에 탄소질 성분이 없는 사실로 미루어, 에렌베르크 교수는 유기체가 화산의 불꽃 속을 통과한 뒤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상태로 분출된 것으로 믿고 있다. 이곳 지층의 모습을 보면 그것들이 물 아래에서 침전되었을 것으로 유추된다. 기후가 극도로 건조한 것을 감안하면, 화산의 대폭발 시에 아마도 폭우가 내려 일시적인 호수가 형성되었고 그 속에 화산재가 떨어졌을 것이란 상상을 멈출 수가 없다. 하지만 지금 다시 생각해 보니 그 호수가 일시적인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 어쨌든 이전 지질 시대에 어센션 섬의 기후나 동식물들은 현재와 매우 다를 것이라는 확신이 든다. 이 지구 상의 어느 곳이든 자세히 조사해 보면, 지구가 과거에 겪어 왔고 현재 그리고 미래에 겪게 될 끊임없는 변화의 흔적을 발견하지 못할 곳이 그 어디인가?

우리는 어센션 섬을 떠나 남아메리카의 경도 측정을 완료하기 위해 브라질 해안에 있는 바이아를 향해 출발했다. 8월 1일에 도착해 4일간 머물렀는데, 그 동안 나는 몇 차례 멀리까지 답사를 나갔다. 특별히 신기한 것이 없는데도, 열대 지방의 풍경에서 느껴지는 즐거움이 조금도 줄어들지 않는다는 것이 이상하다. 경치를 이루는 요소들이 워낙 단순해, 절묘한 자연의 아름다움이란 아주 사소한 상황에 의해서도 좌우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증거로 언급할 만하다.

이 지역은 해발 90미터 정도의 평원으로 전 지역이 침식되어 바닥이 평평한 계곡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구조는 화강암 지대에서는 두드러져 보이지만, 대체로 이 평원을 이루는 부드러운 지층에서는 거의 보편적이다. 지표면은 우

9 베를린 왕립 학술원의 단행본, 1845년, 봄.

뚝 서 있는 다양한 나무들로 덮여 있고, 그 사이에 군데군데 경작지가 나타나고 거기를 벗어나면 집이나 수도원, 교회가 세워져 있다. 열대 지방에서는 자연의 야생적 화려함이 큰 도시 근처라고 해서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산 사면과 도시를 둘러싸고 있는 자연적 식생에서 드러나는 아름다움은 인간이 만들어 낸 인위적 산물들을 압도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붉은색 토양이 대지를 뒤덮는 녹음과 강렬한 대비를 이루는 곳은 얼마 되지 않는다. 평원의 가장자리에 서면 멀리 바다가 보이고, 키 작은 나무들로 덮인 해안의 큰 항만과 흰 돛을 단 수많은 보트와 카누들이 보인다. 이를 제외하면 볼 만한 경치는 얼마 안 된다. 양쪽의 평탄한 길을 따라, 나무로 덮인 저 아래쪽의 계곡들이 언뜻언뜻 보일 뿐이다. 이에 더해 집, 특히 종교 건축물은 독특하고 환상적이기까지 한 건축 양식을 보여 준다. 이것들은 모두 흰 도료로 칠해져 있는데, 정오의 강렬한 햇빛이 비칠 때면 수평선 위의 엷은 푸른 하늘을 배경으로 마치 실제 건물이라기보다는 그림자가 서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곳의 경관을 이루는 요소들을 죽 늘어놓아 보았지만, 전체적인 분위기를 전달해 보려는 시도는 부질없어 보인다. 유식한 자연사학자들은 눈에 띄는 수많은 대상물들을 일일이 나열하고 각각의 특징을 언급함으로써 열대 지방의 경치를 묘사하곤 한다. 박식한 여행가라면 아마도 이러한 묘사를 보고 어느 정도 뚜렷한 심상을 얻으리라. 하지만 식물 표본집에 있는 식물을 보고 자연의 토양에서 자라고 있는 식물의 모습을 상상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는가? 온실에서 선택적으로 키우는 식물들만 보고서 그것들을 숲 차원으로 확대하거나 정글에 빽빽이 들어차 있는 것으로 생각이나 할 수 있겠는가? 곤충학자의 채집 상자 속에 있는 화려하고도 이국적인 나비나 특이한 매미 표본을 조사하면서, 이처럼 생명 없는 대상물을 열대 태양이 작열하는 나른한 오후에 끊임없이 들려오는 매미의 거친 울음소리와 느리게 날갯짓하는 나비에 연결할 수 있단 말인가? 그러한 광경이 보일 때는 태양이 최고도에 있을 때다. 그럴 때면 햇빛에 반짝거리는 망고나무의 빽빽한 잎들이 땅에 짙은 그림자를 드리

우고, 위쪽 가지들은 밝은 녹색으로 빛난다. 온대 지방은 이와 좀 다르다. 열대와 달리 식생이 그렇게 짙거나 무성하지 않고, 붉은 자줏빛 또는 밝은 노란색을 띠는 석양이 이 지방의 경치를 아름답게 보이는 데 한몫한다.
그늘진 길을 따라 조용히 걷는 동안 끝없이 펼쳐지는 경치에 감탄하면서 내 감정을 표현하기에 적당한 말을 찾으려고 고심했다. 아무리 적당한 형용구句를 떠올려 봐도 열대 지방에 와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감동을 전달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온실 안의 식물들을 보고 자연의 식생을 떠올리지 못한다는 것을 이미 얘기한 바 있지만, 다시 한번 떠올려야겠다. 이 대지는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일종의 거대한 온실이다. 이 거칠고 다듬어지지 않은 울창한 온실은 그곳에 알록달록한 집과 잘 가꾼 경작지를 만든 인간의 소유물이 되어 버렸다. 자연을 찬미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능하다면, 지구 반대편의 이러한 경치를 보고 싶은 열망이 얼마나 클까! 하지만 모든 유럽인들에게 그들이 밟고 있는 땅에서 위도상으로 몇 도 떨어진 곳에 또 다른 천국이 열려 있다는 것을 있는 그대로 말해 줄 수 있을 뿐이다. 마지막 산책길에, 나는 이곳의 아름다움을 응시하기 위해 몇 번이고 걸음을 멈추어야 했다. 조만간 어떤 시점에는 이러한 감명이 사라질 것을 알고 있지만 마음속에 이 장면을 영원히 새겨 두고자 무척 애를 썼다. 오렌지나무, 야자나무, 망고나무, 고사리, 바나나의 형상 하나하나는 선명하게 나의 뇌리에 남아 있을 것 같다. 하지만 이것들이 어우러져 연출하는 이 완벽한 경관의 무한한 아름다움은, 어릴 적 들었던 옛날이야기처럼, 흐릿함으로 가득 찬 한 폭의 아름다운 그림을 남기며 점점 그 빛이 바래 갈 것이리라.
8월 6일 | 오후에 우리는 직선 항로를 따라 카보베르데 제도로 가기 위해 바다로 나갔다. 그러나 바람이 좋지 않아 늦어지는 바람에 12일이 되어서야 남위 8도의 브라질 해안에 있는 큰 도시인 페르남부쿠에 도착했다. 우리는 모래톱 바깥 지점에 닻을 내렸으나 얼마 안 있어 도선사 한 명이 배에 올라와 도심에 가까운 항구 안쪽으로 배를 인도해 주었다.

페르남부쿠는 좁고도 낮은 모래톱들 위에 있는데, 각각의 모래톱은 바닷물이 들어오는 얕은 수로로 나뉘어 있다. 이렇게 세 부분으로 갈라져 있는 도시는 통나무로 만든 긴 다리 두 개로 연결되어 있다. 도시 전체는 정나미가 떨어진다. 길은 좁고 잘 닦여 있지 않으며 더럽다. 집들은 높고 음침하다. 우기는 거의 끝이 없어서, 해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는 변두리 저지대는 거의 물에 잠겨 있다. 산책을 하려고 시도해 봤지만 모두 여의치 않았다.

페르남부쿠가 세워져 있는 편평한 습지대는 수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있는 반원형의 낮은 언덕으로 둘러싸여 있다. 이 언덕은 해발 60미터 정도로 상승한 지대의 가장자리라고 하는 것이 더 적당할 수도 있다. 그 가장자리 한쪽 끝에 올린다라는 옛 도시가 있다. 하루는 그곳을 방문하기 위해 카누를 타고 수로 중 한 곳을 거슬러 올라가 봤는데, 위치상으로 올린다가 페르남부쿠보다 더 쾌적하고 깨끗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내가 거의 5년을 돌아다니며 처음으로 겪은 기념할 만한 일이 이곳에서 일어났다. '친절'이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다. 이 지역을 살펴보려면 인가의 앞마당을 가로질러 개간이 안 된 언덕 지대로 가야 하는데, 두 집에서는 뿌루퉁한 태도로 완전히 거절당했고 세 번째 집에서도 매우 어렵게 허락받을 수가 있었다. 그래도 브라질이란 나라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것이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나는 브라질이란 나라에 노예 제도가 있고 그리하여 도덕성이 낮은 나라라는 안 좋은 감정을 이미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스페인 사람이라면 이러한 요청을 거절한다든가 또는 이방인에게 무례하게 대한다는 것을 생각만 해도 수치심을 느꼈으리라. 올린다로 오갈 때 지나간 수로 양옆에는 맹그로브나무들이 늘어서 있는데, 미끄러운 진흙 둑 위로 숲을 축소한 모형처럼 불쑥 솟아 나와 있다. 이 수풀의 밝은 녹색을 볼 때면 언제나 교회 묘지에 줄지어 돋아나 있는 풀이 생각난다. 둘 다 동물이 부패할 때 발생하는 기체 성분으로 양분을 만든다. 한쪽은 지나간 죽음을 얘기하고 다른 한쪽은 너무 자주인 듯하지만 다가올 죽음을 얘기하면서 말이다.

이 근처에서 본 것들 중 가장 호기심을 끄는 것은 항구를 이루는 모래톱이다. 이처럼 인위적 모습을 갖는 자연의 구조물이 이 세상 또 어디에 있을지 의문이 든다.[10] 모래톱은 해안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해안과 평행하게 수백 미터에 걸쳐 일직선으로 뻗어 있다. 폭은 27미터에서 54미터 정도로 다양하고 표면은 고르고 매끄러우며, 층리가 명확하지 않은 단단한 사암으로 이루어져 있다. 만조 때는 물에 잠기지만 간조 때는 윗부분이 드러나는데, 마치 외눈박이 거인이 세운 방파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다. 이곳 해안에서는 엉성한 모래 더미들이 바닷물에 의해 육지 쪽으로 밀려 올라온다. 이것들 중 한 곳에 페르남부쿠의 중심가가 형성되어 있다. 생성 초기에는 엉성하게 쌓여 있다가 석회질 성분이 침투하면서 점점 단단해지고 그 후에 점점 더 쌓인 것 같다. 그 과정에서 바깥쪽의 엉성한 부분은 파도에 떨어져 나가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과 같은 단단한 핵이 남았다. 여러 침전물로 혼탁한 드넓은 대서양의 물결이 밤낮으로 이 돌로 된 외벽의 가파른 가장자리 부분에 몰아치고 있지만, 예로부터 그 모습이 조금이라도 변했다는 어떤 말도 전해 온 적이 없다고 한다. 이러한 내구성은 모래톱의 형성 과정에 비춰 볼 때 매우 흥미로운 사실이다. 이렇게 지층이 단단한 것은 석회질 성분이 섞인 수 센티미터 두께의 지층 때문인데 이 지층은 통벌레와 몇몇 삿갓조개류 그리고 산호조의 작은 껍데기들이 연속적으로 성장하고 죽으면서 형성된 것이다. 산호조는 단단하고 매우 간단한 조직으로 된 바다 식물이다. 암초들의 안이나 뒷면에 있는 진정한 산호는 그 덩어리가 바깥쪽으로 자라면서 태양이나 공기에 노출되어 죽는데 그러한 산호초의 윗면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이 식물은 산호와 유사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하찮게 보이는 생물, 특히 통벌레는 페르남부쿠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을 준다. 그것들이 보호해 주지 않았다면 사암의 모래톱은 벌써 옛날에 사라져 버렸을 것이고, 이 모래톱이 없었다면 항구도 존재할 수 없었으리라.

10 나는 이 막대 모양의 모래톱을 《런던, 에든버러 학회지》 19권(1841), 257쪽에 자세히 서술했다.

8월 19일 | 마침내 우리는 브라질 해안을 떠났다. 신이시여, 이제 두 번 다시는 노예 제도가 있는 나라에 오지 않게 해 주시길. 요즘도 멀리서 비명이 들리면, 페르남부쿠 근처의 한 집을 지날 때 세상에서 가장 처절한 신음을 들으며 느꼈던 끔찍한 감정이 생생하게 떠오른다. 가련한 노예들이 고문을 당하고 있는 것이 거의 확실했지만, 항의조차 하지 못하는 나 자신의 무력감을 확인해야 했다. 그 신음의 정체가 고문을 당하는 노예의 것이라고 생각한 것은 이전에 그와 똑같은 또 다른 경우를 경험했기 때문이다. 리우데자네이루 부근에서 어떤 나이 많은 귀부인 집 맞은편에 머무른 적이 있었는데, 그 부인은 여자 노예들의 손가락을 짓누르기 위해 나사못을 몸에 지니고 다녔다. 내가 머물던 또 다른 어떤 집의 식솔인 어린 흑백 혼혈아는 매 순간 욕을 먹고 얻어맞으면서 학대를 당하는데, 정말 가장 열등한 동물이라도 그 영혼이 분열될 정도다. 그리고 예닐곱 정도 되어 보이는 한 소년이 나에게 그리 깨끗하지 않은 물 한 컵을 가져다주었다고 그 주인에게 (내가 미처 말릴 틈도 없이) 말채찍으로 맨머리를 세 번씩이나 맞는 것을 본 적도 있다. 그 애 아버지는 주인과 얼핏 눈만 마주쳐도 오금을 저렸다. 이러한 사례 중 맨 나중의 것은 포르투갈이나 영국, 또는 다른 유럽 국가들보다 노예를 비교적 잘 대우한다고 알려진 스페인 식민지에서 목격한 것이다.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주먹이 자신의 얼굴로 곧바로 날아올 것임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피하는 것조차 두려워하는 한 건장한 흑인 노예를 본 적이 있다. 그리고 친절하고 선량한 어떤 신사가 오랫동안 같이 살았던 한 노예 가족을 남자와 여자, 그리고 어린이로 분리해 영원히 떼어 놓으려는 순간도 목격한 바 있다. 내가 들었던 출처가 분명한 수많은 가슴 아픈 잔혹 행위들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하기 싫다. 흑인들이 워낙 낙천적이라 노예 제도는 참을 만한 악이라고 얘기하는데 눈이 멀어 그 실상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위의 혐오스러운 얘기들도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 사람들은 대개 상류 가정을 방문하는데, 그런 집안에서는 노예들을 잘 대우해 준다. 또한 그들은 하류 계층 사람들과 같이 지내본 적이 없지만 나는 하

류 계층의 집에 묵은 적이 있다. 그들은 노예들에게 사는 형편을 묻기도 하는데, 노예들이 정말로 미련해서 자신들의 대답이 주인의 귀에 들어가기를 은근히 기대할 정도로 계산적이지 못하다는 사실을 잊고 있다.

인간이 단지 사리사욕을 위해 극도의 잔혹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데는 논쟁의 여지가 있다. 마치 사적인 이익 때문에 가축을 보호하는 것처럼 말이다. 그렇지만 가축은 잔인한 주인의 분노를 자극하는 데 오히려 비천한 노예보다는 덜한 듯싶다. 일찍이 저 유명한 훔볼트 씨가 고매한 감성으로 이에 대해 항의하고 생생한 예를 든 이래로 위의 관점은 오랫동안 논쟁거리가 되고 있다. 노예 제도의 폐해를 완화시켜 보려고, 영국의 가난한 시골 사람들과 노예들의 실태를 비교하곤 한다. 영국의 가난한 사람들의 비참한 생활상이 태생적인 원인이 아니라 인간이 만들어 낸 제도 때문이라면, 우리의 죄악은 엄청난 것이다. 하지만 이 사실이 도대체 노예 제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 수 없다. 게다가 다른 나라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독한 병을 앓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 한 나라에서 노예의 엄지손가락을 짓누르는 나사못을 옹호할 수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노예의 주인에게는 부드러운 눈길을 보내면서도 정작 노예들은 차가운 마음으로 대하는 사람들은 결코 노예의 입장이 되어 생각해 본 적이 없으리라. 더 나아질 것에 대한 희망조차 없는 하루하루가 얼마나 암담할까! 당신의 아내와 어린아이들—신은 노예들에게도 자신의 '가족'을 주셨다—을 당신에게서 빼앗아 짐승을 경매하듯 가장 높은 가격을 부르는 사람에게 팔아넘기는 순간이 당신에게 불쑥 다가온다고 상상해 보라! 이웃을 자신같이 사랑한다고 주장하며, 신을 믿고 그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런 행위를 저지르고 있으며 또한 이러한 행위에 대해 변명하고 있다니! 우리 영국인과 우리의 후예인 미국인이 자유를 자랑스럽게 외치면서도 지금까지 그러한 죄를 지어 왔고 지금도 짓고 있다는 생각을 하면 온몸의 피가 끓고 가슴이 떨린다. 하지만 우리는 죄를 사하기 위해, 적어도 다른 어느 나라 민족보다도 더 많은 희생을 했다는 것을 회상해 보면 어느 정도

위안이 된다.

8월의 마지막 날에 우리는 카보베르데 제도에 있는 포르토프라야에 두 번째로 닻을 내렸다. 그 후 아조레스로 가서 6일간 머물렀다. 10월 2일, 우리는 영국 해안에 있는 팰머스에 도착해, 거의 5년간 고락을 같이한 작고 훌륭한 '비글호'에서 내렸다.

우리의 항해기를 끝내며, 세계를 항해하면서 좋았던 점과 나빴던 점, 힘들었던 일과 기뻤던 일들을 짤막하게 되돌아보겠다. 누군가 긴 항해를 시작하기 전에 나의 조언을 구한다면, 내 대답은 그가 특정 분야의 지식에 분명한 취향을 갖고 있는가에 달려 있다. 다양한 인종을 직접 본다는 것은 의심할 바 없이 만족스러운 일일 것이다. 하지만 그때 얻게 되는 즐거움들이 나쁜 점들을 상쇄해 주지는 않는다. 아무리 오래 걸리더라도 과실이 익고 좋은 결과를 이루는 추수철을 기다릴 필요가 있다.

수많은 상실감을 겪을 수밖에 없었으리라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었다. 옛 친구들도 만날 수 없고, 애틋한 추억들이 그토록 깃든 곳들의 광경도 더 이상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이러한 상실감들은 오랫동안 돌아갈 날만 손꼽아 고대하는 데서 오는 설렘 덕분에 순간적으로 어느 정도는 덜어진다. 만일, 시인들이 얘기하듯 인생이 꿈이라면, 항해에서는 이러한 상실감이야말로 긴긴 밤을 보내는 데 가장 좋은 환상이다. 처음에는 느껴지지 않지만 조금 지나면 격심하게 다가오는 다른 종류의 상실감들도 있다. 이런 상실감들로는 공간이 좀 더 넉넉했으면 하는 것, 혼자 있고 싶다는 욕구, 휴식에 대한 욕구 등과 함께 늘 서두르느라 지친 듯한 느낌, 사소한 사치조차 부릴 수 없는 것, 가정의 상실과 심지어는 음악이라든가 몽상의 다른 즐거움에 대한 상실감들이 있다. 이런 사소한 것들에 대해 얘기한다는 것은, 항해 생활에서 사고를 제외하고 진정한 불평 거리들은 모두 거친 것이 분명하다. 60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장거리 항해의 수단에서는 놀랄 만한 발전이 있었다. 쿡 함장의 시대에도 따뜻한 집을 떠나 그런 탐험을 나선 사람은 혹독한 결핍을 겪었다. 지금은 모든 생

활의 사치품을 실은 요트도 지구를 둘러 항해할 수 있다. 선박과 항해 지식이 크게 개선된 것 외에도 아메리카 대륙의 서해안 일대는 이제 모두 개발되어 있으며, 오스트레일리아는 떠오르는 신대륙의 수도가 되었다. 오늘날 태평양에서 조난당한 사람의 형편과 쿡 함장 시대에 조난당한 사람의 형편은 얼마나 다른가! 그의 항해 이후 무려 지구의 절반이 더 문명 세계에 발을 들여놓게 되었으니 말이다.

멀미를 심하게 하는 사람이라면 그 문제는 심각하게 고려하도록 해라. 내 경험에 비추어 말하건대, 뱃멀미라는 것은 결코 일주일쯤이면 치유되는 사소한 문제가 아니다. 반면, 항해 전술에 흥미가 있는 사람이라면 분명 자기 취미를 충분히 맛볼 수 있을 것이 분명하다. 하지만 길고 긴 항해 동안 항구에 정박해 있는 시간에 비해 바다에서 보내는 시간의 비중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명심해야 한다. 그리고 끝없는 대양에서 볼 수 있는 위풍당당한 장관이란 무엇이겠는가. 아랍 사람들의 말대로라면 진절머리 나는 황무지, 물의 사막 아니던가. 물론 바다에서 지내다 보면 몹시 매혹적인 장관들도 펼쳐진다. 달빛 흐르는 밤, 맑은 하늘과 검게 반짝이는 바다, 그리고 살며시 불어오는 무역풍의 부드러운 숨결에 나부끼는 하얀 돛, 거울과 같이 매끄러운 바다 위로 흐르는 적막과 같은 고요, 그리고 가끔씩 펄럭이는 돛 외에는 모든 것이 고요한 밤. 아치형으로 솟아오르면서 노호와 같이 달려드는 돌풍, 혹은 집채만 한 파도나 사나운 질풍도 한번 직접 볼만하다. 그렇지만 고백하건데, 내 상상력 덕분에 충분히 발달한 폭풍을 좀 더 장대하고 좀 더 무시무시하게 묘사했는지도 모른다. 나무들이 파도치듯 흔들리고 새떼들이 사납게 날아오르며, 어두운 그림자와 눈부신 섬광, 쏟아져 내려오는 급류, 이들 모두가 해방된 자연의 투쟁이 드러나는 것이다. 바다에는 폭풍우가 마치 자신들 고유의 영역이기라도 한 양 알바트로스와 작은 바다제비가 날아다니고, 파도는 늘 해오던 임무를 수행하기라도 하듯 솟아올랐다가 가라앉는 동안, 오로지 배와 거기 타고 있는 인간들만이 자연이 내뿜는 분노의 대상인 것처럼 보인다. 인적이 드물고 폭풍우가

심한 해안에서의 광경은 정말로 색다르지만, 그 느낌 중에는 야성적인 환희보다는 공포의 감정이 더 크게 자리 잡고 있다.

이제, 지난 항해 동안의 보다 밝은 면을 살펴보자. 우리가 방문한 많은 나라들의 경치와 일상적인 장면들을 보는 데서 오는 즐거움은 단연코 가장 한결같은 기쁨의 원천이었다. 유럽의 절경이 우리가 항해하면서 본 어떤 것보다도 낫다고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서로 다른 경관의 특성들을 비교하는 과정에서 누리는 즐거움들이 있었는데, 이는 단지 경치의 아름다움에 찬탄하는 것과는 별개의 것이다. 이런 것은 각각의 경치에서 개별적인 부분들에 대해 얼마나 잘 알고 있는가에 달려 있다. 나는 음악에서 모든 음들을 알아듣는 사람이 음악에 대한 적절한 안목만 갖고 있다면 음악 전체를 철저하게 즐기듯이, 멋진 경치의 각 부분을 음미하는 사람은 전체적이고 통합적인 경치가 주는 효과 또한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굳게 믿게 되었다. 이 모든 경관들에서 풀과 나무야말로 주된 장식물이 되기 때문에, 여행자는 식물학자이기도 해야 한다. 맨바위 덩어리들이 아무렇게나 쌓여 있어도 장엄한 경관을 이룰 수 있지만, 그것들은 이내 단조로워지게 된다. 칠레 북부에서처럼 바위들의 색깔이 밝고 다양하다면 환상적일 것이다. 바위들이 식물로 뒤덮인다면 아름답기까지는 아니더라도 꽤 그럴듯해 보일 것이 틀림없다.

내가 일부 유럽의 경치들이 우리가 항해 도중 봤던 무엇보다 뛰어날 것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달리 비길 데가 없다고 생각되는 열대 지방은 논외로 한 것이었다. 두 지역은 서로 비교할 수 없는 것이며, 나는 이미 그 지역의 웅장함을 종종 상세히 설명한 바 있다. 덧붙이자면, 인상이라는 것은 대개 선입관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내가 받은 인상은 내가 읽은 책들 중에서 그 무엇보다도 월등한 장점을 지닌 훔볼트의 《신변잡기Personal Narrative》에 실린 생생한 묘사로 인한 것인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이렇게 공들여 준비한 사전지식 덕에 나는 브라질 해안에 처음 상륙했을 때나 마지막으로 상륙했을 때나 조금도 실망하지 않았다.

내 뇌리에 깊이 남아 있는 장면들 중에서 무엇보다도 장엄한 것은 인간의 손에 의해 조금도 훼손되지 않은 원시림—생명력이 넘치는 브라질의 원시림이건, 혹은 죽음과 부패가 만연한 티에라델푸에고의 원시림이건—이었다. 두 곳 모두 대자연의 온갖 산물로 가득 찬 사원이다. 어느 누구도 이렇게 고독한 곳에서는 태연자약할 수 없으며, 인간의 내면에는 육신이 내쉬는 숨결, 그 이상의 것이 깃들어 있다고 느끼게 된다. 지난날의 기억들을 떠올리다 보면, 파타고니아 평원이 내 눈앞에 펼쳐진다. 모든 이들이 이 평원은 황량하고 쓸모없다고 단언한다. 사람들도 안 살고, 물도 없고, 나무도 없고, 산도 없으며 단지 키 작은 나무 몇 그루만 자라고 있을 뿐이라며 오로지 부정적으로만 얘기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왜 이 극도로 건조한 황야가 내 기억 속에 그토록 강하게 자리 잡고 있으며, 또한 나만 그런 것도 아닌 걸까? 왜 보다 평탄하고 더 푸르며 더 비옥한 만큼 인류에게 더 쓸모 있는 팜파스는 그만큼 인상에 남지 않는 것일까? 이런 느낌들은 아무래도 분석할 수가 없다. 하지만 이 감정 중 일부는 분명 상상력을 자극하는 자유로운 시야 때문일 것이다. 파타고니아 평원은 거의 통과할 수가 없어서 끝이 없는 동시에 미지의 지역이다. 그 평원은 지금도 그렇듯 오랜 세월을 지나온 특징을 지니고 있으며, 앞으로도 얼마나 지속될지 한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만일 고대인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지구가 평평하고 그 주위는 건널 수 없을 정도로 넓은 강이나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뜨거운 사막으로 둘러싸여 있다면, 누가 이 마지막 경계지역을 인간이 아는 한도 내에서 마음속 깊이, 그러나 알 수 없는 감동을 느끼면서 바라보지 않겠는가?

마지막으로 자연경관 중에서, 높다란 산맥에서 바라본 경관이 분명 어떤 의미에서는 아름답지 않았지만 매우 기억에 남는다. 코르디예라 산맥의 가장 높은 산마루에서 내려다보면, 주변을 에워싼 엄청난 크기의 산들로 꽉 들어찬 나의 마음은 자질구레한 것들에 구애받지 않게 된다.

개별적인 대상들 중에서는 가장 원시적이고 야만적인 상태에 있는 인간 즉 야

만인을 처음 보았을 때보다 더 놀라운 것은 없을 것이다. 마음은 수 세기 전의 과거로 달음질쳐 우리의 선조들이 정녕 이렇게 생긴 인간이었을까 하고 자문하게 한다. 그들의 몸짓과 표정은 길들인 가축의 몸짓과 표정보다도 더 알아보기 어렵고 그런 가축만큼의 직관력도 없으며, 인간적인 이성, 혹은 적어도 그 이성에서 연유한 재주조차 내세우지 못한다. 야만인과 문명인의 차이를 기술 또는 묘사할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 차이는 단지 야생 동물과 길들인 동물 사이 정도이며, 야만인을 보고 싶어 하는 정도의 관심 일부는 누구나 사막에서는 사자를 보고 싶고, 밀림에서는 먹이를 찢는 호랑이를, 아프리카의 평원에서는 돌아다니는 코뿔소를 보고 싶어 하는 관심과 마찬가지다.

우리가 보았던 것 중 가장 주목할 만한 장관 중에서 남십자성, 마젤란 성운 등 남반구에서 볼 수 있는 다른 별자리들, 뿜어져 나오는 물줄기, 깎아지른 듯한 절벽을 이루고 있는 푸른 빙하의 물결, 산호초를 이루는 산호섬, 활화산, 그리고 격렬한 지진의 엄청난 결과 등을 손꼽을 수 있다. 뒤에 열거한 현상들은 아마도 이 지구의 지질학적 구조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이어서 나로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졌다. 그러나 지진이야말로 모든 이들에게 가장 강한 인상을 주는 일이었음에 틀림없다. 아주 어렸을 때부터 '견고함'의 표상으로 여겨 왔던 지구가 바로 발밑에서 얇은 껍데기처럼 진동하고, 인간이 공들여 만든 것들이 순식간에 무너지는 것을 보면, 우리 인간이 자랑하는 힘이 얼마나 무의미한지를 절감하게 된다.

뒤쫓는 것(사냥)을 좋아하는 것은 인류에게 있어 타고난 것, 즉 본능적인 열정의 흔적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나는 하늘을 지붕으로 삼고 땅을 이불 삼아 야외에서 생활하는 기쁨이란 인간이 가진 타고난 야성적 습관으로 거리낌 없이 돌아가는 것이며, 이 역시 위에서 말한 즐거움의 일부라고 확신한다. 나는 문명이 창조되었던 흔적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곳을 지날 때마다 우리의 항해와 육상 여행들을 언제나 기쁜 마음으로 되돌아본다. 나는 모든 여행자들은 문명인의 발길이 거의 닿지 않았던 이국의 공기를 처음으로 들이마셨을 때 느

꼈던 생생한 행복감을 기억하고 있으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긴 항해에서는 좀 더 그럴싸한 이유로 인한 몇 가지 다른 즐거움들이 있다. 이전에 알고 있던 세계 지도의 공백이 사라져 그 무엇보다 다채롭고 생생한 사물들로 가득한 그림이 된다. 세계 각지는 각각 적절한 넓이를 차지한다. 섬들에 비견하여 대륙들을 보게 되지 않으며, 섬들 또한 단순한 점들로 보이지 않는다. 실제로 그 섬들은 유럽의 수많은 왕국보다 크기 때문이다. 아프리카나 남북아메리카라는 이름은 듣기에도 좋고 발음하기도 쉬운 이름이지만, 그 해안의 아주 일부분을 몇 주씩이나 걸려 항해해 보면 그 이름이 가리키는 대로 세계가 얼마나 드넓은가를 여지없이 받아들이게 된다.
지금의 상태로 보아, 앞으로 지구 대부분에 걸쳐 고도의 발전이 있을 것이 분명하다. 남쪽 대양에 걸친 기독교 전파로 말미암은 진보의 행진은 아마도 그 자체로 역사에 길이 남을 것이다. 지금으로부터 겨우 60년 전, 누구도 이견을 달지 않을 탁월한 판단력을 지녔던 쿡 함장 시절에조차 아무런 변화도 예측하지 못했다는 것을 생각하면 더더욱 놀라운 일이다. 게다가 이러한 변화는 영국 국민의 박애주의 정신으로써 이루어져 온 것이 아니던가.
남반구 문명 세계의 웅장한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거나 혹은 실제로 이미 떠올랐다고 할 수 있을 오스트레일리아는 머지않아 남반구를 지배하는 황후가 될 것이다. 영국인이라면 이 멀리 떨어져 있는 식민지들을 드높은 자부심과 만족스러움 없이는 바라볼 수 없을 것이다. 영국 국기를 높이 휘날린다는 것은 부와 번영, 그리고 문명이라는 것을 일정한 결과로써 함께 이끌어내는 것처럼 보인다.
결론적으로, 젊은 자연사학자의 발전에 있어 머나먼 이국으로의 여행만큼 도움 되는 것도 없는 듯싶다. J. 허셸 경이 말했듯이, 신체적 감각이 완전히 충족되어도 인간이 갖게 되는 욕구와 갈망은 여행에 의해 더 첨예해질 수도 있고 부분적으로 완화되기도 한다. 새로운 사물을 만나게 되었을 때의 흥분과 성공할 수 있는 기회에 대한 흥분 때문에 사람은 더더욱 활발하게 움직이게 된다.

더구나 수많은 개별적인 사실에 대한 흥미는 금방 사라지므로, 비교하는 습관을 통해 일반화하게 된다. 다른 한편으로, 한 곳에서 잠시밖에 머물지 않는 여행자의 묘사는 대개 세밀한 관찰이라기보다는 단순한 스케치에 그치고 만다. 따라서 나의 값비싼 경험으로 미루어보면,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의 간극을 부정확하고 피상적인 가설로 채우려는 경향이 끊임없이 일어난다.
하지만 나는 이 항해를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어떤 자연사학자에게든—물론 그가 내가 이 항해에서 만났던 것처럼 좋은 동료를 만날 만큼 운이 좋으리라고 확신할 수는 없지만—어떤 기회든 잡아서 가능하다면 육지 여행을, 그렇지 않으면 긴 항해라도 시작할 것을 권할 수밖에 없다. 아주 드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가 예상한 것만큼 심한 어려움이나 위험도 없을 테니 안심해도 좋을 것이다. 도덕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그는 이 항해를 통해 기분 좋은 인내심과 이기심으로부터의 해방감, 스스로 행동하는 습관과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는 습관을 얻게 될 것이다. 말인즉슨, 대개의 선원들이 지니고 있는 특징을 그도 지니게 될 것이라는 말이다. 사람은 여행을 통해 불신 또한 얻을 수 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진실하고 친절한 마음을 지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이전에도 전혀 몰랐고 앞으로도 다시 만나게 될지 어떨지 모르는 사람들이지만, 그들은 누구보다도 사심 없는 마음으로 기꺼이 그를 도와줄 것이다.

● 킬링 제도를 떠난 비글호는 1836년 4월 29일 인도양의 모리셔스에 도착한다. 이 섬은 그 아름다운 풍광이 널리 알려져 있으며 오랫동안 영국령이었는데도 사회 전반에는 아직도 프랑스풍이 우세하다. 이곳에서 오페라를 상연하는 극장과 책이 빼곡히 들어찬 서가書架를 보며 다윈은 자신이 문명사회에 와 있음을 피부로 느낀다. 거리에서 만나는 인도 죄수들의 기품있는 외모와 정열적인 표정에 깊은 인상을 받으며 이들을 뉴사우스웨일스에 있는 영국인 죄수와 동등한 시각에서 보는 것은 가당치 않다고 생각한다. 다윈 자신이 영국인이면서도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 다윈이 인종에 대한 편견에서 자유로운 영혼을 가졌음을 엿볼 수 있다.

이곳에서 10여 일을 머문 뒤 아프리카의 희망봉에 들렀다가 7월 8일 대서양의 외딴 섬 세인트헬레나에 도착한다. 이 섬은 대양에서 바라보는 경관에서 짐작되듯이 식물이 거의 없고 그나마 있는 식물종들 대부분은 영국에서 들여온 외래종이다. 그러나 1716년만 해도 이 섬에는 나무가 우거진 숲이 있었다. 그러나 수령이 오래된 나무가 죽고 염소와 돼지들을 방목하면서 어린나무와 풀들이 밟혀 죽었다. 식생에서 일어난 이런 변화가 육상의 동물상에도 많은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 이런 척박한 환경인데도 다윈은 이곳에서의 답사가 무척이나 즐거웠던 듯하다. 7월 14일 무척이나 아쉬운 마음으로 비글호에 올라 어센션 섬으로 향한다.

그 후 남아메리카의 경도 측정을 끝내기 위해 다시 브라질의 바이아로 향한다. 열대 지방의 독특한 풍광에 매료된 다윈은 이 분위기를 전달해 보려 노력하지만 그러한 시도조차 부질없음을 느낀다. '식물 표본집에 있는 식물을 보고 자연의 토양에서 자라는 식물의 모습을 상상이나 할 수 있겠는가?' '온실에서 선택적으로 키우는 식물들만 보고서 그것들을 숲 차원으로 확대하거나 정글에 빽빽이 들어차 있는 것으로 생각이나 할 수 있겠는가?' 마지막 산책길에 다윈은 열대 숲의 아름다움을 응시하기 위해 몇 번이고 걸음을 멈춘다. 이 완벽한 경관의 무한한 아름다움이 먼 옛날이야기처럼 흐릿한 한 폭의 아름다운 그림

을 남기며 점점 그 빛이 바래 갈 것임을 아쉬워하며.
브라질 해안을 떠나며 이제 두 번 다시는 노예 제도가 있는 나라에 오지 않게 해 주길 신에게 기도한다. 다윈은 자기 바로 옆에서 벌어지는 비인간적인 처사에 대해 그 어떤 항의조차도 하지 못하는 자신과, 이웃을 자신같이 사랑한다고 주장하며 신을 믿고 그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기도한다는 기독교인들의 이중적인 행위에 대해 심한 회의를 느낀다.
그 후 카보베르데 제도를 거쳐 10월 2일 영국의 팰머스에 도착해 그동안 정들었던 비글호에서 내리며 5년간의 대장정을 끝내게 된다.

지은이 소개 | 찰스 다윈 Charles R. Darwin 1809~1882

영국의 부유한 의사 집안에서 태어났다. 의대에 입학했으나 성격에 맞지 않아 중퇴했고, 케임브리지 대학에 진학해 신학을 공부했으나 곤충 채집 등에 더 흥미를 느꼈다. 1831년 22세의 나이로 해군 측량선인 비글호에 무보수 자연사학자로 승선한다. 5년 동안 남아메리카, 오스트레일리아, 남아프리카를 탐사했다. 이 항해를 계기로 자연계의 생존 경쟁에 착안하여 적자생존과 자연선택의 원리를 결론으로 얻었다. 1859년 《종의 기원》을 출판했고, 초판이 당일 매진되었다. 현재까지도 다윈의 진화론은 종교적 · 사상적 · 정치적으로 심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저서로 《인류의 기원과 성에 따르는 선택》《인간과 동물의 감정표현》《식물의 교배에 관한 연구》 등이 있다.

옮긴이 소개

권혜련 | 서울대 생물교육과 졸업, 동 대학원 과학교육과 석사 · 박사. 서울 잠신고등학교 교사로 재직 중.
김정석 | 서울대 생물교육과 졸업, 동 대학원 과학교육과 석사 · 박사. 청심국제고등학교 교감으로 재직 중.
박완신 | 서울대 심리학과 졸업. 출판 기획 및 편집자로 재직 중.
이혜진 | 서울대 미학과 졸업. 동국대 대학원 영화학과 석사과정 수료. 프리랜서 번역가.

비글호 항해기

초판 인쇄 | 2016년 4월 21일
초판 발행 | 2016년 4월 21일
펴낸이 | 홍정욱
기획 | 이상민 김지훈
편집 · 교열 | 황인정
표지제호 | 강병인
디자인 | 황인정
펴낸곳 | 사단법인 올재
출판등록 | 2011년 11월 4일 제300-2011-188호
주소 | 서울시 용산구 후암로 4길 10
전화 | 02-720-8278
팩스 | 02-773-0250
홈페이지 | www.olje.or.kr
ISBN | 978-89-97876-98-3 03470

Olje Classics

01 한글논어 이을호 역 | 현암학술문화연구소 보補

02 국가 플라톤 저 | 조우현 역

03 정치학 아리스토텔레스 저 | 라종일 역

04 고운집 최치원 저 | 이상현 역 | 한국고전번역원 기획

05 한글맹자 이을호 역 | 현암학술문화연구소 보補

06 소크라테스의 변명 외 플라톤 저 | 조우현 역

07 유토피아 토머스 모어 저 | 주요섭 역

08 청성잡기 성대중 저 | 한국고전번역원 기획 · 번역

09 한글중용 · 대학 이을호 역 | 현암학술문화연구소 보補

10 팡세 파스칼 저 | 정봉구 역

11 군주론 마키아벨리 저 | 임명방 역

12 기측체의 최한기 저 | 한국고전번역원 기획 · 번역

13 우서 유수원 저 | 한영구 역 | 한국고전번역원 기획

14 채근담 홍자성 저 | 송정희 역

15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프리드리히 니체 저 | 김정진 역

16 천로역정 존 버니언 저 | 주요섭 역

17 조선경국전 정도전 저 | 한영우 역

18, 19 계원필경집1, 2 최치원 저 | 이상현 역

20 꿈의 해석 지그문트 프로이트 저| 장병길 역

21 명심보감 추적 저 | 이민수 역

22 서경 | 권덕주 역

23 사회계약론 장 자크 루소 저 | 박은수 역

24 명상록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저| 황문수 역

25 택리지 이중환 저| 이민수 역

26, 27 열하일기1, 2 박지원 저 |이가원 역

28 햄릿 윌리엄 셰익스피어 저 | 최재서 역

29 유혹자의 일기 쇠렌 키에르케고어 저 | 황문수 역

30 에밀 장 자크 루소 저 | 박은수 역

31 땅의 양식 앙드레 지드 저 | 박은수 역

32 격몽요결 이이 저 | 정후수 역

33 훈민정음통사 방종현 저 | 이상규 주해

34 방법서설 르네 데카르트 저 | 김형효 역

35 리바이어던 토마스 홉스 저 | 이정식 역

36 역옹패설 이제현 저 | 남만성 역

37 유리알유희 헤르만 헤세 저 | 노태한 역

38, 39 국부론1, 2 애덤 스미스 저 | 최임환 역

40 도덕경 노자 저 | 이석명 역

41 마음 나쓰메 소세키 저 | 김성기 역

42~45 수호지1~4 시내암 저 | 연변대학 수호지 번역팀 역

46 난중일기 이순신 저 | 이은상 역

47 징비록 유성룡 저 | 구지현 역

48, 49 쇄미록1, 2 오희문 저 | 이민수 역

50 장자 장자 저 | 신동준 역

51 열자 열자 저 | 정창영 역

52 바가바드 기타 | 정창영 역

53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요한 볼프강 폰 괴테 저 | 이인웅 역

54 산해경 | 장수철 역

55 박물지 쥘 르나르 저 | 손석린 역

56, 57 춘추좌전1, 2 좌구명 저 | 신동준 역

58~61 서유기1~4 오승은 저 | 연변인민출판사 번역팀 역

62 대당서역기 현장 저 | 권덕주 역

63 손자병법 손무 저 | 임용한 역

64 오자병법 오기 저 | 임용한 역

65 전술론 니콜로 마키아벨리 저 | 이영남 역

66 포화 앙리 바르뷔스 저 | 정봉구 역

67 시경 | 신동준 역

68 문심조룡 유협 저 | 김관웅 · 김정은 역

69 시학 · 데 아니마 아리스토텔레스 저 | 김완수 역

70 주홍 글씨 너대니얼 호손 저 | 최재서 역

71, 72 지봉유설1, 2 이수광 저 | 남만성 역

73 종의 기원 찰스 다윈 저 | 이민재 역

74 비글호 항해기

찰스 다윈 저 | 권혜련 · 김정석 · 박완신 · 이혜진 역

75~78 홍루몽1~4 조설근 저 | 연변인민출판사 번역팀 역

79~83 동주 열국지1~5 풍몽룡 저 | 신동준 역

84, 85 카라마조프네 형제들1, 2 도스토옙스키 저 | 이동현 역

86 고용, 이자 및 화폐의 일반이론 케인스 저 | 조순 역

87, 88 법, 입법 그리고 자유1, 2 하이에크 저 | 양승두 외 역

89~93 금병매1~5 난릉 소소생 저 | 김관웅 · 김정은 역

94, 95 한비자1, 2 한비 저 | 신동준 역

96 상군서 상앙 저 | 신동준 역

97, 98 회남자1, 2 유안 저 | 이석명 역

99 금강경 동봉 역

100 동의수세보원 이제마 저 | 이을호 · 홍순용 역 | 주종천 보補

101, 102 르네상스 미술가 평전1, 2

조르조 바자리 저 | 이근배 역 | 최병진 감수

Olje Selections

01 한글논어 이을호 역 | 현암학술문화연구소 보補

02 국가 플라톤 저 | 조우현 역

03 조선경국전 정도전 저 | 한영우 역

04 햄릿 윌리엄 셰익스피어 저 |최재서 역

05 한글맹자 이을호 역 | 현암학술문화연구소 보補

06 훈민정음통사 방종현 저 | 이상규 주해

07 정치학 아리스토텔레스 저 | 라종일 역

08 도덕경 노자 저 | 이석명 역

09~12 수호지1~4 시내암 저 | 연변대학 수호지 번역팀 역

13, 14 열하일기1, 2 박지원 저 |이가원 역

15 명상록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저 | 황문수 역

16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요한 볼프강 폰 괴테 저 | 이인웅 역